



투르크학 인문 대사전 I

Encyclopedia of Turkic Humanities I



유라시아 투르크 연구소
Institute for Eurasian Turkic Studies
동덕여자대학교 Dongduk Women's University

투르크학 인문 대사전 I

Encyclopedia of Turkic Humanities I

오은경, 강덕수, 강인욱, 김근식, 김재윤, 김홍중, 박현도, 송경근, 양민지, 우덕찬, 이수정, 이양희,
이영희, 이은정, 이주연, 장주영, 조성금, 최선아, 추영민, 황영삼, Guzal Mihrayeva 공저



유라시아 투르크 연구소
Institute for Eurasian Turkic Studies
동덕여자대학교 Dongduk Women's University

■ 이 책은 한국연구재단 토대연구지원사업인 투르크 인문백과사전 DB 구축 (2018.7.1~ 2023.6.30, NRF-과제번호 2018SIA5B4060291)의 결과물이며, 그 연구비로 제작되었습니다.

투르크학의 새 지평을 열다

〈투르크학 인문 대사전〉은 투르크학(Turkology) 이해에 필요한 인문 분야 전 영역의 주요 개념들을 정리하고 집대성한 것이다. 투르크학은 유라시아 대륙을 발상지이자 근거지로 삼고 있는 투르크 민족들의 언어, 역사, 문화, 사회, 정치, 종교 등 인문·사회과학을 망라한 전 영역에 걸친 분야를 연구하는 종합적인 학문 분야이다. 투르크학의 지역적 범위는 러시아에서 중국, 중앙아시아를 지나 동서양이 만나는 튀르키예까지 하나의 벨트를 형성하기 때문에, 이른바 ‘투르크 벨트’라 불리기도 한다. 튀르키예를 비롯하여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러시아 연방 내 알타이·투바·하카스·사하·바시키르·타타르스탄 공화국 그리고 중국의 신장-위구르 자치구를 포함한다.

러시아에서 중앙아시아 그리고 튀르키예로 이어지는 이 광대한 투르크 언어·문화권은 과거 유라시아 초원 유목문화와 실크로드로 이어지는 지역으로 지정학적·지경학적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들 국가는 방대한 에너지 및 농업 자원을 바탕으로 빠르게 경제성장을 하고 있으며, 국제 정치와 경제 질서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투르크 지역에 대한 관심이 점증하는 것은 이런 정치·경제적 영향력의 확대 때문만은 아니다. 실크로드를 따라 형성된 유라시아 투르크 벨트 국가들의 인문학적 유산은 ‘다국적 문화유산’이라는 중요한 함의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초국경 및 초민족적’ 정체성 형성의 근거가 되는 문화적이며, 철학적 자산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대한민국은 투르크 벨트 국가들과 언어 문화적 좌표상에서 그 어떤 민족 집단보다 가까운 곳에 있다. 이른바 친연성(親緣性)을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유라시아 투르크 국가들과의 문화적 상호연관성과 언어·문화적 친연성을 규명하여 상호이해의 공감대를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 대한 인문학 연구의 확대 강화는 필수적이다. 한국문화의 원류와 실크로드 유라시아 투르크 국가들과의 문화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이를 정치·경제적 교류의 기반으로 활용한다면 중요한 국가적

자산이 될 것이다.

‘투르크 벨트’ 국가들이 지닌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투르크 인문학 연구는 아직 빈약한 상황이어서 투르크 문화에 관한 진일보된 연구는 물론, 일반인들은 기본 지식 습득조차 어려운 현실이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르크학 및 관련 인문 분야에 접근 가능한 ‘투르크학’ 인문사전이 필요하다.

〈투르크학 인문 대사전〉은 동덕여대 유라시아투르크 연구소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지난 5년간(2018년 8월~2023년 6월) 추진한 토대연구지원 프로젝트의 결과물이다. 필자가 연구책임자인 이 프로젝트는 ‘투르크인문 백과사전 DB 구축’이었다. 이 연구 프로젝트에는 국내 투르크학 연구자들을 총동원했고, 외국 연구진의 도움을 받아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DB를 구축했다. 이 과정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투르크 인문학에 대한 정보와 연구 공백이 적지 않았고, 투르크학 연구자들이 넘어야 할 편견과 인식 부족의 장벽도 높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노력과 많은 분들의 협력 속에 DB 구축이 이루어졌기에 DB 차원에만 머물게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예산을 아꼈고 DB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으로 만들어보려고 결심했다.

DB를 사전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은 원석을 보석으로 다듬는 연금술이었다. 그야말로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했다. 고통스러웠지만 사전을 만드는 인고의 시간을 견딜 수 있게 해 준 것은, 이 사전이 미약하나마 국내 투르크학의 정보 공백을 메우고, 우리 사회와 투르크 국가를 연결해주는 매개체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 때문이었다.

〈투르크학 인문 대사전〉은 투르크학 연구의 활성화는 물론이고, 연구자들과 기업 관계자, 시민들에게 투르크학 관련 주요 인문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정보 서비스는 향후 유라시아 투르크 국가들과 대한민국의 관계 발전 그리고 한국인들의 시야 확장에 기여할 것이라 믿는다. 이 대사전에서 다룬 투르크 인문학의 영역은 언어, 문학, 역사, 예술, 지리, 민속, 종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종이책과 pdf 전자책으로 출판되고 보급되는 이 대사전은 2,020개의 표제어로 총 8권, 4,000여 페이지의 분량으로 구성된 방대한 자료이다. 또한 이 대사전의 모든 내용은 〈NAVER 지식백과〉에서 정보 제공되어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기에 여러 어려움들도 감내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와 문제점 그리고 실수와 오류가 있다면, 그것은 모두 필자와 연구진의 몫이라는 것을 밝혀둔다.

‘한국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은 사전 작업을 수행하면서 커다란 은혜를 입었고, 마음의 빚을 지게

된 분들이 너무도 많다. 사전작업에 참여한 집필진은 물론 번역, 멀티미디어 자료수집, 감수에 이르기까지 국내는 물론 외국의 자문위원과 연구자 등 참으로 많은 분들이 기꺼이 도움을 주셨다. 누구보다도 'DB에 머물지 않고 사전을 발간하겠다'는 필자의 고집스러운 추진력에 두려움에 떨며 눈물을 흘렸던 최선아 박사, 장주영 박사, 구잘 미흐라예비는 포기하지 않고 작업을 함께 수행해주었다. 마침표를 찍는 순간까지 함께 해준 그들의 노력과 헌신은 따뜻하고 든든했다. 특히, 이 사전이 종이와 디지털로 그야말로 '사전'의 모습을 갖추고 세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편집과 교정, 교열, 디자인 영역에서 창의적인 제안은 물론 헌신의 노력을 다해주신 류수 박사님이야말로 <투르크학 인문 대사전>의 숨은 주역이다. 이 사전은 이렇듯 투르크학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존중해준 많은 이들의 고통과 인내의 결실이다. 사전이 발간될 수 있는 감격과 감동을 선물해준 모든 분들께 '소외 학문' 투르크학 연구자로서 오직 감사할 뿐이다.

이 대사전은 '한국 최초'이지만, 사실 '세계 최초'이기도 하다. 그 어느 나라에서도 '투르크학 인문 사전'은 아직 발간된 바가 없다. 앞서 대한민국의 투르크학 연구가 빈약하다고 했지만 그런 한국에서 <투르크학 인문 대사전>이 발간될 수 있다는 것은 한국 인문학의 저력이기도 하다. 이 대사전이 대한민국과 유라시아 투르크 국가들이 함께 펼쳐갈 미래를 밝혀줄 작은 등불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필자는 사전 발간에 참여한 모든 분들을 대신해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고 기도한다.

2023년 12월

모든 연구진과 집필진을 대표해서

연구책임자 **오은경** 씀

『투르크학 인문 대사전』 집필진 및 자문위원

대표 집필자 & 편집위원장

오은경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유라시아투르크연구소 소장

집필자

강덕수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어과 명예교수

강인욱 경희대학교 사학과 교수

김근식 중앙대학교 유럽문화학부 명예교수

김재윤 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김홍중 고려대학교 러시아CIS연구소 연구교수

박현도 서강대학교 유로메나연구소 대우교수

송경근 전 명지대학교 아랍지역학과 교수

양민지 부산외국어대학교 지중해지역원 HK교수

우덕찬 부산외국어대학교 터키·중앙아시아학과 교수

이수정 서강대학교 유로메나연구소 학술연구교수

이양희 한국외국어대학교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 특임강의교수

이영희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학과 특임강의교수

이은정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교수

이주연 경희대학교 한국고대사고고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

장주영 동덕여자대학교 유라시아투르크연구소 연구원

조성금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교수

최선아 동덕여자대학교 유라시아투르크연구소 연구원

추영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HK+ 국가전략사업단 HK연구교수

황영삼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

Guzal Mihrayeva(구잘 미흐라예바) 한국학 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국문학과 박사수료

집필 자문위원

Bədirxan Əhmədli(배드리한 애흐메들리) Baku Slavic University 교수

Əli Şamil(엘리 샤밀) Azerbaijan National Academy of Science 교수

Nükhət Okutan Davletov(누크헤트 오쿠탄 다블레토브) Cappadocia University 교수

Metin Turan(메틴 투란) KIBATEK(Cyprus, Balkans, Eurasia Turkish Literatures Organization) 회장

Vaqif Sultanlı(와기프 술탄르) Baku National University 교수

집필 · 멀티 미디어 · 표기법 자문위원

손영훈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어과 교수

연구석 한국외국어대학교 터키 · 아제르바이잔어과 명예교수

윤시내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 연구소 초빙연구원

Aziza Bekmatova(아지자 벡마토바)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인 전임교수

Jabbor Eshonqulov(잡보르 에손쿨로프) Literature Museum named after Alisher Navoiy 관장

Кайрат Жадьра(카이라트 자디라) L. N. Gumilyov Eurasian National University 교수

자료 번역

최정안 Erciyes University 박사수료

Leyla Masimli(레이라 마심리) 인하대학교 교육학 박사

일러두기

1. 한국어 표제어 및 인명, 지명, 용어 표기 원칙 및 예외

한국어 표제어 항목과 내용 안의 인명, 지명, 용어는 일반적으로 국립국어원 표기 원칙과 사전표기법위원회가 정한 외국어 표기법(튀르키예어, 아제르바이잔어, 우즈베크어, 카자흐어)에 준하여 표기하되 다음 사항을 예외로 한다.

1.1. 인명, 왕명, 지명은 소속 국가, 출신 국가, 해당 국가의 원어에 맞추어 최대한 국립국어원의 원칙에 따라 표기하되, 국내에 이미 널리 퍼져있거나 외교부에서 공인되어 사용될 경우 여기에 맞춘다.

- 〈예〉 앙카라(Ankara) : 튀르키예어 표기법에 따르면, '안카라'가 맞으나 '앙카라'로 표기
- 부하라(Buxoro) : 우즈베크어 표기법에 따르면 '부허라'가 맞으나 '부하라'로 표기
- 시바스(Sivas) : 튀르키예어 표기법에 따르면 '시와스'가 맞으나 '시바스'로 표기
- 튀르키예(Türkiye) : 튀르키예어 표기법에 따르면 '튀르키이에'가 맞으나 '튀르키예'로 표기
- 카라바흐(Qarabağ) : 아제르바이잔어 표기법에 따르면 '가라바그'가 맞으나 '카라바흐'로 표기

1.2. 왕조, 과거 국명, 조직이나 기타 용어는 최대한 원어 발음에 맞추거나 국립국어원의 원칙에 따라 표기하되, 국립국어원에서 정한 표기법이 없고 국내 학계에 이미 널리 사용되는 용어는 그에 맞춘다.

- 〈예〉 셀주크 조(Selçuklular) : 튀르키예어 표기법에 따르면 '셀츠크루라르' 혹은 '셀츠크 조'가 맞으나 '셀주크 조'로 표기
- 예니체리(Yeniçeri) : 튀르키예어 표기법에 따르면 '이에니체리'가 맞으나 '예니체리'로 표기
- 샤이바니 조(Şayboniylar) : 우즈베크어 표기법에 따르면 '샤이버니 왕조'가 맞으나 '샤이바니 조'로 표기
- 압바스 조(Abbasi) : 국립국어원 원칙으로는 '아바스 조'이나 '압바스 조'로 표기
- 칸국(汗國) : 국립국어원 원칙으로는 '한국'이나 '칸국'으로 표기
- 괩(gök) : 튀르키예어 표기법에 따르면 '괴크'가 맞으나 '괩'으로 표기

1.3. 우즈베크어로 된 인명의 한국어 표기의 경우, 사전표기법위원회가 정한 표기법에 따르면 Mahmud/Mahmut은 '마흐무트', Muhammad/muhammat는 '무함마트'로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기 위하여 각각 '마흐무드/마흐무트' '무함마드/무함마트'로 표기했다.

1.4. 인명 무함마드(Muhammad)는 튀르키예어 표기법에 따르면 '무함마드', 아제르바이잔어 표기법에 따르면 '무함마트', 우즈베크어 표기법에 따르면 '무함마트', 카자흐어 표기법에 따르면 '무함마트'이지만 모두 '무함마트'로 통일했다. 고유명사에 압드-(Abd-)가 들어갈 경우 튀르키예어, 아제르바이잔어, 우즈베크어 표기법에 따르면 '아브드-', 카자흐어 표기법에 따르면 '압드-'이나 모두 '압드-'로 통일했다. 예를 들면 'Abdulla'는 압둘라로, 'Abdülhamid'는 '압뿔하미드'로 어느 나라 말인지에 관계없이 표기했다.

1.5. 우즈베크인 인명 중 러시아어에서 차용된 인명은 그 어미가 -ov로 끝나는 경우 실제 발음은 '-오프'에 가까우나 원칙에 맞춰 '-어브'로 표기하였다.

* 여러 표기법으로 혼동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에서 독자가 다양한 방식으로 검색할 수 있게 했다.

2. 라틴 문자 표기

- 2.1. 라틴 문자 표기는 해당 표제어의 라틴 문자 표기를 말한다. 라틴 문자의 경우 최대한 원어 표기에 맞춘다.
- 2.2. 원어가 키릴 문자나 아랍 문자의 경우 라틴 문자 전사법에 맞추어 표기한다.
- 2.3. 표제어가 학술이나 이론, 개념, 이미 널리 알려진 용어 등의 경우 영어로 표기한다.
〈예〉 신붓값: Bride Price. 각종 투르크어 표기법에 따르면 kalın, qalın 등으로 표기되어야 하나 영어로 표기
- 2.4. 여러 투르크 사회가 공유되는 개념이 각 투르크어로 달리 표기되는 경우 집필자가 하나로 정하여 사용하되, 어느 나라 언어인지 내용에서 밝힌다.
- 2.5. 모스크, 마드라사, 미너렛 등과 같은 용어가 복합적으로 들어간 표제어의 경우 검색의 용이함을 위해 고유명사는 해당 언어로, 그 외 부분은 영어로 표기한다.
〈예〉 Süleymaniye mosque: 원어는 Süleymaniye camii이지만 검색과 이해의 용이함을 위해 Süleymaniye mosque로 표기

* 사용자가 라틴 문자 이외에 다른 문자로 검색해도 찾을 수 있도록 '다국어 표기'를 통해 검색의 용이성을 높였다.

3. 시대 구분

- 3.1. 기본적인 시대 구분은 다음과 같이 다섯 시기로 구분하여 표기한다.
B.C. ~ A.D. 1000년
A.D. 1000년 ~ A.D. 1500년
A.D. 1500년 ~ A.D. 1800년
A.D. 1800년 ~ 현대
기타
- 3.2. 시기 구분은 이슬람 역사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시대 구분법을 차용한 것으로 현대 투르크 인구 다수가 이슬람교를 믿는 것에 기반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 3.3. 시대 구간이 위의 시기 구분 여러 개에 걸쳐 있을 경우 통합하여 표기했다.
〈예〉 A.D. 1000년 ~ A.D. 1500년, A.D. 1500년 ~ A.D. 1800년
=> A.D. 1000년 ~ A.D. 1800년
- 3.4. 기타는 해당 표제어를 포함하는 시기가 불분명하거나, 시기가 필요 없는 이론, 여러 시기를 걸쳐 공유될 경우에 사용된다.

4. 지역 구분

4.1. 지역은 다음 다섯 지역으로 구분하여 표기한다.

- 북아시아
- 동아시아
- 서아시아
- 중앙아시아
- 기타

4.2. '기타'는 해당 표제어를 포함하는 지역이 불분명하거나, 지역 구분이 의미가 없을 경우, 유럽이나 아프리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등 제시된 지역 외의 지역을 구분할 때 사용한다. 캅카스는 서아시아에 포함했다.

5. 국가

국가는 해당 표제어의 내용이 존재하거나 사건이 발생한 대표 국가를 의미한다. 이 국가는 현대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표제어를 대표하는 국가를 표기함으로써 검색의 편의성을 위하여 표기한 것이지 절대적이지 않다. 예를 들어 '오스만 제국'과 관련한 표제어의 경우 현대 기준으로 튀르키예를 비롯하여 발칸 반도의 일부 국가, 북아프리카 일부 국가, 아랍 일부 국가를 포함할 수 있으나, 대표적으로 튀르키예만 표기하였다.

6. 유형

6.1. 유형은 언어, 문학, 역사, 예술, 지리, 민속, 종교 7개 항목으로 분류한다.

6.2. 유형이 중복될 수 있는 경우에는 대표적인 것 하나만 선택하여 작성했다. 유형 분류는 집필자의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거나 중점적으로 다루어지는 내용에 기반하여 정해졌다.

〈예〉 쉴레이마니이에 모스크의 경우 '종교' 유형과 '예술' 유형이 가능한데 '예술'로 분류했다.

6.3. 유형 소분류 1, 2는 유형의 하위 분류이다. 유형 소분류 1은 대체로 유형 소분류 2의 상위 항목이나, 아닌 경우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유형 소분류 2가 작성되지 않았다.

7. 집필자

집필자는 해당 표제어를 작성한 저자이며, 이 집필자가 2명 이상인 것은 공동집필한 것이다. 집필자 이름 옆에 표기된 '자문위원'은 해당 표제어를 작성하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한 해외의 학자들이다.

8. 멀티미디어 링크

멀티미디어 링크는 표제어와 관련된 멀티미디어 자료 링크이다. 다만, 이 링크는 인터넷상의 자료로 집필진이 작성한 자료는 아니다. 따라서 멀티미디어 자료의 저작 및 관리 책임은 해당 자료의 소유주에게 있으며, 소유주가 자료를 삭제한 경우 링크가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

9. 다국어 표기

다국어 표기는 해당 표제어의 외국어 표기를 말한다. 이 표기는 주로 투르크어(튀르키예어, 아제르바이잔어, 우즈베크어, 카자흐어 등)를 위주로 표기했으나 해당 투르크어가 확인되지 않거나 없는 경우에는 기타 다른 외국어로 표기했다. 다른 외국어는 러시아어, 중국어, 영어, 몽골어 등 표제어와 관련이 깊은 언어를 주로 제시했다.

10. 참고문헌

참고문헌은 표제어를 집필하는데 사용된 참고문헌으로 표기 방식은 저자의 의사를 따랐다. 인용하는 문헌들의 출판 국가가 다양하고, 참고문헌 표기법도 상이하여 통일된 표기 방식을 정하지 않았다.

온라인 참고문헌의 경우, 표제어를 집필하는데 사용된 온라인 문서로 경우에 따라 해당 링크에 연결된 문서가 소멸될 수 있음을 밝힌다.

11. 링크(link)의 연결

멀티미디어, 참고문헌(온라인) 등에서 파란색으로 표기된 부분은 PDF 전자책에서 누르면 해당 자료로 이동한다. 단, 소유주가 자료를 삭제한 경우 링크가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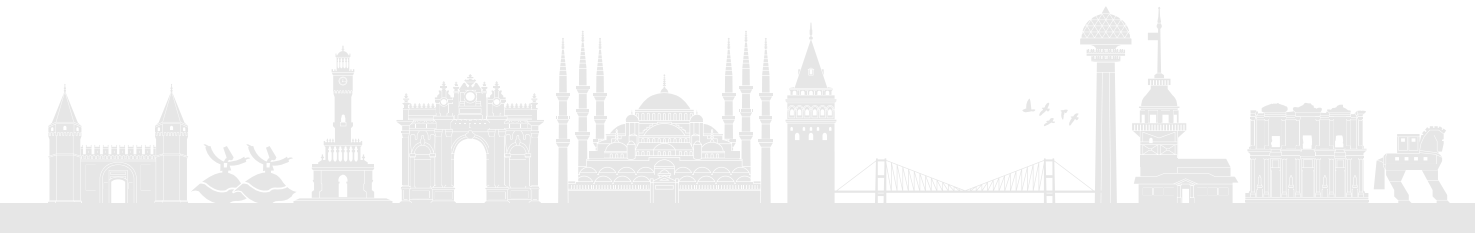
12. 사진 Source

Source를 별도로 밝히지 않은 사진은 유라시아투르크연구소나 연구진이 보유하고 있거나, 집필자 및 자문위원이 기증한 사진, RF123, Shutterstock 등에서 구입한 사진이다. Source를 밝힌 사진들은 저작권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UNESCO 등 공적 기구, 대학교, 연구기관, wikimedia 등 비영리단체, amazon 등 온라인 커머스 회사 자료들이다. 이 자리를 빌어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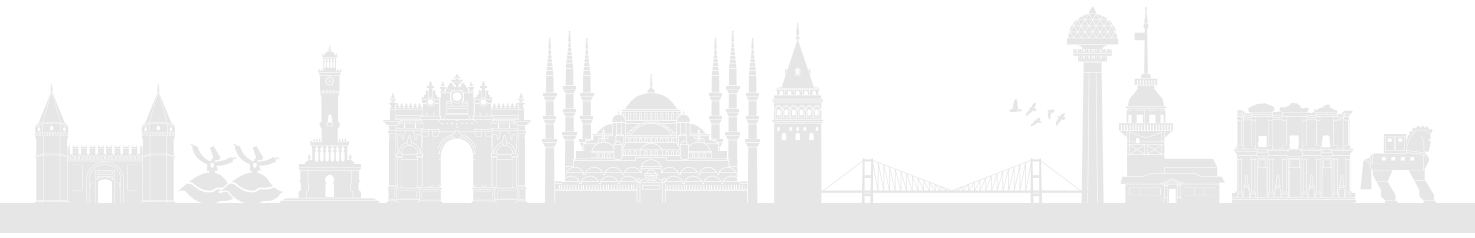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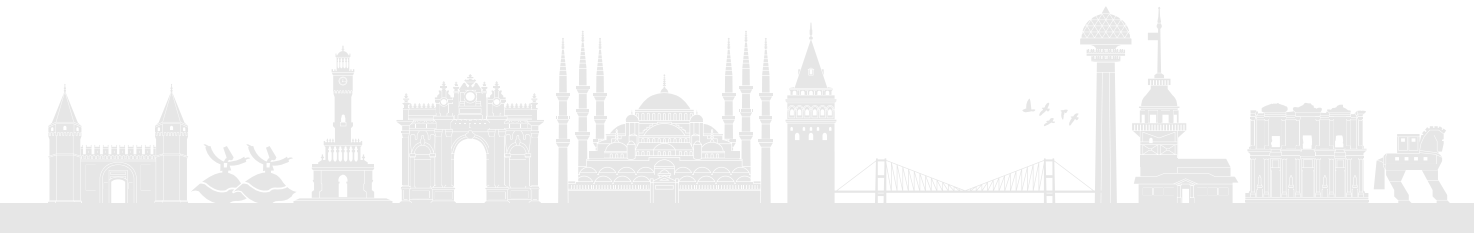
서문	003	I A021 간쑤 위구르	060
『투르크학 인문 대사전』 집필진 및 자문위원	006	I A022 갈라타사라이 스포츠 클럽	062
일러두기	008	I A023 갈리폴리 전투(겔리볼루 전투)	063
		I A024 강거	066
I A001 13세기 이전 투르크어원 사전	023	I A025 개트란 태브리지	067
I A002 1914 세대	024	I A026 캔재 칸국	068
I A003 1916년 중앙아시아 대중 봉기	025	I A027 거란	072
I A004 24장(홍노)	028	I A028 거리에 물을 뿌렸어(아제르바이잔 민요)	074
I A005 40과 관련된 민간신앙	029	I A029 거브쿠션 복합단지	076
I A006 SOV형	032	I A030 거우베이 무덤군	078
I A007 가가우즈어	033	I A031 거지 유누스	079
I A008 가라 가라예브	035	I A032 건축 도기 장식	081
I A009 가리프파 시 운동	037	I A033 검은 1월	083
I A010 가빛 무시레포프	041	I A034 검은 뼈대(카라 수이엑)	086
I A011 가이라타이	042	I A035 게르미안 공국	087
I A012 가자	044	I A036 게세르	089
I A013 가자왓나메	046	I A037 결혼 의례와 관련된 투르크 민간 신앙	090
I A014 가즈나 술탄 마흐무드 영묘	048	I A038 경사스러운 사건	092
I A015 가즈니 미너렛	049	I A039 고대 위구르 문자	095
I A016 가즈니 왕조	051	I A040 고대 킵차크 투르크어	097
I A017 가지	054	I A041 고대 투르크 신화	098
I A018 가파리아 영묘	055	I A042 고대 투르크어 대사전	099
I A019 가푸르 굴럼	057	I A043 고로클리	101
I A020 간다미운 조약	059	I A044 고르완 모도트 올	104



A045 고리 아미르	105	A069 권능의 밤	150
A046 고부스탄 암각화 문화경관	107	A070 권 아나	151
A047 고비 사막	110	A071 퀴위스탄 영묘	152
A048 고아 도브	112	A072 퀴위스탄 조약	154
A049 골 모드	113	A073 퀴위스탄의 시(詩)	156
A050 골루	115	A074 고티 찬다를르오을루	158
A051 곰 축제	116	A075 고티텐 아른	160
A052 공채관리국	117	A076 그것 말고, 이것	165
A053 공화인민당	119	A077 그랜드 바자르	166
A054 광란의 쿼르 강	121	A078 그리고리 칼킨	169
A055 콕테페	123	A079 그리스 독립 전쟁	171
A056 교착어	124	A080 그리스 정교회	173
A057 구람히세인 새이디	126	A081 금나라	174
A058 구밀료프	127	A082 금광명경	176
A059 구바 칸국	131	A083 기도용 깔개	177
A060 구바디아	133	A084 기련산	178
A061 구전 이야기	135	A085 나디르 샤	180
A062 쿨람르자 새브리 태브리지	138	A086 나르보타비	182
A063 쿨럼 자파리	140	A087 나마즈	184
A064 쿨루	142	A088 나마즈가흐 모스크(부하라)	186
A065 쿨리 비이	144	A089 나므크 케말	188
A066 쿨바단 배금	145	A090 나브루즈	192
A067 쿨체흐라 누를라예바	147	A091 나스렛딘 호자	195
A068 궁정학교	148	A092 나스릿딘벡	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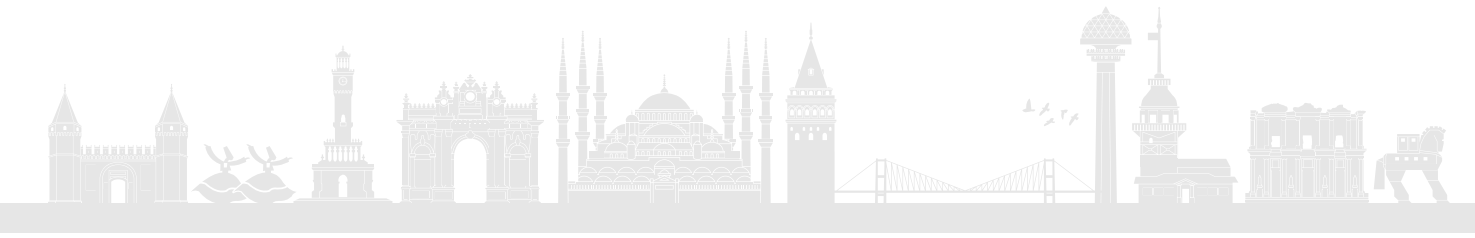
A093 나시하트나메.....	201	A117 네브жат 괴즈아이든.....	243
A094 나왕.....	203	A118 네오마타.....	244
A095 나우르즈 바타.....	204	A119 네이.....	246
A096 나우르즈 예슴.....	205	A120 네즈멧틴 에르바칸.....	247
A097 나이마.....	206	A121 네지프 아슴.....	248
A098 나이마 틀고이.....	208	A122 네지헤 메리츠.....	250
A099 나임 사이드.....	209	A123 네집 파즐 크사퀴레크.....	253
A100 나임 카리머프.....	210	A124 네페하틸 윈스.....	255
A101 나자르 본죽.....	212	A125 네흐첼 페라디스.....	256
A102 나자르바예프.....	214	A126 냄루트 유적.....	257
A103 나즈뭇딘 쿠브라.....	216	A127 노가이.....	260
A104 나즘 히크메트.....	218	A128 노가이어.....	261
A105 나지르 사파리프.....	223	A129 노가이인.....	262
A106 나흐잘 발라가.....	225	A130 노아의 방주.....	263
A107 나힐.....	227	A131 노용 올(노인 올라) 유적.....	265
A108 낙쉬반디.....	228	A132 노용 올 20호.....	268
A109 낙카슈 시난 베이.....	230	A133 녹색과 관련된 민간 신앙.....	269
A110 낙카슈 오스만.....	232	A134 누란.....	271
A111 낙카슈 하산.....	233	A135 누렛딘 제르라히.....	272
A112 낙카시하네.....	234	A136 누롤라흐 야타츠.....	273
A113 너디르무함마드 칸.....	236	A137 누르알리 커불.....	276
A114 너르무르드 나르줄라예프.....	237	A138 누번.....	278
A115 너스르 퍼질러프.....	239	A139 누스레티이에 모스크.....	279
A116 너지마허님.....	241	A140 누투크.....	2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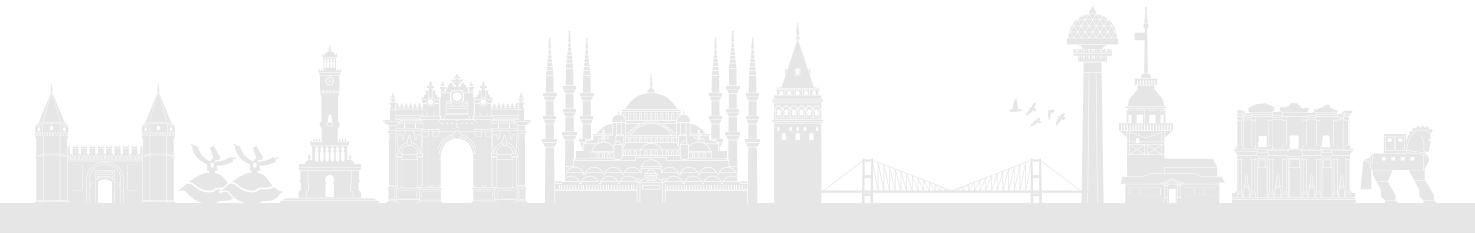
A141 누흐팅 암 유적.....	283	A165 다룰퀴눈.....	322
A142 뉘샤배 애새드 엠매들리.....	284	A166 다르한 유적.....	324
A143 뉘스래트 캐새맨리.....	286	A167 다마취안거우 무덤군.....	325
A144 늑대 토템.....	288	A168 다비도바.....	326
A145 니가리.....	289	A169 다스탄(투르크 민족 일반).....	328
A146 니사.....	290	A170 다스탄(아제르바이잔).....	329
A147 니사푸르.....	292	A171 다야하튼 카라반사라이.....	331
A148 니샨즈.....	294	A172 다을.....	333
A149 니야 유적.....	295	A173 다이바.....	335
A150 니자미 깐재비.....	296	A174 다프.....	336
A151 니자미야.....	298	A175 다허고성.....	338
A152 니잠 알 몰크.....	300	A176 단단칸 전투.....	339
A153 니즈니 망기르토이.....	302	A177 담간 미너렛.....	340
A154 니코폴리스 십자군 전투.....	303	A178 대 크즈 칼라.....	342
A155 니콜라이 알렉산드로비치 바시카코프.....	304	A179 대래벤트 칸국.....	343
A156 니콜라이 올라가세프.....	307	A180 대방광불화엄경.....	346
A157 니콜라이 표도로비치 카타노프.....	308	A181 대완.....	347
A158 니할 앳스즈.....	309	A182 대훈란의 시대.....	348
A159 다게스탄 공화국.....	312	A183 더스툰(우즈베키스탄).....	350
A160 다니쉬멘드나메.....	313	A184 더훈다.....	353
A161 다니쉬멘드 왕국.....	314	A185 데데.....	354
A162 다니엘.....	316	A186 데레스투이.....	356
A163 다다한 누리이.....	317	A187 데르가흐.....	357
A164 다달오올루.....	318	A188 데르비쉬.....	358



A189 데르틀리.....	360	A213 돌마바흐체 모스크	405
A190 데브시르메.....	364	A214 돔브라.....	407
A191 데스탄(튀르키예).....	366	A215 동(東) 라드칸 영묘	408
A192 데이으쉬마.....	369	A216 동(東) 튀르키스탄 이슬람 운동.....	409
A193 데프테르다르.....	371	A217 동북.....	411
A194 데히스탄 금요 모스크	372	A218 동헤이거우 유적.....	413
A195 델리 술탄.....	374	A219 동호.....	414
A196 도둔자.....	376	A220 되네르 영묘.....	415
A197 도롱파랍.....	377	A221 두료니 유적.....	417
A198 도르릭 나르스.....	378	A222 두르순 약참.....	418
A199 도말락-아나	379	A223 두만 선우.....	422
A200 도스주스렌.....	380	A224 두아.....	423
A201 도안 약산.....	381	A225 독치 예산.....	424
A202 도이두.....	384	A226 돌가드르.....	426
A203 독립 튀르키예 정교회 총대주교청	385	A227 둠비라.....	427
A204 독창적인 기계 장치의 지식에 대한 책.....	387	A228 둠간	428
A205 돈황.....	389	A229 드라고만.....	429
A206 돌(바위/암석) 신앙	391	A230 디가론 모스크.....	431
A207 돌간어.....	394	A231 디리 바바 영묘	433
A208 돌간인.....	395	A232 디바나.....	435
A209 돌궐.....	396	A233 디브리이 대 모스크	436
A210 돌궐 문자(궐투르크 문자)	399	A234 디슈 헤디.....	438
A211 돌르가 올.....	400	A235 디야르바크르 성벽.....	439
A212 돌마바흐체 궁전	402	A236 디완 으 휘마운	442



A237 디유 페리에.....	444	A261 레브니.....	481
A238 디야르바크르 대 모스크.....	445	A262 레샤트 누리 컨테킨.....	483
A239 라르스 요한슨.....	447	A263 레야야.....	486
A240 라마잔.....	449	A264 레오니드 크질라소브 하카스 국립 지역학 박물관.....	488
A241 라마잔 궁국.....	451	A265 레이쉴렛타브.....	489
A242 라마잔 바이람.....	452	A266 레일리와 매즈눈.....	491
A243 라바티 말리크.....	454	A267 레파일.....	494
A244 라샹 하드.....	456	A268 레판토 해전.....	495
A245 라쉬카리 바자르.....	457	A269 레흐체이 오스마니.....	497
A246 라요스 리게티.....	458	A270 로잔 조약.....	499
A247 라우프 파르피.....	460	A271 롬노르.....	501
A248 라이움베크 바트르.....	461	A272 롬노르어.....	502
A249 라일라라르.....	462	A273 루멜리 히사르.....	504
A250 라티프 아시르 아주도을루.....	464	A274 루스탐.....	506
A251 라파르.....	465	A275 룰루비.....	509
A252 람즈 버버전.....	467	A276 룬 셀주크.....	510
A253 랍구지이.....	468	A277 퀴스탐 파샤 모스크.....	512
A254 랍반 바르 사우마.....	469	A278 르파트 엘가즈.....	515
A255 래술 르자.....	471	A279 리드완 베이.....	519
A256 래와엣.....	473	A280 리바.....	520
A257 러시아-오스만 전쟁(1768년~1774년).....	474	A281 리바트(1768년~1774년).....	521
A258 러시아-부하라 조약(1868년).....	476	A282 리바티 마히.....	523
A259 러시아-오스만 전쟁(1877년~1878년).....	477	A283 리바티 샤라프.....	524
A260 레기스탄.....	480	A284 리파이 종단.....	526



투르크인문사전 DB 구축 연구용역 개요	529
집필진 및 자문위원 소개	532



제1권 A001 13세기 이전 투르크어원 사전 ~ A284 리파이 종단

제2권 B001 마고키 아타리 모스크 ~ B284 밀레트

제3권 C001 바기르의 검 ~ C150 빌헬름 피터 그윈베크

제4권 D001 사가이 ~ D215 심판의 날

제5권 E001 아가 ~ E256 얼림 칸

제6권 F001 에게해 분쟁 ~ F270 잉판 유적

제7권 G001 자디드운동 ~ G348 킵차크어파

제8권 H001 타가르 문화 ~ H310 히스랏

I A001 | 13세기 이전 투르크어원 사전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기타 ● 나라 영국 ● 유형 언어 ● 유형 소분류1 서적 ● 유형 소분류2 사전
- 집필자 장주영 ● 라틴 문자 An Etymological Dictionary of Pre-Thirteenth Century Turkis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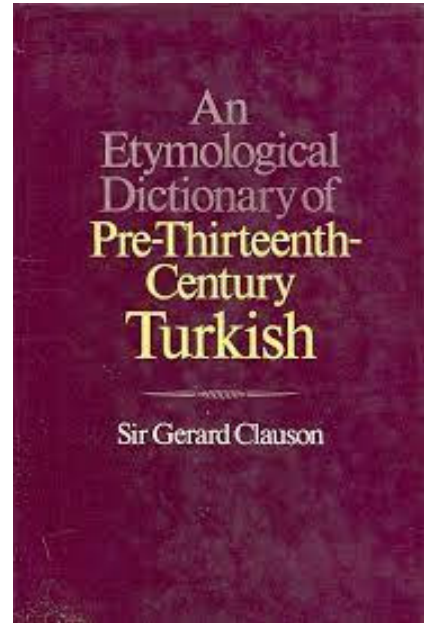
『13세기 이전 투르크어원 사전』은 제라드 클라우슨이 저술한 투르크어 어원 사전이다. 제라드 클라우슨은 그의 일생 절반을 알타이학 연구, 특히 투르크 문헌학과 어휘학에 공헌했다. 이 책은 1972년 옥스포드 대학 출판사에서 출판되었으며, 출판됨과 동시에 투르크학 연구의 초석이 되는 기본서로 자리 잡았다.

그는 초기 투르크어의 텍스트를 기반으로 중세 투르크어, 현대 투르크어의 인용문을 참조로 추가했으며, 사전에는 투르크어 이외의 차용어, 외래어도 함께 제공된다.

사전의 표제어는 일반적인 알파벳 순서가 아닌, 코드 문자로 페이지 상단에 배치된다. 각 코드는 그룹 내에서 단음절 또는 음절자 등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A, E는 모음(a, e, o, ö, u, ü, ı, i)을, B는 b, p, v 음가를, C는 c, ç 음가를, D는 d, đ, t 음가를, Ğ는 ğ, k, x 음가를, G는 g, k 음가를, N은 n, ŋ, ñ 음가를 대표한다. 이외의 L, M, R, S, Ş, Y, Z는 음가 그대로 코드로 반영된다. 모음의 경우 어두음가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코드에서 삭제된다.

예를 들어 표제어 evriş-는 dis. V. ABR-로, 표제어 amtı는 Dis. AMD로 항목화하여 해당 페이지에 수록했다.

사전의 표제어는 장모음과 단모음이 구분되어 나타나지는 않지만 코드화 된 표제어들은 알파벳 순서에 따라 배열된다.



『An etymological dictionary of pre-thirteenth-century Turkish』 표지

- 다국어 표기 An Etymological Dictionary of Pre-Thirteenth Century Turkish(영어)

● 연관 검색어 제라드 클라우슨

● 참고문헌(오프라인) Clauson, G., An etymological dictionary of pre-thirteenth-century Turkish. Oxford: Clarendon Press, 1972.

I A002 | 1914 세대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미술 ● 유형 소분류2 세대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1914 Kuşağı

1914 세대(1914 Kuşağı) 또는 찰르 세대(Çallı Kuşağı)는 튀르키예에 최초로 인상주의를 도입한 일련의 화가들을 일컫는 말이다.

오스만 제국 때 세워진 미술 학교인 사나이이 네피세 맥테비(Sanayi-i Nefise Mektebi)에서는 1910년에 유학을 위한 시험을 개최했고, 시험을 통과한 학생들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로 유학을 가게 된다. 그들은 제1차 세계 대전 때 오스만 제국으로 귀국했고, 유학 시절 겪었던 미술 양식, 즉 인상주의를 바탕으로 작품 활동을 하게 된다. 이브라힘 찰르(İbrahim Çallı)로 대표되는 이들 그룹은 이른바 튀르키예 인상주의를 만들어낸다. 이미 유럽에서는 인상주의의 영향력이 힘을 잃어가던 시기였지만, 튀르키예 미술에서는 새로운 양식이었다.

1914 세대는 젊은 시절 격변하던 오스만 제국 말기를 겪었으며, 유럽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던 오스만 함디 베이(Osman Hamdi Bey)나 알리 르자 베이(Ali Rıza Bey)와는 또 다른 바탕으로 작품 활동을 한다. 특히, 초상화와 이스탄불 풍경이 주요 소재였다.

비엔나 전시회와 베를린 전시회를 위해 전쟁과 영웅화를 그릴 목적으로 엔베르 파샤(Enver Pasha, 1881년~1922년)가 만들어 준 시슬리 아틀리에(Şişli Atölyesi)에서 작품 활동을 했다. 시슬리 아틀리에에서 활동하던 화가들은 비엔나 전시회 이전에는 1917년 갈라타사아리 고등학교에서 적신월(Hilal-i Ahmer, 이슬람 국가에서의 적십자)의 지원으로 개최된 전쟁을 주제로 한 전시회(Harp Levhaları)에 참여하기도 했다.

1914 세대에 포함되는 주요 화가로는 루히 아렐(Ruhi Arel), 페이하만 두란(Feyhaman

Duran), 히크멧 오나트(Hikmet Onat), हु세인 아브니 리프지(Hüseyin Avni Lifi), 나즈미 지이아 귀란(Nazmi Ziya Güran), 알리 사미 보이아르(Ali Sami Boyar), 나므크 이스마일(Namık İsmail), 사미 이에티크(Sami Yetik)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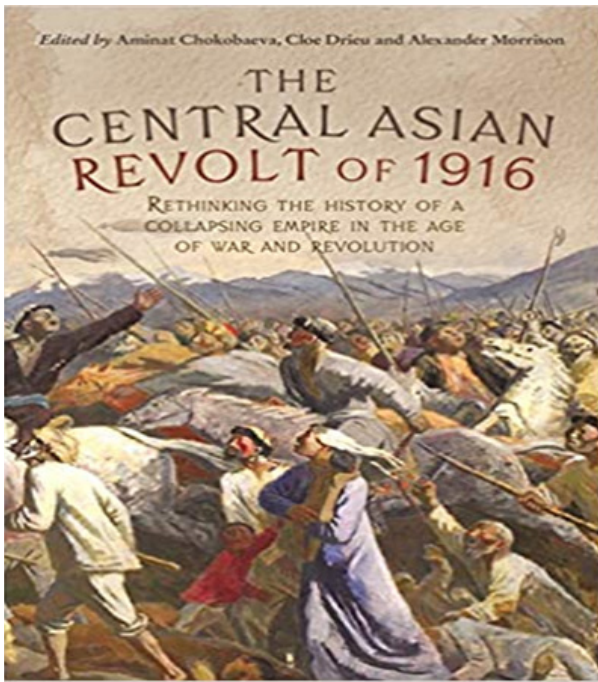
튀르키예 공화국 건국 후에는 건국 초기 개혁 정책을 주요 주제로 작품 활동을 활발하게 펼친 1914 세대는 오스만 제국 시대 회화 미술의 주류였던 아카데미즘을 벗어나 인상주의를 소개하는 것으로 튀르키예 현대 미술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1914 쿠샤으, 1914 쿠삭
- 다국어 표기 1914 Kuşağı(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엔베르 파샤, 오스만 함디 베이, 알리 르자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kultur.istanbul/gorsel/2021/05/ibrahim-calli.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Başkan Seyfi, Başlangıcından Cumhuriyet Dönemine Kadar Türklerde Resim, Ankara:Atatürk Kültür Merkezi, 2009.

I A003 | 1916년 중앙아시아 대중 봉기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미술
- 유형 소분류2 세대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Central Asian Revolt of 1916

러시아는 제1차 세계 대전에서 소진된 러시아 제국 병력을 식민지에서 충당할 계획이었다. 1916년 6월 25일 러시아 황제 니콜라스 2세는 투르키스탄, 시베리아, 캅카스 지역에서 19세~43세의 남성을 동원하는 법령을 발표했다. 투르키스탄 총독은 즉시 법령을 시행하여 시르다리아 지역에 87,000명, 사마르칸트에 38,000명, 페르가나에 50,000명을 징집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징집령은 원칙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빈부 차에 의하여 징집령을 회피하는 등 일련의 사건이 발발했다. 1916년 7월 4일 후잔드에서 이 징집령에 반발하여 봉기가 발생했다. 또한, 이미 1910년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토지 제도, 세금 정책, 종교 갈등, 차별 등과 같은 러시아



『The Central Asian Revolt of 1916』(Manchester University Press) 표지

의 식민 정책에 대한 반발심이 쌓이고 있던 상태였다. 즉, 징집령이 봉기의 촉발점이 된 것은 사실이나 이미 그 내부의 불만이 누적되어 있었던 것이다. 후잔드에서 발발한 봉기에는 다양한 시민으로 구성된 약 3천여 명이 참여했으며 이 시위대는 러시아 군에 의해 진압당하여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 사건을 시작으로 투르크스탄 전역에 봉기의 움직임이 퍼지기 시작했다. 7월 5일 사마르칸트 우르구트 마을에서 약 2천여 명의 농민이 볼로스트 법원 앞에서 법원 관리를 폭행했다. 같은 날 사마르칸트 시요부, 호자 아흐러르 및 안가르 지역에서 봉기가 이어졌다. 7월 11일 타슈켄트에서 대

규모 봉기가 발생했고 장인, 노동자, 빈민, 교외 농민들이 베쉬요고치 경찰서로 향했다. 이들은 행정부를 공격했으나 진압군에 의해 5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와 유사한 시민 봉기대와 군대의 충돌은 인근 지역으로 퍼져 나가며 계속되었다. 1916년 7월 13일 지작 지역 주민은 사령관과 장로에게 징집 명단을 요구했다. 시위대는 장로를 살해했고, 관공서를 파괴하고 징집 명단을 불태웠다. 이들은 새로운 도시로 진격했고 진압군과 반군의 충돌로 양측 모두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전화선, 석유 탱크, 각종 건물, 철도 교량, 레일 등이 파괴되거나 철거되었다. 지작 봉기는 더욱 많은 봉기를 불러일으켰다. 바그단 지역에서 압두라흐몬 제와치가 이끄는 세력과 시민들이 지작을 향해 행진했다. 7월 21일 지작 근처에서 반군과 진압군이 충돌했고 반군은 진압되었으며 압두라흐몬 제와치와 호지에산이 체포되어 사형 선고를 받았다. 지작 봉기를 진압하기 위해 투르크스탄 총독은 이바노프 대령이 이끄는 13개의 중대를 파견했다. 진압군은 반란을 진압하고 지작 시민들은 사막으로 추방을 당했다. 지작 봉기 사건으로 1,000명이 체포되며 151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봉기의 움직임은 멈추지 않고 투르

키스탄 전역에 퍼지게 된다. 약 30,000명의 러시아 군인이 투입되어, 사마르칸트, 시르다리아, 페르가나를 비롯한 여러 지역의 봉기를 진압했고 9월 말 세미레치예 지역과 1917년 1월 자카스피 지역에서 마지막 봉기가 진압되었다. 이 과정에서 키르기스스탄과 카자흐스탄의 지역민이 중국 등지로 도피하기도 했다. 1916년 12월 13일 제4차 러시아 국회에서 알렉산더 케렌스키는 “전선에 새로운 전선인 투르키스탄 전선이 추가되었다.”라고 상황의 심각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며 지역민과 러시아인의 분리 정책을 주장했다. 투르키스탄 총독은 황제에게 러시아 군인 97명 사망, 86명 부상, 76명 실종, 러시아 관리 7명 사망, 러시아 민간인 2,325명 사망, 1,384명 실종이라고 보고했다. 그러나 총독은 투르키스탄에서 잔인하게 살해된 수만 명의 현지인에 대해서는 보고하지 않았다. 현지인의 사망자 수는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아서 학자에 따라 몇만 명에서 수십만 명에 이르기까지 달리 추정하고 있다.

1916년 중앙아시아 대중 봉기는 식민주의자 세력을 약화시켰고 러시아인 거주민과 중앙아시아인 사이의 균열을 촉발시켰다. 중앙아시아인에게 저항 정신을 심어주었고, 동시에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 러시아의 식민 정책 방향을 결정하게 하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1916년 중앙아시아 민중 봉기

● **다국어 표기** O'rta osiyo qo'zg'oloni(우즈베크어), 1916 Orta Asya Ayaklanmasi(튀르키예어), Ürkün(아제르바이잔어), Yркүн 1916–жыл(키르기스어), Среднеазиатское восстание 1916 года(러시아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Usmonov, Q., M. Sodiqov, S. Burxonovam, O'ZBEKISTON TARIXI, Tashkent, 2006.

d'Encausse, Helene Carrere. "The Fall of the Czarist Empire", Central Asia, 130 years of Russian dominance : a historical overview (ed: Edward Allworthpp), Durham,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1994, pp.207~223.

I A004 | 24장(흉노)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몽골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조직 ● 유형 소분류2 국가구조
● 집필자 우덕찬 ● 라틴 문자 State Formation of Hsiung-nu

사마천의 『사기』에 따르면, ‘24장(二十四長)’은 흉노의 국가 구조를 지칭한다. 흉노 제국의 최고 군주는 선우(單于)라고 불렸다. 이 말의 기원은 분명치 않으나 ‘광대한 모양’을 뜻한다. 또한 흉노인들은 선우를 칭할 때 탕리고도선우(撐犁孤塗單于)라고 했는데, 탕리와 고도는 각각 ‘하늘’과 ‘아들’을 의미했다고 하니, 그 권위가 하늘에 의해 부여된 것이라는 주장이 담겨 있다. 흉노 제국의 영역은 중앙과 좌방, 우방으로 크게 구분된다. 선우가 중앙을 직접 통치하고 좌방에는 좌방왕장들이, 우방에는 우방왕장들이 배치되었다. 이러한 삼분 체제는 후일 다른 유목 국가에서도 공통적으로 보인 현상이다. 선우의 근거지라고 할 수 있는 선우정은 운중과 대군을 마주하는 곳에 두어졌고, 좌방왕장들은 동방에 위치하여 상곡을 마주하며 예맥과 고조선에 접했으며, 우방왕장들은 서방에 위치하여 상군을 마주하며 월지, 저, 강 등과 접했다. 흉노의 영역은 고비 사막 남북의 초원을 모두 포괄했지만, 한 무제와의 전쟁이 터지기 전까지는 그 중심지가 내몽골 지방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사기』에 따르면, 선우를 도와 흉노의 최고 지배층을 이룬 왕장들로는 좌·우현왕, 좌·우록리왕, 좌·우대장, 좌·우대도위, 좌·우대당호, 좌·우골도후 등 ‘24장(長)’이 있었다. ‘만기(萬騎)’라고도 불린 이들 24장은 각각 ‘분지(分地)’를 갖고 있었으며 휘하에 천장, 백장, 십장, 비소왕, 상봉, 도위, 당호, 저거 등의 속료를 두었다. 여기서 ‘분지’는 이들 24장에게 속하는 유목민들이 계절 이동을 하며 거주하는 영역을 가리킨다.

만약 ‘만기’라고 불렸던 24장이 문자 그대로 각각 1만 명의 기병을 동원할 수 있었다면 흉노 제국 전체의 병력은 24만 명이 되겠지만,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후일 몽골 고원을 통일한 칭기즈 칸 휘하에 95개의 천호가 조직되었을 때에도 그 기마 전사의 총수가 10만 명을 넘지 못했다. 흉노의 전체 인구가 한나라의 큰 현 하나에도 미치지 못한다거나 하나의 군보다도 적다는 당시의 기록이 있으며, 한 문제의 문신 가의는 흉노의 궁사가 6만 명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의거한다면 흉노의 인구는 30만 명에서 많아야 50만~60만 명을 넘지 못했을 것이며, 선우가 동원할 수 있었던 흉노의 기마 병력도 10만 명을 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따라서

목특이 한 고조를 포위할 때 30만 명의 군사를 동원했다는 것은 심한 과장으로 볼 수밖에 없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흉노 24장

● 다국어 표기 二十四長(중국어)

● 연관 검색어 흉노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fqAx6Eg2R28>

● 참고문헌(오프라인) Atlas of World History.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Xiongnu People”. britannica.com. Encyclopædia Britannica.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11 March 2020. Retrieved 25 July 2015.

Hyun Jim Kim, “2 The So-called ‘Two-Hundred year Interlude’”. The Huns. Routledge, 2015.

Grousset, Rene, The Empire of the Steppes. Rutgers University Press, 1970.

Maenchen-Helfen, Otto The World of the Huns (1 ed.). UC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3.

Zhang, F; Ning, C; Scott, A; et al., “The genomic origins of the Bronze Age Tarim Basin mummies”. Nature. 599 (7884), 2021.

I A005 | 40과 관련된 민간신앙

- 시기 기타 ● 지역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북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러시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신앙 ● 유형 소분류2 수
- 집필자 양민지 ● 라틴 문자 Folk beliefs about 40

숫자 40은 튀르키예, 알타이, 중앙아시아 및 중동 신화와 민속 문화뿐만 아니라 이슬람 신앙에서도 신성한 숫자이다. 투르크 문화권에서 사십(40)은 성숙, 완전성, 힘과 강함, 많음을 설명하는 데 주로 사용된다. 『현자 코르쿠트의 서』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사십 일, 사십 밤낮, 사십 개의 음식들’ 등과 함께 ‘영웅의 피로연이 사십 일 동안 계속되었다, 사십 명의 비무슬림 적들이 몰려왔다, 사십 명의 조력자 소녀의 도움을 얻었다, 영웅에게는 사십 명의 조력자가 생겼다.’ 등의 표현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투르크 설화와 민담에서는 ‘사십 년 동안 잠을 잔 수도사들, 사십 명의 도둑, 사십 년 혹은 사십 일을 잠을 자는 용’ 등 숫자 사십이 자주 등장한다. 투르크 문화권에서 사십은 한국어의 수일, 수십, 수백, 수천을 대신하는 숫자라고 할 수 있다. 또한, 1072년

~1074년 마흐무드 알 카쉬가리에 의해 집필된 중세 투르크어-아랍어 대사전 『고대 투르크어 대사전(Divanü Lugati't Türk)』에서는 ‘qırq yılda bay çıgay tüzlinür. 사십 년이면 부자와 가난한 이가 하나가 된다. 그동안 죽음이 찾아오거나 시절이 변하기 때문이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를 통해 투르크 문화권에서는 사십(qırq)이라는 단어가 시간의 길이가 깊을 설명하는 속담이나 표현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대 튀르키예어에도 사십은 자주 등장한다. 특히, 일상생활과 관련된 표현에 자주 등장하는데 일례로 ‘Bir fincan kahvenin kırk yıl hatırı vardır. 한잔의 커피에는 사십 년의 추억이 깃들여 있다’가 있다. 전통적으로 사십이 완전함, 많음을 의미했기 때문에 민속에서도 사십 혹은 사십 번은 주술적 행위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특정 목적으로 이슬람 성인의 묘당이나 신성한 장소로 여겨지는 곳을 방문하는 경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성스럽다고 여겨지는 장소나 묘당 주위를 사십 번 돌거나 그곳에서 사십 번 원하는 바를 빌거나 말하면 이루어진다고 믿기도 했다.

이 밖에도 사십은 출산과 관련하여 여러 금기가 전해 온다. 튀르키예에서는 갓 출산한 여성을 로후사(loghusa)라고 부르는데, 출산 후 사십 일까지의 산모를 일컫는다. 이 기간에는 산모의 정신적, 육체적인 건강에 신경을 쓰며 외부로부터 받을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산모를 보호하고 출산을 축하하는 다양한 의례와 민속 행위가 있다. 튀르키예에서는 이 기간과 관련하여 ‘산모(로후사)의 무덤은 사십 일 동안 열려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만큼 이 기간의 산모는 출산으로 인해 육체적으로 병에 취약한 상태에 있으며, 따라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여겨졌다. 출산한 여성은 3일, 7일, 10일 길게는 20일까지 자리에 누워 몸을 추스른다. 또한, 난산을 겪었거나 주위에 산모를 돌봐줄 사람이 있다면 이 기간은 더 오래 지속된다. 출산한 여성은 가족과 주위 사람들로부터 보호받고 귀하게 여겨지며, 가족들은 산모의 휴식을 위해 도움을 주고자 한다. 만약, 출산 후 산모와 아이가 사십 일 이내에 병이 들거나 아프게 되면 이를 ‘크룩 바스마스(Kırk Basması)’라고 한다. 출산 후 산모와 아이의 보호와 돌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출산/출생 후 사십 일 동안에는 잡귀나 나자르(nazar)-사안(邪眼), 사시(邪視)를 비롯하여 외부인의 출입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과 병을 막기 위해 노력하며, 이를 위해 민간에서는 다양한 행위와 의례가 행해진다. 이러한 행위와 의례를 일컬어 크룩라마(Kırklama)라고 부른다. 한국의 세이레(삼칠일)에 해당하는 크룩 바스마스 기간에는 산모와 아이의 바깥출입을 금하며, 부정한 곳에 다녀온 이의 출입도 금한다. 그뿐만 아니라 크룩 바스마스 기간에 있는 다



민간신앙에 담긴 40일이 되기 이전의 아이에 대한 특별한 보호 의식

른 산모와 아이와의 만남도 피한다. 출생 후 40일 안에 아이가 부정한 기운에 사로잡히면 아이의 얼굴이 노랗게 되거나 이유 없이 아프거나, 마른다가나 혹은 생기가 없어진다고 믿는데, 이를 막기 위한(혹은 이러한 것들로부터 치유되기 위한) 방법과 금기 행위로는 아이의 옷, 속/겉싸개는 바깥에 널지 않기, 방문객이 오면 붉은 천으로 아이의 얼굴을 가리기, 밤중에 밖에서 들어온 사람(가족)은 산모와 아이의 곁에 가지 않기, 산모의 방에 촛불이나 램프를 켜두기, 불(씨), 이스트, 소금, 식초, 빵을 집 밖으로 내보내지 않기 등이 있다. 투르크 문화권에서 사십은 출생뿐만 아니라, 죽음과도 관련 있는 숫자이다. 투르크 문화권에서는 영혼이 육신을 떠나는 것을 죽음이라 인식했는데, 영혼이 육신을 떠난 지 사십 일이 지나면 저승에 이른다고 하여 완전한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믿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숫자 40과 관련된 민간신앙, 성수(聖壽) 40에 관련된 민간신앙

● 다국어 표기 Kırk ile ilgili türk inanışlar(튀르키예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Altun, Erman. Türk Halkbilimi, Kitapevi yay, İstanbul 2009.

Günay Ünver. Güngör Harun. Türklerin Dini Tarihi. Berikan yay, Kayseri. 2015.

İnan, Abdulkadir. Tarihte ve Bugün Şamanizm, Türk Tarih Kurumu, Ankara 1986.

Ögel, Bahaeddin, Türk Mitolojisi I-II, Türk Tarih Kurumu, Ankara 2010.

Roux, Jean-Paul, Türklerin ve Moğolların Eski Dini, (Çev. Aykut Kazancıgil),Kabalıcı yay, İstanbul 2001.

I A006 I SOV형

- 시기 기타 ● 지역 기타 ● 나라 기타 ● 유형 언어 ● 유형 소분류1 언어현상 ● 유형 소분류2
- 집필자 장주영 ● 라틴 문자 SOV(Subject-Object-Verb)

SOV란 언어 유형학에서 주어(S)-목적어(O)-동사(V)의 순서로 구성된 언어들을 가리킨다. 대표적으로 한국어, 몽골어, 튀르키예어(투르크어), 일본어 등 교착어가 SOV형 언어에 속한다. SVO형 언어인 인도-유럽어, 중국어에 비해 어순이 자유로워 문장의 통사적 안정도가 낮다.

SOV형 언어는 대체로 후치사 언어이다. SVO형 언어는 ‘동사-전치사-목적어’처럼 전치사를 동사와 목적어 사이에 수반하여 나타내지만 SOV언어는 후치사를 사용하여 문장을 구성한다.

대표적인 SOV형 언어인 투르크어 역시 후치적 특성을 가진 첨가어여서, 명사나 동사의 뒤에 수반되는 접사와 어미 등이 다양하게 발달되어 있다. 다음 현대 튀르키예어 예문을 보자.

Kuş kafes+ten kaç-tı. 새(가) 새장+탈격어미(+DAn) 도망가-과거시제어미(-DI)

위 문장에서 접사로서 탈격어미(+DAn)는 체언(명사: Kafes)의 뒤에 오며, 과거시제어미(-DI)는 동사의 어간(kaç-) 뒤에 오는 통사적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주어-목적어-동사 형

● 다국어 표기 SOV(Subject-Object-Verb)(영어)

● 연관 검색어 모음 조화

● 참고문헌(오프라인) 이익섭, 채완, 『국어 문법론 강의』, 學研社, 2000.

I A007 | 가가우즈어

● 시기 기타 ● 지역 기타 ● 나라 몰도바 ● 유형 언어 ● 유형 소분류1 분류 ● 유형 소분류2 언어명
● 집필자 장주영 ● 라틴 문자 Gagauz Language

오늘날 가가우즈인들의 대부분은 몰도바 공화국의 가가우지아에서 거주하고 있다. 그들은 11세기 이후에 등장했다고 전해지지만, ‘가가우즈’라는 이름은 18세기가 되어서야 각종 문헌과 기록 속에 발견된다.

가가우즈어는 튀르크어 분류 체계에 의하면 튀르크멘어, 아제리어, 튀르키예어가 속해 있는 남쪽, 남서부 그룹에 속하며 민족 측면에서 보았을 때 그들은 오구즈 튀르크 그룹에 속한다. 가가우즈어는 그 주변국들의 언어인 페체네크, 쿠만 및 불가리아 우즈(uz) 튀르크어의 특성도 함께 지니고 있다.

셀주크 튀르크 족 중 한 그룹이 도브루자(Dobruca)에 정착하면서 시작된 민족의 이동은 오스만 제국의 이을드름 베야지드(Yıldırım Bayezid)의 가가우즈국을 점령할 때까지 계속되었으며, 술탄 메흐멧 집권 당시 발칸반도의 통치로 인하여 절정을 이루었다. 그 시기 가가우즈어에 오스만 문화와 함께 아랍어와 페르시아어 어휘가 유입되었다.

19세기에는 이민족들에 의하여 러시아어, 불가리아어, 루마니아어 등 여러 문화들의 영향력이 확대되어 가가우즈어를 동화시키기 위한 경쟁이 시작되었다. 더불어 지배 언어인 러시아어의 영향력으로 인하여 가가우즈어의 기본적인 표현 논리와 문장 순서 자체에 혼란이 오기 시작했고, 이에 위기를 느낀 가가우즈인들은 20세기 초 가가우즈어를 문어로 확고히 정립하려는 노력을 시도한다. 오늘날의 가가우즈어는 음성학, 형태학 및 구문 측면에서 슬라브어와 서양 언어들로부터 기인한 어휘들의 강력한 압력과 압박 속에서 그 존재를 확고히 한 튀르크 방언이라 할 수 있다.



몰도바 공화국 가가우지아

2004년 가가우지아 인구 조사에 따르면 총 155,646명의 가가우즈인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몰도바 외에도 불가리아 북동부, 우크라이나 및 중앙아시아 등지에서도 가가우즈인들을 만날 수 있다. 가가우지아가 1995년 자치구 지위를 획득함으로써 가가우즈인들은 공공장소에서 가가우즈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가가우즈어는 1919년부터 1957년까지는 그리스 문자를, 1957년부터는 키릴 문자를, 1996년부터 현재까지는 라틴 문자를 사용하여 표기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가가우즈 언어, 가가우즈 말
- 다국어 표기 Гагауз дили, Гагаузча(가가우즈어), Gagavuz dili, Gagavuzca, Gagauz Dili, Gagauzca(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투르크멘어, 아제리어, 튀르키예어, 가가우즈, 바이에지드 1세, 메흐메트 2세
- 참고문헌(오프라인) Özkan, N. Gagavuz Türkçesi Grameri (Vol. 657). Atatürk Kültür, Dil ve Tarih Yüksek Kurumu, 1996.

I A008 | 가라 가라예브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아제르바이잔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음악 ● 유형 소분류2 인물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Bədirxan Əhmədli) ● 라틴 문자 Gara Garayev

아제르바이잔의 위대한 작곡가 가라 가라예브(Gara Garayev)는 1918년 2월 5일 바쿠에서 태어났다. 그는 바쿠(Baku)에서 유명한 의과 대학 교수였던 애빌패즈 가라예브(Əbülfəz Qarayev)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아제르바이잔 국립 음악 아카데미 산하 음악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1925년에 피아니스트 교육자인 블라디미르 코즐로프를 알게 됐다. 그 후 그는 그 학교에서 피아노를 전공했으며 담임 교사는 게오르기 사로베인(Georgi Şaroyevin)이었다. 1935년에는 국립 음악 아카데미 작곡과에서 레오볼드 루도르프(Leopold Rudolf)의 가르침을 받았다. 아카데미에서 공부하는 동안, 아제르바이잔의 유명한 작곡가인 위제이르 하즈베예프(Üzeyir Hacıbəyov)에게서 민속 음악 교육을 받았다. 그는 차이코프스키 모스크바 국립 음악 아카데미(P.Çaykovski adına Moskva Dövlət Konservatoriyası)에서 수학했으며, 드미트리 소스타코비츠(Dmitri Şostakoviç)로부터 작곡을 배웠다. 1946년 졸업 후 그는 구소비에트 작곡가 연맹의 사무총장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그는 ‘소비에트 민족 예술가’(1959년)와 ‘사회주의 노동 영웅’(1978년) 칭호를 받았다. 그는 1982년 5월에 모스크바에서 사망했으며, 가라예프 음악 학교, 지하철역, 아제르바이잔 국립 챔버 오케스트라(Azerbaijan State Chamber Orchestra)가 그의 이름을 기리고 있다.

그의 첫 작품은 합창단, 교향악단, 댄스 앙상블을 위해 작곡된 것으로, 래술 르자(R.Rza)의 시 「마음의 음악(Könül mahnısı)」에 곡을 붙인 것이었다. 그는 음악적으로 다각적인 장르의 창작을 했다. 그는 위제이르 하즈베예브가 심어준 민족정신에 힘입어 1965년에는 아제르바이잔 최초로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 3중주곡으로 연주된 아시옥(aşıq) 음악 양식의 교향곡인 「아시옥사야그(Aşıqsayağı)」를 작곡했다. 아시옥은 전통적인 소리꾼을 말하는 것으로, 아제르바이잔 구전 시 문학의 오래된 장르 중 하나이다. 시에 노래를 붙여 소리꾼 아시옥이 연주하는 형태이다. 그는 평생에 걸쳐 오페라는 두 작품만을 만들었는데, 「고향」(Vətən, 1945)과 「우아함(Zəriflik, 1972)」이다. 그의 발레 중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품으로는 「일곱 미인(Yeddi gözəl,

1952)», 「번개치는 길을 따라(İldırımly yollarla, 1958)», 「레이리와 매즈눈(Leyli və Məcnun, 1969)」 등이 있다. 그는 주로 합창단, 솔로리스트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콘타타 및 오라토리오(oratorios), 오케스트라 교향곡들을 작곡했다. 또한 조곡(suites)과 뮤지컬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영화 음악을 작곡하기도 했던 그는 작품을 통해 동양과 서양을 융합을 시도했다. 그는 논문과 발표를 통해 “이러한 융합으로 동서양의 충돌이 아닌, 민족 문화의 상호 작용을 표현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그의 작품은 인간의 영성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며, 고전 작품과 현대 문학 작품을 모두 아울렀다. 아제르바이잔의 교향곡과 실내악(chamber instrumental music)의 신세대적인 발전은 모두 그의 영향을 받았다. 주요작으로 「카스피해 뱃사람들 찬가(Xəzər dənizçiləri haqqında dastan)», 「동향 출신 두 남자(Bir məhəlləli iki oğlan)», 「먼 해변에서(Uzaq sahillərdə)», 「베트남(Viyetnam)」 등과 같은 영화들을 위해서도 작곡했다. 그가 극작품을 위해 작곡한 음악은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겨울 동화(Qış nağılı)», 나잠 히크메트(Nazım Hikmet)의 「이상한 사람(Qəribə adam)」 등이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가라 가라예프

● 다국어 표기 Кара Караев(러시아어), Gara Garayev(영어), Gara Garayef(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아제르바이잔, 바쿠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en.trend.az/azerbaijan/society/2817469.html>

● 참고문헌(오프라인) Караев Кара Абульфаз оглы // Большая совет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в 30 т.] / ред. ил. А. М. Прохоров – 3-е изд. – М.: Совет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1969.

I A009 | 가리프파 시 운동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Metin Turan) ● 라틴 문자 GARİP ŞİİR HAREKETİ

1930년대 튀르키예는 역사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는 시기였고 이는 문학에도 반영되었다. 시 분야에서는 상당히 격렬한 논쟁이 있었는데 한쪽에서는 향토 시인(memleketçi)들이 다작하며 왕성한 활동을 펼쳐 나갔고 다른 한쪽에서는 사회주의 시인 나즘 히크메트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가리프파 시 운동의 주역들
Source: <https://www.turkedebiyati.org/>

오르한 벨리(Orhan Veli)와 멜리흐 제브데트((Melih Cevdet), 옥타이 르파트(Oktay Rifat)가 등장하기 이전인 1935년에 페리둔 파즐 툴벤치(Feridun Fazıl Tülbentçi)가 펴낸 『대전(大戦) 이후 시인들 1918-1935(Büyük Harpten Sonrakiler 1918-1935)』이라는 시 선집에 젊은 시인들의 작품이 대거 실리자 음절(Hececiler) 시인 1세대 대표 주자인 오르한 세이피(Orhan Seyfi), 유수프 지야(Yusuf Ziya), 할리트 파흐리(Halit Fahri)는 “자신들을 이어나갈 다음 세대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한탄했다. 이에 베흐체트 케말(Behçet Kemal), 야샤르 나비(Yaşar Nabi), 아흐메트 무히프(Ahmet Muhip), 지야 오스만(Ziya Osman), 제브데트 쿠드레트(Cevdet Kudret), 자히트 스트크(Cahit Sıtkı), 외메르 베드렛틴(Ömer Bedrettin) 등 음절 시인 2세대는 “1세대 업적은 아루즈 대신 음절 사용을 정착시키고, 시어를 단순화시킨 것밖에 없다. 그나마 이제는 역할을 못 하고 있고, 영향력도 없었다.”라며 강력하게 맞섰다.

여기에 나즘 히크메트를 따르는 일ahami 베키르 테즈(İlhami Bekir Tez)와 에르쥬멘트 베흐자드 라브(Ercüment Behzad Lav)와 같은 산문시인까지 편을 들고 나서면서 논쟁은 더욱 불이 붙었다.

당시 튀르키예 정부는 권리와 자유가 제한된 단일 정당 체제였고, 세계 정세는 2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기 직전이어서 그야말로 혼란 그 자체였다. 이 시기 튀르키예 문단에는 시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이 양립했다. 가리프파(Garipçiler)라고도 불리는 1세대 혁신주의자(Birinci Yeniciler)들은 ‘시(詩)란 인생을 담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아틸라 일한(Attila İlhan)은 ‘시인은 사회 문제를 언어화하는 이상주의자’라고 정의했다.

1937년부터 1950년까지 튀르키예 시의 주류를 형성한 시인 3명이 활동을 시작한 것은 앙카라 남자 고등학교의 교지 편집부에서 잡지 <우리의 목소리(Sesimiz)>를 만들면서부터였다. 아직 고등학생이었고, 나이도 어리고 문학에 대한 연륜도 부족한 이들 3명의 시가 1936년 <와르륵(Varlık)>에 차례로 게재됐다. 이때 편집장 야샤르 나비는 “뜻을 함께하는 세 시인이 창작 활동을 공유하는 것은 의미 있다”라고 강조하며 작품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덧붙여 게재했다. 1941년에 그들이 발간한 시집과 동인 활동 ‘가리프(Garip)’를 세상에 알리게 된 것이다.

‘1세대 혁신파(Birinci Yeni)’ 오르한 벨리(Orhan Veli)가 시집 『가리프』의 머리말에 활동 선언문을 작성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람들은 지금까지 시(詩, 말하기 예술)를 구어와는 다른 것으로 생각했다. 여기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당연하게까지 여기게 되었다. 결국 사람들은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시를 쓰려는 시도를 ‘이상하게(garip)’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2. 전통적으로 우리는 시의 기본 요소를 운율과 각운이라고 생각했고, 두 가지를 혼동하기도 했다. 그런데 실상 운율과 각운은 시를 쉽게 암송하려고 사용했던 것들이다. 미학적 가치는 없다. ‘조화(Harmony)’라는 측면에서 운율과 각운이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아무 의미가 없다. 조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간결한 언어이다. 이것을 배제하고 시의 조화를 말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3. 운율과 각운은 시인의 감성과 생각마저 지배한다. 자연스러운 언어 구조에 변형을 주고 적절한 사용과 흐름을 방해한다.
4. 단어 나열과 그것으로 의미를 만드는 예술은 자연을 변화시키고 파괴하는 이성을 사용하여 행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수많은 시인이 등장해서 수천 개 비유를 사용했는데 거기에 몇 개 더 새로운 비유를 추가한다고 해서 문학적 성과가 있는 것은 아

니다.

5. 문학사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형식의 변화는 ‘어색함’을 받아들이면서 시작되었다. 가장 변화하기 어려운 부분이 취향과 본질에 관계된 변화이다. 부르주아지, 종교, 봉건 계급의 노예가 되어온 시는 지금까지 사회 지배 계급에게 호소했다. 새로운 시는 소수가 아니라, 다수 노동 계급의 취향을 반영해야 한다. 그렇다고 계급이 필요하다고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그들이 예술을 향유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것은 새로운 방식과 도구를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 특정 이데올로기를 지금까지 알려진 패턴으로만 표현한다면 더 이상 돌파구는 없다. 근본적으로 구조를 바꿔야 한다. 오래된 문학적 관행은 모두 버릴 필요가 있다. 우리의 창작 활동을 제한하는 언어는 버려야 한다.
6. 각 예술 분야에는 그에 맞는 고유한 특성과 표현 수단이 있다. 시(詩)가 음악과 그림 예술을 모방한다면 제대로 된 예술이 아니다. 시를 시로 만드는 것은 표현 방법이며, 이것이 의미를 만든다.
7. 사조나 학파를 나누는 것은 시작(詩作)에 장애가 된다. 새로운 사조는 또 하나의 한계를 만들기 때문이다. 시의 한계와 제한을 없애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할 임무 중 하나이다. 모든 규칙과 원칙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언어의 순수함과 간결함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잠재의식을 표현해야 한다.
8. ‘가장 순수하고 단순한 형태의 시는 인간의 경외심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상징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무엇을 건드려야 하지만 ‘의식이 아닌 상태’라는 개념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의도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은 초현실주의다. 얼마나 고차원적 예술가인지는 얼마나 자연스럽게 순수하게 무의식을 표현해내는 데 성공하는가에 달려 있다.
9. 시는 단어와 구절의 모음이다. 그러나 시적 아름다움은 단어나 구절이 아니라 단어의 의미론적 연결과 유기적 통일성에서 비롯된다. 불행하게도 시 전통에서 단어는 말하기와 사용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전통적 시의 또 다른 특징은 단어를 특정한 방식으로 말하고, 그것이 시어(詩語)의 분위기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시적(詩的)’이라고 한다. 이런 방식으로는 제대로 된 시(詩)가 무엇인지, 시적

(詩的)인 것이 무엇인지 논할 수 없다. 그래서 시에 새로운 언어사용 방식을 도입하려는 것이다. 기존 시 전통 전부, 특히 ‘시적’ 견해를 뒤집을 필요가 있다.

가리프파의 활동이 뜸해졌을 때는 사람들이 세계 2차 대전에 시달리고 있을 때였다. 시인 세 명 모두 군대에 징집되었다. 군 복무 기간에는 문학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고, 활동들에 대한 열의와 토론도 점점 식어갔다. 이런 거리감이 더 커진 것은 시인 세 명이 독립적으로 활동했던 이유도 있다. 1945년 오르한 벨리가 『포기하지 못한 것(Vazgeçemediğim)』이라는 제목으로 시집을 발표했고 『가리프』의 개정판도 출간하게 되었다. 개정판을 선보이면서 서문에 시인 세 명의 시적 견해도 달라졌다는 것을 밝혔다.

“가리프는 1937년 앙카라에서 시작하여 다양한 활동을 했다. 그러다 1948년 말 앙카라에서 위기를 맞이했다. 이 마지막 위기는 시인 세 명이 문예지 <잎사귀(Yaprak)>를 발간하면서 생겨났다.”

1946년 선거 이후 등장한 새로운 정치 구조는 가리프파는 물론 지식인과 예술가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선거 이후에 멜리흐 제브데트와 오르한 벨리(Orhan Veli)가 다니던 번역원이 중요성을 잃고 전체주의적 관점이 지배하면서 지식인들을 제거하기 시작했다. 오르한 벨리는 번역원을 그만두었고 출판 부서에서 근무한 멜리히 제브데트 안다이는 허드렛일을 맡게 되었다. 오르한 벨리는 1948년 새로운 무리와 함께 문예지 <잎사귀>를 발행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가리프 운동을 시작한 시인 세 명 외에 마흐무트 디케르DEM(Mahmut DikerDEM), 네자티 주말르(Necati Cumalı), 아리프 디노(Arif Dino), 베드리 라흐미 에이위보을루(Bedri Rahmi Eyüboğlu), 파즐 휘스뉘 다알라르자(Fazıl Hüsnü Dağlarca), 자히트 오르가트(Cahit Irgat), 누스레트 흐즈르(Nusret Hızır) 등이 합세했다.

가리프파 시 운동을 주도했던 오르한 벨리 카늬는 1950년 9월 초 앙카라를 방문했다가 하수관을 정비하는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나면서 뇌출혈이 일어났고, 1950년 11월 14일 이스탄불에서 세상을 떠났다. 옥타이 르파트와 멜리흐 제브데트 안다이는 1952년 이후에도 자신의 문학에 대한 소신과 세계관에 맞추어 작품활동을 이어나갔지만, 1세대 혁신파-가리프 시 운동은 오르한 벨리의 사망으로 일단락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가림파 활동, 가리프파 활동, 가리프주의 운동, 가리프 시운동
- 다국어 표기 FIRST NEW MOVEMENT(영어), GARİP ŞİİR HAREKETİ(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오르한 웰리 카르크, 가리프파, 이스탄불
- 참고문헌(오프라인) İlhan Attila, *Gerçekçilik Savaşı*, Yazko Yayınları, İstanbul. 1980.
Sazyek Hakan, *Cumhuriyet Dönemi Türk Şiirinde Garip Hareketi*, Türkiye İş Bankası Yayınları, 1996.
Taşçioğlu Yılmaz, *Türk Şiirinde Bir Garip Adam Orhan Veli Kanık*, Beykoz Belediyesi Yayınları, İstanbul, 2004.
Tülbentçi Feridun Fazıl, *Büyük Harpten Sonrakiler 1918-1935*, Ulus Basımevi, Ankara, 1935.

I A010 | 가빋 무시레포프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카자흐스탄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황영삼 ● 라틴 문자 Gabit Makhmutuli Musirepov

가빋 무시레포프는 현재는 카자흐스탄 영토이지만 1902년 당시 제정 러시아령이었던 악몰린스크 주의 좌나졸에서 출생하여 1985년에 사망할 때까지 소비에트 카자흐 작가이자 비평가로서 활동했다. 무시레포프는 1923년부터 1926년까지 오렌부르크에 있는 노동자 학교에서 수학했고 이어서 옴스크의 농업경제 대학에서 공부했다. 졸업 후 여러 신문과 잡지사에서 편집인으로서 활동하면서 다양한 글들을 쓰는 일에 종사하게 되었다. 독일과의 전쟁이 끝난 후 무시레포프는 카자흐 작가 동맹 회장을 두 차례(1956년~1962년, 1964년~1966년) 역임했고, 1959년에는 소



가빋 무시레포프 탄생 100주년 기념주화
Source: <https://url.kr/ydxukf>

련 작가 동맹 서기로 일한 바 있다. 공산당원이었고 소련 최고 소비에트 의원으로도 활동했으며 1974년에는 사회주의 노동 훈장의 영예를 얻었다. 1985년에 카자흐 공화국 과학아카데미 정회원이 되면서 학자로서도 가장 높은 명예를 얻었다. 무시레포프의 다양한 글들은 34개

의 외국어로 번역되었으며 대부분은 러시아어로 발표되었다. 그의 주요 소설 작품은 『카자흐 병사(Kazakh Soldier, 1949)』, 『깨어난 지방(The Awakening of the Region, 1953)』, 『울판(Ulpan)』 등이 있고, 『크즈-쥬백』을 비롯한 다수의 극작품도 썼다. 2002년에는 작가의 탄생 100주년을 맞이하여 50텡게 기념 주화가 발행될 정도로 카자흐스탄 사회에서 차지하는 무시레포프의 위치는 높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가빗 무시레포프, 가빗 무시레포브, 가비트 무시레포프
- 다국어 표기 Габит Махмұтұлы Мүсірепов(카자흐어), Габит Махмутович Мусрепов(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카자흐 문학가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rgZm1aHL600>
- 참고문헌(온라인) https://dbpedia.org/page/Gabit_Musirepov
- 참고문헌(오프라인) Казахстан. Национальн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т. 4, Алматы, 2006.

I A011 | 가이라티이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Guzal Mihrayeva ● 라틴 문자 G'ayratii

가이라티이(본명: 압두라힘 압둘라 오글리, Abdurahim Abdulla o'g'li)는 소비에트 시대의 대표적인 우즈베크 작가로 꼽힌다. 그는 1902년 타슈켄트의 데르게즈(Dergez)에서 태어났다. 그는 1912년부터 1915년까지 구식 학교와 마드라사에서 공부했으며, 이 기간 동안 나비이이(Navoiiy), 무키미이(Muqimiy), 푸르캣(Furqat)의 작품을 접하게 된다. 가이라티이는 10월 혁명 이후 타슈켄트에서 교사 양성 과정을 이수한 이후 교육 기관에서 근무했다.

1926년 그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공부했으며, 이후 바쿠에서 돌아와 타슈켄트 극장에서 문학 조교로 근무했다. 1929년부터 1931년까지는 우즈베키스탄 국립 출판사에서 편집자 및 부서장을 맡았다.

그의 대표작은 <붉은 깃발(Qizil Bayroq)> 신문사에서 1921년 출판된, 그의 첫 시 작품 「어린이의 주간(Bolalar haftasi)」이다. 1927년에는 그의 첫 시집 『자유의 목소리(Erk tovushi)』을 펴냈고, 이어서 시집 『생명의 노래(Yashash Taronalari, 1928)』와 단편집 『탈출(Qutilish, 1928)』 등을 출간했다.

가이라티이(G'ayratii)는 1930년대에 문예창작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는데, 당대 이데올로기를 표현한 시 「템퍼(Temp, 1932)」, 위구르족의 불행한 과거를 그린 시 「어머니께 보내는 편지(Onamga xat, 1935)」, 「사랑(Sevgi, 1939)」, 「젊음의 황금기(Oltin yoshlik)」 등은 독자들 사이에 널리 알려졌다.

가이라티이(G'ayratii)는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민족주의 혐의로 기소되어 작가연맹에서 퇴출되었다. 이후 그는 자신의 이념성을 정당화하기 위해 함자(Hamza), 푸르캣(Furkat) 및 자브키의(Zavqi)에게 헌정하는 작품들을 집필했다.

가이라티이(Gayratii)는 1972년에 우즈베키스탄 ‘국민시인’이라는 칭호를 받았으며, 1976년 1월 22일 세상을 떠났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가이라티

● 다국어 표기 G'ayratii(우즈베크어), Гайрати(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아제르바이잔, 바쿠, 타슈켄트, 우즈베키스탄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rl.kr/bgnuyk>

● 참고문헌(온라인) <https://arboblar.uz/uz/people/gajrati>

● 참고문헌(오프라인) Mamajonov S. G'ayratii: adabiy portret. Toshkent: G'afur G'ulom nomidagi Adabiyot va san'at nashriyoti, 1973.

Sobir Mirvaliyev, O'zbek adiblari, Toshkent: Fan, 1993.

Aminov va boshqalar. O'zbekiston milliy ensiklopediyasi. Toshkent: O'zME Davlat ilmiy nashriyoti, 2000-2005.

I A012 | 가자

- 시기 기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개념
- 집필자 이은정 ● 라틴 문자 ghaza

가자는 이교도를 대상으로 하는 무슬림의 싸움을 의미한다. 원래 이 개념은 아랍어의 가주(ghazw)에서 유래했는데, 이것은 아랍 유목민의 소규모 약탈전을 의미했으며 약탈의 목적이 상당히 전제되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된 가즈와라는 단어는 특히 예언자 무함마드가 이교도들에 대해 수행한 정복전에 많이 쓰였고, 이에 따라 후대에 비무슬림 지역에 대한 정복전 혹은 약탈전을 가자(ghaza)라고 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가자를 수행하는 전사를 '가지'라고 불렀으며 가지 집단의 예는 일찍이 9세기~10세기 중앙아시아의 이교도 투르크인을 상대로 전쟁을 많이 벌였던 이란계 사만 왕조 시대부터 나타났다. 오스만 왕조의 초창기였던 13세기와 14세기 아나톨리아에서 역시 많은 소규모 공국(beylik)의 군주들이 가지 칭호를 취했고, 투르크 부족민 출신의 전사들이 아나톨리아와 발칸반도 내의 기독교인 세력을 공격할 때 이는 흔히 '가자'로서 정당화되었다. 오스만 왕조의 초대 군주 오스만 1세와 제2대 군주 오르한의 시대에 '가지'라는 칭호가 공식적으로 채택되었는지는 불확실하지만, 이들이 넓은 의미에서 '가자'의 정서가 지배적이었던 아나톨리아의 맥락에서 벗어나 있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단, 이 당시 '가자'의 개념은 15세기 경부터 이슬람 정통의 관점에 껴맞춰 왕조를 현창한 오스만 관변 역사가들이 생각했던 것과 같이 종교적으로 경직된 것이었다고는 볼 수 없고, 여러 공국들 중에서도 오스만 왕조의 가자에 대한 태도는 특히 유연했던 것으로 보인다. 오스만 왕조 초기의 대 이교도 정책은 매우 유화적인 것이었고, 오스만 집단에는 흔히 일시적인 것이었지만 비잔티움계나 십자군 계열의 기독교인 가신들과 동맹들이 있었으며, 오스만 왕조는 무슬림 왕조를 공격해서 병합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 심지어 오스만 왕조에 속한 유명한 가지 가문들 중 상당수는 원래 기독교인이었다가 개종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다 보니 오스만 국가가 수행했던 기독교 세력들에 대한 정복전을 '가자'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20세기 초에 발표되어 1980년대까지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져 왔던 파울 비텍(Paul Wittek)의 '오스만 제국 건설의 원동력은 이슬람 성전사 가지들의 종교적 열정이었다'는 설은 루디 폴 린드너(Rudi Paul

Lindner)와 히스 라우리(Heath Lowry) 등에 의해 크게 비판받았다. 전리품을 효과적으로 배분한 것이 더 중요한 성공 요인이었고, 오스만 집단 안에 기독교인 전사들이 많았다는 사실이 반론으로 제기된 것이다. 사실 오스만 집단의 초창기를 다룬 사료들을 보면 가자와 아큰(튀르키예어로 약탈)은 서로 거의 바꿔 쓸 수 있을 정도로 의미가 비슷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상당수의 학자들은 이와 같은 가자의 실리적인 측면을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당시의 아나톨리아 공국들이 가자에 전혀 종교적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초창기의 가자는 많은 무슬림 전사들을 효과적으로 불러모으는 구심점이 되어 있었고, 그러한 종교적 의미 부여가 비무슬림 전사들을 배제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예컨대 제말 카파다르스 변방의 무슬림 전사(가지)들의 종교적 정서는 정통 교리에 대한 인식이 희박하여 무슬림 정체성의 경계가 불명확하고 비무슬림을 쉽게 포용했던 것으로 보았다. ‘가자’와 그것을 수행하는 ‘가지’의 관념은 오랫동안 오스만 제국의 상무적인 자기 이미지를 형성하는 중요한 부분이었다. 승전이 드물어진 오스만 제국 후반기 술탄들은 (비록 자기가 직접 참전하지는 않더라도) 전투의 승리를 통해 ‘가지’라는 칭호를 얻는 것을 열망했고, 이 가지라는 칭호는 무스타파 케말에게도 주어졌다. 또한 현대에 와서는 ‘가지’라는 말은 단순히 참전 용사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 **다국어 표기** Gaza(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가지

● **참고문헌(오프라인)** Gabor Agoston, *Encyclopedia of the Ottoman Empire*, pp.231~232.

Cemal Kafadar, *TDV İslam Ansiklopedisi*, Vol. 13, pp.427~429

I A013 | 가자왓나메

- 시기 기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세밀화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Gazavatname

가자왓(Gazavât)은 전쟁이라는 의미의 가자(gazâ)의 복수형으로 일반적인 전쟁을 비롯하여 종교적인 적과 싸우는 전쟁인 지하드(cihad)의 의미로도 사용된다. 이와 함께 문서를 의미하는 페르시아어 나메(name)와 결합하여 전쟁을 기록한 문학과 세밀화 장르를 일컬어 ‘가자나메(gazânâme)’ 또는 ‘가자왓나메(gazavatnâme)’라고 한다.

가자왓나메는 투르크 문학에서 일반적으로는 만쭈ם(manzum) 스타일로 작성되나 메스네비(mesnevi) 형태로도 작성된다. 승리를 기록하는 ‘자페르나메(zafernâme)’나 ‘페티흐나메(fetihnâme)’도 이와 유사하며 명칭 자체는 저자의 선호에 따라 달라진다.

가자왓나메는 셀주크 시대부터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는 학설도 있으나, 당시의 전쟁 기록물과는 달리 오스만 시대에는 특정 전쟁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한다는 면에서 다르다. 일반적으로 가자왓나메에는 인물 하나를 내세워 그 주변을 묘사하면서 전쟁을 기록하게 된다.

가자왓나메는 세 종류로 나누어지는데, 첫째는 술탄이 나섰던 전쟁을 묘사한 작품, 둘째는 재상이나 유명한 장군이 출전한 전쟁을 다룬 것, 셋째는 특정한 장소나 성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 형식을 갖춘 것 등이다.

가자왓나메의 첫 번째 작품은 15세기에 등장했는데, 16세기 셀림 1세(I. Selim, 재위: 1512년~1520년)와 쉴레이만 1세(I. Süleyman 재위: 1520년~1566년)의 원정을 중심으로 더욱 많이 작성된다. 이 장르는 오스만 제국의 쇠퇴와 함께 줄어들기 시작한다. 마지막 예는 1853년 크림아반도 전쟁과 1897년 그리스 전쟁을 다룬 작품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가자왓나메의 숫자는 250개 가량이며 이 중 일부는 세밀화가 포함된 판본이다.

세밀화가 포함된 최초의 가자왓나메는 마트락츠 나수흐(Matrakçı Nasuh)가 집필과 삽화 모두를 맡았던 작품으로 이라크와 이란 원정을 기록한 책이다(Beyân-ı Menzil-i Sefer-i Irakeyn, 이스탄불 대학교 도서관 소장[İÜK, T.5964]). 당시 마트락츠 나수흐는 바이예지드 2세(II. Bayezid, 재위: 1481년~1512년) 시대의 사건을 그린 작품(Tarih-i Sultan Bayezid, 톱카

프 궁전 박물관 도서관 소장[Topkapı Sarayı Müzesi Kütüphanesi. R1272]), 헝가리와 프랑스 원정을 그린 작품(Tarih-i Feth-i Şikloş ve Estergon ve Estonibgrad, 톱카프 궁전 박물관 도서관 소장[Topkapı Sarayı Müzesi Kütüphanesi. H. 1608])을 제작하기도 했다. 헝가리와 프랑스 원정을 그린 작품은 쉴레이만나메(Süleymanname)라는 이칭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마트락츠 나수흐 이후에도 세밀화 삽화가 포함된 가자왓나메는 꾸준히 제작되었다. 1551년 헝가리 원정을 아리피(Arif)가 페르시아어로 쓴 작품(Futûhât-ı Cemîle, 톱카프 궁전 박물관 도서관 소장[Topkapı Sarayı Müzesi Kütüphanesi, H. 1592])이나 낙카슈 오스만이 삽화를 담당한 쉴레이만 1세의 전사와 셀림 2세의 즉위를 다룬 작품(Nüzhet(ü'l esrâr)ü'l-ahbâr der-sefer-i Sigetvâr, 톱카프 궁전 박물관 도서관 소장[Topkapı Sarayı Müzesi Kütüphanesi, H.1339]), 랄라 무스타파 파샤(Lala Mustafa Paşa, 재위: 1500년~1580년)의 조지아 정복을 다룬 무타파 알리(Mustafa Ali)가 쓴 작품(Nusretnâme, 런던 대영 박물관, 톱카프 궁전 박물관 소장[British Museum Add. 22011, Topkapı Sarayı Müzesi Kütüphanesi H. 1365]), 하림자데 이브라힘 차부쉬(Harimzade İbrahim Çavuş, ?~1590년?)가 저술한 페르하드 파샤(Ferhad paşa, 1591년~1595년)의 겐제 정복을 다룬 작품(Kitâb-ı Gencîne-i Feth-i Gence, 톱카프 궁전 박물관 소장[Topkapı Sarayı Müzesi Kütüphanesi, R.1296])을 비롯하여 다수의 작품이 제작되었다. 17세기 작품으로는 케난 파샤(Kenan Paşa, ?~1652년) 루멜리 주에서 일어난 반란을 진압한 사건과 크림 카잔인들과의 흑해 전투를 다룬 작품(Tuluî İbrahim Efendi Paşanâme, 런던 대영 박물관 소장[British Museum Sloane 3584])과 말코츠 알리 파샤(Malkoç Ali Paşa, ?~1604년) 이집트 총독 시절을 그린 작품(Mir Ali Paşa Vekayi, 쉴레이마니예 도서관 소장[Süleymaniye Kütüphanesi, Halet Efendi no.612]) 등 두 작품이 현재까지 전해져 온다.

가자왓나메는 현대에서 오스만 전쟁사에 있어 연대기적 기록만으로 불충분한 부분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가자바트나메, 가자밧나메, 가자와트나메
- 다국어 표기 Gazavatname(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쉴레이만나메, 가자, 가지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e/ee/Sueleymanname_nahcevan.jpg
<https://i0.wp.com/www.sanatinyolculugu.com/wp-content/uploads/2018/12/m13.png?w=483&ssl=1>

● 참고문헌(오프라인) Mahir, Banu. Osmanlı minyatür sanatı, İstanbul : KabcacıYayınevi, 2005.

Bağcı, Serpil. Filiz Çağman, Günsel Renda; Zeren Tanındı, Osmanlı Resim Sanatı, Ankara: Kültür ve Turizm Bakanlığı, 2012.

Erkan, Mustafa. “Gazavatname”, TDV İslâm Ansiklopedisi cilt.13, İstanbul: TDV, 1996, pp.439~440.

I A014 | 가즈나 술탄 마흐무드 영묘

- 시기 A.D. 1000년 ~ A.D. 1500년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아프가니스탄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건축
- 유형 소분류2 영묘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Mausoleum of Sultan Mahmud of Ghazni

가즈나 술탄 마흐무드 영묘는 가즈나 왕조의 몇 안 되는 영묘 유적 중 하나이다. 이 영묘는 가즈나 왕조의 술탄이었던 술탄 마흐무드(Sultan Mahmud, 재위: 998년~1030년)의 영묘로 가즈나 시 동편 2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라브자(Ravza) 마을에 건설되었다. 술탄 마흐무드의 아들이었던 술탄 마수드 1세(I. Mas'ud 재위: 1030년~1040년)에 의해 건설된 가즈나 술탄 마흐무드 영묘의 현재 모습은 원형은 아니며 후대의 복원 및 복구 공사를 거쳐 수리된 모습이다.

영묘의 석관은 흰색 대리석으로 되어 있으며 삼각형 대리석 조각으로 덮여 있다. 석관의 측면에는 쿠펙 서체로 장식되어 있다. 대리석은 가즈나 왕조에서 특히 즐겨 사용되던 재료로 건축물뿐만 아니라 관에도 쓰였다. 재료나 장식 면에서 인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장식성이 풍부한 영묘의 목재 문은 19세기, 영국군에 의하여 인도로 옮겨졌고 현재 델리 박물관에서 소장 중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가즈니 술탄 영묘, 가즈나 술탄 마흐무드 영묘

● 다국어 표기 مقبره سلطان محمود (우르두어), دسلطان محمود د مقبرې (파슈투어)

● 연관 검색어 술탄 마흐무드, 가즈나 왕조, 가즈니 왕조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rl.kr/mjpnsc>

http://www.thewalt.de/afghanistan/ghazni_etc/pages/d8_69_07.htm

● 참고문헌(온라인)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217735>

● 참고문헌(오프라인) Cezar, Mustafa. Anadolu Öncesi Türklerde Şehir ve mimarlık, Ankara: İş Banka, 1977.
Aslanapa, Oktay. Türk sanatı, İstanbul: Remzi Kitabevi, 2015.

I A015 | 가즈니 미너렛

● 시기 A.D. 1000년 ~ A.D. 1500년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아프가니스탄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건축
● 유형 소분류2 미너렛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Ghazni Minarets

흔히 ‘가즈니 미나렛’으로 알려진 아프가니스탄 가즈니에 건설된 2개의 미너렛의 정식 이름은 탄 마수드 3세 미너렛과 바흐람 샤 미너렛이다. 이들 미너렛은 술탄 마수드 3세 미너렛(Manar-i Mas’ud III)은 술탄 마수드 3세(Masud III, 재위 : 1099년~1115년) 시대의 작품이다. 이 미너렛은 낮은 석제 받침대 위에 벽돌로 팔각의 모서리가 있는 별 모양의 몸체가 있으며, 이 별 모양의 몸체에서 이어져 위로 향할수록 가늘어지는 원통형 몸체가 있었다. 총 높이가 48m에 달하던 원통형의 몸체는 1902년 지진으로 훼손되었고 현재는 훼손된 부분에 금속 보호대를 설치한 상태로 팔각 모서리 별 형태의 몸체만 관찰할 수 있다. 팔각 모서리 별 형태의 몸체는 21m이다. 팔각 모서리 별 형태의 몸체는 기본적으로 벽돌로 만들어져 있으나 목제 기둥이 내부에 심겨져 있고, 내부에는 나선형 계단이 있어 상단부로 올라갈 수 있다. 팔각 모서리 형태의 몸체 상단 세 부분은 쿠픽 서체와 별 문양으로 장식되어 있다. 그 아래로는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을 중심으로 한 문양과 중앙 부분에도 쿠픽 서체로 술탄 만수드의 이름과 칼리프의 이름들, 이맘 하산과 후세인의 이름이 테라코타와 벽돌 장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외 부분에는 식물 문양과 기하학 문양으로 장식되어 있다. 본 미너렛이 다른 미너렛과 달리 코란에서 승리를 이야기하는 구절(수라 알 파티흐, 48)이 새겨져 있기에 승리를 기념하는 첨탑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장식은 주로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고 밑 부분은 완성되지 않았다. 아마도 술탄 마수드의 사망으로 이 장식을 끝마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바흐람 샤 미너렛



가즈니 미너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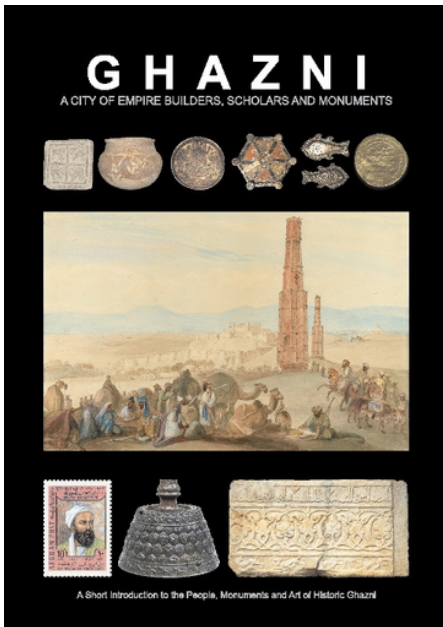
의 경우 1953년까지는 위의 술탄 마수드 3세 미너렛과 마찬가지로 술탄 마수드 3세에 의해 지어진 미너렛이라고 알려졌으나 한 연구로 술탄 마수드 3세의 아들인 바흐람 샤(Bhram Sha, 재위: 1117년~1149년)에게 바친 미너렛임이 밝혀졌다. 이 미너렛은 술탄 마수드 3세 미너렛을 단 순화시킨 형태이다. 장식은 기하학 문양이 주를 이룬다. 이 미너렛 역시 상단의 원통형 부분은 파손되어 금속 보호대를 설치한 상태이다. 당대의 미너렛이 주로 원통형을 취한 것으로 보아, 이런 별 형태의 미너렛은 특이한 편에 속한다. 이런 별 모양 건축의 기원은 이슬람 이전 시대나 비이슬람적 기원일 가능성이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가즈니 미나렛, 가즈니 미너레트, 가즈나 조 미나레트, 술탄 마수드 3세 미나레트, 바흐람 샤 미나레트
- 다국어 표기 Manar-i Mas'ud III(페르시아어), Manar-i Bahram Shah(페르시아어), Gazne Minareleri(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가즈나 왕조, 가즈니 왕조, 가즈나 술탄 마흐무드 영묘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f/fd/Ghazni-Minarets.jpg><https://url.kr/kpzi8t>
<https://www.wmf.org/project/ghazni-minarets>
- 참고문헌(오프라인) Pinder-Wilson, Ralph. "Ghaznavid and Ghurid Minarets." Iran: Journal of the British Institute of Persian Studies 39, 2001, pp.155~186.
Ettinghausen, Richard. Oleg Grabar and Marilyn Jenkins, Islamic art and architecture 650~1250,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1.
Aslanapa, Oktay. Türk sanatı, Istanbul: Remzi Kitabevi, 2015.

I A016 | 가즈니 왕조

- 시기 A.D. 1000년 ~ A.D. 1800년 ● 지역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 나라 아프가니스탄, 이란, 인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국가 ● 유형 소분류2 왕조
- 집필자 이은정, 우덕찬 ● 라틴 문자 Ghaznavids

가즈니 왕조는 10세기 후반 사만 조의 투르크 노예병 집단에 의해 수립된 왕조로, 수도 이름인 가즈니('가즈나'라고도 한다)를 따서 가즈니 왕조라는 이름이 붙었다. 9세기~10세기 이후 압



가즈니 왕조를 다룬 유네스코의 책 『가즈니』 표지

바스 칼리프 조와 지방 총독들은 군사적으로 우수한 투르크 노예병들이 많이 도입됐고, 이에 따라 부와이흐 조와 사만 조에도 군인으로 봉사하는 투르크 군사가 많이 있었다. 사만 조에서는 910년대 이후 투르크인 지휘관들이 나타나며 이들이 정치에 흔히 개입했고, 961년에 왕위 계승 분쟁에 개입했다가 실패한 호라산군 사령관 알프 티긴은 동 아프가니스탄의 가즈니로 도주하여 현지에 있던 조를 쫓아내고 그곳에 자리를 잡았다. 이로써 가즈니 왕조의 기틀이 다져진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알프 티긴은 후손이 없었으므로 한동안 유력한 군사 실력자들 사이에서 권력이 계승되다가 세빅티긴이 권좌에 오른 977년 이후 부자 계승이 이루어지는 왕조가 시작되었다. 세빅티긴은 이식 쿨 호수 연안의 바르산 지역 출신으로 카를루크 계통의 부족 출신일 가능

성이 높다고 추정된다.

가즈니 왕조는 동 아프가니스탄의 자블리스탄 지역, 북동 발루치스탄의 쿠스다르 지역 등에 영토를 넓혔고, 토하리스탄과 자민다와르 등에도 종주권을 행사했으며, 인도에 원정을 시작했다. 또한 사만 조의 내정에 개입하기 시작해서 지방 반란을 대신 진압해주기도 했다. 997년 세빅티긴이 사망한 후 작은 아들 이스마일이 일시적으로 왕위에 올랐으나 큰아들 마흐무드가 이에 반기를 들어 998년 즉위했는데, 그는 가즈니 왕조의 전성기를 구가한 술탄이었다. 999년 카라한 조의 원정으로 사만 조가 멸망하게 되자 마흐무드는 사만 조의 영토를 카라한 조와 나눠 갖게 되었다. 마흐무드는 호라산을 영유하고 시스탄, 주즈잔, 호라즘 등을 장악했다. 그때까지 이교도로 남아 있던 구르 조를 장악하고자 했으나 성과가 빨리 나지 않았고, 인도 원정 17회의 큰 성공으로 이슬람권에 이름을 떨쳤으며 카라한 조보다 우위에 섰고, 이라크의 부와이흐 조와의 전쟁에도 승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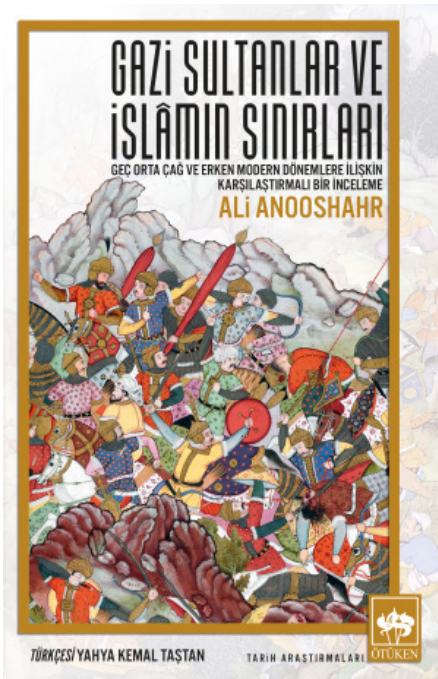
마흐무드 사후 계승 분쟁 끝에 왕위에 오른 마스우드도 대단히 야심적인 군주였지만 인도에서는 승리를 거두었으나 동방에서 넘어온 셀주크 왕조에 크게 패했고(단단칸 전투, 1040년) 곧

살해되었다. 그 후 가즈니 왕조는 계승 분쟁과 셀주크와의 전쟁 등으로 한동안 혼란기를 겪었으나 술탄 이브라힘(재위 : 1059년~1099년) 시기에 셀주크 조와 평화 관계를 반세기 동안 유지하고 결혼 동맹으로 그것을 더욱 단단히 했다. 그 후에도 계승 분쟁은 빈번했는데, 베흐람 샤(재위 : 1117년~1157년)는 셀주크의 호라산 군주였던 산자르의 원조를 얻어 즉위하기도 했다. 그는 그동안 구르 조와의 외교 관계를 경색시켜 점점 강성해진 구르 조가 쳐들어와 가즈니 시를 파괴하고 약탈하는 사건(1150년)을 자초했다. 그 이후 가즈니 왕조는 약체화되어 구르 조에 의해 1186년 멸망하고 말았다. 가즈니 왕조는 10세기~12세기 이란, 호라산, 인도에 걸쳐 있었던 매우 성공적인 투르크 조로, 페르시아어를 행정 언어로 썼고 페르시아적 왕권 전통에 속하는 궁정 예법을 지켰다. 군주의 공식적인 칭호는 아미르였고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술탄’으로 지칭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가즈니 왕조의 군주들은 문화를 향유하고 후원하는 것을 중요시하여 많은 시인들을 육성했으니, 마흐무드의 궁정에는 약 400인의 시인들이 있었다는 기록도 있다. 특히 유명한 시인과 저작으로 피르도시의 샤희나메를 들 수 있다. 현재까지 남아 있는 건물은 드물지만 건축 후원도 가즈니 왕조 군주들에 의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가즈니 왕조는 초창기부터 팽창 정책을 써서 항상 전쟁을 준비하는 국가였으며, 이에 따라 노예병과 투르크 부족 출신의 용병들이 많았다. 노예병은 약 4천 명~6천 명 수준으로, 주로 투르크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군사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노예병 이외에도 다양한 출신의 군사가 더해져 경우에 따라서는 5만 명~10만 명의 전투 인력이 동원되기도 했다고 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가즈니 조, 가즈나 조, 가즈나 왕조, 가즈나비 왕조
- 다국어 표기 Gazneliler(튀르키예어), Qəznəvilər(아제르바이잔어) G'aznaviyalar(우즈베크어), Ғазнауи әулеті(카자흐어)
- 연관 검색어 셀주크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rl.kr/rfq5ka>
- 참고문헌(오프라인) Erdoğan Merçil, “Gazneliler,” TDV İslam Ansiklopedisi, Vol. 13, pp.480~484.
Bertold Spuler, “Ghaznawids,” Encyclopaedia of Islam (Brill) 2nd edition, Vol. 2, pp.1050~1053.

I A017 | 가지

- 시기 기타 ● 지역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북아시아 ● 나라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러시아, 튀르키예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이슬람 ● 유형 소분류2 칭호
- 집필자 박현도 ● 라틴 문자 Gazi



가즈니 왕조를 다룬 유네스코의 책 『가즈니』 표지

가지는 약탈하다는 뜻의 아랍어 동사 ‘gzw’에서 나온 능동분사형 ‘ghazi(가지)’의 튀르키예어식 발음이다. ‘가지’는 약탈자를 뜻한다. 이슬람 이전 아랍인들은 적을 공격하여 물건을 약탈했는데, 이슬람 시대에는 이러한 약탈이 이교도에 대한 공격으로 인정되었다. ‘가지’는 이교도 공격에 참가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전사(戰士)라고 번역하면 무난하다. 약탈을 뜻하는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영어의 라찌아(razzia)는 아랍어 가즈와(Ghazwah)에서 나온 말이다. 가지아의 ‘가’ 발음이 목젓을 떠는 발음이라 ‘라’로 들려 라찌아가 되었다. 그런데, 이 말이 점차 칭호처럼 굳어져 이슬람의 영역을 넓히는 무력 다툼에 참가한 용사를 존중하는 용어로 자리 잡았고 술탄이나 장군들의 이름에 붙어 전선에서 이슬람을 위해 헌신하는 명예로운 이를 가리키는 명칭이 되었다. 오스만 제국 창시자도 술탄 오스만 가지로 불린다.

아누샤흐르(Ali Anooshahr)는 중간 시대와 근대 초기 이슬람 역사에서 ‘가지 술탄’이 최전선의 전사 왕을 가리키는 말이었다고 하면서, 대표적인 술탄으로 가즈나(Ghazna) 조의 마흐무드(Mahmud, 1030년 죽음), 오스만 제국의 무라드(Murad) 2세(1444년 죽음), 무갈 제국의 바부르(Babur, 1530년 죽음)를 그 예로 든다. 10세기 바그다드에서부터 무슬림 통치자들이 이슬람을 위한 전쟁에 전념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이런 비판에 응하여 가즈나 조의 세벡테긴(Sebüktegin)과 마흐무드가 왕조의 성공과 성전 참여의 상관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가지 술탄’의 위엄을 보였으며, 이러한 가지 술탄 상은 오스만 제국 시대에 들어 바야지드(Bayazid) 1세

통치 후기(재위: 1389년~1402년)에 활성화되었다는 것이 아누샤흐르의 주장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가지 전사

● 다국어 표기 Ghazi(아랍어 음사), Gazi(튀르키예어), G'ozī(우즈베크어), Qazi(아제르바이잔어), ғазӣ(카자흐어)

● 연관 검색어 가자

● 참고문헌(오프라인) Anooshahr, Ali. The Ghazi Sultans and the Frontiers of Islam: A Comparative Study of the Late Medieval and Early Modern Periods. New York: Routledge. 2009.

Barthold, W. Turkestan Down to the Mongol Invasion. 2nd edition, translated from the original Russian and revised by the author with the assistance of H. A. R. Gibb. London: Luzac and Co., 1928.

Mélikoff, I. "Ghāzī." In Encyclopaedia of Islam, vol. 2, pp.1043~1045.

I A018 | 가파리아 영묘

● 시기 A.D. 1000년~A.D. 15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이란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건축 ● 유형 소분류2 영묘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Ghaffariyya Mausoleum

가파리아 영묘는 아미르 샴즈 앳딘 카라순쿠르(Amir Shams ad-din Qarasunqur)의 영묘로 알려져 있다. (일각에서는 카라순쿠르는 단지 후원자였고, 영묘의 주인은 아니라고 말하기도 한다.) 카라순쿠르는 이집트 맘루크 술탄 깔라운(Al-Mansur Qalawun, 재위: 1279년~1290년)의 노예(맘루크)였으나, 1312년 정치적인 이유로 일 칸국에 망명하게 되었다. 1328년 카라순쿠르가 사망 당시에는 마라게의 총독이었다. 이 영묘는 일 칸국의 아무 사이트 바하두르 칸(Abu Sa'id Bahadur Khan, 재위: 1316년~1331년) 시기에 건설되었다.

사각형 평면 위에 건설된 이 영묘는 본래 이중 돔이었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두 돔 모두 훼손된 상태이다. 입구는 북쪽에 위치해 있으며 입구로 진입할 수 있는 계단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또한 손실된 상태이다. 이 영묘는 수르흐 영묘와 유사한 형태로 모서리가 둥글게 처리되어 있다. 장식 역시 수르흐 영묘와 비슷한데, 이 둥근 모서리에 대각선으로 쌓아 올린 벽돌 사이에 푸른색 타일을 끼워 넣어 문양을 만들어냈다.

입구를 장식하는 형식으로, 전면부 상단에는 술탄 아부 사이드 바하두르 칸의 통치를 칭송하는 비문이 있다. 입구 주변은 첨두 아치(pointed arch)형의 벽감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이 아치의 상단부는 무카르나스로 장식되어 있다. 무카르나스 역시 터키석 색 타일로 장식되어 있다. 첨두 아치형 벽감을 둘러싼 주변 패널은 원형 안에 남색 별이 새겨진 장식이 있으며, 이 장식을 원형으로 다시 배치하는 형식으로 꾸몄다. 입구 양 옆에 있는 좁은 첨두 아치형 벽감도 유사한 형태로 장식했다.

측면과 후면은 각각 두 개의 첨두 아치형 벽감으로 꾸며져 있다. 각 벽감 안에는 석고로 장식한 흔적이 있는 직사각형의 패널이 있다. 직사각형 패널 내에는 다시 첨두 아치형 장식으로, 첨두 아치 내에는 터키석 색 타일을 이용하여 기하학 문양으로 장식했고, 직사각형 패널 상단에 무덤 주인인 카라순쿠루의 서명이 새겨져 있다.

내부 벽면도 아치형 벽감으로 장식되어 있다. 내부 남쪽 벽에는 미흐랍 벽감이 남아 있으며, 색을 칠해 장식한 흔적 역시 남아 있다.

이 영묘는 마라게 지역에서 셀주크 조 이후에도 영묘 건설이 계속되었음을 보여준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군바디 가파리아, 군바드이 가파라야

● 다국어 표기 Gunbad-i Ghaffariyya(페르시아어), Kûmbed-i Gaffariye(튀르키예어)

● 멀티미디어 링크 가파리아 영묘_전체 <https://url.kr/szim96>

가파리아 영묘_대문 장식 <https://url.kr/9raphc>

가파리아 영묘_후면 <https://url.kr/bm3pt1>

● 참고문헌(온라인) <http://archnet.org/sites/1638>

● 참고문헌(오프라인) Cezar, Mustafa. Anadolu Öncesi Türklerde Şehir ve mimarlık, Ankara: İş Banka, 1977.

Aslanapa, Oktay. Türk sanatı, İstanbul: Remzi Kitabevi, 2015.

Yelen, Resul. “Siyaset ve Sanat Bağlamında İran’da Bir Memlûklü Arması ve Çevgândar Sopası Renki”, Sanat Tarihi Dergisi, 30/1, Nisan|April, 2021, 205~229.

I A019 | 가푸르 굴럼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Guzal Mihrayeva ● 라틴 문자 Gafur Gulom

가푸르 굴럼(Gafur Gulom)은 1903년 5월 10일 타슈켄트에서 한 가난한 농민 가정에서 태어났다. 9살 때 아버지를 여읜 후 가세가 더욱 기울어져 그의 집안 형편은 늘 넉넉하지 못했다. 훗날 그는 시「너는 고아가 아니다(Sen yetim emassan, 1942)」를 통해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한다.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교육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던 그는 어려서부터 특히 시와 소설에 조예가 깊었는데, 이는 시인으로 활동했던 아버지(필명 Mirza Gulom)와 삼촌의 영향이 컸다.

신식 학교 교육을 마친 후 20살이 되던 해(1923년) 그는 교사로 근무하며 시 문학, 희곡, 소설, 평론, 아동 문학, 수필 등 다방면으로 활약하기 시작했다. 그는 『무정한 자의 행동(Ko'gilsizning qiligi)』, 『에션 어바드(Eshon obod)』, 『청년(Yigit)』, 『초르바조르치(Chorbozorchi)』, 『시계(Soat)』, 『엘라티야에서의 사냥(Elatiyada bir ov)』, 『히일라이 샤리이(Hiylai shar'iy)』, 『루크먼(Luqmon)』, 『다정한 자식(Farzadni solih)』, 『이유(Sabab)』, 『전설의 영웅 바달노브차(Badal novcha - afsona qahramoni)』, 『네타이(Netay)』, 『살아난 시체(Tirilgan murda)』, 『개구쟁이(Shum bola)』, 『여드거르(Yodgor)』 등을 통해 과거의 틀에 얽매어 있는 우즈베크인들의 어두운 삶의 모습을 묘사하며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때로는 지도층, 성직자 혹은 부유한 이들에 의해 짓밟힌 우즈베크 여성들이 처한 현실을 고발하기도 했다.

가푸르 굴럼은 『추적(Kuzatish)』, 『사람들은 출동했다(Xalq otlandi)』, 『나는 유대인이다(Men yahudiy)』, 『그리움(Sog'inish)』,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Biz yengamiz)』, 『우리의 거리에 축제가 있을 것이다(Bizning ko'chada ham bayram bo'lajak)』, 『우승자들(G'oliblar)』, 『축하 인사(Salom va tabrik)』 등 전쟁 상황을 묘사한 작품을 통해 우즈베크인들의 애국심과 더불어 세계 평화를 위한 의지를 드러낸다.

그는 나비이(Navoiy), 마쉬랍(Mashrab), 무키미이(Muqimiy), 푸르캣(Furqat), 아바즈 여타르(Avaz Otar), 어이벡(Oybek), 하미트 올림전(Hamid Olimjon), 아이니이(Ayniy), 서비르 압둘라(Sobir Abdulla), 아미르 우마리이(Amin Umariy), 가이라티이(G'ayratiy) 등 우즈베키

스탄을 대표하는 문학가 및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타르 작가들의 작품에 대한 연구 논문을 꾸준히 발표했다. 그는 번역가로도 활동했는데 푸시킨(Alexander Pushkin), 레르몬토프(Michail Lermontov), 네크라서프(Nekrasov, Nikolai Alekseevich), 마야코프스키(Vladimir Vladimirovich Mayakovskii), 고리키(Aleksei Maksimovich Peshkov), 미르저 투르순조다(Mirzo Tursunzoda) 등 여러 작가의 작품들을 우즈베크어로 번역했다. 또한 영국의 극작가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의 비극 『오델로』와 『리어왕』을 우즈베크어로 번역했다.

가푸르 굴럼은 현대 우즈베크 문학 발전에 크게 기여했고, 이는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의해 높이 평가되었다. 1943년 우즈베키스탄 과학 아카데미의 정회원으로 선출되었으며, 1963년에는 우즈베키스탄 국민 시인상을 수상했다. 또한 그의 작품 『동양에서 가는 중입니다(Sharqdan borayotirman, 1943)』는 국가 상을 수상했으며, 1970년 시집 『사르히섭(Sarhisob)』으로 레닌(Lenin) 상을 수상했다.

오늘날 우즈베키스탄에는 가푸르 굴럼의 이름을 딴 대학, 공원, 거리, 도서관 그리고 학교 등이 있으며, 우즈베키스탄 작가 연합은 1981년 가푸르 굴럼의 이름을 딴 특별 예술상을 만들기도 했다. 그의 작품은 우즈베키스탄과 해외에서 다양한 언어로 번역·출판되었다. 그는 1966년에 세상을 떠났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가푸르 굴롬, 가푸르 굴롬, 가푸르 굴럼
- 다국어 표기 G'afur G'ulom(우즈베크어), Гафур Гулям(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크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canaan.travel/uzbekistan/objects/gafur-gulom-house-museum>
- 참고문헌(온라인) <https://arboblar.uz/uz/people/gafur-gulyam>
- 참고문헌(오프라인) G'ulom G'afur, *Mukamallar asarlar to'plami 12 jild*, Toshkent: Fan, 1986~1987.
 Karimov Naim, *XX asr adabiyoti manzaralari*, Toshkent: O'zbekiston, 2008.
 Mirzayev Saydulla, Said Shermuhammedov, *Hozirgi zamon o'zbek adabiyoti tarixi*, Toshkent: O'zbekiston, 1993.
 Mirvaliyev S, Shokirova Rixsiya, *O'zbek adiblari*, Toshkent: Fan, 2007.

I A020 | 간다미온 조약

●시기 A.D.1800년~현대 ●지역 중앙아시아 ●나라 우즈베키스탄 ●유형 역사 ●유형 소분류1 사건 ●유형 소분류2 조약
●집필자 최선아 ●라틴 문자 Gendemian Peace Treaty

1873년 폰 카우프만(Константи́н Петро́вич фон-Ка́уфман; 1818년 3월 2일~1882년 5월 16일)은 12,000명 이상의 군대를 이끌고 히바 칸국을 침공했다. 오렌부르크, 마기실락, 크라스나워드, 캅카스 지역의 병력 또한 히바를 침공하기 위한 지원 병력으로 출병했다. 히바 칸국의 머함마드 라힘 칸(Mohammad Raximxon II, 재위: 1864년~1910년) 역시 이에 맞서 출병했다. 그러나 1873년 5월 18일 카우프만의 군대가 아무다리야 강을 건너 하자라스프를 점령하고 콘그라트와 호잘리 시와 만기트 성을 점령한다. 러시아 군이 히바에 도착하자 머함마트 라힘 칸은 투르크만(Turkomans)으로 피신했고, 그의 사촌과 동생이 협상 장소에 나왔지만 이어질 항복 선언과 협상의 효력 상실을 두려워한 카우프만은 무함마드 라힘 칸을 압박해 직접 항복하게 만든다. 1873년 8월 12일 카우프만과 라힘 칸이 히바 칸국의 간디미온(우즈베크어 표기: Gandimiyon, 영문 표기: Gendemian, 러시아어 표기: Гендемиан)에서 만나 조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 조약으로 히바 칸국은 외교권과 군사권을 박탈당했다. 또한, 아무다리야 강 하류 오른쪽편의 재산권과 소유권을 러시아는 보상 없이 몰수하고, 이 토지 일부를 부하라 아미르에 이전하게 되었다. 또한 히바 칸국은 러시아에 무역을 개방하고 러시아 사업체는 히바 칸국에서 관세 면제권을 인정받았으며, 토지 획득의 권리 등을 가지게 되었다. 히바 칸국 정부는 히바 영토에 오가는 러시아 상인들과 러시아인이 건설한 부두와 교역소를 보호할 의무를 지니게 되었으며, 타슈켄트에서 운행 허가를 받은 일부 선박을 제외한 아무다리야강 항해에 대한 통제권을 러시아가 가져가게 되었다. 또한, 히바에 거주하는 러시아인이 피고가 되는 사건 발생 시 가장 가까운 러시아 당국에서 처리해야 했다. 또한 러시아에서 온 범죄자나 도망자는 러시아로 인도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이 조약으로 히바 칸국에서는 노예제가 폐지되었다. 그리고 히바 칸국은 러시아에 2백 2십만 루블의 전쟁 배상금을 20년 동안 분할 지불하게 되었다. 이 조약으로 인해 히바 칸국은 독립권을 상실하게 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겐데미안스키 평화 조약, 간다미안 평화 조약
- 다국어 표기 Гендемианский мирный договор 1873 года(러시아어), Гандемиан шарты(카자흐어), Gandimiyon shartnomasi(우즈베크어)
- 연관 검색어 무함마드 라힘 칸, 히바 칸국
- 참고문헌(온라인) <http://www.hist.msu.ru/ER/Etext/FOREIGN/hiva.htm>
- 참고문헌(오프라인) Q. USMONOV; M.SODIQOV; S.BURXONOVA, O'ZBEKISTON TARIXI, Tashkent, 2006.
Becker, Seymour. Russia's protectorates in Central Asia: Bukhara and Khiva, 1865~1924, Cambridge, Mass. : Harvard University Press, 1968.

I A021 | 간쑤 위구르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동아시아 ● 나라 중국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국가 ● 유형 소분류2 왕조
- 집필자 우덕찬 ● 라틴 문자 Kansu Uyghur

840년 키르기스의 공격으로 멸망을 당한 오르콘 위구르 제국의 위구르 씨족 연맹의 일부는 847년경 감숙(甘肅: Kansu) 지방에 정착했는데, 이들이 911년경 건립한 나라가 간쑤 위구르국이다. 간쑤 위구르국은 중국과의 빈번한 접촉으로 비교적 중국 기록에 자주 등장하게 된다. 중국 측 기록에 따르면 그들은 전통적인 실크로드 중계 무역의 필요에 의해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수립했고 위구르 부족장들은 중국 황실의 공주와 결혼함으로써 중국과의 안정적 관계를 지속해 나갔다고 전하고 있다. 그러나 당의 세력이 급격히 약화되고, 10세기 초에 들어 당에 대한 반란이 확산되자, 간쑤 위구르는 그들을 관장하던 돈황의 중국 절도사와의 관계를 단절해 버렸다.

돈황에는 905년 반란 세력에 의해 '서한의 금산 제국(西漢之金山帝國)'이 수립되었다. 금산 제국이 인근 위구르족을 복속하려 하자, 간쑤 위구르는 장군 테긴을 파병하여 돈황을 공략하여 그 왕의 항복을 받았다(911년). 이 원정의 승리로 간쑤 위구르는 간쑤의 장액을 중심으로 독립된 국가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907년에 당이 망하고, 번진(蕃鎭)이 할거하며, 화북의 호족 군인

이 득세하는 오대 시대(五代時代, 907년~960년)가 시작되었다. 중국에서의 분열과 혼전(混戰)은 위구르국의 착실한 성장과 정치적 영향력을 증대시켜 주었다. 911년에 티베트 사신과 함께 중국(後梁, 907년~922년)에 간 위구르 사신이 중국 기록에 대(大)위구르국의 대표로 언급된 사실에서, 당시 위구르국의 존재와 위치를 짐작할 수 있다. 오대 시대의 전 기간을 통해 중국과 위구르와의 관계는 비교적 우호적이었다. 간쑤 위구르는 940년 10세기 초에 흥기하여 만주와 중국 북방에 강력한 요(遼, 907년~1211년) 나라를 건국한 거란족에 복속되었다. 다시 1028년에는 탕구트의 지배하에 놓였다가 1226년 칭기즈 칸에 의한 몽골 제국의 질서 속에 편입되고 말았다. 간쑤 위구르는 그 후 사르(Sari, 黃) 위구르로 알려져, 현재까지 중국에서 주요한 투르크 민족의 후예로 잔존해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간수 위구르, 칸수 위구르, 간수 위구르

● 다국어 표기 甘肅回鶻(중국어),  (몽골어)

● 연관 검색어 돌궐, 오르콘, 실크로드, 돈황, 칭기즈 칸

● 멀티미디어 링크 간쑤 위구르_지도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8/8a/Guiyi_Circuit.png

● 참고문헌(오프라인) 우덕찬, 『중앙아시아사 개설』, 부산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01.

이희수, 『터키사』,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7.

Barfield, Thomas, *The Perilous Frontier: Nomadic Empires and China*, Basil Blackwell, 1989.

Justin Jon Rudelson; Justin Ben-Adam Rudelson, *Oasis Identities: Uyghur Nationalism Along China's Silk Road*.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7.

Mackerras, Colin, *The Uighur Empire: According to the T'ang Dynastic Histories, A Study in Sino-Uighur Relations, 744~840*. Publisher: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Press, 1972.

Sinor, Denis, *The Cambridge History of Early Inner Asia*,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I A022 | 갈라타사라이 스포츠 클럽

- 시기 기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기예 ● 유형 소분류2 스포츠
- 집필자 우덕찬 ● 라틴 문자 Galatasaray Spor Kulübü



갈라타사라이 공식 홈페이지

Source: <https://www.galatasaray.org/en/Homepage>

갈라타사라이 스포츠 클럽은 튀르키예 이스탄불 유럽 지역에 근거지를 둔 프로 축구 클럽이다. 이 축구 클럽은 1905년 10월 갈라타사라이 고등학교(Galatasaray lisesi) 학생들로 창단되었다. 갈라타사라이는 가장 성공적인 튀르키예 프로 축구 클럽이다. 지금까지 22회에 걸쳐 1부 리그인 수페르 리그(Süper Lig)에서 우승했고 UEFA가 주관하는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냈는데 1999년 ~2000년 시즌 영국의 아스날을 결승전에서

승부차기 끝에 물리치고 UEFA 리그에서 우승했다. 특히 2000년도에는 챔피언스 리그 우승 팀인 레알 마드리드를 물리치고 슈퍼컵을 차지하기도 했다.

갈라타사라이는 UEFA컵을 우승한 튀르키예 유일의 프로 축구팀이다. 또한 이 팀은 국제축구역사통계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Football history&Statistics)의 세계 랭킹 1위에 올랐던 튀르키예 유일의 팀이다. 2011년부터 이스탄불 세이란테페(Seyrantepe)에 위치한 5만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튀르키예텔레콤 스타디움을 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갈라타사라이 스포르 클럽류, 갈라타사라이 축구팀
- 다국어 표기 Galatasaray Sports Club(영어)
- 연관 검색어 이스탄불
- 참고문헌(오프라인) Birand, M. A., & Polat, M. M., Passion that continues for 100 years. İstanbul: DYapım, 2006. İsfendiyyar, F., History of Galatasaray. İstanbul: Doğan Kardeş yayınları, 1952.

I A023 | 갈리폴리 전투(겔리볼루 전투)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사건 ● 유형 소분류2 전투
- 집필자 이은정, 우덕찬 ● 라틴 문자 Battle of Galipolli

갈리폴리 전투(겔리볼루 전투)는 제1차 세계 대전의 일환으로 협상국(영국, 프랑스, 러시아) 측에서 오스만 제국의 수도 이스탄불을 점령하기 위해 다르다넬스 해협의 갈리폴리(겔리볼루 Gelibolu)반도를 공격하여 벌어진 일련의 전투를 말한다. 이 작전은 오스만 제국의 수도를 점령하여 전쟁 수행이 불가능하게 만들고 해협 수로를 점령하여 러시아가 보급선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으며 영국의 해군부 장관이었던 윈스턴 처칠의 제안으로 시작되었다. 1870년대 이래 1차 대전 직전의 발칸 전쟁(1912년~1913년)까지 지속되었던 오스만 제국의 패전을 배경으로, 협상국 측은 반드시 이긴다는 자신감 속에서 전쟁 준비를 치밀하게 하지 않았다. 협상국들은 1914년 11월 5일 오스만 제국에 선전 포고를 했고, 이에 오스만 정부도 11월 11일 응전을 선언했다. 개전 이전에도 이미 1914년 11월 3일 다르다넬스의 셋딜바히르, 에르투르를, 쿰칼레, 오르하니에 등의 보루를 포격했던 영국과 프랑스 함대는 이듬해 2월 19일 본격적으로 공격을 시작했다.

협상국 연합군은 1915년 2월 19일과 2월 25일, 3월 25일에 각각 다르다넬스 해협의 오스만군 포대를 포격했으나 오스만군의 반격과 기뢰 등으로 인해 3척의 함대가 격침되고, 3척이 대파되었다. 2월 19일 전투에서 이들은 전력을 다해 해협 지역을 공격했지만 성과가 나지 않았고 영국 해군의 카든(Carden) 제독이 신경 쇠약으로 중도에 사임하여 로벡(Robeck)으로 사령탑이 바뀌는 일마저 있었다. 새로 바뀐 지도부는 3월 17일 회의에서 이미 1주일 전에 기뢰를 다 제거했으므로 그다음 날 전 함대를 동원해서 해협의 남부 지역을 총공격하기로 했으나, 바로 3월 17일에 오스만군이 기뢰를 재설치하여 3월 18일 영국과 프랑스 함대가 해협에 진입했을 때는 기뢰와 해협 양측으로부터의 포격으로 전력의 35%를 잃고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협상국의 함대 중 일부 전함은 침몰하고 일부는 기능할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되어 버렸다. 이로 인해 협상국 연합군의 총책임자 윈스턴 처칠이 물러나고 영국 해군의 피셔 제독도 사임했다.

협상국측은 3월 18일의 패전 이후 본격적으로 식민지로부터 인력 동원을 시작하여 오스트레

일리아, 뉴질랜드, 영국령 인도 등으로부터 군대가 차출되어 왔고, 연합군은 새로 임명된 영국의 해밀턴 장군의 지휘 아래에 4월 25일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를 주축으로 한 영연방 및 프랑스군 7만 명을 겔리볼루에 상륙시켰다.

당시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의 연합군(Australian and New Zealand Army Corps)이 상륙 작전을 펼친 지역은 겔리볼루반도 서안에 있는 작은 만(灣)이었다. 이 만을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의 연합군(Australian and New Zealand Army Corps)의 약어 안자크(ANZAC) 만이라 부른다.

오스만군 입장에서도 이 다르다넬즈 해협은 수도 함락과 직결되는 지역이었으므로 지역 내의 군사력에 병력을 더해 제5군을 새로 꾸려 준비했다. 이때 무스타파 케말은 제5군의 정찰 대장이었는데 4월 25일 오스트레일리아 군이 물살 때문에 모래사장이 있는 해변이 아니라 험한 지형의 아르부르누로 상륙하게 됨을 간파하고 상부의 승인 없이 병력을 재배치하여 많은 인명 손실을 내며 방어전에 임했다. (이때 57대대[57. Alay]에게 케말이 ‘공격하라고 명령하는 게 아니고 죽으라고 명령하는 것’이라고 했다는 것은 유명한 일화다.)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 휘하 오스만군의 강력한 저항과 승리로 귀결된 이 전투는 풍전등화의 오스만 제국을 위기에서 구했을 뿐 아니라, 200년 가까이 서구 열강에게 일방적으로 패배만 거듭해온 오스만 제국에게 오랜만에 값진 승리를 안겨준 전투로 아직까지 튀르키예에서는 최고의 전투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협상국 군대는 이후에도 셋뿔바히르와 키르테를 점령하려고 했지만 역시 실패했다. 5월에도 협상국 군대의 대공세는 수포로 돌아갔다. 이후 전투는 상당 부분 교착 상태로 지속되어갔고, 1915년 전선에 시찰을 온 영국의 국방장 키치너는 이 지역에서 퇴각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협상국 군대는 12월과 그 이듬해 1월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물러났다. 이 전투는 1차 대전의 역사가 그다지 크게 중시되지 않은 튀르키예 학계에서 유독 관심을 많이 끌었고 많은 저술이 서구에서나 튀르키예에서나 이루어졌다. 서구권의 연구가 특히 협상국 측의 전략적 실패, 준비 부족에 의해 패전에 이르렀다는 부분을 강조해 온 반면 튀르키예에서는 이 전투가 단지 역사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공화국과 튀르키예 사회의 정체성을 이루는 중요한 계기였기 때문에 승리의 요인이 무엇이었나를 놓고 세속주의자와 이슬람주의자 사이에서 논란이 되기도 한다. 튀르키예 독립 전쟁에서의 군 고위 인사들 가운데 50% 이상이 갈리폴리 전투 참

전 경험이 있었고, 열악한 조건하에서 열강의 군대를 물리친 이 전투는 이후 튀르키예인들의 역사 인식 및 세계 인식에 큰 영향을 주었다.

오스트레일리아 병사가 8,587명이나 전사하고 1만 9,367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연합군의 총 사상자는 25만 명에 달했으며 오스만군의 사상자도 21만 명에 달한 이 갈리폴리 전투는 튀르키예의 민족의식을 고취했을 뿐 아니라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에서도 민족의식이 형성되는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겔리볼루 전투, 차낙칼레 전투, 차나칼레 전투, 겔리볼루 사바쉬

● 다국어 표기 Çanakkale Savaşı(튀르키예어), Çanaqqala döyüşü(아제르바이잔어), Gallipoli Battle(영어), Χερσόνησος της Καλλίπολης(그리스어)

● 연관 검색어 제1차 세계 대전,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en.wikipedia.org/wiki/Gallipoli#/media/File:Gallipoli_peninsula_from_space.png
https://en.wikipedia.org/wiki/Gallipoli_campaign

● 참고문헌(온라인) 네이버 지식백과, 죽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세계 역사 1001 Days, 연합군 갈리폴리 상륙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800054&cid=43082&categoryId=43082>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안자크만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345311&cid=40942&categoryId=333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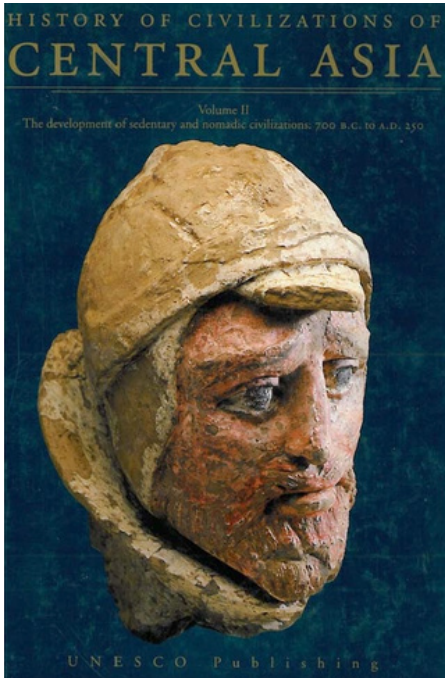
● 참고문헌(오프라인) Zekeriya Kurşun, “Çanakkale Muharebelleri,” TDV İslam Ansiklopedisi, Vol. 8, 1993, pp.205~208.

Metin Gürcan and Robert Johnson, eds. The Gallipoli Campaign : The Turkish Perspective, London: Routledge, 2016.

Crowley, Roger. 1453: The Holy War for Constantinople and the Clash of Islam and the West. NewYork: Hyperion, 2005.

I A024 | 강거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지리 ● 유형 소분류1 민족
- 집필자 김재윤 ● 라틴 문자 Kangju



중앙아시아 문명의 고대 역사를 다룬 유네스코의 책 표지

강거는 사시(Шаш, Shash) 지역 남쪽과 시르다리아(Сырдарья, Syr Darya) 강 하류에 도달하는 탈라스(Талас, Talas)강과 추(Чу, Chu) 강 하류 지역에 위치한다. 현재의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남부 인근에 세워진 고대 국가를 한자로 음차해서 쓴 말이다. 강거는 기원전 1세기부터 기원후 5세기까지 타슈켄트 오아시스에서 호라즘을 아우르는 중앙아시아의 광범위한 지역을 차지했다. 대표적인 유적인 쿨토베(Культобе, Kultobe) 유적을 발굴한 결과, 기원전 3세기부터 시르다리아 지역에 있던 기존의 사카부족 그룹을 기반으로 문화를 형성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따라서 강거는 기원전 3세기 이후부터 시작되었을 수도 있다. 강거가 남긴 고고 문화는 제티아사르 문화(Джетыясарская культура, Jetyasar culture)로, 기원전 일천년 초의 초기 철기 시대 문화이다. 유적으로는 거주지, 무덤 등이 있는데,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알탄사르(Алтынасар, Altynasar)가 있다. 유적지의 면적이 17헥타르에 달하며 주거지의 높이가 2m~10m로 다른 지역보다 높다. 가장 큰 중앙 정착지에는 귀족 계급이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 기원전 3세기의 유적인 쿨토베 거주지에서는 소그디아나(Sogdiana: 중앙아시아 아무다리야강과 스킨다르야강 사이 지역을 일컫는 고대 명칭, 소그드인들이 사는 도시라는 뜻) 기호가 적힌 동전과 비문이 새겨진 점토판이 발견되었다. 결과적으로 이 언어는 기원전 3세기~2세기 초에 사용된 '고대 소그드문자(Old sogdian letters)'보다 한 세기 이상 더 오래된 것으로 판명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강구

● 다국어 표기 鞑靼(한자어), кангүй(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타슈켄트, 호라즘

● 참고문헌(오프라인) Zadneprovskiy, Y. A., The Nomads of Northern Central Asia After The Invasion of Alexander. In Harmatta, János. History of Civilizations of Central Asia: The Development of Sedentary and Nomadic Civilizations, 700 B. C. to A. D. 250. UNESCO, 1 January 1994.

Ю. А. Заднепровский Древние номады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Сборник статей)// СПб: 1997. 114 с.

Грене Ф., Новые свидетельства о Нахшабе и Кеше античного периода // Роль города Карши в истории мировой цивилизации. Ташкент-Карши, 2006.

I A025 I 개트란 태브리지

- 시기 A.D. 1000년 ~ A.D. 15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아제르바이잔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Vaqif Sultanlı) ● 라틴 문자 Qətran Təbrizi

11세기 아제르바이잔에 살았던 저명한 디반 시인 개트란 태브리지(Qətran Təbrizi)는 1012년에 도시 태브리즈(Təbriz şəhəri) 인근에 있는 시골 마을인 샤디아바드(Şadiabad kəndi)에서 태어났으며 태브리즈에서 교육을 받았다. 이후 개트란 태브리지는 갠재(Gəncə)로 이주했고 궁전에서 살았다. 개트란 태브리지는 어린 시절부터 문학 창작 활동을 시작했고 그 시대의 전통에 따라 페르시아어로 작품들을 썼다. 그가 주로 썼던 송시(qəsidə)들은 대부분 당대 왕들에게 바치는 찬가(讚歌, mədhiyyə)이다. 이 찬가들은 역사적 사건들을 다루었기 때문에 역사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개트란 태브리지는 또한 사랑과 자연에 대한 가젤 시(qəzəl)도 저술했다. 그리고 「퇴브스나매(Tövsnamə)」, 「구스나매(Quşnamə)」, 「와미그와 애르자(Vamiq və Əzra)」 등의 마스나비(məsnevi)와 송시(qəsidə)들로 구성된 '디반'을 썼다. 개트란 태브리지는 언어학자로도 활동했고, 처음으로 『표준 페르시아어 사전(izahlı lügəti)』을 편찬했다. 개트란 태브리지는 1081년에 태브리즈에서 사망했으며 시인들의 묘지에 묻혔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게크란 테브리지, 캐트란 태브리지, 카트란 타브리지, 까트란 타브리지
- 다국어 표기 Gatran Tebrizi(튀르키예어), Катран Табризи(러시아어), Qatran Tabrizi(우즈베크어), Катран Табризи(카자흐어), Katran Tabrizi(투르크멘어), تبریز قطران(페르시아어), Gatran Tabrizi(아제르바이잔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az.wikipedia.org/wiki/Q%C9%99tran_T%C9%99brizi
- 참고문헌(오프라인) *Azərbaycan Ədəbiyyatı Tarixi*, Altı cildə II cild, Bakı: Elm nəşriyyatı, 2007, s. 312~337.
Sadıqova Nigar, *Qətran Təbrizinin Tarixi Mənzumələri*, Nəşr olunmamış fəlsəfə doktorluğu dissertasiyası, Bakı: Bakı Dövlət Universiteti, 2012.
Səfəri Əlyar, Yusifli Xəlil, *Qədim Və Orta Əsrlər Azərbaycan Ədəbiyyatı*, Bakı: Ozan, 1998.
Süleymanlı Şamil, *Azərbaycan Ədəbiyyatı Ensiklopediyası*, I cild, Bakı: Nağıl evi nəşriyyatı, 2008, s.30~32.
Qacar Çingiz, *Azərbaycan Qədim və Orta Əsrlərdə: Görkəmli Şəxsiyyətlər*, Bakı: Oka ofset nəşriyyatı, 2012.
Qətran Təbrizi - 1000, Bakı: MBM nəşriyyatı, 2012.

I A026 | 갠재 칸국

- 시기 A.D. 15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아제르바이잔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국가 ● 유형 소분류2 왕조
- 집필자 최선아 (자문위원 : Əli Şamil) ● 라틴 문자 Gəncə xanlığı

18세기 중반, 갠재 시(Gəncə şəhəri)를 수도로 삼아서 건립된 칸국인 갠재 칸국(Gəncə xanlığı, 1747년~1804년)은 샤흐웨르디 칸 지야드오글루 2세(II Şahverdi xan Ziyadoğlu)에 의해 세워졌다. 갠재 칸국은 현 아제르바이잔 영토 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영토는 무로브다그 산맥(Murovdağ silsiləsi)에서 쿨르 강(Kür çayı)까지였으며, 카라바흐 칸국(Qarabağ xanlığı), 이레반 칸국(İrəvan xanlığı) 및 가작 술탄국(Qazax sultanlığı), 샴새드딜 술탄국(Şəmsəddil sultanlığı) 및 조지아와 인접해 있다.

16세기 타흐마스프 1세(Tahmāsp, 아르제바이잔어 표기: Təhmasib, 재위: 1524년~1576년)가 샤흐웨르디 칸 지야드오글루(Şahverdi xan Ziyadoğlu)를 이 지역의 아미르로 임명했다. 1736년에 나디르 샤흐(Nadir)가 즉위하자 지야드오글루(Ziyadoğlu) 부족은 무간 쿠릴타이(Muğan qurultayı)에서 반란을 일으켰고, 이로 인해 나디르는 지야드오글루 부족의 권리와

행정 구역을 축소했다. 더불어 나디르는 카르틸리-카헤티아(Kartli-Kaxetiya) 왕국의 영토와 영향력을 증가시켰다. 샤흐웨르디 칸 지야드오글루 2세는 갠재에 있던 나디르의 부대를 카르틸리-카헤티아 차르국의 차르 이라클리 제2세의 도움으로 물리쳤고 이로 인해 갠재 칸국은 카르틸리-카헤티아(Kartli-Kakhetia) 차르국에 세금을 내게 되었다.

조지아 차르들은 아제르바이잔 칸국 간의 경쟁 관계를 유리하게 이용하고자 했다. 조지아 차르들은 우선 아제르바이잔 북부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카라바흐 칸국의 패나헬리 칸(Pənahəli xan)을 자신들의 편으로 끌어들이는 계획을 했으며, 패나헬리 칸을 비롯하여 시애키 칸국(Şəki xanlığı) 세력의 확장을 우려한 인접 칸국들과 시애키 칸국의 내부 세력을 모아 시애키 칸국을 공격할 계획을 세운다. 패나헬리 칸은 카라바흐 칸국의 영토를 확장하고자 조지아 차르들의 제안을 받아들였으며, 이어 카라바흐의 카즘 칸(Kazım xan), 나흐치반의 헤이대르 굴루 칸(Heydərqulu xan), 갠재의 샤흐웨르디 칸(Şahverdi xan)과 이레반의 휘세인굴루 칸(Hüseynqulu xan)이 동맹에 합류했다.

협상 진행을 위해 동맹국들의 칸국에게 갠재에서 만날 것을 제안한 이라클리 2세(Erekle II, 아제르바이잔어 표기: Irakli II)는 그의 아버지 테이무라즈(Teymuraz)와 함께 대규모 군대를 이끌고 회의 장소로 도착하여, 동맹 칸국들을 포획하고 트빌리시(Tiflis)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이 소식을 들은 하즈 챠래비 칸(Hacı Çələbi xan)은 서둘러 그들을 추격해 그즐 가야(Qızıl qaya)라는 곳에서 격파했고, 이 사건으로 이라클리 2세와 그의 아버지 테이무라즈는 도주했다. 하즈 챠래비 칸은 추격을 멈추지 않았고, 그 결과 보르찰르(Borçalı)와 가작(Qazax) 지역을 점령했다. 하즈 챠래비 칸은 점령한 보르찰르와 가작 지역의 통치를 자신의 아들 아가키시이에(Ağakışiyə)에게 맡기고 시애키로 돌아왔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아가키시이에는 조지아 군대의 압력을 받아 시애키로 돌아가게 되었다.

1780년 카르틸리-카헤티아(Kartli-Kakhetia) 차르국은 카라바흐 칸국의 칸인 이브라힘헬릴 칸(İbrahimxəlil xan)의 연합군이 갠재를 점령하게 되었고, 당시 막 즉위한 매햄매드 칸(Məhəmməd xan)은 적의 공격에 의해 눈이 멀어 슈샤 요새(Şuşa qalası)에 갇히게 되었다. 이 사건으로 갠재 칸국은 이라클리 2세와 이브라힘헬릴 칸이 통치하게 되었다.

1783년 갠재 칸국의 이중 권력을 종식시키기 위해 하즈 배이(Hacı bəy)가 이끄는 봉기가 시작되었고, 결국 갠재를 통치하고 있었던 두 명의 통치자는 갠재에서 추방되었다. 1784년 가을,

이라클리 2세와 부르나소브(Бурнашев, Степан Данилович) 대령이 이끄는 러시아 군대가 갠재를 공격하는 사태가 일어나지만 다그스탄(Dağıstan) 통치자들의 도움으로 갠재 칸국(Gəncə xanlığı)은 침략을 막을 수 있었다.

카라바흐 칸국의 이브라힘헬릴 칸(İbrahimxəlil xan)은 슈샤 요새에 수감된 매햄매드 칸(Məhəmməd xan)이 갠재 칸국의 칸이 될까 우려하여 그를 처형했다. 그러나 매햄매드 칸(Məhəmməd xan)의 형인 래힘 베이(Rəhim bəy, 재위: 1785년~1786년)가 슈샤 요새에서 갠재로 탈출해 간신히 권력을 장악했다. 이에 불만을 품은 이브라힘헬릴 칸은 이라클리 2세와 함께 갠재 공격을 계획했고, 일정 금액의 공물을 지불한다는 대가로 자바드 칸(Cavad xan, 재위: 1786년~1804년)이 권력을 잡았다.

예카테리나 2세가 사망한 이후 러시아군이 아제르바이잔 영토에서 철수하게 되자 자바드 칸은 나디르 샤흐(Nadir şah) 시대에 카르틀리(Kartli) 왕국 영토였던 시엠시애드딜(Şəmşəddil), 가작 및 보르찰르 지역을 수복한다. 또한, 자바드 칸은 조지아 왕자였던 알렉산드르(Aleksandr)를 재정적으로 후원했다. 이 사건으로 갠재 칸국과 조지아는 러시아와의 관계가 악화되었다.

때문에 러시아는 지정학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갠재를 점령 지역으로 선택했다. 러시아는 자바드 칸에게 항복을 여러 번 제안했지만, 거절당했고, 결국 러시아군은 1803년 11월 20일 티블리스에서 갠재로 행진하여, 12월 갠재 요새에 도착했다.

러시아군은 1804년 1월 3일 새벽 5시에 공격을 명령했고, 치열한 전투 끝에 요새를 점령하는 데 성공했다. 이 전투에서 자바드 칸과 그의 두 아들은 끝까지 요새를 지키기 위해 분투했으나 결국 사망했다. 이 전쟁으로 2천여 명이 죽고 최대 1만 8천 명이 포로로 잡히게 되었다. 이 침공으로 갠재 칸국은 멸망한다. 이후 갠재의 이름은 점령군 러시아 제국의 황제 알렉산드르의 아내 엘리자베타(Елизавета, 아제르바이잔어 표기: Yelizaveta)의 이름을 따 엘리자베폴(Yelizavetpol)이 되었다.

갠재 칸국은 축산업, 양잠업, 원예업, 포도 재배업, 원예업이 주를 이루었으며, 직조, 용단 직조, 장신구, 염색, 도예 등의 예술 분야가 발달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간자 칸국, 간자 한국, 갠재 한국, 겐제 칸국, 겐제 한국

● 다국어 표기 Gəncə xanlığı(아제르바이잔어), Gence Hanlığı(튀르키예어), Ganja xonligi(우즈베크어), Ganja

Khanate(영어), Гянджинское ханство(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카라바흐 칸국, 시야키 칸국

● **참고문헌(오프라인)** Azərbaycan Tarixi. 7 Cildə, 4-Cü Cild, Bakı, 2000, S.14~53.

Azərbaycan Tarixi: Dərslük / Z. Bünyadovun Redaktorluğu ilə. Bakı: Azərneşr, 1994, 680 Səh.

Azərbaycan Tarixinə Dair Qaynaqlar. Bakı, 1989, S. 271.

Бабаев Эльгюн. Из Истории Гянджинского Ханства, Баку, Nurlan, 2003, 234 Ст.

Bünyadov Ziya, Yusifov Yusif. Azərbaycan Tarixi, Bakı, 2006.

Çingizoğlu Ənvər. Qarabağ Və Gəncə Xanlığının Siyasi Əlaqələri, “Soy” Dərgisi, № 4 (12), Bakı, 2008, Səh.80~83.

Əliyev F. XVIII Əsrin Birinci Yarısında Azərbaycanda Ticarət. Bakı, 1964.

Əmrahnov Mais, Çingizoğlu Ənvər, Həsənov HƏBil. QARABAĞ Xanlıǵı. Dərs Vəsərti. Bakı, Mütərcim, 2008 – 208 S.

Hacıyeva Zəmfıra. Qarabağ Xanlıǵı: Sosial-iqtisadi Münasibətlər Və Dövlət Quruluşu, Bakı, 2007, Səh.

Hüseynov Yunis. “Qarabağnamələr” Azərbaycan Tarixini Öyrənmək Üçün Mənbə Kimi, Bakı, “Elm” Nəşriyyatı, 2007, 216.

Hüseynov Yunis. Şuşa Şəhərinin Tarixi. Bakı: “Şuşa”. 2013. 156 Səh.

Qarabağnamələr (Çevirənlər Və Nəşrə Hazırlayanlar.: Nazim Axundov, Akif Fərzəliyev): I kitab, Bakı, Şərq-Qərb Nəşriyyatı, 2006. Səh. 216.

Qarabağnamələr (Çevirənlər Və Nəşrə Hazırlayanlar.: Nazim Axundov, Akif Fərzəliyev): II Kitab, Bakı, Şərq-Qərb Nəşriyyatı, 2006. Səh. 288.

Qarabağnamələr (Çevirənlər Və Nəşrə Hazırlayanlar.: Nazim Axundov, Akif Fərzəliyev): III Kitab, Bakı, Şərq-Qərb Nəşriyyatı, 2006. Səh. 248.

Mustafazadə. Tofiq Qarabağ Xanlıǵı, Bakı: “Sabah”. 2009. 333 Səh.

Məmmədov Kərəm. 1000 il İrəni idarə Edən Türklərin, Qacarları, “Ədalət” Qəzeti, 28 Fevral, 2021-Ci il.

Mustafayev T. XVIII Yüzüillik-XIX Yüzüilliyin Əvvəllərində Osmanlı-Azərbaycan Münasibətləri. Bakı, 2002.

Nuriyeva İradə Tofiq Qızı. Azərbaycan Tarixi (Ən Qədim Zamanlardan-XXI Əsrin Əvvəllərində). Ali Məktəblər Üçün Dərslük. – Bakı: Mütərcim, 2015. – 336 Səh.

Süleymanov Mehman Gülüstan Müqaviləsi – II Hissə. “Elm Və Təhsil”, Bakı, 2014, 608 Səh.

Tahirzadə Ədalət. Ağaməmməd Şah Qacar, Bakı, “Kür” Nəşriyyatı, 2002.

I A027 | 거란

● 시기 A.D. 1000년~A.D. 1500년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중국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국가 ● 유형 소분류2 왕조
● 집필자 우덕찬 ● 라틴 문자 Cathay, Kitay

거란의 종족적 기원 문제는 오늘날 전문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아직 뚜렷한 정설은 없지만 몽골계 방언을 사용한 종족으로 추정되고 있다. 거란족의 본거지는 동몽골 지역의 요하 유역(遼河流域)으로 기원후 4세기 말부터 중국 사서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고대로부터 동몽골 지역은 북아시아의 유목 민족과 중국 화북 지역의 농경 민족의 생활권이 서로 만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 남북에서 생성된 정치적 세력이 강대하게 되면 그 침입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양자간의 격렬한 각축장이 될 수밖에 없었다. 거란사는 크게 세 시기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시기는 국가 건립 이전의 시기(4세기 말~907년)이다. 이 시기는 거란이 남방에서는 후연(後燕), 북연(北燕), 북위(北魏), 동위(東魏), 북제(北齊), 수(隋), 당(唐) 등의 중국 왕조들과 북방에서는 유연(柔然), 돌궐(突厥), 회흘(回紇) 등의 유목 국가들의 강대한 세력에 압박되어 이들에 대해 신속(臣屬)과 이반(離叛)의 역사를 되풀이했던 시기이다. 중국 사서에 따르면 이 시기의 거란은 최초 분산된 부족 단위로 존재하다가 5세기 중엽에 8부 연맹체가 형성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거란의 8부 연맹체는 5세기 말 거란의 성장을 의식한 고구려와 유연의 공격으로 해체를 가져왔다. 거란은 북조의 분열 및 유연의 쇠망으로 일시적으로 부흥의 기회를 갖게 되지만 6세기 중후반 돌궐의 강성과 이로 인한 동방 진출로 인해 돌궐에 복속되었다. 이후, 거란은 581년 수에 의한 중국 통일과 돌궐의 내홍(內訌)으로 인한 583년 돌궐 제국의 분열로 인해 돌궐의 지배에서 이탈하게 되었고 수의 지원 아래 거란의 여러 부족들은 그들의 고지로 귀환하게 되었다. 10개의 부족 집단이 연맹된 10부 연맹체가 성립되어 그들 사이에는 연맹체를 다스리는 군장(君長)이 등장하게 되었다. 사료에 따르면 각부의 수령은 대인(大人)이라 불리었고 8부의 대인들이 모여 연맹체를 이끄는 가한을 선출했다고 한다.

두 번째 시기는 야율씨족(耶律氏族)에 속하는 아보기(阿保機)가 강력한 카리스마를 배경으로 새로운 거란의 지도자로 등장하여 907년 여러 부족들을 통합함으로써 강성의 기회를 갖고 이후 거란족이 북중국을 점령해서 요라는 정복 왕조를 성립시켜 중국을 지배했던 시기를 지칭한

다. 907년 제(諸)부족 통합에 성공한 아보기는 먼저, 동몽골 지역의 중요 세력이었던 해(奚), 여진(女眞), 실위(室韋) 등을 복속시키고 거란의 부족들을 18부로 재편하고 대거란국(大契丹國)이라는 국호로 국가를 성립시켜 그 자신은 태조(太祖)로 등극했다. 이후, 그는 924년 크르그스를 공격해서 몽골고원의 지배를 종식시켰고 926년에는 만주의 발해(渤海)를 멸망시키고 그곳에 동단국(東丹國)을 건설했다. 한편, 아보기가 이룩한 가장 큰 문화적 업적은 거란 문자의 창제라 할 수 있다. 거란 문자는 부분적으로 위구르 문자의 요소를 갖고 있지만 한자 계통에 속하며 대자(大字)는 920년, 소자(小字)는 924년에 만들어졌으나 아직 완전히 해독되지 못했다. 927년 요굴지(耀屈之) 즉, 태종(太宗)이 등극한 후 거란은 중국이 5대 시대(907년 ~ 960년)로 분열된 틈을 타서 장성이남(長城以南)의 경영에 착수하는 데 성공했다. 즉, 당시 중요 군벌 세력 중의 하나였던 석경당(石敬瑭)을 도와 후당(後唐: 923년 ~ 936년)을 멸하고 후진(後晉: 936년 ~ 947년)을 성립시켜 그 대가로 거란은 연운 16주를 얻어 오늘날의 북경 지방을 포함하는 중요 지역을 직접 지배하게 되었다. 또한, 947년에는 과거 거란족이 할거하던 동몽골 지역에 흐르는 강명(江名)의 한자를 따라서 왕조명을 요(遼)로 채택하기도 했다. 특히, 요조는 제6대 황제인 성종 재위기에 이르러 최극성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960년 송의 건국으로 일정 기간 양국간의 정립 관계가 계속되다가 성종은 대대적인 군사 원정을 감행해서 1005년에 요는 송과 역사적인 전연회맹(澶淵會盟)이라는 일종의 불평등 조약을 체결해서 완전한 정치적,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아울러, 그는 내정 개혁을 단행해서 정치 조직과 군사 조직을 정비하고 법전을 편찬, 공포하여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확립했다. 사료에 따르면, 이로 인해 요조의 명성은 중앙 아시아를 거쳐 당시 아랍 세계로까지 전파되어 약 59개국에 조공하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성종의 뒤를 이은 흥종(興宗)과 도종(道宗) 시대에 이르러 요의 조정 내에는 보수파와 개혁파 사이의 갈등이 표출되면서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고 이와 아울러 거란족의 급격한 한화(漢化)도 진행되었다. 이러한 기회를 틈타 1029년 거란의 속민이었던 발해와 여진이 반란을 일으켰고 12세기 초에 거란의 판도 내에 거주하던 여진족들은 변경 밖에 거주하던 생여진(生女眞)과 연합을 했고 급기야 1125년 여진과 송조의 연합군의 공격으로 요조는 멸망하게 되었다.

세 번째 시기는 요조가 멸망한 후 거란의 지배 계층 중의 한 사람이었던 야율대석(耶律大石)이 거란의 잔여 무리를 이끌고 서천해서 드란스옥시아나(Transoxiana) 지역의 후스오르다 즉, 오늘날의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추(Chu) 강 유역의 벨라사군(Belasagun)을 중심으로 서요국

(西遼國, 黑契丹: 1132년 ~ 1211년) 즉, 카라키타이(Karakhitai)를 건설했던 기간이다. 야율 대석은 '전(全)세계의 칸'이란 뜻의 '구르 칸'(Gur Khan)이라는 칭호를 사용하면서 재위기간(1125년 ~ 1143년) 동안 국가의 영토를 중국 국경에서 아랄해(Aral Sea)에 이르는 지역까지 확장시켰다. 서요에서는 지배층이었던 거란인의 수효가 작았기 때문에 복속 지역은 그 지역의 해당 영주에 의해 다스려졌고 이들은 서요의 종주권을 인정하면서 '구르 칸'에 조공을 했다. 서요는 1211년 멸망했는데 제국의 동쪽 지역은 당시 칭기즈 칸에 복속되었던 나이만(Naiman) 족의 왕자인 큐출룩에 의해 점령되었고 서쪽 지역은 호라즘의 무하마드에 의해 점령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요나라

● 다국어 표기 契丹, 遼(중국어), kitan(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칭기즈 칸, 돌궐, 호라즘, 카자흐스탄, 트란스옥시아나

● 참고문헌(오프라인) 록 관텐, 송기중 역, 『유목민족제국사』, 민음사, 1984.

서울大學校東洋史學研究室 編, 『講座 中國史 II』, 지식산업사, 1989.

李龍範, 『中世 滿洲蒙古史의 研究』, 同和出版公社, 1988.

조성을 편역, 『격동의 아시아 정복왕조시대 : 송조와 몽골제국』, 집현전, 1988.

Parker, E.H., A Thousand Years of the Tartars. London, Dawsons of Pall Mall, 1969.

I A028 | 거리에 물을 뿌렸어(아제르바이잔 민요)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아제르바이잔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음악 ● 유형 소분류2 노래
● 집필자 최선아 (자문위원 : Bədirxan Əhmədli) ● 라틴 문자 Küçələrə su səpmişəm

「거리에 물을 뿌렸어(Küçələrə su səpmişəm)」는 아제르바이잔의 유명한 민요 중 하나이다. 이 노래에서는 연인을 기다리는 그리움이 섬세하게 묘사되었다. 떠난 임을 기다리는 이의 열망이 담겨 있는데, 임이 돌아오기를 갈망하며 떠난 임이 다시 돌아올 때 길에 먼지가 없도록 거리에 물을 뿌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사는 다음과 같다.

‘거리에 물을 뿌렸어. 내 사랑이 올 때 먼지가 나지 않도록.
 내 사랑이 오고 갈 때, 우리 사이에 아무 문제가 없기를.
 시마와르(Simavar; 사모바르, 차를 닳이는 향로 모양의 주전자)에 불을 피웠어.
 찻잔에 각설탕을 넣었지.
 내 사랑은 떠나고 나는 홀로 남았네.
 내 사랑 얼마나 소중한가, 내 사랑 얼마나 달콤한가.
 시마와르에 불을 지퍼요. 찻잎을 넣어요.
 내 사랑 얼마나 소중한가, 내 사랑 얼마나 달콤한가.
 찻잔들만 진열장에 한가득인데
 내 사랑을 못 본 지 벌써 일주일.
 내 사랑 얼마나 소중한가, 내 사랑 얼마나 달콤한가.’

아제르바이잔의 유명한 가수 래시드 베흐부도브(Rəşid Behbudov, 1915년~1989년)가 이 곡을 불러 큰 인기를 얻기도 했다.

이 곡은 아제르바이잔 민주공화국(Azərbaycan Xalq Cümhuriyyəti) 시기 아제르바이잔을 지원하러 왔던 튀르키예 군인들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사되기도 했다.

‘거리에 물을 뿌렸다네/ 튀르키예 손님 올 때 먼지 나지 않도록/ 올 때 갈 때 모두/ 우리 사이 아무 문제 없기를.’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거리에 물을 뿌렸으면, 거리에 물을 뿌린다면, 쿼체래래 수 세프리스썸
- 다국어 표기 Küçələrə su səpmişəm(아제르바이잔어), Caddelere su səpmişəm(튀르키예어), Я брызгал водой на улицы(러시아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6qgqisq00fU>
<https://www.youtube.com/watch?v=Qz5f9iArLxw>
- 참고문헌(온라인) <https://web.archive.org/web/20140409112454/http://www.azadliq.info/component/content/article/357-kiv/30853-kueclr-su-spmim-tuerk-glnd-toz-olmasn.html>
- 참고문헌(오프라인) Əzizxanlı Qardaşxan, *Çağdaş vətəndaşlıq lirikasında milli birlik motivləri* (Məmməd Araz, “Söhrab Tahir AzərAzər və Məmməd İsmayılın yaradıcılığı əsasında”), Azərbaycan Milli Elmlər Akademiyası M. Füzuli

I A029 | 거브쿠션 복합단지

- 시기 A.D. 1500년 ~ A.D. 1800년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건축
- 유형 소분류2 복합단지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Govkushon Ensemble

거브쿠션 복합단지는 1562년~1579년 부하라에 건설되었다. 이 복합단지는 2개의 거리와 샤 루흐 운하의 교차로를 따라 건물이 늘어서 있는 형태이다. 건물은 모스크, 미너렛, 수조, 마드라사 두 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건축물이 세워졌던 당시는 샤이바니 조 압둘라 칸 2세 (Abdullaxon II, 재위: 1583년~1598년)의 통치 시기로 압둘라 칸 2세의 적형제이자 수양 동생이었던 쿨버버 코칼더쉬(Qulbobo ko'kaldosh, 1534년~1598년)와 호자 조이버르(Xoja Jo'ybor 또는 Khwaja Sa'd al-Din Jubari)와 같은 유력자들의 후원으로 도시를 재건하던 시기였다. 특히 이 거브쿠션 복합단지는 호자 조이버르의 후원으로 건설되었다.

이미 건축물이 형성되어 있던 거리 위에 지어져 마드라사는 사다리꼴 형태를 취했다. 모스크 역시 직사각형 형태이나 거리와 평행하게 만들어져서 키블라 벽은 메카 방향에서 벗어나 있다. 다만, 기도실을 포함한 모스크의 북쪽 절반은 사라져 메카 방향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모스크 동쪽에는 샤 루크 운하의 물을 받을 수 있는 팔각형의 수조가 있었으나 1930년대에 매립되었다. 수조의 남서쪽에는 첨탑이 있는데, 이는 부하라에서 두 번째로 높은 첨탑이었으며 모스크와는 다리로 연결되어 있다. 동편의 미르 하이다르 발라 마드라사는 후에 건설된 것이다. 마드라사는 중정을 건물이 둘러싼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이 건물은 전형적인 당대의 양식으로 지어졌으며, 건물과 상수도의 관계를 있는 그대로 관찰할 수 있는 귀중한 역사적 유산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고브쿠션 복합단지, 거브쿠션 마즈무아시, 고브쿠산 마즈무아시
- 다국어 표기 Govkushon majmuasi(우즈베크어), Khoja Gaukushan Ensemble(영어)



복원 공사 중인 거브쿠션 복합단지

● 멀티미디어 링크 거브쿠션 복합단지

https://www.orientalarchitecture.com/gallery/uzbekistan/bukhara/khoja-gaukushan-ensemble/photos/khoja-gaukushan_emsemble01.jpg

● 참고문헌(온라인) <https://www.orientalarchitecture.com/sid/1338/uzbekistan/bukhara/khoja-gaukushan-ensemble>

● 참고문헌(오프라인) “ГОВКУШОН МАЖМУАСИ”, ЎЗБЕКИСТОН МИЛЛИЙ ЭНЦИКЛОПЕДИЯСИ Г ҲАРФИ, Tashkent; Давлат илмий нашриёти, 2000, p.376.

Knobloch, Edgar. Monuments of Central Asia, London: I.B. Tauris: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distributed by St. Martin's Press, 2001.

I A030 | 거우베이 무덤군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동아시아 ● 나라 중국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유적 ● 유형 소분류2 무덤
- 집필자 김재윤 ● 라틴 문자 Goubei Cemetery of Jiaohe Old City

거우베이 무덤군은 중국 신강성 투르판(吐魯番市) 아얼향 소재 거우베이 대지 위에 위치해 있다. 유적과 마주보는 곳에는 교하고성이 있다. 거우베이 대지의 남부에 무덤이 밀집되어 있고, 55기가 발굴되었다. 35기는 합장묘, 14기는 단인장, 나머지 6기는 알 수 없다. 합장묘는 대부분 남녀 부부 합장묘인데 20기이고, 부부와 아이까지 매장된 무덤이 14기이다. 1기는 6인이 매장된 무덤이다. 무덤은 지표상에 원형으로 돌을 두른 흔적이 있고 그 아래에 무덤 구덩이를 수직으로 파거나, 혹은 수직으로 파고 벽을 옆으로 파서 만든 무덤 방도 있다. 나무로 된 무덤 바닥과 목관의 시설이 있다. 시신은 사지를 쪽 펴고 똑바로 누운 자세로 매장되었다. 그중에서 M1호와 M16호는 배장묘와 순마갱이 따로 마련된 대형 무덤이다. 순마갱은 말을 부장한 것이 대부분이지만 낙타가 부장된 경우도 있다. 특히 M16호 주변에는 말 29필, 낙타 3필이 매장된 동서로 순마갱 18기가 배치되었다. 구덩이를 파고 바닥에 말을 웅크리고 매장했다. 금은기와 청동기, 철기, 토기, 골각기 등 300점 정도가 유적에서 출토되었다. 장신구가 특히 많은데 골제와 목제, 금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금으로 된 장신구는 패식, 고리 등이다. 재갈과 버클 장식, 화살촉과 칼은 철기로 제작되었다. 실크가 조각 난 채 발견되었다. 이 유적은 차사국(車師國)의 무덤으로 기원전 3세기~기원후 4세기때 것으로 추정된다. 차사국은 신장 투르판의 교하고성을 수도로 해서 서역과 교류하던 고대 국가 중 하나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거우베이 유적, 꺼우베이 유적
- 다국어 표기 交河故城 溝北墓群(중국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新疆維吾爾自治區文物局 編, 『新疆維吾爾自治區第三次全國文物普查成果集成-吐魯番地區卷』, 北京: 科學出版社, 2011.
羊毅勇, 「吐魯番交河故城溝北1號台地墓葬發掘簡報」, 『文物』1期, 文物出版社, 1996.

I A031 | 거지 유누스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Guzal Mihrayeva ● 라틴 문자 G‘ozi Yunus

거지 유누스(Yunus-Muhammad oglu Gozi Yunus)는 20세기 우즈베크 문학에서 가장 저명한 작가 중 한 명으로, 훌륭한 스토리텔러이자, 시인이며, 극작가, 언론인이었다.

그는 1889년 타슈켄트의 어훈구자르(Oxunguzar) 마할라에서 지식인과 장인의 가정에서 출생했다. 건설 장인인 부친과 함께 신도시 건설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조기에 러시아어를 완벽하게 익히게 되었다. 또한, 마드라사에서 아랍어와 페르시아어를 배웠고, 물라(Mulla) 칭호도 받았다. 1915년 마드라사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후, 민요와 전통 음악에 관심을 보이며 전통 악기인 두타르, 탄부르 연주를 배우고 가수로도 알려진다. 1916년 발트해 전선에 참전하여 부상을 당해 장애를 얻고 돌아온다. 이후 혁명 시기에 예선구자르(Eshonguzar) 마할라에서 결성된 ‘형제 돕기 위원회(Og‘alarga yordam qo‘mitasi)’에서 비서실장으로 일하다가 비방 혐의로 한동안 수감되었다. 이 경험은 서사시 『감옥의 기억과 불의의 재앙(Turma xotirasi yoki haqsizlik kasofati)』 탄생의 바탕이 된다. 그의 작품은 점차 유명세를 타게 되고, 연극무대에서도 상연되기 시작한다. 그러자 그는 직접 배우로 무대에 서기도 했다. 압둘라 커디리이(Abdulla Qodiriy)의 『불행한 신랑(Baxtsiz kuyov)』에서 연기했고, 자신의 창작품인 『자허키 마론(Zahhoki maron)』에서 자허크(Zahhok)의 아버지 테미르터쉬(Temirtosh) 역을 맡아 연기했다.

또한, 그는 『사이드저다라르(Saidzodalar)』와 『신생아(Bachajish)』와 같은 풍자 단편소설도 창작했다. 이는 우즈베크 단편소설 문학 형성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거지 유누스의 또 다른 업적으로는 우즈베크 국영 언론사와 인쇄소의 설립이다. 부하라와 바쿠 등지에서 인쇄 장비와 활자 등을 가져왔으며, 타슈켄트에 위치한 에스키주와(Eskijuva) 인쇄소를 설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또한, 신문 <투르키스탄(Turkiston)>, <붉은 깃발(Qizil bayroq)>, <자라프션(Zarafshon)>과 잡지 <주먹(Mushtum)> 창립자이자 편집장으로 활동했다. 1921년에 타슈켄트 시 집행 위원회는 그의 광범위한 영역에서의 활발한 활동과 기여에 ‘노

동과 언론의 영웅(Mehnat va matbuot qahramoni)’이라는 칭호를 주었다.

그는 문학작품 창작 이외에도 우즈베키스탄의 정치, 사회, 문화 특히, 연극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담은 칼럼을 150편 이상 기고했다. 그는 초기 「우리의 질병과 치료제(Kasalimiz va aning dorusi)」나 「울라마 예언자의 후계자(Al ulamou vorisat ul anbiyo)」와 같은 칼럼에서는 이슬람 신앙을 기반으로 한 단결과 연대를 촉구했다. 그후에는 「자유인가, 억압인가?(Hurriyatmi yoki istibdod?)」, 「종교라는 이름의 선동자(Din nomidan ig‘vo tarqatuvchilar)」 그리고 「우즈베키스탄(O‘zbekiston)」과 같은 칼럼을 통해 당시 시대적 불의와 모순을 폭로했다. 이 때문에 그는 1918년 가입했던 당에서 1924년 제명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굴하지 않고 「프랑스 혁명의 결과(Frantsiya inqilobi natijalari)」, 「영국 권력의 제2기(Ingliz hokimiyatining ikkinchi davri)」, 「정치 광장(Siyosat maydonlarida)」과 같은 칼럼으로 적극적으로 국제정세 비평에 나섰고, 언론인으로 널리 알려진다.

거지 유누스는 1937년 8월 6일 ‘인민의 적’, ‘범투르크주의자’, ‘범이슬람주의자’라는 혐의로 체포되었다. 결국 1942년 5월 5일 볼로그다의 감옥에서 굶주림과 질병으로 사망하고 말았다. 사후 1957년 1월 22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가지 유누스, 고지 유누스

● 다국어 표기 G‘ozi Yunus(우즈베크어), Гози Юнус(러시아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yuz.uz/uz/news/umid-uchun-kechmak-kerak-bu-choldan>

● 참고문헌(온라인) <https://shosh.uz/uz/gozi-yunus-va-turkiston-muxtoriyati/>

● 참고문헌(오프라인) Aminov va boshqalar, O‘zbekiston milliy ensiklopediyasi. Toshkent: O‘zME Davlat ilmiy nashriyoti, 2000–2005.

S. Mirvaliyev. Rixsiya Shokirova, O‘zbek adiblari. Toshkent: Fan, 2007.

I A032 | 건축 도기 장식

- 시기 기타 ● 지역 기타 ● 나라 기타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건축 ● 유형 소분류2 장식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Ornamental Tile

건축 도기 장식은 벽면 등을 유색 타일로 장식한 건축 장식의 일종으로 흔히 타일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타일은 일반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만든 판 위에 색을 입히고 유약을 발라 구워 만든다. 이 유약이 녹아 판 위에 투명한 층이 형성되고, 색을 보호하여 건축물에 색을 입혀준다. 이러한 타일 기술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기술적 변화를 겪는다. 기본적으로 타일 기술의 발전은 일반적인 도자기 생산 기술과 비슷하게 발전한다.

초창기 타일은 벽돌 위에 색이 있는 유약을 사용한 것으로 고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에서 발견되었다. 이슬람 예술에서 자주 사용된 건축 도기 장식은 투르크 권에서는 특히 많이 사용되었다. 이미 이슬람 이전 위구르인이 유약을 바른 판을 사용하여 장식하기도 했다.

압바스 시대 투르크 노예군들이 활약했던 이라크 사마라 도시의 유적에서 러스터 기술이 가미된 타일이 발굴되기도 했다.

이슬람-투르크 예술에서 건축 도기 장식은 카라한 조, 가즈나 조, 그리고 호라즘 샤 이후로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각종 기록과 발굴 조사 결과에 따르면 11세기~12세기 대 셀주크 조가 존재하던 호라산과 이란에서도 역시 건축 도기 장식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이란 지역의 건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던 타일 모자이크 기술은 14세기 일 칸국 시대에 절정을 이룬다. 이집트 맘루크 조에서도 타일 사용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아나톨리아 셀주크 조와 대 셀주크 조에서 초기에는 유약을 바른 벽돌을 사용하다 이후 보라색, 터키석색, 초록색, 남색의 패널을 다양한 형태로 잘라 회반죽 바탕 위에 정렬하는 모자이크 기술을 주로 사용했다. 종교 건축물에서는 주로 식물 문양과 쿠픽체, 술루스체의 서체 장식, 기하학 문양을 주로 사용했다면, 비종교 건축물에서는 사람과 동물과 같은 형태나 쌍두독수리, 용, 스팅크스 같은 신화 속 동물을 상회(上繪) 채식법과 러스터 기법을 사용하여 표현했다.

성형된 반죽을 초벌 전에 고온에서 견딜 수 있는 녹색, 짙은 파랑, 보라색, 터키석 색으로 그린 후 유약을 바르고 구운 뒤에 검은색, 붉은색, 흰색, 도금으로 그려 다시 저온에서 구운 미나



건축 도기 장식으로 이루어진 루스팀 파샤 모스크 키블라 벽면

이 도기 기법도 자주 사용되었다.

15세기 티무르 시대의 중앙아시아 부하라, 샤흐리샅스, 메르브, 우르겐츠와 같은 도시를 비롯하여 사마르칸트는 도자기와 타일 생산의 중심지였다. 초창기에는 극동 아시아의 모티프를 주로 사용했으나, 갈수록 새, 꽃을 비롯하여 신화 속 새를 표현하는 등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스타일을 추구했다. 이전 시대에 따뜻한 색이 주로 사용되었다면, 티무르 조에 이르러서는 푸른색 중심의 차가운 스타일로 변화했다. 이 기술은 사파비 조에서도 지속적으로 사용되었다. 16세기 이후로는 이 도자 생산 전통이 지속되기는 했으나 코발트 대신에 질 낮은 안료가 주로 사용되었다.

오스만 제국 초기에는 문양 윤곽을 반죽 위에 깊게 파거나 도장으로 눌러 그려 색유약을 발라 굽거나, 흰색 밑칠 후 크롬과 망간을 섞은 것으로 문양 윤곽을 그려 굽는 법을 사용했다. 이

는 색유약이 다른 색상을 침범하지 않게 막아준다. 색상 역시 노란색, 마젠타 그린 같은 색이 추가되었고, 극동 지역에 뿌리를 둔 문양 역시 추가되었으며 청화 백자 기술 역시 타일에 적용되었다. 1402년 앙카라 전투 이후 사마르칸트에서 온 타브리즈 출신 장인들이 오스만 제국의 타일 발전 기술에 영향을 주었다. 16세기 이후에는 하회(下繪) 채색법이 오스만 제국 타일과 도기 예술에 적용되고, 산호빛 붉은색 역시 추가적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17세기 이후 다양한 문양을 사용하는 쿠타야 지역 도자기와 타일이 분전(奮戰)하지만 18세기 이후 오스만 제국 도자기는 완전히 쇠퇴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치니, 커신, 파르친, 타일
- 다국어 표기 çini(튀르키예어), koshin(우즈베크어), kaşı(아제르바이잔어), кафель(카자흐어), plitka(투르크멘어)
- 연관 검색어 이즈니크 도자기, 쿠타히아 도자기
- 참고문헌(오프라인) Hakimov, A. A.; E. Novgorodova and A. H. Dani, "Arts and crafts", History of Civilizations of Central Asia, Volume IV, Part II (Ed: C. E. Bosworth and the late M. S. Asimov). UNESCO, 2002, pp.411~460.
Yetkin, Şerare "ÇİNi", TDV İslâm Ansiklopedisi cilt 8, İstanbul: TDV, 1993, pp.329~335.

I A033 | 검은 1월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아제르바이잔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사건
- 집필자 오은경 ● 라틴 문자 Black January

1918년 9월 간자(Gəncə)를 수도로 하는 ‘아제르바이잔 민주공화국’이 탄생했지만 1920년 4월 러시아 ‘붉은 군대’의 침공으로 아제르바이잔 민주공화국은 오래 존속하지 못했다. 소련은 아제르바이잔을 점령했고, 연방으로 편입시켰다. 이런 상황은 민족의식을 자극하여 아제르바이잔의 민족부흥운동이 더 활발하게 전개된다. 계속되는 아르메니아인들과의 충돌은 아제르바이잔인들의 민족주의를 더 고조시킨다. 특히 소비에트 연방 중앙정부는 친아르메니아적인 성향을 띠고 있었기에 아제르바이잔인들의 민족주의는 더욱 더 고양될 수밖에 없었다. 소련

이 직접 카라바흐 지역을 통치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아제르바이잔인들의 위기감은 더욱 고조되었다.

이런 역사적 맥락 속에서 아제르바이잔 민족주의자들에 의해 본격적인 민족해방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부터이다. 반정부 민족운동 지도자들은 남(南)아제르바이잔과의 통일 문제 등 민족국가 건설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1988년 7월 16일 민족주의 단체인 ‘아제르바이잔 인민전선(Azerbaijan Popular Front)’이 결성되었다. 인민전선은 1918년 수립되었던 ‘아제르바이잔 인민민주공화국’을 계승할 것을 선언하였다.

이 시기인 1988년 바쿠에서는 소비에트 정권 공산당의 카라바흐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에 대해 강력한 시위가 열리기 시작했다. 바쿠 레닌광장 시위에는 수만 명이 참가했고, 지식인들과 노동자들이 주도하는 집회가 열렸다. 시위는 바쿠를 넘어 나히체반, 간자 등지로 확산되었고, 마침내 군경과의 충돌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게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카라바흐 지역 상황은 계속 아제르바이잔에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카라바흐 지역에 대한 아르메니아의 지배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카라바흐 지역 내 아제르바이잔인 거주 마을들이 아르메니아인에 의해 습격 받는 사건이 자주 발생했다.

결국 1990년 1월 13일~14일 만 이틀 동안 바쿠에서는 반(反)아르메니아 폭동이 일어났다. 인민전선은 이 폭동을 중재하는데 온갖 노력을 기울였고, 다행히 바쿠는 질서를 되찾아가는 시점이었다. 하지만 소련 중앙정부로서는 바쿠의 소요사태야말로 바쿠를 진압할 명분을 얻은 절호의 기회였다. 결국 1월 19일 밤부터 20일로 이어지는 새벽, 소련 군대가 탱크로 앞세워 들이닥쳤다. 이른바 ‘검은 1월’ 사건이었다. 소련군은 침략군과 다름 없었다. 바쿠 시내 한 가운데에서 “살아있는 생명체는 모두 닳치는 대로 총을 쏘아 댔다.”고 목격자들은 증언한다. 수많은 민간인들이 ‘학살’을 당했다. ‘검은 1월’ 사건 희생자들 모두가 언제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는 평범한 바쿠의 소시민들이었다. 언론 매체와 통신은 모두 두절된 상태였으므로, 바쿠 시민들도, 외부인들도 철저히 정보가 차단된 상황이었다. 무슨 일이 도대체 왜 발생하고 있는 것인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이 사건으로 공식적으로만 131명이 사망하고, 774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인민전선에 발을 담고 있던 민족주의 운동가 40여명이 체포되었다.

아무 영문도 모른 채로 당하고 말았던 바쿠 시민들에게 ‘검은 1월’ 사건은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가 되었다. 소련 중앙정부의 군 투입 작전은 이미 오래 전에 조직적으로 계획된 것이었다



‘검은 1월’ 희생자들을 모신 바쿠 현충원

는 것이 밝혀지면서 사건은 더욱 커졌다. 아제르바이잔 내에서 소련 중앙정부인 공산당 세력이 사실상 권력을 상실해 가는 데 위협을 느낀 소련 중앙정부의 기획이었던 것이다. 이때 소련 국방부 장관이었던 드미트리 야조프(Dmitri Yazov) 자신도 소련군의 바쿠 점령(‘검은 1월’ 사건)은 아제르바이잔 민족주의자들의 인민전선이 권력을 장악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실토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소비에트 중앙정부가 민간인을 ‘학살’했던 ‘검은 1월’ 사건은 아제르바이잔이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추구하게 되는 결정적 사건이었을 뿐만 아니라, 소련이 해체되는 데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블랙 재뉴어리
- 다국어 표기 Black January(영어), Qara Yanvar(아제르바이잔어)
- 연관 검색어 카라바흐, 켈뤼스탄의 시, 켈뤼스탄 조약, 배흐티야르 와합자대, 아제르바이잔 민주공화국, 아제르바이잔 인민전선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rl.kr/xdcuqn>
- 참고문헌(오프라인) 와합자대 배흐티야르 저, 오은경 옮김, 『켈뤼스탄의 시』, 대산문학총서, 문학과 지성사, 2019.
Thomas De Waal, “Black January in the World Press”, *Milliyet Research Center*, (az.Milliyet Araşdırmalar Mərkəzi), 18 December 2019.

I A034 | 검은 뼈대(카라 수이엑)

- 시기 기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카자흐스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제도 ● 유형 소분류2 신분
- 집필자 황영삼 ● 라틴 문자 qara suyek

검은 뼈대(카라-수이엑)은 일반 유목민, 농민, 군인 등 자유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로 경제 활동 또한 자신들의 의지로 활동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전통 카자흐스탄 사회에서 칭기즈 칸과 쥬치의 혈통을 지닌 최고 특권층이 ‘하얀 뼈대(악-수이엑, 백골)’라고 한다면 그러한 혈통을 갖지 못한 대부분의 카자흐인들은 ‘검은 뼈대(카라-수이엑, 흑골)’로 분류된다. 카라-수이엑 신분은 칸이나 술탄이 절대 될 수 없다. 군대를 지휘하는 장군이나 지방의 호족은 될 수 있어도 국가 최고 지도자는 될 수 없다.

카라-수이엑의 모든 권리는 법으로 보호되었으며 촌장인 악사칼도 이들의 권리를 보호했다. 물론 이들은 칸의 지위를 받을 수 없다. 대개 악-수이엑과 카라-수이엑 간의 교류는 철저한 신분제 사회를 유지하던 전통 카자흐스탄 사회에서는 거의 없었다. 카라-수이엑 계급은 자신들만의 권리와 혜택이 있었고, 이들보다 훨씬 못한 노예 계급보다는 상위에 있었다. 카라-수이엑 계급은 제정 러시아가 카자흐스탄 영역으로 팽창함에 따라 그 지위 또한 흔들리기 시작했고, 소비에트 혁명 이후에는 과거의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카라-수이엑은 카자흐스탄 전통 사회에서 분명히 평민층으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지방의 유지와 부유한 사람들도 이에 포함된다는 특징이 있다. 단지 칭기즈 칸과 쥬치의 혈통을 이어받지 못했다는 것이 그 구분점이 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카라 수이엑, 카라 수엑, 카라 수약
- 다국어 표기 қара сүйек(카자흐어), black bone(영어), черная кость(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카자흐스탄 사회
- 참고문헌(온라인) <https://el.kz/news/archive/aras-yek/>
- 참고문헌(오프라인) Казахстан. Национальн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т. 3, Алматы, 2005.

I A035 | 게르미안 공국

● 시기 A.D.1000년~A.D.15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국가 ● 유형 소분류2 왕조
● 집필자 이은정 ● 라틴 문자 Principality of Germiyan

게르미안은 투르크멘 부족으로 시작하여 왕조로 성장한 집단이었고, 1239년 룸 셀주크 시대에는 말라티야 인근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게르미안 부족이 언제 서북 아나톨리아로 이주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정보가 없으나 1264년에서 1277년 사이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게르미안 집단은 퀴타히아와 데니즐리를 중심으로 활동했고 앙카라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들은 몽골과 셀주크 왕조의 종주권을 인정했지만 중앙 권력이 점진적으로 와해되면서 점점 독립 왕조가 되어갔다. 야쿱 베이(재위: 1300년~1320년 이후, 정확한 사망 시점은 알려져 있지 않음.) 시대가 게르미안의 전성기였다고 할 수 있으니 14세기의 첫 번째 4분기에는 서북 아나톨리아의 다른 공국들이 그 영향권 안에 들었으며 에게 해 지역을 향한 원정들로 멘데레스 강 부근의 트리폴리스, 앙기르(히사르코이) 시마브와 쿨라 지역을 정복했고 알라셰히르를 정복하지는 못했으나 그로부터 지즈예를 거두었다. 알 우마리에 의하면 게르미안 공국은 크게 번영했고 야쿱 베이는 당시 튀르크 아미르들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군주였다고 한다.

14세기 중엽이 되면 상황이 크게 변하여 이전에 가신들이었던 가문들이 세운 사루한, 아이든, 카레시 등의 해안에 가까운 공국들에 의해 바닷길이 막히게 되었고, 1360년대에는 강력하게 성장한 오스만 공국과 카라만 공국 사이에 끼인 상태가 되었다. 따라서 게르미안의 군주 쉴레이만 샤는 오스만 공국과 이전에 있었던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우호 관계를 시작했으며 오스만 측의 무라드 1세와 협의하여 딸 데울레트 하툼을 오스만 왕조의 바이에지드 왕자(벽력왕 바이에지드)와 결혼하도록 했다. 이에 퀴타히아, 시마브, 에리괴즈, 타브샨르 등의 영토를 바이에지드에게 결혼 선물로 주고 자신은 쿨라로 물러났다고 하며, 이는 게르미안이 오스만 왕조의 지배하에 들어가는 데 첫 번째 중요한 단계가 되었다. 1381년 결혼과 함께 바이에지드는 퀴타히아에 지방관으로 부임했고, 1387년 쉴레이만 샤의 아들 야쿱 2세가 뒤를 이었으나 1390년 바이에지드에 의해 감금되었고 게르미안 공국 전체가 병합되었다. 9년간의 감금 생활 끝에 탈출한 야쿱 2세는 당시 중앙아시아와 아랍 지역을 휩쓸고 있던 유목 군주 티무르 세력에 망명했고, 앙

카라 전투에서 바이에지드가 패배하고 사로잡혔을 때 잡힌 여러 사람 중에서 바이에지드가 누구인지 지목해 준 사람도 바로 그였다고 한다. 앙카라 전투 후의 분열기에 아나톨리아의 다른 공국들과 함께 게르미안도 재건되었으나 곧 오스만 왕자들 사이의 내전(1402년~1413년)이 크게 벌어져 거기에 휘말렸다. 야쿱 2세는 자기 누이의 아들이자 최종적으로 승리한 메흐메트 왕자(메흐메트 1세)의 편에 서서 일단 존속할 수 있었으나 카라만 공국의 공격을 받아 근거지 퀴타히아를 잃었고 얼마 후 카라만 세력을 오스만 군이 격퇴해 주지 않았다면 독자적으로 존속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오스만 왕조의 무라드 2세(재위: 1421년~1444년, 1446년~1451년) 즉위 초에 일어났던 무스타파 왕자의 반란에서 게르미안 공국은 무스타파의 편을 들었다가 곤란한 입장이 되어 적극적으로 오스만 왕조와 우호 관계를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야쿱 2세는 1428년 후계자가 될 아들이 없음을 이유로 자신의 사후 무라드 2세를 게르미안 공국의 상속자로 한다고 밝혔고, 이에 술탄이 에디르네에서 성대한 의례로 대우했으며, 그다음 해 그가 사망하자 게르미안 공국은 오스만 왕조에 병합되었다. 게르미안은 셀주크의 행정체계를 대체로 계승했으며, 이크타(수조권이 딸린 봉토)를 중심으로 하는 토지 제도가 있었다. 다양한 면직물이 특산품으로 인기가 있었고 부르사와의 사이에 교역이 활발했으며 멘데레스 강의 수운을 이용해 많은 물자를 실어나를 수 있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게르미이안, 게르미안올라르, 게르미안 베이리이, 게르미안 베이리크
- 다국어 표기 Germiyanogulları Beyliği(튀르키예어), Germiyan Beyliği(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지즈예, 사루한, 아이든, 카레시, 카라만 공국
- 참고문헌(오프라인) Irene Melikoff, «Germiyan-Oghulları,» Encyclopaedia of Islam (Brill) 2nd edition Vol. 2, pp.989~990.
Mustafa Çetin Varlık, “Germiyanogulları, ” TDV İslam Ansiklopedisi, Vol. 14, pp.33~35.

I A036 | 게세르

- 시기 기타 ● 지역 동아시아, 북아시아 ● 나라 몽골, 러시아, 중국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구비 전승
- 유형 소분류2 신화
- 집필자 김홍중 ● 라틴 문자 Geser

게세르는 티벳, 티벳-버마계, 몽골계(부랴트 포함), 그리고 몇몇 투르크계(사라, 위구, 투바, 알타이 등) 민족신화에 등장하는 주인공이다. 게세르는 전설이나 서사시의 주인공이자 종교-신화적 제례의 대상으로 샤머니즘 기원 의식, 기도, 주문에 등장한다. 게세르란 이름은 이란-소그드식 명칭인 케사르(кесарь)나 고실로(Госыло)에서 파생되었다. 게세르 신화는 처음에는 티벳 북동 지역에서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전설에 따르면 게세르는 하늘의 주인의 세 아들 중 하나로 통치자가 없는 린 왕국으로 파견되었다고 한다. 그는 린의 귀족 집안에서 조루(Джору)라는 이름의 코흘리개이자 못생긴 아이로 환생했고, 삼촌 트호툰(또는 초툰, 소툰, 하라 주탄 등으로 표기하기도 함.)에게 핍박을 받았다. 하지만 조루는 어린 시절부터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여러 악마를 무찌르기도 하고 미녀 드루그모(로그모-고아, 우르마이-고혼)와 린 왕국의 왕좌와 보물이 걸린 말 경주에서 승리했다. 그리고 그는 하늘로부터 천마를 얻고 게세르(몽골에서는 게세르 칸으로 불림.)란 자신의 진짜 이름을 획득했다.

게세르는 악마에게 납치되어 악마의 아내가 된 옛 아내 메자 붐드지드(또는 투멘 자르갈란, 투멘 야르갈란으로 부르기도 함)의 도움을 받아 북쪽의 악마와 식인귀 루브산(또는 로브사가, 루브사르가, 로브소골도이 하라 만가드하이)을 무찔렀다. 하지만 메자 붐드지드가 게세르에게 망각의 음료를 먹였기에 게세르는 북쪽에 남게 되었다.

한편 린 왕궁에서 드루그모를 탐냈던 트호툰이 배신해서 린 왕국으로 이웃 국가 호르인들이 쳐들어와 드루그모를 납치해 갔고 그녀는 호르의 왕인 구르카르의 아내가 되었다. 하늘의 도움으로 환각에서 깨어난 게세르는 고향으로 되돌아간다. 추한 소년의 모습을 한 그는 호르로 잠입해 마법을 사용하여 구르카르를 죽이고 그의 나라를 차지한 뒤 드루그모와 함께 린으로 돌아온다.

몇몇 줄거리는 게세르가 마법을 사용해 공주를 취하려 중국으로 가거나 지옥에서 자기 어머니를 구하거나 이웃 사방에 위치한 나라에서 악마들을 무찌르고 복속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

다. 몽골 전설에서는 게세르가 사라이 골인들과의 전쟁에서 죽은 전사들을 되살렸다고 한다.

여러 판본에서 게세르는 사기꾼이나 협잡꾼(신화의 트릭커)으로 묘사되는데, 그는 잔머리나 마법을 사용하고, 그의 결투는 무용(武勇)을 보여주는 것이 주술적이다. 그래서 트호툰은 게세르의 대역으로 묘사되기도 하고, 초툰은 게세르의 화신이거나 쌍둥이로 등장하기도 한다.

오랫동안 보여온 게세르의 본질은 하늘에서 파견된 ‘문화영웅’으로 대지의 괴물들을 정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몽골 구비 문학에서 게세르는 악마와 괴물의 처단자로 명성을 얻었으며, 이런 악마 퇴치 행위는 게세르를 티벳의 마상(масанг)이나 부랴트의 부하-노이온 바아바이(Буха-нойон баабай)와 비슷하게 만든다. 선택받은 왕이자 하늘에서 내려온 최초의 인간인 게세르는 불교 이전의 티벳 샤머니즘 전통에 기원을 두고 있다.

게세르 신화 연작에는 몇몇 신비스러운 사실들도 있는데, 티벳이나 몽골 민족에서 게세르 서사시의 구연자(口演者)에게 게세르의 정령이 깃든다는 믿음이 있다. 문화적으로 게세르는 광범위한 수호신으로 전사와 가축 지킴이, 악마 사냥꾼, 행운을 부여하는 자로 인식된다. 샤머니즘 곳에서 게세르는 부르한이나 텡그리로 불리기도 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케세르, 게셀, 깃세르
- 다국어 표기 Гесер(러시아어), King Gesar(영어), Гэсэр(몽골어), 格萨尔王传(중국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Токарев, С.А., Мифы народов мира. Большая Россий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1987, pp.297~298.

I A037 | 결혼 의례와 관련된 투르크 민간 신앙

- 시기 기타 ● 지역 기타 ● 나라 튀르키예,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러시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신앙 ● 유형 소분류2 의례
- 집필자 양민지 ● 라틴 문자 Wedding(marriage) customs

투르크 결혼 의례에는 다양한 전통 신앙이 반영되어 나타났다. 전통 혼례식에서 신부는 신랑이 보낸 말 혹은 마차를 타고 신랑 집으로 가서 혼례를 치렀다. 이때 집을 나서는 신부에게 신

부 아버지는 빨간색 천으로 만든 허리띠를 세 번 감아주었는데, 이는 귀신을 물리치는 벽사(辟邪)의 의미와 함께 신부의 순결함을 나타낸다. 튀르키예 전통 결혼 의례에서는 크나 게제씨 다음 날 아침에 신랑 측에서 신부를 신랑 집으로 데려가는 겔린 알라이으(Gelin Alayı, 신부 맞이 일행)가 신붓집에 온다. 겔린 알라이으는 신랑 집에서 북과 나팔을 불며 신부를 데리러 신붓집으로 오는데, 신랑 집과 신붓집에서는 신부의 순탄한 시댁 생활을 기원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과 제액초복을 위한 여러 행위를 한다. 신부 측에서는 신부가 집을 나서면 일행의 뒤에 물을 뿌리는데, 이는 물 신앙에서 비롯한 민속 행위이며, 또한, 결혼 생활과 인생이 물처럼 막힘없이 흘러가라는 의미로 행해진다. 신부 맞이 일행이 신랑 집에 당도하면 신랑의 남자 형제의 부인과 혼인 의례를 주재하는 어른이 함께 신부가 타고 온 수단에서 신부를 내린다. 신부를 내리기 전과 내린 후 그리고 집에 들어서기까지 여러 민속 의례가 행해지는데 이는 첫째로 신부가 시댁에 복을 가져다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둘째로 시댁에 잘 적응하여 모두가 평안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셋째로 후손을 바라고 건강을 기원하는 마음에서 이뤄졌다.

투르크 문화에서 결혼과 관련된 신앙에는 모방 주술이나 유감 주술이 많이 등장한다. 전통 사회에서 종종 나타나듯 결혼은 집안과 집안의 결속이며 자손의 번성을 위한 중요한 통과 의례로 여겨졌다. 따라서 신랑 측에서는 신부 맞이 일행이 신부를 신랑 집에 데려오면 손자를 바라는 마음에서 건강한 남자아이를 신부 품에 안겨줬다. 신랑 집에서는 염소나 양 등의 가축을 잡는데, 그 피를 신부의 이마에 찍어 바른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붉은색이 지닌 벽사의 힘을 믿는 데서 기인한다. 신랑측에서는 집에 들어가기 전에 신부가 말에서 내리면 신붓집에서 가져온 유리컵 혹은 흙으로 구운 그릇을 깨뜨리게 하는데, 이는 오는 동안에 신부 일행에게 붙었을지도 모르는 액운과 잡귀를 큰 소리를 내서 도망가게 하기 위함이며, 앞으로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생활을 시작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지방에 따라 문지방을 넘을 때 깨기도 한다. (대문의) 문턱에는 작은 불을 피워 놓거나 쇠조각을 두었는데, 신부는 집에 들어오며 이를 뛰어넘어야 한다. 이는 쇠와 불이 부정한 기운, 잡귀와 병마 등을 없애고 정화한다는 민속 신앙에서 유래한다. 이와 함께 신부를 집에 들일 때는 화덕 주위를 돌게 한 뒤 방으로 들어가게 했다. 이는 불이 정화를 의미함과 동시에 재물복을 의미하기 때문이었다.

신부가 집에 오면 이후 돌아가신 조상들의 묘를 방문하게 했으며, 이는 투르크 전통인 조상령 숭배와 관련된 행위로 새사람이 집에 들어왔을 때 조상께 인사를 드리며, 잘 보살펴 달라고 복

을 비는 행위이다. 특히, 신부가 신랑 집에 들어갈 때, 복과 다산을 기원하는 의미로 신랑 측 축하객은 신부의 머리에 견과류, 작은 사탕, 밀알, 수수 등을 던진다. 또한, 운택하고 문제없는 결혼 생활을 위해서 신부는 집에서 소금과 기름을 가져오곤 했는데, 이는 전통 사회에서 소금이 재물을 의미했고 또한 신성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며, 기름은 순탄한 결혼 생활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신랑 측에서는 신부가 문 앞에 갈 때까지 앞으로의 삶이 달콤하고 막힘없으라는 의미에서 꿀과 기름을 섞어 바닥에 뿌리거나, 신부의 입에 발라줬다. 신랑 도우미(들러리)가 신랑을 데려오면 신부와 함께 신랑은 신방 문에도 꿀을 바르는데 이는 행복하고 달콤한 신혼 생활을 바라는 행위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투르크 민족들의 혼인 의례와 민간신앙
- 다국어 표기 Evlilik adetleri(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크나 게제시
- 참고문헌(오프라인) Altun, Erman. Türk Halkbilimi, Kitapevi yay, İstanbul 2009.
- Günay Ünver. Güngör Harun. Türklerin Dini Tarihi. Berikan yay, Kayseri. 2015.
- İnan, Abdulkadir. Tarihte ve Bugün Şamanizm, Türk Tarih Kurumu, Ankara 1986.
- Ögel, Bahaeddin, Türk Mitolojisi I-II, Türk Tarih Kurumu, Ankara 2010.
- Roux, Jean-Paul, Türklerin ve Moğolların Eski Dini, (Çev. Aykut Kazancıgil), Kabalcı yay, İstanbul 2001.

I A038 | 경사스러운 사건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사건 ● 유형 소분류2 개혁
- 집필자 이은정 ● 라틴 문자 Auspicious Incident

‘경사스러운 사건’은 1826년 6월 중순 마흐무드 2세가 예니체리를 폐지한 사건으로, 그 명칭 자체가 이 사건을 바라보는 19세기 초 개혁파의 관점을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다. 예니체리는 14세기 말에 창건되어 15세기~16세기 유럽과 이슬람권에 명성을 떨친 엘리트 보병 부대로 오스만 중앙군의 주력이었지만 16세기 말~17세기 초 군사 기술과 전법의 극적인 변화와 전비로

초래된 엄청난 재정 적자가 있는 후 대우가 크게 나빠지면서 이들의 존재도 크게 변했다. 예니체리는 이에 따라 수공업, 상업 등 부업을 하면서 민간 사회로 침투해 들어갔고 예니체리 연대의 워크프는 대금업을 활발하게 전개하기도 했으며, 도시 내의 경찰력의 역할을 하면서도 상당 부분 연대별로 세력권을 가진 마피아처럼 기능하기도 했다. 이들은 도시 안에서 빈민이나 수공업자들을 연대 안으로 받아들여 19세기 초 이스탄불에는 일설에 의하면 10만 이상의 예니체리가 있었다고도 한다. 이처럼 민간 사회와의 유대가 강해지는 한편, 예니체리들의 전투력과 조직력은 축소되었으며, 특히 18세기 중엽의 전쟁 없는 약 30년간의 휴지기는 이들의 전쟁 수행 능력을 크게 저하시켜(예니체리 개혁의 필요성은 물론 17세기 초부터 제기되었으나), 전투를 할 능력과 의지도 부족한 채 봉급을 계속 받는 이들에 대해 러시아 오스만 전쟁(1768년~1774년) 이후 특히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예니체리가 폐지된 결정적 계기는 그리스 독립 전쟁의 맥락에서였다. 예니체리의 형편없는 전투력과 출정 거부는 동시대 메흐메트 알리의 이집트 군대가 진압에서 활약상을 보인 것과 크게 대조가 되었다. 결국 무슬림 민심도 이반하여 1826년 폐지 조치가 단행되었을 때 (물론 마흐무드 2세의 사전 공작이 주효했기 때문이겠지만) 이들을 지지한 대중은 별로 없었다고 한다. 이 사건은 1826년 5월 29일 마흐무드 2세가 기존의 예니체리 연대들로부터 병력을 차출받아 신식 군대를 만들겠다는 개혁 선언으로 촉발되었고, 6월 15일 예니체리들이 반란 선포의 전통에 따라 예트 메이다느(고기 광장)에서 각 연대의 국술들을 옆으면서 대결 국면으로 치달았다. 술탄 마흐무드 2세는 이러한 전개에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 같은 날 예언자 무함마드의 깃발을 세우고 반도들에 대한 지하드를 선포했으며 포병대를 동원하여 예니체리 병영을 포격하여 약 6,000명의 예니체리가 죽었고, 살아남아 도주한 자들에 대한 색출이 있었다. 6월 17일에는 술탄이 예니체리의 공식 폐지를 선언했다. 이 사건에 이르는 과정 가운데 언제 예니체리의 폐지가 확정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전에 개혁을 추진하다가 예니체리들에게 살해된 셀림 3세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예니체리의 동맹 세력을 제거하거나 포섭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적어도 1823년경부터는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예니체리 폐지에는 이스탄불에서 반란에 대한 충격적으로 잔혹한 진압이 수반되었고, 이들과 긴밀한 관계였던 벡타시 종단도 이때 폐쇄되고 재산이 몰수되었다. 예니체리 등록 장부나 예니체리의 묘비도 완전히 파괴되어 예니체리들의 흔적이 거의 대부분 사라졌다.(그래서 예니체리 묘자 형태로 만들어진 묘비는 남아 있는 것이 매우 드물다.) 한편 예니체리 소탕은 지방에서



예니체리 동상(이스탄불, 튀르키예)

는 훨씬 덜 가혹하게 이루어졌고, 대부분의 지방 예니체리 연대는 해산되어 민간 사회로 합류했다. 예니체리의 소멸로 오스만 제국은 근대 개혁에의 가장 중요한 걸림돌을 제거한 것이지만, 다른 한편 그 과정에서 상당수의 무슬림 상공인들에게 반감을 남기기도 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상서로운 사건
- 다국어 표기 Vaka-i Hayriye(튀르키예어), Vaka-i Hailiye(튀르키예어), Vaqıyî-Xeyriyye(아제르바이잔어)
- 연관 검색어 마흐무드 2세, 예니체리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rl.kr/7mwai6>
- 참고문헌(오프라인) Kahraman Şakul, "Auspicious Incident," Gábor Ágoston and Bruce Masters, eds., *The Encyclopedia of the Ottoman Empire, Facts on File 2008*, pp.60~61.
Kemal Beydilli, "Vaka'-yı hayriyye," *TDV İslam Ansiklopedisi Vol. 42*, 2012, pp.545~457.

I A039 | 고대 위구르 문자

● 시기 B.C. ~ A.D. 1500년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기타 ● 유형 언어 ● 유형 소분류1 분류 ● 유형 소분류2 문자
● 집필자 이양희 ● 라틴 문자 Old Uyghur alphabet

고대 위구르 문자는 8세기에서 15세기 중앙아시아에서 주로 사용된 위구르어 표기에 사용된 음소 문자로, 가장 발달된 형태는 9세기~11세기의 것이다. 위구르족은 중국, 인도, 이란 문화의 영향을 받아 매우 다채로운 문화를 발전시켰는데, 위구르인은 종지와 인쇄를 사용한 최초의 투르크인으로 볼 수 있다. 고대 투르크어학자 안네마리 폰 가바인(Gabain, A.)에 따르면, 위구르 문자가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이 문자로 기록된 유물은 투르크 부족에 의해 750년~827년 사이에 기록되었다. 위구르 문자는 투르판(Turfan) 지역에서 발견된 것들이 많으며 각종 문헌이나 비문, 판본에 사용되었다. 이 문자가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은 불교 문서이며, 간혹 마니교나 기독교 문서들도 위구르 문자로 기록되었다. 위구르 문자는 현재의 히브리 문자, 시리아 문자, 아랍 문자와 같이 아람 문자(Aramaic alphabet) 계통이다.

위구르인들은 불교를 믿는 소그드(Sogd)인들로부터 이 문자를 차용했다. 위구르 문자는 고대 근동 지방 전역에서 사용되던 아람 문자에서 파생된 소그드 문자에서 파생되어, 투르크어 발음에 맞는 문자가 추가되었다. 이후 위구르 문자는 몽골 문자와 만주 문자의 모체가 된다. 오늘날의 위구르어는 아랍 문자와 페르시아 문자를 차용한 위구르 문자이며, 키릴 문자도 사용한다. 오늘날의 위구르어는 위구르 계통 제국(諸國)에서 쓰이던 고(古) 위구르어와는 계통적으로 차이가 있어, 투르크어에서는 신위구르어(yeni Uyghurca)와 같이 구분하기도 한다.

현재 신장 지역에서 쓰이는 위구르어의 직계 조상은 카라한 칸국의 건국을 주도한 카를루크족(Karluk)들의 언어인 반면 고 위구르어는 하서회골의 후신인 유고족의 일부가 사용하는 서부 위구르어로 이어진다. 고대 위구르 문자는 23개의 자모와 53개의 연자로 되어 있으며, 초기에는 글씨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썼으나 중국 한문의 영향으로 위에서 아래로 써 내려 갔으며, 줄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나열했다. 위구르 문자는 자모가 사용되는 위치에 따라 즉, 어두, 어중, 어말에 따라 그 형태가 달라진다. 또한 일반적으로 유성-무성, 전설-후설의 구별이 없다. 돌궐어에서 어중음 -b-와 어말음 -b는 고대 위구르어에서 /v/로 변화한다.(예: öbekte- >

övkele- 화내다; ylbr- > yalvar- 애걸하다; sub > suv 물 등) 위구르어는 /ny/방언, /n/방언, /y/방언이 있었으며, 대부분의 문헌은 /y/방언으로 기록되었다. 위구르 문자로 기록된 문헌들은 종교와 관련된 문서들이 많다. 이외에도 쿠타드구 빌리그는 1440년 헤라트(Herat)에서 사본이 위구르 문자로 전사(轉寫)되었다. 위구르 시대에 위구르어 문자로 기록된 대표적인 작품들은 다음과 같다.

『알툰 야룩(Altun Yaruk)』: 10세기 전반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작품은 17세기에 발견되었다. 이 책은 여러 권의 사본이 있으며, 불교의 원리와 철학 등을 알려주는 종교적인 작품이다. 10권 31장으로 구성된 이 작품은 각 장마다 부처에게 질문을 던지고 부처가 이야기로 답하는 형식으로 비유를 통해 답을 얻는다.

『두 왕자 이야기(Edgü Ögli Tigin ile Ayıg Ögli Tigin/Prens Kalyanamkara ve Papamkara)』: 이 작품은 간쑤 지방의 천불상에서 발견되었으며, 위구르 시대의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이다. 이 이야기는 착한 마음씨를 지닌 왕자가 모든 생명체가 서로 죽이는 것을 막고자, 나쁜 마음씨의 형제에게 도난당한 보석을 찾으러 떠나는 모험 여행이 묘사되어 있다. 이 이야기는 산스크리트어의 작품을 10세기 위구르어로 번역한 작품이다.

『여덟 수트라(Sekiz Yükmek/Sekiz Tomar, Sekiz Yığın)』: 수트라(Sutra, 經)는 본래 '낱실'이라는 뜻으로 부처가 말한 교법(教法)을 간단한 형태로 압축해서 정리한 것이다. 이 작품은 1907년, 투르판에서 10km 떨어진 야마즈 계곡의 야르호토에서 발견된 405줄의 경전이다. 내용은 위구르인들에게 전파된 불교의 교리와 신념 등 불교의 소개와 포용, 전파를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위구르자, 위구르차, 고위구르어 문자, 위구르어 고문자
- 다국어 표기 Uygurca (튀르키예어), ئۇيغۇرچە (위구르어)
- 연관 검색어 안네마리 폰 가바인, 투르판, 소그드인, 카라한 칸국, 카를루크, 쿠타드구 빌리그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en.wikipedia.org/wiki/Old_Uyghur_alphabet
- 참고문헌(온라인) <https://acikders.ankara.edu.tr/mod/page/view.php?id=18849&lang=en>
<https://www.edebiyatogretmeni.org/uygur-metinleri/>
- 참고문헌(오프라인) Gabain, A. *Eski Türkçenin Yazı Dili*, Çeviren: Sabit S. Paylı, TDAY Belleten, Ankara, 1988, s. 320.
Tekin, T. *Tarih Boyunca Türkçenin Yazımı*, Türk Dilleri Araştırmaları Dizisi, Simurg, Ankara, 1997.

I A040 | 고대 킵차크 투르크어

- 시기 A.D. 1000년 ~ A.D. 1800년 ● 지역 중앙아시아, 기타 ● 나라 러시아, 이집트, 시리아 ● 유형 언어
- 유형 소분류1 분류 ● 유형 소분류2 언어명
- 집필자 장주영 ● 라틴 문자 Old Kipchak Turkish

고대 킵차크 투르크어는 쿠마니아(Cumania/Değ-i Kipchak) 등지와 이집트, 시리아에서 사용되었던 킵차크 그룹으로 분류되는 투르크어이다. 현재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아 사어(死語)로 분류되지만, 오늘날의 킵차크 투르크어의 전신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의 투르크어 계통 분류법에 의하면 고대 킵차크 투르크어는 킵차크-쿠만의 하위 그룹으로 분류된다. 현존하는 텍스트의 수는 적지만, 가장 대표적인 텍스트는 『쿠만의 서(Codex Cumanicus)』라고 할 수 있다. 고대 킵차크 투르크어에 속하는 대부분의 작품들은 맘루크 왕조 시대에 쓰였다.

고대 킵차크 투르크어는 13세기부터 17세기까지 중앙아시아의 서쪽에서 도나우강 유역, 북쪽의 이딜 불가르 지역, 남쪽의 크림반도, 그리고 중동, 이집트, 시리아까지 입지를 확고히 했다. 서면 언어로서 킵차크 투르크어는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① 쿠만 킵차크 투르크어: 킵차크 인들의 본고장으로 알려진 흑해 북부 지역부터 남부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13세기부터 15세기까지 주로 사용되었던 킵차크 투르크어를 의미한다.
- ② 맘루크 킵차크 투르크어: 이집트 및 시리아 등지에 거주하던 맘루크인들이 사용한 언어로서 13세기부터 16세기까지 사용되었다고 전해진다. 이 시기에 쓰인 다양한 작품(사전, 문법서, 종교서 등)들은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어, 투르크어 학술 연구 자료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③ 아르메니아 킵차크 투르크어: 카메네츠-포돌스크에 거주하던 아르메니아 킵차크 인(그레고리 킵차크족)의 언어를 의미한다. 11세기 중반 아르메니아(조지아) 왕국 멸망 이후, 아르메니아인들은 크림반도에 정착하기 시작했으며, 15세기 이후 그들은 킵차크 투르크어를 공용어로 채택하여 공식 서신 및 교회에서 사용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고대 킵차크 튀르크어, 고대 킵차크어
- 다국어 표기 Old Kipchak Turkish(영어), Eski Kıpçak Türkçesi(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쿠만의 서, 아르메니아 킵차크 튀르크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Tanabayeva, G. U., Donbayeva, A. B., Alieva, Z. A., & Askar, A. T., Anthroponyms Of Old Kipchak Language: A New View. In Студенческие Научные Достижения, 2018., pp.156~159.

I A041 | 고대 투르크 신화

- 시기 B.C. ~A.D.1000년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기타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구비전승 ● 유형 소분류2 신화
- 집필자 김근식 ● 라틴 문자 Ancient Turkic mythology

고대 투르크 신화는 돌궐 신화, 고(古)투르크 신화라고도 불리며, 6세기~10세기에 여러 언어로 제작된 비문과 자료들에 나타난 신화 체계이다. 오르콘 계곡과 예니세이 강 상류 지역에서 발견된 고대 투르크어로 기록된 빌게 카칸 비(碑)(732년)와 쿨테긴 비(碑)(735년), 그리고 6세기에서 10세기 사이에 중국어, 아랍어, 이란어 등의 언어로 기록된 여러 자료에 등장한다.

빌게 카칸과 쿨테긴을 기리는 비석에 따르면 ‘푸른 하늘’과 ‘갈색 땅’이 처음 창조되었고 그 후에 이들 사이에 ‘인간의 자손’이 생겨났다. 이 두 비문에서 ‘푸른 하늘’은 세계를 덮는 ‘지붕’으로 불렸고, 여기에 매일 해와 달이 생겨났는데 특히 태양의 탄생을 숭배했다. 그래서 카칸(통치자)의 천막 문은 태양이 떠오르는 동쪽을 향해 있었다. 다른 숭배의 대상으로 ‘일곱 개의 별’이 있다고 중국의 사서는 기록한다. 오르콘 비문에서 지구는 네 귀퉁이를 가지는 4개의 면으로 이루어진 공간으로 묘사되는데, 이 지구에 ‘인간의 자손’인 투르크인이 자리 잡는다.

10세기의 『점서(Irk Bitig)』에는 세 종류의 세계가 언급되는데, 이는 투르크와 몽골 신화에서의 천계, 중계, 하계에 상응한다. 오르콘 비문에서는 우주적 재난이 ‘위의 하늘이 눌리고, 아래의 땅이 열리거나 ‘하늘과 땅이 무질서하게 될’ 때로 암시된다. 이 내용은 『점서』에서 더 상세히 기술되는데, 재난이 올 때 위에는 안개가 있고, 아래에는 죽음이 있으며, 동물과 새들, 사람들이 길을 잃게 되는데, 이것은 삼 년 동안 지속될 것이며 하늘의 용서가 있을 때 멈춘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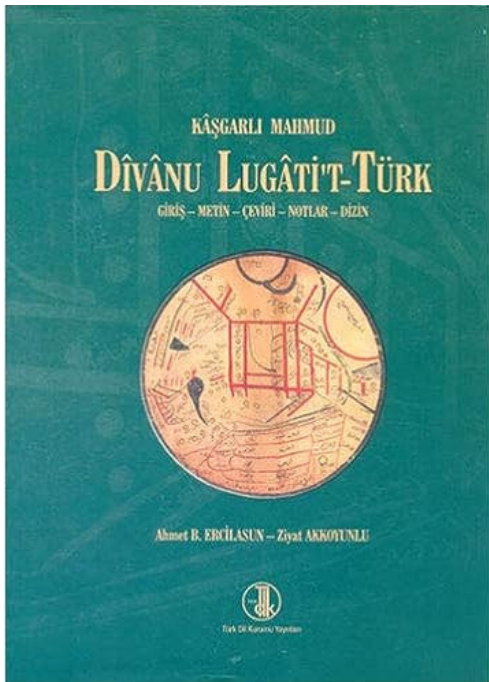
최고신 텡그리(하늘)는 천계에 존재한다. 그의 아내인 우마이는 다산의 여신이며 근월적 여성의 화신이다. 중간계의 주요 신은 성스러운 ‘예르-수(대지와 물)’이다. ‘예르-수’는 독자적으로 등장하지 않고, 텡그리나 우마이와 함께 투르크인들을 수호하고 죄 지은 자들을 벌한다. 또한 고대 투르크 신화에는 수차례 지하 세계의 통치자 에르클릭(Эрклиг)도 등장하는데, 이는 천계의 적대적인 신으로 인간을 서로 싸우게 한다. 에르클릭은 고대 위구르 자료에서는 타무 에르클릭 칸(지옥의 에르클릭 왕)으로 불리고 훨씬 후대의 자료들에서는 에를릭, 이를릭 등으로 표기된다. 텡그리, 우마이, 에르클릭은 고대 투르크 신화의 애니미즘적 특성을 보여준다. 반면 고대 투르크 신화에서는 인간과 암늑대 사이에서 태어난 투르크인들의 조상인 아시나(Ashina)나 흰 백조 부족 등이 언급되는데, 이 탄생 신화들은 늑대, 백조, 소, 사슴 등의 토테미즘적 특징도 나타낸다. 고대 투르크 신화는 신적 존재 외에도 귀신, 정령도 다루고 있는데, 인간과 이들 정령들 사이의 매개자는 캄(Кам)이라 불리는 샤먼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돌궐 신화, 고(古)투르크 신화, 고대 튀르크 신화
- 다국어 표기 Ancient Turkic mythology(영어)
- 연관 검색어 텡그리, 우마이, 예르-수, 점서, 아시나
- 참고문헌(오프라인) Мифы народов мира/под ред. Токарева С. А. — М., Совет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1992 г. — т.2, 547.

I A042 | 고대 투르크어 대사전

- 시기 A.D.1000년~A.D.15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언어 ● 유형소분류1 서적 ● 유형소분류2 사전
- 집필자 이양희, 김홍중 ● 라틴 문자 Divanu Lugati't-Turk

『고대 투르크어 대사전(Dîvânü Lûgati't Türk)』은 11세기 언어학자 마흐무드 알 카쉬가리(Kâşgarlı Mahmud)가 바그다드에서 집필한 최초의 투르크어 사전으로 약 9,000여개의 어휘를 수록하고 있다. 1,000년 전에 집필된 가장 오래된 투르크어 사전으로 11세기 어휘의 사용 양



『고대 투르크어 대사전』 표지

상 및 튀르키예어 어휘의 다양성을 밝히는 데 도움을 준다. 학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사전의 집필 시기는 1072년~1074년 혹은 집필을 최종적으로 완성한 시점까지 1072년~1077년로 보고 있다. 이 사전은 투르크인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하던 시기 전후에 아랍인들과의 교류가 빈번해짐에 따라 아랍인들에게 투르크어를 교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랍어로 쓰였다.

『고대 투르크어 대사전(Dîvânü Lûgati't Türk)』에서는 표제어의 정의를 아랍어로 설명한 뒤, 해당 어휘가 포함된 문장을 예문으로 제시하였다. 이들 예문은 해당 어휘와 관련된 문화, 풍습, 신앙, 의식주, 놀이, 약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담고 있다. 이 때문에 사전이면서 문법서, 동시에 여러 민속학적 정보를 담고 있는 백과사전적 성격을 띤다. 뿐만 아

니라 언어에 반영된 사회상과 세계관 등 투르크 세계의 사회 문화 연구에도 큰 도움이 된다. 사전 곳곳에는 문법 설명은 물론 방언에 대한 정보도 실려 있기 때문에 카라한 투르크어의 표준 문법과 지역 방언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돌궐, 고대 위구르 그리고 카라한 칸국 시기의 기록들을 해석하고 연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예문으로 시나 속담 등을 인용했기 때문에 투르크 민족들의 문화사 연구에도 중요한 문화 유산이다.

『고대 투르크어 대사전』은 오늘날까지 한 부만 전해진다. 1266년 다마스쿠스에서 필사된 이본(本)은 알리 에미리 에펜디(Ali Emirî Efendi)에 의해 발견되었으며 현재는 그가 세운 시민도서관(Millet Kütüphanesi)에 보관 중이다. 베심 아탈라이(Besim Atalay)는 1915년~1917년 고대 투르크어 대사전을 튀르키예어로 번역했는데, 이후 다른 언어로도 계속해서 번역되었다. 1915년~1917년 튀르키예어(Besim Atalay), 1960년~1963년 우즈베크어(Salih Mutallibov), 1981년~1984년 현대 위구르어 우루무치 출간(İbrahim Muti), 1982년~1985년 영어(Robert Dankoff와 James Kelly), 1997년~1998년 카자흐어, 2002년 중국어, 2004년 프랑스어, 2005년

러시아어, 2006년 아제르바이잔어 등으로 번역된 바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디와뇌 루가티트 투르크, 디바뇌 루가티트 투르크
- 다국어 표기 Dîvânü Lûgati't Türk(튀르키예어), ديوان لغات الترك(아랍어)
- 연관 검색어 마흐무드 알 카쉬가리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rl.kr/5usm6v>
- 참고문헌(오프라인) Ercilasun, Ahmet B. *Başlangıçtan Yirminci Yüzyıla Türk Dili Tarihi*, Ankara:Akçağ Yayınları, 2004.
Ercilasun, Ahmet B. & Ziyat, A., *Kâşgarlı Mahmud - Dîvânü Lugâi't-Türk - Giriş-Metin-Çeviri-Notlar-Dizin*, Ankara: Türk Dil Kurumu Yayınları, 2014.
Atalay, Besim 1939. *Kâşgarlı Mahmud - Divanü Lûgati't Türk- Çeviri/Dizin* (7.bsk., 2018, Ankara
Türk Dil Kurumu Yayınları Tekin, T. & Mehmet, Ö., *Türk Dilleri Giriş*, İstanbul:Simurg Yayınları, 1999.

| A043 | 고로글리

- 시기 기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투르크메니스탄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구비문학 ● 유형 소분류2 작품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Geldimirat Muhammedov) ● 라틴 문자 Görogly

「고로글리」는 「알퍼므쉬」와 더불어 투르크 민족에게 가장 중요한 구비 영웅서사시 중 하나이다. 튀르키예,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과 같은 투르크 국가 뿐만 아니라 타지키스탄, 이란 등 투르크 민족이 거주하는 세계 전 지역 어디에서든지 발견된다. 대체로 투르크 국가에서는 소리꾼 명창이 구연(口演)하는 영웅서사시 형태로 전승돼 왔지만 페르시아 계열 타지키스탄이나 이란에서는 민담의 형태로 존속하고 있다. 「고로글리」는 투르크멘 판본이다. 투르크 민족 각 국가마다 판본이 다르며, 명칭도 조금씩 차이가 있다. 예컨대, 튀르키예에서는 『코르오올루(Köroğlu)』,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고르오글리(Go'ro'gli)』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투르크멘 민족의 영웅서사시 「고로글리」는 투르크멘 국내에도 50개 이상의 다양한 판본(구연본)이 있다. 「고로글리」는 투르크멘 민족의 행복한 삶, 자유, 정의를 향한 의지를 반영하고, 용맹성, 성실성, 애국심, 우정, 관용, 정의와 정직성을 칭송한다. 이 작품에는 민족적 영웅 고

로글리와 40명의 전사가 이룩한 전설적 업적 그리고 투르크멘 족의 삶에 나타난 주요 사건들을 담고 있다. 영웅서사시 「고로글리」에는 투르크멘족의 역사와 그들의 세계관이 반영돼 있다.

「고로글리」는 산문과 시(詩)가 혼용돼 있는 형태이다. 드라마적인 극적 요소를 포함한 구연, 가창, 즉흥성(vocal improvisation) 등 다양한 표현기법이 조합된 구비서사시이며 종합예이다.

「고로글리」를 전문적으로 구연하고 전승하는 보유자 및 명창(소리꾼)을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데산치 박시(Dessanchy Bagshy; Дессанчы багшы)’라고 한다. 투르크메니스탄의 데산치 박시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독특한 서사기법과 창법을 따라 서사시를 구연한다. 다쇼구즈(Dashoguz)와 레바프(Lebap) 등 두 지역에서 발달했다.

「고로글리」는 주로 뛰어난 암기력, 탁월한 음악적 재능 및 내러티브 능력을 보유한 데산치 박시가 전통악기 두타르(dutar, 2현 악기)와 기자크(gydzhak, 활로 켜는 현악기)의 연주에 맞춰 구연한다. 데산치 박시의 서사 기법, 이야기를 풀어내는 능력, 가창력, 두타르 연주 능력, 선율에 맞춰 시를 읊어내는 능력, 뛰어난 웅변술, 즉흥적 가창력 등이 유기적이며 총체적으로 어우러져 데산치 박시의 공연을 장식한다.

「고로글리」의 보유자이며 명인으로 인정받는 명창 데산치 박시들은 젊은이들을 발굴하여, 재능, 뛰어난 암기력, 인내심, 아름다운 목소리, 전통악기 연주 능력 등을 다년(5년~10년)간 단련시킨다. 명인은 도제식으로 엄격하게 제자의 기량을 훈련한다. 제자들은 명인의 지도아래 자



고로글리를 소개한 유네스코 영상 자료
Source: <https://www.unesco.org>

신의 레퍼토리를 습득하고, 연기력과 기량을 개선하고 연마한다. 이와 더불어 제자들은 서사 공연 과정의 도덕·윤리 규범도 배운다. 제자가 시험에 통과하고 관객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 스승은 제자에게 단독 공연 및 차세대 전수자 양성 권한을 부여하고 데산치 박시로 인가해준다.

두타르 연주, 구연, 공연예술, 가창, 즉흥가창 및 극적 요소 등은 서사시의 필수 요소이다. 이러한 기량은 5년~10년간에 걸친 특별 무상교육과 스승과의 합동 공연을 통해서 전수된다.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서사시 「고로글리」의 사회적 기능은 매우 다양하다. 「고로글리」의 가치 및 정서와 관련된 지식은 사회적 관계의 기반이 되고, 개인과 조직을 통합하며, 그들의 향후 활동범위를 결정하게 된다. 또한 상호협력을 강화할 뿐 아니라 소셜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한다. 이와 더불어 젊은 세대에 역사적·사회적 가치를 전달한다. 결국 「고로글리」는 곧 투르크멘 족의 민족 정체성과 민족 자긍심, 민족적 연대감을 강화해준다.

서사시 「고로글리」는 또한 젊은 세대의 교육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서사시에는 인도주의, 지혜로움, 관용, 용맹성, 애국심, 노인 공경, 책임감, 충성심, 자연보호, 근면, 정직, 공정성 등과 같이 인간이 습득해야 할 도덕과 윤리관 등을 담고 있기 때문에 서사시를 통한 교육 효과가 크다. 더불어 전통음악, 공연능력, 투르크어, 시, 의례와 관습, 아할-테케(Akhal-Teke) 말 사육, 사냥과 같은 전통지식, 생활방식 등 수천 년 동안 전해 내려온 서사시 관련 지식과 기량이 투르크멘 족의 문화정체성을 가늠하는 지표인데, 이러한 지식도 「고로글리」 서사시 공연을 통해 세대에서 세대로 전승될 수 있다. 따라서 세계화 시대에 영웅서사시 「고로글리」는 투르크멘 민족의 정체성과 도덕적, 윤리적 규범으로 간주되고 있다.

「고로글리」 영웅서사시는 ‘고로글리 서사시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2015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쿠프오울루, 고르오글리, 고로글리 서사시 예술
- 다국어 표기 Köroğlu(튀르키예어), Go'ro'gli(우즈베키스탄어), Görogly(투르크멘어)
- 연관 검색어 바흐쉬, 알퍼므쉬
- 멀티미디어 링크 Turkmen Epic Art of Gorogly
<https://www.unesco.org/archives/multimedia/document-4025>

● 참고문헌(오프라인) 무함메도프 켈디미라트, 「투르크메니스탄의 서사이야기: 서사시 ‘고로글리, GOROGLY’」, 『중앙아시아의 구전전통과 서사시』, 유네스코아태무형문화센터, 2016.

Kosayev Mati, Govshudov Ata, eds., *Gorogly(in Turkmen)*, Ashgabat: Turkmenistan Neshiryaty, 1980.

Reichl Karl, *Singing the Past: Turkic and Medieval Heroic Poetry*, Cornell University Press, 2000.

I A044 | 고르완 모도트 올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몽골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유적 ● 유형 소분류2 무덤
● 집필자 김재윤 ● 라틴 문자 Gurvan Modot Uul

고르완 모도트 올(Gurvan Modot Uul)은 몽골 흉노 유목 제국의 무덤 유적으로 아르항가이 아이막 바트헙겔르 솜 중심지에서 서쪽으로 약 45km, 바양 올 박 중심지에서 북쪽으로 6km 떨어진 곳에 있다. 무덤은 북타미르 강 유역 타르힌트 사나 동쪽의 씨베르팅 암 계곡을 흐르는 하천의 서쪽인 고르완 모도트라는 바위 언덕의 남쪽 기슭에 분포한다. 이 주변에는 흉노 제국 시기보다 앞선 청동기 시대 사슴돌, 판석묘, 돌궐 시대 제사 유적 등에서 인간의 흔적이 확인된 곳이다.

1976년 소련과의 최초 조사에서는 ‘씨베르팅 암’이라고 표기했으나, 1983년 조사에서는 현재의 명칭으로 바뀌었다. 1978년에 4기, 1983년에 1기를 조사했다. 1978년에 발굴된 고르완 모도트 올 78-13호 유적은 지표에는 적석유구(積石遺構)가 노출되어 있었는데, 묘도 및 목관의 여부는 보고되지 않았다. 길이 2.3m의 묘광에는 적석이 2단으로 채워졌고 이를 제거하자 깊이 1.8m에서 목탄의 흔적이 확인되었다. 2m 아래의 무덤구덩이 모서리에서 토기 2점과 철제 찰갑편, 소다리뼈, 말머리뼈 등이 확인되었다. 머리를 북쪽으로 한 인골에서 허리에 철제 칼, 오른쪽 다리가 있던 곳에 화살대와 철촉, 인골 밑에 펠트 조각과 철편 등이 출토되었다. 다리 부근에서는 불을 피운 흔적이 확인되었다. 이곳에서 출토된 옹형 토기와 호형 토기의 바닥에는 회전판의 흔적이 남아 있다. 발굴 조사자는 토기의 특징을 토대로 판단하여 흉노 시기 이전의 것으로 보고했다. 그러나 흉노의 무덤은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및 중국 한경으로 그 연대를 판명하는

데, 주로 기원전 1세기부터 기원후 1세기 후반까지의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이 유적은 흉노 시기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에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고르완 모도트 울

● 다국어 표기 Гурван Мод Уул(몽골어)

● 연관 검색어 흉노, 돌궐

● 참고문헌(오프라인) Кляшторный С.Г. Советско-Монгольская экспедиция, Археологические открытия 1982 года.// М.: 1984. 528 с.

G. Eregzen, 『몽골 흉노 무덤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9.

I A045 | 고리 아미르

● 시기 AD.1000년~AD.1500년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건축 ● 유형 소분류2 영묘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Gur-i Amir

고리 아미르 또는 구리 아미르(Gur-i Amir)는 티무르 조의 영묘로, 한카, 마드라사를 비롯한 다양한 건축물이 포함된 복합단지의 성격이 강하다. 티무르는 그의 자손이자 후계자였던 무함마드 술탄(Muhammad Sultan, 1375년~1403년)의 휴식처로 이곳을 건설했다. 그러나 무함마드 술탄은 1403년 전투에서 29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1405년 티무르가 이곳에 묻히고, 훗날 그의 아들 미란 샤(Miranshah)와 샤루크(Shah Rukh), 그의 손자 피르 무함마드(Pir Muhammad), 티무르의 영적 조연자였던 사이드 바라카흐(Sayyid Barakah)도 이곳에 묻혔다. 이곳을 티무르 조의 무덤으로 조성하도록 했던 울루그 베그(Ulugh Beg, 재위: 1447년~1449년) 역시 이곳에 묻히게 되었다.

고리 아미르의 건물은 울루그 베그 시대에 확장되고 수리되었으며, 그의 제위 내내 영묘 관리에 힘썼다고 알려졌다. 1434년 울루그 베그의 명으로 대문이 추가되기도 했다. 17세기 영묘 서쪽 이완 건설을 끝으로 더 확장되지는 않았다. 18세기에 많은 부분이 훼손되었고 20세기에



고리아미르 영묘

돔의 주요 부분이 무너졌다. 1950년대에 소련에서 파견된 학자를 중심으로 조사와 복구 공사가 시작되었다.

영묘는 정사각형 중정의 남쪽에 건설되었다. 이 중정은 본래 마드라사와 카나카흐 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으나 이 건물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중정의 각 모서리에는 미나렛이 있었으며 그 중 두 개가 남아 있다. 영묘는 한 면이 8.75m인 팔각형으로 되어 있으며 입구는 북쪽 면에 있다. 드럼 위의 돔은 현재 도시 어디에서도 볼 수 있을 만큼 높다. 내부 돔의 높이는 22.55m이며, 지름은 10m, 외부 돔의 경우 높이는 37m, 지름은 14.6m이다.

영묘의 내부는 약 10.22m×10.22m의 정사각형 형태이다. 영묘 각 벽에 경간구획, 십자형 지하로 이어지는 남동쪽 코너에 위치한 계단, 팔각형으로 변화되는 구간 및 반구형 돔으로 이루어

어져 있다.

1424년 우르그 베크는 영묘의 동쪽 경간(徑間)구획을 통해 들어갈 수 있는 복도를 추가했다. 네 개의 볼트가 덮인 이 갤러리는 중정에서 접근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17세기에 영묘 서쪽에 이완을 추가했으나, 이 이완은 미완성으로 보인다.

외부 장식의 경우 벽돌을 이용했고, 돔의 경우 두 종류의 푸른색 벽돌을 교차 배치하여 장식을 만들어 냈다. 돔을 지지하는 드럼은 타일을 이용하여 쿠틱 서체로 ‘알라는 영원하다’라는 문구를 반복하여 장식했다. 이 건물은 티무르 조의 주요 인물이 묻혀 있는 역사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건축물이자 티무르 조의 건축 양식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유적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구리 아미르, 구르 아미르

● 다국어 표기 Go'ri Amir(우즈베크어), Gur-i Emir(튀르키예어), Gur-Əmir(아제르바이잔어), Гер əmir(카자흐어)

● 연관 검색어 티무르 조

● 멀티미디어 링크 고리 아미르 전경 <https://url.kr/zws14c>

고리 아미라 돔 <https://url.kr/1oa8dm>

● 참고문헌(온라인) <https://archnet.org/sites/2127>

● 참고문헌(오프라인) Bekaş, Engin. “GÜR-İ EMİR”, TDV İslâm Ansiklopedisi, 14. Cilt, İstanbul: TDV, 1996, pp.197~199.

Pope, Arthur Upham. A Survey of Persian Art from Prehistoric Times to the Present,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38.

Cezar, Mustafa. Anadolu Öncesi Türklerde Şehir ve mimarlık, Ankara: İş Banka, 1977.

I A046 | 고부스탄 암각화 문화경관

● 시기 B.C.~A.D.10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아제르바이잔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유적 ● 유형 소분류2 암각화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Qobustan dövlət tarixi-bədii qoruğu

고부스탄 암각화 문화경관이 있는 고부스탄 국립 역사문화 보호구역(Qobustan dövlət tarixi-bədii qoruğu)은 바쿠에서 남서쪽으로 64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2007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이 고부스탄 보호구역은 547헥타르에 달하는데 6,000개 이상의 암각화



고부스탄 암각화 유적

가 있다. 이들 암각화는 1939년~1940년 고고학자 이샤크 재페르자대(İshaq Cəfərzadə, 1895년~1982년)에 의해 발견되어 본격적인 발굴이 시작되었다. 고부스탄 암각화는 주로 석기 시대와 중석기 시대의 유적으로 5,000년~20,000년 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고부스탄(Qobustan)의 어원에 대해서는 여러 학설이 있는데 투르크어로 고부(gobu/kobu)는 ‘계곡’, ‘반사막’ 등을 의미하고 -스탄(-stan)은 페르시아어로 ‘땅’을 의미하는데, 평원과 협곡으로 이루어진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고부스탄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는 학설과 이곳의 원래 이름은 캐브리스탄(Kəbristan)으로 캐브르(Kəbr)는 ‘불을 숭배하는 사람’, 즉 조로아스터교도를 의미하며 그들의 땅을 의미한다는 학설이 있다.

고부스탄의 정착지는 대부분 야외였지만 날씨 상황에 따라 동굴이나 큰 바위 아래로 피신했던 것으로 보인다. 고부스탄 내의 빅웁다시(Böyükdaş)나 키치다시(Kiçikdaş)산의 남동쪽에 있는 차르닥 자가(Çardağ zağa)와 페이루즈-1(Feyruz-1)라고 이름 붙인 정착지가 그 예이다. 특히 아나 자가(Ana zağa)라고 명명된 정착지는 바위 사이에 크고 작게 형성된 두 개의 공동(空



고부스탄 암각화

洞)에서 발견된 정착지로 면적은 100㎡에 달한다. 고부스탄의 정착민들은 주로 식물 채집을 했지만 동물을 사냥하기도 했는데, 목초지에서 동물을 산의 절벽으로 몰아 동물이 절벽에서 떨어지도록 하는 방식으로 사냥을 했다. 식수는 커다란 바위를 웅덩이 형태로 깎아 빗물을 모아 마셨다. 이렇게 바위로 된 수조는 정착지 근처에서 발굴된다.

암각화는 주로 거주구역의 벽의 역할을 하는 바위에 그려졌다. 동물과 사람을 1:1 사이즈로 그리기 시작하여 점차 양식화되거나 축소하기도 했다. 집단 사냥 장면이 있는 암각화에서는 남녀가 모두 묘사되기도 했고, 화살이 그려져 당시 사냥에 대해 추정할 수 있게 한다. 사냥 장면을 비롯하여 사람과 동물은 역동성 있게 묘사되었다. 또한, 사람의 손에 올라간 매의 모습이나 줄에 매인 소는 일부 야생 동물을 길들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여러 암석에서 선박이 그려져 있고, 선박 앞에는 태양의 이미지가 새겨져 있다. 이 암각화를 통해 인근 지역과 해양 무역이 이루어졌음을 추측할 수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고부스탄 암각화 보호 지구, 고부스탄 유적, 고부스탄 국립 역사문화 보호구역, 고부스탄 세계 문화유산, 고부스탄

● 다국어 표기 Qobustan dövlət tarixi-bədii qoruğu(아제르바이잔어), Kobustan Kaya Sanatı Kültürel Peyzaj Alanı(튀르키예어), Kobuston davlat tarixiy-badiiy qo‘riqxonasi(우즈베크어), Gobustan State Historical and Cultural Reserve(영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donsmaps.com/images/gobustanscans/colourboats.jpg>
<https://www.donsmaps.com/images43/gobustanstandingman.jpg>

● 참고문헌(온라인) <https://whc.unesco.org/en/list/1076>

● 참고문헌(오프라인) Musa Mərjanlı(ed), Qobustan-Minilliklərin Kitabı, Dubai: IRS Publishing House, 2014

I A047 | 고비 사막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몽골 ● 유형 지리 ● 유형 소분류1 지명 ● 유형 소분류2 사막
● 집필자 우덕찬 ● 라틴 문자 Gobi Desert

주위가 산지로 둘러싸인 몽골고원 내부의 고비 사막의 범위는 확실치 않으나, 대체로 알타이 산맥 동단에서 흥안령(興安嶺) 산맥 서쪽 기슭에 걸쳐 위치하고 있는데 몽골 남부·남동부와 중국 북부에 걸친 넓은 사막·고원 지대를 지칭한다. 고비 사막의 넓이는 대략 129만 5,000제곱킬로미터, 해발 고도는 1,000m~2,000m이다. 고비란 몽골어로 ‘풀이 잘 자라지 않는 거친 땅’, ‘물 없는 땅’이라는 뜻이다. 고비라는 말의 뜻처럼 고비 사막 대부분의 지역은 암석 사막이며, 모래 사막으로 된 지역은 매우 적다. 또 일반적으로 고비 사막이라 부르는 지역의 범위 안에는 넓은 초원 지대가 포함되어 있다.


한국어로 ‘어려운 일을 극복하다’라는 의미의 ‘고비를 넘다’의 고비가 바로 고비 사막에서 유래되었다. 강수량은 중앙부에서는 연 25~50mm, 북부에서 남동부에 걸쳐서는 연 150~200mm에 불과하지만, 그 강수량의 대부분이 목초와 농작물 생육기인 여름에 집중된다. 하천의 물은 대개 사막 속으로 스며들거나 염호(鹽湖)로 흘러드나, 북부에는 케를렌강(江), 남부에는 황허강(黃河) 등이 흐른다. 지하수면은 대개 지표에서 6m 미만의 깊이에 있으나, 물은 대부분 염수화(鹽水化)되어 있다.



고비 사막

중심부의 노암지대(露岩地帶)에서 주연부(周緣部)로 나가면서 스텝 지대로 이행하는데, 수목은 거의 없고 유극관목림(有棘灌木林)이 간간히 있을 정도이다. 영양류(羚羊類)나 설치류(齧齒類) 등의 야생 동물이 살고, 가축으로는 염소, 양을 비롯하여 소, 낙타, 말 등이 사육된다. 근래 농목업의 집단화와 기계화가 이루어지고, 종래의 유목민의 생활도 정착화되어 가고 있다. 타클라마칸, 커얼친 사막, 내몽골 고원 등과 함께 황사의 발원지로 잘 알려져 있다.

한편 고비 사막은 공룡 화석의 보고(寶庫)로서 1922년에는 프로토세라톱스의 뼈와 공룡알들이 발견되었고, 1960년대에는 벨로시랍터와 프로토세라톱스 공룡을 한 마리씩 발견했으며, 1992년에는 날지 못하는 새의 친척인 최초의 모노니쿠스가 발견되었다.

● 다국어 표기 戈壁(중국어), Говь:  (몽골어), Gobi Desert(영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rl.kr/rs19x6>
<https://url.kr/dxg7t1>

● 참고문헌(온라인)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고비사막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061802&cid=40942&categoryId=33331>
네이버 지식백과, 세계지명유래사전, 고비사막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695400&cid=51736&categoryId=51736>

● 참고문헌(오프라인) Owen Lattimore, "Return to China's Northern Frontier". The Geographical Journal, Vol. 139, No. 2, 1973.

I A048 | 고아도브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몽골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유적 ● 유형 소분류2 성지
- 집필자 김재윤 ● 라틴 문자 Gua Dov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에서 동쪽으로 150km 떨어진 헤를렌강 우측에는 흉노 시대의 성터 5기가 분포한다. 북에서 남으로 테렐진 두르불진, 부리힝 두르불진, 후레트 도브, 운두르 도브, 고아 도브 성터가 차례로 위치한다. 이들 유적에 대한 발굴 작업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의례 공간일 것으로 생각됐다.

테렐진 두르불진과 고아 도브 유적을 발굴한 결과 이 유적은 최상위 계층의 생활 유적일 가능성이 밝혀졌다. 특히 고아 도브 유적은 한국과 공동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성벽의 남벽 중심부를 발굴 조사했다. 유적에서는 와전과 초석(楚石) 등 건축 자재가 출토되었다. 초석은 정면과 측면에 각각 4개씩 총 16개가 확인되었고, 성벽 중앙에 기와를 올린 2층으로 된 건물지는 문지(門地)로 추정된다. 중앙의 대문에는 양쪽 소형문이 있는 구조이다. 또한 양쪽 문 옆으로 기와를 얹은 2열의 나무 기둥을 세운 구조물이 동서 방향으로 길게 뻗어 있는 회랑(回廊) 구조라는 것이 밝혀졌다. 유적의 중앙부에는 서북쪽으로 치우쳐 50×40m 규모의 대형 건물지와 30×40m 규모의 세장방향 작은 건물지가 있다. 회랑의 바깥에도 몇 동의 건물지가 확인되었고, 인공 연못의 흔적도 발견되었다. 이런 유적 발굴 결과를 토대로 볼 때 고아 도브 유적은 제사 지내는 장소보다는 흉노의 최상위 귀족이 살던 계절별 궁전지로 추정되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구아도브
- 다국어 표기 Гуа дов(몽골어)

● 연관 검색어 흉노

● 참고문헌(오프라인) DANDINSUREN TSEVEENDORJ SC.D(ed), ENCYCLOPAEDIA XIONGNU, ULAANBAA TAR, 2013. 에릭젠, 양시은, 『흉노』, 중앙문화재연구원 학술총서, 2017.

국립중앙박물관·몽골과학아카데미역사학고고학연구소·몽골국립박물관, 『몽골 고아 도브 흉노 유적』, 2017.

I A049 | 골 모드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몽골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유적 ● 유형 소분류2 무덤
● 집필자 김재윤 ● 라틴 문자 Gol-Mod

골 모드(Gol-Mod)는 아르항가이 아이막 하이르한 솜 중심지에서 동남쪽으로 약 35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데, 항가이 산맥의 북쪽 끝 부분인 부흔 싸르 산 북쪽 기슭의 숲에 분포되어 있다. 1956년에 도르지수렌이 발견했고, 그해부터 이듬해까지 배장묘(陪葬墓) 26기와 방형 무덤 1기를 조사했고, 방형 무덤은 2000년~2001년 몽골-프랑스 공동 조사단이 그 매장 주체부를 조사 완료했다. 유적에서 서쪽으로 4km 떨어진 곳에 후니 강이 흐른다. 이 유적에는 모두 418기의 무덤이 동북-서남향으로 군을 이루어 분포하며, 400m~500m 간격으로 남, 북, 중앙에 3개의 군을 형성한다. 골 모드 유적에서 확인되는 무덤은 외형상으로 방형 무덤과 원형 무덤으로 구분되고, 무덤은 묘도가 있는 것과 묘도가 없는 것이 있다. 현재까지 묘도가 있는 방형 무덤 3기(1호, 20호, 79호), 묘도 없는 방형 무덤 2기(74호, 75호), 원형 배장묘 11기가 발굴되었다. 묘도가 있는 방형 무덤 가운데 가장 큰 무덤으로 알려진 것은 20호이다. 1호에서 동쪽으로 약 200m 가량 떨어진 곳에 있다. 무덤의 동남쪽에는 남북 방향으로 배장묘 4기가 배치되었다. 지표에는 유구가 일부 노출되어 있었다. 무덤구덩이의 남쪽으로 평면 형태 사다리꼴 모양의 긴 묘도가 설치되었다. 방형 무덤방은 서쪽 34m, 북쪽 30m, 동쪽 30m, 남쪽 31.5m로 각 변의 길이에 약간씩 차이가 있다. 분구 높이는 석축과 비슷하고, 중심부는 깊게 함몰되었다. 묘도의 길이는 23m이고, 무덤구덩이와의 연결 부위는 14m, 입구는 4m로 사다리꼴이다. 무덤은 깊이 들어갈수록 묘광 크기가 줄어들었는데, 깊이 12m까지 들어갔을 때, 말뚝 17개체 분이 확인되었

다. 그 아래에는 불에 탄 나무와 목탄이 다량 분포했다. 이 지점에서부터 유물이 출토되기 시작했는데, 철제 고리, 차관, 동북, 수레 장식 등이 출토되었다. 깊이 14m부터, 적석 구조(6.5×6m)가 드러났다. 적석 구조 바깥으로는 마차의 바퀴 및 부속품 등이 확인되었다. 이 마차 아래에서 매장 주체부인 깊이 18m의 목곽이 나왔다. 매장 주체부는 이중 목곽 안에 목관을 넣은 형식이다. 바깥 곱이 4.4×3m, 내부 곱이 3.5×2.1m 크기이다. 안의 곱은 남쪽으로 치우치게 배치되었고, 북쪽 공간에는 토기 2점이 파손된 채 확인되었다. 동쪽 공간에는 노용 울 유적에서 출토된 펠트제 카펫과 비슷한 문양을 가진 카펫 조각과 뿔이 1개 달린 말 그림이 있는 은제 말 띠 드리개가 있다. 그 외 바깥 곱에서는 금동 봉, 청동 주전자, 청동 용기, 동북과 마구 등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다. 내부 곱 안에서는 서쪽으로 치우쳐 있는 목관(2.1×0.8m)이 확인되었다. 목관은 철못으로 벽체를 결구했다. 목관 뚜껑이 열려 있었고, 내부가 비어 있어서 도굴되었다. 목관 위에서 금제 장식과 금띠 등 금관의 일부로 생각되는 유물이 수습되었다. 목관을 장식했던 여러 금제품과 터키석이 감입된 금제 단추 등도 확인되었다. 방형 무덤으로 묘도가 없는 75호도 발굴되었다. 이 형식의 무덤은 대부분 지표상에는 둥근 모양의 적석이 확인되지만 매장 주체부는 방형의 목관묘이다. 깊이 3.4m(위를 기준)에서 목곽이 확인되며, 내부에서 목관이 확인되었다. 매장 주체부는 도굴로 파괴되어 교란이 심하며, 무덤 주인의 인골도 거의 남아 있지 않다. 그러나 목곽의 바깥에서 무덤구덩이 서남쪽 모서리에 두개골이 아래로 향해 놓여 있었던 것이 확인되었다. 목관 바깥의 목곽 내부에서는 철제 재갈, 철기, 등잔형 토기 등이 출토되었다. 목곽이 들어간 무덤구덩이는 돌로 채워졌고 그곳에서 양의 목뼈와 다리뼈가 출토되었는데, 깊이는 3.2m였다. 소뼈는 이보다 더 높은 곳에서 발견되었는데, 그 깊이는 2.5m였다. 매장묘는 석곽묘, 목곽묘, 토광묘 등 다양한 형태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골-모드

● 다국어 표기 Гол-Мод(러시아어), Gol-Mod(영어)

● 연관 검색어 노용 울, 카펫

● 참고문헌(오프라인) 에릭젠, 양시은, 『흉노』, 진인진, 2017.

국립중앙박물관·몽골과학아카데미고고학연구소·몽골국립박물관, 『몽골 흉노무덤 자료집성』, 2008.

I A050 | 골루

● 시기 A.D. 1500년~A.D. 1800년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의례 ● 유형 소분류2 축제
● 집필자 김홍중 ● 라틴 문자 Gollu

골루(Gollu)는 발카르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신들 중 하나인 수확의 신이다. 과거 발카르인들은 이른 봄에 골루에게 바치는 춤과 합창을 공연하는 축제를 열었으며 신의 이름이 축제의 명칭이 되었다. 수확의 신이라는 신화적 존재에게 바쳐진 골루는 고대 신화 세계관과 농업 공동체의 특징이 잘 반영되어 있다. 춤과 합창은 흰 수염을 가진 선한 노인의 형상을 가진 골루의 말재간, 지력, 풍요,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내용이다. 골루는 한 손에는 농기구를 다른 한 손에는 씨앗을 들고 있다.

춤과 합창은 들이나 마을 곳곳에서 벌어지는데, 그곳에서는 가축이나 요리, 음료를 제물로 바친다. 모든 참가자들이 모인 뒤에는 토레치(төречи)라 불리는 최연장자가 등장해 전통 피리를 연주하는 것으로 의식이 시작된다. 모든 참가자들은 손을 잡고 큰 원을 그리면서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부른다. “오이라, 골루, 오이라, 골루, 당신은 즐거운 골루.” 토레치는 원 안에 서서 춤을 지휘한다. 그의 지시에 따라 사람들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지칠 때까지 빙빙 돈다. 이 춤과 노래는 일주일 동안 지속된다. 골루에서는 달리기, 활쏘기, 돌 던지기 같은 다양한 경기들이 함께 진행된다.

필로넨코(V.I. Filonenko)는 골루는 농사 축제일 뿐 아니라 조상에 대한 추모의 기능도 있다고 주장했다. 제물인 가축과 빵 등은 조상에게 바쳐진다는 것이다. 또한 골루에서의 춤과 합창은 결혼식에서도 등장하기도 한다. 농사 축제, 추모, 결혼식 등 행사의 특성에 따라 골루 합창의 내용은 바뀐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고루
- 다국어 표기 Голлу(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발키르인
- 참고문헌(온라인) <https://noev-kovcheg.ru/mag/2014-20/4806.html>

<http://kcr.narod.ru/tansy/11.html>

● 참고문헌(오프라인) Мурзагалеев Р.И., Сулейманов А.Р. Чекрыжов А.В., Мурзагалеев Б.Р. «Традиции и праздники тюркских народов России», Диалог, Уфа, 2017.
Энциклопедия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Севера, Сибири 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М, 2005.

I A051 | 곰 축제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의례 ● 유형 소분류2 축제
● 집필자 김근식 ● 라틴 문자 Medvezhiy prazdnik

곰 축제는 북반구 민족들에게 널리 퍼진 곰 숭배 의식이다. 이 축제 의식(儀式)은 곰 사냥부터 사냥물의 손질까지 전 과정을 포함하고, 의식의 모든 행위들은 엄격히 규정된다. 그래서 곰 축제에서는 토테미즘의 모든 요소들과 사냥 의식이 결합된다. 그리고 곰 축제에서는 망자가 동물로 변해 윤회하는 신화가 반영되었다. 케트인은 곰이 뒷발을 디디고 서서 약점인 배를 드러내는 것을 스스로 사냥꾼에게 행복한다고 믿는다. 이 순간은 이미 죽은 친인척 중 하나가 곰으로 환생하는 순간이다. 행복한 곰은 자신의 가족을 찾고 싶어 하는 친지인 것이다. 그래서 죽음은 공포가 아닌 재탄생의 의미를 지닌다. 이런 식으로 사람은 사후에 다른 동물의 형상으로 자신의 친지들을 수차례 방문할 수 있다. 사냥꾼들은 누가 곰 사냥을 했다고 결코 말하지 않는데, 이는 곰이 스스로를 내어 준 것이지 사냥꾼이 죽이거나 사냥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죽은 짐승을 집으로 끌고 들어올 때는 가장 먼저 오른쪽 앞발을 잘라 점을 친다. 배를 위로 하고 눕혀진 곰에게 가장 연장자인 사냥꾼이 질문을 하고는 앞발을 던진다. 만일 앞발이 털이 덮인 쪽을 위로 해서 떨어지면 곰이 부정적인 대답을 한 것이며 발바닥 쪽이 위로 나온다면 긍정적인 대답을 한 것이다. 가장 먼저 누가 곰으로 환생한 것인지 묻는다. 점을 치고 나서 곰을 해체한 뒤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준다. 이는 북방 민족들의 전통에 따라 서로 차이가 나는데 케트인들은 해체 과정에서 복잡한 의식을 치르지 않는다. 곰의 육체는 모두 해체되기 때문에 이후 축제를 위해

서 곰의 형상을 본 탄 나무 조각들을 다음 축제 기간까지 집 안에 둔다. 이렇게 곰은 손님이 된다. 곰이 집에 있을 때는 곰을 먹지 않는데, 이때 곰이 환생하는 것이다. 축제 의식의 마지막에 사냥꾼은 곰 가죽을 쓰고 사냥꾼들을 사냥감으로 이끈다. 돌간인들은 곰 사냥에 나서기 전에 곰 축제를 벌이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 식사이다. 3일에 이르는 축제 기간 중 매일 밤마다 곰 고기를 먹고 식사 사이에 의식을 거행하거나 춤을 추고, 놀이를 즐기며 노래를 하기도 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메드베지 프라즈드니크

● 다국어 표기 Медвежий праздник(러시아어), Medvezhiy prazdnik(영어)

● 연관 검색어 돌간인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uNy-N27p6_0

<https://musaget.ru/traditsii-orochey-dary-kosatke-i-prazdnik-dlya-medvedya/>

● 참고문헌(오프라인) Крейнович Е. А. Медвежий праздник у кетов // Кетский сборник. Морфология, этнография, тексты. М. - 1969.

Мурзагалеев Р.И., Сулейманов А.Р. Чекрыжов А.В., Мурзагалеев Б.Р. «Традиции и праздники тюркских народов России», Диалог, Уфа, 2017.

I A052 | 공채관리국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기관 ● 유형 소분류2 행정기관
● 집필자 이은정 ● 라틴 문자 Public Debt Administration

오스만 왕조의 공채관리국은 1875년 파산한 오스만 제국의 공채를 변제하는 업무를 담당하도록 1881년 만들어진 기관으로 정부 안의 정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독립적인 기관이었다. 오스만 정부는 18세기에서 19세기 초까지는 국내 자본, 특히 갈라타 지역의 비무슬림 은행가들로부터 돈을 빌리는 패턴을 갖고 있었으며, 외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경계심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1852년 개혁 관료들에 의한 외채 도입 시도는 술탄 압뉘메지드의 승인 거부로 취소되었고 이는 외국 투자자들이 오스만 정부를 불신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다가 1854년 크림 전쟁 와중에 처음으로 외채를 얻기 시작했다. 첫 번째 외채는 영국의 채권 시장으로부터 3백만 파운드를 6% 이자율로 얻은 것이었고, 이러한 외채 도입은 이후 1875년까지 도합 2억 파운드가 넘는 액수에 달하게 되었다.

오스만 제국 정부가 도입된 외자를 그다지 생산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면도 있지만, 당시의 개혁 정국이 도입된 외자를 생산적으로 투자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권력 투쟁과 혼란 가운데 있었고, 애초에 오스만 정부의 공채 자체가 위험스러운 투자 대상으로 인식되어 유럽에서 상당히 많이 할인되어 팔렸기 때문에 실제로 들어온 돈은 명목 액수의 30%~70% 정도에 그쳤다고 한다. 이미 1860년대부터 외채를 계획대로 상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1875년 오스만 정부는 라마잔 칙령(1875년 10월 6일)으로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고 1881년까지 외채의 반을 갚고, 나머지를 갚기 위해 5% 이자율로 공채를 발행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이 계획의 실현 불가능함이 곧 드러나서 완전한 파산에 이르게 되었다.

발칸 위기와 러시아와의 전쟁들을 파산 전후에 겪으면서 오스만 제국은 대단히 큰 영토 및 인구 상실을 겪고 위축되었다. 많은 협상 끝에 압뒸하미드 2세가 상당 부분의 빚을 탕감받고 결국 외채 상환금 조달을 목적으로 공채관리국을 설립하는 것을 승인한 무하렘 칙령(1881년)을 반포하여 겨우 경제적 안정을 어느 정도 이루게 되었다. 공채관리국은 빚을 갚는 데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오스만 정부 수입의 일부를 가져갔는데 이는 소금과 담배의 전매, 인지세, 주세, 견직물세, 어장세 등 6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 세금들은 공채관리국 직원들에 의해 직접 징수되었고, 그 외에도 발칸 공국들로부터 넘어오는 세 수입과 필요한 경우 관세 징수액도 넘겨받도록 되어 있었다. 공채관리국은 상당히 많은 직원을 고용했으니, 1881년에 이미 3,000여 명의 징세 담당 직원을 거느렸고, 1911년에는 전체 직원이 거의 9,000명에 가까웠다. 공채관리국은 제국의 재정과 경제에 큰 영향을 주었을 뿐 아니라 정치에도 나름 영향력이 있었다. 공채관리국의 존재와 거기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고용되어 있다는 상황 자체가 오스만 무슬림들에게 유럽에 의한 침탈의 상징이 되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공채관리국은 한편으로 봉급을 잘 주고 대우를 잘 해 주는, 무슬림들에게까지 인기 있는 직장이었다. 공채관리국은 놀랍게도 1차 세계 대전 기간이나 이후 승전국에 의한 점령 기간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기능했고, 전쟁 기간 동안에도 채권단의 대표들은 떠났지만 그들에게 넘겨주게 돼 있던 돈은 나중에 지불하기 위해서 비축되었다.

1차 대전 직후에는 승전국들이 공채관리국을 통해 오스만 제국의 금융을 완전히 지배하려는 계획이 있었지만 공채관리국은 무스타파 케말의 주도하에 공화국이 수립되면서 폐지되었다. 튀르키예 공화국은 오스만 제국의 공채를 전부 갚는 것을 거부하고 구 오스만 제국 영토에 세워진 신생 국가들과 외채 상환의 부담을 나누어 지겠다고 제의하여 65%를 부담하게 되었고, 그 외 그리스 9%, 시리아와 레바논 8%, 이라크 5%, 유고슬라비아 4%, 팔레스타인 3%, 기타 6%를 각각 여러 군소 국가들이 갚게 되었다. 튀르키예 공화국은 1954년에 갚기로 했던 오스만 제국의 외채를 모두 갚았다.

● 다국어 표기 Düyûn-ı Umûmiye(튀르키예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rl.kr/jb7p5r>

● 참고문헌(오프라인) Murat Birdal, *The Political Economy of Ottoman Public Debt : Insolvency and European Financial Control in the Late Nineteenth Century*, London: Tauris, 2010.

Hüseyin Al, "Debt and Public Debt Administration," Gábor Ágoston and Bruce Masters, eds., *The Encyclopedia of the Ottoman Empire*, Facts on File 2008, pp.180~183.

I A053 | 공화인민당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조직 ● 유형 소분류2 정당
● 집필자 우덕찬 ● 라틴 문자 Cumhuriyet Halk Partisi

공화인민당은 현존하는 튀르키예 정당 중 가장 오래된 정당이다. 1923년 9월 9일 튀르키예 공화국의 대통령 케말 아타튀르크가 '인민당'으로 창당하여 1924년 11월 10일 공화인민당 (Republican People's Party, 튀르키예어: Cumhuriyet Halk Partisi, CHP)으로 당명을 변경했다. 튀르키예는 1923년부터 1946년까지 공화인민당 1당 독재 체제를 유지했는데, 정당의 이념은 케말리즘과 사회 민주주의이다.

공화인민당에 모인 사람들의 스펙트럼이 넓어서 1960년대까지는 반공주의, 권위주의 우익 성향도 있던 일종의 빅텐트(Big tent) 정당이었으나, 1965년 이후 이스메트 이뇌뉘 등 공산당에



공화인민당 로고



케말 클르츠다르오을루
Source: <https://chp.org.tr/>

유화적인 당내 좌파 사회주의자들이 당권을 잡으면서 노선이 확립되어 현재는 중도 좌파에서 좌파 성향 정당으로 분류된다.

1972년 무스타파 빌렌트 에제비트(Mustafa Bülent Ecevit, 1925년~2006년)가 공화인민당의 지도자가 되면서 급진적인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되었고, 1980년 9월 육군 참모 총장인 케난 에브렌의 주도로 쿠데타가 성공한 후 강제 해산되었다. 1985년 9월 사회민주당과 합당했으나 1992년 본래 이름인 공화인민당으로 재창당했다.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의 세속주의와 개혁주의를 따라 정교분리를 주장한다. 민주적인 계획 경제를 지향하면서 경제 운용을 위한 국가의 효율적인 조정 역할을 옹호하고, 외교 정책과 국방 정책간 불가분성, 개인의 자유로운 사고 개발을 위한 교육 및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노조 결성과 권리 보장을 주장하고 있다.

1999년 4월 총선에서 10% 득표에 그침으로써 원내 진출에 실패했으나, 2002년 11월 조기 총선에서 19.38%의 득표로 다시 원내 주요 야당 지위를 보유하게 되었고, 2007년, 2011년, 2015년 6월 및 2015년 11월 조기 총선 시에도 지지율의 큰 변화 없이 제1야당의 지위만을 유지하고 있다. 2018년 6월 대선 대비 야권 내 연합 구성은 성사되지 않았으며, 공화인민당(CHP)은 국회의원인 Muharrem Ince(무하렘 인제)이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2023년 현재 국회 의석수는 169석이다. 당수는 케말 클르츠다르 오을루(Kemal Kılıçdaroğlu)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CHP, 공화민중당
- 다국어 표기 Republican People's Party(영어), Cumhuriyet Halk Partisi(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케말리즘, 이스메트 이뇌뉘,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ko.wikipedia.org/wiki/%ED%84%B0%ED%82%A4%EC%9D%98_%EC%A0%95%EB%8B

%B9#/media/

Cumhuriyet_Halk_Partisi.png (Parteilogo – Cumhuriyet Halk Partisi)

● **참고문헌(온라인)**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공화인민당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404343&cid=40942&categoryId=33433>

네이버 지식백과, 터키개황, 외교부, 터키의 정당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772728&cid=43920&categoryId=43921>

● **참고문헌(오프라인)** Ciddi, Sinan 2009. *Kemalism in Turkish Politics: The Republican People's Party, Secularism and Nationalism*. Taylor & Francis.

I A054 | 광란의 퀴르 강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아제르바이잔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작품 ● 유형 소분류2 소설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Vaqif Sultanlı) ● 라틴 문자 Dəli Kür

『광란의 퀴르 강(Dəli Kür)』은 아제르바이잔의 작가인 이 스마일 쉬흘리(İsmayıl Şıxlı, 1919년~1995년)의 역사 소설이다. 당시 문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 작품은 소설 창작의 새로운 단계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저자가 이 작품을 쓰는 데 10년이 걸렸고, 1967년에 완성했다. 「광란의 퀴르 강」은 역사를 소재로 했지만, 전통적인 역사 소설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이 소설에서 사건들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일어난다. 아제르바이잔 민족이 러시아 식민지 시절 겪었던 사회 정치적, 도덕적 사건들을 묘사한다.

소설의 주인공은 자한다르 아가(Cahandar ağa)인데, 그는 시골 괴이태패(Göytəpə kəndi)의 부유한 지주이다. 소설은 자한다르 아가가 알라흐야르(Allahyar)의 아내 맬렉(Mələk)을 납치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 사건은 후속 사건들의 드라마틱함을 더해 준다. 자한



『광란의 퀴르 강』 책 표지

다르 아가의 부인은 남편이 두 번째 아내를 얻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 자한다르 아가의 장남인 샴할(şamxal)은 이 사건 이후 집을 떠난다. 자한다르 아가의 막내 아들인 애스래프(Əsrəf)는 조지아로 공부를 하러 떠난다. 소설의 결말에서 자한다르 아가는 러시아인들과 서로 총을 쏘다가, 그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 퀴르 강(Kür çayı)에 몸을 던져 익사한다. 이스마일 쉬흘리는 이 소설에서 소비에트 정권 시절 최초로 소비에트 이전 아제르바이잔 칸국의 귀족 및 지주 계급인 ‘배이(bəy)’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면서 배이의 모든 특징을 살려 부활시키려고 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스마일 쉬흘리가 이 소설을 쓸 때, 미하일 알렉산드로비치 솔로호프(Mixail Şoloxov)의 「고요한 돈 강」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학술적 근거가 없다. 이 작품은 아제르바이잔에서 여러 차례 출판되었으며, 튀르키예어, 러시아어, 페르시아어로 번역되었다. 1919년에 이스마일 쉬흘리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 같은 이름의 영화가 제작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미친 듯 흐르는 퀴르 강, 광기 어린 퀴르 강
- 다국어 표기 Çılgın Kür(튀르키예어), Буйная Кура(러시아어), Dəli Kür(아제르바이잔어), Жапайы Кура(키르기스어), Кыргыз Кура(타타르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imdb.com/title/tt1279422/mediaviewer/rm1811495168/>
- 참고문헌(오프라인) Əhmədov Teymur, *Azərbaycan Yazıçıları XX-XXI yüzilliklərdə: Ensiklopedik Məlumat Kitabı*, Bakı: Nurlar Nəşriyyatı, 2011.
İsmayilov Yaqub, *İsmayıl Şıxlı: Həyatı, Mühiti, Sənəti*, Bakı: Ayna Mətbu Evi, 1999.
Salamoğlu Təyyar, *İsmayıl Şıxlının Bədii Nəsr*, Bakı: EL Nəşriyyatı, 2014.
Şıxlı İsmayıl, *Dəli Kür (Roman)*, Bakı: Qanun, 2014.

I A055 | 곱테페

- 시기 기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투르크메니스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사건 ● 유형 소분류2 전투
- 집필자 박현도 ● 라틴 문자 Gök Tepe

곱테페는 튀르키예어로 ‘푸른 언덕’이라는 뜻이다. 현재 투르크메니스탄의 수도 아슈가바트(Aşgabat)에서 북서쪽으로 약 45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다. 현대 투르크메니스탄어로는 곱테페(Gökdepe)라고 한다. 아할텍케(Ahal Tekke, Akhal Tekke) 오아시스 지역인 이곳에는 투르크멘들이 1879년에 완성한 성채가 있었다. 카스피해 동쪽 연안으로 진출한 러시아는 투르크메니스탄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하여 곱테페를 공략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궁극적으로 영국의 중앙아시아 진출을 막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이기도 했다. 1879년 로마킨(Nikolai Lomakin) 장군이 3,500명의 러시아군을 이끌고 공격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이에 러시아-튀르키예 전쟁의 영웅 스코벨레프(Mikhail Skobelev) 장군은 약 8,000명의 러시아군을 이끌고 1880년 12월 23일 성채를 포위한 후 1881년 1월 24일 공격을 개시하여 3일 동안 약탈, 강간, 살인을 자행하며 곱테페를 점령했다. 이 전투는 러시아가 중앙아시아에서 벌인 최악의 비인도적 살상이었다. 투르크 사상자는 8,000명~15,000명으로 추산되는 반면, 러시아의 사상자는 공식적으로 사망 268명, 부상 669명이었다. 승리한 러시아는 이란과 국경을 확정했지만, 영국과는 긴장 관계를 형성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이 전투에서 패한 후 1991년 독립을 이룰 때까지 러시아의 지배를 받았다. 투르크메니스탄은 독립 후 곱테페를 지키기 위해 죽어간 사람들을 위하여 매년 1월 12일을 현충일(yatlama günü)로 공식 지정하여 국가적으로 기념하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곱테페, 콕테페, 곱데페

● 다국어 표기 Gökdepe(투르크메니스탄어), Гёкдепе(러시아어), Geok Tepe(영어), Gökdepe(투르크멘어), Göktepe(튀르키예어), Go'ktepe(우즈베크어), Gökdepe(아제르바이잔어), Гектепе(카자흐어)

● 멀티미디어 링크 곱테페 유적 사진

<https://www.youtube.com/watch?v=MgSSwVdZeCw><https://www.youtube.com/watch?v=jrmKU7FVFIM>

곱테페 전투

https://www.tripadvisor.com/LocationPhotoDirectLink-g293966-d8261464-i153187998-Geokdepe-Ashgabat_Ahal_

Province.html

유화

<https://www.officeholidays.com/holidays/turkmenistan/turkmenistan-memorial-day>

● **참고문헌(오프라인)** Dean, William T. and Timothy C. Dowling, eds. *Russia at War: From the Mongol Conquest to Afghanistan, Chechnya, and Beyond* (Santa Barbara, CA: ABC-CLIO, 2014, Vol. 1, pp.293~294.

Horák, Slavomír. "The Battle of Gökdepe in the Turkmen Post-Soviet Historical Discourse," *Central Asian Survey* 34, no. 2. 2015, pp.149~161.

Mikaberidze, Alexander. *Conflict and Conquest in the Islamic world: A Historical Encyclopedia* (Santa Barbara, CA: ABC-CLIO, 2011, Vol. 1, 54-55; Vol. 2, pp.237~240.

Spuler, B. "Gök Tepe," *Encyclopaedia of Islam, New ed.*, Vol. 2, pp.1116~1117.

I A056 | 교착어

- 시기 기타 ● 지역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북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튀르키예, 아제르바이잔, 몽골 ● 유형 언어 ● 유형 소분류1 언어 현상 ● 유형 소분류2 문법 기능
- 집필자 장주영 ● 라틴 문자 Agglutinative language

교착어는 단어를 구성하는 각 형태소가 독자적인 어휘적 의미나 문법적 기능을 지니고 있어, 단순히 별도의 형태소를 첨가함으로써 새로운 의미나 문법적 기능을 덧붙일 수 있는 언어를 말한다. 한국어를 비롯하여 일본어, 튀르키예어, 헝가리어, 몽고어, 통구스어, 스와힐리어(아프리카 잔지바르 부근의 연안에 사는 반투족의 언어) 등이 교착어에 속한다. 스와힐리어의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ni-na-soma '나는 책을 읽는다'

u-na-soma '너는 책을 읽는다'

a-na-soma '그는 책을 읽는다'

위의 예에서 soma는 '읽다'라는 의미의 어기(語基)이며, ni는 '나', u는 '너', a는 '그'라는 의미를 갖는 형태소들이며, na는 현재 시제를 나타낸다. 이와 같이 교착어는 의존 형태소마다 독

자적인 의미나 기능이 있어 형태소 사이의 경계를 결정하기가 비교적 쉽다는 특징이 있다. 같은 문장을 튀르키예어의 예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Ben kitap okuyorum ‘나는 책을 읽는다’
Sen Kitap okuyorsun ‘너는 책을 읽는다’
O kitap okuyor ‘그/그녀는 책을 읽는다’

위의 예들에서 oku-는 ‘읽다’라는 의미의 어기이며, ben은 ‘나’, sen은 ‘너’, O는 ‘그/그녀’라는 의미를 갖는 형태소들이며, -yor는 현재 시제를 나타낸다. 다만 튀르키예어의 경우 활용형 끝에 인칭 어미를 수반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교착어는 문법 기능이 접사에 표시되기 때문에 문장을 이루는 요소들 사이에 비교적 자유로운 어순을 허용한다. 헝가리어의 예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Az ember la:tja a kutya:t ‘남자가 개를 보고 있다’
A kutya la:tja az embert ‘개가 남자를 보고 있다’
Az embert la:tja a kutya ‘남자를 개가 보고 있다’

헝가리어에서 목적어는 접미사 -t로 표시되므로, 첫 번째 예에서 목적어는 a kutya:t ‘개’인 반면, 두 번째 예에서 목적어는 az embert ‘남자’이다. 그러나 목적어는 접미사에 의해 표시되므로 동사의 뒤나 동사의 앞에 나타나도 의미 해석에는 상관이 없다. 따라서 한국어 해석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세 문장의 어순은 각기 다르게 나타나지만 의미가 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튀르키예어 역시 자유로운 어순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교착어의 특징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교착어는 공통적으로 모음 조화 현상을 나타내므로, 한 단어 안에서 모음의 특성에 따라 결합하는 모음 역시 달라진다. 또한 두음 법칙이 적용되며, 관계 대명사가 없고, 접속사가 없다. 인구의 관계 대명사나 접속사가 처리하는 일들을 동사의 어미가 담당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교착 언어
- 다국어 표기 *Агглютинативные языки*(러시아어), *Lengua aglutinante*(스페인어), *Langue agglutinante*(프랑스어)
- 연관 검색어 모음 조화
- 참고문헌(오프라인) 이견수, 『언어학 개론』, 신아사, 2006.
이익섭, 이상익, 채완, 『한국의 언어』, 신구문화사, 1997.

I A057 | 구람휘세인 새이디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이란, 아제르바이잔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Vaqif Sultanlı) ● 라틴 문자 Gulamhussein Saidi

구람휘세인 새이디((Qulamhüseyn Səidi, 1936년~1985년)는 남아제르바이잔(이란 북부) 도시 태브리즈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는 태브리즈 대학교의 의학과에서 의학-심리 상담을 전공했으며, 졸업 후에는 테헤란에서 ‘딜-구쇄(Dilgüşə)’라는 메디컬 센터를 열어 잠시 일했다. 1964년부터는 이란의 사회 연구소에서 일했는데, 업무상 남아제르바이잔의 여러 지역을 방문했다. 또한 그사이 편집자로서 <알파벳>이란 잡지를 출판했다. 1965년에는 정치적인 이유로 체포돼서 심한 고문을 받았는데, 이란의 이슬람 혁명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던 그는 1982년 이란을 떠나 프랑스로 이민을 갔다. 이민 생활을 하면서 심한 우울증을 앓던 작가는 1985년 11월 23일 파리에서 4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고 피에르 라-세즈(Per Lasez) 묘지에 안장되었다.

그는 문학 활동을 단편소설(hekayə)로 시작했으나 이후 장편소설, 희곡과 시나리오를 썼다. 그는 특히 희곡 분야에서 명성을 얻었으며 그의 작품들은 이란의 여러 극장에서 상연됐다. 그의 작품들을 바탕으로 여러 편의 영화가 제작되기도 했다. 프랑스에서 그는 「오텔로는 이상한 나라에 있다(Otello qəribə məmləkətdə)」, 「빛나는 심장(Nurlu qəlblər)」, 「의사 애크바르(Doktor Əkbər)」, 「르네상스(Renessans)」를 썼다. 또한 <알파벳> 잡지를 계속 발행했다. 그의 작품 중에서 「도시에서 한 낯선 사람(Şəhərdə bir qərib)」, 「공(Top)」, 「웃는 얼굴의 타타르

(Gülər yüzlü tatar)」 등이 인기를 끌었다. 그는 페르시아어로 작품 활동을 했으며, 아제르바이잔어로 쓴 것은 「늑대들(Qurdlar)」이라는 희곡뿐이다. 그는 남아제르바이잔 문학을 대표하는 사실주의 작가이며, 희곡 작가로 알려져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구람후세인 세이디, 구람후세인 새이디
- 다국어 표기 Gulamhuseyin Saidi(튀르키예어), Гуламхусейн Саиди(러시아어), Gholām-Hossein Sā'edi(영어), غلام حسين ساعدي(페르시아어), Qulamhüseyn Səidi(아제르바이잔어)
- 연관 검색어 아제르바이잔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rl.kr/pcyzgt>
- 참고문헌(오프라인) Əhmədov Teymur, *Azərbaycan yazıçıları XX-XXI yüzilliklərdə: Ensiklopedik məlumat kitabı*, Bakı: “Nurlar” nəşriyyatı, 2011.
Güney Azərbaycan nəsrī (antologiya), Vaqif Sulanlı və İrəc İsmayılın təqdimində, Bakı: “Nurlar” nəşriyyatı, 2017.
 Pəkdəman Nasir, “Parisdə bir qərib”, *Ədəbiyyat qəzeti*, 23 dekabr 2017.
 Rəhmani Səməd, *Qulamhüseyn Saedi və onun yaradıcılıq dünyası*, “Filologiya məsələləri”, 2012, № 7, s. 448~453.

I A058 | 구밀료프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학자
- 집필자 김재운 ● 라틴 문자 L.Gumilev

레프 구밀료프는 1912년에 태어난 역사학자, 민족학자, 인류학자이다. 독특한 민족 형성 이론 및 지리 결정론, 유라시아주의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그의 학문적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성장 배경과 중앙아시아 구치소에서 보낸 삶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의 아버지는 러시아의 저명한 시인인 니콜라이 구밀료프이며, 10월 혁명 이후 러시아 내전에서 백위군으로, 공산당에 의해 처형을 당했다. 러시아 내전은 좌파 내부에서 좌우 갈등으로 생긴 것인데, 무력으로 소비에트 정권을 세우는 데 극렬히 반대하는 편이 백위군이였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그는 1938년~1956년 동안에 중앙아시아 각 지역의 수용소에서 감금당했다. 물론 그사이 1944년

~1945년에는 전쟁에 참가하고 다시 레닌그라드로 돌아가서 박사 학위를 받았으나(1945년~1949년) 1949년부터 1956년에 다시 중앙아시아(카자흐스탄, 알타이, 시베리아)에 감금당했다. 그의 어머니 안나 아흐마토바는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스탈린 찬양 시를 3번이나 써야 했다.

구밀료프는 20년간 중앙아시아에서 여러 언어를 배웠고 각 지역의 고고학 발굴 현장에 참여하면서, 중앙아시아 민족의 민족성을 이해할 수 있었으며, 이는 나중에 그의 연구의 토대가 되었다. 그가 수감 생활을 시작하기 전인 1930년~1938년은 대학을 다니면서 탐험을 떠난 시기이다.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범 대학에 들어가서 독일어를 전공하고자 했는데, 1931년에는 지질학으로 전공을 바꾸었다. 지질학 탐사를 위해서 프리 바이칼과 타지키스탄으로 첫 탐험을 떠나게 되었다. 그가 역사학을 전공한 것은 1934년에 새롭게 복원된 레닌그라드 대학의 역사학부를 입학하면서부터이다. 하지만 그는 콤소몰 조직 주도를 이유로 대학에서 퇴학당했으나 고고학 발굴 현장에는 계속 참가했다. 1937년에는 당시 소련 과학아카데미 민족지학 연구소 동남아시아 민족지학부에서 근무하기 시작했다. 1956년 중앙아시아에서 레닌그라드로 돌아온 그는 에르미타주 박물관의 도서관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소련 과학아카데미의 동양학 연구소에 취직해서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높이려고 했으나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동양학 연구소에서는 그에게 논문을 의뢰하여 「흉노, 고대 중앙아시아사(Хунну: Срединная Азия в древние времена)」를 발표하게 된다. 여기에 그의 독특한 민족 형성학 이론의 배경이 된 'Passionarity'가 포함되며, 후에 국가 박사 학위 논문에서 구체화되었다. 그가 학문적으로 크게 인정받는 3가지 이론은 지리 결정론, 민족 형성론, 유라시아주의이다. 그가 처음 세운 이론 중에 하나는 지리결정론(Географический детерминизм, Geographical determinism)이다. 그는 자연 환경과 기후가 사람들의 경제 및 사회 정치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밝혔다. 텐산의 서부 지역,, 알타이 지역의 경사면은 여름에는 건조하고 덥기 때문에 초목이 타서 유목민이 가축을 산악 목초지로 몰아 넣어서 가축을 자연 방목했고, 겨울에는 건초를 준비해서 직접 먹이를 주었다. 양(그 외의 동물)이 직접 먹이를 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각 집단은 여름과 겨울나기를 위한 고유한 장소가 있었기 때문에 거의 접촉하지 않았으며 국가를 만들 필요가 없었다. 이러한 환경은 중앙 집권화가 일어나지 않는 지역에서 자주 목격되었고, 이와 반대의 현상이 목격되는 곳은 유연, 오이라트와 같은 곳이라고 추론했다. 그의 이론이 영어, 프랑스어, 헝가리어, 독일어로 번역되기 시작한 것은 지리결정론 때문이었다. 그의 민족 형성 이론



구밀료프 유라시아 국립대학교
Source: <https://enu.kz/ru/news/535>

(теории этногенеза, the theory of ethnogenesis)은 국가 박사 학위 논문에서 공식화된 것이었다. 민족 형성론의 가장 큰 배경이 된 열정학(Passionarity, пассионарности)은 ‘열정’이라고 번역되지만, 사실 그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열정적 긴장이라고 부르는 현상이다. 그가 생각하는 열정은 민족적 환경, 지리적 환경, 사회 경제 발전 수준 및 기술의 발전 등을 이루게 하는 개인의 노력이다. 하지만 민족 형성은 이러한 열정적 요인 때문에만 전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이러한 환경을 있게 한 열정가의 수와 이에 덜 관심을 두는 하위 열정가에 대한 비율의 ‘긴장’ 관계(열정적 긴장)에서 어느 ‘시작의 순간’은 갑자기 등장한다고 보았다. 그는 이 논문에서 정치적 개념의 ‘국가’를 배제하고 그리스어인 ‘Ethnos’라는 개념을 썼다. 이 이론은 1964년부터 1967년까지 14번에 걸쳐서 논문으로 발표되었고 국가 박사 학위 논문으로 발표되기도 했다. 유라시아주의(Евразийство, Eurasianism)는 1970년대 후반에 발표된 것인데, 1980년대에는 구밀료프는 스스로를 유라시아인이라고 불렀다. 유라시아주의는 1920년대부터 1930년

대 러시아에서 이주가 일어났던 시기에 발생한 철학적, 정치적 경향이다. 유럽 또는 아시아 범주, 문명에 속하지 않고 유라시아의 지정학적인 개념에 속한다는 의미이다. 구밀료프는 1920년대 유라시아주의 개념을 새롭게 꺼내면서 1980년대 신 유라시아주의를 소비에트 내에서 불러일으켰다. 그와 함께 신 유라시아주의의 주요 대표자로 여겨지는 알렉산더 두긴은 볼셰비키즘의 이론을 따랐다. 두긴은 유라시아주의의 ‘세 번째 방법’으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결합이라는 아이디어를 내세웠고 두긴의 생각은 고전적인 유라시아주의를 벗어나서 정치 프로젝트에 긴밀하게 이용되었다고 후대의 학자들은 지적한다. 구밀료프가 불러일으킨 신 유라시아주의는 S. Belyako에 의해서 많은 문제점을 비판받았다. 1987년에 은퇴한 구밀료프는 그가 처음 살았던 아파트로 이사한 후에 뇌졸중을 앓았고 여러 질환으로 1992년에 인생을 마감했다. 그는 아버지의 이데올로기 때문에 공산당으로부터 많은 괴로움을 당했지만 결국 이를 바탕으로 러시아를 대표하는 역사가로 자리매김했다. 연구 인생 마지막에 발표한 유라시아주의는 그가 처음에 주장한 민족 형성학에서 설명된 개개인의 특성을 인정한 열정 이론과는 달리 소비에트 공산당의 팽창주의에 이용되면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그의 연구는 ‘구밀료프학’이라고 불리면서 그 사상과 이론들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카자흐스탄 누르술탄(구 명칭 아스타나)에서는 그의 이름을 딴 구밀료프 유라시아 국립대학교(Евразийский Националь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имени Л. Н. Гумилёва)와 박물관 등이 만들어졌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구밀로브, 구빌레브, 구밀로프

● 다국어 표기 Л.В.Гумилев(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카자흐스탄, 흉노

● 멀티미디어 링크 레프 구밀료프의 일생 및 그의 저작물

<https://url.kr/45rjlm>

레프 구밀료프의 저작물

<http://gumilevica.kulichki.net/>

● 참고문헌(오프라인) Дёмин В. Н. Лев Гумилёв. — 2007. — 308 [2] с. — (ЖЗЛ).

Колосова, Наталья. Дневниковые записи о Л. Н. Гумилёве. События 1984—1992.

I A059 | 구바 칸국

●시기 A.D. 1500년~A.D. 1800년 ●지역 서아시아 ●나라 아제르바이잔 ●유형 역사 ●유형 소분류1 국가 ●유형 소분류2 왕조
●집필자 최선아 (자문위원 : Əli Şamil) ●라틴 문자 Quba xanlığı

구바 칸국(Quba xanlığı)은 아제르바이잔 북동쪽에 1726년부터 1806년까지 존재한 칸국으로, 휘세인엘리 칸(Hüseynəli xan, 재위: 1726년~1758년)에 의해 수립되었다. 칸국의 수도는 처음에는 쿠닷(Xudat)이었다가 1735년 구바(Quba şəhəri)로 천도했다.

휘세인엘리 칸은 나디르 샤(Nadir şah)의 구바 총독이었으나 나디르 샤의 사망 후 독립했다. 그의 재위 동안 구바 칸국은 아그트파라(Axtıpara), 알트파라(Altıpara), 도구즈파라(Doqquzpara), 굴간(Qulqan), 샤브란(Şabran), 루브다르(Rubdar)를 침략했으며, 1756년에는 살얀 칸국(Salyan xanlığı)도 구바 칸국에 복속되었다.

패탈리 칸(Fətəli xan, 재위: 1758년~1789년)의 통치 기간에 구바 칸국은 더 강력해졌고, 지역 통치자들의 권력을 제한하고 세금 징수를 규제했으며 군대의 수를 크게 늘렸다. 이것은 그가 아제르바이잔을 통일하려고 했던 노력의 일환이었다. 전략적 중요성이 컸던 대르밴드 칸국(Dərbənd xanlığı)의 칸인 매햄매드휘세인 칸(Məhəmmədhüseyn xan)의 정책으로 인해 대르밴드의 도시민들은 큰 불만을 갖게 되었고, 이를 이용한 패탈리 칸은 도시 인구의 대부분을 그의 편으로 끌어들이 수 있었다. 패탈리 칸은 여동생을 매햄매드휘세인 칸과 결혼시켰다. 또한, 다수의 남부 다그스탄 봉건 영주들과 동맹을 맺었다. 그 결과 1759년 대르밴드 칸국은 구바 칸국에 합병되었다. 이후, 패탈리 칸은 카스피해에서 가장 편리한 항구 도시로 명성을 얻고 있던 바쿠 칸국(Bakı xanlığı)을 점령하려 했다. 당시 항구 무역과 샤프란 재배, 소금과 기름 수출로 많은 돈을 벌고 있던 바쿠 칸국의 수익을 노린 것이다. 당시 바쿠 칸국은 군사적으로 상당히 약했고, 강력한 방어자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패탈리 칸은 혼인 외교를 통해 목표를 달성한다. 1766년에 패탈리 칸은 여동생 해디자 비개(Xədicə Bikə)를 바쿠 칸 맬릭 매햄매드 칸(Məlik Məhəmməd xan)과 결혼시켰다. 의지가 약한 맬릭 매햄매드 칸은 구바 칸국의 영향을 많이 받기 시작했다.

샤마흐 칸국(Şamaxı xanlığı)은 아제르바이잔 땅을 하나의 국가로 통합하려는 패탈리 칸

의 정책에서 중요한 위치였다. 패탈리 칸은 샤마흐 시를 점령함으로써 고대 시르반샤흐 국가(Şirvanşahlar dövləti)를 복원하기를 바랐다. 패탈리는 샤마흐 칸국과 협정을 맺고 남부 다그스탄 봉건 영주들의 공격으로부터 샤마흐 칸국을 지키는 대가로 샤마흐 칸국은 구바 칸국에 조공을 바치기로 약속했다. 또한, 샤마흐 칸국의 정책에 불만을 품은 샤마흐 칸국 사람들 역시 구바 칸국을 지지했다. 1768년 샤마흐 칸의 조공 거부를 구실로, 패탈리 칸은 샤마흐 칸국으로 진군했다. 샤마흐 칸국은 항복하고, 구바 칸국의 일부가 된다.

같은 해, 작은 자바드 칸국(Cavad xanlığı)은 구바 칸국과 합병되었다. 그 결과 패탈리 칸은 그의 권위 아래 모든 북동 아제르바이잔 땅을 통합하는 데 성공했다.

구바 칸국의 통일은 접경 국가들의 경계를 야기시켰다. 1774년, 카라가이타크의 사령관 아미르 햄재(Əmir Həmzə)와 일부 아제르바이잔 칸국의 연합군이 구바 칸국을 급습했고, 가브두산(Gavduşan) 전투에서 패탈리 칸은 패배하고 살얀(Salyan)으로 후퇴했다. 아미르 햄재는 샤마흐와 구바를 점령했으나, 곧 대르밴드로 돌아온 패탈리 칸은 1775년 러시아의 도움으로 적군을 물리쳤다.

패탈리 칸은 아제르바이잔 땅을 자신의 통치하에 통일하려는 정책을 계속 펼쳤다. 그는 1780년~1781년에 카라바흐(가라바그)를 점령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1784년, 그는 애르대빌(Ərdəbil) 및 메슈킨(Meşkin)과 연락을 취했고 그곳에서 7개의 투르크 부족을 구바로 이주시키는 데 성공했다. 1785년, 시애키 칸국(Şəki xanlıqları)과 랭개란(Lənkəran) 칸국은 구바 칸국에 예속되었다. 패탈리 칸은 남부 아제르바이잔으로 진군을 준비했지만, 1789년 3월에 급사했다.

패탈리 칸의 사망 후 아들인 애흐매드 칸(Əhməd xan, 재위: 1789년~1791년)은 그의 아버지가 통일한 영토를 지킬 수 없었다. 애흐매드 칸의 사망 후 자리를 이은 세이헬리 칸(Şeyxəli xan, 재위: 1791년~1806년) 역시 칸국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실패하여, 시애키(Şəki), 바쿠, 샤마흐 칸국들은 구바 칸국의 예속을 벗어났다.

군사력이 날로 증강되고 있던 러시아는 주로 북쪽에서 카스피해와 대르밴드 고개를 지나 아제르바이잔을 공격했다. 구바 칸들은 강력한 러시아 군대에 대항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러시아와 우호 관계를 유지 및 확장하여 협정을 맺으려 했다. 그 결과 구바 칸국에서 러시아와의 강화 조약을 맺게 되었다. 당시 아제르바이잔에는 구바 칸국처럼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

를 맺었던 다른 칸국은 없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쿠바 칸국**

● **다국어 표기** Quba xanlığı(아제르바이잔어), Kuba Hanlığı(튀르키예어), Quba xonligi(우즈베크어), Кубинское ханство(러시아어), Quba Khanate(영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Azərbaycan Tarixi. 7 Cilddə. III Cild. Bakı: “Elm”. 2007. Səh. 692 + 56 Səh.

Azərbaycan Tarixi. XIII–XVII Əsrlər. III Cild. Bakı: “Elm”. 2007. Səh. 692 + 56 Səh.

Bakıxanov, Abbasqulu Ağa. Güllüstani-İrəm (Az.). Əsgərli, M. Tərəfindən Tərcümə Olunub. Bakı: Mınarə. 2000, 224 Səh.

Bayramova, Nailə. Şamaxı Xanlığı. Bakı: “Təhsil”, 2009.

Qarabağnamələr (Çevirənlər Və Nəşrə Hazırlayanlar.: Nazim Axundov, Akif Fərzəliyev): I kitab, Bakı, Şərq-Qərb Nəşriyyatı, 2006, Səh. 216.

Qarabağnamələr (Çevirənlər Və Nəşrə Hazırlayanlar.: Nazim Axundov, Akif Fərzəliyev): II kitab, Bakı, Şərq-Qərb Nəşriyyatı, 2006, Səh. 288.

Qarabağnamələr (Çevirənlər Və Nəşrə Hazırlayanlar.: Nazim Axundov, Akif Fərzəliyev): III kitab, Bakı, Şərq-Qərb Nəşriyyatı, 2006, Səh. 248.

Hacınski, İsgəndər Bəy. Qubalı Fətəli Xanın Həyatı. Bakı: Azərbaycan SSR Elmlər Akademiyası Nəşriyyatı. 1959, Səh. 228 Səh.

Mustafazadə, Tofiq. Quba Xanlığı . Bakı: Elm. 2005, 480 Səh.

Mustafayev, C. XVIII Əsrin Sonu – XIX Əsrin Əvvəllərində Azərbaycan Xanlıqlarının Rusiya ilə Diplomatik Əlaqələri.

Azərbaycan Beynəlxalq Çoxcəhətli Qarşılıqlı Əlaqələrdə, 2-Ci Bakı Beynəlxalq Simpoziumunun Məruzələri. Bakı: “Elm”. 1997.

Tahirzadə Ədalət. Ağaməmməd Şah Qacar, Bakı, “Kür” Nəşriyyatı, 2002.

I A060 I 구바디아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의식주 ● 유형 소분류2 음식
- 집필자 김홍중 ● 라틴 문자 Gubadiya

구바디아는 바시키르인과 타타르인의 전통 음식이다. 달콤한 파이의 일종으로 차를 곁들여 먹는다. 발효되거나 발효되지 않은 반죽을 둥글게 펼치고 여러 겹의 소를 깔고 다시 반죽을 덮는



구바디아

다. 구바디아의 소는 다양한데, 에렘섹이라는 바시키르, 타타르의 전통 유제품과 쌀, 계란, 건포도, 건살구, 자두, 분쇄육 등을 사용한다. 구바디아는 결혼식, 아이의 출생, 명명식 같은 통과 의례나 귀한 손님의 접대에서 빠지지 않는 축하 음식이다. 특히 바시키르 공화국(바시 코르토스탄)의 서부와 북부에서 즐겨 먹는다.

타타르에서는 구바디아를 결혼 음식으로 여기는데, 소의 겹이 몇 겹인지에 따라 신랑이 신부의 집에서 며칠을 머무르는지가 결정

된다. 구바디아는 보통 신부측에서 준비하지만 지역에 따라 신랑측에서 준비하기도 한다. 타타르에서는 구바디아를 장식하는 사람이 마을마다 2~3명은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쿠바디아

● 다국어 표기 Губадия(러시아어), Гөбәзия(바시키르어)

● 연관 검색어 바시키르인, 타타르인, 바시키르공화국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han.gl/PyDCQn>

https://www.youtube.com/watch?v=kW_CM9zU1Q4

● 참고문헌(온라인) <http://rus.bashenc.ru/index.php/component/content/article/2-statya/10608-gubadiya>

<http://www.tatarlar.kg/index.php/stati/4-iz-istorii-tatarskoj-kukhni>

<https://kazan.aif.ru/infographic/recipes/85960>

https://nbpublish.com/library_read_article.php?id=26550

● 참고문헌(오프라인) Сорокина, А., Сурду, В., & Туркина, К. Символика блюд и тайны гостеприимства, “Язык-Культура-Общество”, Межкультурная коммуникация, 2016, 66~71.

Яковлева Е.Л. — Гастрономическая импровизация о кашах в татарской кухне // Человек и культура. – 2019. – № 1. – С. 57 – 67.

I A061 | 구전 이야기

●시기 A.D. 1500년~A.D. 1800년 ●지역 서아시아 ●나라 튀르키예 ●유형 문학 ●유형소분류1 구비문학 ●유형소분류2 장르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Metin Turan) ●라틴 문자 Halk Hikayesi

‘구전 이야기(Halk Hikayesi)’는 튀르키예 구비 문학으로서 15세기 말~16세기 초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아시옥 문학(Aşık Edebiyatı)’이 출현하는 과정에서 틀을 갖추기 시작한 형식이다. 구전 이야기는 신화, 전래동화, 영웅서사시적 요소를 모두 담고 있다. 영웅서사시가 생겨난 이후 영웅서사시가 미처 담아낼 수 없는 내용을 표현하기 위해 출현한 것으로 추정된다. 구전 이야기를 만들어낸 최초의 저자들이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 구전 시의 구연 전통을 이어온 민중 시인 ‘오잔(Ozan)’들의 구전 시 스타일을 획기적으로 바꿔버린 사즈 시인 ‘아시옥(âşık)’들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오랜 세월 동안 유목과 반유목 생활 방식을 유지하며 살아왔던 투르크 민족들은 이슬람 문화를 수용하면서 정착 생활을 하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투르키스탄과 호라산을 중심으로 헤라트와 메흐메트 2세가 재건한 이스탄불이 문화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었다. 이 시기 예술도 새로운 성향과 유형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화려한 궁전, 마드라사(신학교), 모스크, 텍케(tekke), 수도원(zaviye), 무료 급식소(imarethane), 대상숙소, ‘한’이라 불리는 여관, 목욕탕과 같은 공공 장소를 중심으로 사교와 친목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유흥과 오락이라는 개념도 생겨났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의 변화는 창작 활동에도 반영됐다. 교육, 예배, 놀이와 같은 목적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은 더욱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다. 구전 이야기(Halk Hikayesi)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함께 출현했다.

구전 이야기는 ‘콘텐츠, 이야기꾼, 공간’이라는 세 가지 요소의 결합으로 발전했다. 사즈 연주와 노래를 부르며 유랑하는 아시옥들은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과 청중을 필요로 했다. 반유목민 생활 환경을 담고 있던 서사시도 정착 생활로 넘어가자 내용과 형식의 변화를 필요로 했다. 이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반영한 장르로 등장한 것이 구전 이야기다. 투르크인들의 대표 구전 명작인 『현자 코르크트의 서(書)(Dede Korkut Hikayeleri)』는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하는 교훈적인 내용이 많다. 전통을 버리지 말고 잘 계승하라고 조언한다. 그리고 서

사시와 소설 형식이 가장 잘 어우러진 전형적인 예이다. 유목민 투르크 민족들이 이슬람을 수용하기 이전의 문화, 신앙, 생활 양식을 볼 수 있다. 영웅의 비범함이 부각되던 영웅서사시의 시대는 끝이 났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기에 이 작품에서 영웅들은 더욱 현실적으로 그려진다. 이런 과도기적 분위기 속에 나타난 장르가 바로 구전 이야기이다.

구전 이야기에는 영웅서사시 전통이 남아 있다. 예를 들면, 이야기꾼이 이야기를 구연하는 데 멜로디를 첨가했다. 소리와 배역에 맞는 제스처 등 모방도 중요한 요소이다. 구연 시간도 단 몇 시간일 수도 있고, 밤을 지새울 정도로 긴 시간일 수도 있다. 청중과 이야기꾼 관계 역시 서사시의 전통과 같다. 전문적인 이야기꾼이 구연한다는 점, 청중은 대부분 남자와 어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등이 모든 면이 서사시와 구전 서사시의 공통적인 특징이다.

구전 이야기 발전 과정에서는 아시옥(âşık)의 역할이 중요했다. 비교적 최근에 채집·기록된 구전 이야기는 창작자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있지만, 오랫동안 구전으로만 전해지다 보니 초기 창작자를 알 수 없는 작자 미상의 구전 이야기들도 존재한다. 지역마다 그 내용도 조금씩 다르다.

예를 들면 키프오올루(Köroğlu)와 관련된 이야기는 다른 버전이 70여편이 넘는다. 운문과 산문이 혼합된 구전 이야기는 형식적 특성에 따라 종류가 나누어진다. 이야기에 시(詩)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카라 히카예(kara hikaye)’, 이야기에 시가 있으면 ‘세르큐쉬테(serküşte)’로 불린다.

투르크 민족의 구비문학은 고대부터 지식인과 민중, 다른 표현으로 특권층과 서민 사이에서의 갈등을 주요 주제로 다루고 있다. 튀르키예 구전 이야기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비범한 인물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주인공의 이러한 특징은 오잔이나 아시옥 문학 전통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고,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어야 하지만 재미를 생각하면 비범한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청중들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위에서 언급한 서로 다른 두 계층의 갈등과 대립을 다루는 전통을 계승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갈등을 지배하는 사람과 지배를 받는 사람, 즉 정치적으로 주도권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들과 그 권력 아래에 굴복을 강요 받는 사람들 간의 투쟁이다. 구전 이야기를 구연하는 이야기꾼은 일상적 문제와 모순을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며 상식적인 차원에서 해결하지 못한다. 상상과 상징적 의미를 사용해 소망을 현실화한다. 『키프오올루』에서 주인공이 파디샤(왕)를 굴복시키

거나, 켈오을란(Keloğlan)이 술탄의 딸을 피어내는 것이 그 예이다.

구전 이야기는 16세기에서 19세기 말까지 추쿠로바와 아나톨리아 동쪽에 더 많이 퍼졌다.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게 많이 볼 수 없다. 대체로 이야기가 기록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부터이다.

1950년대부터 튀르키예에서는 시골에서 도시로 이주가 시작되어 생활 방식이 바뀌자 구전 전통도 사라지기 시작했고, 구전 이야기의 창작자이자 구연자인 아시옥들도 자신의 일을 포기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1950년대 이후부터는 내용을 일부 변형하거나 축소하고 짧은 분량이라도 일상이나 과거 전통을 소재로 한 창작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것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LP, 카세트, CD에 복사하여 새로운 환경에서 보존하려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아시옥 뮈다미(Aşık Müdami), 아시옥 메으뤿 이흐사니(Aşık Mevlüt İhsani), 야샤르 레이하니(Yaşar Reyhani), 아시옥 무라트 초반오을루(Aşık Murat Çobanoğlu), 쉐레프 타쉬르오와(Şeref Taşlıova), 라친 알라다을르(Laçin Aladağlı)와 같은 이야기꾼 명인들이 자신에 대한 이야기나 자신의 작품을 단편 영화로 제작하기도 했다.

구전 이야기의 전통은 현대에 들어서 새롭게 소설 장르로 재탄생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야샤르 케말(Yaşar Kemal)은 쾨르오을루(Köroğlu), 카라자오을란(Karacaoğlan)과 다마스슴(Alageyik)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각색했다. 위미트 카프탄즈오을루도 이 작품들을 라디오 드라마로 재탄생 시키기도 했는데, 이를 통해 콘텐츠의 저력을 보여주었다. 파키르 바이쿠르트의 『아슬르와 케렘(Aslı ile Kerem, 1964)』, 탈립 아파이든의 『페르하트와 쉬린(Ferhat ile Şirin, 1965)』, 페리트 윈교렌의 그림책 『타히르와 쥐흐레(Tahir İle Zühre, 2003)』, 아드난 요즈얄츠네르의 『아시옥 가리프와 샤 사넴(Aşık Garip ile Şah Sanem, 2006)』, 쉐누르 세제르의 『샤흐마란(Shahmaran, 2006)』, 레픽 우르바쉬의 『쾨르오을루(Köroğlu, 2007)』, 페리운 안다취의 『페르하트와 쉬린(Ferhat ile Şirin, 2007)』은 구전 이야기가 현대적인 문학 작품으로 재탄생한 대표적 사례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할크 히카예시, 민간전승 이야기

● 다국어 표기 Halk Hikayesi(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코로글루, 야샤르 케말

● 참고문헌(오프라인) Boratav Pertev Naili, *Halk Hikayeleri ve Halk Hikayeciliği*, Milli Eğitim Basımevi, Ankara 1946.

Boratav Pertev Naili, *100 Soruda Türk Halk Edebiyatı*, 2. Baskı, GerçekYayınevi, İstanbul 1973.

Kaftancıoğlu Ümit, *Köroğlu Kolları-Halk Destanları*, Büyük Dağıtım Yayınevi, İstanbul 1974.

Kaya Doğan, *Türk Halk Edebiyatı Terimleri Sözlüğü*, Akçağ Yayınları, Ankara 2007.

Öztürk İsa (yayına hazırlayan), *Kerem ile Aslı*, Türkiye İş Bankası Yayınları, İstanbul 2006.

Turan Metin, *Köroğlu*, Bolu Valiliği Yayınları, Ankara 2013.

I A062 | 굴람르자 새브리 태브리지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이란, 아제르바이잔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Vaqif Sultanlı)
- 라틴 문자 Gholam-Reza Sabri Tabrizi

아제르바이잔 디아스포라 문학의 저명한 작가 중 한 명인 굴람르자 새브리 태브리지(Qulamrza Səbri Təbrizi)는 1934년 3월 21일 남아제르바이잔(현재는 이란에 속함) 고대 도시인 태브리즈(Təbriz şəhəri)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중등 교육을 받았다. 1953년~1958년에 태브리즈 대학교(Təbriz Universiteti) 영문과 및 페르시아 문학과에서 수학했다. 대학 졸업 후 미군 통역관으로 일했고, 그 후 한동안 고등학교 교사로 일했다. 1960년에 튀르키예로 가서 이스탄불 대학교(İstanbul Universiteti)에서 박사 논문(dissertant)을 준비했으나, 1960년 튀르키예에서 쿠데타가 일어나자 이란으로 돌아왔다. 이후 태브리즈에 몇 달 동안 머물다 영국으로 이민 갔다. 1963년 에든버러 대학교(Edinburq Universiteti)에 박사 과정으로 입학한 굴람르자 새브리 태브리지는 「윌리엄 블레이크의 방언적 사고와 사회적 견해(Vilyam Bleykin dialektik fikri, sosial görüşləri)」라는 제목으로 박사 학위 논문을 썼다. 이 논문은 1973년 런던과 뉴욕에서 『윌리엄 블레이크의 지옥과 천국(Vilyam Bleykin cəhənnəmi və cənnəti)』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됐다. 굴람르자 새브리 태브리지는 『이란: 한 아이의 이야기, 한 어른의 경험(İran: bir uşağın hekayəsi, bir böyüyün təcrübəsi)』이라는 학술서적을 집필했는데, 이 책은 남아제르바이잔의 역사, 문학, 문화, 전통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의 작품 세계에서 시는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그는 작품들을 영어와 아제르바이잔 투르크어로 썼다. 그는 1993년부터 바쿠에서 『조국에 대한 그리움(Vətən həsrəti)』, 『나의 두 세계(Mənim iki dünyam)』, 『생각의 파도들(Fikir dalğaları)』, 『삶의 철학(Həyat fəlsəfəsi)』, 『견해들, 생각들, 꿈들(Baxışlar, düşüncələr, arzular)』, 『꺼지지 않는 불(Sönməz ocaq)』, 『희망의 불(Ümid ɔrağı)』, 『시선집(Seçmə şeirlər)』, 『타국 신음(Qürbət harayı)』, 『후다패린(Xudafərin)』 등 다양한 책들을 출판했다. 이 책들에는 그의 시와 인터뷰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이외에도 굴람르자 새브리 태브리지는 아제르바이잔, 이란 등 동양의 위인 아부 라이한 알 비루니(Əl-Biruni Əbu Reyhan Muhəmməd ibn Əhməd), 오마르 하이얌(Ömər Xəyyam), 니자미 갠재비(Nizami Gəncəvi), 세이흐 마흐무드 새뷔스타리(Şeyx Mahmud Şəbüstəri), 세이흐 재말렛딘 애프가니(Şeyx Cəmaləddin Əfqani), 매햄매드 이발(Məhəmməd İqbal), 미르재 엘리 뫼쥬즈(Mirzə Əli Möcüz), 이래즈 미르재(Irəc Mirzə), 미르재 엘라크베르 사비르(Mirzə Ələkbər Sabir), 굴람히세인 새이디(Qulamhüseyn Səidi), 매햄매드히세인 새히리야르(Məhəmmədhiüseyn Şəhriyar), 새매드 배흐랭기(Səməd Behrəngi) 등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했다.

굴람르자 새브리 태브리지는 학술활동 외에도 언론 분야에 종사했는데, 오랫동안 BBC에서 정치 기자로 활약했다. 그는 공적 활동에도 참여해서 세계 아제르바이잔인 교류 협회(Dünya Azərbaycanlıları Əlaqələndirmə Şurası) 부의장, 세계 아제르바이잔인 총회(Dünya Azərbaycanlıları Konqresi) 의장을 역임했다. 그는 2003년 투르크 국가 문학 공로자로서 KİBATEK(키프로스 발칸-유라시아 튀르키예 문학회) 상을 수상했다. 굴람르자 새브리 태브리지는 2020년 5월 8일 바쿠에서 사망했고 메히디아바드 묘지(Mehdiabad qəbiristanlığı)에 묻혔다. 그의 학술 저서와 문학 작품들은 세계 여러 언어로 번역됐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굴람르자 세브리 태브리지, 굴람르자 사브리 타브리즈
- **다국어 표기** تبریزی صبر غلامرضا (페르시아어), Gulamrza Sebrı Tebrizi (튀르키예어), Гуламрза Сабри Табризи (러시아어), Gulamrza Sabri Tabrizi (투르크멘어), Гуламрза Сабри Табризи (타타르어), Гуламрза Сабри Табризи (키르기스어), Гуламрза Сабри Табризи (카자흐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han.gl/zxHtlK>

- 참고문헌(오프라인) Əhmədov Teymur, *Azərbaycan Yazıçıları XX-XXI Yüzlilliklərdə: Ensiklopedik Məlumat Kitabı*, Bakı: «Nurlar» nəşriyyatı, 2011.
- İsgəndərzadə Elçin, *Şairin Qürbət Harayı*, Bakı: «Vektor» nəşriyyatı, 2004.
- Mənsimoğlu Teyyub, *Qulamrza Səbri Təbrizi*, Bakı: Şirvanəşr, 2002.
- Nəbioğlu Sabir, *Əsrin Övladı*, Bakı: «Folklore» nəşriyyatı, 2004, 144 s.
- Nəbioğlu Sabir, *Təbrizdən Başlanan Dünya*, Bakı: Azərənəşr, 2010.
- Sultanlı Vəgif, *Ömrün Nicat Sahili*, Bakı: “Turan” nəşriyyatı, 2004.
- Sultanlı Vəgif, *Ruhun Ağrıları*, İstanbul: Avrupa Yakası Yayınları, 2010.

I A063 | 굴렘 자파리이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음악 ● 유형 소분류2 학자
- 집필자 오은경, Guzal Mihrayeva ● 라틴 문자 G'ulom Zafariy

극작가이자 전통 음악 연구자인 굴렘 자파리이는 1889년에 타슈켄트의 베쉬여고츠(Beshyog'och) 캣타보그(Kattabog') 마할라에서 태어났다. 우즈베크식 초등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그 후 코칼더쉬(Ko'kaldosh) 마드라사에서 공부했다. 굴렘 자파리이는 1912년부터 1924년까지 오쉬(O'sh)에서 교사로 재직했고, 1914년부터 타슈켄트의 투런(Turon) 극단에서 활동했다. 1917년에는 잡지 <노동자들의 세계(Ishchilar dunyosi)>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굴렘 자파리이의 창작 활동은 1914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다수의 시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1914년에는 단막극 『불행한 제자(Baxtsiz shogird)』를 집필했다. 이후 『봄(Bahor)』, 『구나프샤(Gunafsha)』, 『방해(To'sqinchilik)』, 『요르킨너이(Yorqinoy)』, 『자비로운 선생님(Rahmli o'qituvchi)』, 『묘지에서(Mozorlikda)』, 『칭송받는 자(Maqtangan kishi)』, 『타팀버이 어타(Tatimboy ota)』와 같은 연극 극본과 『출편 테미르(Cho'pon Temir)』, 『더 이상 젊음은 없다(Yoshlar endi berilmas)』 등과 같은 서사시(doston)를 집필했다.

또한, 그는 우즈베크 최초의 뮤지컬 『할리마(Halima)』의 극본을 쓰기도 했다. 1920년에 집필한 이 작품은 투런 극장에서 같은 해 9월 14일 상연되었다. 당시 유명 음악가였던 쇼라힘 쇼우마로프(Shorahim Shoumarov)와 무라 토이치 허피즈(Mulla To'ychi hofiz)의 도움을 받아 작

가가 직접 편곡을 맡기도 했다.

굴럼 자파리이는 마컴과 같은 우즈베키스탄 전통 음악에도 조예가 깊어 『동양음악과 악기 (Sharq musiqalari va cholg'ulari)』, 『음악 문제(Musiqa muammosi)』, 『우즈베크 음악에 대하여(O'zbek musiqasi to'g'risida)』와 같은 글을 집필하기도 했다. 또한, 그는 민족 음악에 관심을 갖고 동료들과 함께 민속 음악 유산을 수집하고 연구 시스템의 기반을 만들었다.

1923년~1924년 『부하라 샹쉬마컴(Buxoro Shashmaqom)』, 『타슈켄트-페르가나 마컴 (Toshkent-Farg'ona maqom)』을 최초로 음표로 기록하기도 했다. 동료 엘벡(Elbek)과 페르가나 지역에서 음악 발굴을 한 결과를 바탕으로 최초로 민속 음악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모음집인 『민요집(Ashulalar)』을 출간했다.

굴럼 자파리이는 1933년 5월 21일 '반혁명적 민족주의 활동'을 했다는 죄명으로 3년 동안 서부 시베리아에서 유형(流刑) 생활을 했다. 귀국 후 그는 1937년 10월 28일 두 번째로 체포되어 1937년 12월 4일 총살형을 선고받고 사망했다. 사후 1957년 복권(復權)되어 무죄를 선고받았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굴룸 자파리이, 굴람 자파리
- 다국어 표기 G'ulom Zafariy(우즈베크어), Гулам Зафарӣ(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마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ziyouz.uz/wp-content/uploads/2013/06/gulom-zafariy.jpg>
- 참고문헌(온라인) <https://n.ziyouz.com/portal-haqida/xarita/o-zbek-ziyolilari/g-ulom-zafariy-1889-1938>
- 참고문헌(오프라인) Aminov va boshqalar. 2000-2005. O'zbekiston milliy ensiklopediyasi. Toshkent: O'zME Davlat ilmiy nashriyoti.
- S. Mirvaliyev. 2016. O'zbek adiblari, Toshkent: G'afur G'ulom nomidagi adabiyot va san'at nashriyoti.

I A064 | 굴루

● 시기 A.D. 1000년~A.D. 15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이슬람 ● 유형 소분류2 사상
● 집필자 이주연 ● 라틴 문자 Ghuluww

굴루는 극단론자, 특히 이슬람 시아파에서 과장된 사상과 입장을 가진 개인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이슬람 시아파의 다수를 점하는 12대 이맘파에서 시아의 다른 종파 중에 후대로 갈수록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 시아 종파, 즉 자이디(Zaydis)와 7대 이스마일(Ismaili) 및 12대 이맘파 외의 모든 소수 시아 종파를 총칭하는 단어로 의미가 확대되었다.

원래는 이 ‘극단론자’의 범주에 들어가는 종파의 사상적 경향은 시아파의 주류가 지향하는 바와 확연히 구분되는 사상적 특징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상적 특징이 이후의 시아 및 수니의 사상에 큰 영향을 미쳐, 후대의 시아 주류 사상들은 초창기의 ‘굴루’ 사상에 가장 핵심적인 이론을 빚지고 있다. 그 이론은 곧 ‘이맘’의 지위에 관한 것인데, 이 극단론자들은 이맘의 지위를 다소 과한, 성스러운 단계로 격상시켰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맘에 대한 극단적인 추종이 곧 인간인 이맘에 대한 과도한 인식으로 발전했고, 이맘이라는 존재는 곧 성스러운 본질이 인간의 몸에서 발현된 화신과 같은 존재라고 여기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 극단론자들은 첫 번째 이맘인 알리 이븐 아부탈립과 다른 이맘들이 신의 현시라 보았고, 그들의 신체는 단순히 썩어 없어질 육신이 아니라 일종의 환영이라 주장했다. 더 나아가 신의 현시인 알리가 예언자 무함마드를 파견한 존재로까지 여기기도 했다.

이 극단론자들은 코란의 텍스트를 우화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과, 윤회에 대한 믿음 등으로 인해 주류 시아파에 의해 배척되었다. 특히 코란에 대한 그들의 입장은 더 나아가 이슬람법인 샤리아와 피크흐에 대한 거부와 도덕 폐기적 입장으로 나아가기도 했다. 처음으로 이맘 알리를 우상화한 이단으로 비판받은 자는 정통 칼리프 우스만 시대에 개종한 아랍 히마르 부족 출신의 압둘라 이븐 사바로, 그는 알리가 죽기도 전에 그가 신임을 주장했다. 이에 알리가 그를 자신의 세력권으로 오지 못하게 금지했을 정도였다. 알리가 사망한 후 그는 알리의 외형에 있는 악마가 살해되었을 뿐 알리는 하늘로 승천했으며, 언젠가 돌아올 것이라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당시에 과도한 것, 이단적인 것으로 여겨졌으나, 그의 주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12대 이맘파와 같은



라마단 기간에 코란을 읽는 이슬람 신자들

후대의 정립된 주류 시아파의 이론과 유사하다. 즉, 세상에서 숨은 마흐디와, 그가 언젠가 재림하여 세상에 정의를 세울 것이라는 이론은 이 극단론자들에게서 처음으로 나타난 관념이었다.

한편 초창기에 ‘극단론자’로 분류되었던 이들 중에는 알리의 권리를 빼앗았다는 이유로 다른 정통 칼리프인 아부바크르나 우마르 등을 찬탈자로 여긴다든가, 진정한 이맘은 어떠한 잘못에서도 신성하게 보호받는다는 신성성을 강조하는 이들도 있었다. 이들은 주로 알리의 지위에 관심을 가졌고, 예언자 무함마드와 버금가는 지위로 격상하기 위한 이론을 폈다. 이런 주장들의 이면에는 세상에 없는 예언자 대신에 그의 지위를 계속 이어갈 만한 정의로운 인간 지도자에 대한 기대가 있다고 마셜 호지슨은 평가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슬람 이전의 아라비아반도의 사상적 특징도 반영되어 있다고 한다. 예를 들면 이 ‘극단론자’ 집단 중에 하나인 무흐타르(Mukhtâr)가 행하는 점괘라든가 알리의 재림에 관한 믿음은 옛 아라비아의 관념에서 비롯된 것이다. 훗날 이슬람의 영역이 점차 비아랍권으로 확대되고, 이슬람권 내에 여러 타종교에서 개

종한 이들이 포함되면서 이들은 본래 자신의 옛 종교적 이론을 끌어와 이슬람의 교리에 반영했고, 결국 이슬람에도 다소 이단적으로 보이는 새로운 교리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슬람의 2세기부터 이 ‘극단론자’들은 점차 기성 칼리프 조의 영향력을 벗어나 독자적인 정치적 활동을 행하기 시작했다. 특히 시간이 지나고 알리의 후손들이 계속 자손에서 자손으로 이어지면서, 이들 중에 진정한 이مام을 가려내는 계보의 구축이 이 극단론자들에게 중요한 과제가 되었고, 이 역시 훗날 12대 이맘파나 7대 이맘파 등 주류 시아파에서 답습하는 이론이 되었다. 이슬람 3세기에 이 ‘극단론자’들은 코란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Batini 체제를 발전시켰다. 이는 당시에 번역 운동을 통해 이슬람권으로 유입된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어떤 철학자의 의견을 수용했는가에 따라 주장이 조금씩 달라지기도 했다. 이 극단론자들의 이론은 당시 주류 시아파, 수니파에 의해 극단적이라 비판받았으나, 결국은 이후 주류 시아파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대신 신의 유일성과 타협할 수 있는 것들만 받아들여졌다. 또한 그들의 과감하고 때로는 선을 넘는, 상징적인 이론들은 수피즘의 다양한 이론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굴뤼브, 굴루우
- 다국어 표기 Gulüv(튀르키예어), غلاة(아랍어), غلات(페르시아어), عالی(아랍어와 페르시아어는 단수의 경우)
- 참고문헌(온라인) <https://iranicaonline.org/articles/golat>
- 참고문헌(오프라인) Hodgson, M. G. S., “GHULĀT”. Encyclopaedia of Islam 2 (2nd ed.), Brill, 1991, pp. 1093-1095.

I A065 | 굴리 비이

● 시기 기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이슬람 ● 유형 소분류2 인물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Gulii-bii

우즈베키스탄 호라즘 지역 헨카(Xonqa) 마을에 성(聖) 굴리 비이(Gulii-bii)의 무덤이 있다. 굴리 비이는 ‘꽃의 여주인’이라는 의미이다. 굴리 비이가 정확히 누구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지역에 전해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이 지역에 이슬람을 전하러 왔던 초기 선교사의 잊힌 무덤을 발견한 매우 독실한 여성이라고 한다.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특히 널리 퍼진 성인 숭배 사상 중 여성의 수는 적은 편이며 수피 공동체의 여성 지도자나 종교 시설 후원자 여성들이 성인으로 존중되거나, 고대의 다산, 초목, 물의 여신 숭배 사상이 이슬람의 전파 이후 여성 성인으로 전환되어 숭배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굴리 비이 숭배 역시 고대의 여신 숭배와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른 여성 성인의 영묘에서처럼, 굴리 비이 영묘는 오로지 여성만이 방문할 수 있다. 여성들은 이 무덤을 지키고 병의 치유를 기원하는 기도를 올린다. 무덤을 참배하는 여성들은 성스러운 나무를 세 바퀴 돌고 제물을 바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굴리비

● 다국어 표기 Gulii-bii(우즈베크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Malikov, Azim. “Islam: Saints and Sacred Geographies–Central Asia”, Encyclopedia of women & Islamic cultures VOLUME V (ed. Suad Joseph), Leiden: Brill, 2007, pp.223~224.

I A066 | 굴바단 베굼

● 시기 A.D. 1500년 ~ A.D. 1800년 ● 지역 기타 ● 나라 인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Gulbadan Begum

굴바단 베굼(Gulbadan Begum)은 1523년 호라산 카불에서 태어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아버지는 바부르 조(Babur, 우즈베크어 표기: Boubur, 버부르)를 수립한 군주 버부르(Zahiriddin Muhammad Bobur, 재위: 1526년~1530년), 어머니는 달다르 베굼(Dildar Begum)이다. 굴바단 베굼은 버부르 샤의 첫 번째 아내인 모힘 베굼(Moxim begum) 밑에서 성장했으며 1529년 아버지와 함께 아그라로 가게 된다. 여기서도 모힘 베굼으로부터 교육을 받게 된다. 1540년까지 인도에서 머물지만 이복 오빠인 후머윤(Humoyun, 재위: 1555년~1556년)이 수르 왕조의 세

르 샤(Sher Shah, 재위: 1438년~1545년)와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이로 인해 굴바단 베굼은 다른 여자 가족들과 함께 카불로 돌아오게 된다. 1545년 후머운 역시 카불로 돌아온다. 후머운은 1555년 셰르 샤가 피살된 틈을 타 인도를 재정복하지만, 1556년 사망했다. 1557년, 굴바단 베굼은 조카 악바르(Akbar, 재위: 1556년~1605년)가 통치하고 있던 인도 무굴 왕궁으로 가게 된다. 그곳에서 궁정의 티무르 조 공주로 존경을 받았다. 굴바단 베굼은 1574년 성지 순례를 떠났는데, 일설에 의하면 성지 순례를 떠나는 여성들의 지도자로 나설 때 악바르는 고모에게 존경을 표하기 위하여 수염과 머리카락을 깎고 아그라에서 아즈미르까지 240km에 달하는 거리를 걸어 배웅했다고 한다. 굴바단 베굼은 성지 순례 후 히자즈에 3년간 머물렀고 곧 돌아오려 했지만, 아덴에서 선박 사고를 당해 그곳에서 1년간 머물다 1582년에야 인도로 돌아오게 된다. 이때에도 악바르 왕은 고모를 직접 마중 나갔다고 한다. 굴바단 베굼은 1603년 아그라에서 사망했는데, 장례식에서도 악바르 왕은 고모의 관을 들고 묘지까지 갔다고 한다.

굴바단 베굼은 고종 사촌 흐즈르 카자 칸(Khizr Khwaja Khan)과 17세의 나이에 결혼했으며 슬하에는 아들 하나를 두었다. 굴바단은 투르크어와 페르시아어에 능숙했으며 서예와 건축에 재능이 있었다. 그녀가 조카 악바르의 요청으로 작성한 『후머운나마(Humayunnama)』에는 버부르의 말년과 후머운 시기에 관한 정치적, 군사적 사건들과 궁전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비롯하여 왕족과 하렘의 생활 등 사회 경제, 역사적 관점에서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어 당대의 생활상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후머운나마』 이외에도 페르시아어와 투르크어로 시를 썼다고 하지만, 현재까지 전해 내려오는 작품은 없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굴베덴 베굼, 굴베덴 배굼

● 다국어 표기 Gülbeden Begüm(튀르키예어), Gulbadan Begum(우즈베크어), Gulbadan Begum(영어), Gülbədən bəyim(아제르바이잔어)

● 연관 검색어 후머운나마, 버부르

● 참고문헌(오프라인) Хумоюннома. Т., «Фан», 1959.

P.Годен. Гулбадан. Т., «Шарк», 2007.

Ansari, A. S. Bazmee. "GÜLBEDEN BEGÜM", TDV İslâm Ansiklopedisi, cilt 14, İstanbul: 1996, p.235.

I A067 | 굴체흐라 누룰라예바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Guzal Mihrayeva ● 라틴 문자 Gulchehra Nurullayeva

굴체흐라 누룰라예바(Gulchehra Nurullayeva)는 우즈베크 민족 문학의 발전에 기여한 여성 문학인 중 하나이다. 그녀는 1938년 타슈켄트 주의 처쉬테파(Choshtepa) 마을에서 태어났는데, 그녀의 아버지는 가난하고 생계를 겨우 유지하고 있었으며, 어머니는 가정주부였다.

굴체흐라 누룰라예바는 1946년부터 1956년까지 초중고등학교를 다녔으며 금메달을 받고 학교를 졸업했다. 1956년~1961년에 그녀는 타슈켄트 국립 대학의 언론학과에 재학했으며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 그녀는 졸업 후 잡지 <우즈베키스탄의 여성(O'zbekiston xotin-qizlari. 현재의 잡지 사어닷(Saodat))>에서 1967년까지 근무했다. 1967년에는 모스크바에서 2년제 고등 문학 과정에 입학해서 이를 마쳤으며, 우즈베키스탄 작가 연합에 가입했다.

1965년에 첫 시집 『태양의 미소(Quyosh tabassumi)』를 출간했다. 굴체흐라 누룰라예바는 소비에트 연방 시기 국가 상을 받는 등 인정을 받은 시인이었는데, 독립 이후 발표한 자서전에서 그녀는 “오늘 날짜로 이전에 썼던 모든 작품은 없던 것으로 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그녀는 “우즈베키스탄이 식민지였고, 나 자신도 노예로 살았다는 사실을 그동안 알지 못했다. 우리는 과거 외부 세계와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제국의 이데올로기가 우리의 마음과 의식 모든 면에 깊이 새겨졌다. 그것도 모르고 나는 피오니르, 콤포몰 그리고 공산당의 일원이 되었다. 나는 우리 민족이 파르켄트(Parkent)에서 공산당 조직원의 총에 맞아 희생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바로 다음 날, 당과 당원의 권리를 버렸다. 1991년 10월에 열린 작가 대회에서도 ‘내가 수상한 레닌 콤포몰 상과 명예훈장을 포기하고 반납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시 창작을 멈추지 않았다. 『내 꿈이 날아간다(Orzularim qoqadi qanot, 1969)』, 『목마르다(Tashnaman, 1972)』, 『두 번째 봄(Ikkinchi bahor, 1973)』, 『서정시(Lirika, 1975년)』, 『날아가라 나의 꿈(Leti, moya mechta, 1975)』, 『바침(Bag'ishlov, 1977)』, 『목화의 향(Paxta hidi, 1977)』, 『빛나는 점들(Nurli nuqtalar, 1985)』, 『사랑의 이미지(Muhabbatning suvrati, 1988년)』와 같은 시집을 꾸준히 출간했다. 수록된 시는 용감하면서 뜨거운 숨결과 호

소력, 성실하면서도 반항적인 정신을 담아 독자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정치와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 때문에 굴체흐라 누룰라예바는 1990년대에 작가 연합에서 제명되었다. 그러나 2018년 11월 우즈베키스탄 작가 연합에 재가입되었다.

2019년 5월 9일 우즈베키스탄 사회지원기금 누리니이(Nuroni)는 그에게 '명예 노동자'라는 메달을 수여했다. 굴체흐라 누룰라예바는 2021년 1월 16일 타슈켄트에서 사망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굴체흐라 누룰라예바, 굴체라 누룰라예바
- 다국어 표기 Gulchehra Nurullayeva(우즈베크어), Гулчехра Нуруллаева(러시아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han.gl/LsnAWY>
- 참고문헌(온라인) <https://ziyouz.uz/ozbek-sheriyati/ozbek-zamonaviy-sheriyati/gulchehra-nurullaeva/>
- 참고문헌(오프라인) Sobir Mirvaliyev. 1993. O'zbek adiblari, Toshkent: Fan.
Gulchehra Nurullaeva. 1986. Nurli nuqtalar. Toshkent: Gofur Gulom nomidagi Adabiyot va san'at nashriyoti.

I A068 | 궁정학교

- 시기 A.D. 10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기관 ● 유형 소분류2 교육기관
- 집필자 이은정 ● 라틴 문자 Palace school

오스만 제국의 궁정학교는 고위 행정 관료와 군 장교들을 길러내기 위해 수도에 있는 술탄의 왕궁에 마련된 학교였다. 이는 이전에 튀르크 국가들이나 무슬림 국가들에서 예를 찾아 볼 수 없는 독특한 기관으로, 오스만 제국 안에서는 이슬람 학문을 주로 가르치는 마드라사와 더불어 교육 기관으로 쌍벽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궁정학교의 시작은 무라드 2세 당시 에디르네에서 최초로 설립되었다는 설과 메흐메트 2세의 재위 기간에 이스탄불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졌다는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오스만 사학계에서는 무라드 2세 당시 처음 만들어지고 메흐메트 2세 당시에 본격적으로 기틀이 잡힌 것으로 보는 절충적인 관점이 지배적이다.

데브시르메로 선발된 소년들은 다시 튀르크인 농민 가정에 맡겨져서 튀르크어와 기본 종교

소양을 갖추고 난 뒤 이스탄불과 에디르네에서 심신의 훈련을 받는 아제미 올란(훈련병)이 되었고 이들 중에서 최상위에 속하는 소년들이 궁 안에 시종(이치 올란)으로 들어가서 궁정학교의 교육을 받았다. 궁정학교는 톱카프 궁의 밥 으 사아데 안쪽의 여러 부분에 나뉘어 존재했다. 이들의 생활 공간은 막사같이 시종 8명~10명이 한 명의 백인 환관에 의해 관리되고 숙식을 같이 하는 형태였다. 처음 들어온 소년들은 15세 안팎의 나이였고, 이들은 7개 단계의 업무 학습실을 거치며 훈련을 받았다. 첫 두 단계(Büyük ve Küçük Odalar)에서 시종들은 이슬람교와 이슬람 문화, 투르크어, 아랍어, 페르시아어를 배우고, 씨름, 승마, 달리기, 활쏘기 같은 신체 교육도 받았다. 3번째 단계는 매 사냥꾼의 막사(Doğancı Koğuşu)인데 이 3개 단위는 메흐메트 4세(재위: 1648년~1687년) 당시에 폐지되었다. 4번째 단계는 원정 동반자들의 막사(Seferli Koğuşu)였는데, 이들은 세탁을 담당했고 음악 연주, 씨름, 이발 등의 기예 훈련을 받았고, 이 단위에 궁정의 병어리와 난장이들(dilsiz ve cüceleri)도 같이 있었다. 5번째 단계는 취사 담당자들의 막사(Kilerci Koğuşu)였고, 이들은 궁 안의 모든 음식의 취사를 책임졌다. 6번째 단계는 재무 담당자의 막사(Hazine Koğuşu)였고, 이들은 궁의 일을 맡아서 하는 2,000명 이상의 수공업자들을 관리하고, 궁에 속하는 모든 보물과 귀중품을 관리하는 역할을 했다. 7번째의 최고 단계는 비서실(Has Oda)인데, 이는 성물실의 관리와 청소, 종교 행사의 주관, 술탄을 모시는 업무들을 담당했다.

이 모든 단계를 다 거치는 사람은 가장 우수한 소수뿐이었고, 대부분 중간에 궁정 밖의 부대로 임관되었다. 임관될 때에는 하렘의 여성과 결혼하여 나가게 되었다. 궁정학교는 대단히 엄한 규율을 유지했고, 작은 잘못도 처벌을 받았다. 처벌은 회초리, 잠 안 재우기, 굶기기 등이 있었다. 교육의 목표는 문무를 겸비한 군 장교 겸 행정관으로서의 훈련이었고, 술탄에의 충성심 함양이 이곳 교육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다. 제국 최고위의 행정과 군사 행동의 결정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았고 궁에서 시종들이 관찰하게 되는 대재상 등의 최고위 관료와 군 지휘관들이 이들의 궁정학교 선배였다는 점은 고된 훈련을 마치고 나서 큰 출세를 할 수 있다는 증거이었다. 궁정학교는 17세기부터는 정실 및 무자격자의 입소 같은 부조리가 나타나게 되었고 중요성이 점점 감소하게 되었으나 19세기 초까지는 중심적 역할을 어느 정도 유지했다. 19세기 중엽부터는 신식 학교 출신들이 관료계에 대거 진출하게 되어 중요성을 상실했고, 1909년 두 번째 헌법이 공포되면서 폐지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엔데룬
- 다국어 표기 Enderun(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마드라사, 에디르네, 메드레세
- 참고문헌(오프라인) Mehmet İpşirli, “Enderun,” TDV İslam Ansiklopedisi, Vol. 11 1995 pp.185~187.
Mustafa Kaçar, “Palace School (Enderun i Hümayun Mektebi),” Gábor Ágoston and Bruce Masters, eds., The Encyclopedia of the Ottoman Empire, Facts on File 2008 p. 452.

I A069 | 권능의 밤

- 시기 기타 ● 지역 기타 ● 나라 기타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이슬람 ● 유형 소분류2 명절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Qadr Night

‘권능의 밤’ 또는 ‘거룩한 밤’은 이슬람교에서 코란이 예언자 무함마드의 영혼 속으로 내려왔다고 믿어지는 성스러운 밤을 의미한다. 아랍어로는 ‘라일랏 알 카드르(Laylat al- Qadr/ليلة القدر)’로, 여기서 카드르는 ‘지배, 명예, 권력, 위엄’ 등을 뜻한다. 코란 97장에서 이 밤이 다른 천 개월의 밤보다 좋다고 말하고 있다. 이날 밤, 천사 지브릴(가브리엘)이 처음으로 예언자에게 말을 걸었고, 코란이 계시가 되었으며 하나님에 대한 사명을 시작했다.

이슬람교에서 이 밤은 예언자들을 통해 인류에게 내린 유일신(알라)의 마지막 말씀이자 메시지를 내려주며 인류를 인도할 전환점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코란에 의하면 이 날은 라마단 달에 있다고 추정할 수 있으나, 정확한 일자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다. 다만, 하디스와 코란의 다른 구절들을 바탕으로 라마단 달 월말 10일과 라마단 달 27일 밤을 이 밤으로 상정하고 예배를 올린다. 시아파의 경우 23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날 밤의 기도는 과거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믿어 이와 관련된 기도를 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카디르 밤, 카디르 계시, 거룩한 밤, 카드르 밤, 카드르, 라일랏 알 카드르
- 다국어 표기 Qadr gecəsi(아제르바이잔어), Кадр кичәсе(타타르어), Kadir gecesi(튀르키예어), Қадр түні(카자흐

어), Laylatul-qadr(우즈베크어), Laylat al-Qadr(영어)

● 연관 검색어 라마잔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han.gl/LsnAWY>

● 참고문헌(온라인) 김정위, 이슬람 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050914&cid=62098&categoryId=62098>

● 참고문헌(오프라인) Özerverli. M. Sait; Mustafa İsmet Uzun, “Kadir Gecesi”, TDV İslâm Ansiklopedisi cilt 24, İstanbul: TDV, 2001, pp.124~127.

Babinger, F. “Ramadan”, Encyclopaedia of Islam (ed:C.E. Bosworth, E. Van Donzel, W.P. Heinrichs And G. Lecomte) VOLUME 8. Leiden: E.J. Brill. 1995. pp.418~419.

I A070 I 권 아나

● 시기 기타 ● 지역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북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러시아, 튀르키예, 아제르바이잔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신앙 ● 유형 소분류2 신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Gün Ana

권 아나는 투르크어의 태양(Gün/КҮН)과 어머니(Ana/Эне/Ана/Ийэ)가 결합된 형태로 투르크 민속 신앙에서 ‘태양의 여신’을 의미한다. 남성 태양 신(Gün Ata)의 개념 역시 혼재한다. 투르크어가 문법적 성이 있는 언어가 아니기에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았던 경우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

권 아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곳에서는 태양은 여성을 상징하고 달은 남성을 상징한다. 특히 아나톨리아반도의 경우 태양의 여신에 대한 믿음으로 인하여 여아에게 ‘태양(Güneş)’이라는 이름을 주기도 한다. 알타이 투르크인은 하늘(천계)이 17층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믿었고, 이중 최상층에는 모든 신의 아버지가 거주했으며, 권 아나는 메르겐(Mergen)과 함께 7층에 살고 있다. 권 아나는 천계에서 가장 높은 여신이다. 고대 투르크인은 왕과 왕비가 권 아나와 달의 신인 아이 아타(Ay ata)의 자손이라고 믿었으며, 왕과 왕비의 상징으로 삼았다.

태양의 여신의 다른 형태인 쿠이아슈 아나(Kuyaş Ana)는 우랄 바트르(Ural Batur) 또는 우랄 한(Ural Han) 전설에 의하면 천신인 삼라브(Samrav)의 두 아내 중 하나이기도 하다. 권 아나는

일반적으로 따뜻함, 생명, 다산의 여신, 고아들의 수호자였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군 아나, 쿤 아나, 쿤 에네, 쿤 이네, 군 아나
- 다국어 표기 Gün Ana(아제르바이잔어), Күн Әнә(키르기스어), Күн Ана(카자흐어), Күн Ийә(아쿠트어), Gün Ana(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메르겐
- 참고문헌(오프라인) Gökalp, Ziya. Türk Medeniyeti Tarihi II, Istanbul, 1974.
Roux, Jean Paul. Türkler'in ve Moğollar'ın Eski Dini (Çev: Aykut Kazancıgil), Istanbul, 1994.

I A071 | 귤뤼스탄 영묘

- 시기 A.D. 1000년 ~ A.D. 15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아제르바이잔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건축
- 유형 소분류2 영묘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Gülüstan mausoleum

현 아제르바이잔 나흐츠반 공화국 줄파 지방에 위치한 귤뤼스탄 영묘는 13세기에 건설되었다. 당대의 기록에는 케식 군베즈(Kesik Gunbez: 잘린 영묘)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기도 하다. 이 영묘는 아르메니아에 의해 몸체 상단부와 지붕은 파손된 상태였다.

초기 조사 당시 석재로 만들어진 밑받침 위에 붉은 사암으로 된 몸체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코너 컷을 하여 다듬은 정사각형 받침대와 십이각형 몸체 사이에는 무카르나스로 장식된 띠가 둘러져 있다. 조사 당시 영묘의 지붕은 훼손되어 사라진 상태였기에 원형은 전혀 알 수 없으나 당대의 인근 지역 영묘의 형태로 보아 원뿔 형태의 지붕 또는 다각뿔 형태의 지붕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코너 컷이 된 밑받침 내의 상단은 볼트로 이루어져 있으며 내부는 외부와 달리 원통형으로 되어 있다. 이 밑받침 위에 솟아 있는 몸체의 각 면은 기하학 문양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영묘는 아제르바이잔에서는 보기 드문 형태이나 기본적인 형태는 아나톨리아 동부 지역에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1/12/G%C3%BCI%C3%BCstan_t%C3%BCrb%C9%99si_Culfa.jpg

굴루스탄 영묘_복원 전

<http://www.nakhchivan.az/portal-1/tarixi-abide/gulust-turb.gif>

● 참고문헌(온라인) <http://unesco.preslib.az/en/page/fXOcBWbVKZ>

● 참고문헌(오프라인) Aslanapa, Oktay. Türk sanatı, İstanbul: Remzi Kitabevi, 2015.

I A072 | 귤뤼스탄 조약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아제르바이잔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사건 ● 유형 소분류2 조약
● 집필자 오은경 ● 라틴 문자 Güllüstan treaty

귤뤼스탄 조약은 1813년 10월 12일 러시아 제국과 하자르 왕조 사이에 체결된 평화 조약이다. 아제르바이잔의 영토를 러시아와 이란으로 나누어 두 나라가 지배하게 된 이후로 아제르바이잔의 분단이 종식된다. 1804년부터 1813년까지 지속된 제1차 러시아-이란 전쟁이 종결된 후 조약이 체결되었다. 1813년 1월 1일 코틀리 아레브스키 장군이 란카란(Lankaran)을 점령함으로써 상황이 급격하게 진전되었다.

이 협정은 조지아, 다게스탄, 오늘날의 아제르바이잔 공화국과 현재 아르메니아 공화국의 북부 땅을 러시아 제국으로 이전하는 것을 공식화했다.

이 조약의 협정서는 하자르 제국의 대영제국 대표 고어 오슬리(Gore Ousley)가 작성했으며, 이 협정은 러시아의 니콜라이 표도로비치 리트쉴프(Nikolai Fyodorovich Rtischev)와 하자르의 미르자 압둘라 칸(Mirza Abulhasan Khan)에 의해 체결되었다.

이 합의의 결과로 대부분의 남 캅카스는 러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제2차 러시아-이란 전쟁 후 러시아는 남 캅카스를 완전히 점령하여 이란과 튀르크멘차이 조약을 체결했다.

결과적으로 귤뤼스탄 조약과 튀르크멘차이 조약으로 인해 아제르바이잔은 두 부분으로 분단되었으며, 통일의 노력이 있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이 조약이 체결된 역사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 캅카스에서 러시아 제국이 세력을 확장하고 점

차적으로 영토를 점령함에 따라 하자르 왕조에게는 심각한 위협이 되었다. 1801년에 새로 등극한 차르 알렉산더 1세는 외부로 세력을 확장하기를 희망했다. 러시아는 조지아 지역을 공식적으로 합병하여 러시아와의 무제한 여행 및 무역을 허용했고, 토지 수탈을 더욱 강화했다. 파스 알리 샤(Fath Ali Shah)는 샤로 즉위한 이후, 아제르바이잔 영토가 페르시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1801년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더 나은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프랑스와 협력하려 했으나 그 시도는 실패했다. 파스 알리 샤(Fath Ali Shah)는 유럽 국가가 인도에 입국하는 것을 막기 위해 페르시아에 인도-영국군의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는 영국과의 계약을 중개했다. 연합국과 함께 하자르 왕조는 군사적으로 사전 점령된 러시아와의 첫 번째 러시아-이란 전쟁에 들어갔다. 1813년까지 전투가 계속되었으나 결과는 하자르 왕조의 참패로 끝이 났다. 아제르바이잔 남부 지역에서는 이미 군사 작전을 개시한다는 위협이 있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압바스 미르자(Abbas Mirza)는 평화 회담을 맺도록 허용할 수밖에 없었다.

1810년~1811년 오스만 제국과의 전쟁에서 제정 러시아가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캅카스 지역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다. 이후 평화 조약 체결이 더욱 가속화되었다. 1812년 5월 16일에는 제정 러시아와 오스만 제국 사이에 부카레스트 평화 조약(Treaty of Bucharest)이 체결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굴루스탄 조약, 굴루스탄 조약, 굴류스탄 조약

● 다국어 표기 *Gülüstan müqaviləsi*(튀르키예어), *Gulistan Treaty*(영어)

● 연관 검색어 튀르크멘차이 조약, 아제르바이잔, 다게스탄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sfoR0B6SEQk>, 1813-cü il 12 oktyabr ‘Gülüstan’ müqaviləsi. *Faciimizdən keçən 200 il.*

<https://www.youtube.com/watch?v=Ow7U4h7kGQw>, ADPU-nun tələbəsi Aybəniz Bədəlovanın “Gülüstan müqaviləsi” mövsuzunda keçdiyi açıq dərs

<https://www.youtube.com/watch?v=BSrEmOqPnN0>, Azərbaycan tarixi –Gülüstan müqaviləsi

<http://mfa.gov.az/content/809>

● 참고문헌(오프라인) Goltz Thomas, *Azərbaycan Günlüğü*, Teas Press, İstanbul, 2018.

Pashayeva Gulshan, *Trapped between War and Peace: The Case of Nagorno-Karabakh*, Baku, 2018.

Svyatoçovski Tadeuş, *Rusya və Azərbaycan*, Xəzər Universitəsi, Bakı, 2000.

I A073 | 굴뤼스탄의 시(詩)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아제르바이잔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시 ● 유형 소분류2 작품
- 집필자 오은경 ● 라틴 문자 Gülüstan Poeması



굴뤼스탄의 시, 한국어판 표지

『굴뤼스탄의 시(Gülüstan Poeması)』는 20세기 아제르바이잔의 가장 위대한 시인이라고 할 수 있는 베흐티야르 와합자데(Bəxtiyar Vahabzadə)의 작품이다. 그는 수많은 작품을 썼지만 1958년에 쓴 이 「굴뤼스탄의 시」가 가장 대중의 사랑을 받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아제르바이잔의 자유와 독립의 가치와 의미를 고양시키는 내용으로 샤키(Shaki) 지역에서 발행하는 <새키 패흘래시(Şəki fəhləsi)>라는 지역신문에 처음 게재되었다.

이 작품이 아제르바이잔 국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은 것은, 당시 금지된 주제였던 아제르바이잔의 독립을 다루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작품의 문학적 완성도 면에서도 결코 떨어지지 않는 아제르바이잔 문학사에 독보적인 위대한 시로 손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출판이 허가되지 않았던 당시에 이 시는 사람

문학
과
지성
사

들이 수기(手記)로 작성하여 손에서 손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독자층에 퍼졌다.

이 시는 하나의 서사로 연결된 것이 아닌 52개 연으로 구성된 연시이다. 작품의 배경은 굴뤼스탄 조약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다루고 있다. 1804년부터 러시아는 아제르바이잔 칸국들 사이의 갈등을 조장하여 차례로 점령하기 시작했다. 결국 1813년에는 아제르바이잔 굴뤼스탄(Gülüstan) 지역에서 러시아와 이란 간의 평화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 조약으로 인해 아제르바이잔은 아라즈 강을 사이에 두고 북부 지역은 러시아 영토로, 남부 지역은 이란 영토로 분할되었다.

「귄뤼스탄의 시(Gülüstan Poeması)」에서는 불평등 조약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견디지 못하는 분노와 증오가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소비에트 시대에는 아제르바이잔의 분단, 독립 그리고 통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었다. 그만큼 매우 예민한 정치적 사안이었다. 1962년에 시인은 재직 중인 대학교에서 해고당하는 등 아제르바이잔인에게 민족의식을 고취 시켰다는 이유로 많은 박해를 받았다.

배흐티야르 와합자데(Bəxtiyar Vahabzadə)는 이 시를 아제르바이잔의 독립을 위해 싸웠던 샷타르 칸(Sattar khan), 쉐이크 무함마드 카야바니(Sheikh Mohammad Kheyabani)와 사이드 자파르 피샤바리(Seyid Jafar Pishavari)에게 헌사했다.

아제르바이잔의 분단이라는 근대사의 비극적 역사를 다루고 있는 이 작품은 독립을 위한 투쟁과 아제르바이잔 국민들의 민족혼을 담고 있고, 강한 민족주의 성향을 띠는 점에서 아제르바이잔 문학사에서 매우 중요한 작품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귄뤼스탄 시, 굴루스탄, 굴르스탄의 시, 굴루스탄의 시

● 다국어 표기 Gülüstan Poeması(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배흐티야르 와합자데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ZDQmREoGI>. Bəxtiyar Vahabzadə, “Gülüstan” poeması. Şəki, 1958-ci il.

<https://www.youtube.com/watch?v=GEXulaY8ZhQ>. Gülüstan Poeması – Bahtiyar Vahapzade – Gök Kubbemiz – TRT Avaz

● 참고문헌(오프라인) 배흐티야르 와합자데 저, 오은경 옮김, 『귄뤼스탄의 시』,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19.

Vahapzadə Bəxtiyar, *Seçilmiş Əsərləri I, Öndər Nəşriyyat*, Bakı, 2004.

Vahapzadə Bəxtiyar, *Seçilmiş Əsərləri II, Öndər Nəşriyyat*, Bakı, 2004.

I A074 | 귤친 찬다를르오을루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학자
● 집필자 장주영 ● 라틴 문자 Gülçin Çandarlıoğlu

귤친 찬다를르오을루는 1942년 튀르키예 에스키셰히르에서 태어났다. 그녀는 1954년 둠플루프나르(Dumplupınar) 초등학교, 1957년에는 에스키셰히르 여자 중학교, 1960년에는 이스탄불 위스키다르 여자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64년 6월 이스탄불 대학교 문학부 역사학과를 졸업했으며 같은 해 11월 튀르키예 역사 위원장의 조교가 되었다. 1967년에는 「황색 위구르인과 간수 지역의 부족(Sarı Uygurlar ve Kansu Bölgesi Kabileleri)」이라는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명예 교수 제키 벨리디 토간, 이브라힘 카페스올루 및 바하엠티 외겔의 지도하에 연구를 했다. 귤친 찬다를르오을루는 1968년~1969년 이탈리아의 포르마짜(Formazza)에 머물렀고, 1969년~1970년에는 당시 고대 투르크어의 대가로 알려진 마사오 모리(Masao Mori)와 함께 일본에서 연구를 수행했고, 1971년 런던 대영 박물관 도서관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1973년 「외튀켄 지역의 위대한 위구르 카간」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이스탄불 대학교 부교수로 임명되었으며, 1975년에는 3개월간, 1980년에는 6개월간, 1981년에는 3개월간 독일에서 연구했다. 1982년 그녀는 「중앙아시아의 티무르, 중국의 명나라와의 관계(Orta Asya'da iler, Çin'de Ming Münsabetleri isimli takdim)」 논문으로 정교수로 임명받는다. 그녀는 영어를 포함하여, 독일어, 러시아어, 페르시아어, 아랍어, 중국어, 일본어 및 투르크 방언들에 능통했다.

1986년 10월 미마르시난 대학교 인문과학부 역사학과 교수로 임명되었으며, 그곳에서 그녀는 역사학과를 신설했다. 1989년 2월부터 1995년 3월까지 역사학 과장을 역임했으며, 역사학과에서 역사 연구 방법론, 이슬람 이전의 투르크 역사, 이슬람 이전의 튀르키예 문화사 및 현대 튀르키예사와 같은 과목들을 강의했다.

1992년~1994년 7월에는 중앙아시아 현지 연구에 착수했으며, 1995년 6월 23일 국제 튀르키예-카자흐대학 부총장으로 임명되었다. 1995년 12월 21일 그녀는 아흐마드 야사비 대학(Hoca Ahmet Yesevi Uluslararası Türk-Kazak Üniversitesi) 역사학부에 투르크 역사학과를 설립했다. 더불어 그녀는 <대학 교육 매뉴얼>, <habarşı> 잡지, '교육 과정의 구성', '어학 교육센

터 설립', '투르크 세계의 공통 용어 사전' 등의 프로젝트를 맡았다. 1998년 6월 그녀는 국제 튀르키예-카자흐 대학교 부총장직에서 사임했다. 1998년~1999년도에 그녀는 미마르 시난 대학 예술 및 과학 학부의 역사학과에서 근무했으며, 현대 투르크 세계 역사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1999년 9월, 키르기스스탄에 위치한 마나스 국제 튀르키예-키르기스 대학의 중앙아시아 연구 센터와 사회 과학 연구소를 설립했으며, 2000년~2001년에 다시 그녀는 미마르 시난 대학교로 돌아와 근무하다가, 2009년 3월 29일 은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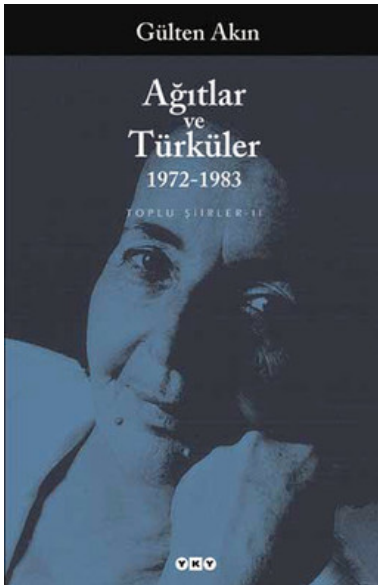
그녀는 모든 책들을 투르크 세계 연구 재단에 기증했으며, 재단은 그녀의 이름으로 도서관을 설립했다.

대표 저서로는 『황색 위구르인과 간수 지역 부족들(Sarı Uygurlar ve Kansu Bölgesi Kabileleri, İstanbul Üniversitesi Edebiyat Fakültesi Yayınları, 1972)』, 『투르크 전설의 영웅들(Türk Destan Kahramanları, 1977)』, 『중앙아시아의 티무리, 중국의 명나라와의 관계 (Orta Asya'da iler, Çin'de Ming Münasebetleri, 1995)』 등이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굴친 찬다를르오울루, 굴친 찬다를르오울루, 굴친 찬다르오굴루
- 연관 검색어 제키 벨리디 토간, 이스탄불, 키르기스스탄, 바하데뎨 외젤, 위스키다르, 미마르 시난, 마나스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rl.kr/kadw1e>
- 참고문헌(온라인) <http://www.gulcincandarlioglu.com/ozgecmis/>
- 참고문헌(오프라인) Çandarlıoğlu, G. Uygurların Çinlilere yaptıkları yardımlar ve bunların içyüzü. Tarih Dergisi, (31), 37~46, 1977.
- Çandarlıoğlu, G. Uygur-Çin İktisadî Münasebetleri (At-İpek Alışverişi) (744-840). Tarih Dergisi, (34), 73~80, 1984.

I A075 | 귤텐 아큰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Metin Turan) ● 라틴 문자 Gülten Akin



『엘레지와 튀르퀴(Ağıtlar ve Türküler)』 표지

튀르키예의 20세기를 대표하는 시인 중 한 명인 귤텐 아큰(Gülten Akin)은 1933년 1월 23일 요즈가트 차탁 마을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부터 그녀는 조부모, 큰아버지, 큰어머니, 외삼촌, 이모, 사촌들과 대가족을 이루어 살았다.

책 읽기 습관을 길러준 어머니 엠살은 그녀가 어릴 때 돌아가셨다. 아큰은 돌아가신 어머니를 ‘노래를 흥얼거리며 일을 하셨던 빛나는 젊은 여성’으로 기억했다. 아큰의 외할아버지 누리 에펜디는 이스탄불에서 신학교를 졸업한 성직자였다. 종교학 교사일 때 공화국이 설립됐고 교과서 제작자로 발령을 받았다. 자연, 과학, 예술에 대한 열정이 있었던 아큰의 외할아버지는 독서광이었다.

친할아버지 댁에서 태어난 귤텐 아큰은 초등학교에 다닐 때까지 증조모의 이름인 제이넵으로 불렸다. 증조할머니와 닮아서 할아버지는 아큰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꼈다고 한다.

귤텐 아큰은 앙카라에 있을 때 사랑을 갈구했고 애정 결핍도 있었다. 어머니가 자주 아프셨고 초등학교에 들어간 해부터 매우 힘든 날이 시작됐다. 아버지 누렛틴(Nurettin)은 친할아버지와 다투고 인연을 끊었고 요즈카트 소르군에 공무원으로 발령받았다. 이 시절 모질었던 아버지의 행동은 아큰이 자아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 어느 날부터 갑자기 시작된 폭력은 어린아에게 겁을 줬고 삶에 대한 저항과 분노를 심어주었다. 이 시기에 느낀 분노와 분노를 다스리던 방법을 아큰은 이렇게 기억했다. “요즈가트 소르군에 동생과 나는 항상 암전히 있었다. 무서웠다. 소르군에서 5살에 초등학교에 입학했는데 알파벳과 빨간 펜이 가장 큰 행복을 가져다줬다. 나는 왼손잡이였는데 아버지와 사는 동안 밥 먹을 때 숟가락으로 맞으면서 먹었다. 오른손으로

밥 먹는 것을 배우기는 했는데 식사 시간과 밥상이 싫었다. ‘별난’ 행동에 적응이 됐던 것 같다. 어린 딸의 왼손을 숟가락으로 때리면 어떻게 되나? 오른손으로 먹는 법을 배웠겠지. 그런데 분노가 반찬 투정으로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분노가 미세하게 남아 있다. 놀 때는 왼손이 먼저 나갔고 고등학교 때 왼손으로 공을 멀리 던지는 대회에서도 1등도 했다.”

귤텐 아큰은 어린 시절 집에서는 조용히 지냈지만 밖에서 놀 때는 활기차게 뛰어노는 어린이였다. 어린 시절 내내 아몬드, 자두, 살구, 체리 나무 사이에서 꽃, 꿀, 나비와 함께하며 자랐다. 집에서 노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자치기하고, 나무 위에 올라가고, 공놀이하고, 어머니가 책 읽어주는 것을 듣고, 조금 자라서는 혼자서 책 읽는 것을 좋아했던 어린이였다.

소르군에 있을 때 아버지에게 떼를 써서 5살에 초등학교에 입학한 귤텐 아큰은 모두 ‘수’를 받았고, 1등을 놓치지 않는 우등생이어서 교사들의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제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면서 극심한 빈곤으로 인해 형편이 어려운 다른 사람들처럼 그들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다. 설탕, 홍차, 기름을 일상생활에서 먹을 수 없었고 학교에 가져갈 준비물을 마련하는 것도 어려웠다. 아큰은 이 시기를 “선생님께서 돈 쓸 일이 필요한 무언가를 얘기할까 봐 무척 걱정했었다.”라고 회상하며 어린아이가 느꼈던 가난을 토로했다.

1943년 아큰이 10살이었을 때 대가족이 핵가족이 돼 앙카라로 이사했다. 중학교 1학년 때는 집과 가까운 타쉬 중학교(Taş Mektep)에 다녔다. 1944년 이후에는 마음에 들지 않는 제베지 중학교에서 공부를 이어나갔다.

10살부터 대학 시절까지 행복하지 않고 무미건조했다고 말한 아큰은 그때 그 시절 가족들의 상황이 어려웠던 것이 나라의 경제가 힘겨웠던 것과 연관이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제2차 세계 대전이 앙카라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관료 정치를 독점하는 소수 집단이 사치스럽게 생활하면서 국민의 분통을 터트리게 했다고 덧붙인다.

문제가 많았던 중학교 시절이 지나가고 고등학교 때 조금 진정이 된 아큰은 친구도 사귀고 교사들과의 관계도 좋았음에도 고독과 내면 여행을 즐겼다. 시는 외로움을 달래는 데 위로가 됐다. 수학과 과학 수업은 힘겨웠다. 아큰은 거친 성격의 교사들을 풍자하는 글을 쓰기도 했다. 이 때 주로 풍자시를 썼던 아큰은 자기 학년뿐만 아니라 다른 학년 잡지에도 시를 써서 고등학교에서 시인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학교에서 발행한 교지는 그녀의 시가 가득 채웠다. 앙카라 여자 고등학교의 문학 교사인 나히트 프라트(Nahit Fırat)가 아큰에게 큰 관심을 보였고 자

신의 집에서 러시아, 미국 등 다른 나라 고전 문학, 철학책을 가져다줬다. 아큰은 이 책들을 한 권도 빼먹지 않고 체계적으로 읽으려고 노력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그녀는 고등학교 졸업반에서 6월에 졸업하는 4명 학생 중 한 명이 됐다.

그녀가 문단에 발표한 첫 시는 <마지막 소식(Son Haber)> 신문에 1951년에 실렸다. 이후에 <히사르(Hisar)>, <와르륵(Varlık)>, <예디테페(Yeditepe)>, <투르크어(Türk Dili)>, <민간인(Mülkiye)>과 같은 잡지에도 실렸다. 초기에는 시의 주제가 주로 자연, 사랑, 이별, 그리움이었고 이후에는 사회적 문제를 다룬 주제가 더 많았다.

귈텐 아큰은 1956년 대학교 신입생 때 만난 정치학과 학생 야샤르 잔코차크(Yaşar Cankoçak)와 결혼했다. 아큰과 잔코차크는 대학 시절 내내 친구들과 문화 행사에 참여했는데, 정치학과에서 수업을 듣는 율케르 킷살(Ülker Köksal), 제말 쉬레야(Cemal Süreya), 세자이 카라코취(Sezai Karakoç), 알탄 외이멘(Altan Öymen), 테브피크 아크다오(Tevfik Akdağ) 등의 문학 애호가들과 이 시절을 보냈다.

그녀에게는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이 항상 1순위였다. 그녀는 자신의 자녀들에 대해 “우애 깊고 인류를 사랑하며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한평생 노력했다”고 말했다. 또한 자녀들에 대한 믿음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엄마 역할은 여느 어머니들처럼 저 역시 1번이에요. 세상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말이에요. 자녀가 5명이 있으면 걱정에 끝이 있느냐? 자녀들이 있으면 내 안에 없는 에너지가 막 생겨요. 예전에 두 가지 일을 진행한 적이 있었어요. 저희 아이들이 나이 터울이 좀 있는데 큰 애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서로를 사랑하고 위하더라고요. 작은 질투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지금은 모두 다 컸어요.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죠. 제 아이들은 서로를 위하는 마음도 크지만, 다 사람을 좋아해요. 다른 걱정들보다도 사람들 걱정을 먼저 해요. 제게 자랑거리가 있다면 이거예요.”

아큰은 남편이 군수직으로 있었던 게와쉬(완), 알루즈라(기레순), 하이마나(앙카라), 쿨루(오르두), 게르제(시노프), 사라이(테키르다오), 카흐라만마라쉬에서 기간제 교사와 변호사 일을 했다. 아큰과 가족은 1972년에 앙카라로 돌아갔다. 1957년에는 튀르키예 국립국어원 아카이브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78년에 은퇴했다. 이 외에도 문화부방송자문위원회(1978년~1979년), 인권협회 경영 및 명예위원회 위원(1987년), 언어협회 창립회원(1987년), 튀르키예 작가연맹 앙카라 대표위원회(1991년)에서 역할을 맡았다.

공익을 우선하는 사회주의 세계관을 고수한 아큰은 개인적 삶의 태도가 그러했던 것처럼 공적인 일을 할 때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노력했다. 기간제 교사를 할 때 학생들에게 문화와 지식을 잘 전달하기 위해 노력한 아큰은 변호사 업무를 할 때도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앞장섰다. 아큰은 사람들의 아픔과 문제를 단순히 슬픈 이야기로 듣지 않고 그들의 근심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폭력과 전쟁은 고통을 줬지만, 책임감이 그녀가 어려움을 견디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었다.

이 책임감이 가장 잘 드러난 것 중 하나가 엄마로서의 역할이다. 자녀 5명을 키운 아큰에게 엄마라는 역할은 개인과 예술가가 분리되는 일이었다. 그녀에게 엄마라는 역할은 그 어떤 무엇보다도 중요했다. 아이들의 성품과 예술성과 관련해 엄마가 끼치는 긍정적 영향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했다.

귄텐 아큰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예술을 표방한 시인이었다.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는 학문적 접근으로 사회 현실을 인식하며 본질을 드러낸다. 그리고 이 현실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의식을 변화시키면 이것이 행동으로 옮겨질 것이라고 봤다.

시에서 여성의 문제를 일반적인 인간의 문제로 치부하지 않고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파악하고자 했던 아큰은 여성 문제를 마르크스주의 문학의 개념으로 접근했다. 여러 시에서 여성의 삶을 묘사한 아큰은 일관성 있게 여성 문제를 다뤘다. 초기에는 여성으로서의 역할과 개인 자유 사이에서 고민하는 젊은 여성의 혼란스러운 감정을 「나의 검은 머리를 잘랐다」라는 제목의 시에서 드러냈다. 아큰에게 ‘여성’이란 존재는 문학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였고 그래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감정을 문학작품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 사회가 여성에게 부여한 역할과 내면 세계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한 시인에게 이 긴장감은 그녀의 시의 원천이 됐다. 이 긴장감에서 벗어나길 원했던 아큰은 자신의 내적 세계에서 만들어진 다른 세상을 시의 특별한 세상으로 흡수시켰다.

그녀의 대표적인 시집은 『바람이 부는 시간(1956)』, 『나의 검은 머리를 잘랐다(1960)』, 『얇은 곳에서(1964)』, 『빨간 카네이션(1971)』, 『마라쉬와 워케쉬의 서사(1972)』, 『엘레지와 튀르퀴(1976)』, 『부랑자의 서사(1979)』, 『찬가(1983)』, 『사랑은 머무른다(1991)』, 『그리고 나는 늙었다(1995)』, 『고요한 뒷마당(1998)』, 『먼 해안가에서(2003)』, 『시를 평면에서 감싸다(연구, 1996)』 등이다.

아큰은 시 이외의 다른 문학 장르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단막극 일곱 작품과 잡지 코너에 단편소설을 실었다. 그녀는 자신의 희곡 작품을 여성, 결혼, 규범에 대한 비판, 가난, 외로움, 노년, 이방인과 같은 주제로 채웠다.

1955년 잡지 <와르륵(Varlık)>이 주최한 시 대회에서 1등을 차지한 귤텐 아큰은 1965년에는 튀르키예 국립국어원에서 시집 『얇은 곳에서(Sığda)』, 『엘레지와 튀르퀴(Ağıtlar ve Türküler)』라는 작품으로, 1976년에는 예디테페 문학상 시 부문에서 수상했고, 1992년에는 세다트시마비 문학상을 받았다. 2008년에 신문 <밀리예트(Milliyet)>에서 주최한 가장 훌륭한 시인 조사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귤텐 아큰은 시의 정점을 찍은 『네가 나를 물어본다면(Beni Sorarsan)』을 2013년에 발표했는데, 이 책으로 메틴 알트옥 시를 수상했다.

아큰은 2015년 11월 4일 앙카라의 한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생을 마감했다. 묘소는 카르식야 카 묘지에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귤텐 아큰, 귤텐 아킨

● 다국어 표기 GÜLTEN AKIN(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앙카라, 튀르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rl.kr/vmigbw>

● 참고문헌(오프라인) Esen Selim(Yayına Hazırlayan), *Kendileri*, Evrensel Yayınları, İstanbul 2007.

Fuat Mehmet, *Çağdaş Türk Şiiri Antolojisi, Adam Yayınları*, İstanbul 2002.

Mutlu Betül, *Gülten Akın'ın Şiiri*, Ürün Yayınları, Ankara 2015.

Oral Zeynep(Konuşan), “Edebiyatımızdan On İnsan Bin Yaşam: Gülten Akın”, *Milliyet Sanat Dergisi Eki*, 3 Ağustos 1988, s. 3.

Öztunç Mehmet(Konuşan), “Başka Yol Bilmiyordum, Yazdım”, *Zaman*, 18. 03. 2013.

Turan Metin. “Yaktım Adresini...”, *Cumhuriyet Kitap*, 13 Şubat 1992.

I A076 | 그것 말고, 이것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아제르바이잔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희곡 ● 유형 소분류2 작품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Vaqif Sultanli) ● 라틴 문자 Not the one, this one

『그것 말고, 이것(O olmasın, bu olsun)』은 20세기 아제르바이잔의 저명한 희곡 작가 위제이르 하즈배일리(Üzeyir Hacıbəyli)가 1910년에 쓴 작품이다. ‘매쇄디 이바드(Məşədi İbad)’라고도 부르는 이 작품은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작품은 1911년 4월 25일 바쿠 마일로브 브라더스(Mayılov qardaşları) 극장에서 처음으로 상연됐다. 연극의 음악 구성은 전통 민요와 춤에 바탕을 두었다. 이 작품은 1918년에 바쿠 오루보브 브라더스(Oruvov qardaşları) 출판사에서 처음 간행됐다. 1956년 휘세인 세이드자대(Hüseyn Seyidzadə)는 같은 제목으로 오페레타를 바탕으로 한 영화를 제작했다. 이 영화는 1910년에 바쿠에서 일어난 사건을 재조명했는데, 작품 속에서 새르베르(Sərvər)와 굴나즈(Gülnaz) 두 젊은이는 위대하고 초자연적인 사랑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 작품의 주요 내용은 사랑이 돈에 승리함으로써 봉건적인 세계관을 물리쳐내는 것이다. 50대인 부자 상인 매쇄디 이바드(Məşədi İbad)는 굴나즈와 결혼하길 원하며, 굴나즈의 아버지 뤼스탐(Rüstəm) 역시 돈과 재물을 위해 이 결혼에 동의한다. 그러나 새르베르와 그의 친구들은 매쇄디 이바드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결혼식 날, 여자 옷을 입은 남자를 신부 대신에 결혼식에 보낸다. 이바드는 어쩔 수 없이 굴나즈를 포기하게 되고, 청소부와 결혼한다. 이 영화 속 주인공인 새르베르와 굴나즈 이외에 상인들, 판매원들, 반동주의자, 번역 기자 등의 다른 캐릭터들도 눈길을 끈다. 이 영화는 엄청난 인기를 얻었으며 40여 개국에 판매되었다.



『그것 말고, 이것』 표지
Source: <https://bakubookcenter.az/>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그것 아닌 이것, 매쇄디 이바드

● 다국어 표기 “O olmasin, bu olsun”(튀르키예어), “Ул булмаһын, был булһын”(타타르어), “Не та, так эта”(러시아어), “O olmasin, bu olsun”(아제르바이잔어)

● 연관 검색어 바쿠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CexGp7hVSIY>
<https://url.kr/pd9jg6>

● 참고문헌(오프라인) Aslanov Mirabbas, *Üzeyir Hacıbəyov gündəlik yazmış olsaydı*, Bakı: Şur nəşriyyatı, 1994.

I A077 | 그랜드 바자르

● 시기 기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건축 ● 유형 소분류2 상가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Grand Bazar

그랜드 바자르의 정식 이름은 뷔위이크 차르시(Büyük çarşı: 대형 시장) 또는 차르슈-이 케비르(Çârşû-yı Kebîr: 대형 시장)이지만, 지역민들에게는 카팔르 차르시(Kapalı Çarşı), 즉 ‘지붕이 있는 시장’이라고 불리는 대형 상가이다. 일반적으로 뷔위이크 차르시의 의미를 영어로 그대로 옮긴 ‘그랜드 바자르(Grand Bazar)’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다.

그랜드 바자르는 메흐메트 2세(II. Mehmed, 재위: 1444년~1446년, 1451년~1481년)가 이스탄불을 정복한 후 건설되었다. 비잔틴과의 전쟁의 영향으로 훼손된 이스탄불을 복구하며 비잔틴의 도시에서 투르크의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 많은 토목 사업을 새롭게 착수했는데, 그랜드 바자르의 건설 역시 그 일환으로 행해졌다.

그랜드 바자르의 중심에 위치한 제바히르 베데스테니(Cevahir Bedesteni: 금속 전문 상가) 건설이 그 시작이었다. 베데스텐(Bedesten)은 오스만 시대에 건설된 지붕이 있는 전문 상가를 의미한다. 이 제바히르 베데스테니를 중심으로 하여 시대별로 증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하나의 건물처럼 만들어져서 명확한 출입구가 있다. 그랜드 바자르에는 비잔틴 시대의 조각 등이 남아 있어서 이것이 비잔틴 시대의 시장이었다고 주장하는 학설도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는 비잔틴 시대의 파손된 건축 자재를 재활용했다고 보고 있다. 실제 비잔틴 시대부터 이어져 내려



그랜드 바자르 내부

온 상가는 다른 곳에 존재한다.

제바히르 베데스테니는 15개의 돔이 있으며 그 아래 반원통형 천장이 있는 가게들이 있다. 처음 제바히르 베데스테니가 건설되었을 때 거리를 바라보는 가게 앞에는 기둥이 있었고 건너편에 작은 가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제바히르 베데스테니 앞에는 현재의 누르오스마니에 모스크 방향으로 산달 베데스테니(Sandal Bedesteni: 면과 비단으로 된 부드러운 천 상가)가 건설되었다. 이 산달 베데스테니는 베데스탄느 제디드(Bedestân-ı Cedîd, Yeni Bedesten: 새로운 상가)라고도 한다.

산달 베데스테니의 건설 연도에 대해서는 여러 학설이 있으나 대체로는 1478년~1479년경에 건설되었다고 본다. 안쪽에는 아치로 떠받힌 20개의 돔이 있고, 건물 바깥쪽은 반 원통형 천장이 있다.

1474년 이래로 1954년까지 14번의 화재와 3번의 지진을 겪으며 많은 곳이 훼손되었으며, 파

손된 부분을 복구하면서 증축과 변화가 함께 이루어졌다.

1573년에 기록된 세밀화의 묘사에 따르면 그랜드 바자르의 일부 상가들은 목재로 만든 지붕과 셔터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 초창기 아나톨리아 시장에서 갖추었던 형식인데, 목재로 만든 건축물은 화재에 취약하여 1515년, 1539년, 1652년, 1660년 발생했던 화재 사건에서 많은 상점이 사라지게 되었다. 그 후, 건축물의 자재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1701년 화재 이후, 그랜드 바자르의 거리 방향으로 나 있는 상점 복구에 석재나 벽돌을 이용하도록 명한다. 그러나 교체가 끝나지 않은 상가나 명을 듣지 않았던 상점은 화재에 다시 파손되기도 했다.

1894년 6월 28일 이스탄불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시장의 많은 부분이 다시 훼손되었다. 압둘 하미드 2세(II. Abdülhamid, 재위: 1876년~1909년)의 명으로 이 훼손된 곳을 복구하면서 그랜드 바자르의 영역이 일부 축소되었고, 그곳에 남았던 가게들은 외부로 옮기게 되었다. 그랜드 바자르 내에 존재하는 가장 큰길의 양 끝에 새롭게 문을 만드는데, 당시 유행하던 투르크 신교전 양식으로 건설된다. 이 중 누르오스마니예 모스크(Nurosmaniye Mosque) 방향으로 난 문은 무카르나스로 장식된 처마와 첨두 아치(pointed arch)로 이루어져 있다. 아치에는 당시 모든 공공 기관 건물에 달았던 오스만 제국 국장을 달았다. 그 아래에는 복구에 대한 기록을 남긴 두 줄 짜리의 비문이 있다. 문 양옆에는 수도관이 달린 샘과 그것을 꾸민 아치가 있다. 베야즈트 방향으로 난 문은 첨두아치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으나 앞서 언급한 다른 문만큼 화려하지는 않다.

1943년, 1954년에 발생한 화재로 다시 많은 부분이 파손되었고 1959년 복구 공사 후 재개장했다. 당시 화재 피해가 컸던 것은 가게를 넓히기 위하여 일부 상점이 거리 쪽을 향해 목재로 증축 공사를 시행했기 때문이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더는 목재로 증축을 할 수 없는 형식으로 복구 공사를 시행했다.

제바히르 베데스테니와 산달 베데스테니를 상업 중심으로 발달시키기 위하여 지은 크고 작은 한(han: 대상 숙소)이 그랜드 바자르 내에 존재한다. 오랜 시기에 걸쳐 증축되었기 때문에 건축물은 시대별 양식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현대식으로 개조된 곳 또한 많다.

그랜드 바자르 내에 기도 공간 역시 존재하지만, 특별한 건축적 양식이 존재하지 않는 단순한 공간이다. 그랜드 바자르가 처음 건설되었던 시기에 메스지드(mescid: 미너렛이 없고, 금요일에 배나 명절 예배를 보지 못하는 작은 모스크를 이르는 튀르키예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거나 앞서

언급한 복원 공사를 거치며 단순화된 것으로 보인다.

파손과 복구를 거치면서 지금은 주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물품을 판매하며 옛 모습을 많이 잃어버렸으나 오스만 시대부터 내려온 본래의 기능을 잃지 않은 공간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카팔르 차르슈, 카팔르 차르시오, 뷔웁 차르시오, 뷔웁 차르슈, 그랜드 바자

● 다국어 표기 Kapalı Çarşı(튀르키예어), Büyük çarşı(튀르키예어), Qapalı çarşı(아제르바이잔어)

● 멀티미디어 링크 그랜드 바자르 조감도

<https://www.trthaber.com/resimler/1050000/1050195.jpg>

그랜드 바자르 누르오스마니예 방향으로 열린 문

<https://url.kr/9nhb1q>

그랜드 바자르 내부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5/59/Kapali_Carsi-Grand_Bazar-Istanbul-Sep08.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Cezar, Mustafa. TipikYapılarıyla Osmanlı Şehirciliğinde Çarşı ve Klasik Dönem İmar Sistemi, İstanbul: Türkiye İş Bankası, 1985.

Tekiner, Efdaleddin. “İstanbul’da Kapalı Çarşı”, TTOK Belleteni, sy. 88, 1949. pp.6~8.

Eyice, Semavi. “Büyük Çarşı”, TDV İslâm Ansiklopedisi , cilt 6, İstanbul:TDV, 1992, pp.509~513.

I A078 | 그리고리 칼킨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알타이공화국)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구비문학
- 유형 소분류2 인물
- 집필자 오은경
- 라틴 문자 Grigoriy Kalkin

그리고리 칼킨(Калкин Григорий Иванович: 1901년-1969년)은 러시아연방 알타이공화국을 대표하는 유명한 카이치(소리꾼, 명창)이다. 카이치 알렉세이 칼킨의 아버지이기도 하다. 사알 족 출신이며 올라간 지역 파스파르트 마을에서 태어났다. 그는 첫 번째 부인에게서 5명의 자녀를 두었고, 그의 대를 이어 카이치로 유명한 알렉세이는 그중 3남이었다. 두 번째 부인에게서는 2명의 자녀가 있다.

동향인들의 회고에 따르면 칼킨은 유명한 카이치이기도 했지만, 사람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았다. 그의 카이(영웅서사시를 후창 방식으로 부르는 노래)는 울림이 강했으며 가사를 전달하는 목소리는 매우 또렷했다고 한다. 더불어 그는 톱슈르 연주의 대가이기도 했다. 영웅서사시를 부르기 전에는 절대로 서두르지 않고 톱슈르로 2~3분 조용히 연주하며 현의 소리를 조정했다. 이때 그는 자신에 몰입하여 점점 커져가는 리듬에 맞춰 카이를 시작하곤 했다. 그는 민간에 전승되는 전설, 신화, 민담, 수수께끼, 속담 등을 잘 알고 있었으며, 연주가 끝난 뒤에는 밤 늦게까지 어린이들에게 옛날이야기를 전해주곤 했다. 그는 알타이 민족의 관습과 의례에 정통했으며, 접골(接骨)의 달인이었다.

그가 애창했던 영웅서사시로는 「마아다이-카라」, 「콰구테이-메르겐」, 「오츠-발라」, 「아크-짤라아」, 「알틴-크즈」, 「사르 쿠렝 아투 솔로투이-메르겐」 등이 있다.

그가 살았던 동시대에 올라간 지역에는 유명했던 카이치들이 많이 있었다. 그중에는 출투코프 오스프이나크, 톡토굴로프 토올로크, 토보코프 다닐 등이 있었다. 그리고리 칼킨은 이들과 친분이 두터웠고, 함께 지역 카이치 경연대회에 참가하여 우승을 하기도 했다. 그가 연주하던 영웅서사시들 중 일부는 바로 이들 카이치들에게서 전수받은 것이다.

1943년 그리고리 칼킨은 참전했다가 전선에서 중상을 입고 귀향했다. 이후 그는 머리에 입은 중상의 후유증으로 눈이 멀게 된다. 아들 알렉세이 칼킨의 말에 따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생을 마감하는 날까지 카이를 연주했다고 한다. 아쉽게도 그에게서 직접 채록된 영웅서사시는 단 한 편도 없다. 하지만 그의 예술을 이어받은 아들 알렉세이 칼킨을 통해 그의 위대한 영웅서사시를 들을 수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그레고리 칼킨, 그리고리이 칼킨
- 다국어 표기 Калкин Григорий Иванович(러시아어), Kalkin Grigoriy Ibanovich(영어)
- 연관 검색어 아시옥, 오잔, 톱슈르, 알렉세이 그리고레비치 칼킨, 울라가셰프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vtourisme.com/images/culture/kalkin01.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오은경·김근식, 「알타이 투르크 족의 카이치 전통 연구」, 『한국중동학회논총』, 37(2), 2016, pp.16~17.
İbrahim Dilek, “Altay Kayçılık Geleneği ve Kayçı N. U. Ugaşev”, *Türk Dünyası*, sayı. 5, Bahar, 1998, s. 309~359.
İbrahim Dilek, “Altay-Türk Kayçılık Geleneği ile Türkiye’deki Âşık Tarzı Şiir Geleneği Arasındaki Benzerlikler”, *Sibirya Araştırmaları*, Simurg: Ankara, 1997, s. 195~202.

I A079 | 그리스 독립 전쟁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서아시아, 기타 ● 나라 그리스,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사건
- 유형 소분류2 전쟁
- 집필자 장주영 ● 라틴 문자 Greek War of Independence

1453년 동로마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폴리스가 오스만 제국에게 함락되면서 당시 동로마 제국의 영토였던 그리스 일대 역시 오스만 제국의 일부로 편입되었다. 그로 인해 당대 많은 그리스 지식인들이 오스만 투르크인들을 피해 서유럽으로 이주했는데, 특히 대다수의 그리스인들은 오스만 제국의 기독교도에 대한 높은 세금과 차별을 피하기 위해 산지로 이동하게 되었다.

오스만 제국은 다양한 민족들을 종교에 따라 구분하고 그들의 자치를 허용하면서 술탄 중심으로 권력을 집중시키기 위해 밀레트(Millet)라는 제도를 도입했다. 밀레트는 피지배 계층에 허락된 종교에 기반된 일종의 자치 공동체였는데, 내부에서는 민족 독자적인 관습법과 제도가 통용되었지만, 최고 종교 지도자인 술탄이 통치했다. 오스만 제국 내에는 이슬람교, 그리스 정교, 아르메니아 기독교, 유대교 등 4개의 밀레트가 존재했다. 오스만 당국은 그리스 정교회에 개종을 강조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비이슬람교도들에게 높은 과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정교회 신자들은 이슬람교로 개종을 할 수밖에 없었다. 개종한 사람들 중에는 몰래 정교회의 전통을 이어 나가는 비밀 정교회 신자들도 많았지만 발각이 되는 즉시 처형을 당했다. 때문에 오스만 제국 치하의 그리스인들은 오스만 제국에 대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오스만 술탄의 정치는 다른 시대 제국의 통치처럼 강압적이지도 독재 횡포적 성향을 띠지도 않았으며, 특히 그리스인들에게는 다른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많은 자유를 인정해주었다. 하지만 그리스 엘리트들은 그리스인은 투르크와는 다른 민족이며, 자신들이 투르크인들에게 무력으로 정복되었다는 사실에 늘 불만을 품고 있었다. 때문에 그들은 교육을 통해 독립 국가로서 민족성을 고취시키며 고대 그리스인들의 후손으로서 진정한 정체성을 되찾고자 했고, 이에 따라 고전주의와 낭만주의 운동이 그리스 전역으로 널리 퍼지게 되었다.

1821년 3월, 루마니아 이아시와 펠로폰네소스반도 서남단의 마니 지역에서 봉기가 일어났는데, 이를 계기로 그리스 전역에도 독립을 위한 봉기가 번지게 되면서 그리스 독립 전쟁이 시작된다.

이아시 지역에서 그리스 독립운동의 비밀 단체 ‘필리케 헤타이리아’의 지도자 알렉산드로스 입실란트가 중심이 되어 반란이 일어났지만 실패로 돌아갔다. 이후 그리스 본토 모레아의 농민들이 봉기하여 독립 전쟁이 펼쳐졌다. 이집트의 메흐메트 알리 파샤(Mehmet Ali Paşa)가 나서서 토벌군을 조직하게 되고 이후 그리스 독립군의 패색이 짙어지게 되자 유럽 전역에서는 고전 문명의 원류인 그리스를 지원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영국 시인 조지 바이런처럼 의용병으로 참전하거나, 프랑스 화가 외젠 들라크루아처럼 예술 작품으로 성원하는 지식인들도 많았다. 발칸반도로 진출하기를 원했던 러시아와 함께 러시아의 발칸반도 진출을 견제하기 위해 영국, 프랑스가 그리스의 독립 전쟁에 참전했다. 1827년 영국, 프랑스, 러시아의 함대는 그리스 서부의 나바리노에서 투르크와 이집트 함대를 격파하고, 러시아군은 이스탄불까지 진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 오스만 제국은 1829년 그리스의 독립을 승인했다. 그리스 독립 전쟁은 무려 10여년간 지속되었는데, 1830년 ‘런던 의정서’로 그리스는 영국, 프랑스, 러시아로부터 독립을 인정받았고, 1832년 ‘콘스탄티노플 조약’에 의해 공식적으로 독립을 달성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그리스 전쟁, 그리스-오스만 전쟁

● 다국어 표기 Ελληνική Επανάσταση(그리스어), يونانُ عَصَبِيّ(오스만 투르크어), 希腊独立战争(중국어)

● 연관 검색어 밀레트

● 참고문헌(오프라인) 마크 마조워 저, 이순호 역, 『발칸의 역사』, 을유문화사, 2006.

민석홍, 『서양사개론』, 삼영사, 2009.

안영집, 『역사와 문명 속의 그리스 산책』, 박영스토리, 2020.

Richard Clogg. *A concise History of Greece*, Cambridge University Press.1992.

I A080 | 그리스 정교회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남부유럽 ● 나라 그리스, 러시아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그리스 정교 ● 유형 소분류2
- 집필자 장주영 ● 라틴 문자 Greek Orthodox Church

주요 교리 서적이 희랍어로 되어 있는 그리스 정교회는 이탈리아 로마를 중심으로 지리적으로 동쪽에 있어 동방 정교회(Eastern Orthodox Church)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교회는 본래 하나였던 그리스도 교회가 1054년 동방과 서방으로 나뉘기 이전의 교회 전통을 강조한다. 니케아 공의회(325년)부터 펠리오케 논쟁(1014년) 사이 동방과 서방으로



성 콘스탄티누스와 헬렌 그리스 정교회 성당
(튀르키예 카파도키아, 1729년)

나뉘기 이전의 교회 전통에서 형성된 공의회에서 결정된 교회 전통을 원형 그대로 보존해 온 유일한 교회임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정통 교회 혹은 정교회로 부른다. 동방 교회와 서방 교회가 분리되는 주된 요소는 펠리오케(Filioque) 첨가에 대한 논쟁, 9세기 포티우스의 분열, 1054년 상호저주, 1204년 가톨릭의 십자군에 의한 콘스탄티노플 침략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교회의 분열은 교회의 정치적 권위 문제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베드로의 개인적 위엄은 인정하되, 그의 제도적 권능은 거부했던 동방 정교회는 각 주교뿐만 아니라 각 교회의 '존재론적 동등성'을 강력히 주장했으며, 모든 교회들의 수평적 사법권 입장에서 공의회성과 합의가 권위를 가진다는 교회론에 입각한다. 이 점에서 서방 교회의 로마 총주교의 사법적 결정 우위성과는 대조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그리스 오쓰독스 처치, 동방 정교회

● 참고문헌(오프라인) 유해룡 2004, 「동방정교회의 관상적 전통과 예수의 기도」, 『장신논단』, 22, pp.243~264.

서창원 2012, 「동방 정교회와 한국신학과 만남」 『신학과 세계』, 74, pp.94~122.

I A081 | 금나라

● 시기 A.D. 1000년 ~ A.D. 1500년 ● 지역 동아시아 ● 나라 중국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국가 ● 유형 소분류2 왕조
● 집필자 우덕찬 ● 라틴 문자 Jin Dynasty, Jurchen

여진족은 통구스계 민족으로 기원후 5세기경부터 송화강(松花江) 유역과 장백산맥(長白山脈)을 중심으로 반농반목의 생활을 해오면서 12세기 중국 북방의 강력한 정치 세력으로 등장하기 이전에 남만주 지역에서 말갈족(靺鞨族)을 구성하던 종족이다. 특히, 중국 사서에 따르면 당대에 여진족은 중국인들에 의해 여자(如者)라고도 불렸다. 여진족은 10세기 초 거란의 아보기의 지배하에 들어갈 때까지 고구려, 발해의 지배를 받아왔는데 당시, 거란 지배하의 여진족은 숙여진(熟女眞: Civilized Jurchen)과 생여진(生女眞: Uncivilized Jurchen)으로 구분되어 숙여진은 비교적 개화되어 주로 농경에 종사하면서 거란의 직접 통치하에 있었고 생여진은 송화강 동부에 산거하면서 거의 독자적인 통치 체제를 갖추고 있었다. 1100년경 여진족의 추장 아골타(阿骨打)는 완안부(完顏部) 주변에 거주하던 생여진 통합에 성공한 후 1115년 거란의 지배에서 독립해서 자신이 황제임을 선포하면서 금(金: 1115년 ~ 1234년)을 건국했는데 그가 바로 태조(太祖, 재위: 1115년 ~ 1123년)다.

금이라는 왕조명은 남만주의 여진의 주 근거지에 흐르던 강명이 여진어로 금을 의미했다는 데에서 비롯되었다. 한편, 금을 건국한 태조는 본격적인 거란 공략에 나서서, 1121년 거란 영토의 절반 이상이 금에 흡수되었다. 1123년 태조 사후로 등극한 오걸매(吳乞買) 즉, 태종(太宗: 재위: 1123년 ~ 1135년)은 선왕의 정복 정책을 계승해서 누란의 위기에 처해 있던 거란에 대한 공격을 펼쳐, 드디어 1125년 북중국을 중심으로 한 거란의 요조는 멸망되었다. 태종은 이번에는 송(宋)에 대한 공략에 나섰다. 1127년 송의 수도였던 개봉(開封)이 금에 함락되어 중국사에서 북송(北宋: 960년 ~ 1127년)이라는 왕조는 종료되었고 송의 조정은 항주(杭州)에 도읍함으로써 남송시대(南宋時代: 1127년 ~ 1279년)가 시작되었다. 이로 인해, 금이 황하 유역을 포함한 중원을 지배하게 되었는데 금이 북중국을 장악함으로써 송조와 중앙아시아의 접촉은 거의 단절되었고 이로 인해 12세기의 스텝 정세와 그곳에서 형성된 새로운 부족 연맹체들에 관한 사료가 극도로 빈약하게 되었다.

금이 북중국 지배를 시작한 후 금과 송 양측은 회하(淮河)를 넘어 세력 확장을 기도했지만 모두 실패했고 양국간의 평화 조약이 1142년 체결되어 금과 송은 회하를 경계로 불안정한 적대적 공존이 계속되었다. 한편, 금은 제4대 황제인 해릉왕(海陵王, 재위: 1149년 ~ 1161년)의 치세에 이르러 큰 정치적 위기에 직면했다. 그의 치세는 중국 역사와 중앙아시아 역사상 가장 잔혹한 폭압 정치가 수행되었던 기간 중의 하나로서 그의 폭정과 급격한 중국화 정책으로 지배층 내에 심각한 내분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금의 정치적 위기는 종친 살해 및 급격한 중국화 정책에 반대하는 여진 귀족들의 반란으로 해릉왕이 살해되고 1161년 세종(世宗, 재위: 1161년 ~ 1189년)이 즉위함으로써 종식되었다. 세종은 선대의 중국화 정책을 수정하고 중국화를 막는 여러 칙령들을 공포함과 동시에 여진주의(女眞主義)에 입각해서 여진족의 전통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여진 문자의 사용을 장려했고 1171년 여진인을 위한 진사과를 설치했으며 여진국자학(女眞國子學)과 부학(府學)을 설치했다. 또한, 외교 분야에서도 탁월한 외교력을 발휘해서 남송과 화의(和議)를 하여 약 30년간에 걸친 평화 시대를 열기도 했다. 그러나, 남송과의 화의 성립 이후 밀려오는 중국화의 물결은 질박강건했던 여진족을 중국화시켜갔고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조성된 내부 갈등은 연이은 대소반란으로 금조를 쇠잔시켜갔다. 이 무렵, 중앙 스텝 지대에서는 칭기즈 칸의 몽골족이 강력한 새로운 세력으로 급부상하게 되어 1234년 몽골은 송과 연합해서 금을 멸망시켰고 금은 완전 정복되어 당시 발전 도상 상태에 있던 몽골 제국의 일개 지방 행정 구역이 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금조, 금

● 다국어 표기 Great Jin(영어), 金(중국어)

● 연관 검색어 칭기즈 칸

● 참고문헌(오프라인) 룩 관텐 저, 송기중 역, 『유목민족제국사』, 민음사, 19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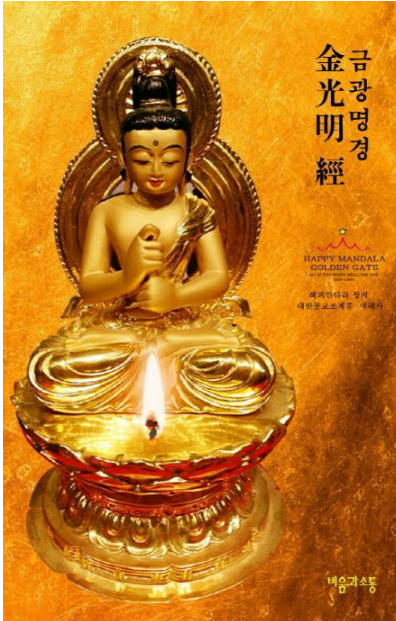
우덕찬 2001, 『중앙아시아사 개설』, 부산외국어대학교출판부.

이희수 1993., 『터키사』, 대한교과서주식회사.

Parker, E.H., A Thousand Years of the Tartars. London, Dawsons of Pall Mall, 1969.

I A082 | 금광명경

- 시기 A.D. 1000년 ~ A.D. 1500년 ● 지역 동아시아 ● 나라 중국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불교 ● 유형 소분류2 서적
- 집필자 장주영 ● 라틴 문자 Golden Light Sutra(Suvarṇaprabhāsa Sūtra)



『금광명경』 표지
Source: <https://product.kyobobook.co.kr/>

『금광명경』은 러시아 투르크 학자 세르게이 말로프에 의해 중국의 간수 지역의 작은 마을 인근 불교 사원에서 발견되었다. 금광명경은 고대 위구르어로 ‘Altun önlüg y(a)ruk yaltrıklığ kopda kötrülmiş nom eligi at!(ı)g nom bitig’라 불린다. 원래 인도에서 범어로 작성되었으며, 이후 중국 및 기타 동아시아 국가로 전파되면서 중국어, 티베트어 및 기타 언어로 번역이 되었다. 위구르어판 금광명경은 싱코 셸리 투통에 의해 중국어에서 위구르어로 번역되었다. 중국에서 한국과 일본으로 전해진 금광명경은,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를 보호한다는 호국적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에, 호국 신앙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금광명경은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해져 다양한 시기에 중국어로 번역이 되었는데, 그중 당나라 고승 의정(義淨)의 번역본이 가장 잘 알려져 있다. 의정의 중국어 번역본을 토대로 고대 위구르어 금광명경이 번역되었다. 의정의 이름은 고대 위구르어 번역본에 중국어로 의정삼장(義淨三藏)이며 ‘kitsu samtso’라 기록된다. 현재 전해지는 고대 위구르어 번역판 금광명경은, 중국어 번역본과 현저한 차이점을 드러내는데, 중국어 번역판에 비해 자세하고 주제의 편집 측면에 있어서도 조화를 이룬다는 특징을 가진다. 고대 위구르어로 번역된 금광명경은 총 10권, 31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정 대사의 중국어 번역본과는 다르게 süü ülüş와 buyan evirmek 부분이 추가되어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알트야룩

- 다국어 표기 सुवर्णप्रभासोत्तमसूत्रेन्द्रराज(산스크리트어)
- 연관 검색어 세르게이 말로프(Sergey Malov), 싱코 셸리 투통, 고대 위구르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akademiye.org/tr/wp-content/uploads/2020/08/altun.png>
- 참고문헌(오프라인) Ölmez, M. 1991. Altun Yaruk III. Kitap (5. Bölüm). Ankara: Türk Dilleri Araştırmaları Dizisi, 1. Kaya, C. (Ed.). 1994. Uygurca Altun Yaruk: giriş, metin ve dizin. Türk Dil Kurumu. Uçar, Erdem 2013, Uygurca Altun Yaruk Sudur IX. Tegziñç, 金光明最勝王經卷第九, Diplomatik Neşir Usûlüyle Yayını. Tercüme, Açıklamalar ve Dizin, Dinozor Kitabevi, İzmir, 313 s. Sayı: 13 Güz 2013, 206.

I A083 | 기도용 깔개

- 시기 기타 ● 지역 기타 ● 나라 튀르키예,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인도,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이집트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수공예 ● 유형 소분류2 카펫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Prayer rug

무슬림이 정기적인 예배를 비롯하여 기도를 할 때 바닥에 까는 1인용 깔개 또는 매트 기원의 명확하지 않다. 예언자 무함마드가 기도를 올릴 때 대추야자 섬유를 엮어 만든 작은 깔개를 사용했다는 기록이나, 2대 칼리프 오마르가 기도용 깔개를 가지고 있었다는 전설 등이 있다고는 하나, 그보다 더 이후의 전통이라는 반론 역시 있다. 다만 여러 기록을 통해 역사적으로 오래된 전통임은 확실하다. 현재까지 보존된 가장 오래된 기도용 깔개는 튀르키예 코니아(Konya) 베이셰히르 에슈레프오을루(Beyşehir Eşrefoğlu) 모스크에서 발견된 아나톨리아 셀주크 카펫으로 13세기 작품이다. 현재 투르크와 이슬람 작품 박물관(Türk ve İslam Eserleri Müzesi, nr. 681, 683, 685, 688, 689, 692, 693)과



기도용 깔개

코니야 박물관(Konya Müzesi, nr. 1034)에서 보관 중이다.

기도용 깔개는 천으로 만들거나, 수를 놓은 천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종류가 있으나 대표적으로 카펫과 러그로 많이 제작된다. 기도용 깔개의 제작 방식과 크기, 문양은 각 지역의 문화적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일반적으로 미흐랍, 램프(Kandil: 모스크에서 주로 사용되는 램프 종류), 카바와 같은 문양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캅카스의 기도용 카펫은 기하학 문양을 조금 더 선호하고, 인도 지역의 경우 식물 문양을 선호하는 등 약간의 지역색 차이 역시 존재한다.

기도용 카펫은 한 사람이 기도하기 적당한 크기로 디자인된다. 앞서 언급한 문양 하나를 이런 크기로 반복하여 하나로 크게 만든 카펫이 모스크에 깔리기도 한다.

중앙아시아의 부하라, 사마르칸트 지역과 인도의 아그라, 라호르, 페테푸르 등이 주요 생산지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기도용 카펫, 기도용 카페트

● 다국어 표기 Joynamoz(우즈베크어), Seccade(튀르키예어), Жайнамаз(카자흐어), Namazlıq xalçaları(아제르바이잔어), Намазлык(타타르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Bayraktaroğlu, Suzan. “Seccâde”, Erdem 28. SAYI, 1999, pp.57~64.
Bozkurt, Nebi. “Seccade”, TDV İslâm Ansiklopedisi Cilt 36, İstanbul:TDK, 2009, pp.269~271.

I A084 | 기련산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동아시아 ● 나라 중국 ● 유형 지리 ● 유형 소분류1 지명 ● 유형 소분류2 산
● 집필자 우덕찬 ● 라틴 문자 Qílián Mountains

기련산은 중국 감숙성 서부와 청해성 북동부의 경계 산지를 가리키는데, 산의 규모는 면적 20만 6,000km², 길이 1,000km, 너비 200~300km, 평균 해발 고도 4,000m 이상이다. 하서회랑(河西走廊) 남쪽에 있어서 남산(南山)이라고도 한다. 치련(祁連)은 몽골어로 ‘하늘(天)’이라는 뜻이다.



기린산

기린산은 중국 전한(前漢) 무제(武帝) 때의 명장 곽거병(霍去病)과 관계가 있다. 그는 흉노와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기린산(祁連山) 일대를 점령하여 흉노를 사막 이북으로 도망가게 만들었다. 이렇듯 그는 흉노 토벌에 큰 공을 세워 한제국의 영토 확대에 지대한 공을 세웠다. 그는 곽중유(霍仲孺)가 위소아(衛少兒: 무제의 위황후의 언니, 大將軍 衛靑의 손윗누이)와 밀통(密通)하여 낳은 아들인데, 무예에 뛰어나고 용감했다고 한다. 18세 때 시중(侍中)이 되어 위청(衛靑)을 따라 흉노 토벌에 나서 공을 세워 관군후(冠軍侯)로 봉해졌다. 3년 후인 B.C. 120년 표기장군(驃騎將軍)이 되어 감숙(甘肅)으로 출정하고, 그해 여름에는 북방으로 말머리를 돌렸다. 이런 식으로 흉노 토벌에 나간 일이 6차례였으며, 정예 부대를 이끌고 대군(大軍)보다 먼저 적진 깊숙이 쳐들어가는 전법을 써서, 한제국의 영토 확대에 지대한 공을 세워 위청과 함께 대사마(大司馬)가 되었는데, 그 권세가 위청을 능가할 정도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그러나 불과 24세로 죽자 무제는 크게 슬퍼하여, 장안(長安) 근교의 무릉(茂陵)에 무덤을 짓되, 일찍이 곽거병이 대승리를 거둔 기린산(祁連山: 天山)의 형상을 띠게 하여 그의 무공을 기렸다. 이 무덤은 지금도 무제릉(武帝陵) 가까이에 있으며, 무덤 앞에는 호인(胡人)을 밟고 선 석마(石馬)가 있다.

『사기』 ‘흉노전 색은(索隱)’ 조에는 ‘서하구사(西河舊事)’란 흉노 민요 한 수가 실려 있다. 내

용은 기원전 121년 한에 격파되어 기련산(祁連山)과 연지산(燕支山, 지금의 감숙성 하서주랑)을 잃은 슬픔을 노래한 것이다.

‘기련산 잃으니 육축이 번식할 수 없게 되고(失我祁連山 使我六畜不蕃息)

연지산 잃으니 부녀들 얼굴이 기색 없게 되었네(失我燕支山 使我嫁婦無顏色)’

우리에게 오랑캐의 대명사로 알려진 흉노의 이 서글픈 민요에 등장하는 연지산은 한국의 곁흔 문화인 ‘연지 곤지’의 기원이 되는 연지꽃이 생산되는 곳이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기련산, 처련산

● 다국어 표기 Altyn-Tagh(몽골어), Qilian Dağları(튀르키예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Qy7FpgeU_J0
<https://url.kr/savknc>

● 참고문헌(오프라인)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Far Eastern Association (U.S.) 2003.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Volume 62, Issue 1.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Grousset, Rene 1970. The Empire of the Steppes. Rutgers University Press.

Schuessler, Axel 2014. “Phonological Notes on Hàn Period Transcriptions of Foreign Names and Words”. Studies in Chinese and Sino-Tibetan Linguistics: Dialect, Phonology, Transcription and Text – Language and Linguistics Monograph Series. Taipei, Taiwan: Institute of Linguistics, Academia Sinica (53).

Winchester, Simon. 2008. The Man Who Loved China: the Fantastic Story of the Eccentric Scientist Who Unlocked the Mysteries of the Middle Kingdom. NewYork: Harper.

I A085 | 나디르 샤

● 시기 A.D. 1500년~A.D. 18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이란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통치자
● 집필자 장주영 ● 라틴 문자 Nader Shah

나디르 샤(Nader Shah, 나디르 콜리 혹은 콜리 베크라고도 불림)는 1688년 10월 22일 현재 이란의 호라산 마사드 북쪽 산에 있는 데스트기르드(Destgird) 마을에서 태어났다. 그의 집안은 페르시아의 사파비드(Safavid) 샤에 충성하는 투르크 부족이었다. 사파비드는 16세기에 시작된 우

즈베크의 침공으로부터 마샤드를 방어하기 위해 북부에 아프샤르(Afshar) 부족을 정착시켰다.

1719년 아프간인들이 페르시아를 침공하여 이스파한을 점령하고, 1722년 사파비드 샤의 마지막 군주였던 술탄 호사니를 폐위시키는 일이 일어났다. 이때 술탄 호사니의 아들 테흐마십은 카즈빈으로 탈출하여, 자신을 테흐마십 2세라고 선포했으며 1720년대 아프간인들에 대한 저항 운동을 이끌었다. 러시아와 오스만 제국 역시 아프간의 페르시아 침공은 자신들에게도 페르시아의 영토를 획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여겨 1723년 페르시아의 일부 지역을 침략하고 정복했다.

이 무렵 나디르는 압디바르 주지사였던 바바 알리 베이의 딸과 결혼을 했는데, 1723년 바바 알리베이가 사망하자 그의 직위를 물려받고자 했으나 내부 부족들 간의 경쟁으로 인하여 후계자가 될 수 없었다. 그는 결국 아프간 침공의 여파로 등장한 페르시아 북동부 여러 신생 조직들과 권력 다툼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이후 1727년 사파비드 왕조의 후계자였던 테흐마십의 눈에 든 나디르는 페르시아 영토의 재정복을 시작했고, 결국 호라산에서 아프간인들을 몰아내고 1729년 아프간에서 페르시아를 독립시킨다. 테흐마십이 샤의 위치에 있었으나, 실질적인 실세는 나디르였다. 나디르가 호라산에서 저항하는 아프간인들의 반란을 진압하는 동안, 나디르의 거듭된 승전에 위기감을 느낀 테흐마십은 오스만 제국에 선전포고를 하지만 현 조지아 및 아제르바이잔 영토를 잃게 된다. 이에 격분한 나디르는 테흐마십을 왕좌에서 몰아내고 그의 어린 아들 압바스 3세(재위: 1732년~1740년)를 왕좌에 앉히며 섭정이라는 명분하에 통치를 하게 된다.

1736년 나디르는 자신의 지위가 확고해졌음을 깨닫고 더이상 사파비드 샤 뒤에 숨어 있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그는 왕좌를 차지한 지 2년 만에 테흐마십이 러시아와 오스만 제국에게 빼앗겼던 영토를 되찾고, 제국을 확장한다. 1738년 그는 칸다하르를 침공하고, 카불을 점령했으며, 그 길로 인도를 향해 진격한다. 그는 델리를 점령했으며 그곳에서 인도 시민 3만 명을 도륙한다. 1740년 나디르는 테흐마십과 그의 두 아들을 죽이고 왕권을 강화한다.

그는 트란스옥시아나를 침공하고 1743년 오스만 제국과의 전쟁을 재개했다. 또한 그는 해군을 구축하고 오만 역시 정복했다.

나디르는 점차 영토를 확장해 나갔지만, 상비 군대의 재정적 부담은 당시 페르시아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았고,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사형을 부과했다. 그는 모든 전리품들을 자신의 소유물로 차지했으며, 국가의 복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위대한 군인이었지만, 예술과 문학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말년이 되자 그의 이러한 억압적인 통치에 반란하는 세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를 암살하려는 시도로 인해 그는 주변의 모든 인물들을 의심하기 시작했는데, 결국 1747년 아프샤르와 카자르 장교의 도당이 나디르를 죽이게 된다. 그의 죽음으로 5년간 후계자 투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후 페르시아를 내전으로 몰아 넣는 계기가 된다.

나디르는 페르시아의 가장 재능 있는 군인, 장교로 제2의 알렉산더, 페르시아의 나폴레옹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국가의 암흑기에 독립을 회복하고, 페르시아의 영토를 보존했지만 그의 강박과 질투, 야욕은 결국 페르시아를 정치적 혼란에 빠뜨리고 말았다. 그는 일생 동안 4명의 여성과 결혼을 했으며, 5명의 아들과 15명의 손자를 두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나디르 샤흐, 나디르 콜리, 나데르 콜리 벡
- 다국어 표기 Nadir Şah(튀르키예어), Nader Shah Afshar(영어)
- 연관 검색어 트란스옥시아나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en.wikipedia.org/wiki/Nader_Shah
- 참고문헌(온라인) <https://www.iranicaonline.org/articles/nader-shah>
<https://www.ias.edu/ideas/2018/matthee-nader-shah>
<https://www.iranchamber.com/history/afsharids/afsharids.php>
<https://islamansiklopedisi.org.tr/nadir-sah--iran>
- 참고문헌(오프라인) Kizilkaya, O., & Sezgi, E. 2017. NADİR ŞAH'IN İRAN'DA TAHTA GEÇMESİ VE BAZI FAALİYETLERİ. TURAN: Stratejik Arastirmalar Merkezi, 9(35), 71.

I A086 | 나르보타비이

- 시기 A.D. 1500년 ~ A.D. 1800년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군주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Narbo'ta biy

나르보타비이(Narbo'ta biy, 재위: 1774년~1798년, 자료에 따라서는 1763년~1798년 또는 1770년~1800년으로 추정하기도 함)는 코칸드 칸국의 칸이었다.

1750년부터 코칸드 칸국의 칸이었던 에르더나비이(Erdonabiy)가 1764년에 사망한 후 1770년 술라이먼(Sulaymon)에게 제위가 넘어갔지만, 3개월 만에 살해되고 셔흐루흐 3세(Shohruh III, 재위: 1770년)가 칸의 자리에 올랐다. 그러나 코칸드의 귀족들은 압둘카림비이(Abdulkarimbiy, 재위: 1733년~1750년)의 손자였던 나르보타비이를 코칸드로 초청했다. 에르더나비이가 제위에 오르던 당시 압둘카림비이의 모든 가족을 살해했지만, 유일하게 살아남은 나르보타비이가 후계자로 지목된 것이다. 코칸드의 귀족들은 나르보타비이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칸의 자리에 오를 것을 설득했다. 나르보타비이는 결국 칸으로 선포되었다.

나르보타비이는 통치의 권위를 세우고자 노력하며 나망간(Namangan)과 추스트(Chust)의 분리주의적 움직임을 누르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이들 형제가 일으킨 반란을 진압하며 오쉬(Osh), 안디잔(Andijan), 마르길란(Marghilan), 나망간을 정복했다. 청나라와 외교 관계를 유지했고, 청나라 역시 그를 ‘칸’으로 기록했다. 부하라 토후국과는 대체로 경쟁 관계였다. 그의 통치 시기에 코칸드 칸국의 물가는 안정되었으며, 물자는 풍부하게 유통되었다. 또한, 당시에 탄가(tanga)라는 고액 통화 대신에 작은 단위의 구리 동전인 팔스(fals, 또는 팔루스(falus)를 유통하도록 했다.

이 당시 코칸드 칸국에서는 마드라사와 모스크를 비롯한 대형 건축물이 다수 건설되었고 문화의 중심지로서 시인을 비롯한 예술가들이 페르가나로 모여들었다. 그가 사망할 때까지 코칸드 칸국에는 커다란 반란의 움직임 없이 국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었다. 나르보타비이는 다섯 명의 딸과 여섯 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장남인 올림 칸(Olimxon)이 제위를 이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나르보타 베이, 나부타 베그

● 다국어 표기 Narbo'ta biy(우즈베크어), Narbuta Bek(영어), Narbuta biy(아제르바이잔어)

● 연관 검색어 코칸드 칸국, 에르더나비이, 올림 칸

● 참고문헌(오프라인) Bababekov, H. N. "Part Two: Ferghana and the Khanate of Kokand", History of civilizations of Central Asia, v. 5: Development in contrast, from the sixteenth to the mid-nineteenth century Paris : UNESCO, cop. 2005, pp.73~83.

Dubovitskii, Victor. Khaydarbek Bababekov, "The Rise and Fall of the Kokand Khanate", Ferghana Valley : the heart of Central Asia, London ; NewYork : Routledge, 2015, pp.29~68.

Alpargu, Mehmet. "Türkistan Hanlıkları", Türkler Cilt 8, Ankara:Yeni Türkiye, 2002, pp.957~1045.

I A087 | нама즈

- 시기 기타 ● 지역 기타 ● 나라 기타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이슬람 ● 유형 소분류2 신행
- 집필자 박현도 ● 라틴 문자 Namaz

나마즈는 페르시아어로 예배를 뜻한다. 페르시아어에서 투르크어로 전해진 нама즈는 몸동작을 수반한 예배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기도로 번역하는 두아(Du'a)나 특정 문구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디크르(Dhikr, Zikr 지크르)와 확연하게 다르다. 중국 무슬림 역시 нама즈라는 용어로 예배를 가리켰다. 한자로 나이마즈(Naimazi, 乃玛孜)로 표기하는데, 페르시아어 또는 투르크어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예배할 때 서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바닥에 대고 절하는 자세를 취했다가 다시 선 동작으로 오는 일련의 과정을 라크아(rak'ah)라고 하는데, 하루에 총 17번의 라크아를 한다. 라크아 한 번에 상체를 굽혀 절하는 동작이 한 번, 엎드려 절하는 동작이 두 번이다. 예배하기 전에는 우두(wudu, vozu 보주, abdest 아브데스트)라고 하는 정결례를 반드시 행해야 한다. 의례적으로 상당히 불결한 상태이거나, 몸에서 액이 분비되었을 경우에는 먼저 대정결례(목욕)를 한 후 다시 소정결례를 행한다. 정결례 방식은 각 법학파마다 차이가 있다.

예배는 하루 5번 드리는데 각 예배의 이름, 시각, 라크아 수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예배 파즈르(Fajr)는 일출 전 여명이 들 때 드리는데 라크아는 2번이다. 두 번째 예배 주후르(Zuhur)는 태양이 정오선에 위치할 때 드리고 라크아는 4번이다. 세 번째 예배 아스르(Asr)는 사물의 길이와 그림자의 길이가 같을 때 드리고 라크아는 4번이다. 네 번째 예배 마그립(Maghrib)은 일몰 때 드리고, 라크아는 3번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 예배인 이샤(Isha)는 어둠이 질 때 드리고, 라크아는 4번이다.

시아는 두 번째 예배를 마치고 잠시 쉬 후 세 번째 예배를 행하고, 네 번째 예배를 마치고 잠시 쉬 후 다섯 번째 예배를 드린다. 시아가 하루에 세 번밖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실 내용상 다섯 번의 예배를 모두 다 드린다. 예배 전에 예배 시간을 알리는 소리 아단(Adhan, Ezan 예잔)이 낭랑하게 퍼지는데, 예배를 알리는 사람을 무앗딘(Muadhhdhin, Muezzin 무에진, Müezzin 뮌젠킨)이라고 부른다. 과거에는 모스크 첨탑에서 육성으로 알렸는데, 오늘날에는 마이크를 쓴다. 예배는 각자 원하는 장소에서 드리는데, 금요일에는 공동체 일원들과 함께



모스크에서 드리는 нама즈

합동 예배를 행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나이마즈, 이슬람식 예배
- 다국어 표기 Namaz(튀르키예어), Namoz(우즈베크어), Namaz(아제르바이잔어), Hamaz(카자흐어)
- 연관 검색어 사바흐 нама즈, 이킨디 нама즈, 아브데스트, 예잔, 뮌젠티
- 멀티미디어 링크 [tps://url.kr/5ugaps](https://url.kr/5ugaps)
- 참고문헌(오프라인) Brown, Daniel W. An Introduction to Islam, 3rd. ed., Chichester: Wiley-Blackwell, 2017.
Monnot, G. “Şalât.” In Encyclopaedia of Islam, 2nd. ed., 925~934. Vol. 8. Leiden: Brill, 1995.

I A088 | нама즈가흐 모스크(부하라)

- 시기 A.D. 1000년 ~ A.D. 1500년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건축
- 유형 소분류2 모스크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Namazgah Mosque

나마즈가흐(Namazgah)는 일반적으로 오픈 에어 모스크, 즉 야외 사원을 의미한다. 대규모 군중이나 군대를 수용할 수 있는 нама즈가흐는 주로 도시 외부나 도로를 따라 지어졌다. 금요일 예배는 일반적으로 도시 내의 금요일 모스크 또는 대 모스크에서 행해지지만, 야외 사원은 이드 알피트르나 이드 알아드하와 같은 종교적 축일 등에 사용된다.

부하라의 нама즈가흐는 도시의 남쪽에 건설되었다. 카라한 칸국의 알프 아르슬란 칸 무함마드(Alp Arslan Khan Mukhammad, 재위: 1102년~1130년)의 명으로 1119년에 건설되었는데 세 번에 걸쳐 크게 변형되었다.

12세기 건설 당시에는 키블라 벽은 약 38m 가량이었으며 벽돌로 만들어졌다. 이 미흐랍의 양 옆에는 블라인드아치(blind arch)가 있었고, 앞마당은 이 기도 공간과 구분하기 위해 일부분 막혀 있었다. 미흐랍 벽감과 벽면 장식으로 12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두 번째 변형은 13세기에 일어난다. 일 칸국 시대에 기하학 문양의 벽돌과 테라코타 장식이 추가되었다. 15세기 티무르 왕조에는 타일로 만든 장식을 추가했다.

마지막 가장 큰 변형은 16세기에 아스트라 칸국(Astrakhanid) 시대에 일어난다. 3개의 베이(bay)로 구성된 주랑 현관과 새로운 파샤드를 만들었고 키블라 벽에 피슈타크(pishtaq, 이완을 둘러싼 직육면체)가 추가되었다. 또한, 벽돌로 만든 민바르가 주랑 현관의 북쪽 모서리에 배치되었다. 아마도 이전에는 벽돌 대신 목재로 만든 민바르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나마즈가흐는 구운 벽돌, 테라코타, 설화 석고로 만들어졌으며 전체적으로 황토 빛을 띠고 있다. 건물 내부의 테라코타 패널에는 다색의 장식이 있었던 흔적이 있다. 피슈타크에는 쿠픽 서체로 장식된 푸른색 타일 띠가 둘러져 있다. 이 장식에는 알라와 무함마드, 그리고 네 명의 칼리프의 이름이 적혀 있다. 이 서체 장식의 빈 곳 역시 팔각형과 별 문양의 푸른색 타일로 채워져 있다. 첨두아치(pointed arch)형 미흐랍의 상단 부분은 무카르나스로 만들어져 있고, 루미, 덩굴, 잎사귀, 연꽃과 같은 양식화된 문양과 기하학 문양으로 채워졌으며 서체 장식도 있다.



나마즈가흐 모스크 정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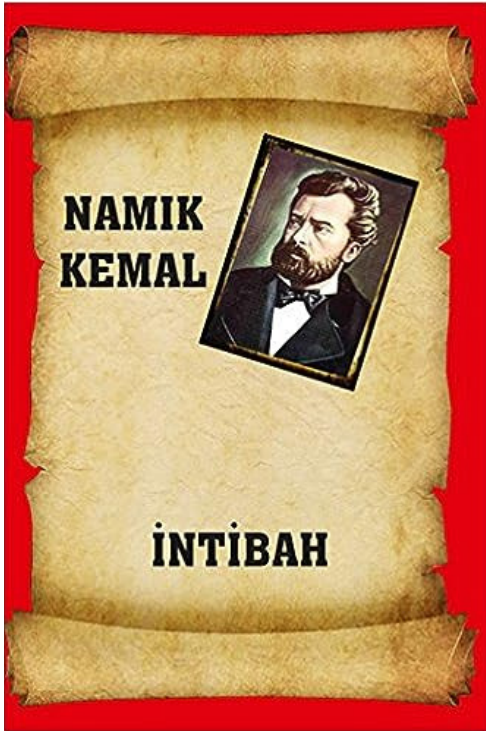
19세기까지 нама즈가흐로 사용되었으나 이후 점차 사용되지 않았고, 도로 가까이에 있어서 현재는 많이 훼손된 상태이다.

이 모스크는 당시 옥외 모스크 중 하나로 수 세기에 걸쳐 끊임없이 수리된 흔적이 명확하여 시대별 건축 요소 발달을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건축물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нама즈가흐, намажер
- 다국어 표기 Buhara Namazgah(튀르키예어), Namagoh Masjidi(우즈베크어)
- 연관 검색어 카라한, 카라한 칸국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s3.amazonaws.com/media.archnet.org/system/media_contents/contents/1444/medium/IHU0487.jpg?1384685529
- 참고문헌(오프라인) Aslanapa, Oktay. Türk sanatı, İstanbul: Remzi Kitabevi, 2015.
Cezar, Mustafa. Anadolu Öncesi Türklerde Şehir ve mimarlık, Ankara: İş Banka, 1977.
Çeşmeli, İbrahim. Antik çağdan 13. yüzyıla kadar Orta Asya ve Karahanlı dönemi mimarisi, İstanbul : Arkeoloji ve Sanat yayınları, 2007.

I A089 | 나므크 케말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Metin Turan) ● 라틴 문자 NÂMIK KEMAL



『기상(İntibah)』 책 표지

나므크 케말은 튀르키예의 근대 문학 태동과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작가이다. 그는 1840년 12월 21일 테키르다오에서 태어났다. 그의 본명은 메흐메트 케말이다. ‘나므크’는 필명이다. 나므크 케말은 오스만 제국의 고위 공직자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술탄 압뮐하미드 2세 때 천문(天文) 수장을 맡았던 무스타파 아슴이다.

나므크 케말은 외조부 압둘라티프 파샤 슬하에서 자라면서 과외교사들에게서 개인교습을 받았다. 외조부가 1846년 아피온카라히사르(Afyonkarahisar)에 세관 공무원으로 발령을 받자, 나므크 케말은 어머니와 함께 아피온카라히사르에 가게 됐다. 아피온에서 지내는 동안에도 과외교사들에게 개인교습을 들으며 학업에 열중했다. 그리고 외할아버지 압둘라티프 파샤의 권유로 메블레비(Mevlevilik) 수피즘을 알게 되어 ‘세마의식’

도 경험했다.

1848년 나므크 케말이 8살이 되던 해에 어머니 파트마 제흐라가 라마단 직전에 질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어머니를 잃은 나므크 케말은 외할아버지 압둘라티프 파샤를 따라 이스탄불로 돌아와서 베야르트 중학교, 그리고 발리데 멕테비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계속했다. 학교를 다니는 동안 교사 샤키르의 영향으로 문학과 역사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압둘라티프 파샤는 파트마 제흐라가 죽자 발령받아 가는 곳마다 손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학문과 소양을 키우는 것에 꽤

신경을 썼지만 잦은 이동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하지는 못했다. 그래도 나르크 케말이 성장하는 동안 아버지보다는 외할아버지가 손자 교육에 신경을 더 많이 썼다고 할 수 있다. 연구자 알리에크렘은 “나르크 케말이 아버지 무스타파 아슴의 개혁 정신을 물려받았다”고 했다. 하지만 사실 무스타파 아슴은 아들이 본인을 닮지 않았으면 했다. 왜냐하면 개혁가인 그는 그 시기 오스만 제국을 개혁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들인 나르크 케말이 국민을 일깨우고, 주권을 세우기 위해 애쓰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외조부 압둘라티프 파샤는 1853년 카르스에서 근무하다가 1855년 5월 소피아에 군수로 발령을 받았을 때도 나르크 케말을 데리고 갔다. 그 당시 나르크 케말은 15살이었는데 식견이 높아지고 사고의 지평도 넓어지기 시작했다. 소피아는 이스탄불과 가깝고 카르스에 있을 때보다는 활동할 수 있는 주변 환경이 갖춰져 나르크 케말에게 중요한 변화의 계기가 됐다. 소피아에서도 나르크 케말은 개인 과외 교사들에게 교육을 받았고 페르시아어와 아랍어도 수준급 실력으로 향상됐다. 그리고 수피(tasavvuf)와 범신론(Vahdet-i Vücut felsefesi)에도 관심을 두기 시작했고, 이븐 아라비(Muhiddin Arabi)와 메블라나도 탐독했다. 민중 음유 시인 아시옥(şıklık) 문화가 강하게 남아 있는 카르스에서는 민속 시를 접했다. 국경지역에 있는 이 도시에서 그는 아시옥 시를 통해 애국심이 고양됐다. 나르크 케말이 카르스에서 보냈던 어린 시절을 머릿속에 떠올려 당시의 풍습을 배경으로 썼던 작품이 「제즈미(Cezmi)」라는 소설이다.

그는 고전 시인들을 공부했고, 아루즈(Aruz) 운율도 배웠다. 고전시 영향을 받은 나르크 케말은 첫 작품을 소피아에서 썼고, 가젤(gazel), 운율시(nazire), 케르벨라(Kerbela) 장송곡(mersiye) 등을 썼다. 외조부 압둘라티프 파샤의 손님으로 시인이었던 소령 에쉬레프가 소피아에 왔을 때 이 시들을 보게 됐는데, 시가 너무 훌륭하니 필명이 있어야 한다면 ‘나르크’란 이름을 지어줬다. 그 이후 줄곧 ‘나르크 케말’을 사용했다. 간혹 고전시 형식으로 시를 쓸 때에는 ‘히타미 아제비(Hitâmi-i Acemî)’, 혹은 ‘엣다이(Eddâi) 케말’을 사용하기도 했다.

48년이라는 짧은 생을 살았던 나르크 케말의 인생 역정은 이른 나이에 시작됐다. 14살에는 자신이 쓴 시가 공책 한 권 가득 채웠고, 소피아에서 결혼을 했던 나이는 고작 16살이었다. 22살에 시집을 냈으며 25살에는 유명인으로 알려지게 됐다. 다방면으로 고뇌했던 나르크 케말은 시 이외에 다른 장르에서도 작품을 저술했다. 소설, 신문, 역사, 연극 등에서 사회, 정치적 문제에 대한 견해를 포함해 글을 썼다. 조직 활동도 시작했다. 1865년 서유럽과 같이 의회를 바탕으로 입

헌 정치 제도를 도입하고자 한 젊은이들과 함께 ‘애국 동맹(ittifak-ı hamiyet)’에 들어갔는데, 이 비밀 조직의 이름은 나중에 ‘신(新)오스만주의파(Yeni Osmanlılar)’로 바뀐다.

쉬나시(Şinasi)의 총괄로 <타스비리 아프카르(Tasvir-ı Efkâr)> 신문이 1862년부터 발간되기 시작했는데, 4개월 뒤 나르크 케말은 기자로 일하게 되었다. 쉬나시의 지휘 아래 사회와 정치면을 다루었다. 2년 반 동안 함께했던 쉬나시가 1865년 파리로 떠나자 나르크 케말이 신문사의 책임자가 됐다. 이때 나르크 케말이 다뤘던 내용은 주로 교육과 교사와 관련된 것이었고, 이어서 ‘여아들도 남아처럼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성교육을 강조한 최초의 지식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1864년에는 고아와 가난한 무슬림 아동들의 교육을 위해 설립된 학교인 ‘이슬람 공동체 학교(Cemiyet-i Tedrisiye-i İslamiye)’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했다. 이 시기에 프랑스로 진행하는 치의과 수업을 튀르키예어로 바꿔야 한다고 요구를 한 것도 혁신가로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

‘신(新)오스만주의파(Yeni Osmanlılar)’의 무스타파 파즐 파샤(Mustafa Fazıl Paşa)가 파리로 간 이후, 이스탄불에서 발행하는 <동방 소식(Courrier d’Orient)> 신문의 대표 기암피에트리(Giampietri)가 지야 파샤(Ziya Paşa), 알리 수아비(Ali Suavi), 아가흐 에펜디(Agah Efendi), 나르크 케말이 파리에 갈 수 있도록 주선했다. ‘신(新)오스만주의파(Yeni Osmanlılar)’라는 단체 이름으로 출판을 하면서 활동을 지속해 나갔던 나르크 케말과 동료들은 덕분에 1867년 5월 17일 파리로 도피할 수 있었다. 파리에 온 지 한 달 정도 됐을 때 술탄 압둘라지즈가 프랑스에 방문한다는 것을 알게 된 이들은 프랑스에 체류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 하에 런던으로 건너갔다. 상황이 새로운 양상으로 변하는 사이 알리 수아비와 나르크 케말, 지야 파샤의 관계는 벌어지고 소원해지게 된다. 런던으로 건너간 나르크 케말과 지야 파샤는 1868년 6월 29일부터 <Hürriyet(자유)> 신문을 발행하기 시작했다.

‘신(新)오스만주의파(Yeni Osmanlılar)’ 창립 멤버 중의 하나였던 마흐무드 네딤 파샤가 총리직을 맡고 난 다음, 나르크 케말은 사면됐다. 덕분에 유럽에서 고국으로 돌아온 나르크 케말은 ‘신(新)오스만주의파(Yeni Osmanlılar)’에 소속된 누리, 레사드, 에부지야 테브피크와 함께 <미래(İstikbal)> 신문을 만들려고 애썼다. 그러나 정부의 인가를 받지 못하자 아르메니아인 알렉산더 사라프얀(Aleksandr Sarrafyan)이 발행하는 풍자 신문 <교훈(İbret)>을 대리 발행했다.

1872년 6월 13일 나르크 케말이 진두지휘하며 새롭게 발행한 신문 <교훈(İbret)>은 가장 영

향력 있는 신문으로 성장한다. <교훈(İbret)>신문 지면을 통해 격렬한 정치논쟁이 시작됐고 정권의 언론 탄압을 비판하는 글이 실렸다. 비판이 계속되자 100번째 신문이 발행된 날, 한 달 동안 신문 발행이 금지됐다. 이런 상황에 직면하자 나므크 케말은 「조국인가, 실리스트라(불가리아 지명, Vatan Yahut Silistre)인가, 그 선택이 문제로다」라는 연극 시나리오를 완성했다. 그리고 <교훈(İbret)> 신문 재발간 승인을 받은 날에 굴루 아고프(Güllü Agop) 극단에 시나리오를 넘겨줬다.

「조국인가, 실리스트라(불가리아 지명, Vatan Yahut Silistre)인가, 그 선택이 문제로다」를 처음 공연했던 1873년 4월 1일 밤에 감격에 벅차 오른 관객들은 나므크 케말을 길에서 환호하면서 신문협회까지 행진했다. 그 다음 공연 역시 같은 분위기가 이어졌는데 정부는 이를 이유로 신문을 무기한 폐쇄했다. 그리고 나므크 케말, 에부지야 테브피크, 누리, 이스마일 하크, 아흐메트 미드하트는 체포됐다. 며칠 뒤 그는 ‘유해간행물 유포’ 죄로 키프로스에 있는 마우사(Mağusa)로 유배되었다.

3년이 넘도록 마우사에서 수감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그는 글쓰기를 지속했고, 역사를 탐구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기상(İntibah)』, 『장미씨(Gülñihal)』, 『가여운 아이(Zavallı Çocuk)』, 『불행한 참사(Kara Belâ)』와 같은 작품을 마우사에서 썼다. 술탄 무라트 5세가 왕위를 오르면서 나므크 케말은 일반 사면됐고 1876년 6월 18일 이스탄불로 돌아왔다.

국가, 국민, 정부와 같은 개념을 사람들에게 심어주면서 민족의식을 고양하고, 커다란 사회적 파급력을 지녔던 나므크 케말은 튀르키예 시 장르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동시대 작가인 아흐메트 미드하트, 에부지야 테브피크는 물론이고, 후속 세대 작가 압틸하크 하미트, 레자이자데 마흐무트 에크렘, 테브피크 피크레트, 사미 파샤자데 세자이, 메흐메트 아키프 에르소이, 메흐메트 에민 유르다쿨 등 그의 영향력은 간과할 수 없다..

그는 에게해 키오스(Sakız) 섬에서 근무 중 향년 48세로 1888년 12월 2일 폐렴으로 사망했다. 묘는 젤리볼루에 안치돼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나므 케말
- 다국어 표기 NÂMIK KEMAL(튀르키예어), NAMIK KEMAL(영어)
- 연관 검색어 압틸하미드 2세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rl.kr/emaiddv>

● 참고문헌(온라인) Şengül, Abdullah. Türk Edebiyatı İsimler Sözlüğü. Erişim tarihi, 16.06.2020.

● 참고문헌(오프라인) Ali Ekrem, *Namık Kemal*, Milli Eğitim Bakanlığı Yayınları, İstanbul 1992.

Akün Ömer Faruk, “Namık Kemal”, *İslam Ansiklopedisi*, (32. Cilt), Türk Diyanet Vakfı Yayınları, İstanbul, 2006.

Karataş Turan –Tavukçu, Orhan Kemal (Editör), *Namık Kemal*, Kültür ve Turizm Bakanlığı Yayınları, Ankara, 2011.

Tanpınar Ahmed Hamdi, *19'uncu Asır Türk Edebiyatı Tarihi*, Çağlayan Kitabevi, İstanbul 1985.

Uçman Abdullah, *Namık Kemal*, Kültür ve Turizm Bakanlığı Yayınları, Ankara, 2011.

I A090 | 나브루즈

● 시기 기타 ● 지역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 나라 아제르바이잔, 튀르키예,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란, 아프가니스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의례 ● 유형 소분류2 명절
● 집필자 오은경, 박현도 (자문위원 : Bedirxan Əhmədli) ● 라틴 문자 Navruz

나브루즈의 어원은 페르시아어 ‘노루즈’다. 페르시아어로 ‘노’는 ‘새로운(new), ‘루즈’는 ‘날(day)’이라는 뜻으로 ‘새로운 날(new day)’이다. 새해 첫날과 봄의 시작을 축하하는 명절로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날이다. 고대부터 아제르바이잔, 이란, 아프가니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과 같은 많은 국가들이 새해를 맞이하는 것을 의식과 명절로 삼았다.

이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시리아, 아제르바이잔, 바레인, 레바논, 파키스탄, 인도, 타지키스탄, 튀르키예, 알바니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에서 기념하는데, 지역에 따라 나브루즈(Navruz), 나우루즈(Nowruz), 노브루즈(Novruz), 누루즈(Nooruz), 네브루즈(Nevruz), 네우로즈(Newroz) 등 명칭이 조금씩 다르다. 그러나 이를 기념하는 모든 나라에서 나브루즈는 신년맞이 명절이다. 태양력과 바하이 신앙(Bəhai dini)의 달력에서는 새해가 3월부터 시작한다. 페르시아력의 첫 번째 달인 파르바르딘(Farvardin)월 첫 날이다. 태양력으로 환산하면, 춘분에 해당하는 3월 21일이나, 아제르바이잔,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에서는 3월 22일에 기념한다. 이란과 아프가니스탄에서는 3월 21일을 달력의 공식적인 첫날로 여긴다.

나브루즈는 조로아스터교에서 기원했으나 오늘날에는 종교적 의미보다 만물이 소생하는 따

뜻한 봄을 맞이하는 세속적인 명절로 널리 쇠고 있다. 특히 중앙아시아 5개국(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에서는 소비에트 시기에 금지되었다가, 독립 이후 국가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자국의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국경일로 공식 지정하여 매년 성대한 축제를 열고 있다. 나브루즈는 과거 페르시아의 영향을 받았던 발칸반도, 흑해, 코카서스, 중앙아시아 및 중동 지역에서 약 3천년 전부터 3억 명 이상이 기념하는 명절이다. 유네스코는 2009년 9월 나브루즈를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등재했고, 유엔 총회는 2010년 5월에 3월 21일을 ‘국제 나브루즈의 날(International Nowruz Day)’로 지정했다.

아제르바이잔인들의 나브루즈(노브루즈)와 관계된 풍습을 예를 들어 보자. 그들은 노부루즈 명절의 새매니(səmāni, 밀의 새싹)를 ‘새해가 왔다’, ‘자연이 깨어났다’와 같은 농사의 상징으로 여긴다. 아제르바이잔 농민들은 ‘새매니’ 싹을 보면서 한 해의 번영과 풍요를 기원한다. 명절 4주 전부터 매주 화요일마다 불을 피우다가, 나브루즈 기간에는 지속적으로 모닥불을 피운다. 모닥불에 불을 붙이고 노래를 부르며 불과 태양에 대한 신앙심을 노래한다. 이 모든 의식들은 이슬람교 이전부터 존재했던 고대 풍습이다. 봄이 왔다는 것을 신성한 자연 섭리로 여기면서 의식을 거행하고 새해 첫날로 삼았던 것이다.

아부 알리 알하산 알투시 니잠 알물크(Abu Ali Hasan ibn Ali Tusi Nizam al-Mulk)는 『정치록(政治錄, Siyasətnamə)』이라는 작품에서 나브루즈(노부루즈)는 새해 시작이며 온 국민이 함께 쇠는 명절이라고 언급했다. 「봄의 찬가(바하리야, Bahariyyə, Bahar)」라는 서정시에서도 나부루즈를 묘사하고 있다.

나브루즈 명절에는 다양한 민속놀이들이 행해진다. 이 놀이들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는 ‘아트르마(atırma)’, ‘할라이(halay)’, ‘배뇌브새(bənövşə)’, ‘말경기(cıdır)’, ‘앤젤리(ənzəli)’, ‘코사-코사(Kosa-kosa)’ 등이 있다.

고대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민간 신앙은 우주가 물, 불, 땅, 바람의 네 가지 요소로 이뤄져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런 신앙을 보여주는 의식도 나브루즈 기간 동안 행해진다. 예를 들면, 매년 아제르바이잔에서는 노브루즈 명절, 즉 밤과 낮의 길이가 같아지는 전날 4가지의 ‘채르샌배(çərşənbə)’가 매주 수요일 거행된다. 각 채르샌배는 위에 언급한 물, 불, 땅, 바람의 네 가지 요소와 관련이 있다. 첫 번째 채르샌배는 물 채르샌배이다. 즉, 얼어붙은 강들이 녹기 시작하면 여자들은 시원한 약수로 집 근처에서 세수를 한다. 두 번째는 불 채르샌배이다. 봄볕이 서서히 흠

을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불 채르샌배에서는 불을 피우는데, 식구의 수만큼 초를 태운다. 집 안에는 달콤한 음식으로 쟁반을 장식한다. 이런 쟁반을 콘차(Xonça)라고 부른다. 세 번째는 바람 채르샌배이다. 바람은 땅과 꽃들을 흔든다. 네 번째는 땅 채르샌배이다. 자연이 땅을 물로 젖게 하고 태양으로 따뜻하게 한다. 이제 봄의 첫 농사는 쟁기로 땅 채르샌배를 하면서 시작한다. 나이 든 여성들이 ‘새매니, 나를 보살펴 줘라, 나도 너에게 매년 싹을 트게 해줄게.(Səməni, saxla məni, ildə göyərdərəm səni)’라고 하며 밀에 물을 주는 의식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네브루즈, 노로즈, 노브루즈, 나브로즈, 나우루즈, 누루즈, 네우로즈
- 다국어 표기 Navro'z(우즈베크어), Novruz(아제르바이잔어), Наурыз(카자흐어), Nowruz(투르크멘어), Nevruz(튀르키예어), Нарыз(러시아어), Nowruz(영어)
- 연관 검색어 코사-코사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en.wikipedia.org/wiki/Mufti#/media/File:Atai_\(Walters_MS_666\)_-_A_Juriconsult_Giving_Sexual_Advice_\(cropped\).jpg](https://en.wikipedia.org/wiki/Mufti#/media/File:Atai_(Walters_MS_666)_-_A_Juriconsult_Giving_Sexual_Advice_(cropped).jpg)
<https://www.advantour.com/uzbekistan/holidays/navruz.htm>
- 참고문헌(온라인) Boyce, Mary. “NOWRUZ i. In the Pre-Islamic Period.” Encyclopædia Iranica, online edition, 2016.
<http://www.iranicaonline.org/articles/nowruz-i>
Shahbazi, A. Shapur. “NOWRUZ ii. In the Islamic Period.” Encyclopædia Iranica, online edition, 2016.
<http://www.iranicaonline.org/articles/nowruz-ii>
Cristoforetti, Simone. “NOWRUZ iii. In the Iranian Calendar.” Encyclopædia Iranica, online edition, 2016.
<http://www.iranicaonline.org/articles/nowruz-iii>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cognizes 21 March as International Day of Nowruz, Also Changes to 23~24 March Dialogu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Feb. 23, 2010.
<http://www.un.org/press/en/2010/ga10916.doc.htm3>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Nowruz Day 21 March.”
<http://www.un.org/en/events/nowruzday/>
- 참고문헌(오프라인) Azərbaycan ədəbiyyatı tarixi. 6 cildə, 1 c., Bakı, 2004.
P.Əfəndiyev. Azərbaycan şifahi xalq ədəbiyyatı. Bakı, Maarif, 1992.

I A091 | 나스렛딘 호자

● 시기 A.D. 1000년 ~ A.D. 1500년 ● 지역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Metin Turan) ● 라틴 문자 Nasreddin Hoca

나스렛딘 호자는 투르크 민족들의 구전 문학과 풍자 문학을 주도한 인물이다. 본인이 작가이기도 하고 작품 속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나스렛딘 호자는 논쟁의 여지가 없이 역사적 위인이다. 사회 문화적 요소에서 나스렛딘 호자의 가르침이 곳곳에 투영돼 있을 정도로 그는 중요한 인물이다.

그는 13세기 초 셀주크 시대 에스키셰히르의 호르투 마을(현재는 나스렛딘 호자 마을)에서 태어났다. 그는 마을 너머에 있는 시브리히사르 신학교에서 공부를 마친 아나톨리아 학생이었다. 청년 시절에는 당시 수도였던 코니아에 있는 신학교에서 율법(법)을 공부했고 메블라나를 만났다. 그리고 신비주의도 알게 됐다. 그리고 당시 코니아에서 존경과 사랑을 받는 수피 신자 세이디 마흐무드 하이라느(Seydi Mahmud Hayranî)와 교분을 맺었고 일각에서는 그의 밑에서 수피 수련생이 되었다고도 한다. 세이디 마흐무드 하이라느가 악셰히르(코니아의 한 동네)에 와서 정착할 때, 나스렛딘 호자도 악셰히르로 이주했다. 그리고 여기에서 평범한 삶을 살았고 결혼도 했다. 생계를 위해 모스크에서 예배할 때 기도를 이끄는 이맘, 판관직도 맡았다. 악셰히르에 있는 나스렛딘 호자의 묘비를 보면, 1393년 오스만 제국의 술탄 이을드름 바예지드(Yıldırım Beyazid) 시대에 기병인 메흐메트(Mehmet)가 나스렛딘 호자의 묘에 다녀갔음을 알 수 있다. 묘비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글은 무한하고, 사람은 유한하다. 사람은 반역을 하고 신은 용서를 한다. 이 글을 이을드름 베이아지드의 기병대 병사 메흐메트가 남긴다(1393년~1394년, 이슬람력 796년).’

나스렛딘 호자의 이름이 발견된 문서 2개의 날짜는 13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하나는 세이디 마흐무드 하이라느(1257년, 이슬람력 655년), 또 하나는 이브라힘 술탄(1267년, 이슬람력 665년)의 것이다.

나스렛딘 호자와 관련하여 기록된 것은 이것밖에 없다. 이들 기록을 참고할하여 출생과 사망 연도를 1208년~1284년이라고 추정한다.

역사적 사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호자의 일화를 기록과 구전으로 전하는 자료에 대한 해석은 투르크 공동체마다 다르다. 그런데 이들 중 누구에게 묻더라도 투르크 민족들은 하나같이 나스렛딘 호자가 자기 지역 사람이라고 말한다. 예를 들어 투르키스탄에서 살았던 위구르족은, 나스렛딘 호자가 자기네 땅에서 태어났고, 한평생 동투르키스탄과 중국 땅을 여행했다고 믿고 있다. 중국 어느 지역에 살든 중국인에게 물어보면 나스렛딘 호자는 북방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살았다고 한다. 우즈베키스탄 사람들도 나스렛딘 호자가 우즈베키스탄 땅에서 생활했다고 주장하며, 호자는 우즈베키스탄 사람이고, 부하라에서 태어났다고 보고 있다. 부하라에 세워진 나스렛딘 호자의 동상이 그 증거이다. 같은 맥락으로 아제르바이잔 사람들도, 가가우즈(Gagauzlar)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어이없을 정도로 나스렛딘 호자의 출생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주장은 나스렛딘 호자 특유의 재치와 웃음이 얼마나 보편적 인류애를 담고 있었는지에 대한 반증이다. 문학 평론가 바이락은 “나스렛딘 호자는 좁은 의미에서 아나톨리아 민중의 700년 삶이 담긴 작품, 넓은 의미에서는 ‘아시아와 유럽 사람’의 공동 작품이다.”라고 말한다.

호자가 역사적 인물이라는 증거는 없어도 역사적 인물일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사실 이렇게 대단한 유머 전통을 만들어낸 ‘나스렛딘 호자’ 해학은 역사적 사료에만 집착하면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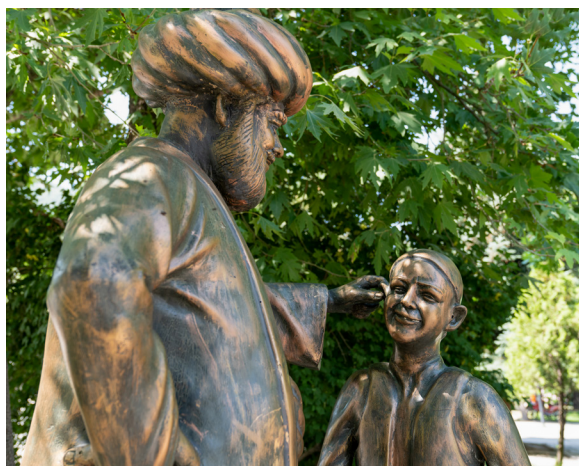
나스렛딘 호자는 때로는 의사, 때로는 성직자, 때로는 지식인으로 우리 앞에 나타났다. 이는 유목 문화에서 정착 문화로 넘어가는 사회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호자 개인도 중세 셀주크 시대에 때로는 법관, 판관직을 담당하며 정치적 책임자 역할을 수행했고, 때로는 마을 원로로 어려웠던 아나톨리아 시골의 모습을 대표했다. 사회 전반이 불안정하고 호자의 삶 또한 변화가 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작품 속에 등장하는 에피소드들은 사회적 질서 안에서의 역할이나 세계관도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는 해석이 적용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나스렛딘 호자와 관련있는 자료 중 가장 오래된 문서는 예빌 하이리 루키(Ebül-Hayr-i Rûkî)가 수도승 사르살투크(Sarı Saltuk)에 대해 쓴 『살투크나메(Saltukname)』라는 책이다. 이 책은 나스렛딘 호자의 이름이 등장하는 가장 오래된 문서이다. 이 작품은 1480년에 쓰인 것인데, 톱카프 궁전 도서관에 튀르키예어 도서 1612번으로 등록된 소장본이다.

16세기 유명한 작가 라미 첼라비(Lamiî Çelebi)가 쓰기 시작했으나 완성하지 못하고 아들 압둘라(사망 1550년)가 완성한 책으로서 아이들, 정신 나간 사람들 등 다양한 사람을 이야기를

소재로 다룬 책 『유머(Latâ'if)』에서도 나스렛딘 호자 이야기를 찾을 수 있다. 이 작품은 나스렛딘 호자의 일화가 기록된 작품이기 때문에 역사적 사료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윈데르의 연구에 의하면 나스렛딘 호자의 기록된 일화 중 가장 오래된 책은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책 제목은 『나스렛딘 호자의 유머(Letâif-i Nasreddin Hoca)』이다. 이 책에는 150편에 가까운 일화가 담겨 있다. 이 책은 악쇄



나스렛딘 호자 동상(Aksehir Konya, Turkey)

히르 근처 시골에서 발견돼 이스탄불로 옮겨졌는데 1742년 이스탄불에서 근무하던 프랑스 영사관 공무원이 도미니크 포르네티(Dominique Fornetty)라는 사람에게 구입했다고 한다. 프랑스어로 번역해 이후 원본과 함께 프랑스 왕립 도서관에 보내졌다. 프랑스 혁명 이후에는 나폴레옹 도서관에 소장됐다. 이후 이 책 이외에 아나톨리아에서 수집된 일화 다섯 작품과 함께 프랑스 국립 도서관에 나스렛딘 호자 작품이 한곳에 모이게 됐다.

광범위한 지역과 문화 안에서 나스렛딘 호자를 평가한 문학비평가 보라타프(Boratav)는 “에피소드의 주인공으로서 ‘이상적인’ 인물인 나스렛딘은 그의 명성이 알려진 나라나 공동체의 고유한 특성에 따라 변형될 수 있다. 같은 나라, 같은 공동체라고 하더라도 시대 흐름에 따라 끊임 없이 변하는 ‘나스렛딘 호자들’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스렛딘 호자가 살았던 역사적 시기를 머릿속에 떠올리면 해학과 유머가 왜 필요한지 이해할 수 있다. 이 관점에서 나스렛딘 호자는 이슬람의 엄격한 규제 아래 지루한 삶을 이어나가고 있던 아나톨리아 사람들이 기대하고 갈망하는 사람이었고 이는 당연히 아나톨리아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 해학과 유머를 즐기는 사람은 모두가 그를 필요로 한다. 그것이 사람들이 나스렛딘 호자를 사랑하고 모방하고자 했던 이유이다.

나스렛딘 호자의 이러한 역할을 민속학자 일한 바쉬교즈(Ilhan Başgöz)는 그를 ‘영웅’으로 정의하며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투르크 민족은 영웅을 만들었고, 영웅을 통해 언어로 희망,

두려움, 소망을 말하게 했다. 이 영웅의 외모와 성격, 옷, 감정, 태도는 서로서로 다르다. 그러나 투르크 문화의 모든 면을 내포하고 있다. 보편성 안에 조금씩 변화가 있고, 같은 뿌리에서 나온 다른 새싹이라 할 수 있겠다. 아나톨리아 사람들은 나스렛딘 호자의 등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스렛딘 호자는 다양한 성격이 내재되어 있는 인물이었다. 일화는 나스렛딘 호자 주변에서 일어난 것도 있고,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기도 했다. 호자는 다재다능함을 의식적으로 감추었다. 나스렛딘 호자는 이 세상을 사는 인간이며, 실제로 생활하는 곳도 이 세상이다. 따라서 이야기에서 그가 설명하는 삶의 모든 에피소드는 삶의 현장과 직결되어 있다. 나스렛딘 호자는 평범한 사람이다. 자신을 신성시한 적도 없고 그런 시도도 하지 않았다. 호자는 걱정하고, 고통받고, 울고, 웃고, 신념을 조롱하고, 가끔은 슬픔을 유머로 승화시키는 민중이다. 민중은 옛날부터 그래 왔듯 다른 말로 스승이다. 스승은 예언자가 아니다. 기적을 부리거나 성자와 같이 경이로움을 보여주지 못한다. 그의 세계에 비범함은 없다. 그는 매 사건마다 현명한 태도를 취할 뿐이다. 사람 대 사람, 사람 대 공동체 관계에서, 또는 나쁜 짓을 하거나, 반대되거나, 모자라는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미있는 표현과 유머로 교훈을 전달하기에 빛을 발한다.

어느 모임에서 호자가 말했다.

“우리 모두 고귀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호자에게 요청했다.

“그렇다면 기적을 보여주세요. 예를 들어 이 산을 오라고 한번 불러보세요.”

호자가 세 번 외쳤다. “산아, 이리로 오거라.”

그러나 산이 오지 않자 이번에는 호자가 산으로 뛰어가며 말했다.

“우리는 거만하지 않아요. 그러니 산이 오지 않으면 우리가 산으로 가야 해요.”

이런 종류의 일화는 수도 없이 많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나스렛딘 호자의 재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나스렛딘 호자의 일화를 평가할 때 그가 살았던 13세기 셀주크 사회, 정치 상황을 살펴야 한다. 특히 아나톨리아 사람들이 살았던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 어려움을 함께 봐야 한다. 호자의 성격과 일화는 사회 내부를 인지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셀주크는 내부적 문제로 붕괴했는데, 바바이 종파가 반란을 일으켜(1240년), 몽골군이 아

나톨리아로 침입을 하고 파괴했다(1243년~1250년). 셀주크 세자들 사이에서 일어난 왕권 싸움(1254년~1262년), 하티르오을루 세라팻딘(Hatiroğlu Şerafeddin)의 저항(1276년), 카라만 왕조의 코니아 점령(1277년)과 같은 사건이 이 시기에 일어난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나사렛딘 호자는 불행이라는 고통을 약으로 삼아 이를 딛고 공동체 속에서 유머 문화를 만드는 것을 항상 고려해야 했다. 나사렛딘 호자는 뿌리 깊은 유머 전통 안에서 자신에게 맞는 일련의 정체성(재판관, 의사, 판관, 공동체 원로 등)으로 국가와 억압받는 민중을 중재하는 역할을 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나스레딘 호자, 나스릿딘 호자, 나스레틴 호자, 나스렛뎌 호자

● 다국어 표기 Nasreddin Hodja(영어), Nasreddin Hoca(튀르키예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en.wikipedia.org/wiki/Nasreddin>

● 참고문헌(오프라인) Başgöz İlhan, Geçmişten *Günümüze Nasreddin Hoca*, Indiana Üniversitesi Türkçe Programı Yayınları: 5, İstanbul 1999.

Bayrak Mehmet, *Halk Gülmecesı*, Yorum Yayınları, Ankara, 1987.

Boratav Pertev Naili, *Nasreddin Hoca*, Edebiyatçılar Derneği Yayınları, Ankara 1996.

Çotuksöken Yusuf, *Nasreddin Hoca'ya Armağan (Haz.: M. Sabri Koz) içinde 'Bir Anadolu ve Dünya Bilgesi: Nasreddin Hoca'*, Oğlak Yayınları, İstanbul 1996.

Gökyay Orhan Şaik, *Dedem Korkudun Kitabı*, MEB Yayınları, İstanbul 1973.

Kılıçbay Mehmet Ali, "Din, Devlet ve Halk Arasında Nasreddin Hoca", *Güldikeni*, Sayı:11, İstanbul 1996.

Konyalı İsmail Hakkı, *Akşehir-Nasreddin Hocanın Şehri*, İstanbul 1945.

Nesin Aziz, "Hocanın Kişiliği", *Sosyal Adalet Dergisi*, 16 Temmuz, sayı: 18, 1963.

Özgü Melahat, *Nasreddin Hoca'nın Dünyası, Alman Kaynaklarına Göre Nasreddin Hoca*, Türkiye İş Bankası Yayınları, Ankara 1996.

I A092 | 나스릿딘벡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군주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Nasriddinbek

나스릿딘벡은 코칸드 칸국의 칸 후더요르 칸(Xudoyorxon, 재위: 1845년~1868년, 1863년~1875년)의 장남으로 1850년에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 후더요르 칸의 폭정으로 많은 봉기가 일어났고 그중 1875년 폴라트칸 봉기로 인해 후더요르 칸은 국외로 도피했지만 나스릿딘벡은 코칸드에 남아 있었다. 봉기는 러시아에 의해 진압되었고, 러시아의 카우프만(Константи́н Петро́вич фон-Ка́уфман, 1818년~1882년)은 나스릿딘벡으로 하여금 제위를 잇게 했다. 카우프만은 반란 진압하여 안정을 되찾으면서 시르데리야 오른편 땅을 차지했다. 사실 러시아는 지속적으로 코칸드를 합병하려 했지만, 아프가니스탄을 노리던 영국으로 인해 잠시 멈추고 있었던 것뿐이었다. 1875년 나스릿딘벡은 반(反)러시아 지하드를 선언하고, 치열한 전투를 벌였으나 패배하고 말았다.

1876년 러시아는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영향력을 모두 내려놓기로 결정하고, 영국 역시 러시아를 방해하지 않기로 했다. 같은 해 나스릿딘벡은 러시아와 조약을 체결해 국가 일부를 러시아와 합병해야 했고, 자신이 러시아의 가신이라고 인정해야 했다. 코칸드 칸국인들은 폴라트칸(Polatxon, 재위: 1875년)을 칸으로 선포했고, 폴라트 칸은 1875년 10월 9일 코칸드를 점령했으나, 러시아에 의해 체포되어 1876년 처형을 당했다. 나스릿딘벡은 다시 제위에 오르지만, 1876년 2월 19일 코칸드 칸국은 러시아에 의해 멸망당하여 페르가나 주(Farg'ona viloyati)라는 이름으로 러시아 투르크스탄 총독부에 합병된다. 코칸드 칸국을 통치한 마지막 칸인 나스릿딘벡은 1893년 페샤와르에서 사망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나스릿딘 한, 나스릿딘 베이, 나스릿딘 베그, 나스루딘 베그, 나스레틴벡, 나스린틴 칸
- 다국어 표기 Nasriddinbek(우즈베크어), Nasriddin xon(우즈베크어), Nasruddin Beg(영어), Nasruddin Khan(영어)
- 연관 검색어 코칸드 칸국, 후더요르 칸, 폴라트 봉기
- 참고문헌(오프라인) Bababekov, H. N. "The khanates of Khiva and Kokand and the relations between the khanates"

and with other powers. Part Two: Ferghana and the khanate of Kokand”, History of civilizations of Central Asia. Volume VI, Towards the contemporary period: from the mid-nineteenth to the end of the twentieth century, Paris : UNESCO, cop. 2005, pp.71~82.

Dubovitskii, Victor. Khaydarbek Bababekov, ”The Rise and Fall of the Kokand Khanate”, Ferghana Valley : the heart of Central Asia, London ; NewYork : Routledge, 2015, pp.29~68.

Alpargu, Mehmet. “Türkistan Hanlıkları”, Türkler Cilt 8, Ankara:Yeni Türkiye, 2002, pp.957~1045.

I A093 I 나시하트나메

● 시기 A.D. 1000년~A.D. 18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장르 ● 유형 소분류2
● 집필자 이은정 ● 라틴 문자 Mirror for Princes

나시하트나메란 개인과 사회의 교육 및 국가의 조화와 질서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조언 문학을 광범위하게 일컫는 말이다. 나시하트나메는 펜드나메라고도 하는데 윤리적이고 교육적인 내용의 저작들이 대부분이고, 일반적으로 종교와 윤리 철학의 원칙들을 바탕으로 쓰였다. 나시하트나메 종류의 작품들은 아랍과 이란의 문학 전통에서 추출된 것이 많다고 알려져 있는데, 투르크인들의 나시하트나메는 그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한 후에 등장했다.

이슬람 사회에는 윤리 이론보다 윤리의 실제적 적용, 즉, 종교나 전통의 견지에서 보았을 때 해야 할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에 대한 저작이 많이 있어 왔다. 이러한 방향으로 영향을 준 가장 큰 요소는 이슬람 종교가 조언(nasihah)을 중요시하여, 그것이 코란 구절과 하디스에 자주 언급되는 의무라는 점이다. 조언은 무슬림의 의무이되 충분한 수의 사람이 하면 되고 모든 사람이 하지는 않아도 되는 의무(farz kifaye)이다.

나시하트나메의 종류는 매우 다양한데, 그것을 종교적, 정치적, 수피 신비주의, 사회적인 것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모든 시대에 유효한 미덕을 다루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특히 혼란기에 쓰인 나시하트나메에서는 현재 국가와 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대중적인 작품도 있고, 지식인을 대상으로 한 문학적 가치가 큰 것들도 있다. 또한 특정 직업군이나 학문 분야에 대한 나시하트나메들도 있다. 일반적으로 나시하트나메라고 분류

되지 않아도 메블라나 젤랄엠티 루미의 『메스네위』나 시라즈인 사아디의 『귄리스트탄』과 『보스탄』 같이 독자에 대한 조언을 통해 교육적인 목표를 달성하려는 책들도 넓은 의미의 나시하트나메로 볼 수 있다.

나시하트나메 장르가 융성하게 된 것은 압바스 시대의 문인 관료 이븐 알 무카파가 파흘라비어로 『판차탄트라』라고 불린 우화집을 『칼릴라와 디мна』라는 이름으로 아랍어로 번역한 후였다. 특히 유명한 나시하트나메로는 투르크어로 쓰인 유수프 하스 하집의 『쿠타드구 빌리그(복을 주는 지혜)』와 셀주크 시대 페르시아어로 쓰인 니잠 알 물크의 『시야세트나메』가 있다. 아나톨리아에서 맨 처음 쓰인 나시하트나메들은 이우누스 엠레 등에 의해 13세기에 나왔고, 오스만시대로 넘어가는 14세기에도 운문으로 된 나시하트나메들이 역시 수피 계통의 저자들에 의해 많이 쓰였다.

나시하트나메가 다른 문학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크게 다양해지고 양적으로 성장한 것은 16세기였다. 17세기에 오스만 제국의 정치, 경제, 사회가 총체적 위기를 겪으면서 이전에 많았던 종교적, 도덕적, 신비주의적 나시하트나메에 더하여 국가와 행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나시하트나메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었는데, 당시의 대표적인 나시하트나메 저자로는 코치 베이, 웨이시, 카딕 첼레비 등을 들 수 있다. 현실 문제를 중시하는 이러한 경향은 18세기에 이어졌는데, 나비의 『하이리에』가 특히 가장 유명한 나시하트나메였다. 19세기에는 종전에 비해 나시하트나메의 유행이 줄어들었고, 공화국 시대에는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다. 오스만 제국 시대의 나시하트나메를 그 이전의 나시하트나메와 비교해 보면, 비록 여전히 종교적인 관점들이 강하지만 이전의 나시하트나메들에 비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의 해결에 치중하는 성향을 보였다는 점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나시하트나메

● 다국어 표기 Nasihatname(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수피

● 참고문헌(오프라인) İskender Pala, “Nasihatname,” TDV İslam Ansiklopedisi, Vol. 32 2006 pp.409~410.

Pal Fodor, “State and Society, Crisis and Reform, in 15th—17th Century Ottoman Mirror for Princes,” Acta Orientalia Academiae Scientiarum Hungaricae Vol. 40 No. 2/3 1986 pp.217~240.

I A094 | 나왕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몽골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학자
- 집필자 김재운 ● 라틴 문자 Navaavn Dorjpalam

나왕은 몽골의 1세대 고고학자 중 한 명이다. 그는 1925년에 태어나서 2008년에 생을 마감했다. 나왕은 러시아 모스크바 대학 역사학부에서 수학했으며, 대학 졸업 후 몽골 과학 아카데미의 역사 연구소와 몽골 국립 박물관에서 근무했고, 몽골 국립 대학 고고인류학과에서 강의를 하는 등 활발한 연구 활동을 펼쳤다.

그는 몽골 선사 시대, 특히 청동기 시대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그의 박사 학위 논문은 「동몽골의 청동기 시대」이다. 동몽골은 시베리아와 인접한 지역으로 그의 연구 주제기 시베리아 청동기 시대 연구여서 러시아 연구자들과도 특별한 교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1960년대부터는 나이마 톨고이, 둠가 울 등 몽골의 대표적인 무덤 발굴에 직접 참여했다. 뿐만 아니라 몽골의 대표적인 귀족 무덤인 타힐틴 허거르 유적을 책임지고 발굴하면서 흉노 연구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그의 연구는 1999년 『Cultural Heritage of the Xiongnu』로 출판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나반, 나와안

● 다국어 표기 Navaavn Dorjpalam(몽골어)

● 연관 검색어 흉노

● 참고문헌(오프라인) DORJSUREN, Tsogdanzan 1961, Umard Khunnu(The Northern Khunnu), Ulaanbaatar: Academy of Sciences; DANDINSUREN TSEVEENDORJ SC.D(ed)., 2013, ENCYCLOPAEDIA XIONGNU, ULAANBAA TAR; C.B.

I A095 | 나우르즈 바타

- 시기 기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카자흐스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역사 ● 유형 소분류2 축제
- 집필자 황영삼 ● 라틴 문자 Nauryz bata

나우르즈 바타는 나우르즈 축제 시기에 행해지는 일종의 축언이나 덕담이다. 매우 다양하게 표현이 있다. 가령 ‘행운을 빕니다 / 3월은 돈과 같습니다. 머리카락처럼 온 머리 위에 풍성하게 나게 하소서 / 인간의 마음이 놀리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탈출하고 선은 지속되게 하소서 / 평화 있게 하소서, 평화가 있게 하소서 / 공기를 맑게 하고 물을 맑게 하소서’ 등과 같이 한 해의 행운과 안녕을 기원한다.

그리고 또 다른 덕담으로 가족들의 번영을 기원하기도 한다. 즉 ‘모두들 만물을 가져라! / 하늘이 당신들에게 준 것을 빼앗기지 않길 기원한다 / 당신들의 가족은 풍성한 풀밭에서 자라고 / 목동들은 바람처럼 빨리 달리겠지 / 근심은 있을지라도 번영이 함께하리라 / 당신들의 식탁은 항상 음식으로 가득 차고 절대로 비지 않으리라’ 등이 그런 사례다.

나우르즈 바타는 대개 연장자가 행하는 축하의 말로 일종의 새해 덕담에 가깝다. 다만 내용이 다소 긴 면이 있다. 이것은 나우르즈 시기에 거행되는 노래 부르기 대회에서 상을 받는 사람에게 축복의 행태로 주기도 한다. 나우르즈 바타를 받는 사람은 그 해의 운수가 좋다는 믿음도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나우르즈, 나부르즈
- 다국어 표기 Наурыз бата(카자흐어), Наурыз бата(러시아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IhG9skfyAME>
- 참고문헌(온라인) <https://tirshilik-tyyny.kz/zanalyk/1872-nauryz-bata.html>
- 참고문헌(오프라인) Asma Kalybekova, Theoretical and Applied Fundamentals of Kazakh Folk Pedagogy (Almaty, 2006).

I A096 | 나우르즈 예슴

● 시기 기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카자흐스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의례 ● 유형 소분류2 관습 ●
집필자 황영삼 ● 라틴 문자 Nauryz yesim

나우르즈 예슴은 나우르즈 시기에 짓는 이름으로서 ‘나우르즈’라는 단어와 함께 새로운 고유 명사가 만들어진다. 특히 아이들이 태어나면 하늘로부터 특별한 축복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나우르즈’를 붙인 이름이 만들어진다. 역사적인 인물들의 사례를 들면 1360년 짧은 시기에 킵차크 칸국을 통치했던 나우르즈 칸을 비롯하여 나우르즈바이 쿠파판바이올르(Nauryzbai Kutpanbaiuy: 1706년~1781년, 중가르족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장군), 나우르즈바이 카שמ물르(Nauryzbai Kasymuly: 1822년~1847년, 케네사리 봉기와 관련된 지도자) 등 카자흐 민족 영웅들을 들 수 있다. 나우르즈굴(Nauryzgul), 나우르즈벡(Nauryzbek), 나우르즈알리(Nauryzali) 등도 같은 맥락의 이름이다. 나우르즈는 대개 3월 21일부터 3일간 휴일이나 해마다 그 기간은 5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매년 유동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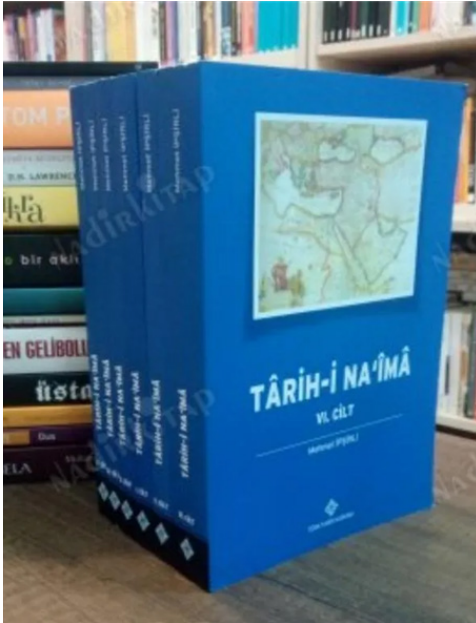
따라서 이 시기에 태어난 아이들은 나우르즈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나우르즈를 붙이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기도 한다.

전통적으로 나우르즈 시기에 태어난 아이는 특별한 축복을 받아 세상에 등장한 것으로 믿는다. 한 해의 시작과 함께 태어난 아이들에게 새해를 상징하는 단어를 붙여서 이름을 지어 축복하는 것은 카자흐인들의 전통적인 관습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나우루즈 예심, 나부르즈 예심
- 다국어 표기 Наурыз есім(카자흐어), Наурыз есим(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나부르즈
- 참고문헌(온라인) <https://osken-onir.kz/kogam/10044-nauryz-esm.html>
- 참고문헌(오프라인) Asma Kalybekova, Theoretical and Applied Fundamentals of Kazakh Folk Pedagogy (Almaty, 2006).

I A097 | 나이마

- 시기 A.D. 1500년~A.D. 18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역사가
- 집필자 이은정 ● 라틴 문자 Naima



나이마 연대기 표지
Source: <https://1000kitap.com/>

오스만 제국의 역사에서 무스타파 나임(1655년~1716년)은 가명인 나이마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1655년 알레포의 예니체리 사령관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1688년~1689년 십대 중반의 나이로 이스탄불 궁정의 발타즈 부대(미늘창병 부대: 궁정 호위대의 일종)에 들어가 서기 관료로서의 교육을 받았고 특히 문학, 역사, 점성술에 관심을 가졌다. 발타즈 부대에서의 복무를 마치고 디완 으 휘 마운(궁정 각료회의)의 서기들 밑에서 도제 교육을 받았고, 역시 발타즈 경력이 있는 칼라일르코즈 아흐메드 파샤의 비서가 된 후로 평생 여러 행정 직책을 맡았다. 1698년~1699년경 나이마는 쿠피뤼뤼 가문 출신의 대재상 암자자데 휘세인 파샤로부터 샤리흐 알 메나르자데 아흐메드 에펜디(1657년 사망)가

남긴 초고를 바탕으로 연대기를 완성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 대가로 일당 120악체를 받았고, 이에 더하여 부분 부분을 완성해 제출하면 대재상으로부터 선물을 받기도 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오스만 제국 최초의 와카누위스(vakanüvis, 역사 편수관)로 인정되고 있다. 이 연대기 저술은 아마도 그가 1704년 아나톨리아의 무하세베지(고위 재무관료)에 임명되기 전에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 후 그의 관료 경력은 아나톨리아의 무하세베지를 통산 3회 역임하고 데프테르 에미니(장부 관리자)와 바쉬(수석) 무하세베지 등 주요 서기직들을 거쳤으므로 상당히 화려한 것이었으나, 정적들로부터 악선전을 당하거나 그의 점성술 점괘가 유력 인사의 반감을 사는 등의 계기로 여러 번 강등 혹은 파직당하는 경험을 했다. 그는 생애의 마지막 시

기에 그리스 남부 모레아반도의 데프테르 에미니가 되었고 모레아의 파트라스에서 1716년 사망하여 그곳에 묻혔다.

나이마의 연대기는 암자자데 휘세인 파샤에게 헌정되었고 일반적으로 『타리흐 이 나이마 (Tarih-i Na'ima)』라고 알려져 있으며 원제는 아랍어로 『Rawdat al-Husayn fi Khulasat Akhbar al Khafikayn(직역하자면 매우 부자연스럽지만 ‘동서의 핵심적 정보의 아름다운 정원’이라는 뜻)』이다. 이 연대기가 다루는 범위는 1591년부터 1660년까지이며, 약 1,400개의 소제목 아래 전통적인 연도순의 구성으로 서술했다. 샤리흐 알 메나르자데의 연대기를 거의 다 포함하고 있고, 17세기 중엽 카팁 첼레비의 『역사서(Fezleke)』의 영향도 많이 받았는데, 그 외에도 하산베이자데, 무스타파 알리, 페체위, 웨지히, 카라첼레비자데 압달아지즈 등 16세기 말부터 17세기의 여러 역사가들을 참조했다.

나이마는 연대기에서 자기가 사용한 자료들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중요 이슈들에 대해서는 자기 나름의 논평을 종종 덧붙였다. 역사와 통치에 대한 생각을 담은 서론을 써서 17세기에 흔히 볼 수 있었던 나시하트나메의 개혁론을 연상케 하는 면모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븐 할둔, 무스타파 알리, 카팁 첼레비의 영향이 있었음을 볼 수 있다. 그가 이 연대기에서 목표로 한 것은 믿을 만하고 정확한 역사서를 우아하고도 이해하기 쉬운 산문으로 써서 오스만 위정자들에게 정보와 교훈을 동시에 제공하는 것이었다. 이 연대기는 널리 읽히고 높이 평가받은 작품으로, 오스만 제국에서 처음으로 아랍 문자 서적의 인쇄를 시작한 이브라힘 튀테페리카의 인쇄소에서 1733년에 두 권으로 인쇄되었고, 1860년대에는 6권으로 나뉘어 새로 인쇄되었다. 나이마는 1698년~1699년까지의 역사를 저술하기 위해 자료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 원고는 전해지지 않고 있다. 그는 적어도 대재상 암자자데 휘세인 파샤의 재위 기간(1697년~1702년) 동안에는 시사적인 사건들을 일기처럼 기록했고 그 이전에도 약 10년 동안 기록을 지속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의 기록들은 『라시드의 연대기(Tarih-iRaşid)』의 자료로 이용되었다. 나이마가 동시대의 사건을 기록한 것으로 출간된 것은 에디르네 사건과 뒤이은 무스타파 2세의 폐위(1703년)에 대한 기록뿐이며 이 부분은 그의 연대기에 부록으로 붙여 출판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나이마, 무스타파 나이마

● 다국어 표기 Na'imâ(튀르키예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Christine Woodhead, “Na’īmā,” Vol. 7 1993 pp.917~918.
- Mehmet İpşirli, “Na’īmâ” Vol. 32 2006 pp.316~318.
- Erhan Afyoncu, “Court Chronicles,” in Gábor Ágoston and Bruce Masters, eds., The Encyclopedia of the Ottoman Empire, Facts on File 2008 pp.154~156.

I A098 | 나이마 툴고이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몽골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유적 ● 유형 소분류2 무덤
- 집필자 김재윤 ● 라틴 문자 Naimaa Tolgoi

나이마 툴고이(Naimaa Tolgoi)는 몽골의 아르항가이 아이막 에르데네 만달르 슴 지역의 후니 강 동안에 위치한다. 혼트란 소 호수 동북쪽 해안의 낮은 언덕 사면에 유적이 있는데, 이 언덕의 지명이 곧 유적명이 되었다. 무덤은 크게 남북으로 나뉘어 분포한다. 북쪽은 높은 곳으로, 지표에 드러난 적석의 크기가 3m~5m 가량으로 소형 무덤이 주를 이룬다. 남쪽은 낮은데, 지표에 드러난 적석의 너비가 10m~13m로 비교적 큰 대형 무덤이 주를 이룬다.

1963년 몽골-헝가리 공동 조사단이 발견하고, 여러 해 발굴해서 20기를 발굴 조사했다. 유적에서는 1호와 20호에서 흉노 무덤의 연대 파악에 방사성 탄소 연대와 함께 근거 자료가 된 중국 거울이 각각 출토되었는데 묘도가 없는 방형 무덤이다. 거울은 1호에서는 규거경(規矩鏡, 기원후 1세기~1세기 중엽), 20호에서는 소명경(昭明鏡, 기원전 1세기 중엽~후반)이 각각 출토되었다.

1호는 유적의 서남부에 위치하는데, 지표상에서 지름 8m의 고리 모양으로 적석유구(積石遺構)가 드러나 있었다. 묘도가 없는 방형 무덤이다. 적석을 제거하자 깊이 2.25m에서 목관(2.4×1.1m)이 발견되었는데, 남녀의 인골과 그 다리 쪽에서 유아 인골 2구가 확인되었다. 유아 인골 주위에서는 양의 복사뼈와 석제품, 성인 여성 두개골 주변에서는 청동 귀걸이, 골제 빗, 작나무 껍질 상자에 넣은 규거경이 출토되었고 다리 부근에는 대형 토기가 확인되었다. 성인 남성 주변에서는 철제 고리 4점, 허리띠 버클, 뼈 손가락, 패각 장식, 칠기편 등이 출토되었다. 20호도 1호와 비슷한 무덤 구조인데, 묘광의 크기는 2.6m, 폭은 0.5m이다. 두개골이 확인되었는데 그 옆에서 소명경이 출토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나이마아 톨고이
- 다국어 표기 Наймаа Толгой(몽골어)
- 연관 검색어 흉노
- 참고문헌(오프라인) G. Eregzen. 2009, 『몽골 흉노 무덤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I A099 | 나임 사이드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Guzal Mihrayeva ● 라틴 문자 Naim Said

스탈린 정부의 대숙청 시기에 희생된 우즈베크 지식인, 언론인이자 번역가인 나임 사이드(Naim Said)는 1902년 코칸드의 한 농민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는 코칸드 마드라사에서 초등 교육을 받았다. 1919년 교원 양성 과정을 마치고 코칸드 인근 초등학교에서 언어와 문학 교사로 근무했으며, 1921년까지 부하라의 교육 기관에서 근무했다.

나임 사이드는 1922년 11월 투르키스탄 공화국 교육 인민위원회의 추천으로 1923년부터 1924년까지 모스크바의 국립 교육대학교 노동자 학부에서 공부했으며, 1925년 언론대학교 사회정치학부의 통-번역과에 입학했다.

고향으로 귀국한 후 나임 사이드는 1920년대 후반 문맹 퇴치를 위한 문자개혁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시인 셔키르 술라이먼(Shokir Sulaymon)과 교육자 압두라힘 울더셰브(Abdurahim Yoldoshev)와 협력하여 『붉은 인장(Qizil tamg'a)』이라는 교과서와 전단지를 출판했다.

그는 그밖에 울더셰브(A. Yo'ldoshev)와 공동으로 『성인을 위한 알파벳(Kattalar uchun alifbe, 1929)』, 『문맹을 위한 알파벳(Savodsizlar uchun alifbe, 1936)』, 『문맹을 위한 읽기책(Kam savodlilar uchun o'qish kitobi, 1936)』, 『시각 장애인을 위한 알파벳(Ko'rlar uchun alifbe, 1937)』, 『새로운 마을(Yangi qishloq, 1936)』, 『문법(Grammatika) 제2권: 통사론(1936)』 등의 교과서 집필에 참여했다.

1930년 나임 사이드는 코칸드로 파견되어 <새로운 페르가나(Yangi Farg'ona)>의 편집자로

근무했고, 1931년에는 다시 타슈켄트로 돌아와 우즈베키스탄 국영 출판사의 수석 정치부 편집자를 맡았다.

더불어 그는 번역가로서 스탈린 작품들을 우즈베크어로 번역하는 데 참여했다. 하지만 그는 1932년 1월 정치문헌 번역에 있어 심각한 오류가 있고,, 1933년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고전 작품 번역을 연기했다는 이유로 인하여 당의 3차례 조사 끝에 제명되었으며, 같은 해 9월 17일 해고당한다.

나임 사이드가 ‘민족주의자’라고 낙인찍히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그가 번역한 작품에 나타난 ‘революция(혁명)’이라는 러시아어 단어를 ‘inqilob(혁명)’ 등 순수 우즈베크어로 번역했기 때문이었다. 이는 소비에트 정부에 반하는 행위로 비쳐졌다.

1938년 1월 30일 자정 무렵 내무 인민위원회 장교들은 그를 체포했고, 나임 사이드의 사건은 1939년 7월 19일부터 타슈켄트 지방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나임 사이드는 재판이 진행되기 한 달 반 전인 1939년 6월 2일 가혹한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타슈켄트 교도소에서 사망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네임 사잇, 나임 사잇
- 다국어 표기 Naim Said(우즈베크어), Наим Саидов(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마드라사, 타슈켄트, 페르가나
- 참고문헌(오프라인) Karimov Naim, *1937~1938 yillardagi Katta qirg'inning fojiali oqibatlari*, Toshkent, 2015.

I A100 | 나임 카리머프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학자
- 집필자 오은경, Guzal Mihrayeva ● 라틴 문자 Naim Karimov

문학 평론가이자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명예 학자 나임 카리머프(Naim Karimov)는 1932년 12월 12일 타슈켄트의 지식인 가정에서 태어났다. 1955년에 우즈베키스탄 국립 대학교의 문

헌학부를 졸업했고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 과정을 1958년에 졸업했다. 대학원을 졸업한 후 소비에트 우즈베크 과학아카데미 언어문학 연구소에서 수석 연구원으로 일하기 시작하여 학과장까지 승진한다.

1993년에 「XX세기 우즈베키스탄 문학의 고유 특성 및 민족 독립 이데올로기(XX asr o'zbek adabiyotining o'ziga xos xususiyatlari va milliy istiqlol mafkurasi)」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1994년에는 교수가 된다.

1967년 출간된 『우즈베크 소비에트 문학의 역사(История узбекской советской литературы)』에는 그가 집필한 「현대 우즈베크 소비에트 문학(Узбекская советская литература на современном этапе)」이 수록되었다.

그의 학술활동 및 연구는 주로 20세기 우즈베크 문학, 출판(Cho'pon), 피트랏(Fitrat), 함자(Hamza)와 같은 자디드(jadid) 작가들의 작품 연구와 관련이 있다. 또한, 어이벡(Oybek), 가푸르 굴림(G'afur G'ulom), 하미트 올림전(Hamid Olimjon), 함자(Hamza)의 작품 선집 출간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와 함께 『하미트 올림전(Hamid Olimjon, 1979)』, 『어이벡(Oybek, 1985)』, 『우스먼 너스르(Usmon Nosir, 1993~1994)』, 『우스먼 너스르 인생의 말년(Usmon Nosir hayotining so'nggi yillari, 1993~1994)』과 같은 대중적인 학술 서적을 집필했다.

특히 어이벡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어이벡(Oybek, 1985)』, 『어이벡 꽃밭에 남은 새싹들(Oybek gulshanida qolgan g'unchalar, 1985)』, 『어이벡과 자리파(Oybek va Zarifa, 1990)』, 『영감의 놀라운 파도(Ilhom chashmasiningajib mavjlari, 1982)』와 같은 책을 출판했다. 이외에도 다양한 작가들에 대한 논문을 비롯해 자디드 운동과 자디드 문학의 탄생과 발전을 논하는 『20세기 초반의 역사적 상황과 자디드 운동의 출현(XX asr boshlaridagi tarixiy vaziyat va jadidchilik harakatining vujudga kelishi)』과 같은 연구서를 출간했다.

그의 학술 활동은 단지 우즈베키스탄 문학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푸쉬킨이나 셰익스피어, 마르케스와 같은 서구권 작가들을 비롯하여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 등지의 작가들을 연구했으며 관련한 논문을 발표했다.

이와 같은 다양한 활동으로 나임 카리머프 없는 20세기 우즈베크 문학계는 상상할 수 없다는 평을 듣기도 했다. 그는 이러한 공로와 업적을 인정받아 아부 라이한 베루니이(Abu Rayhan

Beruniy) 상을 받았다.

그는 학술활동 이외에도 식민지 시대의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하여 ‘순교자 기념관 (Shahidlar xotirasi)’과 ‘희생자 추모 기념관(Qatag'on kurbonlari xotirasi)’ 설립에 앞장 서기도 했다.

나임 카리머프는 2023년 9월 17일에 사망하였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나임 카리모프, 나임 카리모브
- 다국어 표기 Naim Karimov(우즈베크어), Наим Каримов(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출판, 피트랏, 함자, 자디드, 거푸르 굴림, 하미트 알림전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rl.kr/i2kzgm>
- 참고문헌(오프라인) Karimov N. va boshqalar, *XX asr o'zbek adabiyoti 11 sinf uchun darslik*, Toshkent: O'qituvchi. 1995.
Nazarov B. va boshqalar, *O'zbek adabiy tanqidchiligi tarixi*, Toshkent: Cho'lpon nomidagi nashriyot matbaa ijodiy uyi, 2012.
O'zbekiston Respublikasi Fanlar Akademiyasi, *Qatag'on qurbonlari va ularning adabiy-badiiy hamda publisistik merosi*, Toshkent: Mumtoz so'z, 2015.

I A101 | 나자르 본죽

- 시기 기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신앙 ● 유형 소분류2 부적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Nazar Boncuğu

나자르 본죽(Nazar boncuğu)은 나자르(Nazar)와 유리, 석재, 목재, 산호 등 다양한 재료로 만들어진 둥근 구슬을 의미하는 본죽(boncuk)이 결합된 단어이다. 나자르(النظر)의 어원은 아랍어로 '보다'의 의미의 단어였으나 튀르키예어에서는 '시선' 또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질투하며 보게 되어 해를 끼치는 영향력'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질투심 어린 감정을 가지고 바라보면 그 사물이나 사람에게 해가 가해질 수 있다는 믿음과 칭찬과 같

은 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믿음 역시 ‘나자르’에 포함된다. 이런 믿음은 고대 수메르, 바빌로니아, 이집트, 그리스 로마뿐만 아니라 셈족, 페르시아, 인도를 비롯하여 다양한 유럽 부족들에 이르기까지 퍼진 문화이다. 최대 기원전 4천 년 전에도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튀르키예의 경우에도 나자르에 대한 믿음이 존재한다. 아랍어를 어원으로 하는 ‘나자르’를 대신하여 튀르키예어에서 눈을 의미하는 단어인 ‘괴즈(göz)’를 사용하기도 한다. 직역하면 ‘나자르에 달다(nazara/göze değmesi)’, ‘나자르에 들다(nazar/göze gelme)’와 같은 표현은 ‘부정을 댔다’는 의미이다.



나자르 본죽

‘나자르’는 널리 퍼진 믿음인 만큼, 이를 예방하거나 깨트리기 위한 방법도 문화권에 따라 다르다. 성직자나 마법사, 주술사의 전문적인 파훼법 이외에 해당 문화권의 신에게 기도하는 방법, 기도문을 읽는 방법, 질투 어린 시선을 받아 부정적 영향을 받은 사물이나 사람을 험담하는 방법, 그리고 부적을 쓰는 방법 등이 있다. 기도문을 적은 종이가 된 부적도 있으나, 눈, 손, 초승달, 태양과 같은 형상이나 뱀, 물고기, 공작, 사자, 도마뱀과 같은 동물을 수놓은 물건이나 문신 등이 있으며, 그 외에는 푸른색 구슬, 반지, 매듭, 조개 등이 특히 많이 사용되는 부적이다.

튀르키예의 경우에는 나자르를 막기 위하여 푸른색 구슬을 사용한다. 이것이 ‘나자르 본죽’이다. 푸른색 구슬의 사용은 과거 샤머니즘에서 천신(天神) 사상에 기반하여 푸른색을 성스럽게 여겨 사용했다는 설과 푸른색은 강하기 때문에 악령의 강한 힘에 맞서기 위해 푸른색을 선호한다는 설 등이 있다. 나자르 본죽의 원형은 푸른색 바탕에 노란색 원이 있고, 노란색 원 안에 납이 있어 이것이 ‘나자르’에 영향을 준다고 것이다. 현재는 흰색 중심에 파란색 또는 검은색 점을 결합해 눈 모양을 취하고 있으며, 주로 유리로 만들지만, 현대에서는 다양한 재질로 응용된다. 사용처 역시 단순한 부적 용도에서 벗어나 장식이나 디자인 모티프로서 다양한 곳에 응용되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나자르 본주우, 악마의 눈
- 다국어 표기 Ko'zmunchoq(우즈베키스탄), Nazar Boncuğu(튀르키예어), Nazar amulet(영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kulturportali.gov.tr/repoKulturPortali/large/28022013/47f31dcd-3e78-42b9-95ce-2f68658a0372.jpg?format=jpg&quality=50>
- 참고문헌(온라인) <https://www.kulturportali.gov.tr/turkiye/izmir/kulturatlasi/nazar-boncugu>
- 참고문헌(오프라인) Dundes, A. "Wet and Dry, the Evil Eye: An Essay in Indo-European and Semitic Worldview", The Evil Eye: A Casebook (ed. A. Dundes), Madison 1992, pp.257~312.
Gürkan, Salime Leyla. "Nazar", İslâm Ansiklopedisi Cilt 32, İstanbul: TDV, 2006, pp.443~444.

I A102 | 나자르바예프

- 시기 기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카자흐스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정치인
- 집필자 우덕찬 ● 라틴 문자 Nazarbayev

카자흐스탄의 정치인 나자르바예프(Nazarbayev)는 1940년 7월 6일 당시 카자흐스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체몰간(Chemolgan)에서 태어났다. 1962년 공산당에 입당하여 청년공산주의자연맹 소속으로 활동했으며, 카자흐스탄 국립 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79년부터 1984년까지 카자흐스탄 공산당 중앙위원회 비서관을 역임했으며, 1984년 3월부터 1989년 7월까지 카자흐스탄 각료회의 의장으로 활동했다. 이후 1989년부터 1991년까지 카자흐스탄 공산당 제1서기를 역임하면서 최고 권력자 자리에 올랐으며, 1990년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카자흐스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이후 2019년까지 약 30년간 카자흐스탄의 대통령을 지냈다. 2019년 3월 20일 고령 등의 이유로 대통령직에서 사임했고 카자흐스탄의 NSC인 안전보장위원회 의장직과 여당 당수직은 유지한 채 대통령 위의 최고 지도자로 머물러 있으면서 정권을 장악해왔다. 그러나 2022년 1월 5일에 알마티에서 4일 전에 발생한 액화석유가스 가격 폭등 항의 시위가 전국적인 소요사태 및 대통령 축출 미수 사건으로 확산된 데 대한 책임을 물어 카심조마르트 토크야예프 대통령은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를 자진 사퇴 방식으로 카자흐스탄 공화국 안전보장이사회 종신 이사장,

카자흐스탄 공화국 명예 상원의원, 카자흐스탄 공화국 헌법평의회 종신 위원, 카자흐스탄 공화국 민족대회 명예회장, 튀르크국가기구 명예회장, 누르오탄당 명예총재, 민족지도자 등 공직에서 모두 강제 해임되어 그는 정계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났다. 이와 더불어 2022년 6월 5일 헌법개정 국민투표 결과로 민족지도자 직함과 민형사상 종신 면책특권을 완전히 박탈당했다. 2023년 1월 11일에 카자흐스탄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위헌판결로 민족지도자 칭호와 카자흐스탄 명예 상원의원직을 완전히 최종적으로 영구 박탈당했다.



나자르바예프

Source: <https://astanatimes.com/wp-content/uploads/2022/01/Nazarbayev-1320x903.jpg>

나자르바예프는 오랜 기간 카자흐스탄을 통치하면서 소련 해체 이후 혼란스러운 시기에 신생 국가를 정치적으로 안정시키고 빠른 경제 성장을 견인하여 오늘날의 위상을 가진 국가로 발전시켰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그의 집권 기간 동안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의 구소련 독립국들 가운데 경제 성장을 가장 빠르게 이루어 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장기 집권을 하는 동안 대통령 본인과 가족 등 주변 인물들의 비리와 축재가 발생했고, 언론의 자유와 야권을 탄압하여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했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동시에 받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나자르바예브
- 다국어 표기 Nursultan Nazarbayev(영어), Нұрсұлтан Назарбаев(카자흐어)
- 연관 검색어 카자흐스탄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rl.kr/1b5iay>
- 참고문헌(온라인)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255044&cid=40942&categoryId=34312>
- 참고문헌(오프라인) 우덕찬 2001, 『중앙아시아사 개설』, 부산외국어대학교출판부.
최한우 1997, 『중앙아시아학 입문』, 도서출판 펴내기.
Nazarbayev, Nursultan 1998, Nursultan Nazarbayev: My Life, My Times and My Future. Pilkington Press.

I A103 | 나즈뭇딘 쿠브라

- 시기 A.D. 1000년 ~ A.D. 1500년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투르크메니스탄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이슬람
- 유형 소분류2 인물
- 집필자 박현도 ● 라틴 문자 Najm ad-din Kubra

나즈뭇딘 쿠브라(Najm ad-din Kubra)는 당시 호라즘, 현재 투르크메니스탄 북부 퀴네위르 겐츠(Köneürgenç) 출신으로 쿠브라비(아랍어 쿠브라위) 수피 종단 창시자이다. 쿠브라비 종단은 일 칸국과 티무르 조에 큰 영향을 끼쳤다.

쿠브라는 ‘땀마툴 쿠브라(tāammāt al-kubrā, 대재앙)’라는 코란 79장 34절의 용어에서 나온 말로 논쟁에서 상대방을 압도한 나즈뭇딘의 탁월함을 표현한 별칭이다. 어려서부터 뛰어난 학문적 재능을 보인 나즈뭇딘은 하디스 공부를 위해 이집트로 유학을 떠났다. 그러나 30대에 이르러 수피 영성에 이끌려 수흐라와르디(Suhrawardi) 종단에 가담했다. 이스마일 알까스리(Ismail al-Qasri)의 가르침 아래 오늘날 이란 후제스탄주의 데즈풀(Dezful)에서 첫 영성 체험을 했다. 이후 스승의 조언에 따라 새로운 스승 암마르 이븐 야시르 알-비들리시(Ammar ibn Yasir al-Bidlisi)의 제자로 들어가 수련 생활을 하다가 암마르가 세상을 떠나자 이집트로 돌아왔다. 이집트에서는 셰이크 알미스리(Sheikh al-Misri)의 지도 아래 수피 수련 생활을 했고, 스승의 딸과 혼인을 했으며, 제자를 기르는 것을 허락받아 1185년에서 1190년 사이에 고향으로 돌아왔다.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고향에서 제자를 길렀으나 사실 제자는 많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즈뭇딘은 수피 성인 제조가(Wali tarash)로 불릴 정도로 소수의 훌륭한 제자를 길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나즈뭇딘은 1221년 몽골군에 대항하다 목숨을 잃었다. 몽골군은 나즈뭇딘에게 떠날 기회를 주었으나 나즈뭇딘은 이를 거부하고 대항군 선봉에 서서 싸우다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즈뭇딘은 많은 저서를 남겼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저작은 자신의 수피 영성 체험과 초심자를 위한 세세한 이론을 담은 『아름다움의 향기와 지고(至高)한 권위의 서문(Fawa'ih al-jamal wa fawatih al-jalal)』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나즘 앓딘 쿠브라, 나즈무땀 꾸브라
- 다국어 표기 Najm ad-Din Kubra(아랍어), Necmüddin Kübra(튀르키예어), Najmiddin Kubro(우즈베크어), Şey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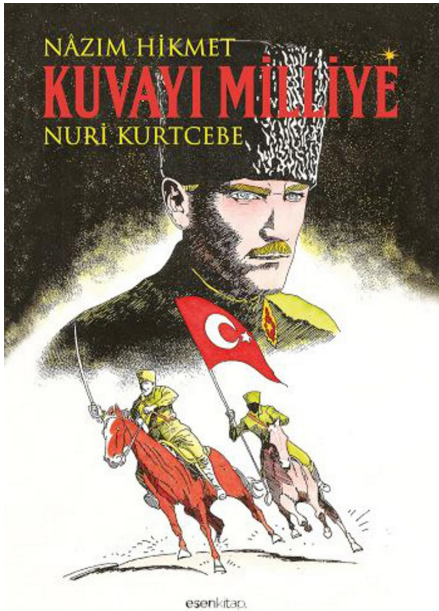
나즈뭇딘 쿠브라 영묘

Nəcməddin Kübra(아제르바이잔어)

- 연관 검색어 쿠브라비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1EQtaQYpzTw>
- 참고문헌(오프라인) Algar, H. "Kubrā, Shaykh Abu'l-Djannāb Ahmad 'Umar Nadjm al-Dīn." In Encyclopaedia of Islam, vol. 5, 300~301.

I A104 | 나즘 히크메트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Metin Turan) ● 라틴 문자 Nâzım Hikmet



나즘 히크메트의 책 『Kuvayı Milliye』 표지
Source: <https://www.kitapyurdu.com/kitap/kuvayi-milliyey/363694.html>

20세기 튀르키예 시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람 중 하나인 나즘 히크메트(Nâzım Hikmet)는 1901년 11월 20일, 당시에는 오스만 제국의 도시였던 테살로니키에서 태어났다. 가족은 그가 연말에 태어나 40일 때문에 한 살 많아 보이는 것을 원치 않아서 1902년 1월 15일 생으로 출생 신고를 했다. 나즘 히크메트의 집안은 국내외 정세를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는 오스만 제국의 고위 관료직 집안이었는데 나즘 히크메트가 태어나던 해에 아버지는 테살로니키에서 공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가 성장하면서 더 많은 영향을 받은 할아버지 나즘 파샤는 디야르바크르의 주지사였다. 할아버지가 이후 현재 시리아 땅인 할렙(Halep) 주지사로 발령이 나면서 가족들도 함께 가게 됐다. 나즘 파샤는 문학 애호가였고 동시에 시에 대한 호기심이 있어서 메블라나의

시를 큰 목소리로 읊곤 했다. 그는 손자인 나즘 히크메트가 시인이 되기를 희망했다.

나즘 히크메트가 어린 시절을 겪으며 세계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할 무렵의 오스만 제국은 계속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 당시 튀르키예는 1911년은 트리폴리(Trablus), 1912년은 발칸 전쟁, 1914년~1918년은 1차 세계 대전 등의 영향권 하에 있었다. 결국 전쟁의 희생자가 된 조국을 한탄하며 그가 1913년 7월 3일 지은 첫 시의 이름은 「통곡하는 나라(Feryad-ı Vatan)」였다.

나즘 히크메트가 존경하던 삼촌 메흐메트 알리가 1915년 차낙칼레 전쟁에서 전사했다. 나즘 히크메트는 그의 죽음을 애통해 하는 마음을 담아 ‘나라와 관련된 시’를 썼다.

나즘 히크메트가 삶에 대해 가진 인식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1917년에 독일에서 온 혁명 단체인 ‘스파르타쿠스’에서 젊은 학생들과 만나면서 시작됐다. 사회주의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이 청년들에게서 그는 러시아에서 일어난 10월 혁명(볼셰비키 혁명)을 듣게 됐다.

1919년에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가 아나톨리아를 제국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한 활동을 함께 도모하도록 하면서 그는 친구 왈라 누레딘(Vala Nureddin), 파룩 나피크(Faruk Nafiz)와 같이 이스탄불에서 행군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이 행군을 통해서 아나톨리아 사람들의 빈곤, 배고픔, 명예로운 저항, 전쟁의 참혹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무스타파 케말이 이끈 앙카라 정부를 지지했고 볼루라는 도시에 교사로 배치됐다.

1921년 방학이 되자 나즘 히크메트는 아제르바이잔을 거쳐 모스크바로 갔고, 10월 혁명을 직면하게 됐다. 그는 동양 노동자 대학교(Doğu Emekçileri Üniversitesi)에서 경제 정치를 공부했으며 연극 극단에도 가입했고 러시아에서 유명한 시인 마야코프스키(Mayakovski)와 한 무대에서 같이 시를 읊기도 했다.

1924년 레닌이 사망하면서 나즘 히크메트는 외국인 학생 대표로 시신을 운구하게 됐다. 같은 해 모스크바에서 「28개 지식(28 KANUNISANI)」이라는 연극 무대에 올랐는데 소련에서 영향력 있는 신문 <진리(Pravda)>에 이 연극을 극찬하는 글이 실렸다. 이때 나즘 히크메트는 겨우 22살이었는데, 소련에서 유명하고 존경받는 작가가 된 것이다.

나즘 히크메트는 1924년 말에 튀르키예에 돌아와서 문예지 <빛(Aydınlık)>에 글을 게재하기 시작했다. 잡지사의 출판방향은 사회주의 이념에 입각한 것이었다. 잡지에는 정부의 토지 개혁을 유도하는 글이 게재됐다. 그러자 1925년 운영진은 물론이고 여기에 글을 실었던 모든 작가들은 기소됐다, 나즘 히크메트도 예외일 수는 없었다. 나즘 히크메트는 체포되기 전 간신히 튀르키예를 탈출해 모스크바로 건너갔다. 그러나 그는 본인이 참여하지도 않은 재판에서 15년 형을 선고받았고, 이어서 1926년 빈에서 개최된 튀르키예 공산당 회의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3개월 형이 추가됐다.

국내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이 시기에 그는 해외에 체류하면서 꾸준히 연극 대본을 쓰고, 공연 연출도 하며 분주하게 지냈다. 첫 시집 『태양을 삼키는 튀르키(Güneşi İçenlerin Türküsü)』는 1928년 튀르키예가 아닌 아제르바이잔의 수도 바쿠에서 발간됐다.

1928년에 조국인 튀르키예로 다시 돌아온 나즘 히크메트는 1929년 잡지 <그림을 담은 달

(Resimli Ay)>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튀르키예에서 첫 시집 『835행(835 Satır)』을 출간했다. 첫 시집에서 튀르키예 문인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시의 형식을 적용해봤다. 그때까지 음절(Hece), 아루즈(Aruz) 운율로 시를 쓰는 문인들은 나즘 히크메트를 통해 자유 운율을 알아가기 시작했다. 이것은 매우 새로운 기법이었고, 시가 대중적으로 낭송되기 시작했다.

나즘 히크메트는 가난한 시골에서 부단한 노력으로 역경을 이겨낸 사람들 그리고 노동자들과 함께 했다. 더불어 노동자들의 문제를 제기하는데 앞장섰다. 그의 시와 연극에서 정치 권력자와 그 주변인들은 타도의 대상이었다.

그는 1929년 이스탄불에서 전차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빼앗긴 도시(Sesini Kaybeden Şehir)」라는 시를 썼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1931년에 『목소리를 빼앗긴 도시(Sesini Kaybeden Şehir)』가 출판되었고, 시집 『1 더하기 1(1 arti 1)』, 『835행(835 satır)』, 『자쿤드와 시-야-유(Jakund ile Si-Ya-Yu)』도 간행됐다. 이어 『목소리를 빼앗긴 도시 II(Sesini Kaybeden Şehir ve Varan-2)』가 출간되자 그는 다시 기소를 당했다.

결국 나즘 히크메트는 위협인물로 찍혀서 출간하는 작품과 하는 활동마다 관찰 대상자가 됐고, 연거푸 소송에 휩싸였다. 1933년에는 또다시 ‘불법단체 설립’이라는 죄목으로 부르사 고등법원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나즘 히크메트를 위협하고 제거하려는 노력은 멈추지 않았다. 1938년 어느 학도병의 관물대에 있었던 책을 핑계 삼아 학도병은 물론 나즘 히크메트도 소환해 군사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했고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거기다 함대에 소속된 야부즈(Yavuz) 배에서 어떤 병사가 나즘 히크메트 책을 읽고 소지하고 있자 이번에는 ‘해군(사) 재판’에 들어갔고 나즘 히크메트는 이 재판에서 20년을 선고받았다.

이 모든 탄압에도 굴복하지 않은 나즘 히크메트는 옥중에서도 글쓰기를 계속 이어나갔고 출판도 지속했다. 정치적 탄압이라고 인식될 수밖에 없는 비합리적 판결은 그의 작품에 대하여 튀르키예 출판계와 해외에서도 반응을 보이게 했다. 1950년에는 ‘나즘에게 자유를’이라는 국민운동이 일어났을 정도였다. 의회가 사면령을 통과시키지 않고 휴회(休會)에 돌입하자, 1950년 4월 8일 나즘 히크메트는 단식 투쟁에 들어갔다. 마침내 그는 1950년 5월 14일이 되어서야 사면을 받고 출소할 수 있게 됐다

1950년 11월 22일 세계평화평의회에서 파블로 피카소(Pablo Picasso), 폴 로브슨(Paul

Robeson), 완다 야쿠보스카(Wanda Jakubowska), 파블로 네루다(Pablo Neruda)와 함께 그가 세계 평화상을 받게 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러나 나즘 히크메트는 여권을 발급받지 못해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했고 상은 칠레 시인 파블로 네루다가 대리 수상했다.

나즘 히크메트는 49세의 나이에 학도병으로 징집됐다. 그에게 심각한 심부전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에서는 입영 통지서를 보냈다. 1948년 4월 2일 작가 사바하틴 알리(Sabahattin Ali)가 피살되면서 긴장감이 나돌았고, 삶의 위협을 느낀 나즘 히크메트는 군대 영장을 받고 튀르키예를 떠나야만 했다. 그는 루마니아를 거쳐서 모스크바에 도착했다. 그리고 1963년 6월 3일 운명할 때까지 모스크바에서 살았다. 죽기 직전인 4월에 『나의 장례식(Cenaze Merasimim)』이라는 시를 지었다.

그는 안톤 체호프(A. Çehov), 니콜라이 고골(N. Gogol), 블라디미르 마야콥스키(V. Mayakovski), 콘스탄틴 스타니슬랍스키(K. Translavski), 이삭 레비탄(I. Levitan), 미하일 불가코프(M. Bulgakov), 알렉세이 톨스토이(A. Tolstoy), 니콜라이 네크라소프(N. Nekrasv), 일리야 에렌부르크(I. Ehrenburg), 세르게이 예이젠스테인(S. Eisentein),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D. Şostakovic), 세르게이 프로코피예프(S. Prokofiev), 니콜라이 림스키코르 사코프(N. Rimski-Korsakov)와 같은 작가, 과학자, 작곡가, 영화 연극 배우가 있는 모스크바 노보데비치 묘지에 안장돼 있다.

나즘 히크메트는 1930년 즈음부터 활동을 시작하면서 시의 새로운 형식과 내용을 풍부하게 한 시인으로 튀르키예뿐만 아니라 세계적 시 흐름에도 영향을 끼쳤다.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시, 연극, 소설, 신문 기고 등 예술 작품 활동을 이어나갔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 시인들의 작품을 튀르키예어로 번역해 튀르키예에 소개했다.

아제르바이잔에서 유명한 문학가 아나르는 “나즘 히크메트는 20세기 그리고 다음 세기에서도 가장 위대한 시인 중 하나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나즘 히크메트는 지난 세기에서 중요한 문제들을 절대 묵인하지 않았고 자기 작품에 예술, 투쟁, 세계관, 활동, 머뭇거림, 실수, 오류, 패배, 굴복, 완고함 등을 고스란히 나타냈다. 간단히 말해 나즘 히크메트의 삶은 혼란스럽고, 모순적이고, 극적이어서 항상 기구한 운명으로 비친 매우 중요하고 대단한 인물이다.”라고 말하며 나즘 히크메트의 다재다능함, 인내심 깊은 성격, 예술의 보편적 특징을 설명했다.

나즘 히크메트는 애국주의와 제국주의에 반감을 품고 있는 시인이었다. 엑베르 바바예프

(Ekber Babayev)가 집대성한 『나즘 히크메트 시 전집』 8권 중 제1권에서 나즘 히크메트는 자신의 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나는 지금 모든 형상을 활용하고 있다. 민속 문학을 운율로 쓰고 있고, 각운으로도 쓰고 있다. 반대로도 하고 있다. 가장 간단한 구어, 각운 없이, 운율 없이도 시를 쓰고 있다. 사랑, 화해, 개혁, 삶, 죽음, 환희, 운명, 희망, 절망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다. 사람에게 특별한 모든 것들이 나의 시에서도 특별하길 바란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나의 독자들이 나한테서 또는 우리한테서 모든 감정을 찾을 수 있기를, 5월 1일 근로자의 날과 관련된 시를 읽고 싶을 때 우리 시를 읽기를, 대가(代價) 없는 사랑과 관련한 시를 읽고 싶을 때 우리 책을 찾게 되기를 바란다. 시인 자신을 언급하든 안 하든, 한 사람 또는 수많은 사람에게 동시에 목소리를 내는 시인은 자신의 철학도, 정치관도 알릴 수 없다.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목소리를 내면서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시인이 얼마나 될까? 이런 시인들은 신비롭고, 주관적이면서, 이상적인 철학이나 종교적 신념을 전파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반대로 자신을 드러내는 시인은 얼마나 될까? 그들은 유물론자다. 변증법적 유물론자 말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시는 대중의 자산이라 할 수 있다. 나는 내가 드러나는 시를 쓰고 싶다. 한 사람이든, 여러 사람이든 영감을 주는 시를 쓰고 싶다. 그리고 사과 한 조각이나 경작할 수 있는 땅 한평이라도 줄 수 있는 시를 쓰고 싶다. 교도소에서 출소한 사람들의 정신을 위로하고, 사람들이 더 나은 날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투쟁하며, 한 사람이라도 실연의 슬픔을 달랠 수 있는 시를 쓰고 싶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시를 쓰고 싶다.”

현대 튀르키예 문학의 출발점은 나즘 히크메트라고 할 수 있다. 소설가 야쿠프 카드리 카라 오스만오을루의 말에 의하면 나즘 히크메트의 시는 튀르키예어의 혁명이다. “1917년 혁명으로 새로운 방식의 예술 길이 열렸다. 튀르키예 시(詩)가 형식과 고유의 가치를 찾아가며 도달한 지점은 전혀 생각지 못한 수준이었다. 나즘 히크메트는 튀르키예 시의 새로운 시작점을 만든 시인이다. 이 새로운 시작점에서 아방가르드한 시에 대한 기대와 형식 그리고 리듬은 나즘 히크메트 시의 정체성(şiiysel kimlik)을 만들었다.”

문학평론가 차크르(Çakır)는 그를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나즘 히크메트를 시인, 작가, 혁명가, 인간이라는 관점으로 각각 연구했을 때 가장 분명한 것은 그가 시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어린 시절부터 그의 영혼을 휘감은 시적 감각은 한평생 그를 지탱해준 삶의 유일한 원

동력이며 추진력이라 할 수 있다.”

예술가인 동시에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인 나즘 히크메트는 예술로 변환되는 힘을 믿는 사람이었다. 이 관점에서 주로 다른 주제와 언급한 문제를 해결할 때 예술의 기능을 활용할 줄 아는 문학가였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나즘 히크멧

● 다국어 표기 NÂZİM HİKMET(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 이스탄불, 살로니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im.haberturk.com/l/2022/01/15/ver1686379151/3315151/jpg/640x360>

● 참고문헌(오프라인) Anar, *Nâzım Hikmet Kerem Gibi*, Bengü Yayınları, Ankara, 2009.

Atabaş, Hüseyin (Yayına Hazırlayan), *Türkçenin Yurttaşları Nâzım Hikmet*, Tömer Yayınları, Ankara, 2002.

Behramoğlu Ataol, *'Nâzım Hikmet'in Düşünce Dünyası' Doğumunun 100. Yılında Nâzım Hikmet'e Armağan*, Kültür Bakanlığı Yayınları, Ankara, 2002.

Coşkun Kıymet(Editör), *İstanbul Şairi Nâzım Hikmet*, Kültür ve Turizm Bakanlığı Yayınları, Ankara, 2010.

Çakır Erdal, “Yollarını Meçhule Bağlayan Adam: Nâzım Hikmet”, *Hece Dergisi Nâzım Hikmet Özel Sayısı*, Ankara, 2007.

Hikmet Nâzım, *Sanat ve Edebiyat Üstüne*, (Haz. Aziz Çalışlar), Bilim ve Sanat Yayınları, Ankara 1987.

Kabacalı Alpay (Hazırlayan), *Doğumunun 100. Yılında Nâzım Hikmet'e Armağan*, Kültür Bakanlığı Yayınları, Ankara 2002.

Temizyürek Mahmut, “Nazım Hikmet şiirinde Poetik, Politik, Pratik Oluşum: Nazım Hikmet 19’unda Doğdu”, *Türkçenin Yurttaşları Nâzım Hikmet*, Tömer Yayınları, Ankara, 2002.

I A105 | 나지르 사파러프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Guzal Mihrayeva ● 라틴 문자 Nazir Safarov

우즈베키스탄의 사회 평론가이자 수필가, 극작가인 나지르 사파러프(Nazir Safarov)는 1905년 지자흐(Jizzax)에서 대장장이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는 우즈벡 초등학교를 마친 후 소비

에트 학교로 진학했다. 10월 혁명 이후에는 야간 학교에서 공부를 했다. 졸업 후 소외지역에서 교사로 근무했다. 그는 1934년에 소련 작가 연맹의 첫 회원 중 한 명이 되어, 제1차 소련 작가 대회에 우즈베키스탄 SSR 대표로 참가했다.

그가 출간한 첫 책은 지야 사이드(Ziya Said)와 함께 집필한 『새로운 삶을 위한 투쟁(Yangi turmush uchun kurash, 1930)』이다. 그 후 작가의 단편집 『어두운 날들의 그늘(Qora kunlar ko'lankasi, 1931)』과 『잊히지 않는 날들(Unutilmas kunlar, 1932)』이 차례로 출간되었다.

지자흐에 설립된 동아리 '사니이오 나피사(Sanoyi nafisa)'에 참여한 후, 그는 희곡을 쓰기 시작했다. 「역사는 말을 할 때(Tarix tilga kirdi, 1931)」, 「각성(Uyg'onish, 1939)」, 「동양의 아침(Sharq tongi, 1954)」과 같은 희곡작품은 우즈베크 극작법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이 작품 들에는 1916년 지자흐 봉기와 우즈베키스탄에서의 소련 체제 수립과 같은 역사적 사건이 반영 되었다.

중군기자로 전쟁에 참전했던 나지르 사파리프는 최전선에서도 「불멸의 영웅(O'q o'tmas botir)」, 「워딜의 영웅(Vodillik qahramon)」, 「사랑(Sevgi)」, 「마지막 숨결까지(So'nggi nafasgacha)」, 「우즈베키스탄의 아이들(O'zbek farzandlari)」, 「영웅의 탄생(Qahramonning tug'ilishi)」과 같은 수많은 단편을 쓰기도 했다.

전쟁 이후 그의 작품들은 새로운 삶, 인간의 선 등의 주제를 다루었다. 특히, 「현명한 여자(Uzoqni ko'zlagan ayol)」라는 작품이 그 예이다.

특히, 1954년~1957년에 그가 후다이쿨러프(Ya. Xudoyqulov)와의 공동 집필 했던 희곡 「인생 의 학교(Hayot maktabi)」와 「엘무로드(Elmurod)」는 우즈베크 문학사에서 걸작으로 꼽히는 작품이다. 제2차 세계 대전에서의 우즈베크 군인들의 용기를 다룬 「루카쉬는 영웅이다(Lukash botir)」는 드라마로 만들어지기도 했다.

그는 희곡 외에도 『얼티너이(Oltinoy)』와 『사과는 나무에서 먼 곳으로 떨어지지 않는다(Oлма olmadan uzoqqa tushmaydi)』 그리고 『아흐마드알리는 자신의 행복을 어떻게 찾았을 까(Ahmadali o'z baxtini qanday topdi)』와 같이 단편소설집도 꾸준히 출간했다.

「피 한 방울(Bir tomchi qon, 1967)」, 「내가 겪고 경험한 것(Ko'rgan-kechirganlarim, 1968)」과 같은 단편소설이나 『나브로즈(Navro'z, 1973)』와 같은 장편소설은 1960년대 우즈베크 문학에서 중요한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작가는 이 소설들에서 1920년대 사마르칸트와 지자

흐 지역의 시골 사람들의 삶을 묘사했다.

나지르 사파리프는 극작법 분야에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1955년 ‘우즈베키스탄 명예 예술가’라는 칭호를 받았다. 1968년에는 작품 『내가 겪고 경험한 것(Ko'rgan-kechirganlarim)』으로 공화국 국가 상을 수상했으며, 1975년에는 우즈베키스탄 국민 작가 칭호를 받았다.

나지르 사파리프는 1985년 1월 4일 타슈켄트에서 사망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나지르 사파로프, 나지르 사파로브
- 다국어 표기 Nazir Safarov(우즈베크어), Сафаров Назир(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지자흐 봉기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rl.kr/p8r4a9>
- 참고문헌(온라인) <https://www.ziyouz.com/portal-haqida/xarita/uzbek-nasri/nazir-safarov-1905-1985>
- 참고문헌(오프라인) Aminov va boshqalar. *O'zbekiston milliy ensiklopediyasi*. Toshkent: O'zME Davlat ilmiy nashriyoti, 2000.
Mirvaliyev S., Shokirova Rixsiya, *O'zbek adiblari*, Toshkent: Fan, 2007.

I A106 | 나흐잘 발라가

- 시기 AD. 1000년~AD. 15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이라크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이슬람 ● 유형 소분류2 서적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Nahj al Balagha

바그다드 출신의 이슬람 시아파 학자 알 샤리프 알 라디(Al-Sharif al-Radi, 970년~1015년)는 4대 칼리프 알리(Ali ibn Abi Talib, 601년~661년)의 글을 수집하고 선별하여 책으로 엮어낸 다. 이 책의 이름은 『나흐잘 발라가(Nahj al Balagha)』, 즉 ‘웅변술의 길’이다. 알 샤리프 알 라디는 그가 편집한 이 책의 독자가 웅변술 입문과 문학적 재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믿었기에 이런 제목을 달았다. 다만, 이 책에 수록된 글이 실제 알리의 저술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위작 논쟁과 함께, 편집자의 글이라는 주장도 있으며, 심지어 편집자가 알 샤리프 라디가 아닌,

그의 형제인 샤리프 알 무르타자(Sharif al-Murtaza, 965년~1044년)라는 주장, 책 속의 글 일부는 알 무르타자의 글이라는 주장이 혼재한다.

『나흐잘 발라가』 선집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첫 번째 부분은 242편(또는 245개, 편집에 따라 글의 개수에 차이가 있음)의 웅변과 설교가 담겨 있다. 알라, 예언자, 아흘 알 바이트(Ahl al-Bayt: 예언자 무함마드의 가문), 세계, 미래, 일부 사회·경제적 문제, 최초의 3대 칼리프와 알리 시대의 역사적 사건을 언급했다.

두 번째 부분에는 알리가 낙타 전투 전, 낙타 전투 중, 그리고 전후에 무와위야 1세(Mu'awiya I, 재위: 661년~680년)에게 쓴 편지들, 행정 관련 서신, 명령서, 사적 서신 등 78편(또는 79편, 중복을 제외하면 63편)이 담겨 있다.

세 번째 부분에는 여러 문제에 대한 알리의 경구 498편이 담겨 있다. 종교, 신앙, 코란, 예배, 세계, 미래, 이성과 지식, 진리 정의, 인류와 전쟁에 대한 문제와 예언자와 알리, 아흘 알 바이트에 대한 경구들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종교에 대한 문제와 함께 이슬람에 대한 인류애적인 접근 방식, 인간과 신, 인간과 다른 인간과의 관계, 일부 전쟁이나 역사적 사건의 원인과 결과 등을 기록했다.

이 서적은 특히 시아파에서 종교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문학적 관점에서도 걸작으로 손꼽힌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나흐잘 발라가, 나흐즈 알 발라가

● 다국어 표기 Nəhcül-belâğə(아제르바이잔어), Nehcü'l-Belâğa(튀르키예어), Nahj al-Balaga(우즈베크어), Наҳдх аль-Баллага(카자흐어)

● 연관 검색어 알리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en.wikipedia.org/wiki/Nahj_al-balagha#/media/File:Folio_from_a_Nahj_al-Balagha.gif

● 참고문헌(오프라인) Durmuş, İsmail. "Nehcü'l-Belâğa", TDV İslâm Ansiklopedisi Cilt 32, İstanbul: TDV, 2006, pp.538~540.

Apaydın, Hasan. "Nehcü'l-Belâğa ve Kaynakları Sorunu", Turkish Journal of Shiite Studies 1 / 2 (December 2019): pp.265~290.

I A107 | 나힐

- 시기 기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의례 ● 유형 소분류2 장식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Nahil

나힐 또는 나힐(Nahil 또는 Nahıl)은 결혼식이나 할례 의식에서 사용하는 밀납으로 만든 나무 모양 장식품이다. 나힐의 어원은 아랍어(nahl)로 대추야자 나무를 의미한다. 나힐의 모양은 일반적으로 대추야자 나무를 흉내 내 장식을 만들고, 가지를 늘어뜨려 천, 종이, 금은 도금이 된 공, 경우에 따라 보석으로 장식한다. 뼈대는 쇠막대기로 만드나 때때로 포플러 나무 따위를 사용하기도 했다. 크기는 보통 4m~6m 정도이고, 신부의 행진이나 할례 연회 때 짊어지고 운반하기 위해 8개나 10개 정도의 손잡이를 바닥에 붙인다. 거대한 나힐이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4개의 줄로 된 지지대도 설치된다. 때때로 사이프러스 나무 형태로 만들어지기도 한다. 나힐은 보통 남성성의 상징으로 해석한다.

나힐은 결혼 연회 등에서 호스트의 재력과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했다. 프리기아나 히타이트 등에서도 유사한 장식이 사용된다. 과거 오스만 제국 시대에도 사용되었던 이 나힐의 크기는 다양하여, 높이가 작게는 2m~4m, 크게는 9m~12m에 이르렀으며 왕실 연회의 경우 은과 보석으로 장식했다.

결혼식에 사용되는 나힐은 일반적으로 신부 측에서 준비하여 신부의 집 앞에서 이동한다. 할례의 경우 할례 의식이 일어나는 곳 앞에서 행진할 때 사용한다. 일부 축제에서도 천막 앞에 나힐을 놓기도 한다.

나힐은 오늘날에도 튀르키예 일부 지역에서 결혼식 때 사용하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나힐
- 다국어 표기 Nahil(튀르키예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kitaptansanattan.com/wp-content/uploads/2017/04/1491805770_A_0542.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Nutku, Özdemir. “Nahil” TDV İslâm Ansiklopedisi cilt 32, İstanbul: TDV, 2006, pp.299~300. Uzunçarşılı, İsmail Hakkı. “Nahil ve Nakıl Alayları”, TTK Belleten, XL/157 1976, pp.55~69.

I A108 | 낙쉬반디

- 시기 기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기타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이슬람 ● 유형 소분류2 종단
- 집필자 장주영 ● 라틴 문자 Naqshbandi Order

낙쉬반디는 중앙아시아에서 창단된 여러 수피 종단 중 부하라를 발원지로 한다. 낙쉬반디는 압둘 할리크 기지두바니가 창설했고, 그의 부하라 출신의 바하 웃딘 낙쉬반디(1317년~1389년)가 교단의 중심이 되어 세계적인 종단으로 성장했다. 호자 우바이달라르 아흐라르는 종단의 도통이라고 할 수 있는 실실라(일종의 계보)를 마련한 사람이기도 하다.

낙쉬반디 수피 종단은 정신 수양에 있어 침묵을 가장 높이 평가하며, 소리를 내지 않고 마음으로 하는 디크르(dhikr)를 권장한다. 새벽 예배와 오후 예배를 마친 후 ‘하툼 알 하와자간’을 외우고 코란에서 인용한 일부 구절들로 기록된 기도문을 암송한다. 이렇듯, 수피주의는 본래 금욕주의, 은둔, 수행 등을 강조하며 세속에는 관심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오늘날 중앙아시아 특히 우즈베키스탄에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낙쉬반디는 초기에 은둔과 세속과의 단절을 강조했으나, 샤리아와 수나에 대한 독실한 믿음을 강조하면서도 이슬람 사회에서의 수피들의 사회참여를 인정하는 세속적인 태도는 일부 낙쉬반디 지도자들로 하여금 정치에 참여하도록 만들었다. 이후 낙쉬반디는 점차 정치 참여를 받아들이며, 정치적 개입과 세속적 측면을 모두 인정했다. 낙쉬반디의 ‘마음은 신을 향해야 하고, 두 손은 일을 해야 한다’라는 구절은 우즈베키스탄 역사에서 외세 침략 시기마다 그들이 저항할 수 있는 명분과 힘을 제공했다.

낙쉬반디 수피즘은 15세기에 시작되어 16세기 인도와 중앙아시아 내에서 통치자의 정치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도구로 활용되었다. 16세기~19세기 중앙아시아의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많은 낙쉬반디 지도자와 추종자들이 중앙아시아에서 인도로 이주했으며, 인도에서 또다시 중앙아시아로 이주했다.

몽골 침략, 러시아 지배 시기(1867년~1917년), 페르가나 봉기(1875년~1876년), 1898년 수피 독치 이산의 안디잔 봉기와 반러시아 저항 운동은 유명한 수피 종단의 저항 운동이라 할 수 있다. 이후 19세기에 러시아 제국이 낙쉬반디 교단의 본산인 중앙아시아를 지배하게 되고, 이어



낙쉬반디 종단 예배

Source: <https://www.flickr.com/photos/msnmsh/albums/72157681707226774>

무신론을 국시로 받아들였던 소련이 지배하게 되면서 이들은 극심한 탄압을 받게 된다. 소련은 비스마치 운동 진압 후 와크프를 폐지했으며, 종교 재단을 국유화하여 수피 종단의 재산을 몰수하는 등 낙쉬반디 종단을 해체하려 했다. 수피 종단의 영적 지도자인 셰이크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수피 전통과 영향력은 사라지지 않았다. 구소련 시대에 정통 이슬람이 소비에트 정권에 협력하며 공식 이슬람으로 인정받게 되자 수피즘은 이단 취급을 받게 되었지만, 중앙아시아 내부의 수피즘에 대한 전통과 영향력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대중들에 의해서 수피즘이 이슬람으로 인식되었다.

모스크와 마드라사가 수피 종단을 통제하기도 했으나, 수피파는 중앙아시아인들의 개인적인 통과 의례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모든 관혼상제에 관계된 의례는 수피 교단의 물라가 주관한다. 따라서 공식적인 조직의 영향력과는 별개로 이들이 개개인의 삶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와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것이라고

도 할 수 있다.

소련에서 독립한 지금도 이 교단은 종교 수행에 대한 탄압 및 도제 교육의 단절로 인해 예전의 전통을 되살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수피즘의 특징으로는 이슬람과 샤머니즘이 결합했다는 점, 도제 교육으로 스승과 제자 간의 관계가 형성된다는 점, 종교 수행 시 음악과 춤을 활발히 이용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수피 성인 숭배 및 성지 순례, 기복 신앙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점도 또 하나의 특징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낙쉬반드, 낙쉬반디아, 낙시반디, 낙시반디아
- 다국어 표기 naqshbandi(영어), نقشبندی(페르시아어), قشبندي(아랍어)
- 연관 검색어 부하라,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 마드라사
- 참고문헌(온라인) <https://sufischool.org/orders/naqshbandi.html>
- 참고문헌(오프라인) 이지은 2013, 「중앙아시아-인도 교류사: 16~18세기 교류의 연속성과 현대적 함의」, 『남아시아연구』, 19(1), pp.191~216.
한국이슬람학회 2018, 『세계의 이슬람』, 청아출판사.

I A109 | 낙카슈 시난 베이

- 시기 A.D. 1000년~A.D. 15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세밀화 ● 유형 소분류2 인물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Nakkaş Sinan Bey

화가라는 의미인 ‘낙카슈(Nakkaş)’라는 호칭으로 잘 알려진 시난 베이(Sinan Bey)의 탄생과 성장 과정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적다. 다만, 술탄 메흐메트 2세(II.Mehmed, 재위: 1444년~1446년(1차), 1451년~1481년(2차)) 시대에 시난 베이는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화가 팔라오 마스토리(Paolo Mastori)로부터 회화를 배웠으며 특히 초상화 그리는 법을 익히게 되었다고 한다. 이 초상화 기법을 제자인 부르살르 아흐메드(Bursalı Ahmed 또는 Şiblîzâde Ahmed

Çelebi)에게 전수한다.

현재 톱카프 궁전 박물관 도서관이 소장한 ‘장미향을 맡고 있는 양반다리의 메흐메트 2세의 초상화(Topkapı Sarayı Müzesi Kütüphanesi, Hazine, nr. 2153, vr. 10a)’가 그의 작품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초상화는 15세기 후반부터 19세기까지 계속된 오스만 제국 술탄의 초상화 전통의 초창기 예시라 할 수 있다. 티무르 제국 초상화 전통의 흔적도 보이지만, 묘사와 기법에 있어서는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흔적도 많이 보인다. 특히, 사실적인 얼굴 묘사와 밝고 어두운 채색 톤으로 볼륨감을 만들어내는 것은 티무르의 기법과는 크게 다르다. 다만, 작품에 서명이 없어서 최근 연구에서는 부르살르 아흐메드의 작품이라는 분석도 대두되고 있다.

또한, 톱카프 궁전 박물관 도서관에서 소장 중인 또 다른 메흐메트 2세의 초상화(Hazine, nr. 2153, vr. 145)가 이탈리아 화가인 코스탄조 다 페라라(Costanzo da Ferrara)가 만들었던 청동 메달로 된 술탄 메흐메트 2세의 초상화와 유사하며, 시난 베이이 이탈리아로 갔던 점을 들어, 오히려 이 작품이 시난 베이의 작품이라고 하는 주장 역시 존재한다.

시난 베이의 작품 이후 오스만 제국의 술탄 초상화의 전통이 확립되었다는 점과 그의 작품이 서구 화풍의 영향을 받은 초기 작품 중 하나라는 점에서 튀르키예 회화사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세밀화가 시난 베이, 나카쉬 시난 베이, 낙카쉬 시난 베이

● **다국어 표기** Nakkaş Sinan Bey(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세밀화, 메흐메트 2세, 티무르 제국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f/f3/Sarayi_Album_10a.jpg
<https://cdn.islamansiklopedisi.org.tr/madde/37/sinan-bey-1.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Tanındı, Zeren. “Sinan Bey”, TDV İslâm Ansiklopedisi cilt 37, İstanbul, 2009, p.228.

Başkan, Seyfi. Başlangıcından Cumhuriyet dönemine kadar Türklerde Resim, Ankara: Atatürk Kültür Merkezi, 2009.

Mahir, Banu. Osmanlı minyatür sanatı, İstanbul : KabaıcıYayınevi, 2005.

I A110 | 낙카슈 오스만

● 시기 A.D. 1000년~A.D. 15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세밀화 ● 유형 소분류2 인물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Nakkaş Osman

낙카슈 오스만(Nakkaş Osman)은 오스만 제국의 고전적인 세밀화 양식의 대표 화가이다. 그의 생몰 연도는 명확하지 않고 그의 이름이 1556년 오스만 궁정의 급료 장부에 처음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쉴레이만 1세(I.Süleyman, 재위: 1520년~1566년) 시대 말기에 궁정 화가로 일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쉴레이만나메(Süleymannâme)』에 낙카슈 오스만의 스타일이 반영된 것을 보아 1558년경에 궁정 세밀화가 일을 시작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낙카슈 오스만의 특기는 역사적인 사건을 담은 그림이다. 오스만은 많은 사람이 등장하는 장면에서 부드러운 붓 끝으로 사람들의 얼굴과 표정을 섬세하게 그렸고, 직접 목격한 사건과 건물 등을 사실적으로 표현했다. 다른 작가들이 쌓아왔던 방식을 응용하면서도 자신만의 표현기법을 발전시켰는데, 그 하나는 주로 파스텔 톤의 색상을 사용했다.

낙카슈 오스만 역시 이전 시대부터 계속되어 온 술탄의 초상화 전통을 이어 세밀화로 술탄의 초상화를 그렸다. 그의 역작으로는 『수르나메-이 휘마윤(Sûrnâme-i Hümayün, 1582년 무라트 3세의 아들 쉐흐자데 메흐멧의 52일간의 할레 연회를 담은 기록한 책)』이 있다. 이 작품에서 이스탄불의 일상과 길드(esnaf)의 성격과 특징, 의식, 무엇보다 연회의 생생한 분위기를 전달하고 있다. 원래 총 500장의 세밀화가 있는 작품이나 현재 전해 내려오는 것은 432장 또는 427장뿐이다.

또 다른 주요 작품으로는 『힌네르나메(Hünernâme: 오스만 술탄들의 업적을 기린 역사책)』이다. 이 역시 낙카슈 오스만의 화풍으로 오스만 제국의 승리를 그려내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대의 건축물이나 도시의 모습이 사실적으로 담겨 있어 현재 모습이 바뀌거나 사라진 건축물을 연구하는 데 유용하다.

이외에도 『즈비데튀트-테바리흐(Zübdetü't-Tevârih)』와 같은 작품 역시 천당과 지옥, 하늘과 땅을 묘사한 후 아담과 이브로부터 시작하는 이슬람 관점에서의 세계사와 가즈나, 셀주크, 티무르와 같은 왕조와 관련된 사건, 오스만 가지로부터 시작하여 무라트 3세까지의 오스만 역

사를 설명하고 있다. 특기인 군중 등장 장면뿐만 아니라, 이슬람 사의 주요 예언자들의 초상화를 그렸고, 이 예언자들의 후손으로 오스만 술탄을 연결 짓기도 했다.

낙카슈 오스만의 세밀화 스타일은 후대 세밀화가들에게 모범적인 기법으로 받아들여졌고 이로 인해 그는 고전적인 오스만 양식의 창조자로 여겨진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화가 오스만, 세밀화가 오스만, 나카쉬 오스만, 낙카쉬 오스만
- 다국어 표기 Nakkaş Osman(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오스만, 수르나메, 낙카시하네, 세밀화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d/d4/Surname-i_H%C3%BCmayun_-_glassblowers_parade.jpg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8/80/1526-Cavalry_units_participating_in_the_Battle_of_Mohacs-Hunername.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Başkan. Seyfi, Başlangıcından Cumhuriyet dönemine kadar Türklerde Resim, Ankara: Atatürk Kültür Merkezi, 2009.
Mahir. Banu, Osmanlı minyatür sanatı, İstanbul: KabaalçıYayınevi, 2005.

I A111 | 낙카슈 하산

- 시기 A.D. 1500년~A.D. 18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세밀화 ● 유형 소분류2 인물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Nakkaş Hasan

낙카슈 하산(Nakkaş Hasan)은 오스만 제국 술탄 메흐메트 3세(III.Mehmed, 재위: 1595년~1603년), 아흐메드 1세(I. Ahmed, 재위: 1603년~1617년) 시기에 활동한 세밀화가이다. 그의 유년기에 대한 정보는 알려진 바가 없다. 낙카슈바시 오스만(Nakkaşbaşı Osman)과 함께 일했으며, 예니체리의 부장을 맡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1503년 예니체리 아아스로 재직했으며, 1604년~1605년에는 루멜리 베이레르베이이, 1605년~1606년에는 웨지르가 되었다. 잠시 사다레트 카이마카르(sadaret kaymakamı)를 맡았던 낙카슈 하산은 1606년~1607년에 다시

웨이르가 되었다.

그가 그렸던 세밀화에는 주로 둥근 형식의 구성과 검고 굵은 눈썹 두껍고 짧은 목, 똑바로 자른 수염, 볼이 통통하고, 몸은 뚱뚱한 인물상이 등장한다. 특히, 생생한 색상은 그의 화풍을 특징짓게 한다. 20편 가량의 필사본을 작업한 그는 1590년 낙카슈하네에서 영향력을 발휘했고, 그의 스타일은 당시 제작되었던 필사본에 반영되었다. 대표적인 예가 『무함마드의 일생(Siyer-i Nebi)』(톱카프 궁전 박물관 도서관 소장, Topkapı Sarayı Müzesi Kütüphanesi, Hazine, nr.1221)이다.

낙카슈 하산은 세밀화가로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도금 장식 분야에서도 명성을 얻었다. 카라히사리 쿠란(Karahisarî Kur'an Kerim)(톱카프 궁전 박물관 도서관 소장, Topkapı Sarayı Müzesi Kütüphanesi, Hazine S.5), 술탄 아흐메드 1세의 투으라(톱카프 궁전 박물관 도서관 소장, Topkapı Sarayı Müzesi, G.Y.1394)가 그 예이다.

1623년에 사망한 그는 에이위프(Eyüp)에 자신의 이름을 딴 낙카슈 하산 파샤(Nakkaş Hasan Paşa) 영묘에 안장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나카쉬 하산, 낙카쉬 하산, 낙카쉬 하산 파샤
- 다국어 표기 Nakkaş Hasan(튀르키예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Tanındı, Zeren."NAKKAŞ HASAN PAŞA", TDV İslâm Ansiklopedisi Cilt 32, İstanbul:2006, pp.329~330. Mahir, Banu. Osmanlı Minyatür Sanatı, İstanbul: KabcacıYayınevi, 2005.

I A112 | 낙카시하네

- 시기 기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세밀화 ● 유형 소분류2 조직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Nakkaşhane

일종의 화실이라 할 수 있는 낙카시하네에서는 세밀화가, 문양 스케치 전문가, 문양 전문가, 장식 예술가, 제본 전문가와 서책 예술가, 석공, 석재 장식가, 석재 전문가, 유리 세공가 등이 공

동 작업한다.

14세기 이후 이란과 인도에 세워진 이슬람 국가에서 국가가 예술을 지원하고 예술가를 육성할 목적으로 세웠던 비슷한 기구가 있으며 티무르 제국에서는 쿠툽-하네(kutup-hane)라고 부르기도 했다. 사파비와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역시 술탄과 왕자가 주인인 낙카시하네에도 ‘쿠툽-하네’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나 사파비에서는 ‘낙카시하네’라는 용어를 병용하기도 했다.

오스만 제국 이스탄불에서는 시장의 길드(esnaf)에서 작업하던 낙카시하네와 함께 톱카프 궁전 내부와 인근에서 궁정의 예술과 공예 작업을 담당하던 낙카시하네가 있었다.

오스만 궁전 기관 중 하나로 예술과 관련된 일을 담당하는 에흘리 히레피 핫사(ehl-i hiref-i hâssa: 특수한 예술 전문가)에서 낙카시, 즉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고 톱카프 궁전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문양은 서책, 석재 장식품, 유리, 도자기뿐만 아니라 목공예 제품과 의상 등에서도 사용되었다. 궁정에 소속된 낙카시하네의 예술가들은 석 달에 한 번씩 급료를 받았고 정기 업무 외의 추가 업무가 발생할 경우 추가 급료를 받았다. 명절에는 술탄에게 선물을 바치고 그에 대한 상으로 술탄에게서 카프탄(kaftan: 상의의 일종)이나 돈을 받았다.

16세기에는 낙카슈의 증가로 궁정 낙카시하네의 책임자 역인 세르낙카슈(sernakkaş)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책이 생겨났으나 17세기 초, 낙카슈의 숫자의 감소로 인해 이 직책은 사라지기도 한다.

톱카프 궁전의 낙카시하네는 톱카프 궁전 첫 번째 중정에, 일부는 궁전 밖과 아슬란 하네(Arslanhâne)라고 불리던 건물 등에 머물렀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궁전에서 특수한 작업을 따로 의뢰한 예술가들에게는 별도의 낙카시하네가 주어졌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낙카쉬하네, 나카쉬하네 화원

● 다국어 표기 nakkāshane(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세밀화, 티무르 제국, 우즈베키스탄, 톱카프 궁전

● 참고문헌(오프라인) Tanındı, Zeren. “Nakkāshane”, TDV İslâm Ansiklopedisi 32. cilt, İstanbul, 2006, pp.331~332.. Mahir, Banu. Osmanlı minyatür sanatı, İstanbul : Kabcacı Yayınevi, 2005.

I A113 | 너디르무함마드 칸

● 시기 AD.1500년~AD.1800년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군주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Nodirmuhammadxon

부하라 칸국의 칸이었던 이맘쿨리 칸(Imamquli, 재위: 1611년~1642년)이 통치 말기 눈이 멀게 되자 너디르무함마드에게 양위를 결정한다. 즉위식은 사마르칸트와 부하라에서 두 차례 열렸다. 즉위 전 너디르무함마드는 발흐(Balkh)와 바다흐샨(Badakhshan) 지역의 통치자였다. 전대 이맘쿨리와는 반대로 거대한 제국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려 했다. 전대 이맘쿨리는 우즈베크 부족장들이 자신들의 수입을 관리하는 것을 방치했지만, 너디르무함마드는 과자(khwaja, 우즈베크어: 호지(Xo'ja))를 위한 토지 보조금(suyurghal) 정책을 재개하려고 했고, 이는 우즈베크 부족장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카자흐인들이 트란스옥시아나 지역을 공격했고 후잔드(Khujand) 지역을 비롯하여 여러 곳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그들을 쫓아내기 위하여 아들인 압둘아지즈 칸(Abdulazizxon, 재위: 1645년~1681년)을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압둘아지즈 칸은 원정 중에 자신을 칸으로 선언했고, 이에 너디르무함마드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하여 발흐로 갔으나, 압둘아지즈는 외려 부하라로 오게 되었다. 너디르무함마드는 처음에는 무굴의 샤자한(Shah Jahan, 재위: 1628년~1658년)에게 도움을 요청하려 했으나, 이들은 도리어 내전을 이용하여 발흐와 바다흐샨을 노리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너디르무함마드는 사파비로 떠나 이들의 도움을 받아 귀환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1651년 사망할 때까지 무굴의 영토가 된 발흐의 통치자로 남게 되었다. 순례 중에 사망한 너디르무함마드는 자신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던 이맘쿨리 곁에 묻힌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나드르 무함마드, 나디르 무함메드, 너디르 무함마트, 나디르 무함마드
- 다국어 표기 Nodirmuhammad(우즈베크어), Nadr Muhammad(영어), Nadir Muhammed(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부하라 칸국, 압둘아지즈 칸, 이맘쿨리
- 참고문헌(오프라인) Gündoğdu, Abdullah. "Şiban Han Sülalesi ve Özbek Ulusunun Teşekkülü", Türkler Cilt 8, Ankara: Yeni Türkiye, 2002, pp.1046~1066.

Alpargu, Mehmet. "Türkistan Hanlıkları", *Türkler Cilt 8*, Ankara: Yeni Türkiye, 2002, pp.957~1045.

Mukaminova, .G. "The khanate (emirate) of Bukhara, Part Two: The Janids (Astarkhanids)", *History of civilizations of Central Asia. Volume VI, Towards the contemporary period : from the mid-nineteenth to the end of the twentieth century*, Paris : UNESCO, cop. 2005, pp.45~52.

I A114 | 너르무러드 나르줄라예프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Guzal Mihrayeva ● 라틴 문자 Normurod Narzullayev

너르무러드 나르줄라예프(Normurod Narzullayev)는 우즈베크 현대문학 발전에 크게 기여한 시인 중 한 명이다. 1934년 7월 7일 카슈카다르요(Qashqadaryo)에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났다. 초등 교육은 고향 마을의 학교에서 받았고, 1948년 어훈버버예프(Oxunboboev) 카르쉬(Qarshi) 교육 학교에 입학했다. 1956년 사마르칸트 국립 사범대학 언어문학부를 우등으로 졸업했다. 그는 신문 <레닌의 길(Lenin yo'li)>과 신문 <카슈카다르예의 진실(Qashqadaryo haqiqati)>의 편집자이자 문학 분야 담당자, 부서장 및 총무로 근무했다. 1968년부터 1969년까지는 알리셰르 나바이이(Alisher Navoi)의 이름을 딴 사마르칸트 국립대학 대학원에서 우즈베크 문학을 공부했다. 또한, 1969년 우즈베키스탄 공산당 사마르칸트 시위원회의 선전 및 선동 부서의 책임자로 일했다. 1970년 1월부터 1974년 7월까지 우즈베키스탄 공산당 중앙위원회 문화부문 관리자로 근무했다. 그는 1974년 우즈베키스탄 소비에트 작가연합 제1부회장과 상임위원으로 선출되었다. 너르무러드 나르줄라예프는 1976년부터 1981년까지 '우즈베키스탄 작가연합' 사무관 겸 위원으로 활동했다. 1991년부터 1997년까지 '카말락(Kamalak)' 출판사 및 인쇄 협회의 편집장과 출판이사를 맡았으며 1997년부터는 우즈베키스탄 청년 카멀릿 기금의 카터르톨-카멀릿(Qatortol-Kamolot) 제작 및 출판사에서 자문관으로 일했다.

1954년부터 창작 활동을 시작했고, 초기 시는 정기 간행물에 게재되었다. 첫 시집 『수윤치(Suyunchi)』는 1965년에 출간되었다. 그 이후에도 그는 꾸준히 시집을 펴냈다. 그가 펴낸 대표적인 시집은 『조국은 당신을 사랑한다(Sizni Vatan erkalar, 1966)』, 『사랑의 샘(Mehr

chashmasi, 1970)』, 『자라프산의 빛(Zarafshon zarlari, 1970)』, 『내 눈길은 지평선에(Ufqlarda ko'zlarim, 1973)』, 『빛(Yog'du, 1974)』, 『눈길(Nigohlar, 1976)』, 『순간과 타격(Lahza va larza, 1978)』, 『사랑의 마법(Sevgi sehri, 1981)』, 『나의 백마(Oq samanim, 1982)』, 『일출의 통보자(Tong elchisi, 1984)』, 『바람을 잡은 소년(Shamolni ushlagan bola, 1985)』, 『나는 선(善)을 위해 산다(Yaxshilik deb yashayman, 1987)』, 『정확한 시간(Aniq vaqt, 1989)』 등이 있다. 러시아로 집필한 시(詩)도 있다. 「높은 태양(Высокое солнце, 1974)」, 「두타르의 비행(Полет дутар, 1977)」, 「순간(Мгновение, 1982)」, 「풀의 숨결(Дыхание трав, 1983)」, 「바람을 잡은 소년(Мальчик поймавший ветер, 1990)」 등이 그 예이다.

이외에 그의 『사랑으로 탄생할 것이다(Muhabbatdan tug'ilgay)』는 아제르바이잔어로 출판되었고 『코쉬치너르(Qo'shchinor)』는 타지크어로 출판되었다.

너르무르드 나르줄라예프의 작품은 영어, 베트남어, 체코어, 독일어, 폴란드어, 튀르키예어, 힌디어, 스페인어 및 프랑스어 등 다양한 외국어로 번역되었다. 작가 자신도 하인리히 하이네(Heinrich Heine), 막심 탄크(Maksim Tank), 예브게니 엠피셴코(Yevgeny Yevtushenko), 조비르(Jobir Navruz), 카이슨 굴리예프(Kaysin Guliyev), 이브라임 유수포프(Ibrayim Yusupov), 안드레이 데멘티예프(Andrey Dementyev)를 비롯한 여러 시인의 작품들을 우즈베크어로 번역했다.

또한, 너르무르드 나르줄라예프는 문학논문과 평론, 다큐멘터리 「국민의 나이팅게일(Xalq bulbuli)」, 「우정의 시 경기(Do'stlik mushoirasi)」의 시나리오 그리고 드라마 「양심의 반란(Vijdon isyoni)」 대본을 집필했다.

그는 '나르지이(Narziy)'라는 필명으로 작사가로서도 활동했다. 그의 시를 기반으로 한 많은 노래가 공화국 대회에서 특별상을 수상하기도 했으며, 그가 작사한 약 200곡 이상의 노래가 있다.

너르무르드 나르줄라예프는 1971년 우즈베키스탄 청소년 단체상을 수상했다. 1984년에 그는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의 '명예 문화노동자'라는 칭호를 받았으며, 1998년에는 명예 메달을 받았다. 2000년에 우즈베키스탄 국민시인이라는 칭호를 받았다.

너르무르드 나르줄라예프는 2006년에 세상을 떠났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노르무로드 나르줄라예프, 너르무러드 나르줄라예프, 나르무라드 나르줄라예프, 나르무랏 나르줄라예프

● 다국어 표기 Normurod Narzullayev(우즈베크어), Нормурод Нарзуллаев(러시아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rl.kr/hre6am>

● 참고문헌(오프라인) Aminov va boshqalar, *O'zbekiston milliy ensiklopediyasi*, Toshkent: O'zME Davlat ilmiy nashriyoti, 2000.

Mirvaliyev Sobir, *O'zbek adiblari*, Toshkent: Fan, 1993.

Narzullayev N., *Qalbim qatralari*, Toshkent: Fan, 1994.

Narzullayev N., *Xalqim sen bilan qalbim*, Toshkent: Yangi asr avlodi, 2000.

I A115 | 너스르 퍼질러프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번역작가
- 집필자 오은경, Guzal Mihrayeva
- 라틴 문자 Nosir Fozilov

너스르 퍼질러프(Nosir Fozilov)는 작가이자 세계의 다양한 문학 작품을 우즈베키스탄에 알린 번역작가이다. 그는 70권 이상의 책을 집필하고 번역했다.

너스르 퍼질러프는 1929년 카자흐스탄 심켄트(Chimkent) 지역에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조부는 구르바티이(G'urbatiy)라는 필명으로 카미이(Kamiy), 히스랏(Xislat), 싯키이-헌다이리키이(Sidqiy-Xondayliqiy) 등과 같이 활동한 시인이었으며, 타슈켄트에서 세 권의 시집을 출판했다.

전쟁 시기였던 어린 시절에는 학업과 노동을 병행해야 했기에 또래보다 뒤늦은 1949년에야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다. 졸업 후 그는 타슈켄트로 와서 중앙아시아 국립대학교(1918년 투르키스탄 인문대학교로 개칭 후 1920년 투르키스탄 국립대학교로 개칭. 1923년 제1중앙아시아 국립대학교로 개칭)에 입학했으며, 1954년에 졸업했다. 이후 <굴한(Gulxan)>, <동방의 별(Sharq yulduzi)>과 같은 잡지와 출판사에서 다양한 직책을 맡았다.

1959년 첫 책인 『강(Irmoq, 1959)』이 출간되었다. 이후 『흐름(Oqim, 1962)』, 『눈송이 편지(Qorxat, 1968)』, 『봄철 이야기(Ko'klam qissalari, 1970)』, 『옥수수 함정(Jo'xori tuzoq, 1971)』, 『여름 삼개월(Saraton, 1975)』, 『우리를 작다고 말하지 마(Kichkina demang bizni, 1977)』, 『다이더르(Diydor, 1979)』, 2권으로 구성된 『너스르 퍼질러프 선집(選集)(Tanlangan asarlar, 1982~1983)』, 『장난꾸러기의 손자들(Shum bolaning nabiralari, 1985)』, 『빛나는 순간들(Munavvar lahzalar, 1998)』, 『기억하면 마음이 빛날 것이다(Eslasang ko'ngling yorishur, 2003)』,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Ustoz so'zlaganda, 2007)』, 『내가 발견한 건 잃어버리지 않았다(Topdimu yo'qotmadim, 2010)』를 포함한 수십 권의 책을 출판했다.

너스르 퍼질러프는 번역작가로서도 활발한 활동을 했다. 후사이노프(Sh. Husainov)의 희곡 「빛나는 돌(Nurli tosh)」, 무코노프(S. Muqonov)의 단편 「인생의 학교(Hayot maktabi)」, 「목양자의 아들(Cho'pon o'gli)」, 「절름발이 레슬러(Cho'loq polvon)」, 무스타핀(Mustafin)의 「카라간다(Qarag'anda)」, 압두코디로프(Q. Abduqodirov)의 단편 「허지무쿰(Xojimuqon)」, 무스레포브(G. Musrepov)의 「카자흐 군인(Qozoq soldati)」, 「키린 새의 노래(Qiron qush qo'shigi)」, 무흐타르 아베저프(Muxtor Avezov)의 「목격-목격된 사건(Qarash-qarash voqeasi)」, 희곡 「아바이-국민의 아들(Abay-xalq farzandi)」, 아베저프와 서벌레프(M. Avezov, L. Sobolev)의 「아바이(Abay)」와 같은 카자흐스탄 작가의 작품을 번역했다. 그는 카자흐스탄 작가뿐만 아니라 러시아나 투르크멘, 키르기스 작가의 작품들도 우즈베크어로 번역했다.

동시에 자신의 작품들도 러시아어, 투르크멘어, 카자흐어를 비롯하여 아르메니아어, 라트비아어, 조지아어, 힌디어, 아랍어 및 아제르바이잔어로 번역했다.

너스르 퍼질러프는 1985년에 작품 『장난꾸러기의 손자들(Shum bolaning nabiralari)』로 우즈베키스탄 작가연합의 가푸르 굴롬(G. Gulom)상을 받았고, 1986년에는 카자흐 문학 작품을 번역한 공로로 카자흐스탄 작가연합의 바이임베트 메이린(Bayimbet Maylin) 상을 수상했다. 우즈베키스탄 명예예술가 칭호를 받은 그는 1999년 명예훈장을 받았다. 2011년에는 저서 『내가 발견한 건 잃어버리지 않았다(Topdimu yo'qotmadim)』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상을 수상했다.

우즈베키스탄 문학과 번역을 위하여 헌신한 너스르 퍼질러프는 2018년 세상을 떠났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노시르 포질로프, 나시르 파질로프, 너시르 퍼질러브, 노시르 포질로브, 노시르 포질로프
- 다국어 표기 Nosir Fozilov(우즈베크어), Носир Фозилов(러시아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ilmlar.uz/fozilov-nosir-hayoti-va-ijodi/>
- 참고문헌(온라인) <https://n.ziyouz.com/portal-haqida/xarita/uzbek-nasri/nosir-fozilov-1929>
- 참고문헌(오프라인) Mirvaliyev Sobir, *O'zbek adiblari*, Toshkent: Fan, 1993.
Matjon Safo, Sariyev Sharofjon, *O'zbek adabiyoti*. Toshkent: Fan, 2005.
Fozilov Nosir, *Saraton*. Toshkent: Sharq, 2006.

I A116 | 너지마허님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Guzal Mihrayeva ● 라틴 문자 Nozimaxonim

너지마허님(Nozimaxonim)은 우즈베크 고전 시 장르를 계승한 근대 여성시인 중 한명이다. 투르키스탄의 자유와 권리를 위한 투쟁에 헌신했다. 또한 그녀는 최초의 우즈베크 여성 언론인이었다. 1870년 타슈켄트에서 태어난 그녀는 타타르어, 아랍어 및 페르시아어를 공부했고, 우즈베크와 페르시아 고전 문학, 특히 사디(Saadi)와 하피즈(Hafez)의 작품을 탐독했다.

제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너지마허님은 오렌부르크와 카잔의 언론매체를 정기적으로 구독했고, 제자들에게 러시아 여성의 삶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고 한다. 이렇듯 해외 언론을 통해 접한 유럽 문학과 문화, 자유주의 사상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그녀의 시와 칼럼이 1900년대부터 언론을 통해 발표되기 시작했고, 20세의 나이에 명성을 얻기 시작했다.

너지마허님의 시를 포함한 기고문은 주로 독립과 여성의 자유에 대한 문제 제기, 계몽주의와 미신과 이단 타파 등을 주제로 삼았다. 이런 주제를 담은 날카로우면서도 유머러스한 필체의 시를 <명예(Shuhrat)>, <투르키스탄의 소리(Sadoyi Turkiston)>, <발전(Taraqiy)>과 같은 신문에 정기적으로 발표했다.

너지마허님의 작품은 풍자적인 방식으로 당대의 사건을 다룬다. 특히 1905년 빵과 자유를 요

구하기 위해 광장으로 나선 인민을 차르가 총살을 명한 사건을 묘사하며 상트페테르부르크 노동자들의 인간 존엄성을 옹호하는 작품은 당시 러시아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담아낸 우즈베크의 유일한 시이다. 동시에 러시아의 약탈과 자유와 해방을 위한 투쟁을 시에 반영하면서, 세상일에 무관심하고 자신의 이득과 명예만 생각하는 동포들의 삶을 비판한다. 인간과 사회, 조국과 민족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투르키스탄을 조망하며, ‘파괴된 조국의 현실’을 발견한다. 이런 심정을 그의 「비통(Ming taassuf)」이라는 시에 담기도 했다.

너지마허님의 시는 1900년대부터 1920년대에 이르는 우즈베크의 문학과 시론(詩論)을 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나 아쉽게도 현대까지 보존된 시의 수는 많지 않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약 스무 편의 시는 그녀가 우즈베키스탄 문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도록 해주고 있다.

1904년에는 <투르키스탄 지역신문(Turkiston viloyatining gazet)i>에 「인간에게 어느 정도의 자유가 필요한가?(Insonga qancha erk darkor)」, 「지식과 교육에 대한 한두 마디(ilm va maorif borasida bir-ikki so‘z)」, 「여성들의 권리에 관하여(Xotinlar huquqiga oid)」와 같은 글을 기고했다. 이러한 글을 통해 인민의 민족 해방 운동을 지지하고,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위치에 대해 말했으며, 무지와 억압으로 인해 유린당한 우즈베크 여성들의 인권 신장을 요구했다. 그녀의 기고문은 투르키스탄에서 자유 사상을 전파하고 우즈베크 여성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고양시켰다.

1924년에 세상을 떠난 너지마허님에 대한 정보는 많지 않다. 최초로 저키리프(M.Zokirov)가 각종 정기 간행물에 수록된 너지마허님의 시와 그녀의 팬이 보관하고 있던 필사본을 수집하고, 제자 만주라버누 마지더바(Manzurabonu Majidova)의 회고록에서 너지마허님에 대한 사실을 찾아 정리했다. 관련된 기사는 1967년 신문 <타슈켄트의 저녁(Toshkent oqshomi)>에 발표했다. 1977년에는 커시머프(Qosimov B)가 발표한 논문 「자유를 사랑한 여성 시인(Erksevar shoir)」에서도 너지마허님의 삶과 작품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노지마호님, 노지마하늬, 노지마하님, 나지마하님
- 다국어 표기 Nozimaxonim(우즈베크어), Назимахоним(러시아어)
- 참고문헌(온라인) <https://ziyouz.com/portal-haqida/xarita/uzbek-sheriyati/o-zbek-mumtoz-adabiyoti/>

nozimaxonim-1870-1924

● **참고문헌(오프라인)** Aminov va boshqalar, *O'zbekiston milliy ensiklopediyasi*, Toshkent: O'zME Davlat ilmiy nashriyoti, 2000.

Qosimov Begali, *Milliy ug'onish: jasorat, ma'rifat, fidoiylik*. Toshkent: Ma'naviyat, 2002.

I A117 | 네브жат 괴즈아이든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언어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학자
● 집필자 장주영 ● 라틴 문자 Nevzat Gözaydin

네브жат 괴즈아이든은 1938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태어났다. 앙카라 아타튀르크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958년 앙카라 대학교 언어역사지리학부 튀르키예어문학과에 입학한다. 대학을 졸업한 후 8개월간 문학 교사로서 근무했으며, 튀르키예 교육부의 교육자 양성을 목적으로 한 프로그램으로 1964년 독일 마인츠 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위해 유학을 간다. 1967년 그는 지도 교수 요한네스 벤징(Johannes Benzing)의 지도로 「에블리아 첼레비의 여행기 중 시바스 엘비스탄의 민속 고찰」을 주제로 박사 학위 논문을 마친다. 이후 튀르키예로 돌아온 그는 앙카라 경제 무역 아카데미 소속 신문방송학 고등 교육원에서 조교로 시작하여, 1986년까지 민속과 민속 문학, 세계 문학, 튀르키예어를 가르쳤다. 1976년부터 1980년까지는 프라트 대학(Firat University)에서 민속 문학과 민속학을 강의했다. 1987년 그는 앙카라 대학교 튀르키예어문학과와 민속학과에서 부교수로 초빙되어 학생들을 가르쳤다. 1993년 튀르키예 최초로 언어, 역사, 지리 학부와는 독립적으로 민속학과를 설치하며 학과장이 되었으며, 2005년 은퇴했다.



『민속의 세계에서(Folklor Dünyasından)』 표지

1969년까지 그는 다양한 학술 활동을 했으며, 그의 주요 저서는 『에블리야 켈레비의 여행기 중 시바스 엘비스탄의 민속 고찰(1970)』, 『튀르키예어 사전(Türkçe Sözlüğü, 1971)』, 『민속의 세계에서(Folklor Dünyasından)』, 『학교 사전(Okul Sözlüğü)』, 『튀르키예 민속 춤(Türk Halk Oyunları-Turkish Folk Dances)』 등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네브자트 교즈아이든, 네브자트 교즈아이든, 네브자트 괴즈아이든
- 다국어 표기 Nevzat Gözaydın(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앙카라, 튀르키예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cdn.odatv4.com/images/2023_08/2023_08_16/odatv_image_102_7db668fac1c84b.jpg
- 참고문헌(온라인) <https://www.millifolklor.com/PdfViewer.aspx?Sayi=72&Sayfa=3>
- 참고문헌(오프라인) Milli Folklor. 2006. Prof. Dr. Nevzat Gözaydın'ın Özgeçmiş ve Yayınları. Milli Folklor. 18(72), pp.19~22.

I A118 | 네오마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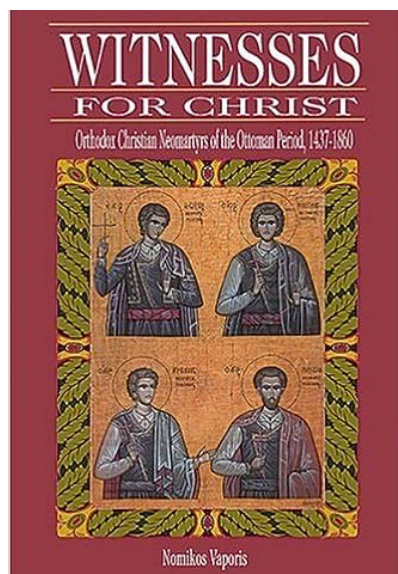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사건 ● 유형 소분류2 종교운동
- 집필자 이영희 ● 라틴 문자 Neomartyrs

네오마터(Neomartyrs)는 ‘신(新)순교자’를 의미한다. 신순교자는 로마 제국이 기독교 공인(313년) 이후 순교자와 구분하기 위한 단어로 오스만 제국 시기 이슬람교를 부정하고 순교한 사람을 의미한다.

오스만 제국 시기 네오마터는 동방정교회 교인을 지칭하였는데 이들은 이슬람교로 개종한 이후 다시 동방정교회로 개종하거나 이슬람교를 부정하며 배교하여 순교한 사람들이다. 이슬람 율법, 샤리아에 따라 배교자로 의심되는 사람은 이슬람교로 돌아올 수 있는 세번의 기회가 주어졌고 세번 거부할 경우 남성은 사형, 여성은 종신형에 처해졌다.

오스만 제국 시기 네오마터에 관하여 1794년 동방정교회 성인 니코데모가 작성한 네오마터

모음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모음집을 통해 보았을 때 남성 순교자는 두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의도적으로 순교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과 비의도적으로 무슬림, 기독교인의 모함,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순교를 당한 사람으로 구분된다. 이들은 처음에는 동방정교회 신자로 자의 또는 타의로 이슬람교로 개종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후 이들은 이슬람교를 배교하여 순교자가 되었다. 순교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개인적으로 남성, 여성의 모함, 모략, 무고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경제적인 목적을 위해 비즈니스 파트너나 경쟁자의 시기, 질투, 모함에 희생되는 경우도 있었다. 오스만 제국은 이슬람교를 배교한 이들을 이슬람 율법에 규정된 법적 절차를 거쳐 처형하였다.



오스만 시대의 신순교자를 다룬 『Witnesses for Christ: Orthodox Christian Neomartyrs of the Ottoman Period』 표지

17세기-18세기 네오마터의 숫자가 크게 증가하는데 아토스산에 위치한 동방정교회 아토나이트(Athonite) 수도원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순교를 각오한 사람들은 아토스 산으로 피신하였고 이곳에서 수도사들은 그들을 영적으로 수양시켰다. 이후 순교가 준비된 자들은 고향으로 돌아가 공개적으로 이슬람교를 거부하며 오스만 제국 정부를 자극하였고 순교를 하였다. 19세기 지식인들은 자살을 권장한 아토 나이트 수도원을 비판하기도 하였다.

동방정교회는 네오마터들을 활용하여 교회 선전에 활용했다. 17세기 발칸반도 지역의 무슬림 숫자는 최대로 증가한 상태였고, 무슬림과 비무슬림 사이의 사회적 구분이 모호한 상태였다. 여기에 개신교, 카톨릭 선교사들이 활동하여 여러 종교가 혼합되었던 시기이다. 동방정교회는 17세기~18세기에 전개된 아토스산 수도원의 신순교자 훈련 캠프를 설립하고 기독교의 참회와 양심을 실천하는 교리를 강조했다. 이를 통해서 신순교자들에게 기독교 생활양식을 교육시키고 기독교인, 이슬람교인의 사회적 관계를 막고 이슬람으로 개종하지 못하도록 하여 동방정교회 신자를 확보하고자 하였고, 네오마터를 통해 교세를 확장하고자 하였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새 순교자, 신순교자

● 다국어 표기 New Martyr(영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Tijana Krstić, “Neomartyrs”, *Encyclopedia of the Ottoman Empire*, NewYork: Facts On File, 2009, pp.429~430

I A119 I 네이

● 시기 기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음악 ● 유형 소분류2 악기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Ney

네이는 중동 지역에서 널리 사용되는 관악기이다. 네이의 어원은 페르시아어에서 갈대를 뜻하는 나이(nây)가 변형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튀르키예어에서 네이는 오랫동안 ‘나이’라는 형태로 사용되다가 네이로 변화되었다. 갈대로 만든 이 악기는 현대에서는 다른 재료를 사용해 제작하기도 한다.

갈대로 만든 관악기는 지금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수메르인이 만든 네이가 가장 오래된 것이다. 수메르인은 연주용으로 사용한 갈대 파이프를 카그(kagi), 티키(tigi), 니(ni), 나(na)와 같은 단어로 불렀으며, 나(na)로 부른 것으로 보아 나이의 어원을 이것으로 보는 주장도 있다.

위구르인들이 살았던 투르판과 고창 지역에서 발굴된 그림에서 세로로 잡은 형태의 네이와 유사한 관악기를 불고 있는 사람이 있으며, 이집트인과 히브리인의 조각에서도 네이와 유사한 악기를 관찰할 수 있다.

문헌에서 ‘네이’라는 단어가 나타난 가장 오래된 것은 킨디(al-Kindi, 801년~873년)의 저술로 ‘아나톨리아에 사는 사람들의 주머니가 있는 네이’라는 묘사가 있다. 이븐 시나(İbn Sina, 980년~1037년)의 책에서도 갈대로 만든 관악기를 의미하는 예라아(yerâa)라는 아랍어 단어를 사용해 네이와 수르나이에 대해서 설명했다. 이와 같은 기록은 이 지방 일대에서 네이가 널리 쓰인 관악기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세로 방향으로 비스듬하게 세워 불어서 연주하는 네이의 몸체에는 앞에 여섯 개, 뒤에 한 개

의 구멍이 있다. 몸체의 각 끝에는 금이나 은으로 만든 파라즈바네(parazvâne)를 다는데 이것은 갈대가 갈라지거나 틈이 생기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 또한, 비슷한 이유로 마디 부분에도 은이나 금 또는 금속으로 만든 선을 두른다. 네이의 첫 마디에는 쉽게 숨을 불어 넣을 수 있게 원뿔형의 바슈파레(başpâre)를 단다.

네이는 투르크 음악사에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텍케(tekke: 이슬람 수피즘 종단의 수행 및 예배장소)에서의 음악 연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네이에 존재하는 일곱 개의 구멍은 타사우프(tasawwuf: 이슬람 신비주의)에서 ‘일곱 에스마(esma: 알라의 아름다운 이름들)’라고 평하고 있으며 네이가 완벽한 인간(insân-ı kâmil: 알라의 현시를 가진 인간이라는 의미의 수피즘 용어)을 대표한다고 믿고 있다. 특히 메블라나(Mevlânâ Celâleddîn-i Rûmî’, 1207년~1273년)는 ‘들어라, 네이로부터……(Dinle neyden……)’라고 시작하는 메스네비 구절이 있어서, 메블라나 종단에서 네이를 특히 더 중요시하며, 메블라나 수도승의 춤에서는 반드시 네이를 연주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나이, 내이
- 다국어 표기 Ney(아제르바이잔어), Ney(튀르키예어), نای(위구르어), Nay(우즈베크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images.metmuseum.org/CRDImages/mi/original/DP317097.jpg>
<https://www.youtube.com/watch?v=aJDDDSX8MJs>
- 참고문헌(온라인)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347448&cid=60476&categoryId=60476>
- 참고문헌(오프라인) Uygun, Mehmet Nuri. “Ney”, TDV İslam Ansiklopedisi Cilt, 33, İstanbul: TDV, 2007 pp.68~69.

I A120 | 네즈멧틴 에르바칸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정치인
- 집필자 우덕찬 ● 라틴 문자 Necmettin Erbakan

네즈멧틴 에르바칸(Necmettin Erbakan, 1926년~2011년)은 튀르키예의 정치인이자 엔지니어 그리고 교수였다. 1996년부터 1997년까지 튀르키예의 총리를 역임한 그는 군부의 압력으

로 1997년 총리직을 내려놓았는데 헌법이 규정하는 정교분리의 원칙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정치 활동이 금지되었다.

그가 주창한 ‘밀리 괴뤼쉬(Milli Görüş: 민족적 시각)’라는 정치 이념은 튀르키예 내에서 이슬람적 가치를 강화하면서 튀르키예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서구 세속주의에서 탈피하고, 무슬림 국가들과의 유대 강화를 목표로 하는 정치운동이었다. 이러한 정치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그는 1960년대부터 2010년에 이르기 까지 일련의 이슬람주의 성향의 정당을 창당했다. 그 정당들은 민족질서당, 민족구제당, 복지당 그리고 미덕당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네즈메틴 엘바칸, 네즈메딘 에르바칸
- 다국어 표기 Necmettin Erbakan(튀르키예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2/28/Necmettin_Erbakan.jpg/800px-Necmettin_Erbakan.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Wer ist Milli Görüş? (Who is Milli Görüş?), German daily Die Tageszeitung, May 7, 2004 (in German).

I A121 | 네지프 아슴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언어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학자
- 집필자 장주영 ● 라틴 문자 Necip Asım

네지프 아슴은 1861년 12월 29일 튀르키예 동부 킬리스에서 태어났다. 그는 그곳에서 초, 중등 교육을 마쳤으며 1875년 15세가 되던 해 시리아 다마스쿠스 군사 고등학교(Şam Askerî İdâdîsi')에 진학했다. 네지프 아슴이 이곳에서 교육을 받을 당시, 시리아인들의 튀르키예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그의 민족의식을 일깨우는 데 크게 작용했다. 다마스쿠스 군사고등학교에서 쿨렐리 군사 고등학교(Kuleli Askerî İdâdîsi')로 전학을 가게 된 그는 아흐메트 미타에펜디(Ahmed Midhat Efendi')의 집에서 벨렛 첼레비(Veled Çelebi İzbudak), 쉘세딘 샴이

(Şemseddin Sâmî), 엠둘라 에펜디(Emrullah Efendi) 등 당대 범투르크 민족주의자와 만나게 되었다. 1879년에는 오스만 군사 대학(Mekteb-i Harbiyye')에 입학했다. 이후 그는 이스탄불의 여러 군사 고등학교와 군사 대학교에서 프랑스어, 튀르키예어 및 역사 교사로 근무했다. 1895년부터 당시 범투르크 민족주의자들의 작가 모임이 펴낸 <이크담(İkdam)>에 글을 쓰기 시작했으며, 그는 이를 통해 튀르키예어의 단순화 작업 및, 외국어 차용어와 관련된 문제, 오스만어-튀르키예어 사전 집필 등의 문제를 논의하곤 했다. 네지프 아슴은 다양한 저술을 통해 튀르키예어가 문명화된 언어임을 증명하고자 했다. 1908년 제2헌법 시대(İkinci Meşrutiyet) 선포 이후, 그는 투르크 협회(Türk Derneği)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같은 해 그는 각종 저널에 튀르키예어의 역사에 관련된 글을 게재했다. 또한 오스만 문법, 아나톨리아반도의 투르크 방언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했다. 그는 또한 그의 저서에서 가장 오래된 투르크 문자(En Eski Türk Yazısı)에서 돌궐 문자로 쓰인 고대 투르크 문자를 소개했으며, 오르콘 비문의 텍스트와 번역본도 함께 기술했다. 또한 쉴레이마니예 도서관에서 위구르어와 아랍 문자로 작성된 아타베틸 하카이르크의 사본을 발견하고, 그 작품들을 소개하며 서문과 함께 출판했다. 이후, 킬리스에서 또 다른 사본을 발견한 그는, 두 사본을 비교하고 차이점을 밝혀, 『히베틸 하카이르크(Hibetü'l-Hakâyık)』를 출판했다.

이외에도 그는 일반 언어학, 우랄-알타이어와 관련된 연구를 했으며, 오스만 제국 이전의 튀르키예 역사와 관련된 서적을 출판하기도 했다. 그는 다뤘던(Darülfünun: 지금의 이스탄불 대학교)에 투르크학을 정립한 한 사람으로도 인정되는데, 그의 작품 활동 이외에 튀르키예어와 관련된 연구 성과로 인하여 튀르키예 이외의 국가에서 인정을 받았다. 1892년 시카고 박람회에서 명예 훈장과 함께 학위를 받았으며, 1895년 파리의 아시아학회(Société Asiatique)의 회원으로 선출되었다. 1913년 은퇴 이후 교육부로부터 다뤘던의 튀르키예 역사 및 튀르키예어 교사로 임명되었다. 1927년 그는 에르주름 시의원으로서 국회에 입성하게 되며, 1935년 12월 12일 이스탄불에서 사망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네집 아심, 네지브 아심, 네지브 아슴
- 연관 검색어 아타베틸 하카이르크, 튀르키예 국립국어원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4/40/Necip_As%C4%B1m_Bey_

● 참고문헌(온라인) <https://islamansiklopedisi.org.tr/necip-asim-yaziksiz>

● 참고문헌(오프라인) Böler, T. 2009. Necip Asım Yazıksız ve Türk Diline Katkıları. Selçuk Üniversitesi Türkiyat Araştırmaları Dergisi, (25), 15~208.

I A122 | 네지헤 메리츠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Metin Turan) ● 라틴 문자 Nezihe Meriç

네지헤 메리츠(Nezihe Meriç)는 튀르키예의 공화국 시기의 작가이다. 1924년 2월 24일 부르사 켄릭에서 태어난 네지헤 메리츠(Nezihe Meriç)의 본명은 니지헤 슈크란 메리츠이다. 그의 어머니는 파트마 무아타르이고 아버지는 1800년대에 크르자아알리(현재는 불가리아 남부 도시)에서 에디르네로 이주한 가정에서 태어난 뮌헨디스 메흐메트 할리스이다. 메흐메트 할리스는 책을 사랑하고 신앙심이 깊었지만 맹신하지는 않았고 아랍어, 페르시아어, 프랑스어를 구사할 수 있었다. 튀르키예 초대 대통령 무스타파 케말 파샤의 공화국 이념과 세속주의를 신봉하는 아타튀르크(Atatürk)주의자로 진보적 지식인이었다. 메흐메트 할리스가 도로 공사 관리직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네지헤 메리츠는 아버지의 직장에 따라 여러 도시를 옮겨다니며 어린 시절을 보냈다.

네지헤 메리츠는 초등 교육을 에스키셰히르에서 시작하여 에르진잔을 거쳐 1936년 아르카라피세 초등학교에서 졸업했다. 1936년부터 1939년까지 크르쉐히르에서 중학교를 다녔고, 1943년 에스키셰히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이스탄불대학교 문과대 튀르키예어문학과와 철학과에서 수학했는데 학업을 마치지 못하고 1945년에 중도 포기했다.

학창 시절에 피아니스트 베르다 윈(Verda Ün)에게 피아노를 배운 메리츠는 1945년부터 1956년까지 11년 동안 헤이벨리아다 초등학교에서 음악 교사로 근무했다. 1956년에 잡지 <단편집(Seçilmiş Hikâyeler)>의 대표인 살림 쉬엔길과 결혼하고 앙카라에 살림을 차렸다. 1957년부터 1973년까지 남편이 대표로 있던 잡지 <도스트(Dost)>에서 편집장으로 근무했다. 196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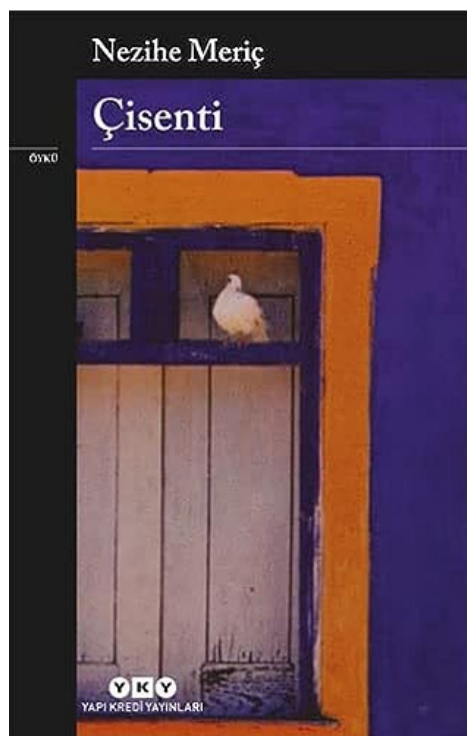
에는 이스탄불 국립 극장에서 공연한 1인극 「물이 밝아지다(Sular Aydınlanıyordu)」를 집필했다. 같은 해 도스트 출판사에서 나즈 히크메트의 작품을 출간했다가 기소되었다. 처음 6일 동안 수감되었다가 자속하며 나왔지만, 법원의 판결은 징역 1년 6개월에 더하여 추방 6년을 선고받았다. 1974년 사면될 때까지 떠돌이 삶을 살아야 했는데, 이 기간 동안 친한 친구인 튀르칸 포이라즈 집에서 은신했다. 1974년 배회하는 삶을 멈추고 남편과 함께 이스탄불에 정착했다.

1950년 이후 여성 문제를 다루는 저명한 작가 중 한 명이었던 네지헤 메리츠는 그의 첫 번째 글 「희망(Ümit)」을 <이스탄불 잡지(İstanbul Dergisi)>에, 첫 단편소설은 1945년 2월 15일 우푼(N. Ufuk)이라는 필명으로 「무언가(Bir Şey)」를 잡지 <단편집(Seçilmiş Hikâyeler)>에 실었다.

첫 단편소설집 『탁한 것(Boz bulanık)』을 1953년에, 첫 소설 『코르산 츠마즈(Korsan Çıkma)』는 1961년에 발간했다. 단편소설집 『절름발이의 달리기(Topal Koşma, 1956)』와 『제비꽃의 지혜(Menekşeli Bilinç, 1965)』도 뒤이어 나왔다. 그리고 1970년에는 첫 연극 시나리오 「물이 밝아지다(Sular Aydınlanıyordu, 1970)」가 출판되었다.

1985년에 연극 「모두 함께(Sevdican)」가 독일어, 튀르키예어로 공연되었다. 「모두 함께」는 튀르키예인 배우가 독일어로 공연한 첫 시나리오로 역사에 기록되었으며 독일어 외에 러시아어, 프랑스어로도 번역되었다.

메리츠의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맡은 소임을 전통 사회 구조에 맞춰진 규칙에 따라 수행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정해진 것과 정해지지 않은 것의 차이에 의문을 가진다. 그녀가 곳곳에서 의문을 제기할 때 느껴지는 긴장감은 메리츠의 첫 단편소설 작품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다. 『탁한 것(Boz bulanık)』에서 차분한 어조로 나타나는 딜레마는 1956년에 출간한 두 번



네지헤 메리츠의 『Çisenti』 표지

째 단편소설집 『절름발이의 달리기(Topal Koşma)』에서 내적 고통과 불안으로 인해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을 만큼 커졌다.

개인과 사회, 전통과 자유 사이에 흐르는 긴장감을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이고 공직 생활에서 변화된 여성의 역할이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노력한 작가는 감정도 풍부하게 묘사했다. 메리츠의 이야기에서 불안감, 고통, 막막한 감정 대부분은 삶에 의문을 가지고 고뇌하는 지식인들이 겪는 감정이다. 비관적인 사람들은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는 길을 항상 찾는다. 이 사람들의 주변에 어리숙하고 사회적 문제에 깊게 고민하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즐겁게 일을 하며 걱정을 잠시 잊으려 했다. 또는 이웃이나 멀리 있는 친구 등 옆 사람에게 행복을 전염시킨다.

메리츠 작품에서 이야기 주제는 개인적이면서 사회적이다. 결혼한 여성들의 세계, 사랑, 외로움, 자유, 삶의 기쁨, 3월 12일 이야기(튀르키예 2차 쿠데타), 세대 갈등, 이주, 빈곤 등을 주로 다루었다.

소설 『코르산 촉마즈(Korsan Çıkmazı)』로 1962년 튀르키예 국립국어원 상을, 단편소설집 『어둡고 깊은 우물(Bir Kara Derin Kuyu)』로 1990년 사이트 파이크 상을, 1998년에는 단편소설집 『그을림(Yandırma)』으로 세다트 시마비 문학상을, 2007년에는 메르신 켄티 문학상을 받았다.

2009년 8월 18일 이스탄불에서 세상을 떠난 네지헤 메리츠의 묘지는 진질리쿠유 공원에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네지헤 메리취, 네지헤 메리치
- 다국어 표기 NEZIHE MERIC(영어), NEZİHE MERİÇ(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앙카라, 이스탄불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neyyamaghome.files.wordpress.com/2020/08/nezih-e1611065111396.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Akatlı Füsün, “Hikayeciliğimizin Bir Klasiği: Nezihe Meriç”, *Varlık*, C. 65. S. 1089. İstanbul 1998.
Aksoy Süreyya Elif, “Nezihe Meriç’in Öykülerinde Mutluluğa ve Umuda Açılan Yollar: İlişkiler, Gündelik İşler, Bedensel Sağlık”, *Monograf*, 2019/12.
Bezirci Asım, *Nezihe Meriç*, Evrensel Basım Yayın, İstanbul, 1999.
Tosun Necip, “Nezihe Meriç Öykücülüğü”, *Hece*, S. 108, Ankara, 2005.

I A123 | 네집 파즐 크사퀴레크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Metin Turan) ● 라틴 문자 Necip Fazıl Kısaküre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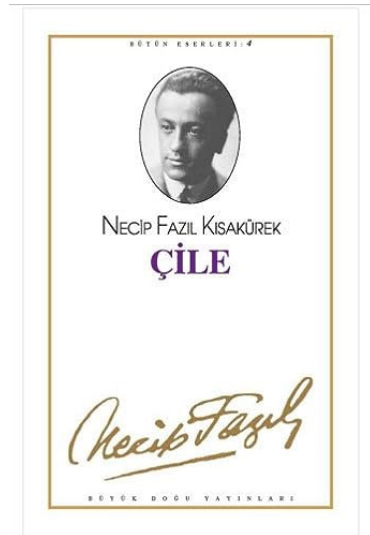
네집 파즐 크사퀴레크(Necip Fazıl Kısakürek)는 튀르키예 공화국 시대의 대표적인 작가이며 시인이다. 그는 1904년 5월 26일 이스탄불 챔벨리타쉬 동네에 술탄 마흐메드와 연결된 한 골목의 대저택에서 태어났다. 그는 프랑스 학교에 다녔고 그 이후에는 오스만 제국 학교인 레흐베르 이티하드(Rehber-i İttihad)에서 공부했다. 1차 세계 대전의 막바지에 아흐메트 네집은 해군 사관 학교 학생이 됐다. 이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 중에는 튀르키예 시에서 중요한 인물인 야흐야 케말(Yahya Kemal)도 있었다. 그리고 윗 학년에는 튀르키예어 문학의 거장인 나즘 히크메트(Nazım Hikmet)도 재학 중이었다.

그는 해군 사관 학교를 졸업하고 17살에 철학과로 대학에 지원했다. 그리고 첫 번째 시는 그 시절에 유력 신문사 <노력(İkdam)>에서 발표했다. 이때 아버지 파즐이 돌아가셨고 이름을 물려받아 네집 파즐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튀르키예 공화국이 설립되고 얼마 뒤 외국 유학을 보내주는 학생 명단에 네집 파즐도 포함되었다. 그는 정부 장학금을 받아 프랑스 소르본 대학교로 유학을 갔지만 장학금을 도박으로 탕진한 후 빚만 지게 되자 학업을 중도 포기하고 튀르키예로 다시 돌아왔다.

네집 파즐은 이스탄불로 돌아왔지만, 파리에서 맛본 자유분방한 생활을 이스탄불에서도 이어나갔다. 점차 네집 파즐의 개인적 삶은 물론이고 문학 활동도 파탄나기 시작했다.

1934년에 그가 30살이 되던 해에 알게 된 수니파 이슬람 학자 압뮐하킴 아르바시(Abdülhakim Arvasi)의 영향으로 그는 이슬람 사상에 심취하게 되었다. 특히 1940년부터는 그가 글을 쓰고 발행하는 모든 잡지에 그는 이슬람 사상에 대한 중요한 자취를 남겼다.



『시련(Çile)』 표지

네집 파즐은 시에서 죽음을 주요 주제로 다루었다. ‘죽음은 삶의 반대편에서 당기는 어두운 벽이다.’ 죽음을 어두움으로 표현한 것은 네집 파즐에게는 큰 비극이었다. 죽음은 사람이 사라지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네집 파즐은 시에서 죽음을 비유하면서 죽음 앞에 닥친 섬뜩함을 표현했다. 그리고 사람의 인생을 항상 탐욕스럽고 삶을 허비하는 존재로 보았다. 네집 파즐의 입장에서 사람은 평생 삶을 갹아먹는 존재이며, 절대 배부름을 느낄 수 없는 존재였다.

1983년 눈을 감은 네집 파즐 크사퀴레크는 튀르키예를 대표하는 시인으로서 연극, 이야기, 소설, 수필, 정치적 견해를 포함한 많은 책을 출간했다. 그의 대표적인 시집은 『거미줄(Örümcek, 1925)』, 『나와 다른 이(Ben ve Öteki, 1931)』, 『영원한 대상(Sonsuzluk Kervanı, 1955)』, 『시련(Çile, 1962)』 등이고, 희곡작품 중 대표작은 「씨앗(Tohum, 1935)」, 「한 사람을 만드는 것(Bir Adam Yaratmak, 1939)」, 「장長(Reis Bey, 1964)」이다. 대표적인 소설은 『거울 속 거짓말(Aynadaki Yalan, 1980)』, 『민증(Kafa Kağıdı, 1984)』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네집 파즐 크사퀴렉, 네집 파즐 크사큐렉
- 다국어 표기 NECIP FAZIL KISAKUREK(영어), Necip Fazıl Kısakürek(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나즘 히크메트, 야샤르 케말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teoridergisi.com/sites/default/files/yazi-makale-gorselleri/2020/%C5%9Eubat/2475019_810x458.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İnan Akif, ‘Hayatından Çizgiler’, *Mavera Dergisi Necip Fazıl’a Rahmet Özel Sayı*, Temmuz-Ağustos-Eylül, 1983.
Kolcu Ali İhsan, *Necip Fazıl’ın Poetikası*, Salkımsöğüt Yayınları, Rize, 2009.
Levend Agah Sırrı, *Edebiyat Tarihi Dersleri*, Kanaat Kitabevi, İstanbul, 1938.
Şahin Veysel, “Necip Fazıl Kısakürek’in Şiirlerined ‘Hayat ve Ölüm’ Trajedisi”, *Erdem Dergisi*, S.53, Yıl: 2009.
Uyar Turgut, *Bir Şiirden*, Ada Yayınları, İstanbul, 1983.
Ünlü Mahir, Özcan Ömer, 20. *Yüzyıl Türk Edebiyatı*, C.1, İnkılap Yayınları, İstanbul, 2003.

I A124 | 네페하틸 원스

- 시기 A.D. 1000년~A.D. 15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이란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이슬람 ● 유형 소분류2 서적
- 집필자 장주영 ● 라틴 문자 Nefehâtü'l-üns

『네페하틸 원스(Nefehâtü'l-üns)』는 낙쉬반디 시인이자 이란의 신비주의자였던 압두라흐마니 자미(Abdurrahman-ı Câmî)가 1478년에 쓴 페르시아어 작품이다. 작품의 원명은 ‘네페하틸 원스 민 하자라티(Nefehâtü'l-üns min hâzarâti'l-kuds)이다. 네페하틸 원스는 최초의 수피 전기로 손꼽히는 무함마드 후세인 에스 쉴레미(Muhammad Hüseyin es-Sülemi)의 『타바카튀쉬 수피예(Tabaqâtüşü Sufiye)』에 기반을 두고 있다.

자미는 하제 압둘라흐 헤레비(Hâce Abdullah-ı Herevî)에 의해 번역된 헤라트 방언 번역본을 간결하게 단순화시켰으며, 동시대의 수피 전기들을 추가하여 네페하틸 원스를 재편집하였다. 그는 쉴레미 타바카트(Sülemî, Tabakât)에서 103명의 수피의 전기를 연대순으로 나누어 총 다섯 부분으로 설명했으며, 헤레비(Herevî)에서는 약 120명의 수피의 전기를 추가했다. 네페하틸 원스에서 수피들의 전기의 수는 총 600개를 초과했다.

투르크와 이란의 문화적 측면에서 높이 평가받을 뿐만 아니라, 수피즘 역사에 있어서도 가치가 있는 네페하틸 원스는 1495년 알리 쉐르 나버이에 의해 약 170명의 투르크 및 인도 수피의 전기가 추가되어, 네샤이윌 무하베 민 세마이밀 푸투베라는 이름으로 차가타이 투르크어로 번역되었으며, 1521년 라미 쉐레비에 의해 튀튀홀 뭉자히딘 리 테르비히 쿨루빌 뭉샤히딘이라는 이름으로 아나톨리아 투르크어(오스만투르크어)로 번역되었다. 그 밖에 아랍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고 출판되었는데, 네페하틸 원스는 이후 작성된 많은 종교 서적의 기반이 되었으며, 특히 호라산, 마베라원네히르, 인도, 이란 등지에서 널리 인용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네페하툴 원스, 네페하툴 운스
- 다국어 표기 نفحات الأنس (아랍어), NEFEHÂTÛ'I-ÛNS(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헤라트
- 참고문헌(온라인) <https://islamansiklopedisi.org.tr/nefehatal-uns>

● 참고문헌(오프라인) Ali Asgar Hikmet, Camî: Hayatı ve Eserleri (trc. M. Nuri Gencosman), İstanbul 1991, s. 288~293.

I A125 | 네흐질 페라디스

● 시기 A.D. 1000년 ~ A.D. 15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기타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서적 ● 유형 소분류2
● 집필자 장주영 ● 라틴 문자 Nehcü'l-Feradis

『네흐질 페라디스(Nehcü'l-Feradis)』는 크사술 엔비야, 무이닐 무리드, 무하베트나메와 같이 호라즘 시기에 남겨진 대표적인 투르크 문학 작품 중 하나로 손꼽힌다. 특히 이슬람-투르크 문학으로서 높이 평가되는 『네흐질 페라디스』는 1358년 알튼 오르두의 수도 사라이에서 케르 데르리 마흐무드(Kederli Mahmud)에 의해 쓰였다. 저자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별로 없지만, 이 책의 저자는 이슬람 율법에 능통한 이슬람 학자로 추정된다.

『네흐질 페라디스』는 4개의 장(Bab)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은 10개의 챕터로 나뉘어 있다. 첫 번째 장은 예언자 무하마드의 삶에 대한 설명, 두 번째 장은 4명의 칼리프, 아흘 알 바이트(예언자 무함마드의 가문), 4개의 주요 종파에 대한 정보가 적혀 있다. 세 번째 장은 선행, 네 번째 장은 악행과 관련된 덕목 및 교훈들을 다루고 있다. 작품의 처음 두 장에서는 주로 이슬람 계보를, 세 번째와 네 번째 장에서는 주로 문화사 측면을 바탕으로 시대의 사회상을 반영하는 요소들이 기록되어 있다. 하디스로 시작되는 각 장에서는 투르크어 번역, 이슬람과 관련된 이야기 또는 삽화들이 등장하며, 때때로 일부 학자들, 통치자 및 예언자들의 삶의 예와 함께 교훈적인 내용들을 언급한다.

이슬람의 율법과 금기를 가르치고, 종교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쓰였기 때문에 『네흐질 페라디스』에는 문학적 수식어구가 포함되지 않은 평범하고도 간결 명료한 문체가 주로 사용되었다. 『네흐질 페라디스』는 14세기 호라즘 투르크어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어서 투르크학 연구에 있어 중요한 자료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현존하는 『네흐질 페라디스』 판본 중 예니 모스크의 판본이 가장 완벽한 판본으로 알려져 있

다. 이 판본은 『네흐질 페라디스』의 저자 마흐무드가 사망한 지 채 며칠이 지나지 않아 1360년 무스텐시(Müstensih)에 의해서 완성되었다. 각 페이지는 17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판본은 총 444페이지이다.

또 다른 『네흐질 페라디스』 판본은 알타(크리미아반도)의 야쿱 케말(Yakub Kemal)에 의해 발견되었다. 총 589페이지 분량의 이 판본은 카슴 빈 무함메드(Kasim bin Muhammed)에 의해서 1389년 작성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네흐질 페라디스』와 관련해서 야노스 에크만(János Eckmann), 제키 벨리디 토간(Zeki Velidi Togan), 야쿱 케말(Yakub Kemal), 함자 질피카르(Hamza Zülfikar), 세미흐 테즈잔(Semih Tezcan) 및 아이수 아타(Aysu Ata) 등이 다양한 연구를 수행했다. 『네흐질 페라디스』의 예니모스크 판본은 야노스 에크만에 의해 정리되고 출판되었다. 『네흐질 페라디스』의 예니 모스크 판본과 관련되어 텍스트 연구도 수행했던 야노스 에크만이 이 작업을 마치기 전에 세상을 떠나게 되자, 그의 초안 및 연구에 관련된 메모와 자료들을 토대로 함자 질피카르와 세미흐 테즈잔이 마무리 지어 1995년 튀르키예 국립국어원(TDK)에서 출판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네질 페라디스, 네줄 페라디스, 네흐줄 페라디스, 네흐줄 페라디스
- 다국어 표기 نهج الفرديس .(아랍어), Nehcü’l Feradis(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크사술 엔비아, 제키 벨리디 토간, 함자 질피카르, 세미흐 테즈잔, 튀르키예 국립국어원
- 참고문헌(오프라인) BILGiN, A. 2006. Nehcü’l-feradis. İstanbul: Türkiye Diyanet Vakfı Yay. Akar, A. 2005. Türk dili tarihi . İstanbul: ÖtükenYayımları.

I A126 | 넴루트 유적

- 시기 기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유적 ● 유형 소분류2 무덤
- 집필자 우덕찬 ● 라틴 문자 Nemrut Dağı

튀르키예 중부 아디야만(Adiyaman)의 넴루트 산(Nemrut Dağı)에 있는 무덤 유적은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제국이 무너진 후 유프라테스 유역과 시리아 북쪽 아나톨리아(소아시아) 동



넴루트 유적

Source: <https://whc.unesco.org/en/documents/131713>

부에 있던 콤마게네(Commagene) 왕국 시기 최전성기를 맞았던 안티오쿠스 1세 (Antiochus I, 재위: B.C. 70년~B.C. 38년)가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 미트리다테스 대왕(B.C. 95년~B.C. 55년)을 위해 조성한 왕릉이다. 해발 2,134m 정상에 이렇게 엄청난 무덤과 신상들이 있다는 사실이 처음 알려진 것은 1881년이다. 그 후 이 산 위에 거대한 석상이 있다고 공식적으로 처음 보고한 사람은 독일인 칼 세스터(Karl Sester)였다. 1938년부터 미국 고고학자 프레데리흐 칼 되너(Frederich Karl Döner)와 테레사 고엘(Theresa Goel)에 의해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발굴이 이루어졌다. 특히 이

유적에 대한 테레사 고엘의 애정은 각별하여 1989년에 그녀가 죽었을 때, 그녀를 화장한 재는 그녀의 유언에 따라 이 산정에 뿌려졌다. 1984년부터는 프레데리흐 칼 되너의 주도 하에 복원 작업이 시작되었고 1986년부터는 그의 제자들에 의해 발굴과 연구가 계속되고 있지만 고분의 입구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 유적은 1987년에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콤마게네 왕국의 안티오쿠스 1세 능묘는 독특한 예술적 업적이며, 무게가 9t이 넘는 여러 개의 바위를 이용해 만들어진 넴루트 산의 자연적 유적의 경관은 헬레니즘 시대의 가장 장대한 시도였다는 것이 유네스코의 평가다.

유네스코는 '넴루트 산의 능묘 또는 히에로테세이온(신성한 좌석)은 콤마게네 왕국 문명에 대한 독특한 증거'라고 표현했는데, '안티오쿠스 1세는 이 기념물에서 아버지 미트리다테스는 다리우스의 후예이며, 어머니 라오디케는 알렉산드로스의 후예라고 묘사하였다. 이 반전설적인 가계 혈통은 동양과 서양 양쪽으로부터 권력의 독립을 유지하려 했던 한 왕조의 야망을 나타내는 계보로 해석된다.'라고 유네스코는 기록하고 있다.

또한 넴루트 산의 고분은 매우 독창적인 신들을 자유롭게 융합하여 카라쿠스와 에스키 카흐



넴루트 유적 전경

타에 있는 능묘들보다도 역사적으로 더 중요한 시기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 유네스코의 평가다. 제우스와 오로마데스(페르시아의 아후라마즈다 신)의 결합, 헤라클레스와 아라타그네스(페르시아의 베라트라그나 신)의 결합은 조각상과 부조에서 볼 수 있으며, ‘그리스, 페르시아, 아나톨리아 미학이 이렇게 친밀하게 혼합되어 예술적으로 동질성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넴루트 산, 넴루트, 넴루트 유적, 넴루트 다오, 넴루트 석상
- 다국어 표기 Nemrut Dağı(튀르키예어), Çiyayê Nemrûdê(쿠르드어)
- 참고문헌(온라인) <https://whc.unesco.org/en/list/448/>
- 참고문헌(오프라인) Brijder, Herman A.G. (ed.) 2014, Nemrud Dağı: Recent Archaeological Research and Conservation Activities in the Tomb Sanctuary on Mount Nemrud. Walter de Gruyter, Boston/Berlin.
유재원 2010, 『터키 1만 년의 시간여행 2』, 책문.

I A127 | 노가이

● 시기 A.D. 1000년~A.D. 1500년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지도자
● 집필자 김근식 ● 라틴 문자 Nogai

노가이(이수-노가이, 노카이: 1235/1240년~1299년)는 칭기즈 칸의 자손으로 킵차크 칸국의 베클라르베크이다. 그는 킵차크 칸국의 최서단 울루스(두나이에서 드네스트르 강 사이에 위치한 영토)의 통치자이기도 했다. 그는 1270년대부터 1299년 사망하기 전까지 킵차크 칸국의 칸들을 실질적으로 조정했다. 불가리아와 세르비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남부, 북동부 러시아계 공국들도 그에게 예속되었고, 비잔틴 황제 미하일 팔레올로그 8세의 혼외 자식인 예프로시니아와 결혼했다. 베르케 칸 사후 이슬람을 받아들였는데, 이 노가이에게서 노가이 민족의 명칭이 유래했다.

노가이는 1235년에서 1240년 사이에 태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주치의 7번째 아들 부발(테발)의 손자인 타타르(투타르)의 아들이다. N.I. 베셀로프스키에 따르면 주치에게 다섯 명의 법적 아들만 있었으며 나머지는 칸의 지위에 오를 수 없었는데, 노가이 역시 여기에 해당되었다. 노가이는 캅카스의 주도권을 놓고 일 칸국과 킵차크 칸국이 벌인 1262년의 전쟁 초기에 공적을 세워 이름을 알렸다. 1270년 노가이는 킵차크 칸국을 떠나 흑해 북부 해안으로 이동해서 두나이 강 하류 지역에 자리 잡고 비잔틴 제국과 불가리아를 위협했다. 1273년 노가이에 패한 비잔틴 황제는 그에게 딸을 내어주었고, 불가리아 공후들은 그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 노가이는 1277년 러시아 연대기에 처음 등장하는데, 이때 그는 러시아 공후들과 연합하여 리투아니아 공국을 침략했다. 그 후 그는 러시아계 공국들의 정치에 관여했고, 러시아 공후들과 함께 폴란드, 세르비아를 공략했다. 1280년 킵차크 칸국의 권력을 쥐고, 1291년 토흐타를 칸으로 옹립했다. 하지만 나중에 토흐타 칸과 대립하게 되었고 1299년 부그 강 전투에서 그에게 패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이수노가이, 노카이
- 다국어 표기 نوغاي خان(아랍어), Noğay(아제르바이잔어), Ногай(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킵차크 칸국, 울루스

● 참고문헌(오프라인) Вернадский Г. В. Монголы и Русь = The Mongols and Russia / Пер с англ. Е. П. Беренштейна, Б. Л. Губмана, О. В. Строгановой. — Тверь, М.: ЛЕАН, АГРАФ, 1997. — 480 с.

I A128 | 노가이어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언어 ● 유형 소분류1 분류 ● 유형 소분류2 언어명
● 집필자 장주영 ● 라틴 문자 Noghay Language

노가이어는 투르크어 분류 체계에 의해 북서투르크 족, 킵차크 투르크 그룹에 포함되며 오늘날 러시아 연방 국가에 속해 있는 지역(스타브로폴, 아스트라한, 다게스탄)을 포함하여, 루마니아, 크림반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튀르키예 등 여러 지역에서 사용되는 언어이다.

노가이어는 투르크어들 중 카자흐어 및 카라칼파크어와 가장 유사하다. 노가이어의 방언은 쿠반 강 유역의 백노가이(Ak Noghay), 다게스탄의 흑노가이(Qara Noghay), 스타브로폴의 중앙노가이(Orta Noghay) 셋으로 분류되지만, 이들 방언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 북 캅카스의 서로 다른 자치 공화국을 거주하며 다양한 민족들과 어우러져 함께 거주하는 노가이인들은 공통어로서 러시아어를 사용한다. 2002년 인구 조사에 따르면 총 인구 90,666명 중 84,927명은 러시아어에 능통하다고 알려졌다.

러시아 이외에도 튀르키예에 살고 있는 노가이인들은 오구즈 그룹에 속하는 튀르키예어와 킵차크 그룹의 노가이어 두 언어를 구사한다. 18세기와 19세기에 캅카스 지역에서 아나톨리아로 이주한 노가이인들의 언어는 문화-언어적 상호 작용에 따라 표준 노가이어와 다른 형태로 변화되었다. 혼합적 언어 기능에 따라 음성학, 형식, 구문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변형이 일어났기 때문에 언어학자들을 이를 튀르키예 노가이어라고 부른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노가이 언어, 노가이 말
- 다국어 표기 Nogayca(튀르키예어), Noghay Language(영어)

- 연관 검색어 노가이, 투르크어족, 카자흐어, 카라칼파크어, 키르기즈어 킵차크 우즈베크어
- 참고문헌(온라인) <http://turkiyenogaylari.hacettepe.edu.tr/nogayca/>
- 참고문헌(오프라인) Johanson, L. 1998. The history of Turkic. The Turkic Languages, pp.81~125.

I A129 | 노가이인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지리 ● 유형 소분류1 민족 ● 유형 소분류2
- 집필자 김홍중 ● 라틴 문자 Nogais

투르크계 민족인 노가이인은 북 캅카스, 불가강 하류, 크림, 카자흐스탄 서부 지역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데, 다게스탄 공화국(Дагестан), 체첸 공화국(Чечня), 스타브로폴스키 변경(Ставропольский край)에 걸친 노가이 평원(Ногайская степь)에 주로 거주한다. 2010년 기준으로 러시아에는 103,660명이 노가이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루마니아, 불가리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에도 소수의 노가이인들이 살고 있다. 민족의 수에 비해서 그 분포 지역이 광범위하다.

우이순(уйсун), 위구르(уйгуры), 나이만(найман), 케레이트(керейт), 만기트(мангиты), 킵차크(кыпчак) 민족이 섞여 노가이 민족을 형성했는데, 킵차크인들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 노가이 민족이 형성된 시기는 13세기이며 금장 칸국(Золотая Орда)의 통치자 노가이(Ногай)의 이름에서 민족명이 유래했다. 14세기 말에서 15세기 초에 독립 국가인 노가이 칸국(Ногайская Орда)이 세워졌고, 북 캅카스 초원 지대에는 15세기에 노가이인들이 출현했고 16세기 후반기 노가이 칸국의 붕괴는 다수의 노가이인들이 북 캅카스로 이주하는 계기가 되었다.

노가이어는 킵차크어파에 속하며 노가이인은 러시아어를 동시에 사용한다. 노가이인의 종교는 이슬람교이며 이슬람 이전의 범신론적 토속신앙이 남아 있다. 노가이 민족에서는 영웅 서사, 카자크(러시아 제국의 군사 집단), 노동, 서정, 일상 민요 등을 주제로 한 가사 문학이 발달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노가이족, 노가이 민족
- 다국어 표기 Ногайцы(러시아어), نوجاي (아랍어), Nogaylar(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킵차크어파, 노가이
- 멀티미디어 링크 15세기~17세기 사이의 노가이 칸국의 영토
<https://url.kr/skzfj>
- 참고문헌(오프라인) Тишков В.А. Журавский А.В, Казыьмина О.Е. «Народы России: Атлас культур и религий», М.:ИПЦ «Дизайн. Информация. Картография», 2008.

I A130 | 노아의 방주

- 시기 기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유적 ● 유형 소분류2 터
- 집필자 우덕찬 ● 라틴 문자 Nuh'un Gemisi

일반적으로 노아의 방주는 튀르키예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튀르키예 동부 끝으로 가면 이란과의 국경 도시 도우베야즈트(Doğubeyazıt)가 있다. 이란과는 불과 약 35km 떨어져 있다. 이 도시는 산악 도시로 북동쪽 15km에는 해발 5,137m의 아라라트산이 있는데 이 산에 대해서는 성서에도 언급이 있다.

그런데 바로 이 도시 남동쪽 15km 떨어진 곳에 노아의 방주 화석이 있다는 두루프나르(Durupınar) 산이 있다. 이 배 모양의 화석은 지형의 길이가 167m이고 가장 볼록한 부분의 너비는 47m이다. 하지만 구약 성서에 언급된 노아의 방주의 길이는 135m이고 가장 넓은 부분의 너비는 22.5m이며 높이는 13.5m이다. 이로 인해 데이비드 화솔드를 비롯해서 이곳이 노아의 방주가 도착한 곳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방주가 화석화 되면서 얼마든지 변형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아의 방주에 관해서는 테헤란 서북쪽의 엘부르즈산 정상 부근 고도 4,000m 지점에서 방주로 추정되는 나무배를 발견했다는 미국 성서 연구 단체의 발표도 있다. 한편 튀르키예를 비롯한 이슬람권에서는 코란에 근거해 노아의 방주가 안착한 곳은 아라라트산이 아니라 티그리스강의



스테인드 글래스로 표현한 노아의 방주

발원지인 해발 2,114m의 주디산으로 믿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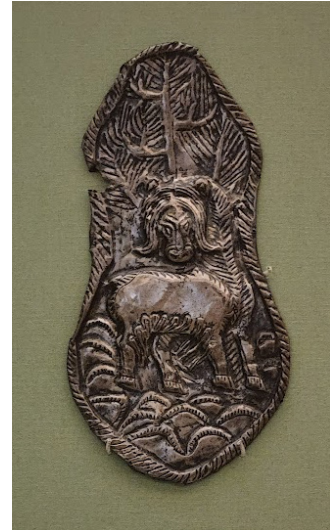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누훈 게미시
- 다국어 표기 Noah's Ark(영어), Nuh'un Gemisi(튀르키예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rl.kr/s91423>
- 참고문헌(오프라인) Cohn, Norman 1996. Noah's Flood: The Genesis Story in Western Thought. New Haven &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유재원 2010, 『터키 1만년의 시간 여행 2』, 책문.

I A131 | 노용 올(노인 올라) 유적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몽골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유적 ● 유형 소분류2 무덤
- 집필자 강인옥, 우덕찬 ● 라틴 문자 Noyon-Uul(Noin-Ula)

노용 올(노인 올라) 유적은 노인 올라 산에 위치한 대표적인 흉노 유적으로, 몽골어 지명으로는 준-모데(Jun-Mode)이다. 올란 바토르에서 북쪽으로 100km 정도 떨어진 산악 지대이며, 금광 지대에 있는 노용 올은 국내에 잘 알려진 대표적인 흉노의 고분이다. 다른 흉노 유적과는 달리 그 규모가 매우 크며 출토 유물이 매우 풍부하다.

무덤 밀집지는 크게 세 곳으로 나뉘며, 총 212기의 고분은 모두 세 개 골짜기의 경사면에 자리하고 있다. 1912년 금광 탐사 업자에 의해서 처음 발견되었다. 1924년~1925년에 꼬즐로프(Kozlov)에 의해 발굴된 이래 여러 명의 학자에 의해 수차례에 걸쳐 조사가 이루어졌다. 종합적인 발굴 결과는 1962년 루덴코(Rudenko)에 의해 보고되었으며, 유물은 레닌그라드 에르미타주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루덴코의 자료는 일본과 한국에도 알려져서 대표적인 흉노 유적으로 자리매김했다. 그중 24호, 1호(일명 모크리고분), 6호, 23호, 25호 등이 발굴되었다. 가장 최근에는 2006년도에 20호 고분이 폴로스막에 의해 발굴되었다.



노용 올 6호 고분 출토 은제 말 장식

노용 올 고분군 중 비교적 규모가 큰 6호의 봉분은 방형이며 너비 및 길이가 약 24.5m이다. 수혈 내에 설치된 관은 내곽과 외곽으로 나뉘며 다시 그 내부에 길이 2.29m, 넓이 0.98m, 높이 0.9m의 관이 설치되었다. 내외 곱의 벽은 천으로 덮여 있었으며, 곱 뚜껑 및 곱과 관의 사이에서도 양탄자가 발견되었다. 양탄자의 색깔은 홍갈색 계통으로 나무, 개구리, 물고기 문양이 있다. 또 다른 홍갈색의 직물 위에는 사람이 말을 타고 하늘을 나는 금색의 도안이 있으며 ‘仙境’, ‘皇’ 등의 명문이 있다. 이 묘와 9호묘의 짐승이 새겨진 직물 위에 ‘游成君時兮意’의 명문이 있다. 이외에 1호묘에서 출토된 구름과 함께 산에서 사람이 말을 타고 있는 모양이 새겨진 천에는

‘新神靈廣成壽萬年銘文’이, 또 구름, 산악, 새가 새겨진 직물 위의 ‘郡鵠頑昌萬歲宜子孫’이라는 명문이 있다. 그 연대는 王莽이 건국한 해인 기원후 9년에 해당한다. 이외에 6호묘에서 발견된 생활 용구 및 무구가 있다. 금속기로는 철제 재갈, 철제 대구, 청동 화로 등이, 목제 및 석제로는 책상, 칠이배, 말, 소, 양 등의 석제상과 옥제 인형상 등이 출토되었다.

이와 같이 노용 올 6호묘에서 발견된 명문 자료는 노용 올 고분군의 연대가 기원 전후 시기임을 확실하게 보여준다. 또한 6호묘에서 발견된 직물 주머니에서 발견된 변발(땀은 머리)은 양쪽에서 꼬아서 3단의 변발을 만든 것이다. 주머니에 담긴 변발은 25호묘에서도 출토되었는데 모두 흑발이다. 이밖에 25호묘에서 출토된 직물에는 인물상이 새겨져 있는데, 두발은 촘촘하고 뒤로 빗어 넘겼으며 앞머리는 넓고 눈동자는 매우 크며 코는 비교적 낮다. 이로 가히 흉노인의 얼굴 모습을 유추할 수 있다.

흉노에 의한 동서 교류는 스키타이 유목 문화를 동전(東傳)시킨 데서도 찾아볼 수 있지만, 유목 문화와 한(漢) 문화를 융합시킨 이른바 ‘호한문화(胡漢文化)’에서 더욱 극명하게 나타난다. 기원 전후로 추정되는 이 유적지는 몽골어로 ‘왕후의 산’이란 뜻의 노인 올라 산에 위치하고 있다.

대체로 묘 형태는 남시베리아나 알타이 지방 특유의 스키타이계 고총분(高塚墳, 쿠르간)과 중국 한나라의 목실분(木室墳)을 융합시킨 혼합형이다. 묘의 구조는 중국(전국과 진한 시대)과 한국(낙랑 고분)의 분묘와 유사한 절두방추형(截頭方錐形), 즉 구조의 주체인 기실(基室)은 지하 광내(壙內)를 목재로 만들고 그 위에 봉토를 씌우며 지하의 광실로 이어지는 갱도를 앞에서 파 들어가는 구조이다. 고분에서는 각종 마구류, 구리솥(동복), 3날개 철촉, 동물투쟁도 등 북방 유목 기마 민족 문화에 속하는 유물들과 함께 ‘선경(仙境)’이나 ‘만세(萬歲)’ 같은 한자가 새긴 비단 천과 한나라 거울 조각 등 중국 유물도 상당수 출토되었다. 그런가 하면 페르시아를 비롯한 서역의 대표적 문양인 대칭 문양이나 기하학 문양도 발견되었다. 한마디로 노인 올라 고분군은 흉노를 축으로 한 동서 문명의 교류 상을 잘 보여주는 보물 창고이다.

이러한 보물 창고의 흔적은 흉노가 서쪽으로 이동한 루트와 그 후예인 훈이 활동한 유럽 전역에서 고스란히 찾아볼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유물로는 옥으로 장식한 검과 뼈 활고자를 부착한 활, 각종 청동 거울과 비단 등 진한대의 유물과 더불어 흉노 특유의 구리솥(동복)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유물들의 서전(西傳)은 대부분이 3세기~5세기에 이루어졌으나 일찍이 1세기~2세

기의 것도 있다. 이것은 흉노가 동방 문물을 서방으로 전파하는 데 선구자적 역할을 했음을 말해준다.

노인 울라 고분군을 비롯한 여러 흉노 유적과 서전한 호한문화의 유물이 발견됨에 따라 베일에 가렸던 흉노의 모습도 차츰 구체화되고 있다. 목축 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유목 사회는 농경 사회와는 달리 계급(신분) 분화가 명확하지 않은 반면에 구성원들의 혈연이나 지연 의식은 강하다. ‘보드’라 불리는 혈연 공동체가 ‘보둔’이라고 하는 부족 공동체로 확대되고, 나아가 그것이 정치적 연합체인 흉노 사회를 구성함으로써 흉노 사회는 부족 연합체적인 유목 국가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정치나 사회 조직은 좌우, 동서, 흑백으로 나뉘 상호 견제적인 균형을 기하려는 이원화(二元化) 제도를 채택했고, 군사 조직은 십진법에 따라 십, 백, 천, 만 단위로 편성했다. 이러한 이원화 제도나 십진법은 후일 돌궐이나 위구르를 비롯한 투르크계 국가들로 계승되어 투르크 사회의 제도적 특징으로 정착되었으며, 몽골이나 동아시아 국가의 정치, 군사 체제에도 영향을 미쳤다.

노용 울의 대형 고분이 축조된 연대는 기원 전후의 서한만기(西漢晚期)로, 역사 기록상에서 볼 때도 한과 흉노의 관계가 비교적 평화로웠으며 둘 사이의 교류가 공식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진 때이다. 노용 울에서 출토된 풍부한 한대(漢代) 유물은 이러한 실정을 여실히 보여준다. 또한 무덤의 구조는 한대 목곽묘와 상당히 유사하며 자바이칼 및 중국 오르도스에서 발견된 기타 수혈토광목관묘와는 판이하게 다른 것이다.

북흉노는 서한말 이후에 철기, 금수 등의 위신재와 중국계 정착민들의 이민이 본격화되면서 명문 자료가 출토되기 시작했다. 노용 울은 흉노의 멸망 직전 선우와 그 왕족들의 생활상을 잘 보여준다. 이 시기 풍부한 중국제 유물은, 중국이 흉노로 비단 등을 보내서 회유, 무마했던 당시 상황을 잘 보여준다. B.C. 16년경부터 1세기 중반까지 적어도 60년~70년간은 북흉노는 중국의 사여품(賜與品)을 재분배하는 방법으로 내부 집단들을 통치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노용 울, 노용 오울, 노인 울라
- 다국어 표기 Ноен-Оол(몽골어), Ноин-Ула(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흉노 코즐로프, 노용 울, 노용 울 20호
- 멀티미디어 링크 <http://xiongnu.atspace.com>

Video: Xiongnu – the burial site of the Hun prince (Mongolia) Video–Documentation in 10 Episodes

● 참고문헌(오프라인) 강인욱 외 2018, 『북방 고고학 개론』, 진인진.

우덕찬 2001, 『중앙아시아사 개설』, 부산외국어대학교출판부.

Grousset, Rene 1970. The Empire of the Steppes. Rutgers University Press.

Man, John 2020. Empire of Horses: The First Nomadic Civilization and the Making of China. New York: Pegasus Books.

Yatsenko, Sergey A. 2012. “Yuezhi on Bactrian Embroidery from Textiles Found at Noyon uul, Mongolia” (PDF). The Silk Road. 10.

I A132 | 노용 울 20호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몽골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유적 ● 유형 소분류2 무덤
● 집필자 김재윤 ● 라틴 문자 Noyon-UI No.20

노용 울 20호(Noyon-UI No.20)는 몽골에서 발견된 흉노 무덤이다. 묘도가 있는 방형의 적석 무덤으로 동서 방향은 18m, 남북 방향은 16m에 달하고 무덤의 깊이는 18.35m 가량으로 2006년에 발굴되었다. 무덤 구덩이는 계단식으로 8단까지 파 내려갔다. 가장 하단의 무덤 방이 위치한 구덩이는 바닥으로부터 13m 높이에서 수직으로 파 내려간 구조이다. 이곳에 마차를 부장했다. 무덤 방의 천장은 깊이 17.85m에서 나타나기 시작한다. 소나무 판자로 만들어진 무덤 방 내에 관이 있는 구조이다. 무덤 방의 크기는 4.8×3.2m에 달한다. 높이는 1.4m 가량이다. 무덤 방 안에는 관 자리에 돌출부를 만들어서 무덤 방 자리를 만들었다. 내부관의 높이는 1m 가량이다. 무덤 방의 덮개에는 가장 중앙이 정사각형이며 창과 무덤은 도굴당했으나, 많은 유물은 남아 있었다. 발굴당시 무덤 방에는 물이 많이 차 있었다. 카펫 및 커튼, 의류 조각은 진흙과 함께 뒤범벅이 되어 있었으나 러시아의 노보시베르스크에서 보존 처리하여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는 데 성공했다. 유적에서 확인된 유물 가운데 말을 장식한 은재 드리개, 연옥, 칠기, 카펫 등이 출토되었다. 특히 명문이 있는 칠기배 2점이 보고되었는데, 각각 46자와 8자가 남아 있다. 칠을 한 후 문양을 넣은 목제로 원연(元延) 4년(기원전 9년)에 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칠기의 바닥에는 날카로운 도구로 ‘X’자 선을 새겨 바닥면을 네 부분으로 나눈 후 양쪽의 넓은 부분에 각

각 하나의 부호를 새긴 것이다. 내용은 장안의 고궁에서 원년 4년에 당시의 황제인 성제(成帝)를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노용 올 20호, 노용 오올 20호, 노인 올라 20호
- 다국어 표기 Ноён-Ул №. 20(러시아어), Noyon-Ul No.20(몽골어)
- 연관 검색어 카펫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hc.unesco.org/en/tentativelists/5951/>
- 참고문헌(오프라인) Н.В. Полосьмак, Е.С. Богданов, Д. ЦэвээндоржДвадцатый ноин-улинский курган.// Новосибирск: ИНФОЛИО. 2011. 184 с.
Полосьмак Н. В., Богданов Е. С. Цэвээндорж Д., ЭрденеОчир Н. Изучение погребального сооружения кургана 20 в Ноин-Уле (Монголия) // Археология, этнография и антропология Евразии. 2008. № 2. С. 77—87.
에릭센, 양시은 2017, 『흉노』, 중앙문화재연구원 학술총서.

I A133 | 녹색과 관련된 민간 신앙

- 시기 기타 ● 지역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북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러시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신앙 ● 유형 소분류2 색
- 집필자 양민지 ● 라틴 문자 Folklore and Symbolism of Green

녹색은 투르트인들에게는 특별한 색이었다. 천신숭배 사상(텡그리즘)을 가진 투르크인들에게 하늘의 푸른색 혹은 녹색은 신(神)의 신성함, 위대함, 젊음, 자연 등을 의미한다. 투르크 신화에서 천신 울겐(Ülgen)의 아들 가운데 한 명인 ‘야실 칸(Yaşıl Kağan 녹색의 왕/자연의 지배자)’은 대지의 나무와 풀 등 식물을 풍요롭게 하고 자라게 하는 일을 관장한다. 유목 문화를 가진 투르크인들에게 있어서 풀은 더없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또한, 알타이 투르크 창조 신화에 따르면 신 카이라 한은 창조신으로 그에게는 악 한(백왕), 크즐 한(적왕), 싸르 한(황왕), 예실 한(청왕)의 네 아들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처럼 녹색은 신화에서 기록될 만큼 중요한 색 가운데 하나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인식의 바탕에는 목초지를 찾아 가축을 몰고 다니며 생활 터전을 옮기는 유목민의 삶에서 풀은 곧 삶이자 생명이며, 풀의 색인 녹색을 생명의 색으로 받

아들였기 때문이다. 튀르키예어 단어 ‘야슈(yaş)’는 나이 이외에 ‘(비가 내려) 젖은, 녹음’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그래서 녹색은 나이, 삶(살다), 푸름 등을 상징하는 색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오르훈 비문에서 하늘색을 푸른색과 녹색을 함께 사용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투르크는 청색과 녹색을 혼용하여 사용했다. 곱투르크(돌궐)는 방위를 표현할 때 동쪽을 녹색으로 표기했다. 특히, 곱투르크인들은 자신들의 국기를 청록색(터키석 색깔)으로 사용했다. 카샤가를 르 마흐무드의 디바누 뤼갓잇 튀르크 투르크어-아랍어 대사전에서 녹색은 시내와 강을 표현하는 데 사용했다고 전한다.

녹색은 투르크 전통 복식에도 널리 이용된 색 가운데 하나로 전통적 색인 붉은색과 함께 11세기 투르크 미혼 여성의 전통 복식에 주로 사용되었다. 또한, 녹색(청색)은 이슬람화 이전 투르크에게도 중요했으며 이슬람을 받아들인 이후에도 투르크인들에게는 중요한 색으로 인식되었다. 이슬람 사원은 파란색 혹은 녹색의 타일로 치장된 경우가 많은데, 이는 청색이 (신의) 신성함과 권능, (속세의 때 묻지 않은) 정결함, 하늘 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속성 때문에 투르크 문화권 국가에서도 녹색을 국기로 사용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오스만 제국에서는 군대에서 백색, 적색, 녹색 혹은 황색의 군기(軍旗)를 사용했다. 정확히 어떤 색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국기에 사용됐는가에 대해 명확한 시기 구분은 어렵지만, 대략 백색 군기는 셀주크 시대 이후 전해져 오스만 제국의 건국자인 오스만 1세 시기에 사용되었고, 독립을 의미한다고 알려져 있다. 적색 군기는 오스만 1세부터 셀림 1세 시기까지 전장에서 사용되었다. 또한 녹색 군기는 전장에서 파디샤들에 의해 사용되었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보통 적색 군기는 군악대 오른쪽에 위치하며 녹색 군기는 군악대 왼쪽에, 그리고 백색 군기는 군악대 앞쪽 가운데에 (적색 군기와 녹색 군기의 가운데에) 위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다국어 표기** yeşil ile ilgili halk inanışları(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백색과 관련된 민간 신앙, 적색과 관련된 민간 신앙, 황색과 관련된 민간 신앙, 흑색과 관련된 민간 신앙

● **참고문헌(오프라인)** Altun, Erman. Türk Halkbilimi, Kitapevi yay, İstanbul 2009.

Günay Ünver. Güngör Harun. Türklerin Dini Tarihi. Berikan yay, Kayseri. 2015.

İnan, Abdulkadir. Tarihte ve Bugün Şamanizm, Türk Tarih Kurumu, Ankara 1986.

Ögel, Bahaeddin, Türk Mitolojisi I-II, Türk Tarih Kurumu, Ankara 2010.

Roux, Jean-Paul, Türklerin ve Moğolların Eski Dini, (Çev. Aykut Kazancıgil), Kabalcı yay, İstanbul 2001.

I A134 | 누란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동아시아 ● 나라 중국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국가 ● 유형 소분류2 왕조
- 집필자 장주영 ● 라틴 문자 Loulan

누란은 장건의 서역 개척 이후 한나라와 흉노가 서로 충돌했던 지역이다. 현재의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타림 분지에 위치하며 롽노르 서안의 토하라계 도시 국가로서 실크로드 교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누란은 B.C. 2세기 흉노와 한나라 멸망 이후 서역 6강으로서 번영을 누렸지만 5세기 북위의 침공으로 멸망되었다. 학자들은 누란의 멸망이 단순히 북위의 침공만이 원인이 아니라 당시 오아시스 지역을 근거지로 삼고 있었던 누란 주변을 흐르던 롽노르 강이 말라버린 사건과도 연관을 짓는다. 롽노르 강은 ‘방황하는 호수, 떠도는 호수’라는 별명을 가졌다. 롽노르가 이리저리 이동을 하며 1500년을 주기로 제자리로 돌아오는 속성을 가진다는 것을 20세기 초 중앙아시아를 탐험했던 스펜 헤딘과 오렐 스타인이 발견했다. 때문에 당시 호수가 마른 것이 아니라 남쪽으로 이동하여 강의 주변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되었고, 그 결과 사막 한가운데에서 번영을 누렸던 누란 왕국은 결국 타클라마칸 사막 속에 묻혀 사라지게 되었다.

누란 왕국의 중심이었던 실크로드 남로는 누란 왕국의 멸망과 함께 차단되었고, 실크로드에는 이 지역을 거치지 않고 지나가는 새로운 길이 개척되기 시작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크로라니아 왕국, 크로란 왕국
- 다국어 표기 楼兰, 樓蘭(중국어), كورلان(위구르어)
- 연관 검색어 신장 위구르 자치구, 타클라마칸 사막, 롽노르
- 참고문헌(오프라인) Hopkirk, P., & Case, D. 1990. Foreign devils on the Silk Road. Books on Tape.

I A135 | 누렛딘 제르라히

- 시기 A.D. 1500년 ~ A.D. 18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이슬람
- 유형 소분류2 인물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Nûreddin Cerrâhî

누렛딘 제르라히(Nûreddin Cerrâhî, 정식 이름은 Nûreddîn Muhammed ibn-i Abdullah er-Rûmî el İstanbulî el Cerrâhî, 1661년 또는 1672년~1720/1721년)는 제르라히 수피종단의 창시자이다. 그는 1661년 또는 1672년 이스탄불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궁전에서 왕의 동물을 돌보는 미라후르(mirahur)로 일했다. 제르라히는 어린 시절 이스탄불 제르라파샤(Cerrahpaşa) 초등 교육 학교에서 수학했고 이우수프 에펜디(Yusuf Efendi)로부터 서예를 배웠다. 이후 쉴레이마니이에 마드라사(Süleymaniye Madrasa)에서 수학하며, 압둘라흐 에펜디(Allah Efendi)의 제자가 되었다. 1689년 또는 1690년 이집트 카이로의 메블레위예트(mevleviyet)에 임명되지만, 쉐라미 알리 에펜디 텍케(Selâmi Ali Efendi Tekkesi)를 방문했을 때 황홀경을 느끼고, 카이로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수피 종단인 할베티(Halveti, 또는 할베티예, Halvetiyye)의 분파 라마자니(Ramazânî, 라마자니예 Ramazânîyye)의 셰이크가 된다.

누렛딘 제르라히는 셰이크가 된 이후 이스탄불 카라굼뤼크(Karagümrük)에서 박칼 이스마일 에펜디(Bakkal İsmâil Efendi)가 지어준 가옥에서 수행하며 기도와 가르침을 행했다. 이후 같은 자리에 술탄 아흐메드 3세(III. Ahmed, 재위: 1703년~1730년)가 1703년에 누렛딘 제르라히의 데르가흐를 건설해 주었으며, 이곳에서 종단 활동을 지속했다. 이 데르가흐의 개관 일자를 종단 설립일로 보고 있다. 누렛딘 제르라히는 18년 간 데르가흐에서 활동하다가 1721년 10월 1일 세상을 떠났다.

제르라히는 쉐레이만 벨리이윳딘(Süleyman Velîyüddin), 메흐메트 휘사멧딘(Mehmed Hüsâmeddin), 세르타릭자데 메흐메트 에민(Sertarîkzâde Mehmed Emin), 모랄르 이야히야 시에라페딘(Moralı Yahyâ Şerafeddin), 무술루 이우누스 테키르다을르(Musullu Yunus Tekirdağlı), 부르살르 무스타파(Bursalı Mustafa), 메흐메트 첼레비(Mehmed Çelebi) 등 7명의 할리프를 두었다. 제르라히는 종단의 규칙과 예절을 설명한 『Mürşid-i Dervîşân』을 저술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누레딘 제르라히, 누렛딘 제라히, 누렛뎨 제라히
- 다국어 표기 Nûreddin Cerrâhî(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제르라히에
- 참고문헌(오프라인) Öztürk, Mehmet Cemal. “NÛREDDİN CERRÂHÎ“, TDV İslâm Ansiklopedisi cilt33, İstanbul: TDV, 1993, pp.252~253.
- Gölpınarlı, Abdülbaki. 100 Soruda Türkiye’de Mezhepler ve Tarikatlar, İstanbul: GerçekYayınevi, 1969.

I A136 | 누룰라흐 아타츠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비평가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Metin Turan) ● 라틴 문자 Nurullah Ataç

누룰라흐 아타츠(Nurullah Ataç)는 튀르키예 20세기 문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비평가이다. 1898년 8월 23일 이스탄불 베이레르베이에서 태어난 그의 본명은 알리 누룰라흐 아타(Ali Nurullah Ata)이다. 그는 아흐페쉬, 알리 꺄뤽취, 알칸, 카바프오을루, 누룰라흐 아타, 사비하 야으즈라르, 수하 카바프오을루 등 여러 필명을 사용했다. 그의 아버지 메흐메트 아타다는 재무 장관을 지냈고, 공직을 수행하면서도 『콜렉션(İktitaf, 1898)』라는 선집 이외에도 오스트리아의 저명한 역사가인 함메르의 작품 『오스만 제국사(Devlet-i Osmâniyye Tarihi)』, 폴 드 콕(Paul de Kock)의 소설과 베르나르맹 드 생피에르(Bernardin de Saint Pierre)의 유명한 소설 『폴과 비르지니(Paul ve Virginie)』를 튀르키예어로 번역한 지식인이었다.

어린 시절 아버지를 따라 오스만 제국의 국경에 있는 테살로니키(Selanik)에서 잠시 보낸 적이 있는 누룰라흐 아타츠는 초등 교육은 이스탄불에서 받았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갈라타사라이 고등학교에 진학했다가 중간에 제네바로 유학을 갔던 누룰라흐 아타츠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학업을 중단하고 1919년 귀국했다.

돌아와서는 다뤘뤘눈(Dârülfünun, 지금의 이스탄불 대학교)에서 문학 수업을 들었고

(1919년~1920년), 프랑스어를 독학으로 공부해 니산타쉬, 베파, 이스탄불, 위스퀴다르 고등학교와 아다나 고등학교에서 프랑스어를 가르쳤다. 또 무역부와 교육부 교육과정과에서 번역 일을 했고 초등교육과에서 업무 총괄을 하다가 다시 교사직으로 돌아와 앙카라 오르타 무알림 맥테비, 이스탄불 페르테브니알 고등학교, 이스탄불대학교 외국어 교육센터, 가지 교육 대학교, 앙카라 아타튀르크 고등학교에서 프랑스어 교사로 근무했다(1941년~1945년). 1940년 하산 아리 유젤이 교육부 장관으로 재직할 때 설립한 번역원 초대 원장이 됐다. 이때 근무하면서 많은 작품을 튀르키예어로 번역했다.

1945년부터 언론정보국에서 편집장으로 근무하다가 1951년 대통령 통역관으로 임명돼 은퇴하는 1952년 2월 7일까지 통역관으로 일했다. 누룰라흐 아타츠는 공식 직무 이외에도 튀르키예 국립국어원의 위원회 위원을 지냈고, 1951년부터 튀르키예 국립국어원 출판부장을 맡았다. 튀르키예어를 특성화시키고 외래어를 순화시키는 데 집중한 아타츠는 1951년부터 생을 마감할 때까지 튀르키예 국립국어원에서 발행하는 저널 <투르크어(Türk Dili)>를 총괄했다.

잡지 <예배당(Dergâh)>에 아흐메드 하심의 「호수의 시간(Göl Saatleri)」 비평문을 쓰면서 시 세계에 입문한 아타츠는 얼마 지나지 않아 시를 쓰는 것으로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느끼고 희곡, 문학 비평, 수필을 주로 썼다.

그는 프랑스 문학과 세계 문학에 능통한 모두가 인정하는 비평가였다. 그러나 주관성이 강한 스타일로 비평을 하다 보니 아타츠 자신은 스스로를 비평가보다는 수필가처럼 느꼈다. 1940년~1955년에 신문 <저녁>, <국민>, <공화국>, <민족>, <마지막 우편물>, <소식>, <석간 소식>, <마지막 소식>과 잡지 <인생>, <사상운동>, <제7일>, <신인(新人)>, <신(新)저널>, <일요소식>, <단편선집>, <이상>, <와르륵>, <투르크어> 등 여러 곳에 수필과 비평문을 썼다. 프랑스어에서 튀르키예어로 번역을 하고, 당시의 예술과 문학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방향을 제시했다. 그러자 문학계에서는 그의 역량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다. 특히 젊은 시인과 작가가 쓴 글을 논평할 때는 사람들의 기대와 관심이 컸고, 그의 말에 귀 기울였다. 발자크, 스탕달, 라클로 같은 서양의 고전 작가들도 그가 번역했다는 이유로 독자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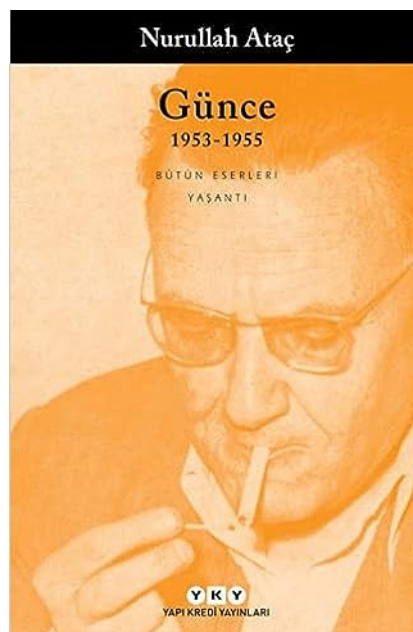
누룰라흐 아타츠는 튀르키예 문학계에서 영향력이 큰 비평가가 됐다. 특히 당시 시인들은 유독 아타츠의 비평에 대해 신경을 썼고 긴장했다. 아타츠의 비평이 주관성이 강하다고 해도 그만

큼 그의 말과 글은 영향력이 컸기 때문이다.

공화국 시기 튀르키예 문학계에서 가장 개성이 강한 사람 중 한 명이었던 누룰라흐 아타츠는 자신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과도 솔직한 웃음을 나누는가 하면, 지인들에게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아타츠의 총명함은 예술적 가치를 담고 있는 작품과 재능을 쉽게 알아보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문학적, 미적 감각을 지닌 데 있었다. 항상 숨김없이 말하는 것은 그가 가진 특징 중 하나였다. 자기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변화에 거부감이 없었으며 자기 자신도 비판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사람이었다. 그런 아타츠가 고집을 부리는 딱 한 가지가 있다면 튀르키예어를 발전시키고 다양화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연장선상에서 튀르키예 어린이들의 올바른 모국어 사용을 위해 체계적인 모국어 교육을 고민했다. 또한, 모국어 교육과 더불어 외국어 교육 역시 필요하다고 믿는 사람이었다. ‘외국어는 어린이의 사고 지평을 확장해 주고 언어의 소중함을 깨닫게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다.

삶 전체를 문학에 바친 드문 사람 중 하나인 누룰라흐 아타츠에 대해 저명한 문학가 아흐메트 함디 탄프나르는 다음과 같이 회고한다. “누룰라흐에게 문학은 그를 살아가게 하는 유일한 원동력이었다. 그는 시와 문학 말고 다른 것은 모르고 살았다. 어느 날 누룰라흐는 아흐메트 쿠트 시에게 ‘나는 하루에 24시간 작가입니다’라고 말했는데 이보다 더 누룰라흐를 잘 나타내는 다른 문장은 없었다.”

아타츠는 고전 문학을 잘 알면서도 새로운 것을 지지하는 비평가였다. 아타츠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지킬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다. 아타츠는 혁신을 선호하는 자신의 생각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항상 새롭고 혁신적인 걸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것이 항상 좋을 수만은 없어요. 그렇다고 과거에 머문 작품도 별로예요. 푸줄리(Fuzuli: 오스만 제국의 고전 시를 대표하는 서정 시인)와 바키(BÂKÎ: 오스만 제국의 시인)의 가젤(gazel: 고전 시 형식 중 하나)은 멋있을 수 있죠.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쓰는 푸줄리와 바키는 아름다울 수 없어요. 죽은 것이죠.”



누룰라흐 아타츠의 『Günce 1953-1955』 표지

그는 1957년 5월 17일 앙카라에서 영면에 들었다. 누룰라흐 아타츠의 묘는 이스탄불에 있다. 1958년 누룰라흐 아타츠의 딸 메랄 툴루오을루가 올해 최고의 비평과 수필 부문 아타츠 상을 제정해 2년간 시상(施賞)했다. 1959년에는 메흐메트 푸아트 그리고 1960년에는 사바하틴 에위 보을루가 각각 수상한 바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누룰라 아타츠, 누룰라 아타츠, 누룰라 아타치, 누룰라흐 아타치
- 다국어 표기 NURULLAH ATAC(영어), Nurullah Ataç(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이스탄불, 위스퀴다르, 앙카라, 튀르키예 국립국어원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edebiyatla.com/storage/app/uploads/public/5ca/aed/af7/5caaedaf7f44e349249807.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Ataç Nurullah, “Nurullah Ataç ile Bir Konuşma”, *Varlık Dergisi*, S. 385, s.6, 1 Ağustos, 1952.
Bezirci Asım, *Nurullah Ataç Eleştirisi Anlayışı ve Yazıları*, KitapYayıcılık, İstanbul, 1968.
Tanpınar Ahmed Hamdi, *Edebiyat Üzerine Makaleler* (Hazırlayan: Zeynep Kerman), 3. Baskı, Dergah Yayınları, İstanbul, 1992.

I A137 | 누르알리 커불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Guzai Mihrayeva ● 라틴 문자 Nurali Qobul

우즈베키스탄 언론인이자 소설가인 누르알리 커불(Nurali Qobul)의 본명은 누르알리 커불로비츠 혈볼타예프(Nurali Qobulovich Xolbo'tayev)이다. 1950년 1월 2일 지자흐(Jizzax)에서 태어났다. 1974년 미르저 울루그베그(Mirzo Ulug'bek) 페르가나 국립 사범대학교 역사학과를 졸업했다. 졸업 후 그는 지자흐 시에서 교사로 재직했으며, 1971년~1973년에는 신문 <승리의 깃발(G'alaba bayrog'i)> 그리고 1973년~1976년에는 신문 <지자흐의 진실(Jizzax haqiqati)>에서 근무했다. 1977년~1987년에는 문예지 <소비에트 우즈베키스탄의 예술(Sovet O'zbekistoni san'ati)> 그리고 1987년~1996년에는 출판사 별(Yulduzcha)의 편집장을 맡았다.

잡지 <소비에트 우즈베키스탄의 예술(Sovet O'zbekistoni san'ati)>에 재직하면서 그의 문

학 활동도 시작되었다. 단편 산문과 단편소설을 시작으로 장편소설, 기고문, 논평 기사를 썼다.

1978년에 출간된 그의 첫 책인 『어이커르(Oyqor)』는 단편소설들이 수록되어 있으며 1979년 출간된 『안녕, 산(Salom Tog'lar)』은 장편소설이다. 첫 장편소설에서 작가는 전쟁 시기의 재난, 우즈베크 사람들의 풍습과 전통, 가족 내의 문제들, 젊은이들의 운명과 사랑을 다루었다.

1981년과 1983년에 출간된 『끝없는 하늘(Tubsiz osmon)』과 『살려면 늦장부리지 마라(Yashash uchun kechikma)』에서는 청년의 운명과 미래를 위한 투쟁을 묘사했다. 1983년에 출간한 『비둘기들이 돌아오지 않았던 날(Kaptarlar Qaytmagan Kun)』에서는 삶과 사람에 대한 작가의 철학을 현실적이고 깊이 있게 다루었다. 그는 1988년 작품 『잊힌 해변(Unutilgan sohillar)』에서는 인간과 조국, 민족에 대한 사랑과 욕망, 충성을 이야기했다.

이외에도 그는 다수의 단편과 장편을 발표했고, 1980년에는 어린이를 위하여 『사람, 산과 부는 바람(Odam, Oyqor tog' va daydi shamol)』이라는 운문 동화를 출간하기도 했다.

신문 기사 모음인 『조국보다 좋은 친구는 없다(Vatandan yaxshi yor bo'lmas)』는 1980년에 출간되었고, 마르케스의 『백 년 동안의 고독』, 키르기스스탄의 소설가 친기스 아이트마토프(Chinghiz Aitmatov)의 『내 어린 시절(Bolaligim)』과 같은 작품을 우즈베크어로 번역했다. 누르알리 커불의 작품들도 튀르키예어를 비롯하여 여러 외국어로 번역되었다. 누르알리 커불은 막심 고리키와 보리스 폴레보이 문학상을 수상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누르알리 코불, 누랄리 코불, 누랄리 카불
- 다국어 표기 Nurali Qobul(우즈베크어), Nur Ali Kabul(튀르키예어), Нурали Кабул(러시아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storage.kun.uz/source/4/uK2Sgkb07HWFxT8Hs8wbJzNYKvU2-vF.jpg>
- 참고문헌(온라인) <https://www.ziyouz.com/portal-haqida/xarita/uzbek-nasri/nurali-qobul-1950>
- 참고문헌(오프라인) Mirvaliyev Sobir, *O'zbek adiblari*, Toshkent: Fan, 1993.

I A138 | 누번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동아시아 ● 나라 중국 ● 유형 지리 ● 유형 소분류1 민족 ● 유형 소분류2
● 집필자 김재윤 ● 라틴 문자 loufan

누번은 고대 종족 명칭 혹은 지역명이라는 기록이 있다. 종족이라는 기록은 『사기』 110권, 흉노열전 제50권에 있고, 지역명이라는 기록은 『사기색은(史記索隱)』에 남아 있다. 종족의 명칭으로 보는 기록에서 그들은 동호의 서쪽에 거주했다고 전한다. 춘추 말에 주로 산서성(山西省) 영무현(靈武縣) 가봉현(岢嵐縣)에 살고 있었다. 그들은 활 쏘는 데 매우 능숙하고 목축업에 종사했다. 이후에 섬서성 북쪽과 내몽골 남부 지역에서 활동하다가 진 말기 흉노에게 정복되었다. 지금의 내몽골 오르도스 지역으로 이주했다가 한무제 원삭(元朔) 2년에 위청(衛靑)이 이들을 격파했다. 『사기색은(史記索隱)』에는 현의 명칭으로 해석하고 있다. 누번은 원래 이민족의 땅으로 한대에는 안문군(雁門郡)에 속했다. 지금은 산서성(山西省) 신지(神池) 오삭(五寨)에 위치한다. 누번족은 동호족과 함께 융족으로 알려졌는데, 전국 시대 이후에는 기록에서 사라졌다.

『사기』의 흉노열전에 따르면 누번이 있었을 당시에 흉노의 왕은 목돌선우(B.C. 234년~174년)였고, 그는 월지를 공격하고 오르도스 지역의 누번과 백양을 병합해서 한나라와 맞설 수 있는 세력으로 등장했다. 특히 동호는 매우 강성했으나 목돌은 동호를 습격했다. 이후 목돌은 혼유(渾庾)·굴역(屈射)·정령(丁零)·격곤(鬲昆)·신려(薪犁) 등을 복속시켰다. 목돌은 두만 선우의 아들이지만, 월지로 보내졌다. 그러나 목돌은 월지에서 살아 돌아와 두만의 뒤를 잇게 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루판, 루판, 누번족
- 다국어 표기 樓煩(중국어)
- 연관 검색어 두만 선우, 정령, 흉노
- 참고문헌(오프라인) 林幹 2003, 『中國古代北方民族通史』, 廈門: 鷺江出版社.
『史記』 110권, 흉노열전.

I A139 | 누스레티이에 모스크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건축 ● 유형 소분류2 모스크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Nusretiye mosque

술탄 셀림 3세(Selim III, 재위: 1789년~1807년)가 이스탄불 포병 무기고 근방에 건설하도록 한 아라바즈라르 크시라스 모스크(Arabacılar kışlası mosque)는 1823년에 대형 화재로 소실되었다. 같은 해 술탄 마흐무드 2세(Sultan Mahmud II, 재위: 1808년~1839년)는 소실된 모스크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모스크를 짓도록 명했고, 이 명에 따라 누스레티이에 모스크가 건설되었다. 누스레티이에의 뜻은 '승리'인데, 반란을 도모했던 예니체리를 폐지한 이른바 '경사스러운 사건(Vaka-i Hayriye)'을 기념하고 새로운 신식 군대 창설을 축하하는 의미를 지닌다.

누스레티이에 모스크의 건축가는 아르메니아 출신 건축가 키르코르 발라얀(Kirkor Balyan: 1764년~1831년)이다. 키르코르 발라얀은 많은 건축가를 탄생시킨 발라얀 가의 아홉 형제 중 장남이다.

압뒬메지드 1세(Abdülmeceid I, 재위: 1839년~1861년)는 모스크에 시계탑과 톱하네 키오스크를 추가로 건설하고 그 외 부속 건물을 설치했으나 현재 남은 것은 모스크와 시계탑, 키오스크뿐이다. 1955년~1958년, 1980년, 1992년에 수리와 복구 공사를 했다.

대리석을 주로 사용하여 건설된 누스레티이에 모스크는 지면에서 약 2m 높이의 층을 만든 후 세워졌고, 이로 인해 걸 벽과 중정 문이 사라진 현재는 16개의 계단을 통해 3개의 돔으로 덮인 배랑으로 진입할 수 있다.

지름 7.5m의 돔은 바로크 양식의 장식이 돋보인다. 4개의 둥근 아치로 지지하고 있는 돔의 사방에는 돔을 강화시키는 탑이 있고, 하나씩 아치와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돔의 주변은 작은 바로크 스타일의 탑으로 둘러쌌다. 다각형의 미흐랍 돌출부 역시 세미 돔으로 덮여 있다.

둥근 아치가 주로 쓰인 이 모스크에서 거의 모든 기둥은 사각의 흰색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 신고전주의 양식의 주두가 사용되었다. 내부 창문도 주변도 아칸서스 잎사귀 문양과 바로크 양식의 꽃병 문양으로 장식되어 있다. 모스크 내의 코란 구절이 적힌 금박 비문은 오스만 시대의 유명 서예가 라킴(Mustafa Rakım: 1757년~1826년)의 작품으로 그 예술적, 역사적 가치가 높



누스레티에 모스크

다. 미흐랍 비문 역시 라쿰의 작품이다. 이러한 라쿰의 비문은 바로크와 신고전주의 장식 사이에서 조화를 이루고 있다.

단순한 대리석 미흐랍과 달리 대리석으로 만든 설교단은 원뿔형의 끝부분이 아칸서스 잎사귀와 양각으로 꽃을 새겼다. 모스크의 두 개의 발코니가 있는 미너렛은 가늘고 높으며 역시 가늘고 긴 원뿔로 마무리되었다. 미너렛의 발코니 아래는 양각 꽃무늬로 장식되어 있다.

누스레티이에 모스크는 신고전주의 양식을 처음으로 시도한 모스크이다. 이후 1840년 신고전주의 양식으로 건설되는 술탄 마흐무트 2세의 영묘 건축에 영향을 주게 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누스레티이에 자미, 누스레티예 모스크, 누스레티예 사원

● 다국어 표기 Nusretiye camii(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모스크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b/ba/%C4%B0stanbul_4946.jpg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7/7f/Nusretiye_Camii.JPG

https://d1rcls0x4prdpf.cloudfront.net/uploads/media_content/picture/692/medium_3486547676_d58768407a_o.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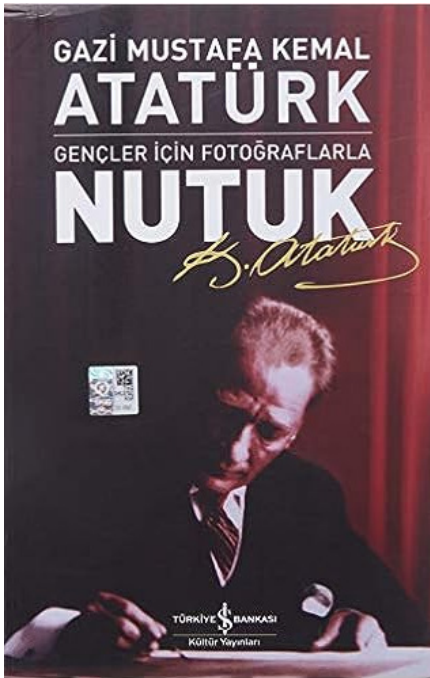
● 참고문헌(오프라인) Goodwin, Godfrey. A History of Ottoman Architecture, 417~419. London: Thames and Hudson, 1997.

Kuban, Doğan. Türk barok mimarisi hakkında bir deneme. Istanbul: Pulhan Matbaasi, 1954.

Aslanapa, Oktay. Osmanlı devri mimarisi, Istanbul: İnkılâp Kitabevi, 2004.

I A140 | 누투크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서적
- 집필자 장주영 ● 라틴 문자 Nutuk



『누투크(Nutuk)』 표지

『누투크(Nutuk)』는 1927년 10월 15일부터 20일까지 6일간 진행된 튀르키예 공화인민당 제2차 대회에서 튀르키예 공화국 초대 대통령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가 한 연설문을 엮은 책이다. 누투크를 통해 아타튀르크는 오스만 제국의 역사에 대한 그의 개인적 해석, 튀르키예 독립 전쟁, 진보적인 민족 국가로서의 튀르키예의 비전을 제시한다.

튀르키예 공화국은 1923년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 장군의 지휘하에 튀르키예 독립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오스만 제국의 후계 국가로서 국제적으로 주권을 인정받아 현대 민족 국가로 건국되었다.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는 튀르키예 독립 전쟁(Millî mücadele: 1919년~1922년)의 영웅으로서 1923년부터 1938년까지 튀르키예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이였다. 아타튀르크는 튀르키예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개혁을 추진했는데, 6일간 진행된 연설에서 이 모든 것들을 밝힌 바 있다. 누투크는 이 모든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여 전달한다.

누투크는 1919년 5월 19일 튀르키예 독립 전쟁 시작부터 1923년 튀르키예 공화국 수립 사이의 역사적 사건들을 통사적으로 다룬 이야기책이다. 누투크는 국가를 발전시키려는 내적 소명을 가진 지도자 아타튀르크의 내레이션을 형태로 서술된다. 누투크는 튀르키예 공화국의 역사에 대한 아타튀르크의 공식적인 견해로서 튀르키예 공화국과 과거 오스만 제국에 대한 그의 비전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의 연설을 통해 튀르키예 공화국이 어떻게 탄생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책이다. 누투크는 현대 튀르키예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기본서로 알려져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누투, 누트크, 누투
- 다국어 표기 نطق (아랍어), Nitq (아제르바이잔어)
- 연관 검색어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cdn1.ntv.com.tr/gorsel/FQkML2VKdUq0TW2DHPzCzPQ.jpg?width=991&mode=both&scale=both&v=1636538986591>
- 참고문헌(오프라인) Alaranta, T. 2008. Mustafa Kemal Atatürk's Six-Day Speech of 1927: Defining the Official Historical View of the Foundation of the Turkish Republic. Turkish Studies, 9(1), 115~129.

I A141 | 누흐팅 암 유적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몽골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유적 ● 유형 소분류2 무덤
- 집필자 김재윤 라틴 문자 NUKHTIIN AM

누흐팅 암 유적은 몽골 흡스골 아이막 갈트 솜 중심 마을에서 서북쪽으로 약 10km 떨어진 이데르 강 북안에 있다. 이 유적지에는 몽골 흉노 무덤 100여개와 사슴돌 2개가 발견되었다.

누흐팅 암 유적 서구역에 있던 무덤 가운데 3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21호 지표면에서 지름 6m의 고리형 적석유구(積石遺構)가 확인되었다. 적석을 제거하자 깊이 1m에서 통나무를 오목하게 파서 만든 목관이 발견되었다. 길이가 1.9m, 머리 쪽 0.5m, 다리 쪽 0.4m, 높이 0.3m이다. 목관 위에는 목판을 가로로 놓아 덮은 흔적이 확인되며, 목관 아래에 머리와 다리 양쪽에 나무를 가로놓았다. 머리를 북쪽에 두고 안면을 위로 향하게 안치된 인골이 있었다. 목관 내에서 인골 외에 유물은 발견되지 않았고 서북쪽 밖에서 남북으로 배치한 토기 2점이 출토되었다. 토기는 어깨에 파상문이 시문된 심발형으로 양의 다리뼈가 안에 들어 있었다.

22호는 21호 무덤 서쪽에 연접해 있었고 그 지름은 6m이다. 적석을 제거하자 나무 조각과 양 뼈 등이 수습되고 깊이 2.5m에서 목관이 노출되었다. 목관은 얇은 판재이고 길이 2.5m, 너비

1m이다. 목관은 서북-동남향으로 안치되었고 내부에서 피장자의 사지골이 확인됐는데, 두향은 동남쪽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오른쪽 다리 옆에서 발견된 철검만 목관 안에 놓여 있었고 나머지 유물은 밖에서 수습되었다. 목관 밖에는 토기가 흩어져 있었고, 토기 서쪽 장벽 주변에서 철제 창과 삼익형 철촉 2점이 발견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누흐틴 암, 누흐팅 암 유적, 누흐티인 암 유적
- 다국어 표기 НУХТИИН АМ(러시아어), NUKHTIIN AM(몽골어)
- 연관 검색어 흉노
- 참고문헌 (오프라인) Д. Цэвэндорж. 1985, Новые данные по археологии хунну (по материалам раскопок 1972-1977 гг.)// Древние культуры Монголии.// Новосибирск: с. 51~87.
DANDINSUREN TSEVEENDORJ SC.D(ed)., 2013, ENCYCLOPAEDIA XIONGNU, ULAANBAA TAR.
국립중앙박물관·몽골과학아카데미 고고학연구소·몽골국립박물관 2008, 『몽골 흉노무덤 자료집성』.

I A142 | 뉘샤배 애새드 맴매들리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아제르바이잔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Vaqif Sultanlı) ● 라틴 문자 Nüşabə Əsəd Məmmədli

20세기 아제르바이잔의 유명한 여성 작가이자 극작가인 뉘샤배 애새드 맴매들리(Nüşabə Əsəd Məmmədli)는 1946년 12월 8일 도시 갠재(Gəncə şəhəri)에서 태어났다. 그녀는 1966년부터 1972년까지 아제르바이잔 국립 대학교(Azərbaycan Dövlət Universiteti, 지금의 바쿠 국립 대학교) 언론학과에서 러시아어를 전공했다. 그녀는 1970년부터 1991년까지 <키로바바드 스키 라보치(Kirovabadski Raboçi, 지금의 노보스티 간지(Novosti Ganji))> 신문에서 기자로 일했다. 1991년~1995년에는 이 신문의 편집자를 지냈다. 1992년에 그는 문학-예술 잡지 <엘(EI)>을 만들어 편집자로 활동했다. 2003년~2013년에는 아제르바이잔어로 발행하는 주간 신문 <갠재바사르(Gəncəbasar)>의 편집자였다.

1983년 갠재 국립 극장(Gəncə Dövlət Dram Teatrı)에서 그의 희곡인 「나는 잊고 싶다」가 무대에서 상연됐다. 『나뭇잎들의 떨어짐(Yarpaq tökümü)』이라는 그녀의 첫 책은 1984년 바쿠에서 출판됐다. 이후 『신기루(İlğım, 1987)』, 『마지막 노래(Sonuncu mahnı, 1991)』, 『자바드 칸(Cavad xan, 1996)』, 『백합 밭(Lalə tarlası, 2004)』, 『일몰(Qürub, 2014)』, 『노래(Vida nəğməsi, 2018)』 등의 책이 출간됐다. 이 책들은 역사를 토대로 쓴 소설, 포베스트(povest), 단편소설, 극작품 등이다. 역사를 토대로 저술한 극작품인 「자바드 칸(Cavad xan)」은 갠재 국립 극장(Gəncə Dövlət Teatrı)에서 상연됐다.

늬샤배 애새드 맘매들리의 희곡들을 기반으로 2편의 영화가 제작됐다. 호잘르 학살(Xocalı soyqırımı)을 다룬 「신음(Haray)」과 서정적(lyric) 주제를 다룬 「흰 꽃들의 춤(Bəyaz çiçəklirin rəqsi)」이라는 영화이다. 그녀는 조지아 작가인 테무르 아르콜라자데(Temur Amkoladze)의 소설 「잊혀진 이야기(Unudulmuş əhvalat)」를 아제르바이잔어로 번역하기도 했다.

늬샤배 애새드 맘매들리는 1983년에 황금 작가(Qızıl qələm) 상, 1991년에 민족 기자(Əməkdar jurnalist) 상, 2004년에 해산 배이 재르다비(Həsən bəy Zərdabi) 상과 명예 칭호들을 받았다. 그녀의 작품들은 튀르키예어, 러시아어, 영어, 폴란드어, 그루지야어, 페르시아어 및 우즈베크어로 번역됐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늬샤배 애새드 맘매들리, 늬샤베 에사트 맘매들리, 누샤바 아사트 마매들리
- 다국어 표기 Нушаба Асад Мамедли(러시아어), Nüşabe Esat Memmedli(튀르키예어), Nushaba Asad Mammadli(투르크멘어), Nushaba Asad Məmmədli(우즈베크어), Нушаба Асад Мамедли(카자흐어), Нушаба Асад Мəmmədли(타타르어), Nüşabə Əsəd Məmmədli(아제르바이잔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kultur.az/wp-content/uploads/2016/04/nushaba-teze-shekil-e1544272277430-239x300.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Aytel İradə, “Vida nəğməsi’nin Bitməyən Ömrü”, *Ədəbiyyat Qəzeti*, 2 noyabr, 2019.
Azərbaycan Milli Azadlıq Hərəkatı Ensiklopediyası (Tərtib edən Nəsiman Yaqublu), Bakı: Qanun, 2018, s. 566.
Əhmədov Teymur, *Azərbaycan Yazıçıları XX–XXI yüzilliklərdə: Ensiklopedik Məlumat Kitabı*, Bakı: Nurlar nəşriyyatı, 2011.
Hüseynoğlu Sərvaz, “Vida Nəğməsi”, *Ədəbiyyat Qəzeti*, 24 fevral, 2018.
Mehdi Qərib, “Millətini Sevməni Millət Ucaldır”, *Kaspi Qəzeti*, 9~11 fevral, 2013.

I A143 | 뉴스래트 캐세맨리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아제르바이잔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Vaqif Sultanlı) ● 라틴 문자 Nusrat Kesemenli

20세기의 아제르바이잔 시인인 뉴스래트 캐세맨리(Nüsrət Kəsəmənli, 1945년~2003년)는 1945년 12월 29일 아제르바이잔의 아그스타파(Ağstafa rayonu) 지방에서 태어났다. 그는 1966년에 아제르바이잔 국립 대학교(지금의 바쿠 국립 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 입학했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대학교 2학년 때부터 <바쿠(Baku)> 신문의 기자로 일했다. 그리고 대학 졸업 후에는 1978년부터 1985년까지 아제르바이잔 작가 연맹에서 활동했다.

그는 1960년대 초반부터 문학 활동을 시작했으며, 다양한 기사와 학술지 논문을 작성했다. 그가 지은 150편 정도의 시는 노래로도 작곡됐다. 그는 시 창작 외에도 영화 제작에도 관심을 보였고, 직접 시나리오를 쓰기도 했다.

그는 「텅 빈 도시의 신음(Boş kəndlərin harayı)」, 「즉흥시(Mövzu üzrə improvizasiya)」, 「소비에트 시대 아제르바이잔 여행(Sovet Azərbaycanına səyahət)」, 「도시들의 신음(Kəndlərin harayı)」, 「평화 투쟁에 나선 무슬림인들(Müsəlmanlar sülh uğrunda mübarizədə)」 등 다양한 다큐멘터리 대본을 썼으며, 영화 「아프로디테의 두 손(Afroditanın qolları)」과 「카라바흐 이야기(Qarabağ əhvalatı)」의 시나리오도 주목을 끌었던 그의 작품이다.

1981년~1984년에 그는 아제르바이잔 작가 연맹 위원장을 역임했고, 예술 분야 직원 조합 위원회, 아제르바이잔 역사 문화재 보호 협회, 아제르바이잔 작가 연맹 이사회의 회원으로 활동했다. 그는 시의회 의장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1985년부터는 재패르 자발르의 이름을 딴 아제르바이잔 필름 스튜디오에서 편집장으로 일하는 동시에, 다큐멘터리 방송국 프로그램인 「세계로 창(Dünyaya pəncərə)」의 시나리오 작가이자 아나운서로 활동했다. 그의 대표 시집으로는 『사랑한다면(Sevirsənsə, 1971)』, 『내 눈의 눈동자(Gözlərimin qarası, 1975)』, 『내 자신과 닮았던 날들(Özümə bənzədiyim günlər, 1979)』, 『달콤한 꿈들(Gümüş yuxular, 1981)』, 『홀로 얘기하자(Təklidə danışaq, 1983)』, 『그리운 사랑(Heyf o sevgiyə, 2000)』 등이 있다. 그의 시(poema) 장르 작품 중에서는 「카라바흐는 기

역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Yaddan çıxmaz Qarabağ)」가 대표적인데, 이 작품에서 그는 카라바흐 칸국(Qarabağ xanlığı)의 칸이었던 이브라힘헬릴 칸(İbrahimxəlil xan)의 딸 아가배임(Ağabəyim)의 삶을 다루었다. 그는 아가배임을 통해 애국 여성의 이미지를 창조했다.

그는 주로 아제르바이잔 문단에서 사랑에 대한 시를 쓴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의 시는 대부분 이별을 주제로 하고 있는데, 독자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에 문학평론가들은 그를 ‘사랑의 시인’이라고 정의한다. 그의 「당신이 떠나고 싶다면(Getmək istəyirsən)」, 「내 눈의 눈동자(Gözlərimin qarası)」, 「아쉬운 그 사랑(Heyf, o sevgiyə)」, 「여성의 마음(Qadın ürəyi)」, 「만약 사랑한다면(Sevirsənsə)」 등의 작품은 아제르바이잔 시 문학의 정수(精髓)로 여겨진다.

2003년 10월 15일 태브리즈(Təbriz)에서 세상을 떠난 그는 바쿠에 묻혔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누스레트 캐세멘리, 누스라트 케세멘리, 누스랏 케세멘리
- **다국어 표기** Nusrat Kesemenli(튀르키예어), Нусрат Кесемени(러시아어), نصرت كسمنلی(페르시아어), Nüsret Kəsəmənli(아제르바이잔어)
- **연관 검색어** 바쿠, 아제르바이잔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azerbaijans.com/uploads/nusret-kesemenli-123123.gif>
- **참고문헌(오프라인)** Əhmədov Teymur, *Azərbaycan yazıçıları XX-XXI yüzilliklərdə: Ensiklopedik məlumat kitabı*, Bakı: Nurlar nəşriyyatı, 2011.
Kamal Rüstəm, “Nüsret Kəsəmənlinin nağılları”, *Ədəbiyyat qəzeti*, 19 sentyabr, 2015.
Osmanoğlu Məti, “Oyatma mürgülü xatirələri”, *Ədəbiyyat qəzeti*, 8 mart, 2019.
Rüstəmhanlı Sabir, “Nüsret Kəsəmənlinin özü və sözü”, *Ədəbiyyat qəzeti*, 11 fevral, 2017.
Yusifli Vaqif, “Yaddan çıxmır Nüsret Kəsəmənli”, *525-ci qəzet*, 6 oktyabr, 2012.

I A144 | 늑대 토템

- 시기 기타 ● 지역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 나라 아제르바이잔, 튀르키예,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신앙 ● 유형 소분류2 상징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Bədirxan Əhmədli) ● 라틴 문자 wolf totem

늑대(튀르키예어 Kurt; 아제르바이잔어 Qurd)는 투르크인들의 매우 중요한 토템이다. (이하 원어 표기는 아제르바이잔어를 기준으로 함) 투르크어로 ‘회색늑대(boz qurd)’, ‘뱌뤼(börü)’, ‘얄구자그(yalquzaq)’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투르크인들의 토템 늑대는 목은 파란색이고, 몸의 나머지 부분은 회색이다. 생활 방식, 혼자 돌아다니는 습관, 사냥물 하나로 만족한다는 점, 죽는 방법, 청결한 점 등 다른 늑대 종류와는 크게 차이가 난다. 늑대는 투르크 신화에서 대단히 중요한 원형적 토템이다. 돌궐족 애르개내콘(Ərgənəkon dastanı)서사시에서는 투르크인의 조상이 암늑대와 소년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을 보여준다. 고대 투르크인들의 탄생을 말해주는 서사시(Törəniş dastanı)에서는 늑대가 아버지로 묘사된다. 고대 투르크인들은 늑대를 ‘푸른 이리’라는 뜻으로 ‘킵 뵈리(kök böri)’라고 불렀다. 이때 ‘킵(Kök)’는 하늘의 색인 푸른색이다. 투르크인들은 하늘을 ‘킵 텡그리(kök tengri)’라고 불렀는데 그 뜻은 ‘파란 하늘(mavi göy)’이다. 푸른색은 신성한 하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상징이었다. 『현자 코르크트의 서(書)(Kitabi Dədə Qorqud dastanı)』 서사시에서 ‘늑대의 얼굴에는 복이 있다. 늑대와 상의하자(Qurd üzü mübarəkdir, qurddan bir xəbərləşəyin)’, ‘내 검은 머리를 늑대, 너를 위해 희생하마(Qara başım qurban olsun qurdum, sana)’ 등과 같이 카잔 칸(Qazan xan)이 하는 말에 늑대 토템이 나타난다. 같은 작품에 등장하는 ‘바으부라(Baybura)’라는 인물도 늑대와 관련된 명칭이다.

투르크 민족은 늑대를 뜻하는 ‘뱌뤼(börü)’와 관련된 많은 지명을 갖고 있다. 가령 ‘브우리(Bıri)’, ‘부리보이(Buriboy)’, ‘부리오이(Buriyoy)’, ‘부레(Bure)’, ‘구르트(Qurt)’, ‘보리(Bori)’, ‘벼리(Byori)’ 등이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뱌뤼 토템, 쿠르트 토템, 보즈 쿠르트 토템
- 다국어 표기 Wolf(영어), kurt(튀르키예어), волк(러시아어), Qurd(아제르바이잔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Azərbaycan Xalq Əfsanələri. Bakı, 1985, 285 S.

I A145 I 니가리

● 시기 A.D. 1500년~A.D. 18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 1 세밀화 ● 유형 소분류 2 인물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Nigari

16세기 오스만 제국 세밀화가인 니가리(Nigari)는 예명이며, 그의 본명은 하이다르 레이스(Haydar Reis)이다. 출생 연도는 알려진 바 없으나, 그의 일생에 대해서는 당대의 저술가들이 일부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 이를 종합해 보면 그는 세밀화가이자 선원이었으며, 시인이었다. 그는 썸시 파샤(Şemsi Paşa, ?~1580년)와 함께 다마스쿠스에 갔고 후에 성지 순례를 했다.

니가리는 셀림 2세(II.Selim, 재위: 1566년~1574년)가 제위에 오르기 전, 아직 쿠타하(Kütahya)를 통치하던 시절에 셀림 2세 곁에 있었다. 항로를 잘 찾아 해양 원정에 참여해 공을 세우기도 했으며, 승전기를 집필하기도 했다. 따로 스승은 없었으며 크로키에 특별한 재능을 보였다 고 한다. 해양 지식과 섬에 대한 지식을 시로 쓴 『바다 진주(Dürr-i Deryâ)』라는 책을 집필하기도 했다.

니가리는 오스만 술탄 초상화 시리즈 전통의 대표적인 초기 작가 중 하나로 다수의 초상화를 남겼다. 니가리의 첫 작품은 바르바로스 하이렛딘 파샤(Barbaros Hayreddin Paşa, ?~1546년)의 초상화(톱카프 궁전 박물관: Topkapı Sarayı Müzesi Kütüphanesi H.2134 y.9)이다. 한 손에는 지휘봉, 다른 한 손에는 카네이션의 향기를 맡는 그림으로 과거의 메흐메트 2세(II. Mehmed, 재위: 1444년~1446년(1차), 1451년~1481년(2차))의 초상화를 떠올리게 하는 포지션이다.

실레이만 1세(I.Süleyman, 재위: 1520년~1566년)의 초상화(톱카프 궁전 박물관: Topkapı Sarayı Müzesi Kütüphanesi H.2134 y.8)는 특이하게도 어딘가를 산책하는 다소 피곤해 보이고 늙은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힘과 권력을 강조하는 일반적인 왕의 초상화와는 다른 형식이다.

셀림 2세의 초상화(사드렛딘 아아 한 컬렉션, 톱카프 궁전 박물관, 로스엔젤레스 카운티 미

술판, Sadreddin Ağa Han Koleksiyonu, Topkapı Sarayı Müzesi Kütüphanesi H.2134 y.3, Los Angeles County Museum of Art M. 85.237.70)의 경우 과녁을 향해 활을 쏘는 모습을 담았다.

이외에도 니가리는 프랑스 왕 프랑수아 1세(François I, 재위: 1515년~1547년)와 신성 로마 제국 카를 5세(Karl V, 재위: 1530년~1556년)의 초상화(보스컨 새클러 박물관, Boston Sackler Museum 85.214a-b)의 초상화를 그렸다.

1572년 생을 마감한 그는 잘 무함마드 파샤 모스크(Zal Mahmud Paşa camii) 인근에 묻혔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하이다르 레이스

● 다국어 표기 Nigari(튀르키예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rl.kr/et8a4b>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1/19/Suleiman_I._after_1560.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Bağcı. Serpil.; Filiz Çağman; Günsel Renda; Zeren Tanındı, Osmanlı resim sanatı, Ankara : Kültür ve Turizm Bakanlığı, 2012.

Mahir, Banu. Osmanlı minyatür sanatı, İstanbul: Kabcacı Yayınevi, 2005.

I A146 | 니사

● 시기 기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투르크메니스탄 ● 유형 지리 ● 유형 소분류1 지명 ● 유형 소분류2 도시
● 집필자 박현도 ● 라틴 문자 Nisa

니사(Nisa)는 투르크메니스탄의 수도 아슈가바트에서 남서쪽으로 12km 떨어져 있는 고대 도시이다. 코페트다그(Kopet Dag) 산 인근 지역으로, 행정 구역상 아할 빌라예트(Akhal Vilayet) 내 루하바드 에트랍(Etrap of Rukhabad)의 바기르(Bagyr)에 있다. 고대 파르티아 제국의 창시자 아르샤크(Arshak, Arsakes, 재위: B.C. 247년~B.C. 217년)가 건설한 최초의 수도로 알려져 있다. 미트리다테스(Mithridates, 파르티아어로는 Mithrdat, 재위: B.C. 171년~B.C. 138년) 왕은 도시 이름을 미트라닷키르트(Mithradatkirt)로 바꾸었다.



니사의 파르티아 성벽 유적
Source: <https://whc.unesco.org/>

1930년부터 시작된 유적 발굴 결과에 따르면 니사는 고(古)니사와 신(新)니사로 나뉜다. 고(古)니사는 그 면적이 약 14헥타르로, 파르티아 왕이 머문 궁전 시설이다. 유적 발굴은 주로 이 지역에서 이루어졌다. 신(新)니사는 고니사보다 다소 큰 18헥타르로, 주민들이 살던 고대 도시이다. 이 도시는 기원전 1세기 지진으로 파괴되었다. 651년 아랍에 복속되어 통상 무역 중개 도시로 명맥을 유지했으나, 몽골 침략으로 파괴되었다. 2007년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지정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고니사, 신니사, 니싸
- 다국어 표기 Gadymy Nusaý(투르크멘어), Nisa(튀르키예어), Niso(우즈베크어), Nisa(아제르바이잔어), Ниса(카자흐어)
- 연관 검색어 파르티아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hc.unesco.org/en/list/1242/>
- 참고문헌(오프라인) Invernizzi, Antonio. "Nisa." Encyclopaedia Iranica. Invernizzi, Antonio. "Parthian Nisa: New Lines of Research." Iran & Caucasus 1 1997: pp.107~119.
Government of Turkmenistan. The Parthian Fortresses of Nisa. December 2005.

I A147 | 니샤푸르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이란 ● 유형 지리 ● 유형 소분류1 지명 ● 유형 소분류2 도시
- 집필자 우덕찬 ● 라틴 문자 Nishapur

니샤푸르(페르시아어: نیشابور)는 고대 페르시아어로는 ‘샤푸르의 도시’란 의미를 갖고 있다. 이란 동부의 도시로, 예로부터 교통의 요지로 알려졌다. 이슬람 시대에는 많은 건물이 세워져 종교, 학예, 산업의 중심지로 변영했다. 니샤푸르는 다힐 시대(822년~873년)에는 수도였으며, 시파르 시대(867년~908년), 사만 시대(874년~1005년)에도 중요한 도시였다. 13세기 초 몽골군의 공격을 받아 큰 타격을 입었고 1267년에는 대지진으로 많은 건물이 붕괴되고 폐허가 됐다.

1936년 미국 고고학자들이 유적 조사를 시작하여 9세기~13세기 건축물과 요지(窯址) 등 유구가 발굴됐다. 특히 많은 도기가 출토되어 니샤푸르 도기는 전기 이슬람 도기를 연구하는 귀중한 자료가 되었으며, 벽화는 사산 조와 중앙아시아 양식과도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발굴된 도시 유적으로는 6제곱킬로미터의 시가를 에워싼 성벽 잔해와 수많은 마드라사(이슬람 신학교)와 마스지드(이슬람 사원), 그리고 대형 도서관 등이 있다. 그밖에 이곳에서 발굴된 다량의 중국 도자기 유물은 멀리 떨어진 중국과의 활발했던 교역상을 보여준다.

신라 고승 혜초(慧超)는 8세기 전반(726년경) 이슬람화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무렵 이곳을 다녀와서 귀중한 현지 견문을 『왕오천축국전(往五天竺國傳)』에 남겼다. 이 여행기에 기록된 지리적 방위나 이곳 사회에 관한 정확한 기술 등을 고려할 때, 혜초가 실제로 니샤푸르까지 다녀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니샤푸르는 혜초 서역 기행의 서단(西端)이었다.

페르시아의 시인, 천문학·수학·의학·과학자였던 오마르 하이얌이 바로 니샤푸르에서 태어났다. 그는 26세 때 셀주크 왕조의 술탄, 잘라르 알딘 말리크샤의 궁정에 등용되었다. 많은 과학서를 비롯해서 마리키력 또는 잘라르력이라고 불리는 정확한 달력을 남겼다. 이란 신년(노울즈)의 역사를 기록한 『신춘의 서』도 그의 저작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의 루바이야트(사행시집)는 19세기 말에 영국의 시인 E. 피츠제럴드의 번역에 의해서 전 세계에 알려졌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니샤푸르



이란 니샤푸르에 있는 사원

- 다국어 표기 نیشاپور (페르시아어), Nishapur (영어)
- 연관 검색어 마드라사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zXN6JpEFV0>
<https://en.wikipedia.org/wiki/Nishapur>
- 참고문헌(오프라인) Durand-Guédy, David, Cities of Medieval Iran. Brill. 2020.
Wilkinson, Charles K., Nishapur: pottery of the early Islamic period. New York: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1973.

I A148 | 니샨즈

● 시기 A.D. 1000년 ~ A.D. 18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직위 ● 유형 소분류2
● 집필자 이은정 ● 라틴 문자 Nişancı

니샨즈는 오스만 제국에서 술탄의 투으라를 담당하는 관료였다. 술탄의 투으라는 술탄을 대표하여 사용하는 심벌을 말하는데, 이전의 셀주크 제국이나 맘루크 술탄국에서도 사용되었고 당시 그것을 담당하는 관료는 니샨즈 혹은 테브키(tevki')라고 불렸다. 니샨즈는 재무장관에 해당하는 데프테르다르에 필적하는 지위를 가졌고, 데프테르다르에서 승진하여 니샨즈가 된 사례들도 있었는데, 이 두 직책 중 어느 것이 더 상위였는지는 의전상 불분명하여 경우에 따라 개인적인 경력이 더 큰 사람을 우위에 두었다는 기록이 있다.

니샨즈는 최고 각료회의(Divan-ı Hümayun)의 일원으로, 국가의 기둥(erkan-ı devlet)이라 불리는 고위 관료 중에 들었고, 그가 수행한 역할은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달랐다. 16세기까지 그는 투으라를 담당하는 것 이외에 세속법 카눈을 잘 알고 있어야 했고 입법 제안 역할도 갖고 있어서, 서기 관료들의 우두머리였으며 카눈의 무프티라고 불리기도 했으니, 이는 올라마 관료의 최고직인 셰이헨 이슬람이 무프티인 것에 빗대어 말한 것이다.

법전(kanunname)의 텍스트는 그의 지휘하에 준비되었고, 칙령에 투으라를 그려 넣기 전에 문건을 검토하고 승인하는 업무를 담당했으므로 행정상의 영향력이 매우 컸다. 그는 또한 군 장교에게 티마르(봉토)로 분배되는 토지를 등록한 타흐리르 데프테리를 검토하는 중책도 맡고 있었다. 니샨즈의 아들은 다른 고위 관료의 아들들처럼 뮈테페르리가 부대에 들어갈 수 있었다. 17세기 이후에는 카눈의 중요성이 감소되면서 니샨즈의 권위와 영향이 줄어들었고, 서기 관료들의 우두머리는 이제 니샨즈가 아니라 레이실컷타브(re'isülküttab, 서기장)가 갖게 되었고, 니샨즈는 그저 문서에 투으라를 덧붙이는 일만 하게 되었다. 1836년부터는 투으라를 그리는 일도 다른 관료(defter emini)가 하게 되었는데 이때 이후 니샨즈가 완전히 없어졌는지는 알 수 없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니시안즈, 테브키

● 다국어 표기 Nişancı(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투오라

● 참고문헌(오프라인) Franz Babinger, «Nishandji,» Encyclopaedia of Islam (Brill) 2nd edit Vol. 8 1995 p. 62
Erhan Afyoncu, “Nişancı,” TDV İslam Ansiklopedisi Vol. 33 2007, pp.156~158.

I A149 | 니야 유적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동아시아 ● 나라 중국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유적 ● 유형 소분류2 무덤
● 집필자 김재윤 ● 라틴 문자 Niya

니야 유적은 중국 신강성 호탄지구(和田地區) 민평현(民豐縣) 타클라마칸 사막의 남쪽 니야 강의 하류에 위치한다. 이 유적에서는 불탑, 그 주변의 행정관서, 광장, 대형가옥 등이 있는 취락 구역과 무덤 구역이 분리되어 발견되었다. 유적은 영국인 마크 오렐 스타인(Mark Aurel Stein)이 1901년에 처음 발견하고 4번에 걸쳐서 조사했다. 그 뒤에 무덤군은 중국 학자가 2기를 발굴하고, 뒤에 여러 차례 발굴조사하여 수십 기의 무덤을 발굴했다. 특히 니야 유적의 불탑에서 서북쪽으로 떨어진 곳에서 무덤군이 발굴되었는데 배 모양의 통나무 관이 분포하고 있어서 학계의 관심을 많이 받았다. 그외에도 진주, 직물, 화폐 등의 유물이 대량으로 출토되었다. 그중에서 포플러나무로 만들어진 배 모양 통나무관에서는 시신 1구가 매우 좋은 상태로 발견되었다.

1995년에는 니야 취락 유적 구역의 북쪽에서 무덤 16기가 발굴되었다. 구덩이를 파고 만든 무덤방에 사퇴상식(四腿箱式) 목관과 배 모양 목관이 있다. 사퇴상식 목관에는 부부 합장으로 시체 보존 상태가 좋고 복장이 화려하다. 특히 M3호와 M8호는 그 주인이 왕 혹은 귀족으로 추정된다. 실크로 된 이불, 상의, 바지, 도포, 머리끈뿐만 아니라 함께 부장된 유물이 매우 화려하다. 그중에는 높은 기술 수준을 보여주는 문자가 자수로 발견됐는데, 팔 보호대에 자수로 놓인 ‘오송출동방리중국(五星出東方利中國錦)’이라는 문자는 중국이 서역에 미친 영향력을 보여주는 상징물로 보인다. 1995년 중국의 10대 발굴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유적은 전한(前漢) 시기 정절국의 무덤으로 추정된다. 고대 실크 로드에서 만들어진 유적 중 하나이며, 이 지역이 한때

교통의 요충지로 번성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니야 무덤 유적, 니야

● 다국어 표기 尼雅(중국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新疆維吾爾自治區文物局 編 2011, 『新疆維吾爾自治區第三次全國文物普查成果 集成-和田地區卷』, 北京: 科學出版社, p. 14.

新疆維吾爾自治區文物事業管理局 外 1999, 『新疆文物古迹大觀』, 烏魯木齊: 新疆美術攝影出版社, p. 52.

I A150 | 니자미 갠재비

● 시기 A.D. 1000년~A.D. 15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아제르바이잔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 1 인물 ● 유형 소분류 2 학자
● 집필자 오은경 ● 라틴 문자 Nizamiy Ganjaviy

니자미 갠재비(Abdumhammad Ilyas ibn Yusuf Nizamiy Ganjaviy, Shayh Nizomiy; 1141년~1209년)는 사상가이자 시인이다. 그는 수학, 점성술, 논리, 철학, 지리학, 의학, 자연 과학, 윤리 과학 등 여러 분야의 과학을 공부했다. 그의 시는 주로 페르시아어로 창작됐으며, 관대함과 신비주의 수피 이론을 담았다. 투르크계 민족을 찬양하는 내용을 많이 썼다. 그는 당시 통치자들을 위한 헌시로 작품을 바치기는 했으나 일생은 자신의 고향 마을에서 조용히 보냈다.

니자미는 동양 문학의 가장 독특한 연작시 형태의 시집 『함사(Xamsa)』를 완성한 것으로 유명하다. 『함사(Xamsa)』는 그의 다섯 개 거작 「마흐자눌 아스로르(Mahzanul-asror)」, 「후스라브와 쉬린(Husrav va Shirin)」, 「레이라와 마즈눈(Layli va Majnun)」, 「알렉산더 대왕전(Iskandarnoma)」과 같은 연작시들을 종합한 시집이다.

니자미는 이 시집을 필두로 함사 장르를 창시했다. 이후 후스라브 데흐라비이(Xusrav Dehnaviy), 압두라흐먼 저미이(Abdurraxmon Jomiy), 알리셰르 나보이이(Alisher Navoiy) 등이 유사한 형태로 함사 장르 창작을 이어나갔다.

니자미는 자신이 『함사』를 창작하는 데 피르다브시이(Firdavsiy)의 『샤흐노마(Shoxnona)』



니자미 깬재비 동상(아제르바이잔)

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니자미 작품은 많은 동양 고전 시인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그는 20,000 행(바이트) 정도 되는 긴 고전 디반(devon)을 창작했다. 버부르(Bobur)는 『아루즈(Aruz)』라는 작품에서 니자미가 자신의 스승 시인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있는 니자미(Nizami) 국립 사범 대학은 시인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것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니자미 간자비, 니자미 갠자비
- 다국어 표기 نزامى گنجوى (페르시아어), Nizami Ganjavi (영어), Nizomiy Ganjaviy (우즈베크어), Nizami Gencəvi (아제르바이잔어)
- 연관 검색어 함사, 알리셰르 나버이이, 간자, 겐제, 함사(Xamsa), 버부르(Bobur),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 참고문헌(오프라인) Низомий шеърятидан. Т., МК бирлашган нашриёти, 1982.
Ш Инжулар уммони. Т, Гафур Гулом номидаги Адабиёт ва санъат нашриёти, 1989.
Е.Э.Бертельс. Низами и Физули. М., “Восточная литература”, 1962
Ш С.Эркинов, М. Ганихонов. Низомий Ганжавий. Т., “Фан”, 1992.

I A151 | 니자미야

- 시기 A.D. 1000년 ~ A.D. 15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이라크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기관
- 유형 소분류2 교육 기관
- 집필자 이수정 ● 라틴 문자 Nizamiyyah / Nezamiyeh

니자미야는 11세기 셀주크 조 재상이었던 니잠 알 물크(Nizam al-Mulk)가 설립한 교육 기관이다. 수니파 이슬람 세계에서 처음으로 설립된 고등 교육 기관으로 이슬람 종교 교육을 담당했다. 후대 이슬람학을 가르치는 마드라사와 이슬람 종교 학교의 모태가 되었다.

시아파 무슬림이 건설하고 이집트 지역을 중심으로 번영했던 파티마 조(Fatimid Dynasty)에서는 이미 10세기에 알-아즈하르(Al-Azhar)라는 명칭을 가진 고등 교육 기관을 설립하고 시아파 이슬람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했다. 알-아즈하르도 현재는 수니파 무슬림이 다수인 교육 기관으로 변화했으나, 니잠 알 물크가 생존했을 당시 수니 무슬림을 위한 독립 고등 교육 기관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니잠 알 물크는 조직화된 고등 교육 기관을 설립했다. 파티마 조를 지배하던 시아파 무슬림 계파인 이스마일파(Ismailis)의 영향력 견제를 위해 니잠 알 물크가 교육 기관 설립을 주도했다고 알려져 있다. 니잠 알 물크는 고등 교육 기관을 세우고, 자신의 이름을 본 따 니자미야라고 명명했다. 기관 운영 비용은 왕실과 엘리트 지배 계층의 후원을 받았다.

1065년, 이라크 바그다드에 위치했던 니자미야가 가장 유명하며, 바그다드 니자미야의 교수로 당대 저명한 철학자이자 이슬람학자인 알 가잘리(Al-Ghazali)가 임명되었다. 바그다드의 니자미야 이외에도 니샤푸르, 아몰, 발흐, 헤라트, 이스파한 등에 니자미야가 추가로 설립되었다. 니자미야의 교과 과정은 이슬람학, 샤리아, 아랍어 문학, 역사, 수학, 물리학, 음악 등이었다. 학교에서 사용하던 언어는 아랍어를 비롯하여 페르시아어 및 투르크어가 있었고, 대다수의 교수와 학생들이 2개 이상의 언어를 구사하며 민족 간 교류와 학문 교류를 활발히 진행했다. 이슬람 세계에서 발달된 학문뿐만 아니라 그리스 및 로마에서 전래된 학문도 수학하여 발전시켰다.

바그다드 니자미야는 무상 교육을 실시하며 중세에서 가장 큰 대학으로 간주되었다. 1092년 니잠 알 물크가 사망하자, 정치 싸움에서 약세를 보인 알-가잘리 역시 교수 자리에서 은퇴하고 니자미야를 떠났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알-가잘리가 은퇴할 때 니자미야내 학생 수가 3,000명에 달했다.

1258년 몽골이 바그다드를 침략했을 때, 학교 대부분이 파괴되었으나 도서관은 보존되었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도서관에는 1만 권 이상의 장서가 존재했다고 전해진다. 15세기에 이르러 학교는 폐쇄되었고, 현재 학교가 있던 부지에는 시장이 들어서 있다.

니자미야 출신 유명 인사로는 이슬람학자 및 율라마(법학자)가 많다. 쉐이크 알 이슬람 아브 이샤끄 알 쉬라지(Sheikh al-Islam Abu Ishaq al-Shiraza), 아브 나스르 이븐 알-사바그(Abu Nasibn al-Sabbagh), 아브 알-까심 다부시(Abu al-Qasim Dabbousi) 등이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니자미야, 니자미야 마드라싸, 니자미야 학교
- 다국어 표기 نظامیه (이란어), النظامية (아랍어)
- 연관 검색어 셀주크 조, 니잠 알 물크, 수니, 마드라사
- 참고문헌(오프라인) Encyclopedia of Islam. “Nizamiyyah”

I A152 | 니잠 알 물크

- 시기 A.D. 1000년 ~ A.D. 1500년 ● 지역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 나라 이라크, 이란,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재상
- 집필자 이은정, 우덕찬 ● 라틴 문자 Nizam al Mulk

니잠 알 물크(Nizam al Mulk)는 셀주크 제국의 2대 군주 알프 아르슬란과 3대 군주 말리크샤 시대의 명재상이었고, 원래 이름은 아부 알리 알 하산 이븐 알리 이븐 이스학 알 투시였다. 그는 1018년에 가즈니 왕조의 세무 관료인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 1092년에 암살되었다.

니잠 알 물크는 그의 아버지처럼 가즈니 왕조의 관직을 얻었으나 3년~4년 내에 그만두고 셀주크 조의 관료가 되었으니, 처음에는 발흐에서 차오르 벡 휘하의 장군을 섬기다가 나중에 마르브에서 차오르 벡의 본부에서 일하게 되었으며, 이 당시 그는 차오르 벡의 아들이었던 알프 아르슬란을 섬기게 되어 그에게 인정받았다. 차오르 벡이 죽은 1059년과 토그릴 벡이 죽은 1063년 사이에 니잠 알 물크는 후라산 전체의 행정을 이미 장악하고 있었다. 1063년 알프 아르슬란이 즉위한 후 그의 세력은 더욱 커졌는데, 이에 토그릴 벡 계열의 재상 알 쿤두리가 그와 경쟁했으나 제거당하고 말았다. 그는 알프 아르슬란의 원정을 대부분 동행했고 스스로 원정을 지휘하기도 했다.

당시 그의 주요 정책은 이슬람권 밖으로 그리고 파티마 왕조에 대한 원정에 이란으로 들어온 다수의 튀르크멘 족을 동원하는 것, 술탄의 권력에 저항이 불가능하며 술탄은 전 지역을 기동성 있게 장악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시아파, 수니파를 막론하고 지방 유력자들을 술탄의 가신으로 유지하며 지방 행정에 셀주크 왕가의 성원들을 동원하는 것, 알프 아르슬란의 후사로 말리크샤를 지지하고 압바스 칼리프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등이었다.

니잠 알 물크는 1072년 알프 아르슬란이 암살되고 18세로 즉위한 말리크샤가 즉위한 후 약 20년간 실권을 쥐고 사실상의 군주 노릇을 했으며 셀주크 왕국에서 처음으로 ‘아타벡’의 칭호를 얻었다. 그래서 말리크샤의 재위 기간 내내 술탄이 니잠 알 물크에게서 벗어나 자기 주장을 하려는 노력으로 점철되어 있었다. 말리크샤의 시대에도 셀주크 조정의 정책은 대개 비슷하게 지속되었으나 니잠 알 물크는 알프 아르슬란 시대보다 셀주크 왕가 내부의 반역자들에게 훨씬 더 엄격한 대응을 했고, 압바스 칼리프와 대립하고 압바스 조의 재상 임명에 간여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재상직에 있으면서 새로운 통치 모델을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 가즈니 왕조의 모델을 충실히 따르려고 했다. 그것은 이전에 압바스 조의 바르막 재상 가문이나 부와이흐 조의 사힘 이스마일 이븐 압바드같이 이민족 통치자 밑에서 페르시아 문명과 제국 행정을 대표하는 관료의 역할이었다. 그러나 셀주크의 유목적 정치문화는 그의 페르시아적 이슬람 제국의 이상에 잘 맞지 않았고 그의 시도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그가 술탄의 조언으로 남긴 책인 『시아사트 나메』에는 그가 이루려 했지만 실패한 목표들에 대한 서술이 많이 들어 있다. 그는 많은 종교인과 시인의 후원자였으며 이스마일리와 카르마티 등 과격한 시아파 정치 집단들의 발호 가운데 수니 정통을 교육하고 장려하기 위해 많은 마드라사를 세웠던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권세가 대단했던 니잠 알 물크는 임기 말년에 가서 술탄위의 계승권자를 지정하는 문제로 테르켄 하툰이라는 왕비와 다툼이 있었고, 타지 알 물크라는 관료가 왕비의 사주를 받아 말리크샤에게 니잠 알 물크에 대한 참소를 하는 등 갈등이 고조됐다. 결국 니잠 알 물크는 1092년 10월 수피로 가장한 누군가에 의해 암살되었고 살해자는 현장에서 바로 처결되었다. 범인이 이스마일리 암살자단의 하산 사바흐가 보낸 암살자였다는 설이 널리 알려져 있으나, 많은 동시대인들은 배후에 말리크샤가 있었다고 생각했으며, 몽골 제국과 그때까지 세계의 역사를 집필한 라시드웃딘은 셀주크 조정과 암살자단이 서로 공조하여 니잠 알 물크를 죽인 것으로 보았다. 이는 라시드웃딘이 암살자단의 자료를 볼 수 있었던 최초의 역사가였음을 고려하면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니잠 알 물크 사후에도 그의 가문 출신자들은 셀주크 조정에서 약 60년간 복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니잠 알 뮐크, 니잠 알 무크, 니잠 알 뭉
- **다국어 표기** Nizamülmülk(튀르키예어), Nizamülmülk(아제르바이잔어), Nizomulmulk(우즈베크어), Низам әл-Мүлік(카자흐어)
- **연관 검색어** 가즈니 왕조, 알프 아르슬란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en.wikipedia.org/wiki/Nizam_al-Mulk
- **참고문헌(오프라인)** H. Bowen and C. E. Bosworth, «Nizam al-Mulk,» Encyclopaedia of Islam (Brill) 2nd edition, Vol. VIII 1995, pp.69~73.
Abdülkerim Özyayın, “Nizamülmülk, ” TDV İslam Ansiklopedisi, Vol. 33 2007 pp.194~196.

I A153 | 니즈니 망기르토이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유적 ● 유형 소분류2 성지
- 집필자 김재윤 ● 라틴 문자 NIJNYI MANGIRTUY

니즈니 망기르토이 유적은 부랴트 공화국 내 망기르토이 강의 하류에 위치한다. 이 유적에서는 성벽과 집의 구조물들이 발견되었는데, 이불가 성지(취락지)와 거의 유사하다. 유적에서는 흉노 토기가 대량 발견되었다.

러시아에서 흉노 유적은 주로 바이칼 지역 남쪽 자바이칼에 위치하는데, 성지 유적으로는 니즈니 망기르토이 유적, 이불가 성지, 바얀 운데르가 알려져 있다. 이불가 성지와 바얀 운데르 유적에서는 아궁이와 온돌 시설이 주거지 내에서 확인되었다. 이불가 성지와 바얀 운데르 성지에서 온돌 시설이 있는 주거지는 상당히 높은 계급 사람의 집이다.

니즈니 망기르토이 유적은 발굴을 하지는 않았으나, 이불가 성지에서 출토된 토기와 거의 유사한 토기가 채집되어서, 두 유적은 비슷한 성격으로 추정된다. 이불가 성지는 다비도바가 처음에는 중국인이 주도 세력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는 다민족이 살았던 성지로, 유목 집단인 흉노인이 주류 세력인 것으로 결론을 바꾸었다. 인류학적 연구에 의하면 이 무덤에 묻힌 사람은 흉노, 자바이칼 지역의 재지민, 중국에서 온 이민자로 구분된다고 한다. 니즈니 망기르토이 유적도 이불가 성지와 비슷한 성격의 유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니즈니 만기르투이
- 다국어 표기 Нижний Мангиртуй(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흉노
- 참고문헌(오프라인) Лбова Л. В., Хамзина Е. А. Древности Бурятии. Карта археологических памятников. - Улан-Удэ, 1999.

I A154 | 니코폴리스 십자군 전투

● 시기 A.D. 1000년 ~ A.D. 1500년 ● 지역 기타 ● 나라 불가리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사건 ● 유형 소분류2 전투
● 집필자 이은정 ● 라틴 문자 Battle of Nicopolis

니코폴리스(현 불가리아의 니코폴) 십자군은 14세기 말 바이에지드 1세(벽력왕)의 재위 기간에 오스만 군의 발칸으로의 팽창이 크게 확장되자 이를 막기 위해서 헝가리를 주축으로 하여 유럽 여러 나라에서 자원자들이 참전하여 조직된 십자군이다.

비잔티움의 헤라클리우스가 7세기 초에 세운 도시인 니코폴리스의 위치는 다뉴브강 남안이며, 이 도시는 남쪽으로는 평원, 북쪽으로는 다뉴브강, 동쪽으로는 다뉴브강에 이어지는 협곡을 면하고 있어 군사적, 상업적 요충지였다. 1389년 당시 불가리아에 속해 있던 니코폴리스는 오스만 측의 재상 찬다를르 알리 파샤에 의해 정복되었으며 그로부터 7년 후 십자군 전쟁이 여기에서 벌어지게 된 것이다. 1396년(이슬람력 798년) 니코폴리스 성채 앞에서 십자군과 오스만군 사이에서 벌어진 전투이다.

니코폴리스 십자군 결성의 배경은 14세기 말 서유럽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전쟁이 없었고, 오스만 제국이 불가리아를 장악하여 다뉴브강 이북으로 공격을 해오며 따라 헝가리가 큰 불안을 갖게 됐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가톨릭 국가들이 원정에 참여하여 영국, 프랑스, 부르고뉴, 독일, 이탈리아, 에스파냐, 폴란드, 헝가리, 왈라키아, 트란실바니아 등으로부터 약 10만 명의 군대가 모여들었고, 이에 대응해 오스만 군대는 비슷한 수의 군대를 동원했다.

바이에지드 1세는 전위의 기병을 일부러 패주하게 만들어 십자군의 기병들이 돌격하도록 유도했고, 적들이 함정에 빠졌을 때 기습 공격을 당하도록 전략을 짰다. 이 작전이 주효하여 대단히 많은 서유럽 기사들이 사망했고, 오스만 군과 많은 전투를 경험한 후위의 헝가리군은 도주했다. 십자군 측에서는 당시 바이에지드 1세가 지속하고 있던 콘스탄티노폴리스 포위로부터의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고, 자신들의 십자군은 먼저 콘스탄티노폴을 정복하고 아나톨리아 전체를 복속시킨 뒤 성지가 있는 시리아까지 진군한다는 것이 이들의 낙관적인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십자군은 여지없이 실패했고, 이슬람권에서 벽력왕 바이에지드의 정치적 위상은 더 높아졌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니카폴 십자군 전투, 니카폴리스 전투
- 다국어 표기 Niğbolu Savaşı(튀르키예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S. Atiya, «Nikbuli» Encyclopaedia of Islam (Brill) 2nd edition, Vol. 8 1995 pp.35~36.
Feridun Emecen, «Niğbolu Savaşı” TDV İslam Ansiklopedisi, Vol. 33 2007 pp.89~92.

I A155 | 니콜라이 알렉산드로비치 바시카코프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언어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학자
- 집필자 장주영 ● 라틴 문자 Nikolai Aleksandrovich Baskakov

니콜라이 알렉산드로비치 바시카코프(Nikolai Aleksandrovich Baskakov)는 1905년 3월 25일 볼로그다주(현 아르한겔스크 주)의 솔비체고츠크에서 지방 정부 관리로 있던 대가족 가정에서 태어났다. 1916년 어린 학생이었던 바시카코프는 아버지의 오랜 친구이자 러시아 외교관이었던 베쑨노프(Bessonov)와 만나게 되었는데, 그의 동부 국가들에 대한 이야기는 그의 상상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그는 튀르키예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혼자 튀르키예어 공부를 시작했다. 후일담에 의하면 이 사건은 그가 후에 투르크학을 연구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계기가 되었다.

1920년 러시아 혁명의 영향으로 그는 재학하던 김나지움(고등학교)에서 재조직된 통합 노동 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 동시에 사무원과 공중 보건 부서의 제도공으로 근무했다. 1922년 그는 김나지움을 졸업하고 그랴즈노프(Gryazov) 교육학 학교에 입학했지만 동양학자가 되고자 하는 그의 열망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결국 그는 1923년 모스크바 동양 연구소 입학 을 위해 모스크바로 왔지만, ‘아나키스트-집단주의’ 무리에 동조하는 지원서를 쓰며 러시아 공산당에 가입하게 되고, 그로 인해 그는 모스크바 동양 연구소 입학 을 거부당한다. 이후 그는 현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의 언어학 연구소에 지원을 했지만 학비를 조달하지 못하여 모스크바를 떠나 볼로그다로 돌아가 교육학 학교로 복귀한다. 1924년 그는 종교적 논쟁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볼로그다의 교육학 학교에서 퇴학당하

고, 이후 우크라이나로 도피하여 가정 교사 생활을 하며 생계를 꾸려나갔다.

1925년 바시카코프는 모스크바 주립 대학 민속학과에 입학했으며, 연구기간 동안 그는 카라칼파크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지를 여행하며 호라즘, 카라칼파크, 위구르, 키르기스, 카자흐인들의 언어, 문화 및 민속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했다.

1929년 바시카코프는 대학에서 역사, 고고학, 언어, 민속학 및 투르크 민족 문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중앙 민속 박물관에 근무하며 동시에 투르크 문헌학 교수로 임명받아 학생들을 가르쳤다.

1930년 그는 카라칼파크스탄 지역 교육부에 파견되어 카라칼파크인들의 카라칼파크 투르크어 기존 아랍 표기 체제를 라틴 문자로 대체하는 위원회의 의장을 맡았으며, 1930년부터 1931년까지 카라칼파크스탄 지역의 박물관과 과학 연구소에 근무하며 다양한 연구를 했다.

1931년 바시카코프는 모스크바로 돌아와 국가 민족 언어 연구위원회에 합류했으며, 1934년 바시카코프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문자 표기 개혁을 위한 중앙위원회 임원으로 임명되었으며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및 오이로트로 파견되어 '언어 구성' 문제에 대한 연구를 했다. 또한 바시카코프는 노가이 투르크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파견되어, 새로운 키릴 문자로 '노가이 문학 언어 창조'에 대해 연구했다.

1936년 바시카코프는 모스크바 동양학 연구소(이후 소련 언어 및 문맹 퇴치 연구소)에서 위구르어과의 부교수가 되었다. 1938년 그는 그간 연구한 많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별도의 정교수 심사 논문 없이 문헌학 박사(정교수)로 임명되었다.

1939년~1940년 그는 카잔, 우파, 타슈켄트, 알마티 등을 방면하며 아랍문자로 표기되었던 투



올라가세프 공원(Gorno-Altaysk)
Source: <https://www.tripadvisor.com>

르크어를 키릴 문자로 전환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그는 오이로트(현 알타이산맥)로 파견되어 그곳에서 알타이 전역의 방언과 민속학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했다.

1943년 바시카코프는 다시 모스크바로 돌아와 소련 과학 아카데미의 언어 및 사고연구소(Language and Thinking of the USSR Academy of Sciences)에서 근 50년간 근무했다. 그는 리투아니아, 북부 캅카스, 투르크메니스탄, 하카시아 등을 방문하여 새로운 과학 기관 설립에 기여했다.

1989년 그는 교수직에서 은퇴하지만 계속해서 연구를 했으며 우즈베크 학술 연구소의 카라칼파크 분야에서의 수석 학자로 남았다. 또한 그는 영국 왕립 아시아학회, 튀르키예 언어학회, 국제 우랄알타이학회(함부르크), 폴란드 동양학과 조직, 헝가리 케리시초마 동양학회, 핀-우고르 학회(헬싱키)의 공로 회원이었다.

은퇴와 동시에 그가 그간 연구하고 수집했던 많은 자료들이 출판을 통해 세상으로 나올 수 있었으며, 그로 인해 소수 투르크 민족들의 언어 및 문화, 민속 연구가 진행될 수 있었다. 더불어 바시카코프는 제대로 연구되지 않고 잘 알려지지 않은 주요 투르크 언어들에 대한 사전 및 문법 책을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바시카코프의 투르크 언어 분류는 『Introduction to study of Türkiç languages(1962, 1969)』의 이름으로 두 번 출판되었는데, 그의 연구는 당시 알려진 투르크 민족의 역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구축되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그는 1996년 8월 26일 세상을 떠났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니콜라이 바시카코브, 니콜라이 바시카코프
- 다국어 표기 Николай Александрович Баскаков(러시아어), Nikolai Aleksandrovich Baskakov(영어)
- 연관 검색어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슈켄트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en/7/7e/Nikolai_Baskakov.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Tenishev E.R. N.A.Baskakov. Biography of a scholar from the collection for 90-year anniversary, 1995.
Stammerjohann, H. (Ed.). 2009. Lexicon Grammaticorum: A bio-bibliographical companion to the history of linguistics. Walter de Gruyter.

I A156 | 니콜라이 올라가셰프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알타이공화국)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구비문학
- 유형 소분류2 인물
- 집필자 오은경 ● 라틴 문자 Nikolay Ulagashev

니콜라이 올라가셰프(Николай Улагашевич Улагашев: 1861년-1945년)는 러시아연방 알타이공화국의 가장 대표적인 카이치(소리꾼, 명창)이다. 알타이인들이 첫번째로 꼽는 카이치이다.

그는 귀젠 족 출신 카이(영웅서사시를 후창으로 부르는 노래)의 대가로서 영웅서사시, 설화, 민요 연주가이다. 1930년~1940년대 올라가셰프가 부른 작품들을 채록한 것이 알타이 구비문학 작품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는 알타이 민속학 연구에 있어 중요한 인물이다.

올라가셰프는 유년시절부터 카이치의 길로 접어들었다. 그는 9세 때 당시의 카이치 크스 카슈에게 들어서 익혔던 영웅서사시 『알타이-부차이(Алтай-бучай)』를 최초로 재현해냈다. 16세에 눈이 멀었던 그는 보초노프, 오토리코프, 타드세코프, 지야마트 같은 카이치를 자신의 스승으로 모셨다. 그들에게서 노래를 들어서 익힌 후 『타를란-코오』, 『아크-비』, 『알틴 빌레크』, 『칸-솔루타이』, 『마아다이-카라』, 『칸-코클론과 칸-우누티』, 『쿠르만-타이치』, 『알릅 마나쉬』, 『이메이-알틴』과 『쉬메이-알틴』 그리고 설화 『스나루』 등 유명한 작품들을 연주했다.

올라가셰프를 발굴해낸 것은 1937년 모스크바 민속학계의 쿠치야크와 그라프이다. 올라가셰프가 가지고 있던 레퍼토리는 32편의 영웅서사시와 다수의 설화, 민요, 그리고 민중시였다. 그에게서 채록된 영웅서사시는 단행본으로 출판됐다. 그중에서 가장 대중적인 작품은 수라자코프 알타이학 연구소에서 발행한 『알타이의 천하장사들 전집(1958-2008)』에 수록되어 있다. 올라가셰프에게서 채록된 구비작품들은 중, 고교 및 대학 교재로 사용하고 있다. 그가 구연했던 『세 명의 아가씨』는 1943년과 1944년 고르노-알타이스크 민속극단이 무대에 올리기도 했다. 알타이 공화국 내에는 여러 지방에 그의 이름을 딴 거리가 생겨났고, 고르노-알타이스크에는 그의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니콜라이 올라가셰브, 니콜라이 올라가셰프
- 다국어 표기 니콜라이 올라가셰프(Николай Улагашев), Nikolay Ulagashev(영어)
- 연관 검색어 아시옥, 오잔, 카이, 카이치, 알렉세이 그리고레비치 칼킨, 그리고리 칼킨
- 멀티미디어 링크 <http://arctic-megapedia.com/wp-content/uploads/2020/12/Image179490504.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오은경·김근식 2016, 「알타이 투르크족의 카이치 전통 연구」, 『한국중동학회논총』, 37(2), p. 15.
 Фольклорные материалы архива Института алтаистики им. С.С. Суразаковау Папка Номер 33.
 Фольклорные материалы архива Института Алтайстики им.С.С.Суразакова. Папка № 241. а(4)
 Фольклорные материалы архива Института Алтайстики им.С.С.Суразакова. Папка № 347.(1).
 Калкин Алексей Григорьевич (5.04.1925, с.Паспарта -- 18.08.1998, Горно- Алтайск).
 Конунов А.А., М.А.Демчинова, Алтайдынг Кайчылары, НИИ Алтайстики им. Суразакова, Г-А.2010. с.16~17.

I A157 | 니콜라이 표도로비치 카타노프

● 시기 A. D. 1800년~현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학자
 ● 집필자 김근식 ● 라틴 문자 Nikolai Katanov

니콜라이 표도로비치 카타노프(Николай Катанов, 1862년~1922년)는 러시아 카잔 제국 대학의 교수로 투르크학, 비교언어학, 민속학, 인류학 학자이며 사회 활동가이기도 하다. 그는 하카스 민족 출신의 첫 번째 현대 학자로 알려져 있다.

프레드리히 빌헬름 라들로프(B. Радлов)의 권유로 시베리아와 동투르크스탄 탐사에 참여해 1889년~1892년에 하카스(Хакасия), 투바(Тува), 세미레치예(Семиречье), 타르바가타이(Тарбагатай), 신장 지역의 민속과 언어를 수집, 조사했다. 카타노프는 벨기에 루벤에 위치한 문학 협회(Societe des sciences et lettres)와 부다페스트에 위치한 헝가리 민속학회(Ungarische ethnographische Gesellschaft), 러시아 고고학학회 등 많은 국내외 학술 단체에서 활동했으며, 금주 운동 같은 사회 활동에도 참여했다. 그의 저술들은 지금까지도 출판되고 연구되고 있다.

그의 학술 활동의 핵심은 민속학과 투르크어 비교 연구인데 빌헬름 라들로프와 함께 언어 연

구에서 비교 역사 방법을 확립한 학자로 인정받고 있다. 카타노프가 학창 시절에 작업한 표제어를 담은 사카이-러시아 축약 사전은 1953년과 2006년 하카스-러시아어 사전의 기초로 사용되었다. 민속학자로서 카타노프는 하카스, 티바, 카라가스, 사르트, 위구르 등 여러 남시베리아 민족들의 구비 문학을 수집하고 목록화했다. 주요 저작으로는 「우란하이iski 언어 연구 사례 (Опыт исследования урянхайского языка, 1903)」, 「우란하이, 아바칸 타타르, 카라가스 민족어(1907)」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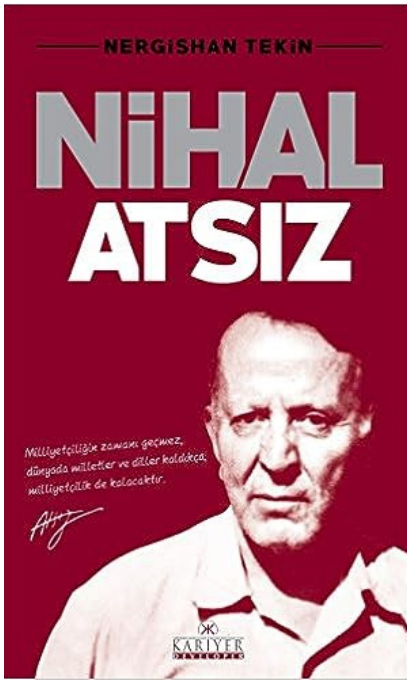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니콜라이 카타노프, 니콜라이 표도로비치 카타노브
- 다국어 표기 Николай Катанов(러시아어), Nikolay Katanov(아제르바이잔어)
- 연관 검색어 프레드리히 빌헬름 라들로프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rl.kr/tn25ed>
- 참고문헌(오프라인) Энциклопедия, Большая Советская. Т.11. “Гл. Ред. АМ Прохоров. Изд. 3-е.” М.: Сов. Энцикл 21 1969. 522.

I A158 | 니할 앓스즈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Metin Turan) ● 라틴 문자 Nihal Atsız

휴세인 니할 앓스즈(Hüseyin Nihal Atsız)는 튀르키예 정치사에서 중요한 계몽사상가이자 문인이다. 그는 외메르 세이펫틴(Ömer Seyfettin), 함둘라 수피(Hamdullah Suphi), 지야 괴칼프(Ziya Gökalp) 등과 유사하게 튀르키예 민족주의를 전파하기 위한 생각을 글로 써서 알리고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갔다. 그는 동시에 문학 작품에서도 튀르키예 민족주의를 강력하게 드러낸 문인 중 한 명이다.

1905년 1월 12일 이스탄불에서 태어난 니할 앓스즈는 교육도 이스탄불에서 받았다. 먼저 프랑스와 독일 학교에서 학업을 시작했고 이스탄불 술탄니시(현 갈라타사라이 고등학교)에서 마



Nergishan Tekin의 니할 앓스즈 평전 표지

쳤다. 1922년에 군 의과 대학에 입학한 앓스즈는 정치 싸움에 가담하여 군대 기강을 흠뜨렸다는 이유로 3학년 때 퇴학 처분을 당하고 말았다. 군 의과 대학에서 쫓겨나자 다른 일을 찾아 나선 니할 앓스즈는 먼저 카바타쉬 고등학교에서 임시 교사로 일했고 이후 배 선장 일도 했다. 역사와 문학에 관한 관심은 앓스즈를 이스탄불 대학교 문과대 문학과로 이끌었고 1926년에 진학하게 된다. 문과대에 지원할 때 사범대에도 지원하여 1927년에는 문학과를, 1930년에는 사범대를 졸업했다.

학교를 다니면서 시작된 학문 연구를 통해 니할 앓스즈는 문학과 학부생일 때 친구 아흐메트 나지와 함께 「아나톨리아 튀르크인의 지명」이라는 글을 썼고 당시 유명한 <튀르크학 저널Türkiyat Mecmuası>에 이를 실었다. 이를 눈여겨본 푸아트 쿠피르뤼(Fuat Köprülü) 교수는 자신의 조교로 앓스즈를 불러들였다.

자기 생각을 좀 더 자유롭게 펼치고 특히 역사와 문학 분야에서 했던 연구를 여론에 공유할 목적으로 1931년 <앓스즈 저널(Atsız Mecmua)>을 출간했지만, 명맥을 계속 이어나가지는 못했다.

부당함을 참지 않고 즉각 반발하는 성격을 가진 앓스즈가 시위 운동에 합류하자 조교 생활에 지장을 줬다. 그는 1932년에 처음으로 치러진 튀르키예 역사 모임에 참가했는데 튀르키예 역사 협회 사무총장 레쉬트 갈립(Reşit Galip)과 제키 웰리디 토간(Zeki Velidi Togan)이 앓스즈의 학문적 역량을 무시하자 페르테프 나일리 보라타프(Pertev Naili Boratav) 외 17명의 동료와 함께 항의하는 전보를 협회에 보냈다. 그 결과 이들은 블랙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가게 됐다.

앓스즈는 대학에서 조교를 더 할 수 없게 되자 교직 생활로 다시 돌아갔고 여러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했다. <앓스즈 저널(Atsız Mecmua)>을 폐간하고, <오르쿰(Orkun Dergisi, 1933)>을 개간했다.

1940년대 <오르쿰>은 정부를 비판했는데 이로 인해 공적인 업무를 할 수 없게 됐고, 기소를

당해 처벌을 받기도 했다. 1940년대에 본격화한 세계적 냉전은 튀르키예에도 영향을 끼쳤다. 튀르키예 국내에서도 사상과 이념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한쪽은 공산주의 세계관, 다른 한쪽은 민족주의 세계관이 서로 대립했다. 이때 민족주의는 투르크계 민족들의 통합에 대한 이상을 갖는 사람들의 이데올로기였다. 휴세인 니할 아츠즈는 그들 편에 섰다. 그는 공산주의와 이슬람 모두에 극렬하게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소설과 시에서 아츠즈는 특히 돌궐 시대 신화와 전설 그리고 서사시를 작품의 소재로 활용했다. 아츠즈는 그의 소설에서 퀴르샤트(Kürşat), 메테(Mete), 툴루 한(Tulu Han), 알프 알스란(Alp Arslan), 이스테미 카안(İstemi Kağan), 테뭉친(Temüçin), 부르카이 대위(Yüzbaşı Burkay), 마츠오마-쿤(Açığma-Kün) 등 영웅이나 역사적인 인물을 등장시켰다. 이들을 아츠즈가 현대 소설로 작품화함으로써 그들은 민족주의자들이 선호하는 인물이 되었다.

그의 대표적인 저서는 『읽기 쉬운 튀르키예어 문법사전(Divan-ı Türk-I Basit, Gramer ve Lugati, 1930)』, 『역사 소설 문학사(Türk Edebiyatı Tarihi, 1940)』, 『아부쟁이의 밤(Dalkavuklar Gecesi, 1941)』, 『여정의 끝(시 전집)(Yolların Sonu, Bütün Şiirleri, 1946)』, 『보즈쿠르트의 죽음(Bozkurtların Ölümü, 1946)』, 『보즈쿠르트의 부활(Bozkurtlar Diriliyor, 1949)』, 『투르크인의 이상(Türk Ülküsü, 1956)』, 『역사 소설사에서 난관(Türk Tarihinde Meseleler, 1966)』, 『아시옥파샤올루의 역사(Aşıkpaşaoğlu Tarihi, 1970)』, 『영혼(Ruh Adam, 1972)』, 『오루츠 베의 역사(Oruç Beğ Tarihi, 1973)』 등이다.

작품에서 루흐 아담(Ruh Adam), 셀림 푸사트(Selim Pusat)라는 애칭을 사용하기도 했던 휴세인 니할 아츠즈는 1975년 1월 11일 이스탄불 자택에서 눈을 감았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니할 아츠즈
- 다국어 표기 NIHAL ATSIZ(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이스탄불, 푸아트 쿠피릴뤼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file.daktilo.com/themes/enerjik/assets/img/mask-16-9.png>
- 참고문헌(오프라인) Bahar İlhan, *Vaktiyle Bir Atsız Varmış*, Kamer Yayınları, İstanbul, 2018.
Özdemir Cihan, *Atsız Bey*, Ötüken Yayınevi, İstanbul, 2007.
Yıldırım Hayri, *Son Türkcü Atsız*, Togan Yayınları, İstanbul, 2013.

I A159 | 다게스탄 공화국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지리 ● 유형 소분류1 지명 ● 유형 소분류2 국가
- 집필자 김근식 ● 라틴 문자 Dagestan

다게스탄 공화국은 러시아 연방의 구성원 중 하나이다. 러시아의 유럽 지역 남부에 위치해 있고, 동쪽에 카스피해가 있다. 러시아의 남연방 관구에 속하며 면적은 50,300제곱킬로미터, 인구는 2020년 기준으로 3,110,353명이다. 언어는 러시아어를 공용어로 사용하지만, 다민족 국가이기에 아바르어, 아굴어, 아제르바이잔어, 쿠미어, 노가이어, 체첸어 등이 사용된다.

국가 체계는 러시아 연방 헌법과 2003 다게스탄 공화국 헌법에 의해 정의되며, 최고 수반은 대통령으로 러시아 연방 대통령의 지명으로 정해진다. 임기는 러시아 연방 대통령과 같은 4년이다. 의회는 4년 임기의 의원 72명을 다수 대표제의 선거 체계로 선출한다.

다게스탄은 동부 유럽 평원의 남쪽 끝부분과 대캅카스 산맥 북동쪽 사면에 위치해 있다. 강과 호수를 비롯한 수자원이 풍부하며 카스피해 접경 해안 지대는 홍수가 빈번하다.

기후는 온대 대륙성 기후와 가뭄 지대가 걸쳐 있다. 다게스탄에는 3가지 지형-기후 영역이 있는데, 산악권, 저산권, 평원권으로 나뉜다.

연 평균 기온은 1월에는 지대에 따라 +4도~-11도까지, 7월에는 +30도~+8도이다. 연간 강수량은 200mm~300mm, 600mm~800mm이다. 시간대는 모스크바 시간대이다.



다게스탄 공화국 엠블렘



다게스탄 공화국 국기

현재의 다게스탄 영토는 기원전 1세기~2세기에는 ‘산의 나라’라는 의미의 알바니아(Албания)로 불렸고, 조지아에서는 다게스탄을 레케티야(Лекетия), 훈데티야(Хундзетия), 디도에티야(Дидоэтия)라고 불렀다. 다게스탄이라는 명칭은 12세기부터 사용되었는데, ‘산’을 의미하는 투르크 단어 ‘다그-’와 ‘나라’, ‘땅’을 뜻하는 페르시아어 ‘스탄’이 결합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다게스탄
- 다국어 표기 Дагестан(러시아어), داغستان(아랍어), Dagestan(영어), Dağistan(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아제르바이잔어, 노가이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rl.kr/tvaymc>
- 참고문헌(온라인) Дагестан <https://bigenc.ru/geography/text/2627225>
- 참고문헌(오프라인) Большая россий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т.8, гл. ред. Ю.С. Осипов, 2007, 227~237.

I A160 | 다니쉬멘드나메

- 시기 기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서적 ● 유형 소분류2 서사시
- 집필자 장주영 ● 라틴 문자 DÂNIŞMENDNÂME

『다니쉬멘드나메』는 11세기 중부 아나톨리아에서 비잔티움에 대항해 명성을 얻은 ‘다니쉬멘드 가지(Dânişmend Gazi)’가 자신의 정복 신화를 기록한 영웅서사시이다. 다니쉬멘드나메는 ‘크사이 멜리크 다니쉬멘드’, ‘크사이 다니쉬멘드 가지’ 또는 ‘멜리크 다니쉬멘드의 서’ 등의 이름으로도 불린다.

다니쉬멘드나메는 멜리크 다니쉬멘드 가지의 탄생 및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된다. 멜리크 다니쉬멘드의 본명은 멜리크 아흐메드이며, 그는 말라티야에서 태어났다. 그는 바탈 가지(Battal Gazi)의 손자인 술탄 투라산(Sultan Turasan)과 친구가 되며, 그에게 전투 기술을 비롯해 이슬람학을 배운다. 그는 특출난 학습 능력으로 인해 ‘다니쉬멘드(Dânişmend(지식이 풍부한, 박식한))’라는 별명을 얻게 된다. 그는 꿈속에서 조부였던 바탈 가지의 지시를 받아 군대

를 이끌고 그리스인, 아르메니아인, 조지아인, 십자군을 상대로 정복 전쟁을 벌여, 승전을 거듭한다.

다니쉬멘드는 일반적인 투르크 영웅서사시와는 달리 샤머니즘적 요소보다는 이슬람적 세계관, 특히 수니파 이데올로기가 깊이 반영된다는 특징을 가진다. 대표적인 예로, 등장인물들 모두 규칙적으로 매일 다섯 번의 기도를 하고 술을 절대 마시지 않는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다니쉬멘나메, 다니슈멘나메, 크사이 멜리크 다니쉬멘드, 크사이 다니쉬멘드 가지, 멜리크 다니쉬멘드의 서

● 다국어 표기 DÂNIŞMENDNÂME(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다니쉬멘드 왕국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tarihvakti.com/wp-content/uploads/2019/11/danismendname-1-768x474.jpg>

● 참고문헌(온라인) <https://islamansiklopedisi.org.tr/danismendname>

● 참고문헌(오프라인) Şükrü Akkaya, Kitâb-ı Melik Dânişmend Gazi: Eine Türkische Historischer Heldenroman aus der Mitte des 13. Jahrhunderts, Ankara 1954.

a.mlf., “Kitâb-ı Melik Dânişmend Gazi: Dânişmendnâme”, DTCFD, VIII 1950, s. 131~144.

I A161 | 다니쉬멘드 왕국

● 시기 A.D. 1000년~A.D. 15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국가 ● 유형 소분류2 왕조
● 집필자 이주연 ● 라틴 문자 Danishmendids

다니쉬멘드 왕국은 11세기 말~12세기 말 사이에 아나톨리아반도 중부에 위치했던 투르크멘 왕조이다. 이 왕조의 시조인 아미르 다니쉬멘드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 그는 전사를 뜻하는 ‘다니쉬멘드 가지’라고 칭해지기도 하며, 그에 관한 언급이 처음으로 나타난 것은 1097년이다. 11세기 말에 셀주크의 술레이만이 1085년 사망한 이후 발생한 일련의 혼란 속에서 그는 아나톨리아의 중북부, 카파도키아 등지를 차지하고, 토크트(Tokat)와 아마시아(Amasya), 시바

스(Sivas)에 거점을 두었다. 그는 1095년~1099년 사이에 발생한 첫 번째 십자군 원정 시기에 십자군이 카파도키아에서 마주친 세력이기도 하다. 특히 1103년에는 십자군을 이끈 유럽의 영주 세력 중에 하나였던 안티오크의 보에몽을 포로로 잡기도 했으나, 그들의 공통 적인 비잔틴과 셀주크 투르크에 맞서기 위해 동맹을 하기로 하면서 그를 풀어주기로 했다. 이렇듯 그들은 중동의 세력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십자군의 적이었던 셀주크 투르크의 킬리치 아르슬란 1세와도 경쟁 관계에 있었다.

그러나 그에 관해 기록된 책 『다니쉬멘드나메(Dānišmend-nāme)』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연대기보다는 그를 영웅으로 묘사하는 구술 영웅서사시에 가깝다. 시조 아미르 다니쉬멘드의 아들 아미르 가지는 1104년에 등극했는데 이 시기에 이 왕조는 셀주크 투르크만큼 강력한 세력을 구가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래서 키프로스 북쪽 해안 일대인 실리시아(Cilicia)에 자리한 아르메니아인들이나 에데사에 자리한 프랑크인들과 싸웠고, 반대편으로는 카이세리와 앙카라까지 진출하여 이 지역을 차지하기도 했다. 그는 무슬림으로 그리스도교도들과 최전선에서 맞서 싸웠으므로, 당시 바그다드에 있던 압바스 칼리프 알 무스타르시드는 그에게 왕이라는 의미의 말릭(Malik)이라는 칭호를 내려주었다. 1142년경 아미르 가지의 아들 무함마드가 사망한 후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이 세력 싸움을 벌였고, 결국 이 왕국은 시바스의 야기바산(Yaghībasan), 말라티야와 엘비스탄의 이스마일, 카이세리의 줄 눈(Dhu'l-Nun)으로 나뉘어졌다. 그 후 시바스 측이 비잔틴의 힘을 업고 1158년에 카이세리 측의 줄 눈을 내쫓고 카이세리를 병합했다. 그러나 두 계열은 그 후에도 계속 갈등을 빚었고 1172년에 줄 눈은 재차 등극하기도 했으나, 1174년에 룸 셀주크 투르크에 의해 정복되었다. 한편 엘비스탄 측 역시 시바스 측과 마찬가지로 셀주크 투르크의 후원이 왕위의 계승에 크게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며, 1178년에 셀주크 투르크에 의해 병합되었고, 당시의 역사에 대해 다룬 이븐 비비에 의하면 남은 다니쉬멘드 왕가는 셀주크 투르크의 휘하로 편입되었다고 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다니쉬멘드 왕조, 다니쉬멘디레르, 다니쉬멘 왕조
- 다국어 표기 Dânişmendliler(튀르키예어), الداشمندیون(아랍어)
- 연관 검색어 다니쉬멘드나메
- 참고문헌(오프라인) C. E. Bosworth, The new Islamic dynasties – a chronological and genealogical manual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1996, pp.356~357.

Melikoff, "Danishmendids," Encyclopaedia of Islam 2 (Leiden: Brill, 1997, pp.110~111.

I A162 | 다니엘

- 시기 기타 ● 지역 기타 ● 나라 기타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이슬람 ● 유형 소분류2 인물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Daniel

다니엘은 구약 성서 다니엘서의 주인공으로 포로로서 바빌론으로 가게 된다.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궁정에서 문학과 언어를 배우며, 제왕의 꿈을 해석하고 베르샤자르의 연회에서 벽에 기록된 문자를 해석해내는 등 능력이 뛰어났다. 그런 와중에도 유대교에서 금지된 음식을 삼가고 종교적 신념을 지켰다. 그로 인해 주변의 모략을 받기도 한다. 다니엘은 왕의 예배를 거부하여 사자 우리에 던져진다. 그러나 상처가 없는 채로 구출된다. 다니엘의 지혜와 이런 구출은 하나님의 보상으로 해석된다. 다니엘은 이 세상의 권세와 하늘나라 사이에 일어날 최후의 갈등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된다.

이슬람교에서 다니엘은 코란과 하디스에서는 언급되지 않는다. 일부 이슬람 전승에서 다니엘은 예언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며 구약 성서에서 전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전한다. 이 전승에 의하면 천사에 의해 느부갓네살과 다니엘은 같은 구덩이에 처박혀졌으나, 느부갓네살은 짐승으로 변한 채로 7년간 지냈고, 후에 인간으로 돌아와 왕국을 통치했으며 느부갓네살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잘 대접해야 했다고 한다.

다니엘이 언제 어디서 사망했는지는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모술에 묻힌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는 '호자 도니요르 영묘(Xoja doniyor maqbarasi)', 즉 다니엘 영묘가 존재하는데, 이 영묘의 주인이 다니엘이라는 설과 우즈베키스탄에 이슬람을 퍼트린 쿠삼 이븐 압바스(Qutham ibn Abbas, 620년~?)의 동반자 '다니엘' 즉 동명이인의 무덤이라는 설이 있다. 이외에도 수사, 키르쿠크, 모술, 무다니아, 튀르키예, 모로코에도 각기 다니엘의 묘소로 주장하는 장소들이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다날, 도니요르, 돈요르, 던여르
- 다국어 표기 Danyal(튀르키예어), Daniel(아제르바이잔어), Hoja doniyor(우즈베크어), Даниел(카자흐어)
- 참고문헌(온라인)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28864&cid=50766&categoryId=50794>
- 참고문헌(오프라인) “ХОЖА ДОНИЁР МАҚБАРАСИ”, ЎЗБЕКИСТОН МИЛЛИЙ ЭНЦИКЛОПЕДИЯСИ ХҲАРФИ, Tashkent; Давлат илмий нашриёти, 2000, p.164.
Harman, Ömer Faruk. “DÂNYÂL”, TDV İslâm Ansiklopedisi cilt 8, İstanbul: TDV, 1993, pp.480~481.

I A163 I 다다헌 누리이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Guzal Mihrayeva ● 라틴 문자 Dadaxon Nuriy

다다헌 누리이(Dadaxon Nuriy)는 우즈베크의 사회 정치 평론가, 산문작가, 만담꾼이자 극작가이다. 그는 1943년 나망간(Namangan)에서 태어났고, 타슈켄트 국립대학교 동양학과에서 힌두어를 전공했다. 그는 함자 아카데미 극장(Hamza Academic Drama Theatre)의 화가, 특수학교에서 힌디어 교사, <굴리스턴(Guliston)>과 <굴한(Gulxan)> 잡지사의 편집자 및 우즈베크 TV(UZBEK TV) 방송 작가로 일했다.

1963년에 발표된 첫 단편소설 『저녁노래(Oqshom qo'shiqlari)』를 시작으로 『이방인(Begona, 1968)』, 『정원에서 봄(Bog'larda bahor, 1969)』, 『카슈미르로 가는 차(Mashina Kashmirga boradi, 1970~1971)』, 『천국의 기둥(Osmon ustuni, 1976)』 등을 출간했다. 그 밖에 그의 작품은 『말을 위한 작은 종(Otga qo'ng'iroq)』, 『거부(Raddiya)』, 『명령(Buyruq)』, 『프스콤 하늘의 검은 구름(Pskom osmonida qora bulutlar)』, 『도시의 바퀴(Shahar g'ildiragi)』, 『타슈켄트에 폭탄이 필요한가요?(Toshkentga bomba kerakmi?)』, 『관찰(Mushohada)』, 『우리 뒤에 무엇이 남을 것인가(Bizdan keyin nima qoladi?)』, 『사보타지(Sabotaj)』 등이 있다.

또한 『파키스탄 맞은편 다리참(Daricham ro'parasidagi Pokiston, 1996)』 등의 에세이와 여행기, 특히 작가의 『버이순 정글에서 칸디 숲까지(Boysun jungllaridan Kandi o'rmonla

rigacha)』와 『여행 모음집(To'qilmagan sarguzashtlar)』은 독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다다헌 누리이의 최근 작품으로는 『가면 벗은 미국과 다른 목적지(Niqobsiz Amerika va boshqa manzilgozar, 2010)』, 『저 먼 곳의 들판과 정원(Olisdagi dala bog')』, 『고통(Iztirob, 2017)』, 『양심의 절규(Vijdon hayqiriqlari, 2018)』 등이 있으며, 그의 다양한 작품들은 힌디어, 우르드어, 영어, 카자흐어, 튀르키예어, 러시아어 및 한국어로 번역되었다.

다다헌 누리이는 우즈베키스탄 작가연합으로부터 어이벡상(Oybek)을 수상했으며, 2021년 7월 12일 세상을 떠났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다다헌 누리, 다다훈 누리, 다다훈 누리이
- 다국어 표기 Dadaxon Nuriy(우즈베크어), Дадаҳон Нурий(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어이벡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ziyouz.uz/wp-content/uploads/2018/12/dadaxon-nuriy.jpg>
- 참고문헌(온라인) <https://ziyouz.uz/ozbek-nasri/dadaxon-nuriy/>
- 참고문헌(오프라인) Aminov va boshqalar, *O'zbekiston milliy ensiklopediya*, Toshkent: O'zME Davlat ilmiy nashriyoti, 2000.
Mirvaliyev S., *O'zbek adiblari*, Toshkent: G'afur G'ulom nomidagi adabiyot va san'at nashriyoti. 2016.

I A164 | 다달오울루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명칭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Metin Turan) ● 라틴 문자 Dadaloğlu

다달오울루(Dadaloğlu)는 튀르키예 문학에서 사즈를 연주하며 시를 읊는 아시옥이다. 그의 일생이 잘 드러나는 중요한 사건은 1865년 데르비쉬 파샤(Derviş Paşa)와 아흐메트 제브데트 파샤(Ahmet Cevdet Paşa)의 거주 정책이다. 이때는 다달오울루가 살아 있었고 이는 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의 본명이 벨리(Veli)라는 것도 다음 부분에서 쉽게 알 수 있다. '벨리(나)는 늙음하고 키가 크다/손은 비단 같고, 앞머리는 윤기가 흐른다', '벨리(내)가 이렇게 힘든 이유는

사랑 때문인가/사랑의 빛줄이 목을 조이는가'

다달오울루는 투르크멘 아브샤르(Avşar) 부족 출신이다. 1865년에 오스만 시대 군대(irka-i Islahhiye)의 부름을 받고 입대했다. 이는 오스만 군대(Fırka-i Islahhiye) 일인자인 데르비쉬 파샤를 거역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영웅, 사상가들처럼 민중 음유시인 오잔(Ozan)도 시대적 산물이다. 17세기에 추쿠로바, 토 로스에 카라자오울란(Karacaoğlan)이 있었다면 19세기에는 다달오울루가 있었다. 모든 예술가가 그렇듯 다달오울루 역시 민중문화의 가치에 중점을 둔 시가 많다. 다달오울루는 카라자울란과 쾨르오울루(Köroğlu) 시를 모방했다. 그는 이들을 적절하게 참고해 잘 어우러지게 만드는 재능 있는 사람으로 평가된다.

다달오울루 시(詩)의 일관된 주제는 갈등과 영웅담이다. 튀르키예 민중 문학에서 전쟁을 노래한 오잔이라고 하면 주로 코로글루와 다달오울루를 떠올린다. 다달오울루는 앞서 말했듯 유목 민족 출신이다. 산맥, 초원, 차가운 강가, 숲을 사랑하는 것은 그가 살아온 유목 공동체 생활에서 비롯된 것이다. 거주 정책에 대한 거부도 익숙한 생활 방식에서 벗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나타난 반응이었다.

다달오울루는 유목과 목동 생활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공동체에서 지냈고 이들의 경제 활동은 여름에는 산이나 초원에서, 겨울에는 피한지에서 이뤄졌다. 말은 이 공동체 문화에서 기본적인 요소였다. 유목민이 이동할 때 말은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중요한 수단이 됐다. 말은 경제적 가치도 높고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데도 유용하며 감정적, 물리적 의미에서 자유로움을 주기도 한다. 이동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거주 정책으로 한곳에 정착하면 광활한 목초지가 필수인 수많은 염소와 양이 죽게 되고 이는 곧 이들이 먹고 살 수 없다는 의미이다. 삶의 방식이 경제와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으므로 공동체 질서의 근본이 흔들린다는 의미이다. 이는 다달오울루의 시에서 잘 드러나 있듯이, 본인은 거부하지만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거주 정책이었다. 그는 유목민 아브샤르 부족 사람들이 정착 생활이 고통스러워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상황을 거부하면서 그는 노래했다.

‘아바샤르(Avşar)족이 이동하기 시작했다

천천히 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부족이다

아랍 말이라면 먼 거리도 가깝게 느껴지리라
신성한 산으로 향하는 길은 우리의 길이다

허리에 끼고 있는 칼은,
뽀족한 창으로 돌을 뚫는다
나라가 우리에게 명령을 내렸다
파디샤가 아무리 명령을 내려도 산은 우리의 것이다

우리가 용맹하게 외치도다'

다달오울루의 동료 시인들은 지식인, 도시인 예술가처럼 꾸밈이 많은 시어를 사용하려 했지만, 이와 달리 다달오울루는 유목 사회 민중들의 언어로 전통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려고 했다.

시뿐만 아니라 다달오울루 이름이 들어간 「다달오울루와 공주」, 「다달오울루와 아저씨의 딸」, 「해와 달」, 「하산 파샤올루와 코잔올루의 겨루기」, 「아브샤르족의 동물을 사고파는 사람과 말을 잘 타는 사람과의 다툼」 등의 구전 이야기도 있다.

'이 거짓 세상에 왔을 때부터
입고 꾸미고 치장해야 해
사랑하는 사람은 잠을 잘 수 없네
일어나서 대화를 시작해야겠네

나의 벗과 우정이 얼마나 돈독한지
손을 찢러가며 장미를 다발로 만들 때
님의 뺨에 점이 군데군데 있네
뽀뽀할 때 이 점을 깨물어야겠다

감시자들이 여기에서 엿듣고 있다

듣고 있지만, 더 과장해야겠다
이렇게 아름다운데 어떻게 해치나
아름다운 장미처럼 보살펴야 해

다달오울루는 봄과 여름이 오면
우리 마을(유목민 시절 산이나 초원)에 오리나 거위가 온다
오늘이 가고 내일 봄 여름이 온다
용감한 님의 품에서 겨울을 보내야겠다'

다달오울루의 시는 반란의 이데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나톨리아(정착) 지역의 민중시에서 개인의 자유로운 감정을 일깨우고, 자연을 곁에 두면서 삶이 단단해지고 하나가 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의 시는 예리한 통찰력으로 대중들로 하여금 사회를 친근하게 느끼도록 유도하며, 갈등도 쉽게 수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이 있다.

다달오울루는 1785년에 태어나서 1868년에 죽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는 보통의 오잔들과 마찬가지로 알려지지 않았다. 시에서 느껴지는 흔적으로는 다달오울루가 아나톨리아반도의 남쪽 지역과 중앙 아나톨리아(마라쉬, 카이세리, 아다나, 하타이, 오스마니예, 곽순, 아이든 니데, 크르세히르) 일대를 돌아다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다달올루, 다달올르, 다달오올루, 다달오올루

● 다국어 표기 DADALOGLU(영어), DADALOĞLU(튀르키예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rl.kr/myji5k>

● 참고문헌(오프라인) Boratav Pertev Naili, *Halk Edebiyatı Dersleri I*, Ankara: Uzluk Basımevi, 1942.

Boratav Pertev Naili, "Aşık Edebiyatı", *Türk Dili Dergisi Halk Şiiri Özel Sayısı*, Sayı: 207, Aralık 1968.

Ergüven Abdullah Rıza, *Türk Halk Yazını*, Ankara: Yaba Yayınları, 1983.

Özdemir Ahmet Z., *Avşarlar ve Dadaloğlu*, Ankara: Ürün Yayınları 2012.

Pehlivan Battal, *Dadaloğlu*, İstanbul: Deniz Kitaplar Yayınevi, 1984.

Sakaoğlu Saim, *Dadaloğlu*, Ankara: Kültür Bakanlığı Yayınları, 1993.

Turan Metin, *Ozanlık Gelenekleri ve Türk Saz Şiiri Tarihi*, Ankara: 1997.

Turan Metin, *Tarihten Mekana Türk Halk Şiiri*, Ankara: Ürün Yayınları, 2005.

I A165 | 다뤘던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기관 ● 유형 소분류2 교육 기관
● 집필자 이은정 ● 라틴 문자 Darülfünun

다뤘던(Darülfünun)은 ‘학문들의 집’이라고 직역될 수 있는 이름으로, 서구식의 대학에 해당하는 교육 기관을 지칭한다. 서구의 대학에 해당하는 기관을 만들어 특히 관료 예비군을 양성하려는 생각은 탄지마트 개혁기에 제안되었으나 장애물이 많아 여러 번 좌절을 겪었다. 처음에 다뤘던을 만들고자 하는 시도는 1846년 스위스 건축가 포사티가 다뤘던으로 구상된 건물을 짓기 시작하면서 시작되었다. 건물이 완성되기 전 일부 사용할 수 있는 강의실에서 물리학, 화학, 천문학, 역사학 등의 공개 강연이 진행되었다. 건물이 완성되었을 때 대학 건물로 쓰기에는 너무 크다는 판단하에 이 건물이 재무부에 주어지고, 챔벨리타쉬 지역의 좀 더 작은 누리 파샤 저택에서 강연이 계속되었으나, 이 건물은 1865년에 화재로 소실되고 말았다.

다뤘던을 설립하려는 두 번째 시도는 1869년에 있었으며, 이때는 공공 교육 관련 규정들이 대학 교육을 포함하는 교육 체계를 재구성해 놓았다. 이 무렵 ‘다뤘던 이 오스마니(오스만 대학)’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이 기관에서는 3개 단과 대학이 있어서 하나는 문학과 철학, 하나는 자연 과학과 수학, 또 하나는 법학을 가르쳤다. 이 대학에는 박물관, 도서관, 실험실들이 갖춰졌고, 문학과 철학을 가르치는 단과 대학에서는 프랑스어, 라틴어, 그리스어 등의 서구 언어만이 아니라 아랍어와 페르시아어도 가르쳤고, 법학과에서는 이슬람법과 로마법을 동시에 가르쳤다. 이 대학도 여러 악조건에 부딪혔으니, 재정이 열악했고, 교수의 수가 부족했으며, 튀르키예어로 된 강의 교재가 불비했다. 또한 공개 강연에 초빙된 자말앗딘 알 아프가니가 ‘예언자’도 하나의 직능(sanat)이라고 하는 언급을 했다가 큰 논란이 일어 공개 강연들이 취소되고 총장도 바뀌는 사태가 일어났으며 흔히 이 사건의 여파로 폐교되었다고 알려져 있지만 1872년~1873년 사이에도 교육은 계속되었다. 이 대학이 무슨 이유로 어떻게 폐교되었는지는 불명확하다.

1873년 세 번째로 이루어진 대학 설립 시도는 1868년부터 운영되고 있던 갈라타사라이 왕립 학교 부지에 만들어졌다. 이때의 대학은 ‘다뤘던 이 술탄니(갈라타사라이 제국 대학: Imperial University of Galatasaray)’라고 불리었으며, 법학, 자연 과학, 인문학의 3개 단과



다뤘던눈, 현 이스탄불 대학교 정문

대학을 갖추었다. 이후에 법과 대학은 법무부에 소속되어 독립해 나갔고 1909년에 다시 통합되었다. 자연 과학 대학은 정부의 공공시설 부처에 부속되었으며 나중에 이스탄불 공과 대학의 전신이 되었다. 이와 같이 오스만 제국에서 대학을 만드는 과정은 교수 인력, 근대 교육을 받은 하급 학교 학생의 부족, 법제도 및 재정의 불비로 많은 장애물을 거쳐 오랜 세월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 이상의 노력은 결국 1900년에 새로 신학 대학과 의과 대학도 포함하는 '다뤘던눈 이 사 하네(제국 대학)'가 설립됨으로 성과를 보았고, 청년투르크 혁명 후 제2차 헌정이 공포됨과 함께 이름을 다뤘던눈으로 바꾸어 1909년 8월 웨즈네질레르에 있는 지금의 이스탄불 대학 문학 부 건물이 있는 제이넵 하늬 저택에 자리 잡았다. 이때부터 수천 명의 학생이 지원하게 되었다. 1921년부터 순차적으로 남녀 공학이 되었다. 전쟁 기간 동안에는 외국에서 수학하던 학생들이 대거 귀국하여 조교로 일하기도 했고 일부 외국인 교수들이 떠나는 등의 많은 변화를 겪었으며 로잔 조약 후에는 영국군이 점하고 있던 국방부 건물(지금의 이스탄불 대학 중앙 건물)을 넘겨

받았다. 1924년 법인 지위를 부여받아 자체 재산을 가진 공공 기관이 되었고 1933년 이스탄불 대학(İstanbul Üniversitesi)으로 전환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다룰푸논, 다룰푸논

● 다국어 표기 Darülfünun(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탄지마트, 청년투르크

● 참고문헌(오프라인) Ekmeleddin İhsanoğlu, “Darülfünun,” TDV İslam Ansiklopedisi Vol. 8 1993 pp.521~525.

Ekmeleddin İhsanoğlu, “Education,” Gábor Ágoston and Bruce Masters, eds., The Encyclopedia of the Ottoman Empire, Facts on File 2008 pp.198~204.

I A166 | 다른 유적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몽골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유적 ● 유형 소분류2 무덤
● 집필자 김재윤 ● 라틴 문자 Darkhan

다른 유적은 몽골 흉노 유목 제국의 무덤 유적으로, 다른 올 아이막 다른 시 부근 툼우르테이 산사면의 낮은 언덕 서남쪽 끝에 위치해있다. 러시아의 고고학자인 오클라드니코프가 발견했고, 나중에 몽골-소련 역사 문화 조사단에 의해서 발굴되었다. 이미 파괴된 상태여서 지표상의 무덤 상태는 알 수 없었으나, 무덤 6기가 발굴되었다. 유적은 도굴된 상태였지만, 2호와 4호에서는 목곽과 그 내부에 목관이 확인되어서, 묘도 없는 방형 무덤이 이 유적의 대표적인 무덤 형식으로 생각된다. 이 유적에서 확인된 목관과 목곽이 남아 있어서 모서리의 결구 방법을 알 수 있는 의미가 있다. 4호에서는 칠기가 확인되었고, 2호에서는 터키석, 마노, 진주 등 구슬도 확인되었다. 1호, 3호에서는 무덤 내에서 자작나무 껍질이 토기 주변에서 출토되었다.

노용 올에서 확인된 칠기 제품에는 建平 5년(기원전 2년), 도르노고비 아이막 찬드만 하르 올 유적 7호에는 元始 원년(기원후 1세기), 골모드 유적 20호에는 永始 元年(기원후 16년)이라는 명문이 남아 있다. 이렇듯 몽골 흉노무덤의 칠기 제품은 기원후 1세기~2세기 제품이 많이 출토

된다. 다른 유적의 칠기 제품도 명문이 분명하지는 않지만, 칠기가 출토되는 다른 유적과 비슷한 시점에 제작된 칠기가 무덤 속에 들어왔을 가능성이 크다.

4호는 6기 가운데 가장 깊은 곳에서 목곽이 발굴되었다. 깊이 4m에서 길이 3.4m, 너비 1.2m의 목곽과 그 안에서는 2.5m, 너비 0.8m의 목관이 확인되었다. 목곽이 도굴된 상태였는데, 무덤 구덩이 북쪽 가장자리에서 염소 머리뼈, 피장자(被葬者)의 두개골편이 확인되었다. 목관 내에서는 붉은색 바탕에 검은색으로 그림을 그린 칠기편, 식물과 펠트 조각, 가죽 조각, 곡물 청동 장식, 철제품 등이 출토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다르칸, 다르칸
- 다국어 표기 Дархан(러시아어), Darkhan(영어)
- 연관 검색어 노용 울
- 참고문헌(오프라인) Ю.С. Гришин. 1978, Раскопки гуннских погребений у горы Дархан, Археология и этнография Монголии.// Новосибирск: 224 с.Г. 에렉젠, 양시은 2017, 『흉노』, 진인진.

I A167 | 다마취안거우 무덤군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동아시아 ● 나라 중국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유적 ● 유형 소분류2 무덤
- 집필자 김재윤 ● 라틴 문자 Damaquangou Cemetery

다마취안거우(Damaquangou) 무덤군은 중국 신강성 하마지구(哈密地區) 바리쿤카자흐자치현(巴里坤哈薩克自治縣)의 쿠이쑤진(奎蘇鎮)에 위치한 선흉노의 무덤이다. 이 유적은 텐산산맥 북쪽의 다마취안거우 산어귀에 있다. 계곡의 동쪽에는 무덤, 서쪽에는 무덤과 주거지가 함께 발견되었다. 무덤의 종류는 원형 적석묘와 분구묘이다. 원형 적석묘는 각 묘실의 중앙이 함몰되었고 분구가 없는 무덤도 소량 있다. 지표에 석괴를 사용해서 원형이나 장방형으로 둘레 돌을 쌓은 형태이다. 지표에 분구가 있는 무덤은 지름이 4m~8m이고, 중앙이 함몰되어 있다.

다마취안거우 무덤군은 헤이거우량 무덤과 유사하며 유적의 연대는 기원전 5세기 후반~기원후 3세기 전반 정도에 해당된다. 그런데 이 유적의 무덤 구조는 몽골의 알타이 서부에 위치한 울란곰 문화, 알타이의 파지리크 문화의 무덤 구조와 유사하다. 이들 문화는 흉노 이전의 '선흉노 문화'라고도 일컬어진다. 흉노의 대형 무덤은 구덩이를 깊게 파고 피장자를 나무로 된 무덤방과 통나무관을 사용해서 만들었다. 구덩이를 흙으로 덮고 돌로 마무리하는데, 지표 위에도 돌을 쌓거나 혹은 돌을 돌린 흔적이 남는다. 이런 무덤 구조는 알타이의 선흉노 문화인 파지리크 문화에서 전해졌을 가능성이 있다. 중국 신강성에도 선흉노 문화의 일종이 있었던 것을 다마취안거우 무덤군을 통해서 알 수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다마취안거우 유적
- 다국어 표기 大馬圈溝墓群(중국어)
- 연관 검색어 파지리크, 흉노
- 참고문헌(오프라인) 新疆維吾爾自治區文物局 編 2011, 『新疆維吾爾自治區第三次全國文物普查成果集成-哈密地區卷』, 北京: 科學出版社, p. 159.

I A168 | 다비도바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학자
- 집필자 김재윤 ● 라틴 문자 Antonina Vladimirovna Davydova

다비도바(Antonina Vladimirovna Davydova, 1927년~2000년)는 러시아의 흉노 고고학자이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위치한 유형 문화재 연구소에서 근무한 그녀는 1954년과 1955년에 자바이칼의 이볼가 성지를 직접 발굴하고 이를 바탕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1965년). 학위의 주제는 '자바이칼의 흉노 유적 이볼가 성지'이다. 그녀가 발굴한 흉노 유물은 3,000점이 넘는 데, 현재 카흐타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부랴트 박물관과 에르미타주 박물관에서는 다비도바 이름으로 기념 논문집도 발간되었다.

대표적인 연구 업적으로는 「자바이칼 흥노의 이불가 유적 복합체: 이불가 성지와 무덤 연구(Иволгинский комплекс(городище и могильник) - памятник хунну в Забайкалье, 1985)», 「데레스두이 무덤에서 출토된 청동 벨트 장식에 대한 연구(Новые находки наборных поясов в Дырестуйском могильнике, 1933)」 등이 있다.

특히 자바이칼 흥노의 이불가 성지와 무덤 복합체에 대한 연구는 후대 학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녀가 발굴한 이불가 성지는 자바이칼 지역에서 대표적인 흥노 마을 유적이다. 이불가 성지는 북흥노가 정착민을 이용해서 생산 기지를 건설했던 흔적이 있다. 이 유적에서 확인되는 유물을 볼 때 흥노가 순수한 유목 민족 계통의 국가가 아니라 혼합 민족(정착민)으로 구성된 국가임을 알 수 있다. 이불가 성지는 러시아가 계속 발굴을 해서 2000년대에는 온돌도 발견되어서 한국과 투르크 집단과의 교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로 확인된 바 있다. 다비도바는 이불가 성지를 발굴하고 업적을 쌓음으로써 러시아의 흥노 고고학 연구가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는 데 기여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다브도브, 안토니나 다비도바

● 다국어 표기 Давыдова Антонина Владимировна(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흥노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bioslohist.spbu.ru/person/1209-davydova-antonina-vladimirovna.html>

● 참고문헌(오프라인) Сетевой биографический словарь историко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XVIII-XX вв. СПб., 2012.

DANDINSUREN TSEVEENDORJ SC.D(ed)., 2013, ENCYCLOPAEDIA XIONGNU, ULAANBAA TAR

I A169 | 다스탄(투르크 민족 일반)

- 시기 기타 ● 지역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중국, 튀르키예,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구비 전승 ● 유형 소분류2 서사시
- 집필자 김근식 ● 라틴 문자 Dastan

다스탄은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동아시아의 문학이나 구비 문학에서의 서사시를 의미한다. 페르시아어로 ‘다스탄’은 ‘이야기’를 의미한다. 모든 투르크 민족의 구비 문학에는 다스탄이 존재한다. 튀르키예에서는 ‘데스탄(destan)’, 아제르바이잔에서는 ‘다스탄(dastan)’, 우즈베크에서는 ‘더스툰(doston)’으로 불린다.

다스탄은 환상적이거나 모험적인 상황을 묘사하는데, 복잡한 줄거리나 몇몇 과장된 사건, 이상화된 영웅이 두드러진다. 다스탄의 전통적인 주제는 비극적 사랑이나 외적으로부터 조국을 지키는 것이다. 틀에 박힌 도입부와 종결부가 다스탄의 특징이다.

다스탄은 크게 기록문학 다스탄과 구비문학 다스탄으로 구분된다.

기록문학 다스탄은 유럽의 영웅서사시 장르와 유사하다. 다스탄은 보통 시형식으로 쓰인다. 기록문학 다스탄은 타지크-페르시아 문학, 투르크 언어 문학(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문자 다스탄 장르는 현대 시에서도 자주 발견된다. 바시키르 시인 마흐무트 히바트(Махмут Хибат)는 바시키르 서사시의 줄거리에 기초하여 다스탄 『알퍼므쉬(1993)』를 창작하기도 했다.

구비 문학 다스탄의 구연자는 다스타니치(дастанич), 아시옥(ашуг), 바흐쉬(бахши) 등 여러 명칭으로 민족마다 다르게 불린다. 다스탄은 시나 산문, 또는 시구를 넣은 산문으로 기술된다. 낭독할 때는 보통 음악과 운율을 넣어 구연된다. 구비 문학 다스탄도 영웅서사시 장르와 동일시될 수 있다. 타지키스탄, 튀르키예,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적극적으로 수집되고 채록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데스탄, 더스툰
- 다국어 표기 داستان(아랍어), داستان(페르시아어), Дастан(러시아어), Destan(튀르키예어), Dastan(아제르바이잔어), Doston(더스툰)
- 연관 검색어 더스툰, 데스탄, 아시옥, 바흐쉬, 오잔



두타르를 연주하는 우즈벡 남자

- 참고문헌(온라인) <http://rus.bashenc.ru/index.php/component/content/article/2-statya/11699-dastan>
- 참고문헌(오프라인) Литературн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терминов и понятий/под ред. А.Н. Николюкина. Интерлак, 2001.

I A170 | 다스탄(아제르바이잔)

- 시기 기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아제르바이잔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구비 문학 ● 유형 소분류2 서사시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Bədirxan Əhmədli) ● 라틴 문자 Dastan

‘다스탄(dastan)’은 아제르바이잔 구비 문학의 가장 중요한 유형 중 하나로서, ‘에포스(ēpos)’라고도 한다. 다스탄은 아제르바이잔 구비 문학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모든 투르크 민족의 구

비 문학에는 다스탄이 존재한다. 다만, 약간의 의미 차이가 있다. 튀르키예 문학에서는 ‘데스탄(destan)’, 우즈베크 문학에서는 ‘더스툰(doston)’으로 불린다.

다른 장르들과 달리 서사시는 산문과 운문이 혼용되어 이루어진다. 서사시에서는 한 사건이 산문을 통해 묘사되지만, 중간 중간에 필요에 따라 주제와 관련된 시들도 나온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이 장르는 때때로 ‘epic-lyric’이라 불리는 특별한 문학 유형으로 분류된다. 서사시의 운문 부분은 주로 아제르바이잔 전통시 장르인 고시마(qoşma)와 개라일르(gəraylı)로 구성된다. 이 시들은 전통 악기인 사즈(saz)를 연주하며 부른다.

‘다스탄’은 주제와 내용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연애서사시(məhəbbət dastanları)와 영웅서사시(qəhrəmanlıq dastanları)로 구분된다. 영웅서사시에서는 주로 국민의 삶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 정의와 자유를 위한 국민들의 투쟁에 대한 이야기가 묘사된다. 그러한 서사시의 주인공은 주로 백성들 속에서 나오는 용감하고 용기 있는 사람들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현자 코르쿠트의 서(書)(Kitabi Dədə Qorqud)』, 『코로글루(Koroğlu)』, 『가차 내비(Qaçaq Nəbi)』, 『가차 캐램(Qaçaq Kərəm)』 등이 있다. 영웅서사시는 민족의 영웅에 관한 전설과 노래에 바탕을 두고 있다. 연애서사시는 영웅서사시 보다 작품 수가 많다. 이들 서사시의 주제는 청춘 남녀의 순수한 사랑, 정직함, 충성심, 헌신이다. 연애서사시는 서로 사랑하는 젊은이들이 직면하는 문제와 사건들을 이야기한다. 주인공들이 꿈속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게 되는 것을 ‘부타(buta)’라고 하는데, 때로 사랑하는 청춘들은 부타를 받게 된다. 이후 주인공은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 떠난다. 주인공은 여러 가지 장애물에 부딪치면서 때로는 애인을 찾지만 때로는 애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서사시의 주인공들은 전통 악기 사즈(saz)를 연주하면서 서로 시를 지어 겨루기도 한다. 가장 인기가 있는 연애서사시는 ‘구르바니(Qurbani)’, ‘압바스와 귤개즈(Abbas və Gülgəz)’, ‘아시옥 개리프(Aşıq Qərib)’, ‘타히르와 죄흐래(Tahir və Zöhrə)’, ‘샤흐 이스마일(Şah İsmayıl)’, ‘레이리와 매투눈(Leyli və Məcnun)’이다. 연애서사시들은 ‘우스타드나매(Ustadnamə)’로 시작해 ‘두왁가프마(duvaqqapma)’로 끝난다. ‘우스타드나매’는 덕담이 담긴 고시마(qoşma) 시이다. ‘두왁가프마’는 다스탄 결말에 나오는 ‘아시옥’ 시 장르이다. 기쁜 내용이 담겨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재회를 찬미한다. 당연히 비극으로 끝나는 서사시들에서는 ‘두왁가프마’가 없다. 이런 다스탄들에서는 연인들의 재회가 없기 때문에 두왁가프마 의식을 거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더스틴, 데스탄
- 다국어 표기 Epose(영어), destan(튀르키예어), enoc(러시아어), doston(우즈베크어), Dastan(아제르바이잔어)
- 연관 검색어 데스탄, 더스틴, 오잔, 아시옥, 바흐쉬
- 참고문헌(오프라인) Azərbaycan Ədəbiyyatı Tarixi. 6 cildde, 1 c., Bakı, 2004.
P.Əfəndiyev. Azərbaycan Şifahi Xalq Ədəbiyyatı Bakı, Maarif, 1992.

I A171 | 다야하튼 카라반사라이

- 시기 A.D. 1000년 ~ A.D. 1500년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투르크메니스탄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건축
- 유형 소분류2 대상 숙소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Dayahatyn Caravanserai

다야하튼 카라반사라이(Dayahatyn Caravanserai)는 11세기~12세기에 건설된 셀주크 조의 대상 숙소이다. 이 대상 숙소는 메르브(Merv)와 아물(Amul)을 이어주는 사막 지대의 무역로에 위치한다. 서쪽으로는 우르겐츠(Urgench), 북쪽으로는 부하라(Buhara), 동쪽에는 케르키(Kerki)로 갈 수 있다. 이 대상 숙소가 건설되기 이전 같은 자리에는 아랍인이 건설했던 타흐리에 리바트(Tahiriya Ribat)가 있었다. 타흐리에 리바트는 군사 목적으로 건설된 것으로 보인다. 타흐리에 리바트는 아도비 진흙으로 건설되었으나, 다야하튼 대상 숙소를 건설하면서 해당 건물의 벽은 모두 부수었다. 대형 대상 숙소 건설에 들어가는 금액과 인력을 생각해보면, 상당히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 건설을 명한 것으로 보이나 석문이 없어 정확한 후원자는 알 수 없다. 12세기 술탄 산자르(Sultan Sanjar, 재위: 1097년~1157년)의 명으로 건설했다는 주장도 있다.

이 건물의 주재료는 아도비 벽돌과 구운 벽돌로 해당 지역의 사막 환경으로 보아 인근 지방에서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지역 전설에 의하면 사람들이 메르브로부터 손에서 손으로 벽돌을 옮겨 왔다고 한다.

각 면이 53m 가량의 정사각형 형태로 네 개의 이완과 갤러리가 있는 형태이다. 건물 전면 벽 중앙에는 대문이 있으며 대문의 양옆에는 원통형의 탑이 있다. 탑과 대문 사이의 넓은 판 세 개와 좁은 판 두 개가 있다. 넓은 판에는 쿠팅 서체로 네 명의 칼리프 이름이 적혀 있으며, 좁은 판



다야하튼 카라반사라이
Source: <https://tm.usembassy.gov/>

은 침두아치 형의 벽감으로 장식했다. 두 장식 모두 벽돌을 배치하여 만들어냈다. 전면부의 이 장식과 달리 다른 벽면은 단순하고 아무런 장식이 없다.

건물 내부 중정은 갤러리로 둘러싸여 있으며 갤러리 아치의 주두는 정사각형 형태이다. 중정을 제외한 부분은 돔과 볼트로 덮여 있다. 중정 바닥은 석재로 되어 있다. 이완과 갤러리 사이에는 긴 복도 형태의 방이 있어 방문자가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이 건물은 전체적으로 라바티 말리크(Rabat-i Malik)와 라바트 샤라프(Rabat-i Sharaf)를 떠올리게 하며 예술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받는다.

19세기에 이 건물이 재발견되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훼손되었고, 2012년 다야하튼은 미국 정부의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대사 기금(Ambassadors Fund for Cultural Preservation)의 지원을 받아 일부 복원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다야하튼 대상 숙소, 다야하튼 케라반사라이
- 다국어 표기 Dayhatyn kerwensarayı(투르크멘어) , Daya hatun Keravansarayı(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리바티 말리크, 라바트 샤라프
- 멀티미디어 링크 다야하튼 카라반사라이 전면부
<https://d2v9ipibika81v.cloudfront.net/uploads/sites/124/2016/11/dayhatyn-panorama-interior-1.jpg>

다야하트 카라반사라이 내부 아케이드

<https://url.kr/wpdy5>

● 참고문헌(온라인) <https://tm.usembassy.gov/u-s-embassy-helps-restore-dayahatyn-caravanserai-turkmen-archeological-site/>

● 참고문헌(오프라인) Cezar, Mustafa. Anadolu Öncesi Türklerde Şehir ve mimarlık, Ankara: İş Banka, 1977.

Галина Анатольевна Пугаченкова, Пути развития архитектуры Южного Туркменистана поры рабовладения и феодализма, Moscova:Изд-во Академии наук СССР, 1958

I A172 | 다울

● 시기 기타 ● 지역 기타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음악 ● 유형 소분류2 악기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Davul

북의 일종인 다울은 아랍어 ‘타블(tabl)’에서 왔으며 튀르키예어에서 타블(tabul), 타울(tavul), 타을(tavıl), 다울(davul)의 형태로 변화되었다. 오스만 제국을 통해 다울을 접한 유럽에는 타보르(tabor)와 탐보르, 탐보우르(tambor/tambour)라는 형태로 전해졌다.

북은 사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악기로 고대 수메르를 비롯하여 여러 고대 문명의 기록에 남아 있다. 고대의 북은 오랫동안 손으로 연주되다가, 후에 채가 추가되었다.

중앙아시아 투르크의 경우 아직 정확한 증거는 없지만, 샤머니즘과 함께 북이 강조된 것으로 보인다. 샤머니즘에서 성스럽게 여기는 사슴의 가죽을 팽팽하게 당겨 만든 북과 샤먼의 채찍과 같은 채, 성스럽게 여기는 사슴 다리로 만든 채로 울리는 북은 귀하게 여겨졌다.

투르크에게 다울이라는 이름은 처음으로 오르혼 비문에 쿠티부르게(köbürge) 형태로 기록되어 있다. 이때의 다울은 투르크에게 단지 곡을 연주하는 악기가 아니라 통치권의 상징이었다. 이븐 할둔(Ibn Khaldun, 1332년~1406년)은 투르크들에게 다울이 통치권의 상징이며, 투르크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기록했다.

‘네브벳(Nevbet)’이라고 하는 통치자의 거주지(일반적으로 통치자의 천막이나 궁) 앞에서 다울을 울리는 의식(네브벳 다울루, Nevbet Davulu)은 투르크의 전통이었다. 『고대 투르크어 사

전(Divanü lügati't-türk)』에는 두 알 카르나인(Dhu al-Qarnayn)이 사마르칸트를 지나가며 투르크 통치자의 궁전 앞에 350개의 네브벳 다울을 올렸다고 기록하고 있다. 쿠타드구 빌리그(Kutadgu Bilig)에서도 이와 유사한 의식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투르크에게 하툰(Hatun: 여성 통치자 또는 통치자의 아내), 웨지르(Vezir: 재상)와 장군의 계급과 권한에 따라 다울을 올릴 권한이 있었다.

셀주크 술탄 알라엠티딘 케이쿠바드 1세(I. Alâeddin Keykubad, 재위: 1220년~1237년)가 카라자히사르를 정복한 이후 오스만 가지(Osman Gazi, 재위: 1258년~1327년)에게 깃발과 투오(tuğ)와 함께 북을 보냈다는 것도 이 전통을 이은 것으로 보인다. 오스만 제국의 메흐메트 2세(II. Mehmed, 재위: 1444년~1446년, 1451년~1481년) 시대에 이르기까지 오스만 제국 통치자도 네브벳 다울루를 올렸을 때 셀주크 술탄들을 존중하기 위하여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한다. 칸국에서도 전쟁에 나갈 때, 하툰과 재상이 순서에 맞춰 북을 울리고 전장 일에 참여했다.

채와 가느다란 작대기로 쳐서 울리는 다울은 울림통을 재단한 가죽을 씌워 두 개의 북면을 만든다. 북채로 두드리는 오른쪽 북면(tokmak)은 두껍고 가는 채로, 치는 왼쪽 북면은 얇게 만든다. 북면은 염소나 소가죽을 선호한다. 일부 지방에서는 떨리는 소리를 내게 하기 위해 북면에 실을 엮기도 한다. 양쪽 북면 사이를 지그재그 형태로 엮는다. 원들과 북틀을 고정하는 이 끈으로 소리를 조절한다. 이 끈은 일반적으로 아마로 만들어진다.

연주자는 다울에 가죽 스트립을 매달아 왼쪽 어깨에 걸어 연주한다. 이때 북 틀은 왼쪽 장딴지에 기대어진다. 다울의 윗부분 손가락 사이에 가는 채가 있는 왼손 손바닥의 튀어나온 곳으로 지지하며 고정한다. 북채를 잡은 오른손은 완전히 자유롭다. 북채를 도와주고 완성하는 역할을 하는 가는 채는 왼손 엄지와 검지의 끝으로 북과 함께 붙든다. 그리고 남은 손가락으로 가는 채를 움직이게 하며 리듬을 지속시키는 것을 도와준다.

과거 군악대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다울은 오늘날 아나톨리아반도에서 각 지방에 거의 모든 민속춤의 반주를 비롯하여 오일 레슬링과 같은 정통 스포츠 시합에서 주르나와 함께 연주된다. 또한, 과거부터 오늘날까지 일반 시민에게 사후르(sahur: 라마단 동안 해가 뜨기 전에 먹는 마지막 식사 시간)를 알리고 종교적인 명절에 다울을 울리는 마을의 야경꾼이 활동하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다불

- 다국어 표기 Davul(튀르키예어), Davul(아제르바이잔어)
- 연관 검색어 주르나, 메흐테르
- 멀티미디어 링크 다울
<https://url.kr/z4l3js>
 다울 연주
<https://www.youtube.com/watch?v=LH6iq0csVBs>
- 참고문헌(온라인)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49292&cid=40942&categoryId=33031>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4137301&cid=60476&categoryId=60476>
- 참고문헌(오프라인) Bozkurt, Nebi., Nuri. Özcan, “Davul”, TDV İslam Ansiklopedisi Cilt, 9, Istanbul: TDV, 1994 pp.53~56.

I A173 | 다이바

- 시기 기타 ● 지역 중앙아시아, 북아시아,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신앙 ● 유형 소분류2 악령
- 집필자 김홍중 ● 라틴 문자 Daeva

다이바는 원래 조로아스터교에 나오는 선한 신인 아후르(axyp)와 대립하는 악한 신을 의미한다. 하지만, 튀르크, 이란, 슬라브 신화에서 다이바는 디바(дива), 데바(дэва), 디브(див) 등으로도 불리면서 거인의 모습을 한 인간 형태의 초인적 존재를 의미한다. 고대 인도 신화에서 데바는 신이지만 아수르(acy)는 악마로 등장한다. 페르시아계 언어에서 div는 악령, 마귀, 괴물, 광인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소아시아, 중앙아시아, 서 시베리아, 캅카스, 우랄 지역에서 다이바의 신화적 형상은 널리 퍼져 있는데, 주로 인간이나 동물 형상의 거대한 악령이다. 보통은 거대한 키에, 강하지만 어리석고, 작은 뿔이 난 존재로 묘사된다. 전설에서 다이바는 여성을 납치해 데리고 사는 존재이며, 산속 동굴에서 동물과 같은 생활을 한다고 한다. 하지만 가끔은 집에서 살고 옷도 입고 가죽도 기르는 존재로 묘사된다. 아랍 신화의 지니와 비슷하게 인식되기도 한다.

다이바의 형상은 이란의 『샤흐나메(Shahnameh)』에 악령으로 등장하며 슬라브 세계에서 디

브(Див)는 새의 형상을 한 예언을 하는 정령으로 등장하는데, 슬라브의 고대 연대기인 『이고리 원정기』에 디브의 존재가 두 번 묘사된다. 아제르바이잔 신화에서도 디브는 악의 화신이며 산이나 지하에 사는 존재로 등장한다.

바시키르 신화에서 디브는 사람을 해치는 존재다. 여러 전설에서 디브와 아지다흐는 매일 처녀를 식사를 바칠 것을 요구한다. 서사시 「우랄 바티르」에서 디브는 우랄의 형제 술간의 부하로 등장하며, 「아크부자트」나 「자야톨라크와 히우힐루」와 같은 서사시에서도 디브가 등장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대바, 디브, 디바

● 다국어 표기 Div(아제르바이잔어), ديوها(아랍어), Дивы(러시아어), دانوا(페르시아어)

● 연관 검색어 우랄 바티르, 아크부자트

● 참고문헌(오프라인) Мифы народов мира/под ред. Токарева С. А. — М., Совет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1992 г. — т.1, 417.

Потапов Л. П. Умай — божество древних тюрков в свете этнографических данных. — Тюркологический сборник 1972. — М.: Наука, 1973. — С. 265—286.

I A174 | 다프

- 시기 기타 ● 지역 기타 ● 나라 기타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음악 ● 유형 소분류2 악기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Daf

다프는 원형의 프레임과 하나의 복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옆에 얇은 짤랑이가 달려 있는 전통 타악기로 손으로 치고 흔들며 연주한다. 탬버린과 유사한 형태이다. 다프의 기원은 정확히 알려진 바 없으나 수메르어 다프(dap)에서 온 것으로 보이며, 이 단어가 아랍어와 히브리어로 전해져 현재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슬람 이전 아랍 세계에서도 다프는 계속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슬람 이후 시대에도 아랍인들은 이 악기를 즐겨 사용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투르크 음악에서도 다프는 즐겨 사용되었다. 또한, 중앙아시아가 연원으로 추정되는 ‘도이라(Doira)’라는 악기는 다프와 매우 유사한 형태이며 국가에 따라 다프와 도이라가 구별 없이 혼

용되기도 한다. 투르크 음악에서는 음악 종류에 따라 다른 형태의 다프가 사용된다.

종교 행사에서는 몸체 지름 40cm~44cm, 두께 7cm~8cm 가량의 다프를 사용하고, 다프 류의 악기 중에서는 가장 크다. 기도문을 읽는 데 방해되지 않도록 짤랑이는 달리지 않았다. 특히 과거 수피즘 수행승들이 거리를 돌아다니며 기도문을 읽을 때 다프를 사용했다고 한다.

투르크 고전 예술 음악에서 리듬이 주요하게 사용되는 부분에 다프는 가장 중요한 악기로 취급된다. 과거 고전 음악을 이끄는 지휘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다프를 사용하여 곡의 시작과 마무리에 있는 리듬을 연주하기도 했다. 현재 고전 음악단에서는 리듬 악기로만 사용한다.

고전 예술 음악 연주용 다프의 지름은 30cm~40cm, 두께는 8cm~9cm이고 주변에 다섯 쌍의 종이 달려있다. 목재로 만든 틀의 두께는 3cm~4cm 가량이며 틀을 다양하게 장식하기도 한다. 가죽은 생선 가죽이나 황소의 방광을 선호하나 새끼 염소의 가죽도 사용된다. 짤랑이는 낫쇠나 양은으로 만들어진다. 이보다 작은 20cm~25cm의 다프가 사용되기도 한다.

민속 음악에 쓰이는 다프는 중앙아시아와 아나톨리아 지역에서 주로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크기는 지름 27cm~28cm 가량이며 북면은 1살 미만의 어린 양 가죽을 이용해 만든다. 예술 음악에서의 다프와 달리 장식은 거의 없다.

결혼식과 헤나의 밤 등에서 여성들이 주로 많이 연주하는 다프는 크기가 크고 짤랑이가 없다. 다프는 왼손으로 안쪽 면을 연주자가 볼 수 있는 형태로 잡고 위아래로 리듬에 맞추어 흔들며 손가락으로 면을 쳐서 소리를 낸다. 오른손은 손바닥과 손가락으로 주 리듬을 치고 왼손의 엄지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으로 가죽을 두드리며 리듬을 따라간다. 필요 시 양 손가락 모두 짤랑이를 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투르크 민속 음악에서도 아랍 음악에서와 같이 다프로만 이루어진 곡이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답, 데프, 도이라

● 다국어 표기 Def(튀르키예어), Def(아제르바이잔어), Doira(우즈베크어), Daira(튀르키예어), Dare(크림 타타르어), Доира(타지크어)

● 연관 검색어 헤나의 밤

● 멀티미디어 링크 다프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c/c9/Pair_of_dafs.jpg

다프 연주

<https://www.youtube.com/watch?v=-dmT6OpzTQc>

● 참고문헌(온라인)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376547&cid=60476&categoryId=60476>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4295810&cid=60476&categoryId=60476&expCategoryId=60476>
<https://mimo-international.com/MIMO/>

● 참고문헌(오프라인) Bozkurt, Nebi, Nuri Özcan, “Def”, TDV İslâm Ansiklopedisi Cilt 9, İstanbul: TDV, 1994, pp.83~85.

I A175 | 다허고성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중국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유적 ● 유형 소분류2 무덤
● 집필자 김재윤 ● 라틴 문자 Old City of Dahe

다허고성은 중국 신강성 하미지구(哈密地區) 바리쿤카자흐자치현(巴里坤哈薩克自治縣) 다허향(大河鄉) 동두거촌(東頭渠村) 남쪽 약 2km에 위치한 투르크(돌궐) 시대의 성 유적이다. 고성의 남쪽은 소택지고, 서벽 바깥으로 도로가 있으며 북쪽에 가마터가 있다. 유적은 당의 경룡 4년(景龍四年, 710년) 이오군 주둔 시에 축성했는데, 일종의 병영성으로 주성과 부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성은 평면 형태 방형으로 판축 기법을 사용해 성벽을 세웠다. 남북 길이 210m, 동서 너비 180m이다. 성벽의 기저부 너비는 12m, 최고 높이가 10m이고, 판축층의 두께는 10cm~15cm이다. 동과 서쪽에 성문이 있는데 너비는 약 4m 정도이다. 성벽의 모서리에는 누각이 남아 있고, 치도 확인된다. 부성은 주성의 동쪽에 위치하고, 성벽의 높이는 낮으나 면적은 더 크다. 주성의 동벽과 부성의 서벽이 통로로 연결되어 있다. 남벽과 북벽에서 문지가 발견되었다. 동벽의 중앙에는 적대 또는 전망대로 추정되는 돌출부가 있다. 부성은 군사가 주둔했지만 주로 말을 기르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성내의 건축물은 조사되지 않았지만, 연화문 와당과 전돌 등의 건축 재료는 상당수 발견되었다. 이 외에도 도기, 석기, 화폐, 청동기와 철기 등이 다량 출토되었다. 개원통보, 청동 거울과 불상 등이 출토되었다. 당대(唐代)의 유적으로 중국에서 지정한 전국중점문화물보호단위(全國重點文物保護單位)에 속하는 유적이다.

● 다국어 표기 大河古城(중국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rl.kr/iru2bt>

● 참고문헌(오프라인) 王巍總 主編 2014, 『中國考古學大辭典』,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新疆維吾爾自治區文物局 編 2011, 『新疆維吾爾自治區第三次全國文物普查成果集成-新疆古城遺址(下冊)』, 北京: 科學出版社.

I A176 I 단단칸 전투

- 시기 A.D. 1000년 ~ A.D. 1500년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투르크메니스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사건
- 유형 소분류2 전투
- 집필자 이은정
- 라틴 문자 Battle of Dandanqan

단단칸은 호라산의 마르브와 사라흐스 사이의 모래 사막에 있는 작은 도시이며 중세에 있었던 같은 이름의 도시에서 약 60킬로미터 가량 떨어져 있다. 당시의 정착지는 현재 투르크메니스탄에 있다. 이곳이 역사적으로 유명한 이유는 단단칸의 성벽 밖에서 동 이슬람권의 역사에서 가장 결정적인 전투 중의 하나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이미 1035년과 1038년 가즈니 왕조에 승전을 거둔 바 있는 셀주크 집단을 상대로 가즈니 왕조의 술탄 마스우드는 1039년부터 회심의 대공세를 준비했다. 약 5만의 군대로 사라흐스 근방의 탈하브 지역에서 셀주크의 2만 군대를 상대로 싸웠는데, 정면 대결보다는 회피 전술과 우물을 파괴하여 적에게 물이 공급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써서 유리한 조건으로 임시 휴전을 이끌어냈다. 술탄 마스우드는 니샤푸르에서 겨울을 지내고 나서 다시 한번 셀주크 집단에 결정타를 입히려는 시도로써 10만 병사를 이끌고 다시 투스 내지 사라흐스 방면으로 진격했다. 이때 역시 셀주크 집단은 우물을 파괴하여 가즈니 군이 물이 풍부한 단단칸 방면으로 이동하도록 만들었으며 단단칸 성채 앞의 벌판에서 이미 내부 기강이 무너져 술탄의 명령도 안 통하고 분란이 일어난 가즈니 군을 패배시켰다. 회력 431년 라마단(1040년 5월) 셀주크의 토그릴 벡과 차으르 벡의 지도 하에 셀주크 군이, 중무장을 했지만 사기가 낮은 가즈니 군과 3일간 싸워서 거둔 이 승전은 이전에 가즈니 왕조가 장악했던 후라산을 셀주크가 차지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셀주크 국가의 수립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전투가

끝난 날 토그릴 벅은 셀주크 부족장들로부터 술탄으로 추대되었고 주변 군주들에게 승리를 알리는 서신(fetihname)이 발송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단단칸 사바쉬, 단단간 전투
- 다국어 표기 Dandanakan Savaşı(튀르키예어), Battle of Dandanqan(영어)
- 연관 검색어 가즈니 왕조, 셀주크
- 참고문헌(온라인) C. E. Bosworth, «Dandankan» Encyclopaedia of Islam (Brill) 2nd edition (Online edition)
https://referenceworks.brillonline.com/entries/encyclopaedia-of-islam-2/dandanakan-SIM_8457?s.num=0&s.f.s2_parent=s.f.book.encyclopaedia-of-islam-2&s.q=Dandankan
- 참고문헌(오프라인) Ali Sevim, «Dandanakan Savaşı» TDV İslam Ansiklopedisi, Vol. 8 1993, pp.456~457.

I A177 | 담간 미너렛

- 시기 A.D. 1000년~A.D. 15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이란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건축 ● 유형 소분류2 미너렛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Damghan Minaret

담간 미너렛(Damghan Minaret)은 11세기 건설된 담간 금요 모스크 북동쪽에 위치해 있다. 담간 금요 모스크는 11세기에 건설된 모스크로 지진으로 인해 대부분이 훼손되었고 19세기에 일부 복원되었다. 셀주크 시대의 원형을 간직하고 있는 미너렛과 모스크 건물 일부가 오늘날까지 전해져 내려 온다. 미너렛에 남은 석문에는 모스크가 1058년도에 건설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모스크는 북동쪽 면을 바라보며 건설되었다. 중앙에는 직사각형의 중정이 자리하고 있으며 세 개의 이완이 존재한다. 본래 이 미너렛은 이 모스크에서 분리된 형태로 건설되었으나 복원 과정에서 건물과 결합하게 된다.

미너렛은 높고 가늘며 원통형을 취하고 있다. 중앙에는 넓은 글자 띠가 있어, 밝은 파란색 또는 터키석 색 유약을 바른 벽돌로 쿠픽 서체의 장식을 만들어냈다.

미너렛의 최상단부에는 벽돌로 만든 무카르나스 장식의 발코니가 있던 흔적이 남아 있으며



담간 미너렛

이곳에 코란 구절이 적힌 장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외의 부분은 다섯 개의 가느다란 띠로 이루어져 있으며, 벽돌을 교차 배치하여 마름모와 기하학 문양으로 장식했다.

이 미너렛이 있던 담간 금요 모스크 등은 대다수 훼손되었으나, 미너렛을 장식한 유약을 바른 벽돌은 대 셀주크 시대 초기 타일 예술의 발달을 엿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유적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담간 미나렛
- 다국어 표기 Damgan minare(튀르키예어), Masjid-i Jami'-i Damghan(페르시아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ne.jp/asahi/arc/ind/2_meisaku/47_damgan/xmin_eng.htm
- 참고문헌(온라인) <https://archnet.org/sites/1602>
- 참고문헌(오프라인) Cezar, Mustafa. Anadolu Öncesi Türklerde Şehir ve mimarlık, Ankara: İş Banka, 1977. Aslanapa, Oktay. Türk sanatı, İstanbul: Remzi Kitabevi, 2015.

I A178 | 대 크즈 칼라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투르크메니스탄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 1 건축 ● 유형 소분류 2 성벽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Greater Kyz Kala

대 크즈 칼라(Greater Kyz Kala)는 술탄 산자르 영묘에서 남서쪽으로 약 1.4km 떨어진 곳에 건설되었다. 이 건물은 ‘성’이라는 뜻의 ‘칼라(kala)’로 불리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저택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아마도 메르브의 고위층 또는 주지사 등이 사용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건물은 7세기 초에 처음 건설되었고 12세기까지 보수 및 증축을 지속했다.

지면에서 2m 높이 위에 건설된 이 건물은 45.5mx36.2m의 직사각형 평면으로 되어 있으며 높이는 약 12m 가량이다. 건물의 각 모퉁이마다 목재로 된 단을 굽지 않은 진흙 벽돌로 연결했으며, 이렇게 만들어진 벽 위에는 걸을 수 있는 길이 있었다. 이 단과 난간은 침략군이나 대규모 군중을 공격 또는 방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건물은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작고 벽에는 총안이 없기도 하다.

고고학적 발굴 조사에 따르면 내부에는 38.6mx32.1m 가량의 공간이 있었다. 작은 방이 중정을 둘러싸고 있었으며 남쪽에는 큰 방이 있었다. 이 공간 외부에 나 있는 작은 구멍은 빛과 환기를 위한 창문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북서쪽 모퉁이에 있는 계단은 중정 주변을 둘러싼 2층으로 이어졌다. 석고 벽화 파편이 발견된 2층은 고위층이 생활 공간이나 응접실로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고, 아래층은 하인의 숙소나 주방, 그 외 저장이나 보조 기능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건물의 벽이 튼튼한 것으로 보아 볼트형 지붕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건물은 당대의 해당 지역 비종교 건축의 형태를 관찰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울리 그즈 갈라, 울루 크즈 갈라
- 다국어 표기 Uly Gyz gala(투르크멘어), Büyük Kız Kale(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소 크즈 칼라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orientalarchitecture.com/gallery/turkmenistan/merv/greater-kyz-kala/photos/greater-kyz-kala03.jpg>
<https://www.orientalarchitecture.com/sid/1329/turkmenistan/merv/greater-kyz-kala>
- 참고문헌(온라인) <https://www.orientalarchitecture.com/sid/1329/turkmenistan/merv/greater-kyz-kala>
<https://whc.unesco.org/en/list/886/>
<https://www.ai-journal.com/article/10.5334/ai-395/>
<https://www.nationalgeographic.org/media/greater-kyz-kala/>
- 참고문헌(오프라인) Dani, Ahmad H., et al. History of Civilizations of Central Asia. Paris: UNESCO, 1992.

I A179 | 대래밴트 칸국

- 시기 A.D. 1500년 ~ A.D. 18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아제르바이잔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국가
- 유형 소분류2 왕조
- 집필자 최선아 (자문위원 : Əli Şamil)
- 라틴 문자 Dərbənd xanlığı

대래밴트 칸국(Dərbənd xanlığı)은 아제르바이잔의 북동쪽, 카스피해 연안의 평원과 대캅카스 산맥의 동쪽 경사면에 약 7,000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을 차지하던 국가로 1747년부터 1806년

까지 존속했다. 대르밴트 칸국을 세운 군주는 매희매드히세인 칸(Məhəmmədhüseyn xan, 재위: 1747년~1765년)이다. 대르밴트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요충지로, 주요 캐리밴 남-북 경로는 대르밴트를 반드시 통과해야 했다.

1722년에 카스피해로 원정을 떠난 표트르 1세는 사파비조의 약화를 틈타 대르밴트 시를 점령했으나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지는 못했다. 나디르 샤(Nadir Şah)는 다게스탄으로 진군하여 중앙 정부에 복종하지 않는 지역 봉건 영주들을 엄중히 처벌하고 이 지역에서 러시아 군대를 몰아내고 있었다. 그러나 나디르 샤의 처벌은 다게스탄 봉건 영주에 미친 러시아의 영향을 감소시키지 못했다.

대르밴트 칸국을 수립한 군주 매희매드히세인 칸은 자신의 권력을 높이고 이웃한 봉건 영주의 공격을 막기 위해 엄격한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이러한 징벌적 조치는 오히려 피지배자들의 불만을 야기시켰다. 1759년, 대르밴트인들은 구바 칸국의 패탈리 칸(Fətəli xan)에게 도움을 청했다. 구바의 패탈리 칸은 대르밴트에서 군사 작전을 수행하고, 도시민의 도움으로 대르밴트의 요새를 점령했다. 이후, 대르밴트 칸국은 구바 칸국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 패탈리 칸은 매희매드히세인 칸이 사람들을 억압하고 통치에서 이슬람법을 위반했다고 비난하며 두 눈을 뽑은 후 먼저 구바, 다음으로 바쿠의 감옥에 가두었다. 대르밴트에서 아스타라까지 국경을 확장한 패탈리 칸의 통치 동안, 대르밴트에서는 상대적으로 평화롭고 경제적인 발전이 시작되었다. 대르밴트는 구바 칸국(Quba xanlığı)의 두 번째 중심지가 되었다.

대르밴트 칸국과 바쿠 칸국을 복속시킨 패탈리 칸의 구바 칸국은 1765년부터 1768년까지 샤마흐 칸국과 전쟁을 벌였고, 패탈리 칸은 샤마흐의 점령 영토 관리를 그의 형제 압둘라 베이(Əbdulla Bəy)에게 맡겼다. 패탈리 칸을 분쇄하고 피었던 봉건 영주들은 연합하여 1774년 공격을 감행했고 가브두산(Gavduşan) 전투에서 패탈리 칸은 부상을 입게 되었다. 그는 대르밴트로 후퇴하고 싶어했으나, 패탈리 칸의 처남인 아미르 햄재(Əmir hənzə)의 군대가 길을 막았고 그는 살얀(Salyan)으로 후퇴했다. 아미르 햄재는 연합군의 수장으로 대르밴트 방향으로 이동하여, 대르밴트의 방어를 이끌고 있던 패탈리 칸의 아내이자 햄재의 여동생 투투 비개(Tutu Bığə)에게 패탈리 칸이 전투에서 사망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투투 비개는 형제의 거짓말을 믿지 않고 성벽 근처에서 발포하라고 명령했다. 햄재는 군대를 요새 성벽에서 자리를 옮긴 채 대르밴트를 약 9개월 동안 포위했다. 그사이 패탈리 칸은 바다를 통해 대르밴트로 돌아왔다. 당

시 메뎀(Medem) 장군이 이끄는 러시아군이 카라가이탁에 도착했다. 그들은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정회원 그멜린(S. Gmelin)의 죽음을 초래한 아미르 햄재를 처벌할 계획이었다. 이를 이용하여 패탈리 칸은 메뎀 장군에게 적에 대하여 군대를 통합하도록 제안했다. 메뎀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허가 없이 패탈리 칸을 돕게 되었다. 패탈리 칸은 적군을 대르밴트 요새에서 몰아낼 수 있었다.

아가 메헴메트 칸 카자르(Ağa Məmməd xan Qacar)가 원정을 준비할 때, 대르밴트, 갠재(Gəncə) 및 시애키(Şəki)의 칸들은 그에게 사절을 보내서 복종을 약속했다. 러시아 장군 주보브(Валери́ан Алекса́ндрович Зубов)는 1796년 4월 18일 아가 메헴메트가 호라산의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갔을 때 아제르바이잔을 공격했다. 러시아군은 사벨리에프(Saveliev)가 포위한 대르밴트에 접근했으나, 아제르바이잔 칸들은 대르밴트에 돕지 않았다. 바쿠 칸인 휘세인굴루 칸(Hüseynqulu xan)만이 두 개의 대포를 보냈다. 외부의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되자 대르밴트 사람들은 분열되었다.

구바 칸국은 대르밴트를 방어하려고 했으나 불가능했다. 주보브의 명령에 따라 러시아 포병이 요새 벽을 파괴했고, 셰이칼리 칸(Şeyxəli xan)은 항복을 선언했다. 주보브는 대르밴트의 행정을 셰이칼리 칸의 친러시아파 누이인 패리새 하눔(Pərisə xanım)에게 맡기고 직접 바쿠로 진군했다.

아제르바이잔 칸들은 러시아군에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고 시애키 칸국과 갠재 칸국은 러시아 밑에 들어가려 했다. 주보브는 예카테리나 2세의 사망으로 인해 남 캅카스에서 북 캅카스로 철수했다. 아가 메헴메트 칸 카자르가 암살을 당한 후 러시아군은 다시 남 캅카스를 공격했다. 러시아는 1806년에 대르밴트 요새를 점령하고 대르밴트 칸국을 완전히 해체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대르밴드 칸국, 데레벤트 칸국, 데르벤트 한국, 다르반드 한국

● **다국어 표기** Dərbənd xanlığı(아제르바이잔어), Derbent Hanlığı(튀르키예어), Darband xonligi(우즈베크어), Дербентское ханство(러시아어), Derbent Khanate(영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Azərbaycan Tarixi. 7 Cildə. III Cild. Bakı: “Elm”. 2007. Səh. 692 + 56 Səh.

Azərbaycan Tarixi. XIII–XVIII Əsrlər. III Cild. Bakı: “Elm”. 2007. Səh. 692 + 56 Səh Bakıxanov, Abbasqulu Ağa. Gülüstanı-İrəm (Az.). Əsgərli, M. Tərəfindən Tərcümə Olunub. Bakı: Minarə. 2000. 224 Səh.

Bayramova, Nailə. Şamaxı Xanlığı. Bakı: “Təhsil”. 2009.

Dərbənd Şəhərinin Kameral Təsviri. 1831–Ci il (Tərcümə Və Tərtib Edən, Giriş Mətni, Qeyd Və Şərhlərin Müəllifi Nazir

Əhmədli). Bakı, “Elm Və Təhsil” 2020. 328 Səh.

Fərzəliyev Şahin. Quba Xanlığı: Əhali Tarixi Və Azadlıq Mücadiləsi, Bakı:, “Elm” Nəşriyyatı, 2012, 336 Səh.

Qarabağnamələr (Çevirənlər Və Nəşrə Hazırlayanlar.: Nazim Axundov, Akif Fərzəliyev): I kitab, Bakı, Şərq-Qərb Nəşriyyatı, 2006. Səh. 216.

Qarabağnamələr (Çevirənlər Və Nəşrə Hazırlayanlar.: Nazim Axundov, Akif Fərzəliyev): II Kitab, Bakı, Şərq-Qərb Nəşriyyatı, 2006. Səh. 288.

Qarabağnamələr (Çevirənlər Və Nəşrə Hazırlayanlar.: Nazim Axundov, Akif Fərzəliyev): III Kitab, Bakı, Şərq-Qərb Nəşriyyatı, 2006. Səh. 248.

Hacınski, İsgəndər Bəy. Qubalı Fətəli Xanın Həyatı. Bakı: Azərbaycan SSR Elmlər Akademiyası Nəşriyyatı. 1959. Səh. 228 Səh.

Mustafazadə, Tofiq. Quba Xanlığı . Bakı: Elm. 2005. 480 Səh.

Mustafayev, C. XVIII Əsrin Sonu – XIX Əsrin Əvvəllərində Azərbaycan Xanlıqlarının Rusiya ilə Diplomatik Əlaqələri. Azərbaycan Beynəlxalq Çoxcəhətli Qarşılıqlı Əlaqələrdə, 2-Ci Bakı Beynəlxalq Simpoziumunun Məruzələri. Bakı: “Elm”. 1997.

Tahirzadə Ədalət. Ağaməmməd Şah Qacar, Bakı, “Kür” Nəşriyyatı, 2002.

I A180 | 대방광불화엄경

● 시기 A.D. 1000년 ~ A.D. 1500년 ● 지역 동아시아 ● 나라 중국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불교 ● 유형 소분류2 서적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m(a)xa vaipulya budapadmalangkr

『대방광불화엄경』은 보통 『화엄경』으로 불린다. 원전은 산스크리트어로 세 종류의 한역이 있는데, 불타발타라 번역의 60권, 실차난타의 80권, 반야의 40권이다. 이를 구분하여 각각 「육십화엄」, 「팔십화엄」, 「사십화엄」으로 칭한다. 각 한역본의 마지막에 있는 입법계품과 십지품만 산스크리트어 원전이 남아 있다. 『화엄경』의 주 내용은 막 깨달은 불(佛)의 경지를 표현이다.

위구르어 번역본은 「팔십화엄」, 「사십화엄」 중 일부이다. 이 일부분도 베를린 투르판 컬렉션, 둔황학 연구소와 간수 박물관 컬렉션, 중국 문화 연구원 등과 같은 연구소 및 박물관과 그 외 개인이 소장하고 있다. 특히, 베를린 투르판 컬렉션에는 연꽃 그림으로 장식된 장이 남아 있으며, 위구르어로 타이틀 ‘avatansaka’가 적힌 장 역시 남아 있다. 이와 함께 다른 장에는 한자 화(華), 즉 화엄경을 의미하는 한자로 제목이 적힌 장이 있다. 일본의 오타니 원정대가 가져왔던

판본의 원본은 남아 있지 않고 현재 사진으로만 남아 있다.

사십화엄 번역 일부는 13세기 위구르 학자 안장(Anzang, 安藏)이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안장은 당시 칭기즈 칸(Genghis Khan, 재위: 1206년~1227년)의 손자였던 아리크부카(Ariq Böke, 1219년~1266년)의 요청으로 번역했다.

『화엄경』의 위구르어 번역본은 당시 위구르어의 풍부한 어휘 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종교 용어 사용법을 보여주고 있어 언어, 문학적으로나 종교적으로도 가치가 큰 자료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화엄경

● 다국어 표기 Avatamsaka-sutra(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안장

● 참고문헌(오프라인) Kılıç, Ayşe. Budist Dönemi Türk şiiri üzerine incelemeler; An-tsang'a ait bir şiir metni:Metin,tercüme, notlar, dizin, tıpkıbasım (basılmamış yüksek lisans tezi), Ankara, 2012.

Karaayak, Tümer. “Eski Uygurca Avatamsaka-sūtra Üzerine Yapılan Çalışmalar”, Akademik Dil ve Edebiyat Dergisi, 3 (3), 354~373.

Kitsudo, Koichi. “New Light on the Huayan jing in Old Uighur from the Krotkov Collection and Yoshikawa Photographs”, Essays on the Manuscripts Written in Central Asian Languages in the Otani Collection: Buddhism, Manichaeism, and Christianity, 2017, Kyoto, 105~153.

I A181 | 대완

● 시기 B.C. ~A.D. 1000년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 유형 지리 ● 유형 소분류1 민족
● 집필자 김재윤 ● 라틴 문자 Dayuan

대완(Dayuan)은 기원전 3세기부터 기원후 5세기까지 현재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 영토에서 살던 고대 민족이다. 페르가나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했다. 다완(대완)이라는 명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 중국 역사서에 페르가나의 국가를 다완이라고 했는데, 투르크어로 ‘매우 아름다운 그림 같은 장소’라는 뜻이다. 페르시아인은 같은 뜻으로 이를 ‘소그드’라

고 불렀다. ‘大宛’이라는 뜻 그대로 ‘Great yuon’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 지역의 강력한 국가에 대해서는 기원전 3세기 중국 사료에서 확인된다. 기원전의 수도는 Ershi(Ura-Tyube, Andijan 지역의 현대 Markhamat 근처)이다. 언어는 소그드 민족의 언어에 가깝다. 주민들은 대부분 백인으로 깊은 눈구멍과 덩수룩한 턱수염이 있었다. 대완이 존재한 시기에 흉노가 북아시아의 중앙을 차지하고 남쪽에는 한나라, 동쪽과 서쪽에는 소국들이 존재했다. 흉노의 북쪽에는 혼유, 굴역, 정령, 격곤, 신려, 서쪽에는 누란, 호손, 호갈, 다완 등의 소국들이 있었고, 흉노를 견제하기 위해서 서로 동맹을 맺거나 공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완에 대한 기록은 중국의 『史記』에 남겨져 있다. 한나라 효문제(기원전 128년)가 장건(張騫)을 대완으로 파견 보냈다. 흉노에 대항하고자 월지와 동맹을 맺기 위해 그를 보낸 것이다. 하지만 그의 동맹 시도는 실패했다. 당시 월지 왕은 흉노족 또는 여왕에 의해서 살해된 왕의 어린 왕자가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완에 대한 기록은 5세기경에 사라졌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다완, 소그드
- 다국어 표기 大宛(한자), даюань(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페르가나, 흉노, 장건, 월지
- 참고문헌(오프라인) Боровкова Л. А. Запад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во II в. до н.э. — VII в. н.э. (историко-географический обзор по древнекитайским источникам); Гумилёв Л. Н. История народа хунну.—М.: ООО «Издательство АСТ»: ОАО «ЛЮКС», 2004. С 史記：列傳：大宛 列傳-中國 哲學 書 電子 化 計劃

I A182 | 대혼란의 시대

- 시기 A.D. 1000년 ~ A.D. 1500년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사건
- 집필자 김근식 ● 라틴 문자 Great troubles

‘대혼란의 시대’는 1359년부터 1380년 사이 킵차크 칸국에서 25명 이상의 칸이 교체된 시기를 지칭하는 말이다. 이때 여러 울루스들이 독립하려고 시도했다. 러시아 역사 문헌들에서는 이

시기를 ‘대혼란의 시대(Великая Замятня)’라고 불렀다. 1357년 이전 자니벡 칸이 살아 있을 때 시반 울루스는 자신의 칸 밍 티무르를 추대했다. 1359년 자니벡의 아들 베르디베크 칸의 암살은 바투 왕조의 종말을 가져왔고, 이는 주치 가계 대표자들이 수도 사라이의 권좌를 주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중앙 권력이 불안한 시기를 이용해 칸국의 몇몇 영지들은 시반 울루스처럼 자신들의 칸을 옹립했다. 참칭자 쿨파가 제위의 권리를 주장하자 텀니크 마마이는 바로 그를 의심했다. 그 결과 우즈베크 칸 시대의 뛰어난 장군 이사타이의 손자인 마마이는 킵차크 칸국의 서부 지역에 자신의 울루스를 만들 수 있었다. 징키스칸의 일족이 아닌 마마이는 칸의 지위를 사용할 수 없었고 베클라르베크의 지위에 그쳐야 했다. 밍 티무르의 자손인 울루스 시반의 칸들은 수도 사라이에 발판을 마련하려 했지만 실제로 성공하지는 못했고, 통치자는 계속 바뀌었다. 다른 장군들의 자손들도 마마이처럼 독립을 시도했다. 이사타이의 손자이기도 한 텅기스-부가는 시르다리에(Сырдарье)에 독립적인 울루스를 만드려 시도했다. 하지만 1360년 텅기스-부가를 반대한 주치 일족들이 그를 살해하고 자신들의 칸을 옹립함으로써 분리 정책을 지속했다. 역시 이사타이의 손자인 살첸(Сачен), 난구다이 장군의 손자 후세인-수피(Хусейн-Суфи), 리투아니아 공후 올게르드(Огьгерд) 등이 할거했다. 1377년~1380년 마베란나흐르(지금의 우즈베키스탄 지역)의 아미르란 티무르 장군의 도움을 받은 칭기즈 칸 일족의 일원인 토흐타미쉬가 시르다리에 울루스와 사라이의 왕좌를 차지하면서 킵차크 칸국의 ‘대혼란의 시대’는 끝나게 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벨리카야 자마티나
- 다국어 표기 Великая замятня(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킵차크 칸국, 울루스, 티무르, 토흐타미쉬, 마마이, 베클라르베크
- 참고문헌(오프라인) Сафаргалиев М.Г. Распад Золотой Орды. Саранск, 1960.

I A183 | 더스톤(우즈베키스탄)

● 시기 기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구비문학 ● 유형 소분류2 서사시
● 집필자 오은경, Guzal Mihrayeva ● 라틴 문자 Doston

서사시 장르라 할 수 있는 더스톤(Doston)은 중앙아시아를 비롯하여 아제르바이잔과 튀르키예 등지에서 내려오는 구비문학 장르이다. 여러 나라에 퍼져 있는 장르이지만, 우즈베키스탄에서 전해오는 더스톤은 우즈베크만의 독특한 내용과 형식이 있다. 음악에 있어서도 일정한 스타일이 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민중 서사시, 신화, 더스톤은 악기 반주와 함께 낭송된다.

더스톤이 형성되고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데는 노래하는 바흐쉬(baxshi), 더스톤치(dostonchi: 더스톤 연주가), 셰이르(shoir: 시인), 지러브(jirov: 해설자)와 유즈버쉬(yuzboshi: 우두머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더스톤은 바흐쉬(baxshi), 더스톤치(dostonchi)와 민속 시인들이 두타르(dutor)와 돔브라(do'mbra)와 같은 전통 악기로 반주한다.

더스톤은 크게 1) 영웅서사시 2) 역사서사시 3) 낭만서사시 4) 종교서사시로 분류된다. 이외에 전쟁, 일상생활, 현대 생활이나 자전적 내용을 다루는 서사시도 있다.

영웅서사시는 우즈베크인의 유목 생활을 바탕으로 등장했다. 영웅서사시의 주인공들은 주로 절대권력, 국가와 백성, 연인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다. 그 예로는 「알퍼미쉬(Alpomish)」, 「고로글리(Go'ro'g'li)」, 「루스탐헌(Rustamxon)」, 「유스프와 아흐마트(Yusuf va Ahmad)」, 「알리베크와 볼리베크(Alibek va Bolibek)」, 「서힉크런(Sohibqiron)」 등이 있다.

역사 서사시는 우즈베크인뿐만 아니라 다른 중앙아시아 민족들이 겪었던 역사적 사건이나 일부 역사적 인물들의 활동을 기반으로 한다. 대표적으로는 「샤이바니칸(Shayboniyxon)」, 「툴롬비이(Tulumbiy)」, 「이스칸다르너마(Iskandarnoma)」와 같은 작품이 있다. 낭만 서사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사랑, 전설 등과 관계가 있는 경우가 많다.

「터히르와 주흐라(Tohir va Zuhra)」, 「쿤투그미쉬(Kuntug'mish)」, 「어썸 가립과 셔흐사남(Oshiq G'arib va Shohsanam)」, 「쉬린과 샤카르(Shirin va Shakar)」, 「라브산과 줄후머르(Ravshan va Zulhumor)」, 「어르지굴(Orzigul)」, 「쿤두즈와 울두즈(Qunduz va Yulduz)」 등이 그 예이다.



더스툰을 구연하는 우즈베키스탄 바흐쉬들

작가미상의 구비전승의 형태가 아니라 분명하게 작가를 알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알리세르 나보이의 「하이랏 올 아브러르(Hayratul abror)」, 「파르허드와 쉬린(Farhod va Shirin)」, 「라일리와 마즈눈(Layli va Majnun)」과 같은 기록 문학 작품을 들 수 있다.

우즈베크 더스텐은 『오르혼 비문』, 『예니세이 비문』, 『아베스타』, 『투르크어 대사전(Devonu lug'otit turk)』, 『현자 코르크트의 서(Kitobi dadam Qo'rqut)』, 『알퍼미쉬(Alpomish)』, 『고로 글리(Go'ro'g'li)』와 같은 작품 등과 직접적 관계를 맺으며 발전의 맥을 이어왔다고 볼 수 있다.

현대 더스텐에서는 신화와 전설도 적극적으로 이용한다. 에르킨 베희더프(E.Vohidov)의 「영혼들의 반란(Ruxlar isyoni)」, 압둘라 어리포프(Abdulla Oripov)의 「천국으로 가는 길(Jannatga yo'l)」과 같은 더스텐에서는 이러한 경향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갈 등과 대화 같은 드라마적 요소와 묘사도 많아졌다. 에르킨 베희더프(E.Vohidov)의 「이스탄불의 비극(Istanbul fojeasi)」, 어먼 맛전(Omon Motjon)의 「용감한 마흐무드(Paxlavon Mahmud)」와 같은 작품에서 이런 특징이 두드러진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더스탄, 데스탄, 다스탄

● 다국어 표기 Doston(우즈베크어), Dastan(아제르바이잔어), Дастан(카자흐어), Destan(튀르키예어), Дастан(러시아어), Dastan(영어)

● 연관 검색어 다스탄, 데스탄, 바흐쉬, 오잔, 아시옥, 카이치

● 참고문헌(오프라인) 유네스코아태무형문화센터, 『중앙아시아의 구전전통과 서사시』, 2016.

Aminov va boshqalar, *O'zbekiston milliy ensiklopediyasi*. Toshkent: O'zME Davlat ilmiy nashriyoti, 2000.

Abdullaev R. S., *O'zbek mumtoz musiqasi*. Toshkent: Yangi nashr, 2008.

I A184 | 더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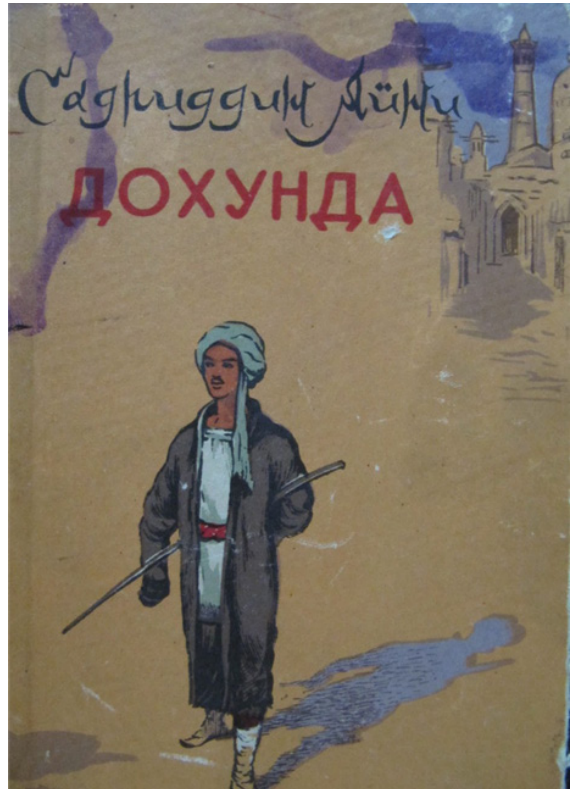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작품 ● 유형 소분류2 소설
● 집필자 오은경, Guzal Mihrayeva ● 라틴 문자 Doxunda

더훈다(Дохунда)는 타지크어로 ‘산에서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소설 『더훈다(Doxunda)』는 우즈베크와 타지크 소비에트 문학의 창시자 중 한 명인 샷릿딘 아이니(Sadriddin Ayni)가 1930년 카잔에서 우즈베크어로 출간한 작품이다. 러시아 리얼리즘 문학의 영향을 받은 이 소설은 당시 현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다양한 사건과 독특하고 개성 있는 등장인물들을 능숙하게 다루고 있다.

소설은 총 5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옷거르(Yodgor)와 그가 사랑하는 여인 굴너르(Gulnor)의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이 묘사된다. 2장에서는 옷거르의 부하라에서의 삶, 이어 군복무와 체포되는 과정을 묘사한다.

3장은 1917년 2월부터 1920년 부하라 혁명까지의 혁명 투쟁에 관한 이야기이다. 4장은 압제자들과의 싸움에 옷거르와 굴너르가 참여하는 것이 묘사된다. 마지막 장에서는 소비에트 투르키스탄 공화국의 사회주의 건설이 연대기적으로 서술된다.

소설의 주인공인 옷거르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부하라에서 살게 된 이후 모든 부와 토지가 소수의 착취자에게 속하는 사회 시스템의 부당함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그러나 더 나은 삶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다. 세월이 흘러 옷거르는 감옥에서 타지크인 압둘라허자(Abdullahhoja)



『더훈다(Doxunda)』 표지

라는 진정한 혁명가를 만나게 된다. 혁명가는 옷거르에게 많은 것을 알게 해주고 인생의 올바른 길을 보여준다. 에미르의 관리인들과 종교인들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겪고 있는 부당한 일들에 대해 알게 된 옷거르는 개인적인 원한과 슬픔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의 전체적인 불행한 현실에 눈을 뜨게 된다. 작가는 개인적 원한으로 괴로워하던 사람이 민중의 자유와 행복을 대변하는 운동가로 변신하는 과정을 옷거르를 통해 보여준다. 옷거르는 내전을 통해 지도자로 성장한다.

소설의 또 다른 주인공인 굴너르는 타지크 문학에서 매우 신선하고 흥미로운 인물이다. 소설 초반부 굴너르는 순진한 타지크 여성이었으나, 시간이 흘러 바스마치 운동가들과 싸우는 용감한 여성으로 변신한다.

『더훈다(Doxunda)』는 당시 타지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역사에서 중요한 시기를 배경으로 다루고 있다. 이 소설은 러시아어로 번역되었으며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도훈다
- 다국어 표기 Doxunda(우즈베크어), Дохунда(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샤틀린 아이니, 바스마치
- 멀티미디어 링크 <http://kolekzioner.net/modules/smartsection/item.php?itemid=223>
- 참고문헌(오프라인) Abdumavlyanov A., *Istoriya uzbekskoy literature*, Tashkent, Uchitel, 1966.
Sadridin Ayni, *Doxunda*, O'zSSR: Goslitizdat, 1964.

I A185 | 데데

- 시기 기타 ● 지역 기타 ● 나라 기타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이슬람 ● 유형 소분류2 칭호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Dede

데데 코르크트(Dede korkut)와 그의 다른 이름인 코르크트 아타(Korkut Ata)에서 보이듯, 투르크인들은 경험이 많고, 사람들에게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지혜로운 인물에게 ‘할아버지’ 또는 ‘조상’의 의미를 지닌 ‘아타(ata)’ 또는 ‘바바(baba)’, ‘데데(Dede)’라고 부르곤 했다. 데데

(Dede)는 『고대 투르크어 대사전(튀르키예어 표기: Divanü Lügat-it Türk)』에서 ‘아버지’라는 의미로 사용된다고 밝히고 있다. 데데는 페르시아어식 복수형인 데데간(dedegân)의 형태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슬람화가 된 투르크인들은 데데를 이슬람의 특정 종단의 일정 단계에 오른 이에게 사용하게 되었다. 특히 메블레위, 벡타슈, 알레비와 같이 주로 아나톨리아반도에 널리 퍼진 수피종단에서 사용된다. 언어권에 따라 데데 대신 같은 의미의 바바(baba), 버버(bobo) 등을 사용하기도 한다. 여기서부터는 현대 튀르키예어 기준으로 설명한다.

메블레위 종단에서는 종교적인 맹세를 하고 천 백 일의 봉사를 끝낸 후 40일간의 고행을 하고 나서 승직에 오르며 데르가흐(dergâh: 특정 종단의 예배소)의 주인이 된 이에게 데데 또는 데르비슈(dervîş)라는 호칭을 부여한다. 데데 수준에 도달한 이들을 위하여 특별한 의식을 준비하기도 한다. 메블레위에서는 밑에서부터 무히브(muhib: 수피교도가 아니지만, 수피에 친근함을 느끼는 이들), 데르비슈(Dervîş: 수피 종단에 입문하여 수피 생활을 하는 이들), 셰이흐(şeyh: 제자들을 지도하는 위치), 할리페(halife: 셰이흐의 이름으로 제자를 인도하다 사망 후 오르는 위치)의 다섯 단계가 존재하는데, 데데는 밑에서부터 두 번째인 셈이다.

벡타슈의 경우 신자들의 단계가 아시으크(Âşik: 음유시인), 탈리브(tâlib: 신을 믿고 헌신하는 자), 무히브(muhib), 데르비슈(dervîş), 바바(baba: 제자를 인도하는 위치), 할리페(halife), 데데 바바(dede baba) 등이 있다. 종단의 창시자인 하즈 벡타슈 벨리(Hacı Bektaş Veli, 1209년~1271년)를 데데 바바라고 부르기도 했으나 생존 당시 이러한 호칭은 존재하지 않았기에 최초의 데데 바바, 즉 종단의 지도자는 세르셈 알리 바바데데(Sersem Ali babadede, ?~1588년)이다.

알레비 종단과 크즐바슈에서도 데데를 사용하는데, 이들은 종교적 지도자이지만 이들은 반드시 데데의 후손(ozakzade)이어야 하며, 데데는 일반적으로 4대 칼리프 알리(Ali ibn Abi Talib, 재위: 655년~661년)의 혈통으로 보고 있다. 이들 데데는 알레비와 크즐바슈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종교적 맹세를 받고, 의식을 관리하고, 종단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한 불화를 조정하거나 판단하는 역할을 하며, 죄인들에게 경고를 하기도 한다.

아나톨리아반도의 수니 이슬람 교인에게도 ‘데데’는 매우 중요하다. 그가 사망한 후에 그의 묘지를 방문하여 초를 태우고 소원을 빌기도 하며 무덤을 훼손하지 않는다. 정통 이슬람교에서는 인정받지 못하지만, 아나톨리아 민중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이런 전통이 남아 있다.

이외에도 할베티(Halveti)파와 바이라미(Bayrami)와 같은 종단에서도 데데라는 호칭을 사용한 이들이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보보, 바바, 아타

● 다국어 표기 Dede(튀르키예어), bobo(우즈베크어), baba(아제르바이잔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Uludağ, Süleyman. “Dede”, TDV İslâm Ansiklopedisi cilt 9, İstanbul: TDV, 1994, p. 76.

Taeschner, FR. “Dede” The Encyclopedia of Islam (ed:B. LEWIS, CH. PELLAT AND J. SCHACHT), New Edition, Volume II C-G, Leiden: E. J. Brill, 1991, pp.199~200.

I A186 | 데레스투이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유적 ● 유형 소분류2 무덤
● 집필자 김재윤 ● 라틴 문자 Derestuy

데레스투이 유적은 울란우데에서 200km 떨어진 드지다 강의 계곡에 위치한다. 이 유적의 입지는 다른 흉노 무덤의 입지와 유사한데, 완만한 계곡의 경사면에 무덤이 떼를 이루고 있다. 1900년에 탈코 그린체비치가 26개의 무덤을 발굴했다. 그 뒤에 1920년대부터 소소노프스키, 오클라드니코프, 코노발로프가 발굴작업을 이어갔다. 유적은 계곡의 경사면을 따라서 위치하는데, 북쪽과 남쪽 그룹이 나뉘져 있다. 무덤은 지표면에 고리 모양으로 돌이 드러나 있는 형태이다. 무덤구덩이에는 목제로 된 무덤방과 관이 있는 구조이다. 무덤방과 관은 나무를 납작하게 자른 것이다. 무덤구덩이의 상부는 돌로 채운 것이다. 무덤의 상부 구조에 따라서 돌을 두텁게 쌓았으며 부정형인 것과 돌이 방형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구분된다. 전자의 무덤 크기는 4m×4m~12m×12m까지 있다. 대체로 1층~3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후자의 무덤 크기는 4m×4m 정도 되고 중간의 높이는 0.2m~0.3m 가량 된다. 몇몇 무덤은 지표면에 돌이 없이 무덤방만 확인되는 경우도 있다. 출토된 유물은 허리띠와 청동제 버클 장식, 의복, 토기, 구슬, 동북, 청동제 화살촉 등이 확인되었다. 가장 많은 유물은 남성과 여성의 허리띠 장식이다. 그 외에

도 청동제 재갈, 청동제 칼 등 많은 양의 무기가 출토되었고, 대부분 카흐타 박물관에 전시 중이다. 이 유적이 만들어진 것은 B.C. 3세기~A.D. 2세기로 추정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데레스투으, 데레스투우
- 다국어 표기 Дерестуй(러시아어), Derestuy(영어)
- 연관 검색어 흉노
- 참고문헌(오프라인) Миняев С.С. 2007 : Дырестуйский могильник. 2-е изд., доп. СПб: Филол. ф-т СПбГУ. 2007. 233 с., вкладка. (Археологические памятники сюнну. Вып. 3)

I A187 | 데르가흐

- 시기 기타 ● 지역 기타 ● 나라 기타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이슬람 ● 유형 소분류2 수피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Dergâh

데르가흐 또는 다르가흐는 페르시아어의 문을 뜻하는 ‘다르(دور)’와 장소를 의미하는 ‘가흐(گاه)’의 합성어이다. 수피즘 이슬람 종단의 창시자 또는 상급 셰이크들의 중앙 예배소이자 숙소 겸 교육 기관을 의미한다. 숙소와 예배소 이외에도 강의실이나 병원이 함께 건설되기도 한다. 데르가흐는 문화권이나 시대에 따라 텍케(tekke 또는 칸카 Khanqah), 아시타네(Asitane), 리바트(Ribat), 한카(hankah) 등과 혼용되기도 한다. 숙소의 기능이 없을 경우는 자비에(Zaviye)라고 칭한다. 예를 들어 오스만 제국의 경우 수피즘 교육 기관을 위한 장소를 일반적으로 ‘텍케’라고 불렀다.

인도 지역 이슬람에서는 성자나 수피즘 교단 창시자의 무덤이라는 의미가 더해져, 그들의 무덤이나 영묘와 함께 만들었다. 다른 문화권에서 유사한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나, 성자의 묘사가 필수는 아니다. 또한, 성자나 유명 인사의 영묘가 함께 있어도 앞서 언급한 다른 칭호가 사용되기도 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다르가흐, 데르가흐, 텍케, 한카, 칸카
- 다국어 표기 Dergâh(튀르키예어), Ханака(카자흐어), Xonaqoh(우즈베크어)
- 연관 검색어 텍케
- 참고문헌(오프라인) Ceyhan, Semih, “Tarikat ve Tekke Kavramlarına Dair” Türkiye’de Tarikatlar Tarih Ve Kültür, İstanbul: ISAM, 2015, pp.27~53.
 “DARGAH”, The Encyclopaedia of Islam(ed:B. LEWIS, CH. PELLAT AND J. SCHACHT), New Edition, Volume II C-G, Leiden: E. J. Brill, 1991, p. 141.
 Kara, Mustafa. “Tekke”, TDV İslam Ansiklopedisi Cilt, 40, İstanbul: TDV, 2011, pp.368~370

I A188 | 데르비쉬

- 시기 기타 ● 지역 기타 ● 나라 기타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이슬람 ● 유형 소분류2 신분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Darwish

데르비쉬는 ‘이슬람 신비주의 종단에 소속되어 삶을 알라에게 바친 사람’을 의미하며, 수피즘 승려, 수피즘 수도승 또는 이슬람 탁발승 등으로 번역되거나 ‘데르비쉬’를 그대로 사용하기도 한다. 데르비쉬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아직 밝혀진 바가 없다. 페르시아어 ‘문(門)’을 뜻하는 ‘다르(dar)’를 찾는 사람들에서 기원했다는 설, 페르시아어의 거지나 빈자를 뜻하는 단어에서 출발했다는 설 등이 있다. 모로코와 알제리 등지에서는 ‘신도들’이라는 의미의 아랍어 ‘쿠둔(Ikhwdn)’을 사용한다.

9세기에 영적, 정신적인 수행에 중점을 둔 무슬림은 이라크와 호라산 두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났다. 이라크에서 이들과 그들의 운동은 ‘타사우프(tasavvuf: 일반적으로 이슬람 신비주의, 수피즘으로 번역됨)’라고 불렸으며, 그 구성원은 수피라고 불렸다. 이들은 종교적이고 영적인 원칙을 중요시할 뿐만 아니라 의식, 전통, 의상과 같이 겉으로 보이는 부분 역시 중요하게 여겼다. 이와 반대로 호라산에서 이루어진 운동은 ‘말라마티야(Malamatiyya)’라고 불렸으며, 그들은 타사우프들이 중요시 여기는 의례적인 부분을 반대했다. 이라크의 타사우프 쪽이 더 위상이 높아지며, 말라마티야라는 단어는 차츰 사라지게 되었다. 다만, 말라마티야 경향의 데르비쉬들

은 어느 시대에나 존재했다.

초창기의 데르비쉬는 개인적 수행을 기반으로 했고, 한두 세대의 스승과 제자의 관계 정도만 존재했다. 12세기경부터 가르침의 경향과 차이에 따라 조직화되며 연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이어지며 타리카트(Tarikat, 또는 타리카 Tariqa), 즉 종단이 된다. 데르비쉬가 되고자 하는 이들은 각 종단의 규칙에 따라 자격 있는 선생(shaykh, murshid, ustddh, pir 등)의 지도 하에 입문자(murid)가 되고, 역시 규칙에 따라 일정 기간 수행을 하여 종단 내의 각 단계에 도달한다. 이들이 일정 단계에서 종단의 인정을 받으면 일종의 졸업장을 받고, 종단 내의 계보(silsila)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이 영적 계보는 일반적으로 무함마드까지 연결된다.

데르비쉬들은 영적이고 도덕적이며 지혜로운 셰이크들과 모스크, 일반 가정, 자비예와 같은 곳에서 만나 대화(수피즘에서 '대화'는 신에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신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 또한 리더의 지도에 따라 평화 속에서 대화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를 하며 영적인 발전을 이뤄 나간다. 이들은 금욕주의와 이기심을 누르려고 애쓰는 것으로 수행을 시작한다. 금식을 하고 침묵을 지키며 자는 것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예배와 알라의 이름을 외우며 하는 기도와 사색을 한다. 이는 욕망을 조절하고, 규칙적이며 훈련된 방식으로 사는 정신적이고 영적인 성숙함을 이루기 위한 방식이다. 데르비쉬들의 의복을 입은 자들은 이전처럼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행동할 수 없으며 고행은 필수였다. 거의 모든 수피즘 저서에서는 여행(방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전통이라고 말한다. 본질적으로 수피즘은 물질세계에서 영적 세계로의 영적 여행이다. 데르비쉬는 여행 중에 텍케, 자비예, 모스크와 같은 종교 시설이나 빈자를 위한 보급소, 폐허나 동굴과 같은 곳에 머물렀다. 이 여행의 목적은 고통을 겪고, 영혼을 어려움에 익숙하게 만들며 지혜로운 사람들을 만나 배우고 알라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다양한 것들을 보고 교훈을 얻는 것이다. 다만 의무는 아니기에 일부 데르비쉬는 한 장소에서 머물며 수행하기도 한다. 서구 사회에서는 메블라나 종단의 빙글빙글 도는 춤을 통해 데르비쉬가 알려졌는데, 실제 이러한 춤은 일부 종단의 데르비쉬만 수행한다. 일부 데르비쉬, 특히 특정 단계에 도달한 데르비쉬의 경우에는 이러한 여러 수행을 통해 황홀경에 도달하기도 한다.

9세기에 수피즘이 퍼지기 시작하며, 이슬람의 본질과 상충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거나 행동을 하는 데르비쉬 역시 출현했다. 이들은 샤리아 학자들로부터 비도덕적(ibahiyya: 종교적 규칙과 금지를 어기는 이들)이라고 비난받았으며, 다른 데르비쉬들로부터 외면받았다. 이로 인하

여, 수니 이슬람으로부터 받아들여진 수피즘과 그렇지 않은 수피즘으로 구분된다. 12세기에는 다양한 종단 소속의 데르비쉬나 아예 종단에 소속되지 않은 데르비쉬도 출현했다. 이들 중 기존 사회적, 도덕적 가치, 종교적 의무를 무시하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능력이 있다는 주장 등을 하는 데르비쉬는 기존 수니파 율레마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았다. 종단에 따라 여성 데르비쉬도 존재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다르비쉬, 다르위쉬, 데르위슈
- 다국어 표기 Derviş(튀르키예어), Дəрвиш(카자흐어), Dərviş(아제르바이잔어), Darvish(우즈베크어)
- 연관 검색어 실실라, 텍케, 모스크, 이마레트, 세마, 수피
- 참고문헌(오프라인) Yazıcı, Tahsin. “DERVİŞ”, TDV İslâm Ansiklopedisi cilt 9, İstanbul: 1994, pp.188~190.
Macdonald, D. B. “DARWISH”, The Encyclopaedia of Islam M VOLUME II C-G (ed:B. LEWIS, CH. PELLAT AND J. SCHACHT), Leiden — NewYork; E.J. Brill, 1991. pp.164~165.

I A189 | 데르틀리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시인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Metin Turan) ● 라틴 문자 DERTLI

18세기 오스만 제국은 정치와 문화적으로 변곡점을 맞이하는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었다. 연극이 시작됐고, 이야기꾼, 카라괴즈와 오르타오유누가 유행했다. 사회구조의 개혁에 따라 예술 단체도 변화하지 않으면 안됐다.

오스만 제국 수도인 이스탄불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 민중 시인들은 이스탄불 시인처럼 말하고 쓰려고 노력하던 시대였다. 이스탄불에서는 전통 사즈 시인에게 극진한 대우를 하면서 이들의 예술을 볼 수 있는 아시옥 커피 하우스를 만들기 시작했다. 17세기가 되자 이스탄불에는 세마이 커피 하우스가 생겨났고, 아나톨리아와 루멜리에서 건너온 사즈 시인들이 조합을 만들었다. 이는 아시옥(Aşık) 시(詩) 전통을 이어 나가는 예술가에게는 중요한 사항이었다. 이어 오스

만 제국 중앙정부는 수 세기 동안 수락하지 않았던 사즈 시인의 활동을 허용했다. 이때부터 사즈 시인은 민중에게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자’로 인식됐고, 민중 시인이 사회적 역할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훗날 튀르키예 공화국 시대에도 민중 시인의 역할이 잘 활용됐고 아타튀르크가 이뤘던 혁명과 혁신이 민중에게 알려지는 데 기여했다.

본명이 이브라힘인 데르틀리는 1722년에 오늘날 도시 볼루의 경계선에 있는 예니차아(Yeniçağa) 지역 샤흐나라르(Şahnalar)에서 태어났다. 필명을 지을 때 있었던 일은 태어난 동네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된다. 그의 아버지 바이락타르 알리(Bayraktar Ali)는 시대에 비해 좀 갖춰 사는 여유 있는 사람이었다. 아버지가 죽은 뒤 재산을 4등분으로 나눠 상속받았는데도 데르틀리가 먹고 사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정도였다. 그런데 예전부터 바이락타르 알리 땅을 눈독 들이고 있었던 동네 사람 할릴(Halil)이 바이락타르가 죽자 기회를 엿보다가 이윽고 이브라힘에게 할당된 유산을 빼앗았다. 결국 이브라힘은 비참한 신세가 됐다. 하지만 이브라힘은 젊음과 패기로 크게 신경 쓰지 않으려 했다. 그가 살던 동네와 가까운 데베지레르라는 곳에서 아버지 친구 하즈 외메르 곁에서 머물기를 원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꿈꿨던 평안을 찾지 못했다.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커졌고 마음 한편에 있던 시 창작에 대한 열망은 커져만 갔다. 결국 그는 이스탄불로 향했다. 이스탄불은 그에게 꿈의 도시였다. 그러나 그가 마주한 현실은 생각과 달랐다. 마땅히 머물 곳이 없었다. 살아가기 위해 별의 별 일을 다 해야 했다. 원하는 것을 할 수 없었던 이브라힘은 당시 자신을 ‘화살처럼 활로 향야에 던져지고’, ‘버려졌으며’, 이제는 ‘공처럼 터졌다’라고 묘사했다.

이스탄불로 왔을 때 그는 스물다섯 살이었다. 새로운 인생을 기대하며 도망쳐 온 이스탄불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또 다른 어려움과 문제들이었다. 그는 한동안 세탁일을 해봤지만 오래가지는 못했다. 셀림 3세가 ‘시골에서 온 농부와 미혼자’는 이스탄불에서 특정 기간 이상 머물 수 없도록 하는 칙령을 공포했기 때문이다. 이브라힘은 시골 출신에다가 총각이었기 때문에 이스탄불에서 떠나야만 했다. 오스만 제국의 수도에 정착하지 못한 이브라힘은 셀주크 조 수도였던 코니아로 향했다. 이때 그의 시인(詩人) 감성은 그를 예술인으로 만들었다. 코니아에서 5년 동안 하즈 아슴이라는 노인이 운영하는 커피 하우스 화덕에서 일했다. 이 커피 하우스는 코니아에서 지식인과 시 동호인들이 찾는 곳이었다. 이브라힘에게는 안성맞춤인 곳이었다. 이브라힘은 이 커피 하우스에서 시와 수피 사상을 접했고, 사즈와 음악도 배웠다. 이곳에서 민중 시

인 아시옥으로 변신한 그는 ‘뤼트피(Lütfi)’라는 필명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어 시들이 알려지면서 명성을 날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뤼트피는 5년 동안 다듬어 온 시 창작 실력이 향상되고, 시인으로서의 정체성도 형성되자 본인의 사고 세계를 확립해 새로운 길을 떠났다. 현재 시리아 땅인 할렙(Halep)과 다마스쿠스(Şam) 그리고 이집트까지 이르는 여정이었다. 12년을 카히레(Kahire)에 있는 텍케에서 머물렀고, 아시옥 커피 하우스와 부자들의 저택에서 사즈를 연주하며 노래를 불렀다.

25살 청년 시절에 고향을 떠난 후 어느덧 15년이 지났다. 데르틀리는 나이를 먹자 태어나고 자라난 곳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고향인 샤흐나라르(Şahnalar)로 돌아갔다. 어느덧 마흔이었다. 15년 동안 지속했던 방랑자의 삶이 이제 그는 지켜왔다. 다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었다. 마침 그는 하피자(Hafıza)라는 젊은 여성을 만났고,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다. 슬하에 두 명의 자식도 생겼다.

가정을 꾸리고 자식도 여럿 생겼지만, 세상을 알고자 하는 그의 열정을 좁은 고향 마을이 채울 수는 없었다. 그는 다시 고향 마을을 떠났다. 처음에는 짧게 다녀오는 방식이었지만 갈수록 집을 비우는 시간이 길어졌다. 사즈 연주와 시적 표현에 가치를 두는 아시옥 모임이 있는 부유한 저택에서 데르틀리를 초대하기 시작했고 그는 날이 갈수록 유명해졌다. 데르틀리는 한곳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었다. 사즈를 어깨에 걸치고 이곳 저곳을 돌아다녔다. 시바스, 아마시아, 찬크르, 앙카라와 같은 도시를 구경했다. 백타쉬 텍케에 머물기도 했다.

그는 1825년 혹은 1826년에 다시 이스탄불에 갔다. 당시 오스만 제국의 술탄은 마흐무드 2세였고 위기에 빠진 나라에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상황이었다. 결국 그는 예니체리 부대를 해산시켰다. 예니체리 부대가 피를 흘리며 없어지는 사건을 데르틀리도 목격했다. 마흐무트 2세는 사즈 시인에게 관심을 가졌다. 개혁을 제국 신민들에게 홍보하고 참여시키는데 도움을 받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데르틀리는 이스탄불의 베석타쉬, 타흐타칼레, 챔베를리타쉬, 타북파자르 지역에 있는 소문난 커피 하우스에서 자신의 예술세계를 선보이기 시작했다.

마흐무트 2세는 개혁의 일환으로 해군이 쓰고 있는 페즈를 육군 병사에게도 착용하도록 칙령을 내렸다. 얼마 후에는 조례를 정비해 모든 공무원과 관계자도 반드시 페즈를 쓰도록 했다. 이 사건은 사회의 여러 방면에서 큰 파문을 일으켰다. 그러나 대부분 시인은 페즈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데르틀리도 이 중 하나였다.

삶의 막바지를 볼루, 카스타모누, 앙카라 부근에서 보낸 데르틀리는 꽤 나이가 들었다. 앙카라 근처 하이마나 지역의 넓은 땅에서 사즈 시인을 보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알리산 베이에게 데르틀리도 보호받았다. 그러던 중 그는 알리산 베이의 여동생인 베스탄 부인과 사랑에 빠졌다. 그의 애뜻한 사랑을 섬세한 시로 표현했지만 결국 데르틀리는 그곳에서 쫓겨나고 말았다.

그는 1845년 겨울을 앙카라에서 보내고 있는 알리산 베이를 다시 찾아갔다. 많은 국가를 다녔고, 셀 수 없는 사건을 해결하면서 73세의 몸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알리산 베이와 영원한 이별을 할 시간이 다가왔음을 깨닫고, 허락한다면 본인이 작별의 키스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알리산 베이는 그를 허락했고, 그는 알리산 베이와 지인들에게도 마지막 인사를 하고 나왔다. 그는 곧바로 풀 위로 쓰러지더니 삶을 마감했다.

알리산 베이는 데르틀리의 주검을 앙카라 사만파자르에서 코윤파자르에 가는 길에 위치한 코윤파자르 모스크에 매장했다.

고향 사람들은 데르틀리가 죽은 지 100년이 지난 1945년에서야 그의 무덤을 고향인 샤흐나라르 마을로 이장했다. 그리고 생전에 그의 이름을 널리 알린 데르틀리의 시집들을 석판으로 만들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데르틸리, 이브라힘 데르틀리, 튀트피

● 다국어 표기 DERTLI(튀르키예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turbeler.org/detay/1310-sair-dertli-hz>

● 참고문헌(오프라인) Ayvazoğlu, Beşir. Halk Şiirinden Tarihe, Ötüken Yayınları, İstanbul 1991.

Okay, Haşim Nezihi. Aşık Dertli Divanı, Maarif Kitaphanesi, İstanbul 1958.

Özdemir, Ahmet. Cönklerden Günümüze Halk Şairleri, Veli Yayınları, İstanbul 1993.

Turan, Metin. Tarihten Mekana Türk Halk Şiiri, 4. Baskı, Ürün Yayınları, Ankara 2009.

Yardımcı, Mehmet. Başlangıcından Günümüze Halk Şiiri, Tekke Şiiri, Aşık Şiiri. Ürün Yayınları, Ankara 1997.

I A190 | 데브시르메

- 시기 A.D. 1000년 ~ A.D. 18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제도
- 집필자 이은정 ● 라틴 문자 devshirme

데브시르메는 튀르키예어로 원래 ‘모아들임’을 뜻하는데, 유럽과 아시아의 여러 주에서 기독교인 신민들로부터 간헐적으로 받은 소년 공납을 의미한다. 이렇게 모아들인 소년들은 예니체리 등 중앙군의 충원에 쓰였으며,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명확하지 않다. 원래 예니체리는 무라드 1세 당시 전쟁 포로 중 술탄의 몫으로 지정된 1/5(pençik oğlanları)로부터 만들어졌다. 전쟁 포로의 공급이 일정치 않았으므로 정규적인 충원의 길이 필요했을 것이다. 데브시르메에 대한 최초의 언급은 살로니카의 주교 이시도르 글라바스가 1395년에 에미르의 명령에 따라 소년들이 잡혀갔음을 한탄하는 설교를 했다는 것이고, 1397년 이탈리아 사료에도 투르크인들이 10세에서 12세의 소년들을 잡아갔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보면 1390년대 말에는 이미 데브시르메가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 데브시르메는 오스만 변방 전사들이 이미 1380년대 혹은 그 이전에 마케도니아 중부 지역에서 시작한 소년 공납을 중앙에서 채택하여 확대 시행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공납의 대상이 되는 소년의 나이는 8세에서 20세 사이였고, 특히 12세~14세 사이가 선호되었다고 한다. 징발의 비율은 흔히 40가구당 1인의 비율로 알려져 있으나 항상 그랬는지 명확하지 않다. 대상 소년들의 나이와 데브시르메 선발 소년들의 수가 매년 크게 달랐음(총 인원 1,000명에서 12,000명)은 데브시르메가 그때마다 군 인력이 얼마나 필요했느냐에 따라 융통성 있게 시행되었음을 시사한다. 데브시르메는 매년 시행되기도 하고 3년, 5년, 7년 정도의 간격을 두기도 했다. 16세기 말 이후 데브시르메는 크게 약화되어 예니체리들은 군 내부의 관련자들로 충원되었다. 데브시르메를 통한 군 인력의 충원은 예니체리 사령관과 아제미 오자르(훈련병대) 대장의 책임하에 진행되었다. 데브시르메 담당자들은 예니체리 군단의 고위급 장교들로 구성되었고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통지가 대상 지역의 카디들에게 보내졌다. 카디의 관할 구역(카자)들에서는 해당하는 나이의 소년들과 부친들을 한 장소에 모이게 하고 지역의 기독교인 성직자가 세례 장부를 가지고 와서 인원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선발에는 농민 가구의 독자, 상공인, 도시민 가구, 유목민 가구, 기혼자, 이스탄불을 방문한 경험

이 있는 자, 불구이거나 허약하거나 너무 키가 크거나 작은 자, 군사 보조 업무를 맡은 기독교인 가구 등이 면제되었다. 데브시르메 담당 장교는 가장 우수한 소년들을 뽑아서 100명~200명씩 무리 지어 이스탄불로 보냈는데,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붉은색의 제복을 입혔고 그들의 생김새, 이름, 생년월일, 출신지, 부모 이름, 소속된 농장과 와크프 등의 정보를 적은 2개의 장부(eşkal defteri)를 만들어 하나는 데브시르메 담당자가, 다른 하나는 이스탄불까지 인솔하는 사람이 소지했다. 데브시르메로 선발된 소년들이 이송 도중 도망치거나 죽은 사례들도 일부 있었다. 이스탄불에 도착한 소년들은 예니체리 본영으로 인도되어 이슬람으로 개종하고 할례를 받은 후 대부분은 아나톨리아의 투르크 농민들에게 값싼 노동력으로 주어져 기초적인 투르크어와 이슬람 생활 양식을 배우며 고된 노동을 약 7년간 했고, 그 기간 동안 이 소년들은 정부에 의해 감찰되었다. 이들은 정부가 다시 소환하면 중앙으로 돌아와 이스탄불이나 갈리폴리 같은 곳에서 주어지는 노동을 하며 훈련병대에 합류했다. 위와 같이 투르크 농촌으로 보내지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면, 가장 우수하다고 판단된 일부는 궁정학교에서 엘리트 관료 및 군 장교로 성장하는 길을 걸었다. 데브시르메 출신자들은 15세기 중엽에서 17세기 중엽까지 군사와 행정 관련 고위 관직을 대거 차지했다. 16세기 말 군사 기술상의 변화로 개인 화기가 많이 쓰이고 전술이 바뀌게 되자 보병 예니체리에 오랜 훈련 기간을 투자하기 어렵게 되었고, 예니체리 연대들이 자체적으로 예니체리의 가족들 혹은 기타 외부 인력을 받아들여 충원하는 일이 늘어나면서 데브시르메는 점차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1660년대 이스탄불에 있었던 영국인 외교관 폴 라이코에 의하면 데브시르메는 ‘대체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잊힌 제도’였다. 18세기에도 데브시르메는 가끔 시행되었다는 기록이 있지만, 오직 술탄의 궁내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약 1,000명 정도를 선발한 것에 불과했다. 아흐메드 제와드 파샤에 의하면 마지막 데브시르메는 1751년에 시행되었다고 한다. 데브시르메에 대해서는 신민인 기독교인 일부를 강제로 노예로 만들었으니 샤리아에 위배된다는 설과 발칸반도 대부분이 항복 없이 정복된 땅이므로 그 주민인 기독교인은 노예로 만들어도 된다는 식의 샤리아에 부합한다는 설이 있으며, 튀르키예 학자들은 대체로 데브시르메가 샤리아에 위배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데브쉬르메

● 다국어 표기 Devşirme(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예니체리

● 참고문헌(오프라인) Abdülkadir Özcan, “Devşirme,” TDV İslam Ansiklopedisi, Vol. 9, pp.254~257.

V. L. Ménage, “Devshirme,” Encyclopaedia of Islam (Brill) 2nd edition, Vol. 2, pp.210~213.

Gabor Agoston, “Devşirme,” The Encyclopedia of the Ottoman Empire, pp.183~185.

I A191 | 데스탄(튀르키예)

● 시기 기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구비문학 ● 유형 소분류2 서사시
● 집필자 오은경, 장주영 ● 라틴 문자 Destan

데스탄은 투르크 문화권에서 명창에 의해 구연되는 구비 서사시를 뜻하며, 튀르키예에서 데스탄은 특히 구비 영웅서사시를 의미한다. 대표적인 두 작품은 『현자 코르크트의 서(書)』와 『코르오올루(Köroğlu)』이다.

투르크 문화권에서 구비 서사시는 ‘데스탄(destan: 튀르키예)’, ‘다스탄(dastan: 아제르바이잔)’, ‘더스턴(doston: 우즈베키스탄)’과 같이 나라마다 차이가 있으며, 분류 방식과 체계도 조금씩 다르다. ‘데스탄’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페르시아어 ‘이야기(داستان dâstân)’에서 찾을 수 있다.

투르크 민족의 영웅서사시는 샤머니즘과 관련이 있으며, 명창(epic-singer)의 기원 역시 샤먼(고대 투르크어로 kam, baksı)이라고 할 수 있다. 데스탄은 명창에 의해 구연되는데, 명창을 부르는 용어도 투르크 각 민족과 나라마다 다르다. 일반적으로 데스탄은 특정한 저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 명창은 저자가 아니며, 입에서 입으로 구전전승 되는 구비 서사시를 청중에게 구연해 주는 전달자이다. 그러나 명창들의 유파와 개성에 따라 같은 구비 서사시라 해도 다양한 판본과 구연본이 존재한다.

튀르키예에서는 음유시인, 소리꾼 그리고 명창을 ‘아시옥(Aşık)’이라 부른다. 아시옥(Aşık)은 고대에는 ‘오잔(Ozan)’으로 불렸다. 오늘날의 튀르키예, 아제르바이잔 그리고 투르크메니스탄에 퍼진 투르크인들은 오우즈 투르크 족이다. 이들에게 ‘오잔(Ozan)’은 고대에 샤먼(Kam)이라

는 뜻으로 쓰였던 고대 투르크어 ‘박스(Baksı)’와 동일한 지위 및 의미였다.

여기서 투르크 영웅서사시 전통이 고대 ‘오잔-박스(Ozan- Baksı)’와 연결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오잔들은 전쟁이나 사냥, 그리고 축제에서 축원, 기도 등을 통해 두려움을 퇴치했고, 공동체를 통합했으며, 부와 풍요를 빌었다. 세속적 통치자 뿐만 아니라 영적 지도자 역할도 수행했다. 통치자의 영웅성, 위대함 그리고 전쟁터나 사냥터에서 벌어진 위험천만한 순간을 극복한 영웅담을 공동체에 알리고 찬사를 보내는 등의 축원도 오잔의 중요한 역할이었다. 이때, 영웅서사시 낭송을 통해 역사 속 영웅담을 전하고, 부족의 정체성을 확고히 다지면서 구성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켰다. 이러한 전통은 이슬람을 받아들이기 전과 후 모두 투르크 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화 현상이었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과 함께 영웅서사시 명창문화인 ‘데스탄즈룩(Destançılık)’과 명창의 역할은 격동적 변화를 겪는다. 즉, 샤먼(Kam, Baksı, Ozan)은 그들이 속한 사회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적 삶이 진화하고, 분업화가 진행되자 결과적으로 전달자 역할로 기능과 의미가 축소됐다. 고대 영적·종교적 역할과 기능을 담당했던 오잔(Ozan)의 샤먼 역할은 사라지고 음악가 기능만 남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잔은 15세기 중엽까지는 아나톨리아반도에 존재했으나 16세기 이후부터는 아나톨리아 및 아제르바이잔 등지에 ‘아시옥(Aşık)’이라는 단어가 오잔(Ozan)을 대체했다. 아시옥들은 오스만 제국에서 지방정부 궁전, 귀족들의 별장, 수피 수도원, 가난한 마을, 시골 촌락, 카흐베(Kahve, Coffee House)등 특정한 지역이나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활동하였으며, 이들의 등장으로 아나톨리아반도(튀르키예)에는 새롭게 ‘아시옥 문학’이 형성됐다.

아시옥은 민속악기 사즈를 연주하며 시를 읊었기 때문에 ‘사즈 시인(Saz Şairi)’이라고도 불렸는데, 이들은 데스탄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16세기~20세기 아나톨리아에 본격적인 아시옥 문학이 형성되면서 고대에 ‘구비 영웅서사시’를 뜻했던 데스탄의 의미도 변했다. 데스탄은 형식적인 측면에서 코쉬마(Koşma: 사즈 연주와 함께 부르며 음절을 강조해 운율을 넣는 민요)와 유사하지만, 코쉬마보다 더욱 광범위한 주제를 다뤘다. 데스탄은 영웅담, 전쟁, 재난, 전염병, 흥미로운 사건 등 사람들이 주목할 수 있는 모든 주제를 포괄했다. 특히 튀르키예의 아시옥들은 자신들이 겪은 고난, 어려움을 주제로 데스탄을 지었고, 구전으로 전해지던 익명의 데스탄들을 편곡해서 부르기도 했다. 이렇게 고대에는 데스탄은 익명이었지만, 아시옥은 분명한 저자를 갖

게 됐다. 데스탄은 사회 현상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가 하면, 때로는 비판과 해학을 담아 내용을 전달하기도 했다. 튀르키예의 구비문학자 초반오울루(Çobanoğlu)는 아시아 문학의 데스탄을 주제별로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사회 생활과 관련된 데스탄(Sosyal Hayatla ilgili Destanlar)
- 문화 생활과 관련된 데스탄(Kültürel Hayatla ilgili Destanlar)
- 경제 생활과 관련된 데스탄(iktisadi (Ekonomik) Hayatla ilgili Destanlar)
- 교육 생활과 관련된 데스탄(Eğitim Hayatıyla ilgili Destanlar)
- 정치 생활과 관련된 데스탄(Siyasi Hayatla ilgili Destanlar)
- 종교와 도덕 생활과 관련된 데스탄(Dinî ve Ahlakî Hayatla ilgili Destanlar)
- 군 생활과 관련된 데스탄(Askerî Hayatla ilgili Destanlar)
- 사회 문화와 관련된 데스탄(Sosyo-Kültürel Çevreyle ilgili Destanlar)
- 자연 환경에 관한 데스탄(Doğal Çevreyle ilgili Destanlar)
- 인간과 관련된 데스탄(İnsanla ilgili Destanlar)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다스탄, 더스텐

● 다국어 표기 Epose(영어), destan(튀르키예어), enoc(러시아어), doston(우즈베크어), Dastan(아제르바이잔어)

● 연관 검색어 더스텐, 다스탄, 아시아, 오잔, 바흐쉬, 카이치

● 참고문헌(온라인) <https://islamansiklopedisi.org.tr/destan>

● 참고문헌(오프라인) 오은경, 「터키 명창 아식(Aşık)과 아식문학 형성 고찰」, 『국제언어문학』, 46, 2020, pp.95~135.

오은경, 「투르크 구전서사시의 샤머니즘적 모티프 연구」, 『중동문제연구』, 14(3), 2015, pp.117~147.

오은경, 「우즈베크의 구연자와 구연학파, 알페르쉬 콘그룻(우즈베크) 판본의 구연본 연구」, 『중동연구』, 32(1), 2013, pp.139~166.

Çobanoğlu, Ö. *Âşık tarzı kültür geleneği ve destan türü* (Vol. 316). Ankara: Akçağ. 2000.

Güzel A., Torun A., *Türk Halk Edebiyatı El Kitabı*, Ankara: Akçağ Yayıncılık, 2012.

Köprülü Fuat M., "Türk Edebiyatında Âşık Tarzının menşei ve Tekâmülü Hakkında Bir tecrübe", *Milli Tetebbular mecmuası*, Cilt I, Sayı. 2, 1915, s. 5~46.

Köprülü Fuat M., "Ozan", *Türk Dili ve Edebiyat Hakkında Araştırmalar*, İstanbul, 1934, s. 273~292.

I A192 | 데이으쉬마

● 시기 기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아제르바이잔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구비문학 ● 유형 소분류2 시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Bədirxan Əhmədli) ● 라틴 문자 Deyishma

데이으쉬마(Deyishma)는 ‘대결’이라는 뜻인데, 의식이나 행사에서 명창인 아시옥(아제르바이잔어 Aşıq; 튀르키예어 Aşık)들이 서로 마주 보고 주제를 정해서 순발력있게 시(詩) 짓기 대결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더 이상 시를 이어가지 못하는 쪽이 지게 된다. 주로 두 명이 수행하며 상대방이 더 이상 시를 이어가지 못하도록 바으라마(baglama) 형식의 시를 짓는다. 시합에서 진 아시옥은 이긴 아시옥에게 자신의 사즈(saz)를 줘야 한다. 때로는 아시옥들이 데이으쉬마에 참가하고자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도 한다. 데이으쉬마는 ‘아시옥 시(詩)’ 장르에 포함되며 아시옥 시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시작(詩作) 수준과 예술 세계 그리고 명성을 과시하는 장으로 활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마스터들은 제자들에게 아시옥 시 예술 비법을 가르칠 때 데이으쉬마 비법 전수에 특별히 정성을 기울인다. 데이으쉬마에는 풍부한 역사적 사건이나 유익한 생활정보를 소재로 사용한다. 아시옥들은 앞서 사람이 묻는 예술적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시적 수수께끼를 풀 수 있도록 많은 것을 알아야 한다. 데이으쉬마 하나를 예로 살펴보자.

‘아시옥 애스매르(Aşıq Əsmər)와 아시옥 알르(Aşıq Alı)의 데이으쉬마’

아시옥 애스매르:

당신! 우쭐해서 ‘나야말로 아시옥이야’라고 하지 마시오.

당신 같은 사람들 난 눈속임으로도 이겼소.

당신들 나 때문에 엄청 시달릴 거요.

나 때문에 똑바로 서 있기도 힘들겠지.

아시옥 알르:

나 같은 아시옥을 안 좋아하시는구먼.

내가 당신 혀를 굳혀서 병어리로 만들 수 있소.

당신을 펄펄 끓는 불구덩이에 버리고 당신을 불에서 태워 재로 만들겠소.

아시옥 애스매르:

당신에게 충고 하나 하지.

남을 위해 몸을 희생하지 마시오.

당신이 고생한들 아무 소용없을 것이니.

내게 18명의 제자가 있고 모두 다 왕자이니 당신을 노예 삼고 말 것이오.

아시옥 알르:

맘에 들든 아니든 당신 말을 이해는 하오.

사랑 불꽃이 내게도 타오르는데 나는 진짜 가짜를 구별할 수 있지.

당신을 녹여 동전으로 만들어 버리리.

아시옥 애스매르:

나야말로 애스매르다, 빈말을 안 하지.

하늘이 죽으라 는데 방법이 없지.

당신을 당나귀에 태워 내 고향으로 보낼 테니 보리 짚단이나 많이 나르시오.

아시옥 알르:

아시옥 알르가 말하는구만.

나는 나만의 성인(聖人)을 믿소.

나는 캐라리-캐림(Kərrari-Kərim)을 믿지.

새끼를 낳은 어미 개처럼 짓지 마시오.

당신을 강아지의 사료로 만들어 버리겠어.

데이으쉬마의 종류에는 아시옥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마주 보고 즉흥시를 지어 대결하는 ‘메이하나(meyxana)’도 있다. 이때, 악기는 연주하지는 않는다. 최근에 메이하나 데이으쉬마가 많은 인기를 얻는 반면에, 아시옥 데이으쉬마는 점차 사라지고 있다. 데이으쉬마의 특징은 서로에게 말로만 겨루는 것으로서, 상대방을 모욕하면 안 된다. 그러나 때로는 데이으쉬마를 하는 사람들이 이 규칙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데이으시마, 데이으쉬메
- 다국어 표기 Deyishma(영어), deyişme(튀르키예어), перебранка(러시아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Hüseyinzade T., *Aşık Deyişmelerinin Poetikası*, Bakı, 2017

I A193 | 데프테르다르

- 시기 A.D.1000년~A.D.18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칭호 ● 유형 소분류2 직위
- 집필자 이은정 ● 라틴 문자 defterdar

데프테르다르는 ‘장부를 관리하는 자’라는 뜻으로 오스만 제국의 재무 관료를 지칭하는 말이었으며, 동 이슬람권의 무스타우피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칼카산디에 의하면 이미 파티마 왕조 시대에 회계와 감사를 맡는 관직명으로 사힙 알 데프테르라는 용어가 있었다고 하고, 살라흐 앳딘의 아유브 왕조에는 ‘다프타르한(장부를 읽는 자)’이 있었다고 한다. 정확히 데프테르다르라는 용어가 쓰인 것은 일 칸국 시대부터였다. 일 칸국에서는 ‘다프타르다르 이 मामлик(daftardar-i mamalik)’라는 관료가 임명되어 장부를 만들고 관리했다. 오스만 제국의 법전(kanunname)에는 데프테르다르 직의 변천이 잘 나와 있다. 일찍이 메흐메트 2세의 카눈나메에서 언급된 바, 수석 데프테르다르는 술탄의 재정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대재상과 두 명의 카디아스케르 바로 밑에 있었고, 그들과 마찬가지로 술탄을 직접 알현할 권리가 있었다. 수석 데프테르다르 밑에는 여러 단계의 직급들이 있어서 재무 계열의 승진 서열을 이루었다. 수석 데프테르다르는 바이에지드 2세 시대부터 루멜리(발칸)의 재무를 주로 담당했고, 제2데프테르다르는 아나톨리아의 재무를 위주로 하여 아나돌루 데프테르다르라고 불리었고, 제3데프테르다르는 아랍과 이란 근처 등 먼 지역을 담당했다. 이들은 각각 제1분과, 제2분과, 제3분과(şikk-ı evvel şikk-ı sani şikk-ı salis)라고도 불리었다. 제4의 분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셀림 3세 시대의 니잠 오 제디드 개혁 당시의 개혁 재정을 위해 만들어졌으나 개혁이 실패하면서 같이 사라졌다. 1838년 데프테르다르 휘하의 정부 기관은 재무부(maliye)라는 이름으로 개명되었으나 지방의 재무 관료들은 계속 데프테르다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 다국어 표기 Defterdar(튀르키예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Bernard Lewis, «Daftardar,» Encyclopaedia of Islam (Brill) 2nd edition Vol. II 1991 p. 97.

Mübahat Kütükoğlu, “Defterdar,” TDV İslam Ansiklopedisi Vol. 9 1994 pp.94~96..

I A194 | 데히스탄 금요 모스크

- 시기 A.D. 1000년 ~ A.D. 1500년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투르크메니스탄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건축
- 유형 소분류2 모스크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Dehistan Friday mosque

데히스탄 금요 모스크는 데히스탄의 이른바 북 미너렛이라고 불리는 미라네트보다 남쪽에 건설되었다. 건물은 도시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으며 주변에 시장과 가게들 따위가 발굴되기도 했다. 본 모스크의 석문에는 13세기 초 호라즘 샤 무함마드에 의하여 건설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모스크는 크게 중정과 기도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도 공간의 북쪽에 위치한 중정은 갤러리로 둘러싸여 있다. 중정 가운데에는 수조가 있다. 중정에 위치한 이완이 대문 역할을 하고 있다. 이곳을 통해 기도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완에는 풍부한 테라코타 장식과 타일 장식이 있다. 식물 문양과 서체 장식이 주로 사용되었다. 이완을 통해 들어간 내부 미흐랍 윗 천장은 돔으로 덮여 있었다. 돔을 지지하는 것은 직사각형 형태의 드럼이다. 돔을 중심으로 미흐랍 양옆과 미흐랍과 평행으로 네 개의 둥근 기둥이 자리하며 기도 공간을 다섯으로 나눈다. 모스크에는 또한 중정이 있어 전체적으로 아랍식 모스크와 셀주크식 모스크가 결합된 형태로 보고 있다. 주재료는 벽돌이다.

이 건물은 이완이 있는 중정과 모스크 미흐랍 위에 천장을 추가시킨 형태의 초기 작품으로 후에 이런 형태의 모스크는 대 셀주크 조에서 더욱 확장시켰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데이스탄 주마 마스지드

● 다국어 표기 Dehistan juma metjidi(투르크멘어), Dehistan Cuma Camii(튀르키예어)



데히스탄 금요 모스크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ikolsoftware.com/public/resized/high/image_data/original/570572df50d16d10a291454551d3e9b155b7ce4c/5818b935a712b.jpg
<https://url.kr/3rqmbg>

● 참고문헌(오프라인) Cezar, Mustafa. Anadolu Öncesi Türklerde şehir ve mimarlık, İstanbul: Türkiye İş bankası, 1977. Sayan, Yüksel. “Türkmenistan’ın XI-XIX. Yüzyıllar Mimari Anıtları” Türkler 6 (Ed:Kemal Çiçek, Hasan Celal Güzel, Salim Koca) Ankara: Yeni Türkiye Yayınları, 2002, pp.91~108.

I A195 | 델리 술탄

● 시기 A.D. 1000년 ~ A.D. 1500년 ● 지역 기타 ● 나라 인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국가 ● 유형 소분류2 왕조
● 집필자 이수정 ● 라틴 문자 Delhi Sultanate

인도에 이슬람이 처음 전파된 것은 8세기 우마이야조가 건설되었을 시기이나,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하고 이들을 통치하는 이슬람 왕조가 생긴 시기는 투르크 계열의 가즈나 왕조가 건설된 이후이다. 지리적으로 과거 이슬람 왕조의 중심지였던 이라크 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슬람 전체를 다스리는 제국이 등장하거나,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었지만 현재의 이란 북부 지역과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지역을 중심으로 여러 이슬람 왕조가 등장했다.

그중에서도 1206년부터 1526년까지 델리를 중심으로 인도를 지배하던 술탄국들이 무굴 제국이 등장하기 이전, 인도 지역의 이슬람조의 명맥을 유지하고 많은 문화유산과 역사적 기록을 남기게 되었다. 특히 델리 술탄국은 시기에 따라 총 5개의 이슬람계 왕조를 묶어서 지칭한다. 지배층은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으로 구성되었고, 피지배층은 힌두교도 였다. 다섯 왕조 모두 이슬람을 기반으로 통치했으나, 힌두교에 관대했다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 이 5개 왕조는 노예 왕조(1206년~1290년), 칼지 왕조(1290년~1320년), 투글루크 왕조(1320년~1414년), 사이드 왕조(1414년~1451년), 로디 왕조(1451년~1526년)를 말한다.

노예 왕조는 델리 술탄국을 구성하는 첫 번째 왕조로 당시 아프가니스탄 지역을 중심으로 번성했던 구르 왕조의 술탄이 암살되면서 휘하 장군이었던 아이박이 인도 북부 펀자브와 갠지스 평원을 중심으로 독립하여 건립한 왕조이다.

아이박의 뒤를 이어, 사위였던 일투트미쉬가 노예 왕조의 술탄이 되었고, 이 시기 노예 왕조는 전성기를 누렸다. 현재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노예 왕조의 문화유산 역시 이 시기에 건설된 것이다. 노예 출신의 무장이 혼인 관계 등을 통해 왕조의 통치자인 술탄직에 올랐기 때문에 노예 왕조라 불린다. 1287년까지 안정된 치세를 유지하다가, 왕조 후기 당쟁과 내란으로 인해 칼지 왕조가 등장하며 멸망했다.

1290년부터 1320년까지 유지된 칼지 왕조는 전성기를 누렸다. 노예 왕조의 영토를 기반으로

남하 정책을 진행했고, 인도 대륙 전역을 정복했다. 또한 당시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몽골의 침입도 막아내면서, 인도 내 이슬람 문화를 지켰다. 그러나 왕조 내부에서 치열한 왕위 쟁탈전이 진행되면서 30년 만에 멸망했다.

1320년부터 1414년까지 유지된 투글루크 왕조는 칼지 왕조의 마지막 술탄 알라 웃 딘이 사망하자, 기야스 웃딘 투글루크가 술탄직을 계승하며 왕조의 이름을 바꾸었다. 기야스 웃딘의 아버지는 투르크인이고, 어머니는 인도인으로 스스로 투르크 귀족의 인도화, 힌두교의 이슬람화라는 특성을 보여준다. 중소 규모의 힌두교 왕조를 통합하며 영토를 확장하고 안정화했다. 또한 조세 제도와 화폐를 개혁하며 왕권을 강화하려 했으나, 결과적으로 무슬림 장수들의 반란으로 인하여 개혁 정책 추진에 실패했다. 1351년 기야스 웃딘이 암살되었고, 이후 왕조의 힘은 급속도로 쇠약해졌다. 1414년 티무르 제국의 장수였던 히즈르칸이 이 지역을 점령하면서 투글루크 왕조는 막을 내렸다.

1414년부터 1451년 사이에 티무르 제국의 장군이었던 히즈르칸은 투글루크 왕조가 다스린 영토를 점령하기 위해 군사를 이끌고 왔다가 왕조를 멸망시키고 사이드 왕조를 건설했다. 이후 4대에 걸쳐 37년간 통치했으나, 결국 멸망했다.

1451년 로디 왕조가 델리 술탄국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으나, 1526년 무굴 제국이 건설되었고, 델리 술탄국은 완전히 막을 내리게 된다. 델리 술탄국의 시작점이 투르크 계열의 왕조에서 파병 나온 장수들이 세운 왕조로 투르크 민족에 뿌리를 두고 있다. 무굴 제국 역시 이와 비슷한 상황으로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 지역의 이슬람 평창과 전파, 통치는 투르크 민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들 가운데 델리 술탄국이 있으며, 이들의 문화유산 역시 현재까지 남아 있는 상태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델리 노예 왕조, 델리 왕조

● **다국어 표기** Delhi Sultanate(영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Bosworth, B. C. 2019. *New Islamic Dynasties: A Chronological and Genealogical Manual*.

Edinburgh University Press.

Hasnain, N. 2013. *Islam in South Asia: A Short History*.

Ludden, D. 2013. *India and South Asia: a short history*. Simon and Schuster.

I A196 | 도둔자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동아시아 ● 나라 중국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유적 ● 유형 소분류2 무덤
● 집필자 김재윤 ● 라틴 문자 Daodunzi

도둔자(Daodunzi)는 중국의 흉노 무덤 유적인데, 념하(寧夏) 동심현(同心縣) 왕단(王團鄉) 북동쪽으로 약 8km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전체 유적에서 무덤은 토광묘(土坑墓) 20기, 편동실묘(偏洞室墓) 6기, 석관묘 1기가 있는데, 흉노 시기의 무덤 5기를 1983년 닝샤 박물관에서 조사했다. 토광묘에서는 나무관이 확인되어 목관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나무관에는 붉은색으로 칠해진 상태였다. 무덤은 북향으로, 출토 유물은 머리 위에는 향아리를 놓았고 목에는 구슬 10개, 가죽 주머니 안에는 동전이 발견되었다. 왼쪽 바깥쪽에는 구리와 구리 방울이 있다. 편동실묘는 수직으로 구덩이를 판 후에 매장 주체부는 무덤의 입구보다 안쪽으로 파서 만든 것이다. 무덤 안에는 길이 2m, 너비 0.52m, 높이 0.32m의 나무관이 출토되었다. 무덤관의 옆에는 향소 머리 2개체와 양 머리 11개체 분이 순서대로 놓여 있었다. 한 마리는 서쪽을 향하고 나머지는 북쪽을 향한다. 무덤의 북쪽에는 벽감 시설이 있고 향아리와 칠기가 발견되었다. 관 속에 묻힌 물건은 주로 생활용품과 장식품이다. 석관 무덤은 1기만 발견되었는데, 수직으로 무덤구덩이를 파고 덩어리 돌로 벽 가장자리에 돌을 쌓은 것이다. 무덤의 주인은 아기였다. 역시 허리에 청동 버클과 동전이 남아 있었다. 유적에서 발굴된 토기는 주로 화분형인데, 내몽골 일대에서 발견되지만 러시아 자바이칼 지역의 일모바야 파디 유적에서도 출토된다. 그래서 이 유적은 러시아 자바이칼 지역의 흉노 문화와 공통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한서 무제기(漢書 武帝紀)에 나오는 기사에 주목할 수 있다. 원수(元狩) 2년 가을에 흉노의 昆邪왕은 休屠왕을 죽이고,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데리고 내려와 5개의 왕국에 넣었다는 기록이 있다. 5개의 왕국 가운데 한 곳이 현재 유적이 위치한 안딩현에 있으며, 바이칼 지역에서 내려온 흉노 무덤 중의 한 곳으로 생각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다오둔지

● 다국어 표기 倒墩子(중국어), Daodunzi(영어)

● 연관 검색어 흉노

● 참고문헌(오프라인) 钟侃;乌恩;李进增 1987, 「宁夏同心县倒墩子汉代匈奴墓地发掘简报」, 『考古』 1期.

Г.П. Сосновский. Палеолитические стоянки в долине р. Качи у г. Красноярска//Советская археология, М.: 1948, 386с..

I A197 | 도롱파랍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동아시아 ● 나라 중국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유적 ● 유형 소분류2 무덤
● 집필자 김재윤 ● 라틴 문자 Taohongbala

1972년 내몽골 자치구 이극소맹항금기(伊克昭盟杭锦旗)에서 남동쪽으로 45km 떨어진 곳의 도롱파랍 마을에서 북동쪽으로 1km 떨어진 곳에서 동물 장식이 많은 유물들이 보고되었고, 정부에서 이를 조사하게 되었다. 유적에서는 토광묘 7기가 발견되었고 2기가 완전히 보존되었다. 토광묘의 시신은 양와직지 장으로 무덤 시설물은 남아 있지 않았다. 그 안에서는 손잡이에 그리핀이 달린 청동 검, 청동 칼, 청동 도끼 자루, 각종 동물 문양이 장식된 청동 패식, 금제 귀걸이, 대구 등이 출토되었다. 중국의 흉노 문화는 춘추 시대~전국 시대에 이르는 기간(기원전 7세기~3세기)에 중국 북부 초원의 오르도스 지역, 영하 감숙 지역, 하북성 북부 등에서 나타난다. 한(漢)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중국 북부 지역에서 흉노 물질 문화가 발견되는데, 이를 남흉노 문화라고 한다. 철기 및 금 장식이 증가하며, 오수전, 한경, 철기 등이 새롭게 등장하는 특징이 있다. 중국의 흉노 유적은 철기가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서한대와 완전히 중원화된 동한대의 유적이 있다. 서한대의 흉노 유적은 동물 장식이 적어지며 철복 등의 무기와 생산 공구의 공반이 두드러진다. 동물 장식에도 단순한 동물 문양이 아닌 주제가 있는 문양으로 변화되는데 사냥, 씨름 등 다양한 것이 등장한다. 반면에 동한대에는 토광묘를 탈피해서 벽돌로 무덤을 쌓은 전실묘도 사용된다. 오르도스뿐만 아니라 청해, 감숙, 영하지구 등 여러 지역에서 흉노계의 무덤이 발견된다. 이란호구 유적 등과 무덤의 형식은 유사하지만 도롱파랍 유적에서는 아직 철기 유물이 발견되지 않아서 중국에서 발견된 흉노 무덤 가운데 이른 형식으로 유적은 전국 시대로 판단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타오홍바라
- 다국어 표기 桃紅巴拉(중국어)
- 연관 검색어 흉노
- 참고문헌(오프라인) 田黃金 1976, 「桃紅巴拉的匈奴墓」, 『考古學報』, 1期
강인욱 2003, 「고고학으로 본 흉노의 발생과 분포」, 『문화재』.

I A198 | 도르릭 나르스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몽골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유적 ● 유형 소분류2 무덤
- 집필자 김재윤 ● 라틴 문자 Duurlig Nars

도르릭 나르스 유적은 울란바토르에서 동북쪽으로 약 500km 떨어진 곳으로 헨티 아이막 바양 아드라가 솜 중심 마을 앞 소나무 숲속에 분포하는 대형 흉노 무덤군으로 동북-서남쪽 방향으로 200기가 자리잡고 있다. 대부분 묘도가 있는 방형 무덤이고, 묘도 없는 방형 무덤은 소 규모이다. 가장 동쪽에 있는 무덤은 최대 크기인데, 40m×40m이고 묘도의 길이가 50m에 이른다. 1991년 몽골-일본 연합 학술 프로젝트 팀이 조사를 시작했고, 2002년~2009년까지 2호~5호 무덤을 조사했다. 2호와 5호는 묘도가 있는 방형 무덤이고, 3호와 4호는 묘도 없는 방형 무덤이다. 5호는 4단의 무덤구덩이를 파서 매장 주체부를 만든 무덤이다. 매장 주체부의 크기는 11m×10m, 묘도의 길이는 6m이다. 무덤 구덩이는 바닥으로 들어갈수록 좁아진다. 무덤 바닥에서 확인된 목곽의 크기는 350cm×150cm이고, 목곽 뚜껑은 폭 10cm 내외의 세장방형 널판지 8매를 종방향으로 덮었는데, 도굴로 인해서 파손이 심하다. 목곽은 소나무과로 판명되었다. 목곽 안에는 목관이 남쪽에 치우쳐서 안치되었는데, 도굴과 함몰로 인해서 대부분 결실되었다. 목관의 너비는 210cm×100cm이다. 목관 내부에는 두개골, 대퇴골, 갈비뼈 등 인골 1개체분이 확인되었는데, 60대의 남성이다. 목관을 장식한 꽃 무늬 목관 장식이 흩어져서 출토되었으나, 부식이 심했다. 목관재 사이에는 비단이 확인되었고, 목관 내부에서 펠트도 확인되었다. 목관서벽 주변에 청동호 및 마구, 동벽 주변에도 마구가 출토되었고, 북쪽에는 토기가 깨진 채

로 확인되었다. 묘도(墓道)가 없는 3호는 무덤 구덩이를 계단처럼 파 들어가지 않고도 3.5m 깊이에서 매장주체부가 드러난다. 반면에 묘도가 없지만 4호는 무덤구덩이를 한 단 파고 들어가야 한다는 점은 차이가 있다. 3호는 무덤 중심부 상면의 1차 적석과 그 아래 1.3m 지점에 너비 15cm~25cm의 목판을 약 30cm 간격으로 깔아 2차 보호 시설을 마련했다. 3호에서는 반리무늬(蟠螭文鏡) 거울이 출토되었다. 그 외에도 2호에서 규구경(規矩鏡)이 출토되었다. 반리문경은 전한 시기의 것으로 기원전 2세기경의 것이라고 하지만, 규구경은 기원후 1세기 중엽~후반에 몽골의 흉노 무덤에 들어왔다는 의견이 있다. 유적에서 측정된 탄소 연대로도 3호는 기원전 40년, 2호, 4호, 5호는 기원후 1세기로 측정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두우르릭 나르스, 두르릭 나르스
- 다국어 표기 Дуурлиг нарсны(몽골어), Duurliig Nars(영어)
- 연관 검색어 흉노
- 참고문헌(오프라인) 국립중앙박물관·몽골국립박물관·몽골과학아카데미 고고학연구소 2011, 『몽골 도르릭 나르스 흉노 무덤(1)』.
- G. Eregzen. 2009, 『몽골 흉노 무덤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I A199 | 도말락-아나

- 시기 A.D. 1000년 ~ A.D. 1500년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카자흐스탄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이슬람
- 유형 소분류2 인물
- 집필자 황영삼
- 라틴 문자 Domalak-ana

도말락-아나는 제티수(세미레치예), 아울리에 아타, 심켄트 등 카자흐스탄 남부 지역 카자흐인들에게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성스럽고 전설적인 어머니이며, 이 지역의 시조인 바이디벡 아타의 세 번째 부인이다. 바이디벡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의 후손 둘라트(Dulat), 알반(Alban), 후안(Huan) 등은 훗날 카자흐 주요 부족을 이루게 된다. 이들은 모두 1,200년 전에 카라타우(Karatau), 카즈구르트(Kazgurt) 등지를 호령했는데 이들 지역은 모두 카자흐스탄 남부

지역에 해당된다. 오늘날 심켄트 근처에서 1998년에 건립된 도말락-아나의 영묘는 현대식이지만 처음에 영묘는 도말락-아나의 손자인 둘라트가 건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묘 공사를 위해 부하라에서 장인들이 초대되었고 이후 원형을 잃지 않기 위한 수선과 보수 공사가 지속되었다. 하지만 본래의 모습은 사라졌다. 도말락-아나의 본래 이름은 ‘성모 누릴라(Holy Mother Nurila)’이다. 누릴라는 아랍어에 기원을 두며 그 뜻은 성스럽고 영광스럽다는 뜻이다. 따라서 아랍 이슬람의 중앙아시아 전파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지극히 종교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다. 그녀는 지혜로운 여자였으며 이후 모든 카자흐인의 어머니로서 숭앙을 받았던 것이다. 도말락-아나의 영묘는 카자흐스탄 남부 지역 투르키스탄에 있는 아흐메드 야사비 영묘와 함께 무슬림들의 순례지로 되어 있어 매년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도말라크 아나
- 다국어 표기 Домалақ ана(카자흐어), Домалак-ана(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바이디벡 아타, 투르키스탄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s5UouhWXCXQ>
<https://url.kr/bars8j>
- 참고문헌(온라인) <https://e-history.kz/ru/news/show/6728/> <https://www.skyway.kz/places/domalak-ana-mausoleum/>
- 참고문헌(오프라인) Казахстан. Национальн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т. 2, Алматы, 2005.

I A200 | 도스주스렌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몽골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학자
- 집필자 김재윤 ● 라틴 문자 Dorjsuren Tsogdanzan

도스주스렌(Dorjsuren)은 몽골의 고고학 1세대인 흥노 연구가이다. 1926년에 출생하여 1947년에 소비에트 연방의 모스크바 국립 대학 역사학부에 입학하고 1952년 고고학 전공으로

졸업했다. 소련에서 공부하면서 몽골 국립 대학에서 몽골어 및 몽골 문학으로 졸업했으며, 일본어와 러시아어에도 능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련에서 교육을 마친 후 몽골 고고학과 관련된 발굴과 유물을 관리하고 연구했다. 특히 그는 몽골 중서부 지역에서 흉노 관련 중요한 유적을 발굴했다. 노용 울, 울란바토르 근처의 벨킨 암, 아르한가이 아이막 근처의 골모드와 나이마 톨고이 유적 등이 대표적인 발굴 사례다. 그는 발굴 결과를 바탕으로 몽골에서 처음 출판된 흉노 관련 서적 『Umard Khunnu(The Northern Khunnu)』을 발간했다. 이 책은 몽골 연구자들이 흉노 역사에 대해 쓴 최초의 과학 연구로 간주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 그는 흉노인들이 다른 중앙아시아 유목민 중에서 자신의 국가를 세운 최초의 국가라는 것을 증명했다. 이후 이 책은 1990년에 일본어로도 번역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도르즈수렌

● 다국어 표기 Dorjsuren Tsogdzan(몽골어)

● 연관 검색어 흉노

● 참고문헌(오프라인) DORJSUREN, Tsogdzan 1961, Umard Khunnu(The Northern Khunnu) , Ulaanbaatar.

Academy of Sciences; DANDINSUREN TSEVEENDORJ SC.D(ed)., 2013, ENCYCLOPAEDIA XIONGNU, ULAANBAATAR; C.B.

Данилов Города в кочевых обществах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Улан-Удэ: 2004. 202 с.

I A201 | 도안 악산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언어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학자
● 집필자 이양희 ● 라틴 문자 Dogan Aksan

도안 악산(Doğan Naci Aksan, 도안 나지 악산, 1929년~2010년)은 튀르키예의 대표적인 언어학자이자 교육자이다. 그는 이즈미르 출생으로, 1948년 앙카라 대학교 언어역사지리학부(Dil ve Tarih-Coğrafya Fakültesi: DTCF) 튀르키예어문학과에 입학했다. 악산은 1952년 학부를 졸업하고 학과 조교로 근무하기 시작하면서, 동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마쳤다. 박사 과정 시작



『Türkçenin Zenginlikleri İncelikleri(2014)』 표지

전 독일의 훔볼트 장학금으로 독일의 본 대학 언어학 연구소에서 1957년~1958년에 연구 실습을 다녀왔으며, 박사 학위를 마치고 1963년에는 프랑크푸르트 대학 초빙 강사를 역임하고 튀르키예 언어학을 강의했다.

악산 교수가 튀르키예어문학과에서 수학하고 이후 박사를 마칠 때까지도 튀르키예에는 따로 언어학과가 존재하지 않았다. 악산은 학부를 졸업 이후 언어학적 측면의 연구에 더 몰두하여 기존의 투르크학과 언어학을 학문적으로 조화롭게 발전시키고자 노력했다. 튀르키예에서는 1982년도에 처음으로 악산 교수에 의해서 언어학과가 세부 전공으로 개설되었다. 앙카라 대학교의 언어역사지리학부가 설립된 1936년부터 언어학은 튀르키예어문학과 내에서 필수 과목으로 강의되고 있었으나 따로 전공으로 설정되지는 않았다. 이후 1983년

~1984년도 학기부터 학과생을 받기 시작하여 1987년에 첫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1991년 12월에 대학위원회와 고등교육위원회의 결정으로 독립 학과로 개설되었다.

언어학과는 일반 언어학과와 응용 언어학과, 두 부서의 세부 전공으로 구성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도안 악산은 학과 강의 및 언어학 연구뿐만 아니라 튀르키예 국립국어원(Türk Dil Kurumu; TDK) 언어 및 문법 부서에서 근무하며 튀르키예어의 발전과 보전에 힘썼다. 또한 그는 튀르키예 국내 언어 학술 대회(Ulusal Dilbilim Kurultayı)의 조직 및 개최에 있어 실질적인 기여가 매우 크다. 이처럼 튀르키예 내에서는 언어학의 정체성을 수립하고자 하는 한편 국외에서는 튀르키예 언어학을 알리고자 노력했다. 해외에서도 국제 알타이학 학술대회(Permanent International Altaistic Conference Altaistic), 국제 모국어 교육 네트워크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튀르키예 언어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자 노력했다.

도안 악산 교수는 연구 논문 이외에도 시, 단편소설, 문학 비평, 논설, 풍자, 에세이 등 다양한

장르의 원고를 집필하여 투고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의미론이며, 특히 튀르키예어 의미론과 관련된 연구에 중점을 두어 현대 의미론의 진보적 시각에 입각한 소논문과 서적을 많이 남겼다. 1996년에 은퇴한 이후에도 끊임없이 튀르크학과 언어학의 교량 역할을 하며, 튀르키예어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을 위한 강연 및 집필을 이어 나갔다. 2010년 지병으로 별세한 후, 앙카라 대학교 언어학과와 언어학회(Dilbilim derneği)를 주축으로 해마다 도안 악산 교수의 뜻을 기리기 위해 튀르키예의 언어학 교수진을 비롯한 신진 연구자들과 학생들이 함께 모여 추모 학술 대회를 10월 무렵 열고 있다. 2019년에는 제10회 도안 악산 학술 대회가 앙카라 대학교에서 열렸다. 매년 도안 악산 가족이 앙카라 대학교 언어학과 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과 도서를 기증하고, 언어학 및 튀르키예어학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현재까지도 튀르키예 언어학 및 의미론 강의의 개론서로 사용되고 있는 도안 악산의 주요 저서는 『의미론과 튀르키예어 의미론(Anlambilimi ve Türk Anlam bilimi, 1971)』, 『논란이 되는 어휘 목록(Tartışılan Sözcükler, 1976)』, 『모든 측면에서의 언어 3권(Her Yönüyle Dil 3 cilt, 1977~1982)』, 『튀르키예어의 힘(Türkçe'nin Gücü, 1987)』, 『시어와 튀르키예 시어(Şiir Dili ve Türk Şiir Dili, 1993)』, 『튀르키예어 어휘(Türkçe'nin Sözcükleri, 1996)』, 『의미론 주제와 튀르키예어의 의미론(Anlambilim Konuları ve Türkçe'nin Anlambilimi, 1998)』, 『민속 시의 힘(Halk Şiirimizin Gücü, 1999)』, 『가장 오래된 튀르키예어의 흔적(En Eski Türkçe'nin İzlerinde, 2000)』, 『튀르키예어의 어제, 오늘과 내일(Türkiye Türkçe'sinin Dünü, Bugünü, Yarını, 2000)』, 『공화국의 유년기, 청년기 그리고 오늘날(Cumhuriyet'in Çocukluk, Gençlik Yılları ve Bugün, 2001)』 등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도안 악산
- 다국어 표기 Doğan Aksan(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이즈미르, 앙카라, 튀르키예 국립국어원, 튀르키예어, 이스탄불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biyografya.com/biyografi/4592>
<https://url.kr/qliv7p>
- 참고문헌(온라인) <http://www.dilbilimi.net/aksan.htm>
<http://www.dtcf.ankara.edu.tr/dilbilim-bolumu/>

● 참고문헌(오프라인) Kocaman, Ahmet. A true gentlemen and a dedicated linguist: Doğan Aksan, *Turkic languages*, 2010.

Sarı, İbrahim. *Türkologlar: Türkologların yaşam öyküleri ve çalışmaları*. Antalya: NoktaE-book. 2017

I A202 | 도이두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구비 전승 ● 유형 소분류2 신화
● 집필자 강덕수 ● 라틴 문자 dojdu

야쿠트어로 ‘도이두(dojdu)’는 ‘세계’를 의미한다. 야쿠트 신화에서 세계는 천상세계(위헤에 도이두), 중간 세계(오르토 도이두), 지하 세계(알라라아 도이두)로 이루어져 있다.

신화에 의하면 태곳적 어느 날 연합체를 구성하던 세 종족인 위링 아아르(아이으으) 토온, 울루우 토온, 아르산 두올라이 사이에 서로 좋은 땅을 차지하고자 큰 싸움이 벌어졌다. 전쟁은 길어져 모든 것이 파괴되었다. 이들은 놀라 싸움을 그치고 평화 협정을 맺은 뒤 서로 분배를 하게 되었다. 그 결과 우주를 세 개의 독립된 세계로 나누게 되었다. 천상 세계는 위링 아아르 토온과 울루우 토온 종족이 차지했다. 중간 세계에는 야쿠트인 우랑카이 사하를 비롯한 35개 종족이 살게 되었다. 지하 세계는 부오르 마날라이(흙의 배)라고도 불리던 아르산 두올라이에게 주어졌다.

세계를 하늘, 땅, 지옥의 세 부분으로 나누는 것은 투르크족, 몽골족, 퉁구스족과 같은 시베리아 민족들에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야쿠트인들이 가진 세 개의 세계에 대한 신화적 관념은 실제의 지리적, 역사적 조건과 관련이 있다. 그들은 험준한 산악 지역에는 낮선 종족들이 살고 있다고 상상했다. 이를 토대로 하늘과 연결시켜 천상 세계에 대한 특정한 관념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지하 세계에 대한 관념은 겨울에는 춥고 긴 밤, 여름에는 습지와 모기를 견디어야 하는 툰드라와 관련이 있다. 야쿠트인의 조상들이 차지한 영토는 중간 세계(오르토 도이두)로서 행복한 우주의 중심을 상징한다.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 종족들이 세 개의 세계에 이주했다는 신화는 야쿠트인들의 선조들이

남쪽에 살던 시기에 관여하게 됐던 실제의 역사적 사건으로부터 구전된 기억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도이드, 도이디
- 다국어 표기 *дойду*(러시아어), *дойду*(야쿠트어)
- 연관 검색어 야쿠트어, 야쿠트인, 토온
- 참고문헌(오프라인) 강덕수 2011, 『야쿠티야. 맘모스와 다이아몬드와 착한 사람들의 나라』, HUFs Books, pp.35~36

I A203 | 독립 튀르키예 정교회 총대주교청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기독교 ● 유형 소분류2 조직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Autocephalous Turkish Orthodox Patriarchate

제1차 세계 대전을 전후로 이스탄불에 있던 콘스탄티노폴리스 총대주교청은 오스만 제국 정부에 반감을 본격적으로 드러내 1918년 오스만 정부와 관계 단절을 선언했다. 당시 콘스탄티노폴리스 총대주교청은 자신들은 오스만 제국의 백성이 아니며, 연합국이 오스만 제국을 점령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오스만 제국 내 그리스(Rum) 학교에서 튀르키예어 교육을 금지시켰다. 또한, 그리스-튀르키예 전쟁에서 그리스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군인들을 독려했다. 총대주교청의 적극적인 지지로 인하여 튀르키예 내의 그리스계, 룸계 시민들이 그리스군에 합류했으며 여러 소단체들이 설립되어 지방에서 무슬림 학살이 자행되기도 했다. 이런 방향에 반하여 그리스어를 사용하지 않는 정교회인을 위하여 당시 케스킨시 주교였던 파파 에프팀(Papa Eftim, 1884년~1968년)은 콘스탄티노폴리스 총대주교청에 대한 투쟁을 시작했다. 1922년 9월 21일 에프팀의 주도로 튀르키예 국회의 허가를 받아 카이세리에서 정교회 총회가 열렸고, 이곳에서 콘스탄티노폴리스 총대주교청과 단절을 선언하고, '튀르키예 정교회'가 세워졌다. 콘스탄티노폴리스 총대주교청은 카이세리에 세워진 이 총대주교청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자신들의 정당성을 보이기 위하여 이전보다 더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다.

1923년 로잔 조약에서 튀르키예 대표단은 콘스탄티노폴리스 총대주교청을 이스탄불에서 내보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신 오스만 시대에 부여되었던 특권이 상실되고 영적 행위와 결혼과 장례와 같은 권리만 인정되었으며, 모든 그리스-정교회 시민은 튀르키예 시민과 같은 권리를 부여받게 되었다. 이후 튀르키예에서 ‘콘스탄티노폴리스 세계 총대주교청’은 본부가 있는 이스탄불 페네르 지역의 이름을 따 ‘페네르 총대주교청’이라고 불리게 된다.

또한, 로잔 조약의 협약 중 하나였던 그리스와의 인구 교환으로 인해 아나톨리아반도 내 대부분의 정교회인이 그리스로 이주하자, 튀르키예 정교회 총대주교청은 본부를 이스탄불로 옮겼으며 이스탄불 갈라타 인근의 성모 마리아(Meryem Ana, 메리엠 아나) 정교회에 본부를 두었다.

파파 에프티무는 콘스탄티노폴리스 세계 총대주교청에서 파문당하게 되고, 튀르키예 정교회 총대주교청과 콘스탄티노폴리스 세계 총대주교청은 완전히 분리된다.

1926년 3월 18일 독립 튀르키예 정교회 총대주교청(Autocephalous Turkish Orthodox Patriarchate/Bağımsız Türk Ortodoks Patrikhanesi)을 설립했으며, 에프티무 1세가 총대주교직에 오른다. 그러나 콘스탄티노폴리스 세계 총대주교청은 독립 튀르키예 정교회를 비난하면서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독립 튀르키예 정교회 역시 콘스탄티노폴리스 총대주교청의 반 튀르키예적 행위를 끊임없이 비판했다.

1962년 에프티무의 사망 후 그의 아들 에프티무 2세(Eftim II, 본명: Turgut (George) Erenerol, 재위: 1962년~1991년)가 그 뒤를 이었으며, 1991년 에프티무 2세의 퇴위 후, 에프티무 1세의 둘째 아들인 에프티무 3세(Eftim III 본명: Selçuk Erenerol, 재위: 1991년~2002년)가 뒤를 이었으며, 에프티무 3세의 퇴위 후 에프티무 1세의 손자인 에프티무 4세(Eftim IV, 본명: Pasha Yumit Erenerol)가 2002년부터 총대주교직을 수행하고 있다.

독립 튀르키예 정교회 총대주교의 본부는 이스탄불의 성모 마리아 정교회(Meryem Ana)이며, 산하에 카라코이 아야 니콜라 교회(Karaköy Aya Nikola Kilisesi), 아지즈 아야 이야니 교회(Aziz Aya Yani Kilisesi)가 있다. 튀르키예 정교회 총대주교청에서는 튀르키예어로 전례를 진행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터키 정교회 총대주교청
- 다국어 표기 Bağımsız Türk Ortodoks Patrikhanesi(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제1차 세계 대전, 로잔 조약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commons.wikimedia.org/w/index.php?curid=36018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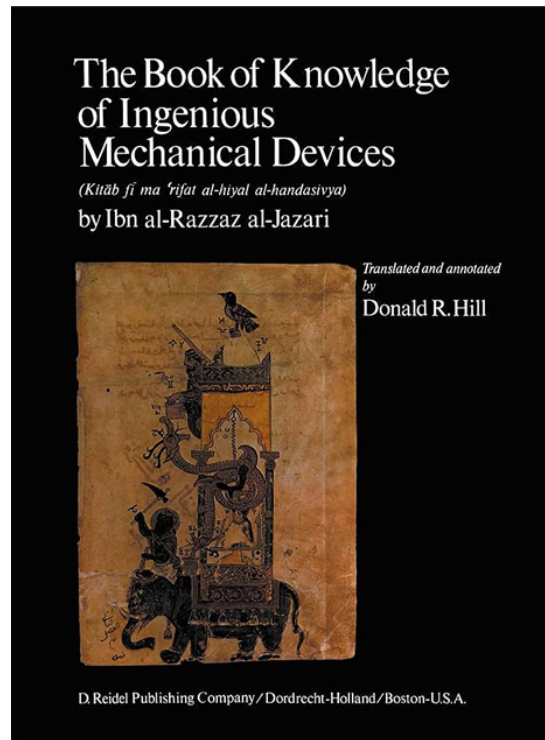
● 참고문헌(오프라인) Ercan, Hkimet Yavuz. "FENER VE TÜRK ORTODOKS PATRİKHANESİ". Tarih Araştırmaları Dergisi 5 1967, pp.411~439.

Şahin, M. Süreyya. "FENER RUM ORTODOKS PATRİKHÂNESİ", TDV İslâm Ansiklopedisi 12. cilt 1995, pp.342~348.

I A204 | 독창적인 기계 장치의 지식에 대한 책

● 시기 AD. 1000년~AD. 15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세밀화 ● 유형 소분류2 서적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The Book of Knowledge of Ingenious Mechanical Devices

12세기~13세기 학자이자 발명가였던 알 자리(Badī' az-Zaman Abu l-'Izz ibn Ismā'īl ibn ar-Razāz al-Jazarī, 1136년~1206년)는 1206년 아르투크(Artuquids) 왕조의 아미르 나시르 알 딘 마흐무드(Nāşir al-Dīn Maḥmūd, 재위: 1201년~1222년)의 명령으로 디야르바크르(Diyarbakır)에서 『독창적인 기계 장치의 지식에 대한 책(Kitab fī ma'rifat al-hiyal al-handasiya)』을 아랍어로 저술했다. 이 책은 기술 서적으로 6개 종류의 100여 개 자동 기계 장치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한 장마다 기계 장치를 소개하고, 설명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장에서는 10개 종류의 시계를 설명하고 있으며 두 번째 장에서는 컵과 사람, 동물의 형태를 설명하고 있다. 세 번째



『The Book of Knowledge of Ingenious Mechanical Devices』 표지

장에서는 자동 음료 제공 휴머노이드와 분수를, 네 번째 장에서는 이와 유사한 다섯 개의 물 관련 기계를, 마지막 장에서는 궁전의 문, 알람 시계, 자물쇠, 문과 관련한 기계를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자동 기계 장치를 설명하기 위해 저자는 세밀화를 그려 첨부했다. 가장 이른 시기에 작성된 필사본은 13세기 초에 제작된 것으로, 이스탄불 톱카프 궁전 박물관 도서관(Topkapı Sarayı Müzesi Kütüphanesi, Ahmet III 3472)에서 소장 중이며, 179페이지에 60개의 세밀화가 담겨 있다. 이 세밀화는 둥근 얼굴과 긴 머리, 카프탄을 입은 인물 형상과 같이 위구르와 셀주크 스타일을 반영하고 있다.

자세한 기계 장치를 담고 있는 이 서책은 지속적으로 세밀화와 함께 필사되었으며, 페르시아어나 투르크어로도 번역되었다. 현재 옥스포드 보드레이안 도서관(Oxford Bodleian Libraries MS.Graves 27, MS. Frazer 186), 레이든 대학 도서관(Library of the University of Leiden No. Or 656, No. Or. 117), 프랑스 국립 도서관(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Arabe 2477, 5101, suppl pers 1145), 체스터 비티 도서관(Chester Beatty Library, Ms. 4187), 프리어 갤러리(Freer Galley, 30.71-30.77, 32,19, 42.10) 등을 비롯한 여러 도서관과 박물관이 세밀화가 포함된 필사본이나 세밀화 낱장을 소장 중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키타브 알 히알, 오토마타

● **다국어 표기** Kitâb fî Ma'rifeti'l-ḥiyeli'l-hendesiyye(튀르키예어), Mexaniki sənətin nəzəri və praktiki əsasları(아제르바이잔어), Aqlli mexanik qurilmalar haqidagi bilimlar kitobi(우즈베크어), Тапқыр механикалық құрылғылар туралы білім кітабы(카자흐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rl.kr/t1lb4d>

독창적인 기계 장치의 지식에 대한 책_코끼리 시계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7/76/Al-jazari_elephant_clock.png/220px-Al-jazari_elephant_clock.png

● **참고문헌(오프라인)** Aslanapa, Oktay. Türk sanatı, İstanbul: Remzi Kitabevi, 2015.

Öney, Gönül. Anadolu Selçuklu mimari süslemesi ve el sanatları, Ankara: Türkiye İş Bankası Kültür Yayınları, 1992.

Ibn al-Razzaz al-Jazari, The Book of Knowledge of Ingenious Mechanical Devices: (Kitâb fî ma'rifat al-ḥiyal al-hendasiyya) (Translated and annotated by Donald Routledge Hill), Dordrecht: Reidel Dordrecht, 1974.

I A205 | 둔황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동아시아 ● 나라 중국 ● 유형 지리 ● 유형 소분류1 지명 ● 유형 소분류2 지구
- 집필자 우덕찬 ● 라틴 문자 Tunhuang

둔황은 중국 간쑤성 서북부에 있는 오아시스 도시이다. 통상적으로 둔황은 무위, 주천, 장액과 더불어 하서회랑(河西回廊)을 구성하는 오아시스 도시라고 불린다. 과거 둔황은 장안과 중앙아시아의 상인들에게 있어 실크 로드의 시발지이자 마지막 기착지였는데 동서양의 민족과 종교가 교차하여 세계 문화유산의 보고라 할 수 있다.

둔황의 동남쪽에는 유명한 명사산(鳴沙山)이 있다. '모래가 우는 산'이라는 이름을 가진 모래산이다. 바로 그 산 중턱에 약 1.8km에 걸쳐 석굴들이 떼 지어 있다. 5호 16국 시기인 366년, 전진의 승려 낙준이 처음으로 석굴을 파고 수행을 시작한 이래로 11세기 북송 시기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굴을 파고 수행을 하여 천여 개의 어마어마한 석굴군이 조성되었다. 현재 492개가 발굴돼 일반에 공개되고 있는데, 굴 안에는 사방 벽면과 천장에 휘황한 불교 회화가 장식되어 있고 수많은 불상이 조각되어 있어 '천불동(千佛洞)', 혹은 '둔황 막고굴(莫高窟)'이라 불리기도 한다.



명사산(둔황)



돈황 막고굴 입구

돈황 문화는 이곳을 거쳐간 동서양의 서로 다른 민족과 종교가 교차하면서 직조된 독특한 세계적인 문화 특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벽화들은 동양 미술의 뿌리로 일컬어지는데 초기에는 민간 신화가 주로 등장했고, 불교 전래 이후에는 석가의 일생, 열반상, 극락세계 등과 보살상, 비천도 등이 그려졌다.

돈황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폴 펠리오는 막고굴 장경동(藏經洞)에서 혜초의 『왕오천축국전』을 포함한 중요한 문서 1만 점을 입수해서 프랑스 국립 도서관으로 가져갔다. 문서 가운데 일부에서는 고대 한반도와 관련된 기록들이 보인다는 점이 주목된다. 파리 국립 도서관 소장 1283 문서(Pelliot tibetain 1283)에 Ke'u-li라는 지명이 보이는데, 당시 투르크계 사람들이 고구려를 Mug-lig로 불렀다는 사실 등을 토대로 하여 고려(高麗)로 추정하고 있다. 그런데 문서의 작성 연대가 786년~848년 사이인 것으로 확인되어 고구려 멸망 이후로부터 100여 년이 지난 시점이

다. 동시대 기록에서 일본이 발해를 고려라 칭했고, 당 역시 발해를 고려라 칭했던 점을 고려할 때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를 지칭한 것으로 이해된다. 돈황 문서는 발해가 고구려 계승국임을 나타내는 하나의 증거라 할 수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둔황
- 다국어 표기 敦煌(중국어), Tunhuang(영어)
- 연관 검색어 실크 로드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rl.kr/ubmeil>
<https://www.dha.ac.cn/info/1427/3690.htm>
- 참고문헌(온라인) 중국사 다이제스트_둔황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832995&cid=62059&categoryId=62059>
- 참고문헌(오프라인) Bonavia, Judy 2004: The Silk Road From Xi'an to Kashgar. Judy Bonavia - revised by Christoph Baumer. 2004.
Odyssey Publications.Stein, Aurel M. 1907. Ancient Khotan: Detailed report of archaeological explorations in Chinese Turkestan, 2 vols. Clarendon Press. Oxford.

I A206 | 돌(바위/암석) 신앙

- 시기 기타
- 지역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북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러시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신앙
- 유형 소분류2 자연물
- 집필자 양민지
- 라틴 문자 Stone/rock cult

투르크인들의 민간 신앙에서 돌 신앙은 첫째로 예르-슌(지모신, Yer-sub)을 상징하는 바위와 돌에 수호령이 깃들어 있다고 믿어 이에 제의를 드리고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이다. 투르크인들(Turkic People)은 돌이나 바위 등이 땅 혹은 대지를 상징하므로 이에 대해 경외심을 느끼고 기도를 드리거나 제물을 바쳤다. 또한 돌(바위)은 대지를 상징하므로 대지의 생성과 풍요의 힘이 깃들어 있어 물, 수목과 함께 민간 신앙에서 자식을 점지해 달라고 비는 치성기자(致誠祈子)를 드리는 대상으로 자주 등장한다. 둘째로 투르크 문화권에서는 특정 돌이 비를 내리거나

그치게 하는 힘이 있다고 믿었다. 전자의 돌 신앙이 애니미즘에 속한다면, 후자의 경우에는 돌이 직접적으로 주술적 힘을 지녔다고 믿는 경우라 할 수 있겠다.

비를 관장하는 힘이 깃든 돌을 야쿠트 투르크는 야드(yad), 야다(yada), 싸타(sata)라고 부르며, 알타이어로는 자다(cada), 킵차크 투르크는 자이(cay), 자마(cama)로, 키르기스 투르크는 자이(cay), 조이타쉬(joytaş), 카작 투르크는 자이든 타쉬(jaydın taşı), 오구즈 투르크는 야다 타쉬(yada taşı)라고 불렀다. 비가 내리지 않을 때 샤먼/부족장/영웅 등이 이 돌을 들고 기우제를 지내고 이 돌을 강이나 호수 물에 던져 넣으면 비가 내린다고 믿었다. 비뿐만 아니라 눈을 내리게 하거나 강풍을 일으킬 수 있다고도 믿었다. 11세기에 작성된 투르크-아랍어 사전인 『고대 투르크어 대사전(튀르키예어 표기: Divânu Lugâti't-Türk)』에서는 ‘야다 타쉬에는 번개로부터 사람을 보호하는 힘이 있어 이를 장식 돌로 사용한 반지를 손에 끼면 벼락 맞지 않으며, 이 돌을 가지고 불에 들어가면 타지도 않으며, 갈증이 날 때 입속에 돌을 넣으면 목마르지 않으리라’고 기록하고 있다.

투르크 문화권에서는 무덤 앞 혹은 주위에 석상의 한 종류인 석인(石人)을 세우는 전통이 있는데, 이는 6세기~13세기 몽골과 중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곱투르크의 석인상은 보통 무덤의 주인을 형상화한 것(남성 석인상, 여성 석인상), 임신한(출산한) 여성·아이·새끼 가족을 보호하는 축복의 여신 우마이(umay)를 형상화한 것, 고인이 생전에 죽인 적을 형상화한 발발 이렇게 크게 세 종류로 나뉜다. 석인상의 범주화는 학자들 사이에 거의 대동소이하지만, 때에 따라 초기 투르크인의 조상이 세운 사슴돌을 석인상의 범주에 넣기도 한다. 묘주를 형상화한 석인상을 세우는 전통은 투르크인의 조상령 숭배와 돌 신앙이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목적은 고인을 추모하거나 기리기 위함이다. 초기 투르크인의 장례 풍습에는 고인을 추모하기 위한 방식으로 고인의 살아생전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바위에 새기거나 혹은 석상으로 만들어 세웠다. 이슬람의 영향으로 점차 무덤 주위에 석상을 세우는 전통은 사라졌으나, 현재 투르크 문화권에는 묘비나 묘석(墓石)에 민간에서 성스러운 동물로 인식되던 사슴, 제물로 바쳐지던 말·염소·양, 영혼의 형태를 의미하는 새 혹은 나비, 영원불멸을 의미하는 생명수와 생명의 나무 등을 새겨 넣는 풍습이 있다.

투르크 신화·전설·민담 등의 구전 문학에서 아버지와 어머니(혹은 할머니)는 천신이나 지모신만큼은 아니지만, 신성(神聖)한 속성을 지녔는데, 민간에서는 석인상을 돌을 뜻하는 타쉬(taş)

와 아버지를 뜻하는 바바(baba), 혹은 할머니를 뜻하는 니네(nine)라는 단어를 결합하여 타시 바바(taş baba), 타시 니네(taş nine)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이는 아버지, 할머니 자체가 신격을 지닌 것은 아니지만, 아버지 혹은 할머니가 지닌 위엄이나 존경의 성격이 돌에 붙어 신성함과 경외를 불러일으키게 격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석인상 이외에도 투르크 무덤에는 종종 석수(石獸)가 발견되곤 한다. 이는 장례 과정 중 제물로 바치던 동물을 대신하는 기능을 하는 것과 고인이 무탈하게 사후 세계로 갈 수 있게 도와주는 영물의 기능을 하는 것 이렇게 두 종류로 나뉜다. 후자의 경우 보통 육지와 바다를 오갈 수 있는 거북, 하늘로 날아갈 수 있다고 믿는 새가 자주 등장한다.

세 번째로 투르크 문화권에서는 돌을 고인의 업적을 기리는 지표로 사용했다. 『복사』에 따르면, 돌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무덤 주위에 그를 기리기 위해 묘표를 세웠다고 한다. 고대 투르크 비문에서는 이를 발발(balbal, 몽골에서는 길게 줄지어 서 있는 돌이라고 하여 줄돌이라 부름)로 칭하는데, 원래 이는 고인이 생전 전장에서 죽인 적의 수만큼 돌을 세웠던 것을 가리킨다. 선돌부터 사람의 얼굴, 복식, 머리 모양, 술잔, 무기들까지 새겨 놓은 것 등 여러 종류가 있다.

발발은 크게 두 가지 기능을 한다. 첫째로 적의 영혼을 가두어 그가 타계에서 고인을 위해 봉사하게 만드는 기능이고, 둘째로 고인의 용맹함과 영웅성을 기리고 부족민들에게 이를 알리는 사회적 기능을 했다. 이슬람화 이후 투르크 문화권에서 대부분의 발발은 묘비로 대체되었다. 특히, 투르크 부족들은 통치자나 왕가의 사람들을 기리기 위해 거북이 모양의 돌을 조각하여 기념비를 올리고 공적과 당대의 역사를 새겼다. 이러한 기념비를 영원의 돌(벵귀 타쉬, bengü taşı)이라 불렀는데, 기념비의 내용이 후대까지 영원히 지속되리라는 믿음에서 이런 이름을 붙였다. 8세기에 제작된 오르훈 기념비가 이에 속한다.

넷째로 투르크 문화권에는 특정 돌을 두고 사람이 변한 것이라고 믿는 전설이나 민담이 있다. 이슬람화 이후 금기를 어기거나 종교적 시각에서 그릇된 행동을 한 사람들이 신에 의해 벌을 받아 돌이 되었다고 믿는 형태로 나타나거나 혹은 역경이나 고난, 환경적 제약 등 사회적 억압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죽음을 택하는 대신 돌로 변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 사람이 돌이 되었다는 화석(化石) 모티프는 당시 사회적 금기와 개인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불변의 제약이 돌로 표상된 것이다.

● 다국어 표기 Taş ve Kaya kültü(튀르키예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양민지, 손영훈 2017, 「궤투르크 석인상과 발발의 의미와 기능에 대한 고찰 -튀르키예 영혼관을 중심으로-」, 『중동연구』 35(3), pp.75~102.

Ergin, Muharrem, Orhon Abideleri, Boğaziçi Yayınları, İstanbul 2006.

Kafesoğlu, İbrahim, Eski Türk Dini, Kültür Bakanlığı Yayınları, İstanbul 1980.

Kalafat, Yaşar, Altaylar'dan-Anadolu'ya Kamizm-Şamanizm, Yeditepe Yayınevi, İstanbul 2004.

Roux, Jean Paul, Türklerin ve Moğolların Eski Dini, Kabalcı Yayınevi, İstanbul 2001.

I A207 | 돌간어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언어 ● 유형 소분류1 분류 ● 유형 소분류2 언어명
● 집필자 장주영 ● 라틴 문자 Dolgan Dialect

튀르키예어를 사용하는 인구 분포를 살펴보면 북동쪽, 북극해에 가까운 지역에 사는 북부 시베리아 돌간인은 총 7,000여 명 정도에 불과하다. 돌간인들은 지역은 광활하고 넓지만, 인구가 밀도가 매우 낮은 타이미르(Taymir)반도의 남쪽 지역, 피야시노(Pyasina) 강, 부분적으로는 예니세이 부족 지역에 걸쳐 살고 있다. 북부 사모예드 언어를 사용하는 응가나사인(Nganasan)들과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고 할 수 있다. 돌간인들은 실제로 빌류이(Vilyuy) 강을 따라 정착하여 야쿠트어의 방언을 사용하는 통구즈인들이다. 16세기 말 레나 야쿠트 지역을 떠나 북쪽 타이미르 반도로 이주하게 된다. 그들은 스스로를 타이가맨이라 호칭했지만 그 이후에 그들을 부르는 호칭은 돌간(Dolgan) 혹은 돌간(Dulgan)이 되었다.

돌간어는 북시베리아 튀르키예의 가장 북쪽에서 사용되는 언어이다. 야쿠트어와 매우 흡사한 돌간어는 야쿠트어의 방언이라고도 일컬어지지만, 정치적, 사회적인 이유로 인하여 독립적인 언어로 간주된다. 돌간어는 튀르키예어가 아닌 언어들과도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우선, 예벤키어 화자들이 돌간어를 자신의 언어로서 수용하며, 변형하여 사용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후 사모예드 그룹에서도 예벤키어를 중심으로 변형, 수용되었는데, 결론적으로 돌간어는 다른 언어 그룹간의 의사소통에 사용되어 일종의 '링구아 프랑카(Lingua Franca)' 역할을 한 것이다.

돌간인들에게 돌간어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모국어 역할을 하지만, 그들 중 일부는 돌간어와 예벤키어 이중 언어를, 일부 돌간인들은 응가나사인어를 사용한다. 하지만 돌간어를 구사하는 인구가 점차 줄어들어 인하여, 최근 사라질 위험에 처한 절멸 위기의 언어로 간주되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돌간어, 돌간 언어, 돌간 말
- 다국어 표기 Дулҕаһа(돌간어) , Dolganca(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투르크, 야쿠트, 야쿠트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Johanson, L. *Türk dili haritası üzerine keşifler*(Vol. 7). Grafiker. 2002.

| A208 | 돌간인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지리 ● 유형 소분류1 민족
- 집필자 김홍중 ● 라틴 문자 Dolgans

돌간인의 지리적 영역은 예니세이 강(р. Енисей) 하구와 파시나 강(р. Пясина) 유역에 걸쳐 있다. 야쿠트인과 함께 가장 북쪽에 살고 있는 투르크계 민족이며, 행정 구역상 크라스노야르스키 변경의 북쪽인 타이미르(Таймыр: 정식 명칭은 타이미르 돌간-네네츠키 지역)에 주로 거주하며 야쿠츠크에도 약 20% 정도가 살고 있다. 2010년 인구 조사에 따르면 러시아에 살고 있는 돌간인은 모두 7,885명이었다. 오랫동안 돌간인들은 스스로를 칭하는 용어 없이 씨족의 이름으로 자신들을 불렀다. 돌간인들은 17세기~18세기 러시아 제국 예니세이 현의 북쪽에서 형성되었으며, 통구스 혈통의 돌간인, 돈고트인, 예단인, 카란토인, 야쿠티야 문화에 영향을 받은 일림피스키 예벤키인, 네네츠크인, 툰드라화된 시아계인엔 옌인 등이 돌간 민족을 구성했다. 1959년 인구 조사에서 독립적인 민족명을 획득했지만 통계에서는 야쿠트인에 포함되어 발표되었다.

돌간어는 알타이어족의 투르크어파에 속한다. 그 발전 과정에서 고립된 야쿠트어와 가깝지만 예벤키어의 영향도 받았다. 돌간인 대부분은 러시아 정교 신자이지만 범신론에 기초한 애니

미증적 요소도 보존되어 있다. 타이미르 툰드라에서는 돌간 샤먼들이 큰 권위를 가지고 있다. 타이미르의 다른 민족들과 달리 돌간인은 러시아인처럼 시신을 매장하는 풍습을 가지고 있다.

돌간인은 러시아식 통나무, 야쿠트식 발라간(임시 주택), 퉁구스 춤(원추형 천막)에서 거주하면서 순록 목축, 사냥 등에 종사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돌간족
- 다국어 표기 Долганы(러시아어), Dolganlar(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예니세이 강, 야쿠트인, 야쿠츠크, 돌간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Энциклопедия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Севера, Сибири 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ед. автор В.А. Тураев, М.: Россия, 2005, 32.

I A209 | 돌궐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몽골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국가 ● 유형 소분류2 왕조
- 집필자 우덕찬 ● 라틴 문자 Tu-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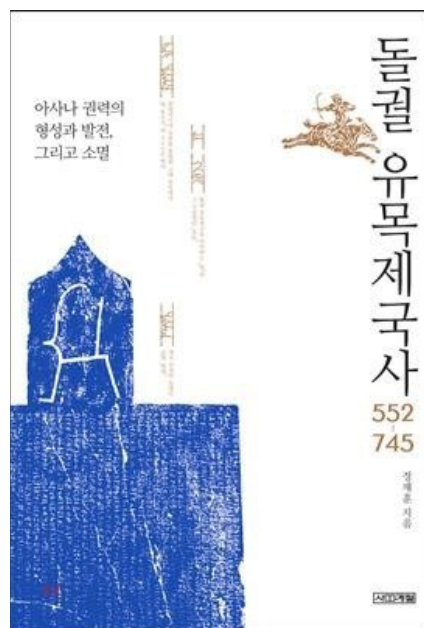
중국 사서에 따르면 돌궐이 최초로 역사 무대에 등장했을 때 유연의 복속 부족으로 알타이산맥 남서쪽을 중심으로 해서 철작(鐵作)에 종사했다고 전해진다. 이러한 돌궐의 철작 기술은 우수한 무기 개발을 가능케 했고 향후 정복 전쟁을 통한 제국 건설의 중요한 바탕으로 되었음이 분명하다. 돌궐 제국의 성립도 전형적인 스텝 제국의 전통대로 지도자 일개인의 역량과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돌궐의 수장인 토문(土門: 오르콘 비문의 Bumin)이 어떠한 경로를 거쳐 돌궐의 지배자가 되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적어도 기원후 545년경에 이르러서는 돌궐이 강성해져 스텝 지역의 새로운 중요 정치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어 방대한 영역에 걸친 유목 제국을 성립시켰다.

동양사에서 돌궐 제국기는 크게 세 시기로 나뉜다. 제1돌궐 제국기(552년~630년), 당의 기미 지배기(630년~682년), 그리고 제2돌궐 제국기(682년~745년)이다. 돌궐은 중앙아시아 유목 민

족 중 최초로 문자를 만들어 사용한 민족이다. 돌궐 문자는 고(古)게르민족이 사용했던 룬(Rune) 문자와 비슷하기 때문에 룬체 문자라고도 불리지만 양자 사이에 직접적 관련은 없다.

현재 40자가 알려져 있는데 모음자 넷 외에는 모두 음절 문자이고 대부분은 모음 없이 쓴다. 돌궐이 남긴 기록으로는 제2돌궐 제국기에 건립된 비문들이 중요한데 이 비문들이 발견된 장소가 돌궐 제국의 중심지였던 오르콘강 주변의 ‘호쇼차이담(Hosho Tsaidam)’ 분지였기 때문에 우리는 통상 이 비문들을 오르콘 비문(Orkhon Inscriptions) 또는 호쇼차이담 비문이라 부르고 있다. 중요한 비문들로는 732년 건립된 쿨 테긴비문(闕特勤碑文), 735년 건립된 빌게 카간비문(毗伽可汗碑文), 720년 건립된 툰유곡비문(暾欲谷碑文)이 있다. 오르콘 비문의 존재를 기록한 최초의 문헌은 12세기 이슬람 사가 주바이니(Juvaini)가 남긴 역사서였다. 근대에 와서 처음으로 그 존재를 학계에 보고한 사람은 스웨덴 장교 스트라흐렌베르그(Johann von Strahlenberg)로서 그는 1709년 스웨덴과 러시아 간의 폴타바(Poltava) 전투에서 러시아의 포로가 되어 13년간 유배 생활을 하던 중 외몽골의 오르콘 강변에서 비문들을 발견했다. 이후 그는 고국에 돌아온 후 학계에 비문들의 존재를 알렸고 19세기 말부터 핀란드 학자들과 러시아학자들에 의한 비문의 추가 발견과 정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마침내 1893년 덴마크의 언어학자 톰센(Thomsen)에 의해 판독이 이루어졌고 이후 서양과 동양의 선진학자들에 의해 훌륭한 연구 논저들이 발표되었다.

돌궐사가 갖는 그 역사적 의의를 크게 다음 네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돌궐 민족에 의한 문자의 창제를 들 수 있다. 돌궐은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건립되었던 유목 제국 중 최초로 문자를 발명해 오늘날 돌궐사 연구에 있어 일차 토착 사료로 이용하고 있는 오르콘 비문을 위시한 고대 돌궐 비문을 남겨 놓았다. 이로 인해, 정복 왕조 이전의 유목 민족사 연구에 있어 중국측 사료에만 의존하는 일방적 연구가 아니라 유목민 자체의 기록과



『돌궐 유목제국사』 표지

중국측 기록을 비교, 종합함으로써 적어도 돌궐만이라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돌궐 제국은 몽골 제국 이전에 성립된 유목 제국 중 최초로 그 지배권을 동으로는 중국 변경에서, 서로는 비잔틴 변경까지 확장시켜 당시 유라시아(Eurasia)의 주요 정착 세력인 중국, 페르시아, 비잔틴 제국의 안위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셋째, 중앙아시아의 광대한 영역을 지배한 돌궐은 고래로부터 동서 교류의 대동맥이었던 실크 로드를 장악함으로써 동서 문화의 교류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넷째, 돌궐의 약 2세기에 걸친 중앙아시아 지배로 그들을 지칭하는 민족명인 투르크(Türk)라는 용어는 서구 세계에 유라시아 대륙의 스텝 지역에 존재하는 모든 유목 민족을 총칭하는 용어였고 이 용어는 돌궐 제국 멸망 후 몽골 제국기가 도래할 때까지 수세기에 걸쳐 사용되었다. 745년 돌궐이 멸망한 후, 또 다른 투르크계 부족연맹체인 위구르족에 의해 몽골 고원에는 위구르 제국이 성립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키투르크

● 다국어 표기 突厥(중국어)

● 연관 검색어 회흘, 유연, 돌궐 문자, 오르콘 비문

● 참고문헌(오프라인) 룩관텐 저, 송기중역, 『유목민족제국사』, 민음사, 1984.

禹惠燦 1995, 「突厥史上에 나타난 몇몇 問題點에 關한 研究」, 『한국중동학회논총』 제16호.

이희수 1993, 『터키사』, 대한교과서주식회사.

林幹 1988, 『突厥史』, 內蒙古出版社.

丁載勳 1994, 「突厥 第二帝國時期(682~745) 퉡유쿠크의 役割과 그 位相」, 『東洋史學研究』 第四十七輯, 東洋史學研究.

護雅夫 1967, 『古代トルコ民族史研究 I』, 東京.

Chavannes, Edouard, Documents sur les Tou-kiue(Turcs) Occidentaux, St. Petersburg, 1903.

Czegledy, K. Coyay-quzi, Kök-öng”, Acta Orientalia Scientiarum Hungaricae 15, 1962.

“On the Numerical Composition of the Ancient Turkish Tribal Confederation”, Acta Orientalia Scientiarum Hungaricae 25, 1972.

Ecsedy, H., “Trade and War Relation between the Turks and China in the Second Half of the 6th century”, Acta Orientalia Scientiarum Hungaricae, Tomus 21, 1968.

“Tribe and Tribal Society in the 6th Century Turk Empire”, Acta Orientalia Scientiarum Hungaricae 25, 1972.

“Tribe and Tribal Society in the Turk Age”, Acta Orientalia Scientiarum Hungaricae 31, 1977.

Harmatta, J., “Byzantinoturcica”, Acta Archaeologica Academiae Scientiarum Hungaricae, Tomus 10, 1962.

“Irano-Turcica”, Acta Orientalia Scientiarum Hungaricae, Tomus 25, 1972.

I A210 | 돌궐 문자(궤투르크 문자)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공동 지역 ● 나라 돌궐 제국 ● 유형 언어 ● 유형 소분류1 분류 ● 유형 소분류2 문자
- 집필자 이양희 ● 라틴 문자 Gokturk alphabet

돌궐 문자(突厥文字)는 고대 돌궐에서 쓰인 표음 문자이자 음소 문자로서 궤투르크 문자는 고대 투르크 문자, 오르콘(오르혼) 문자라고도 일컬어진다. 궤투르크 혹은 궤투르크는 돌궐을 튀르키예어식으로 발음한 표기이며, 오르콘 문자라는 표현은 돌궐 문자로 쓰인 대표적인 비문인 오르콘 비문에서 유래된 명칭이다. 이 비문들은 오늘날 몽골의 오르콘(Orhon)(튀르키예식 표기: Orhun(오르혼)) 강 유역에서 발견되었다.

투르크족은 6세기 중엽, 오늘날의 몽골을 중심으로 돌궐 제국을 건국했고, 여러 비문을 남겼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되고 중요한 투르크어 기록 유물로는 8세기에 쓰인 오르콘 비문들과 그보다 더 오래된 것으로 추정되는 짧은 묘비석의 성질을 지니는 예니세이 비문들(Yenisey Yazıtları)이 있다. 오르콘 비문들은 유역 인접 지역에 존재하는 켈 티킨(Kültikin, 732년) 비문과 빌게 카간(Bilge Kağan, 735년) 비문, 그리고 당대 재상인 톤유쿱(Tonyukuk)의 이름으로 세워진 울란바토르 부근의 두 개의 비석을 말한다. 이 네 개의 비석은 두 명의 군주와 한 명의 총리대신의 연설로 투르크 부족들이 다른 부족들과 치른 전투, 그들의 희생 그리고 국민들에게 전하는 충고 등을 담고 있다. 오르콘 비문은 알타이어족에 속하는 언어 가운데 가장 일찍 음소-표음 문자로 적힌 기록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비문에 사용된 문자는 형태면에서 고대 게르만 인들이 사용했던 룬 문자(Runic alphabet)와 유사해서 유럽에서는 튀르키예 룬 문자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소리 값은 일치하지 않는다. 오르콘 비문 중 켈티킨 비문과 빌게 카간 비문에 사용된 돌궐 문자는 38개의 자모로 되어 있다. 표기법에서 모음은 대개 생략되며, 특정 자음은 모음에 따라 그 형태가 바뀐다. 또한 돌궐 문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쓴다. 이 가운데 모음은 4개의 문자가 있으며 하나의 문자가 두 가지 모음을 표기하는 데 사용되었다.

이와 같이 돌궐 문자 4개로 표현되는 모음은 총 8가지로 ‘a, e, ı(—), i, o, ö(—), u, ü(—)’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돌궐 문자는 모음 ‘a’와 ‘e’를 문자 하나로 표기하였으며, ‘i’와 ‘i’, ‘o’와

‘u’, ‘ö(ɔ)’와 ‘ü(ɰ)’ 역시 각각 하나의 문자로 나타났다. 남은 34개 문자 중에서 20개는 자음 ‘b, d, g, k, l, n, r, s, t, y’의 쌍글자들이다. 돌궐 문자는 모음에 따라 사용되는 자음 문자가 다르다. 다시 말해 ‘b’의 경우 전설자음과 함께 쓰일 때와 후설자음과 나타날 때의 문자 형태가 각기 다르며, 후설자음은 후설모음(a, ɪ, o, u)과 함께, 전설자음은 전설모음(e, i, ö, ü)과 어울려 쓰인다. 따라서 돌궐 문자에서는 표기된 자음을 통해서 모음 그룹들 중 a/e와 ɪ/i를 구분할 수 있으며, o/u 와 ö/ü는 구별할 수 없다. 또한 모음의 특징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 가능한 중립적인 7개의 자음(ç, m, ng, ny, p, ş, z)이 있으며, 세 개의 겹자음(ld, nç, nt)을 나타내는 문자가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남은 4개의 문자는 모음을 포함하는 음절을 나타내는 문자(iç/çi, ık/kı, ok/ko, uk/ku, ök/kö, ük/kü)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꺾튀뤼체, 꺾튀뤼체, 꺾튀뤼크 알파베씨, 오르훈 알파베씨
- 다국어 표기 Köktürkçe(튀르키예어), Göktürkçe(튀르키예어), Köktürk alfabeti(튀르키예어), Orhun alfabeti(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오르콘 비문, 돌궐, 빌게 카간 비문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rl.kr/pgn4ze>
- 참고문헌(온라인) 돌궐 문자 예시
<http://www.turkishculture.org/literature/language-124.htm>
<https://acikders.ankara.edu.tr/mod/page/view.php?id=18806>
- 참고문헌(오프라인) Tekin, T. 저 이용성 역, 『돌궐비문연구』, 제이앤씨, 2008.
 Aksan, D. 2003. Türkiye Türkçesinin Dünü, Bugünü, Yarını, Ankara : Bilgi yayınevi, pp.28~29.

I A211 | 돌르가 올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몽골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유적 ● 유형 소분류2 무덤
- 집필자 김재운 ● 라틴 문자 Duulga Uul

몽골의 흉노 무덤인 돌르가 올 유적은 헨티 아이막 자르갈트한 솜 중심 마을에서 동남쪽으로 27km 떨어진 곳에 투구 모양의 검은색 작은 산 이름이 유적명이 되었다. 평탄 대지 서남쪽 끝

에 흉노 무덤 130기가 서남-동북 방향으로 분포하고 있다.

1969년 고르완 골 무덤조사단이 이 유적 5기를 발굴했고, 1971년에는 몽골-헝거리 조사단이 유적 연구를 하였다. 몽골-소련조사단은 1975년, 1985년(10기), 1988년(5기)에 조사했다. 1969년과 1985년에 조사된 것은 보고서가 남아 있지 않고, 1971년, 1975년, 1988년에 조사된 자료만 남아 있다.

돌가울 71-7호는 무덤 중 가장 대형에 속하는데, 무덤 크기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도굴 흔적이 확인되었고, 깊이 4.7m에 이르자 목관과 그 밖의 목제 시설 흔적이 드러났다. 묘광벽을 따라 수직으로 세운 판석이 군데군데 남아 있다. 매장 주체부 서북쪽 모서리에 2열의 횡침선이 돌아가는 회갈색의 호형 토기가 확인되었다. 오른발 옆에는 사슴뿔 1점, 양 뼈, 유기물 흔적 등이 수습되고, 이보다 약간 북쪽에서 말의 갈비뼈 9점과 양 다리뼈, 등뼈, 말 엉덩뼈, 철편 등이 출토되었다. 식물로 썩 막대형 청동기 1점이 출토되었는데, 식물은 보존 상태가 좋지 않았다. 청동기 주변에서 철제 톱, 철검, 철도, 철제 망치, 삼익형 철촉, 철제 등자, 가죽에 부착된 단추 모양 청동 장식 등이 출토되었다. 대형 철제 고리 2점, 토기 2점을 연결한 표주박형의 흑색 토기, 소의 복사뼈, 막대형 철기 1점이 출토되었다. 같은 유적의 울 71-9호 무덤에서는 높이 31cm의 청동 정이 출토되었다. 다리 세 개가 붙어 있으며, 손잡이 2개가 부착되어 있었다. 솔의 표면에 유기물이 붙어 있고 안에는 등, 골반, 다리 갈비 등의 양 뼈, 목제품, 골제 젓가락이 들어간 채로 출토되었다. 무덤의 연대는 기원전 3세기~기원후 1세기까지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두울가울

● 다국어 표기 Дуулга Уул(러시아어), Duulga Uul(몽골어)

● 연관 검색어 흉노

● 참고문헌(오프라인) DANDINSUREN TSEVEENDORJ SC.D(ed.), 2013, ENCYCLOPAEDIA XIONGNU, ULAANBAA TAR.

국립중앙박물관·몽골국립박물관·몽골과학아카데미고고학연구소 2011, 『몽골 도르릭 나르스 흉노무덤(1)』.

I A212 | 돌마바흐체 궁전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건축 ● 유형 소분류2 궁전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Dolmabahçe Palace

돌마바흐체 궁전은 이스탄불의 보스포루스 해협을 바라보는 곳에 위치해 있다. 돌마바흐체 궁전이 건설되었던 자리는 원래 해상 원정을 나가기 전 행사를 치르던 곳으로, 이런 행사에 걸맞게 작은 만을 ‘채워 넣어(dolma/돌마: 채움, 넣음) 만든 정원(bahçe/바흐체: 정원)’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설이 있다. 물론 해상 원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던 이 공간은 세월이 지남에 따라 술탄이 건설한 건물로 가득 차게 되었다. 하지만 저택이나 여름 별장 수준으로 건설되었던 건물은 거의 사용하지 않아 습기로 인해 건물이 훼손되거나, 지진과 화재 등으로 오래 보존되지 못했다.

셀림 3세(III. Selim, 재위: 1789년~1807년)에 이르러서는 건축가 멜링(Antoine Ignace Melling, 1763년~1831년)이 이 자리에 유럽 스타일의 여름 궁전을 건설할 것을 명령받는다. 파손과 철거, 증축을 반복하여 결국 여름 별장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하던 복합 건물이 되어버린 이곳을 대대적인 수리와 증축을 거쳐 정궁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은 술탄 마흐무드 2세(II. Mahmud, 재위: 1808년~1839년)였다. 당시 이 궁은 베식타쉬 해변 궁전(Beşiktaş Sahilsarayı)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마흐무드 2세가 이러한 결정을 내렸던 것은 셀림 3세가 톱카프 궁전에서 살해를 당해서만이 아니었다. 당시 도시는 확장되고 있었고, 이로 인해 돌마바흐체는 새롭게 확장된 도시 범위 내에 있었다. 돌마바흐체 궁전은 마흐무드 2세가 지향하던 서구화와 근대화를 백성에게 설득하기 용이한 곳에 위치했던 것 역시 중요한 이유가 된다.

마흐무드 2세의 후계자였던 압뮐메지드(Abdülmejid, 재위: 1839년~1861년)는 제위에 오른 후 지금까지 건설했던 목조 궁을 철거하고 석재로 다시 궁을 건설하라고 명령했다. 그래서 18세기 목조건물로 세워진 궁은 완전히 철거된 후 석조건물로 재건됐다. 더불어 톱카프 궁전과는 완전히 다른 측량법과 양식을 이용하여 유럽 궁전 스타일로 건설됐다. 이는 압뮐메지드가 가졌던 서구화를 향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새로운 돌마바흐체 궁전은 1856년 6월 7일 개장되었다. 그러나 정작 압뮐메지드는 돌마바흐체 궁전을 5년밖에 사용하



돌마바흐체 궁전

지 못했다. 마지막 칼리프인 압둘메지드 에펜디(Abdülmecid Efendi, 1868년~1944년)가 출궁 하던 1924년까지 궁전이 사용된 햇수는 35년이었고 6명의 술탄과 마지막 칼리프가 머물렀다.

공화국 건립 초창기에는 대통령의 여름 관사이자 해외에서 튀르키예로 방문한 고위층 손님을 영접하는 공간으로 이용되었다. 초대 대통령인 아타튀르크(Mustafa Kemal Atatürk, 1881년~1938년)가 이 궁전에서 1938년 11월 10일 오전 9시 5분에 사망했고, 그가 사망했던 방의 시계는 그의 사망 시간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후 관저로는 더는 사용되지 않았으나 영빈관으로서 일부 사용되었고, 1952년 일반인에게 개방되기도 했다가 다시 폐쇄되었다. 돌마바흐체 궁전이 일반인에게 다시 공개된 것은 1981년 이후이다.

궁전의 전체 설계는 아르메니아 출신의 건축가 부자(父子)인 가라베트 발얀(Garabet Balyan, 1800년~1866년)과 니코고스 발얀(Nikogos Balyan, 1826년~1858년)이었으며 내부 장식은 파리 오페라 홀의 장식을 담당했던 샤를 세잔(Charles Séchan, 1803년~1874년)이 맡았다.

돌마바흐체 궁전의 전체 크기는 110,000㎡ 가량이며, 주요 공간은 남성들의 공간이자 손님을 받을 수 있는 셀람룩(Selamlık), 공식적인 업무 처리 공간인 마베인(Mâbeyin: 술탄의 궁), 명

절 인사를 나눌 수 있는 무아예데 홀(Muayede Salonu), 여성들의 공간인 하렘(harem)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외에도 돌마바흐체 모스크와 같은 종교 시설뿐만 아니라 극장과 같은 유흥 시설, 시계탑, 군부대, 작은 별궁, 도서관을 비롯하여 다양한 공간이 있었으며 보트 하우스 앞에는 커다란 항구까지 있었다. 건물은 전체적으로 길게 늘어진 형식으로 양측의 날개 부분과 중앙의 큰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건물의 장식은 앙피르, 로코코 및 바로크 양식을 비롯하여 고전적인 오스만 양식이 혼재되어 있다. 특히 정문의 경우 바로크 양식과 로마 제국의 승리를 상징하는 월계관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이는 오스만 제국의 장려함을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마베인의 바다를 바라보는 전면 장식은 신고전주의 양식이며, 무아예데 홀은 서구 예술의 시대별 양식이 복합적으로 사용되었다. 무아예데 홀의 바다를 바라보는 면 쪽에는 앙피르 양식의 꽃병으로 장식한 바로크 양식의 계단이 눈에 띈다. 하렘 역시 바다를 바라보는 공간이 마베인 홀과 마찬가지로 복합적이고 풍부한 장식성을 자랑한다. 육지 쪽을 바라보는 벽면의 경우 대체로 단순하게 처리했다. 이외에도 일부분에서는 풍경과 정물화를 차용한 장식이 자리하고 있다.

돌마바흐체 궁전은 당시 오스만 제국의 서구화와 근대화 열망을 강렬하게 보여주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돌마바흐체 사라이, 돌마바흐체 궁
- 다국어 표기 Dolmabahçe Sarayı(튀르키예어), Dolmabağça sarayı(아제르바이잔어), Долмабахче сарайы(카자흐어), Dolmabahçe saroyi(우즈베크어)
- 연관 검색어 톱카프 궁전, 압틸메지드
- 멀티미디어 링크 돌마바흐체 궁전
<https://www.youtube.com/watch?v=CdEx2QkXrFI>
 돌마바흐체 궁전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b/b1/Dolmabah%C3%A7e_Saray%C4%B1_-_panoramio.jpg/800px-Dolmabah%C3%A7e_Saray%C4%B1_-_panoramio.jpg
 돌마바흐체 궁전 대문
https://www.kulturportali.gov.tr/contents/images/09062014_73fd8d9a-6618-41b7-88ef-a3a57369eb93.jpg
 돌마바흐체 궁전 내부
[https://www.kulturportali.gov.tr/contents/images/%c4%b0STANBUL-DOLMABAH%c3%87E%20SARAYI-G%c3%9cLCAN%20ACAR%20\(17\).jpg](https://www.kulturportali.gov.tr/contents/images/%c4%b0STANBUL-DOLMABAH%c3%87E%20SARAYI-G%c3%9cLCAN%20ACAR%20(17).jpg)
- 참고문헌(온라인) <https://www.millisaraylar.gov.tr/saraylar/dolmabahce-sarayi?detay=tarih>

- 참고문헌(오프라인) Aslanapa, Oktay. Osmanlı devri mimarisi, Istanbul: İnkılâp Kitabevi, 2004.
- Gülersoy, Çelik. Dolmabahçe, Istanbul: İstanbul Kitaplığı, 1984.
- Sözen, Metin. “DOLMABAĞÇE SARAYI”, TDV İslâm Ansiklopedisi, Cilt 9, Istanbul: TDV, 1994, pp.503~507.

I A213 | 돌마바흐체 모스크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건축 ● 유형 소분류2 모스크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Dolmabahce mosque

돌마바흐체 모스크의 정식 이름은 베즈미알렘 왈리데 술탄 모스크(Bezmiâlem Vâlide Sultan Camii)이지만, 돌마바흐체 궁전의 시계탑 방향을 향하여 세워져 있기 때문에 건설 당시부터 오늘날까지 돌마바흐체 모스크로 불린다.

1853년 술탄 압뫼메지드(Sultan Abdülmecid, 재위: 1823년~1861년)의 어머니 왈리데 술탄 베즈미 알렘(Bezm-i âlem Vâlide Sultan, 1807년~1853년)의 명령으로 건설을 시작했고 베즈미 알렘의 사망 후 술탄 압뫼메지드가 완성했다. 건축가는 돌마바흐체 궁전의 건축가 중 하나였던 니코고스 발얀(Nikogos Balyan, 1826년~1858년)이다. 주재료는 석재와 대리석이다.

1948년부터 1961년까지 이 모스크는 술탄의 기도실을 포함하여 전체가 해양 박물관으로 사용되었지만, 현재 해양 박물관은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일반인에게 기도용으로 공개된 상태이다. 1966년 와크프 총 이사회(Vakıflar Genel Müdürlüğü)가 복구 공사를 했다.

이 건물은 사각형 바닥에 돔 하나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스크 앞에는 ‘왕을 위한 내실(Hünkâr Kasrı)’이 있다. 왕을 위한 내실에는 가느다란 미너렛이 2개 붙어 있으며 이 미너렛의 발코니 하단 부분은 아칸서스 잎 무늬로 장식되어 있다.

돔의 경우 고전적인 건축에서는 사용되지 않은 방식으로 벽에 바로 돔을 얹은 형태이다. 무게를 견디기 위해 직사각형 형태의 탑을 지붕 네 곳에 세웠다. 이 탑은 무게를 견뎌주고 동시에 장식성을 배가시킨다. 이 탑에는 작은 기둥이 두 개씩 달려 있고 장식은 로코코 양식과 바로크 양식을 섞은 형태이다. 모스크 마당에는 시계탑이 있고, 모스크의 주변에 있던 복합 건물은 철거



돌마바흐체 모스크

되어 담은 없다.

내부는 빛이 많이 들게 설계되었으며 붉은색과 흰색의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미흐랍 벽감의 모서리 부분도 바로크 양식으로 장식되어 있다. 미흐랍 벽감의 주변 부분은 기하학 문양으로 장식되어 있다. 설교단의 난간 부분에도 유사한 기하학 장식이 있다.

돌마바흐체 모스크의 가장 큰 특징은 장식에 있어 오스만화된 서구 양식을 적용했다는 점이다. 바로크, 로코코의 장식성이 기존 오스만 고전 양식의 모스크 장식을 대신했으며, 전체적으로 기하학적 디자인이 지배적인 신고전주의 양식이 적용된 돌마바흐체 모스크를 통해 19세기 유럽 문화의 본격적인 도입이 오스만 건축에 끼친 영향을 관찰할 수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돌마바흐체 자미, 돌마바흐체 사원
- 다국어 표기 Dolmabahçe camii(튀르키예어), Dolmabahce mosque(영어)
- 연관 검색어 압틸메지드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rl.kr/pekjzq>

https://en.wikipedia.org/wiki/Dolmabah%C3%A7e_Mosque#/media/File:Bezm-i_Alem_Valide_Sultan_mosque_2014_8689.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Aslanapa, Oktay. Osmanlı devri mimarisi, İstanbul : İnkılâp Kitabevi, 2004..
- Kuran, Aptullah. Selçuklular’dan Cumhuriyet’e Türkiye’de mimarlık = Architecture in Turkey from the Seljuks to the Republic, İstanbul: Türkiye İş Bankası, 2012.
- Ertüörül, Selda. “DOLMABAHCÉ CAMİİ” İslâm Ansiklopedisi, Cilt 9. İstanbul: TDV, 1994, pp.502~503.

I A214 I 동브라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중앙아시아 ● 나라 러시아, 카자흐스탄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음악 ● 유형 소분류2 악기
- 집필자 김홍중 ● 라틴 문자 Dombra

동브라는 노가이, 카자흐, 칼묵 민족이 사용하는 손으로 뜯는 2현 현악기이다. 노가이 민족은 이를 동브라(домбра)라고 부르고 카자흐 민족은 돔비라(домбыра)라고 부른다. 카자흐스탄의 고원 지대에서 발견된 바위 벽화에 동브라와 닮은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 묘사된 것으로 보아 동브라의 기원은 4000년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며, 가장 오래된 손으로 뜯는 현악기 중 하나로 여겨진다. 동브라나 그와 같은 기원을 가진 악기들은 오래전부터 중앙아시아의 여러 민족들이 사용해 왔다. 특히 사카, 흉노 관련 유물들에서 이런 악기들의 흔적이 발견된다. 투르크계 민족이 사용했던 동브라는 슬라브계 민족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민족들의 전통 악기인 돔라(домра)에도 영향을 주었다.

마르크 폴로의 기록에 따르면, 이 악기는 루스인들이 타타르인이라고 불렀던 투르크계 유목 전사들이 가지고 다녔다고 한다. 그들은 전투에 앞서 전의를 북돋우기 위해 동브라를 연주하며 노래를 불렀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동부라, 돈브라
- 다국어 표기 لا و نغ (아랍어), домбра(러시아어), домбыра(카자흐어), Dombra(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흉노, 노가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en.wikipedia.org/wiki/Dombra>

노가이 음악가 아르슬란벡 술탄베코프의 노래 '돔브라'

<https://www.youtube.com/watch?v=yPsUxLLeV1E>

● 참고문헌(온라인) 카자흐 돔브라

https://web.archive.org/web/20160920032845/http://www.gusli.su/kazahskaya_domra_kicc/

● 참고문헌(오프라인) Алексеева Л. А. Нажмеденов Ж. Особенности казахской домбры.// Мы и вселенная.

2001.№ 1(6), с 52~54.

I A215 | 동(東) 라드칸 영묘

● 시기 A.D. 1000년~A.D. 15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이란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건축 ● 유형 소분류2 영묘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East Radkan Mausoleum

동(東) 라드칸 영묘는 이란 동부 호라산 지역, 라드칸에 있는 대 셀주크 시대에 만들어진 두 개의 영묘 중 하나로 동쪽에 위치한 것이다. 라드칸 영묘는 밀리 라드칸 영묘(Mil-i Radkan)라고도 불린다. 건설 연도에 관해서는 1205년~1206년, 1281년~1282년, 1261년~1262년(각각 헤지라력으로는 602년, 680년, 660년) 등 여러 학설이 존재한다. 이는 건물 석문에 600이라는 숫자(sitte mie) 뒷부분이 훼손됐기 때문이다. 비문의 훼손으로 인해 무덤의 정확한 주인은 알 수 없으며, 일부 학자가 1288년 사망한 아미르 아르군 칸(Amir Arghun Khan)의 무덤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으나 앞서 언급한 건설 연도와 맞지 않아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 영묘는 높이 22m 크기에 팔각형의 밑받침 위에 솟은 36개의 둥근 모서리가 있는 원통형의 몸체와 원뿔 형태의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다. 내부에는 팔각형의 무덤방이 있으며 이는 돔으로 덮여 있다. 남동쪽과 북서쪽에 입구가 있다. 내부 벽에는 나선형 계단이 인접해 있고 이를 통해 내부 돔에 접근할 수 있으나 현재는 그 밑면만 남아 있다.

유약을 바른 벽돌과 테라코타를 다양한 스타일로 쌓아 올려 몸체 외부를 장식했다. 특히 둥근 모서리는 마름모 형태로 벽돌이 배치되었다. 몸체 상단부에는 터키석색 타일과 쿠팡 서체로 이루어진 1.5m 가량 넓이의 석문이 존재하지만 대부분이 훼손된 상태이다. 비문 하단의 둥근 모

서리와 흙 방향으로 향한 팔메트 문양이 있는 장식은 마치 처마처럼 늘어져 있다. 이를 바탕으로 원뿔형의 영묘 지붕이 투르크 유목민의 이동 천막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영묘 지붕 형태가 이동 천막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학설은 사후에도 집과 같은 곳에 있길 바라는 믿음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밀리 샤크 라드칸

● 다국어 표기 Mil-i Sharq Radkan(페르시아어)

● 멀티미디어 링크 동 라드칸 영묘

<https://url.kr/7d8fie>

동 라드칸 영묘_지붕과 몸체 사이 장식

<https://url.kr/myar8i>

● 참고문헌(온라인) <http://archnet.org/sites/1655>

● 참고문헌(오프라인) Cezar, Mustafa. Anadolu Öncesi Türklerde Şehir ve mimarlık, Ankara: İş Banka, 1977.
Aslanapa, Oktay. Türk sanatı, İstanbul: Remzi Kitabevi, 2015.

I A216 | 동(東) 투르키스탄 이슬람 운동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동아시아 ● 나라 중국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사건 ● 유형 소분류2 운동
● 집필자 우덕찬 ● 라틴 문자 Eastern Turkistan Islamic Movement(ETIM)

‘동(東) 투르키스탄 이슬람 운동(Eastern Turkistan Islamic Movement: ETIM)’은 폭력으로 분리주의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위구르계 단체로, 독일에 본부를 두고 있다. 이 단체는 지난 2002년 8월 26일 미 국무성, 중국 그리고 국제연합에 의해 국제 테러 단체로 규정되었다. 이 단체의 폭력 투쟁은 1990년의 바렌 폭동(Baren Uprising) 이후 시작되었는데 1990년대 중반 하산 마숨(Hasan Masum)을 중심으로 남부 신장 지역 출신 위구르 분리주의자들이 파키스탄으로 건너가 그곳의 마드라사를 거점으로 이 단체를 조직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 단체는 중앙아시아 지역과 중국에서의 성전을 통해 신장 위구르 자치구,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



- About the Council
- Sanctions
- Members
- Meetings
- Documents
- News
- Interactive Handbook

Home » EASTERN TURKISTAN ISLAMIC MOVEMENT

EASTERN TURKISTAN ISLAMIC MOVEMENT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3 of resolution 1822 (2008) and subsequent related resolutions, the ISIL (Da'esh) and Al-Qaida Sanctions Committee makes accessible a narrative summary of reasons for the listing for individuals, groups, undertakings and entities included in the ISIL (Da'esh) and Al-Qaida Sanctions List.

QDe.088

EASTERN TURKISTAN ISLAMIC MOVEMENT

Date on which the narrative summary became available on the Committee's website: 7 April 2011

Reason for listing:

The Eastern Turkistan Islamic Movement was listed on 11 September 2002 pursuant to paragraphs 1 and 2 of resolution 1390 (2002) as being associated with Al-Qaida, Usama bin Laden or the Taliban for "participating in the financing, planning, facilitating, preparing or perpetrating of acts or activities by, in conjunction with, under the name of, on behalf or in support of" or "otherwise supporting acts or activities of" Al-Qaida (QDe.004).

Additional information:

The Eastern Turkistan Islamic Movement (ETIM) is an organization which has used violence to further its aim of setting up an independent so-called "East Turkistan" within China. Since its establishment, ETIM has maintained close ties with the Taliban, Al-Qaida (QDe.004) and the Islamic Movement of Uzbekistan (QDe.010). It was founded by Hasan Mahsum from Xinjiang, China, who was killed by Pakistani troops in October 2003. ETIM is currently led by **Abdul Haq (QDi.268)**, who was also a member of Al-Qaida's Shura Council as of 2005.

Since January 2007, ETIM has, again, become active under the sanctuary and with the support of the Taliban and Al-Qaida. Its members have increased to about 200 with the recruitment of some non-Chinese to the organization. Its organizational structure has been strengthened, its scale enlarged, its internal administration has become more sophisticated, and the group has developed its weaponry, equipment and operational capacity.

ETIM is currently active in South Asia, Central Asia and the Xinjiang Uygur Autonomous Region of China.

In recent years, ETIM has set up bases outside China to train terrorists and has dispatched its members to China to plot and execute terrorist acts including bombing buses, cinemas, department stores, markets and hotels. ETIM has also undertaken assassinations and arson attacks and has carried out terrorist attacks against Chinese targets abroad. Among the violent acts committed by ETIM members were the blowing up of the warehouse of the Urumqi Train Station on 23 May 1998, the armed looting of 247,000 RMB Yuan in Urumqi on 4 February 1999, an explosion in Hetian City, Xinjiang, on 25 March 1999 and violent resistance against arrest in Xinhe County, Xinjiang, on 18 June 1999. These incidents resulted in the deaths of 140 people and injuries to 371.

동투르키스탄 이슬람 운동에 대한 UN 안보리 결의(2011년 4월 7일)

스탄을 포함하는 동 투르키스탄 공화국의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단체는 오사마 빈 라덴(Osama bin Laden)의 알-카에다(Al Qaeda)와 관계가 있다고 추정되는데 오래전에 오사마 빈 라덴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독립을 지지한다고 천명한 바 있다. 이 단체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전후해 중국 내 대규모 테러 사건을 저지르는 등 각종 폭력 투쟁을 주도하고 있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신장 위구르 지역은 중국 서북부에 위치한 166만 4,900제곱킬로미터 면적에 2,181만 3,300여 명의 인구 중 위구르족 941만 명, 한족 874만 명 등 13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지역 내의 남북부의 타림 분지와 중가르 분지 등에는 중국 전체 석유의 30%, 천연가스의 34%, 석탄의 40%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로 인해 이 지역은 중국의 중요 경제적 거점 가운데 하나다. 위구르족은 중국 내 55개 소수 민족 중에서도 중국의 통치에 가장 강하게 저항하는 민족이다. 청나라 때 이 지역이 정복된 후 중국에 편입되어 수백 년 동안 중국의 통치를 받아왔지만, 언어, 문화, 외모 등이 달라서 중국에 동화(同化)되지 못하고 지속적

으로 독립운동을 펼쳐오고 있다. 청나라가 붕괴된 후 단명(短命)의 동투르키스탄 공화국을 수립했으나 1949년 다시 중국의 지배 아래로 들어갔다. 중국 정부는 소수 민족 정책의 기조로 분리 불가의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고 있어서 신장 지역 위구르 무슬림들의 분리주의 운동에 대해 강경 대응하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동 튀르키스탄 이슬람 운동
- 다국어 표기 الحزب الإسلامي التركستاني(아랍어), تۇركىستان ئىسلام پارتىيىسى(위구르어)
- 연관 검색어 마드라사, 신장위구르자치구, 우즈베키스탄
- 멀티미디어 링크 <http://en.people.cn/n3/2016/0720/c90000-9088584.html>
시사상식사전, 동투르키스탄 이슬람운동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38164&cid=43667&categoryId=43667>
- 참고문헌(오프라인) 우덕찬 2011, 「신강문제에 관한 연구」, 『중동문제연구』 10(1).
Reed, J. Todd; Raschke, Diana 2010). The ETIM: China's Islamic Militants and the Global Terrorist Threat. Westport, Connecticut: Praeger.

I A217 | 동복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몽골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유물
- 집필자 우덕찬 ● 라틴 문자 Dongbok

동복(銅鍔)은 청 동솥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마 유목 민족의 대표적인 유물이라 할 수 있는데 흉노의 동복이 유명하다. 동복은 이동하는 말과 수레에 실어 함께 이동한다는 것으로 보아 기마 유목 민족의 대표적인 문화라 할 수 있다. 그 연대가 가장 오래된 동복은 오르도스형 동복으로 흉노가 사용했다. 그다음으로 만주와 기타 내몽골 지역의 동복이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흔히 스키타이형이라 불리는 동복은 오르도스형 동복보다 오히려 연대가 오래되지 않았다. 따라서 동복은 동아시아에서 서아시아나 중앙아시아로, 서아시아와 중앙아시아에서 동유럽으로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 동복은 중국의 유물에는 없다. 지금의 몽골과 옛 고구려 유적지와

가야 유적지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것은 고구려가 부여와 마찬가지로 북방 민족국가였다는 증거가 된다. 말을 잘 타고 많이 길러 강력한 군대를 소유했던 고구려다. 기마병은 갑옷으로 무장했다. 기마병들이 유목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 유물이 바로 동복이다. 동복은 기마 민족의 사람들이 이동을 하면서 밥을 해먹는 솥이라 할 수 있다. 양쪽 손잡이가 있는 부분을 이용해 들기도 한다. 동복은 기마 유목 문화의 코드로서 흉노와 신라, 그리고 가야를 연결시키고 있다.

한국의 국보 91호 기마인물형토기(騎馬人物形土器)는 한국인에게 굉장히 친숙한 문화재이다. 1924년 발굴될 때에도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지만 지금도 신라 문화를 대표하는 유물로 국립 중앙 박물관에 전시되어 관람객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 유물에서도 동복이 발견된다. 이 유물은 일제 강점기인 1924년 5월 30일 경주시 노동동에 있는 금령총(金鈴塚)에서 발굴되었다. 높이 23.4cm, 길이 29.4cm이다. 기마인물형토기는 말을 탄 사람을 형상화한 조각 작품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숨은 기능이 있다. 말 등에는 깔때기처럼 생긴 구멍이 있어 액체를 넣고, 말 가슴에는 대롱이 있어 액체를 따를 수 있다. 말 내부는 비어 있어 240cc 정도를 담을 수 있다. 이 토기는 신라 왕실에서 쓰던 주자(注子)였다. 주자(注子)는 술이나 물을 따르는 도구이며, 데울 수도 있는 금속 등의 주전자이다.

● 다국어 표기 銅鑊(중국어), bronze cauldron(영어)

● 연관 검색어 흉노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3wHwW41S8mg>

● 참고문헌(오프라인) Atlas of World History.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Xiongnu People”. britannica.com. Encyclopædia Britannica.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11 March 2020. Retrieved 25 July 2015.

Hyun Jim Kim 2015. “2 The So-called ‘Two-Hundred year Interlude’”. The Huns. Routledge.

Grousset, Rene 1970. The Empire of the Steppes. Rutgers University Press.

Maenchen-Helfen, Otto 1 August 1973). The World of the Huns (1 ed.). UC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Zhang, F; Ning, C; Scott, A; et al. 2021. “The genomic origins of the Bronze Age Tarim Basin mummies”. Nature. 599 (7884).

I A218 | 동헤이거우 유적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동아시아 ● 나라 중국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유적 ● 유형 소분류2 무덤
- 집필자 김재운 ● 라틴 문자 Dongheigou Cemetery

동헤이거우 유적은 중국 신강성 하미지구(哈密地區) 바리쿤카자흐자치현(巴里坤哈薩克自治縣)의 현성(縣城) 소재지로부터 23km 떨어진 지점인 천산 산맥 북쪽의 동헤이거우 비탈면에 유적이 위치한다. 무덤과 대규모 마을 유적이 복합된 곳이다. 마을 유적에서는 집자리의 어깨선에 돌을 두른 흔적이 남아 있는 위석식 집자리, 석축기단, 암각화 등이 발견되었다.

이 마을 유적과 인접한 곳에서 대규모 무덤 군집군이 발견되었다. 무덤은 지표에 돌을 쌓아 묘역을 설정했는데, 원형과 방형으로 구분되고, 돌의 쌓인 상태에 따라서도 세분화할 수 있다. 그 중에서 고리형 적석묘는 표면의 상면에 고리 모양으로 돌이 돌아가는 형태이다. 유적의 남쪽에 주로 분포한다. 원형 적석묘는 고리형 적석묘를 파괴하고 조성된 것으로 시기적으로 후행한다. 대형 무덤 가장자리에는 강돌을 이용해서 3단~7단 정도 호석을 쌓았고, 중심부에는 1.5m~2m 정도 함몰된 특징이 있다. 무덤 가운데는 구덩이를 파서 무덤방을 만들고 나무로 된 장구와 석관을 두고, 목재를 켜켜이 쌓아서 만든 것이다. 피장자는 똑바로 눕고 사지를 편 자세이며, 두향은 서북쪽이다. 무덤은 도구를 당한 경우가 많아서 유물이 제대로 남지 않았다. 토기가 많이 남았으며 석제 구슬과 청동기편도 소량 발견되었다. 바리쿤과 주변 일대에는 바이스터우향(白石頭鄉) 한치거우(寒氣溝) 무덤군, 이우(伊吾) 헤이거우량(黑溝梁) 무덤군, 바리쿤 공타이(公台)-시헤이거우(西黑溝) 유적이 산재했다. 월지, 흉노 등 고대 유목 민족들의 흔적이 담긴 고고학적 자료이다. 이들 유적과 함께 동헤이거우 유적은 월지, 흉노 등 유목 문화를 보여주는 한 단면으로 볼 수 있다. 출토된 유물로 보아 동헤이거우 유적은 흉노 형성 이전의 단계로 추정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동헤이구
- 다국어 표기 Dongheigou Cemetery(영어)
- 연관 검색어 월지, 흉노
- 참고문헌(오프라인) 新疆維吾爾自治區文物局 編 2011, 『新疆維吾爾自治區第三次全國文物普查成果集成-哈密地區』

卷』, 北京: 科學出版社, pp.167~170..

西北大學文化遺產與考古學研究中心·哈密地區文物局·巴里坤縣文管所 2006, 「新疆巴里坤東黑溝遺址調查」, 『考古與文物』5期, 陝西省考古研究院.

I A219 | 동호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동아시아 ● 나라 중국 ● 유형 지리 ● 유형 소분류1 민족 ● 유형 소분류2
● 집필자 강인욱 ● 라틴 문자 Dunghu

동호는 『사기(史記)』에 따르면 흉노(匈奴)의 동편에서 그들과 호각을 이루던 유목 집단을 말한다. 이들은 흉노의 발흥 당시에 상당히 강성한 집단을 이루었고, 그 지역은 대체로 지금의 내몽골 동남부와 중부 일대라고 추정된다. 연나라 장수 진개(燕將 秦開)도 고조선을 침략하기 전에 동호에 볼모로 잡혀가 있다가 후에 동호를 격파하고 천여리를 차지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흉노의 발흥과 함께 동호의 세력은 위축되지만 이후 오환(烏桓)과 선비(鮮卑)가 되고 이후 거란(契丹) 등의 민족으로 이어지면서 ‘동호 계통의 민족’들을 대표하는 의미도 있다.

동호의 고고학적 실체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먼저 정구자(井溝子) 유형이라는 문화가 시공적으로 흉노 이전부터 존재하던 동호와 부합한다. 그리고 의미를 확대하여 동호계의 집단이라고 본다면 동호의 멸망 이후 그들의 뒤를 잇는 선비, 거란을 거쳐서 현재의 통구스 계통 민족까지를 동호의 계통으로 볼 수 있다. 협의와 광의의 동호에 대한 개념을 종합한 Lixin Wang(王立新)은 B.C. 6세기~ B.C. 4세기 단계에 고고학적으로 동호가 등장하며 그들은 지금까지 남아있는 통구스 계통의 만주 일대 원주민 집단으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정구자 유적 고인골의 미토콘드리아 DNA(mtDNA) 분석 결과 현생 민족 중에 가장 유사한 집단은 오로첸(鄂倫春)과 에벤키족(鄂溫克)임이 밝혀졌다. 이로써 흉노 이후에 선비, 오환, 거란을 거쳐서 현재의 극동지역 통구스 계통의 민족 원류가 되었음이 밝혀졌다. 이러한 연-흉노-동호-동아시아(古朝鮮)를 잇는 유물의 출토는 기원전 3세기 초반에 주로 활동한 진개로 대표되는 연나라의 군사적인 행동과 관련이 있다. 그렇다면 위에서 언급한 진개는 기원전 300년경에 동호

를 격파한 이후에 기원전 280년경에는 고조선을 침략해서 만번한을 설치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사기 열전에 따르면 동호는 월지와 함께 흉노 주변에서 가장 강성한 집단이었지만, 선우 4년(기원전 206년)에 흉노에 멸망했으며, 그 잔존 무리가 오환산으로 물러가서 오환이 되었다. 그렇다면 사서에 기록된 동호 중에서 적어도 진개의 등장과 관계된 경우는 초기 흉노의 형성과 관련된 중국 북방으로 유입된 사카계의 황금 유물을 남긴 집단 중 하나였을 가능성이 있다.

● 다국어 표기 東胡(중국어)

● 연관 검색어 흉노, 선비

● 참고문헌(오프라인) 강인욱 2016, 「기원전 9~3세기 요서지역의 고고학문화와 산융·동호」, 『백산보』 106.

I A220 | 되네르 영묘

● 시기 AD. 1000년~AD. 15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건축 ● 유형 소분류2 영묘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Döner Mausoleum

되네르 영묘(Döner Mausoleum)의 주인은 샤 지한 하툰(Şah Cihan Hatun)이다. 대부분의 자료에 되네르 영묘라 기록되어 있고 지역민들도 되네르 영묘라고 부르지만, 실제 이름은 샤 지한 하툰 영묘이다. 아마도 원에 가까운 형태로 인해 빙글빙글 도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 되네르(Döner: 도는) 라는 이름이 붙인 것으로 보인다.

영묘의 실제 주인인 샤 지한 하툰이 정확히 누구이고 언제 사망했는지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 없다. 영묘의 건축 연도 역시 불분명하지만 건축 양식에 기반하여 13세기로 추정하고 있다. 일부 학자는 1276년에 건설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증거는 미비하다.

카이세리 시내에 건설된 되네르 영묘는 6.40m x 6.40m 크기의 정사각형 플랜 위에 석재에 각을 내어 올린 후 십이각형으로 만든 몸체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붕은 원뿔 형태이다. 이 영묘는 방문객을 받는 공간이 없다. 지붕과 벽은 작은 무카르나스로 연결되어 있다.

십이각형의 각 면은 모두 몰딩으로 마무리된 첨두 아치(pointed arch)형의 벽감이 있으며, 아



되네르 영묘

치의 안쪽 면은 식물 문양과 기하학 문양으로 장식되어 있다. 아치 하단에는 정사각형 안에 루미 문양이 채워져 있다. 또한, 북쪽 면 문 앞 양쪽에는 계단이 있다. 입구 벽감은 무카르나스가 있는 첨두 아치로 장식되어 있다. 이 아치 주변은 기하학 문양으로 장식되어 있는데 직사각형의 띠로 둘러져 있다. 또한, 이 문 바로 위에 동물이 조각되어 있는데 훼손되어 있어 정확한 형태는 알기 어려우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인면조와 쌍두 독수리로 추정하고 있다. 두 동물 조각 바로 위에는 역시 루미 장식으로 둘러싸인 흰 대리석 비문이 있다. 비문에는 영묘의 주인의 이름이 적혀 있다. 입구 양옆의 아치형 벽감 내에는 생명의 나무가 조각되어 있다.

입구를 통해 들어가는 바로 맞은편에는 상단이 무카르나스로 장식된 미흐랍이 자리하고 있다. 기하학 문양의 직사각형 띠로 둘러싸인 미흐랍은 바닥에서 조금 위쪽에 자리하고 있다.

이 영묘는 아나톨리아에 자리하게 된 영묘 문화와 당대의 석재 조각 기술의 수준을 보여주는 면에서 중요하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도네르 영묘, 도네르 영묘
- 다국어 표기 Döner Kümbedi(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셀주크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kayseri.bel.tr/uploads/kesfet/kumbetler/doner_kumbet_1.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Aslanapa, Oktay. Türk sanatı, İstanbul: Remzi Kitabevi, 2015.
Akok, Mahmut. “Kayseri’de Dört Mezar Anıtı”, Türk Etnografya Dergisi, sayı. 12, Ankara 1970, pp.17~52.
Ertuğrul, Özekan. “Döner Kümbet”, TDV İslâm Ansiklopedisi Cilt 9, İstanbul: TDV, 1994. pp.516~517.

I A221 I 듀료니 유적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유적 ● 유형 소분류2 터
- 집필자 김재윤 ● 라틴 문자 Dureny

듀료니 유적은 자바이칼 지역의 셸렝가 강의 지류인 치코이 강을 따라서 강의 테라스에 위치한다. 치코이 강을 따라서 S자로 굽어지는 2곳에 거주지가 확인되었다. 각각 듀료니 I유적, 듀료니 II유적이라고 명명되었다. 듀료니 II유적은 흉노보다 이전 시기인 스키타이 문화가 존재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선흉노가 이곳에 정착한 시기는 B.C. 2세기 말에서 B.C. 1세기 초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집의 형태는 바닥에 구덩이를 파고 주거지 벽을 따라서 기둥을 세우고 맞배 지붕을 얹었다. 지붕의 끝이 바닥에 닿이는 반지하식의 집자리이다. 6호 집에서는 아궁이 시설이 발견되었다. 아궁이는 돌로 바닥면 위에 쌓은 형태이다. 인접한 유적의 이불가 성에서 아궁이가 있는 온돌이 확인된 바 있다.

듀료니 유적에서는 토기가 많이 출토되었는데, 토기의 입술 부위에 점토띠를 붙이는 방법이 여러 토기에서 확인되었다. 이 지역 스키타이 문화의 마지막 시기에 나오는 토기와 제작방법이 유사하다. 정착지가 만들어진 순간부터 흉노 주민들뿐만 아니라 흉노 연합의 일부를 포함했을 수 있지만 토기로 보아서 그 이전 스키타이 시대의 지역 인구 전통과 다른 문화 전통이 함께 보존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 유적에서 발견된 토기와 유사한 것은 부르호토이 유적 및 투바에

서도 확인된 바 있다.

흉노가 자바이칼 지역을 정복해서 그 이전의 문화가 다 파괴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문화상으로 드러나는 것은 문화가 계속 연속된다는 점이다. 주거 유적뿐만 아니라 철을 생산하던 공방 또한 확인되었다. 슬래그, 철광석 덩어리 및 이를 제조하던 구덩이, 주철 등이 발견되어 정착지가 겨울에 가축을 관리하는 캠프 역할을 하는 성격만 가지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청동 및 철제품을 생산하는 집단의 거주 유적임을 알 수 있다. 이 유적은 흉노 시기(B.C. 2세기~B.C. 1세기) 외에 위구르 시대의 토기와 동물 문양이 부조된 청동으로 된 도장도 발견되었다. 흉노가 망한 이후에도 3세기~5세기까지 이 유적에는 위구르인이 거주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두러니, 두레니

● 다국어 표기 Dureny(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흉노, 스키타이, 투바

● 참고문헌(오프라인) A.B. Давыдова, С.С. Миняев Комплекс археологических памятников у села Дурёны./ Археологические памятники сюнну. Вып. 5.// СПб: Фонд «АзиатИКА». 2003. 164 с.

I A222 | 두르순 악참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Metin Turan) ● 라틴 문자 Dursun Akçam

튀르키예의 현대 문학가 두르순 악참(Dursun Akçam)을 설명하는 책이나 백과사전, 자서전에는 그가 태어난 해를 1930년으로 기재해왔으나 본인의 설명이나 지인들이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실제 출생 연도는 1927년이다. 그는 아르다한 주의 월체크 마을에서 태어났다. 시골 아이들의 대부분이 그렇듯이 두르순 역시 첫 교육은 시골 이맘의 종교 수업으로 시작했다. 바이라크(Bayrak)는 두르순 악참이 어린 시절에 받았던 교육을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정리했다. “두르



DURSUN AKÇAM

Kağdağı'nın ardından çarublarıyla geldi | yalınayak gitti...



ANA SAYFA
KİMDİR
YAPITLARI
YAŞAMINDAN KESİTLER
KENDİ KALEMİNDEN
YANSIMALAR
DURSUN AKÇAM VAKFI
ETKİNLİKLER
İLETİŞİM
f

18. DURSUN AKÇAM KÜLTÜR SANAT GÜNLERİ SONA ERDİ...

23/06/2023

Ardaahan'da 18 yıldır aralıksız yapılmakta olan Dursun Akçam Kültür ve Sanat Günlerinin 18. si de coşkulu bir hava içinde sona erdi... Bir yıllık pandemi arası dışında hiç ara vermeksizin sürdürülen son Dursun Akçam Günleri, 23 Haziran 2023 Cuma günü, çevrede etkili yoğun sağanak yağış altında başlamıştı...








18. DURSUN AKÇAM KÜLTÜR VE SANAT GÜNLERİ 23/24/25 HAZİRAN'DA ARDAHAN'DA

07/06/2023

18. DURSUN AKÇAM KÜLTÜR VE SANAT GÜNLERİ 23/24/25 HAZİRAN - ARDAHAN "DEPREM KÜLTÜRÜ VE KÜLTÜRÜMÜZDE YAŞANAN DEPREMLER"PROGRAM: 23 HAZİRAN 2023 CUMA Kars Havaalanında Konukların Karşılama ve Cilavuz Köy Enstitüsü Yerleşkesi Ziyareti 17.30 AÇILIŞ; Dursun Akçam Kültürevi 18.30 KİTAP SERGİSİ AÇILIŞI VE İMZA (KÜLTÜREVİ VE MÜZE YANI) 19.30 TİYATRO: SANAT KURTARAN ŞABAN (Dursun Akçam Tiyatro Topluluğu) 24 HAZİRAN CUMARTESİ AÇIK OTURUM

ARA

YARDIM VE DESTEK İÇİN



DURSUN AKÇAM KÜLTÜR SANAT VAKFI VE KÜLTÜREVİ

두르순 악참 홈페이지
Source: <https://dursunakcam.com>

순은 종교적인 환경에서 자라 신앙심이 깊었고 교리를 잘 따르는 어린이였다. 마을에 일시적으로 개교했던 공동체 학교에 가서 읽고 쓰는 것을 제일 먼저 배웠다.”

두르순은 1945년에 입학했던 질라우즈 퀴이 연구소(Cilavuz Köy Enstitüsü)를 무사히 졸업하여 먼저 카오즈만(Kağızman)에 있는 오쿨루 마을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다가 자신의 마을인 월책에서 교사 생활을 이어나갔다. 이후에는 가지대학교 교육대학원 문학과를 1956년에 입학했고 졸업하면서는 튀르키예어문학 교사가 되었다.

대학원 시절 인터뷰와 소설의 매력을 알게 된 두르순 악참의 첫 작품은 1963년 <민족 신문(Milliyet Gazetesi)>에 ‘가장 중요한 국내 사실’을 주제로 기고한 「엄마와 아이들(Analar ve Çocuklar)」이라는 글이다. 그는 이 글로 알리 나지 카라잔(Ali Naci Karacan) 상을 받았다. 그는 1964년에 창설된 튀르키예 교사협회 전국연맹(Türkiye Öğretmen Dernekleri Milli

Federasyonu) 이사회 운영진이 됐다. 1965년에는 튀르키예 교사 노조(Türkiye Öğretmen Sendikası)의 설립 멤버로 직책을 맡기도 했다. 교사로 근무하고, 교사 단체 안에서도 직책을 맡고, 동시에 문학 연구도 꾸준히 했다.

1964년에 처음으로 그의 단편소설집 『마랄(Maral)』이 출간됐다. 이후 『아나톨리아의 시련(Doğunun Çilesi, 1965)』, 『죽음과 빵(Ölü Ekmeği, 1969)』, 『조약돌 수프(Taş Çorbası, 1970)』도 발간했다.

두르순 악참이 학생이던 시절 튀르키예 인구의 80%는 시골에서 살았다. 그의 작품에는 시골 마을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는 시골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사실적으로 접근했다.

1970년 3월 12일에 일어난 군사 쿠데타 직후, 튀르키예의 유명한 작가, 만화가, 지식인, 과학자들과 함께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던 두르순 악참은 체포되었다. 재판이 진행됐고 그 결과 7개월 동안 구금됐다. 쿠데타 이후 8년 10개월간 징역살이를 했으나 고등 군법 회의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튀르키예는 1950년대부터 이촌향도가 시작됐다. 1970년대에 들어서서는 도시 주변부 빈민촌에 게제콘두라는 무허가 건물이 생겨났고, 질서 없고 도시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거주지가 곳곳에 형성되기 시작했다. 게제콘두는 물, 하수도, 학교, 병원과 같은 시설이 부재했고, 기술과 재원 부족으로 빠르게 대충 지어진 곳이었다. 이곳은 모든 면에서 부족했지만, 그래도 넉넉한 땅과 수입이 없는 시골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두르순 악참은 1973년에 『시골에서 도시로 내려갔다네(Köyden İndim Şehire)』라는 단편소설집으로 출간했고 이번에는 도시에 거주하는 시골 사람들의 문제점을 자세히 다뤘다.

1975년에 출판한 『피로 덮인 강에 있는 늑대들(Kanlıderenin Kurtları)』이라는 작품으로 1976년 튀르키예 국립국어원이 수여하는 상을 받았다. 1975년 「할레이(Haley)」라는 단편소설로 안탈리아 영화제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 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은 사람은 나중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오르한 파묵이었다.

1977년에 발표한 『붉은 꽃들(Kan Çiçekleri)』과 1979년에 『아래에 사는 사람들(Altta Kalanlar)』이라는 작품에서 그는 고향의 문제를 면밀히 조사했다. 작가가 사회를 계몽시키고, 고향의 문제를 더 효과적으로 표현한 것을 높이 평가한 두르순 악참은 “능력 있는 관찰은 사회적 모순을 인지하고 구분하면서 전문성을 가지고 조심히 살펴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1980년 9월 12일 군부 쿠데타가 발생해 검열이 심해지고 기소되어 그는 외국으로 쫓겨났다. 그는 독일로 가서 글 쓰는 일을 이어갔다. 악참은 독일로 이민하여 노동자로 일하는 사람들의 문제에 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1982년 튀르키예어와 독일어로 『튀르키예인이 말하는 독일인(Alman Ocağı)』이라는 리포트와 단편소설을 책으로 출간했다. 그 후에도 『산맥의 술탄(Dağların Sultanı, 1988)』, 『장군들의 단결(Generaller Birleşin, 1988)』, 『누가 선생님에게 뽀뽀했나(Öğretmeni Kim Öptü, 1988)』 등의 작품도 선보였다. 두르순 악참은 주로 독일에서 일어나는 튀르키예 사람들의 희비극, 독일에서 태어나고 자라거나 이민 3세 교포로 알려진 어린이와 청년들이 문화적으로 직면하는 문제를 주제로 다루었다. 아나톨리아 사람들이 독일 문화에서 겪은 충격, 유의미한 대립, 고향에 대한 그리움까지 모두 생생하게 표현했다.

그는 군부 쿠데타 시기에 열린 소송에서 무죄를 인정받았다. 그는 1991년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뒤 더 많은 글을 썼다. 『사랑하기 두렵다(Sevdam Ürktü, 1992)』, 『근근이 사는 삶(Ucu Ucuna Yaşam, 2000)』, 『카프 산의 뒤(Kafdağı'nın Ardı, 2002)』 등의 작품을 출간했다.

지독한 지병을 이기지 못하고 2003년 9월 13일 눈을 감은 두르순 악참의 무덤은 앙카라에 있다. 두르순 악참의 가족은 그가 태어난 아르다한 주에 문화원을 만들었고 매년 ‘두르순 악참 문화 예술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별도의 홈페이지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두루순 아크참

● 다국어 표기 DURSUN AKCAM(영어), DURSUN AKÇAM(튀르키예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rl.kr/582oij>

● 참고문헌(오프라인) Aytaç Gürsel, *Çağdaş Türk Romanları Üzerine İncelemeler*, 2. Basım, Gündoğan Yayınları, Ankara, 1999.

Bayrak Mehmet, *Köy Enstitülü Ozanlar ve Yazarlar*, Töb-Der Yayınları, Ankara 1978.

Bayrak Mehmet, *Köy Enstitüleri ve Köy Edebiyatı*, Öz-Ge Yayınları, Ankara, 2000.

Binyazar Adnan, “Sol Yanım Boş Kaldı”, *Cumhuriyet Gazetesi*, 22 Eylül, 2002.

Ziyoda Khalmatova, Timuroğlu Vecihi (Derleyen), *Dursun Akçam'ı Anmak*, Arkadaş Yayınları, Ankara 2004.

Turan Metin, *Kültür Kimlik Ekseninde Türk Edebiyatı*, 4. Baskı, Ürün Yayınları, Ankara, 2006.

I A223 | 두만 선우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몽골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군주
- 집필자 김재윤 ● 라틴 문자 Tumen

흉노가 문헌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기원전 318년이다. 한, 조, 위, 연, 제 다섯 나라와 함께 진을 공격했으나 실패했고, 진은 그 후로 장성을 쌓아 흉노를 막았다. 두만 선우의 생몰 연대는 알 수 없지만 재위 기간의 시작은 최소 기원전 220년부터 기원전 209년까지로 역사서에 등장하는 최초의 흉노 선우이다. 여러 부족을 통합하고 중국 오르도스 지방을 장악했다가, 진(秦)의 장군인 몽염의 공격을 받아 북쪽으로 물러났으며, 몽염이 죽자 다시 오르도스 지방을 차지하고 흉노의 활동 반경을 확장시킨 인물이다.

흉노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한 목들의 아버지로 처음에는 좌도기왕으로 임명해서 후계자로 삼았으나, 마음을 바꾸어 막내아들을 후계자로 삼고자 목들을 월지에 볼모로 보냈다. 그곳에서 그를 죽일 생각이었으나 실패했다. 그 뒤에 두만은 목들에게 용기를 가상하게 다시 기병 장군으로 임명했으나, 목들과 함께 사냥을 나섰다가 목들과 그 부하의 화살에 맞아서 기원전 209년에 사망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투멘
- 다국어 표기 Tumen(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흉노
- 참고문헌(오프라인) DANDINSUREN TSEVEENDORJ SC.D(ed)., 2013, ENCYCLOPAEDIA XIONGNU, ULAANBAA TAR.. 에렉젠, 양시은 2017, 『흉노』, 중앙문화재연구원 학술총서.

I A224 I 두아

- 시기 기타 ● 지역 기타 ● 나라 기타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이슬람 ● 유형 소분류2 신행
- 집필자 박현도 ● 라틴 문자 Dua

두아는 이슬람교에서 기도(祈禱), 청원(請願)을 뜻한다. 아랍어 두아(Du'a)가 어원인데, 두아는 '부르다, 청원하다'라는 동사(da'w)에서 파생된 말이다. 코란은 17장 11절에서 인간은 선을 구하듯 악한 것도 바란다고 하면서 '두아'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이처럼 두아는 청원의 뜻을 가지고 있다.

두아는 '살라'와 명백하게 구분된다. 살라는 말 그대로 예배에서 라크아(rak'a)라고 하는 정형화된 동작으로 신에게 예를 표하며 절을 하는 동작을 수반하지만, 두아는 그러한 예배 동작 없이 하는 기도다. 두아는 개인적인 희망을 청원하는 기도일 뿐만 아니라 신을 칭송하는 것도 가리킨다. 예배 전후나 예배 중에 신을 찬미하는 두아를 하는데 대표적인 두아로 '수브하나카(Subhanaka)'를 들 수 있다.

'영광 받으소서. 오, 알라시여! 모든 찬미를 받으소서. 당신의 이름은 복되시고 당신의 위엄은 지고하시며 당신 외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Subhanaka Allahumma wa bi-hamdika wa tabaraka ismuka wa ta'ala jadduka wa la ilaha ghayruka).'

시아파에서는 알리를 따르던 코마일(Kumayl bin Ziyad an-Nakha'i)의 기도를 즐겨 따라한다. 코마일의 기도는 '두아 코마일(Du'a Kumayl)'이라는 제목의 책으로 엮여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 비록 시아파에서 사랑받는 두아지만, 그 내용은 수니파의 기도와 전혀 다르지 않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무슬림들의 기도, 두어
- 다국어 표기 du'a'(아랍어 음사), dua(튀르키예어), Dua(튀르키예어), Duo(우즈베크어), Dua(아제르바이잔어), Дѹа(카자흐어)
- 연관 검색어 주마, намаз, 악시암 намаз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Y-CuXV5y0sc>
- 참고문헌(오프라인) Gardet, L. "Du'a'." In Encyclopaedia of Islam, vol. 3, pp.617~618.

Chittick, William C. tr. Al-Saheefah Al-Sajjadiyyah Al-Kaamelah. Reprint. Mumbai: Ja'fari Propagation Centre, 2009.
Chittick, William C. Supplications: Du'a. New edition. Muhammadi Trust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1985.

I A225 | 독치 에산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정치 지도자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Dukchi Eshan

독치 에산(Dukchi Eshan)의 정식 이름은 무함마드 알리 할파 바시르 오글루 독치 에산(Muhammad Ali Halfa Sabir oglu Dukchi Eshan)이며, 무함마드 알리 만달(Muhammad Ali Madal)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독치 에산은 1856년 마르길란에서 남서쪽으로 약 25km 떨어진 치미온(Chimion)에서 태어났고 밉테파(Mingtepe)에서 성장했다. 그의 아버지 알리 알파 사비르(Ali Halfa Sabir)는 청나라 통치에 반대하던 신장 지구 무슬림 출신으로 카쉬가르에서 이주해 온 인물로 추정된다. 알리 알파 사비르는 축을 만들던 장인이자 농부였으며, 아들 역시 가업을 이어 받았다. 이로 인하여 ‘축을 만드는 장인(Dukchi)’이라는 별칭을 얻었다. 사비르는 사마르칸트로 떠나며 아들을 위대한 에산(Eshan, 또는 이산(Ishan): 수피 지도자를 뜻하는 말)에게 맡겼고 독치 에산은 에산 밑에서 수학했다. 독치 에산은 자신이 스승으로 모시던 물라 우스만 아크훈드 수두르(Mulla Usman Akhund Sudur)로부터 18세때 정식으로 수피로써 인가를 받았다.

20세에 밉테파로 귀향한 독치 에산은 동부 페르가나 계곡에서 저명했던 낙쉬반드 에산 술탄 칸 토라(Ishan Sultankhan Torä)의 제자가 되었고, 그에 대한 헌신적인 봉사로 술탄칸에게 신임을 받았으며 후계자로 지명되었다. 1882년 술탄칸의 사망으로 독치 에산이 그 자리를 이어받았다. 그 기간에 페르가나 지역은 러시아의 침략과 키르기스와 킵차크의 반란으로 약화된 코칸드 칸국이 러시아에 합병되고 이 지역은 타슈켄트 투르크스탄 총독의 통치하에 놓이게 되었다.

1886년 독치 에산은 메카와 메디나로 순례를 떠났다. 메디나에서 2년간 머무르고 귀향길에 러시아 제국의 도시와 타슈켄트 등지를 방문했고 카슈미르의 셰이크 밑에서 1년간 수학했다.

순례 이후 독치 예산은 더 많은 추종자를 얻게 되었다. 그의 추종자들은 우즈베크인, 카쉬가르인, 타지크인, 투르크인, 키르기스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가 명성을 얻게 된 것은 먼 곳에서 물을 끌어오고, 나무를 심고 빈자에게 식사를 나누어주는 등 헌신적 봉사에서 기인한다. 특히 1892년 발생한 대기근 때에 독치 예산의 봉사가 더 널리 퍼지게 되었고, 독치 예산은 바바 알딘 낙쉬반드(Baha' al-Din Naqshband, 1318년~1389년)와 같은 등급의 무르쉬드(murshid) 칭호를 받게 된다.

1868년 투르크িস탄 총독은 전통적인 이슬람 법관인 카디 대신에 민사, 판사에게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시스템을 세웠고, 독치 예산은 격렬한 반대를 했다. 이미 페르가나 지역에서는 민사, 판사 제도 이외에도 세금 제도의 불합리함과 종교 행사에 대한 간섭과 러시아 장교의 부패와 폭력 행위로 인해 불만이 누적된 상태였다. 지역민과 페르가나로 이주한 키르기스인을 규합할 만큼 명성이 있었던 독치 예산은 낙쉬반드 동료들과 부유한 지역민에게서 재정적 지원을 받아 봉기를 준비했다. 1898년 5월 17일 동료 2천여 명과 함께 안디잔으로 진격했으나 러시아 20대대에 의해 패배했고 독치 예산 역시 체포되었다. 독치 예산은 1898년 7월 18일 교수형으로 사망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독치 이산, 덕치 이산, 독치 예산
- 다국어 표기 Dukchi Eshan(우즈베크어), Dukchi Ishan(영어)
- 연관 검색어 안디잔 봉기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rl.kr/95exva>
- 참고문헌(오프라인) Hisao, Komatsu. "The Andijan Uprising reconsidered", Muslim Societies Historical and Comparative Aspects(ed: Sato Tsugitaka), London; NewYork: Routledge Curzon, 2004..

I A226 | 둘가드르

● 시기 A.D. 1000년 ~ A.D. 1800년 ● 지역 기타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국가 ● 유형 소분류2 왕조
● 집필자 이은정 ● 라틴 문자 Principality of Dulghadir

둘가드르는 약 1337년부터 1522년까지 약 2세기에 걸쳐 남 아나톨리아의 엘비스탄으로부터 마라쉬-말라티야 지역을 다스린 튀르크멘 공국이다. 이 공국의 아랍 자료에 나오는 이름은 Dulghadir 혹은 Tulghadir로 쓰였으므로, 나중에 오스만 역사서에서 흔히 쓴 아랍어 Dhu'l-Qadr 혹은 Dhu'l-Qadir는 원래 튀르크어로 시작된 이름을 아랍어 이름으로 잘못 짐작해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A. von Gabain은 이 이름의 어원을 Tulga(투구)+dar(가진 사람)으로 추측했다. 둘가드르 공국의 수립자 자인 앓딘 카라자 이븐 둘가드르는 1335년 소 아르메니아로 침투했고 일칸 아부 사이드의 죽음 이후의 혼란을 틈타 엘비스탄을 점령했으며 이집트의 맘루크 술탄으로부터 그의 na'ib으로 책봉받아, 그 이후 갈등이 적지 않은 일종의 주군-가신 관계가 시작되었다. 14세기 유목 부족들이 세운 공국들이 대개 그렇듯이 둘가드르도 매 세대 치열한 계승 분쟁이 있었으며, 이런 계승 분쟁은 특히 15세기 이후 주변 강국들의 야심적인 경쟁과 맞물려 더더욱 파장이 컸다. 즉, 악코윤루의 우준 하산이 하르푸트를 점령하며 위협을 가해 왔고 이집트-시리아의 맘루크 술탄국과 발칸-아나톨리아의 오스만 왕조 사이에서 이 지역에 대한 세력 확장을 놓고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둘가드르의 왕실은 여러 세력들의 분쟁 가운데서 '장기판의 졸'처럼 이용되었고, 정쟁의 과정에서 희생되는 일도 적지 않았다.

오스만 왕실에서는 메흐메트 2세(재위: 1451년~1481년)와 바이에지드 2세(재위: 1481년~1512년)의 배필로 둘가드르 공국의 공주를 맞이하는 등 상당히 공을 들였다. 둘가드르는 16세기 벽두에 기존의 종주국인 맘루크 술탄국과 오스만 제국 및 신흥 사파비 제국의 틈바구니에 끼어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파죽지세로 유목민 사이에서 뻗어나간 사파비 제국은 엘비스탄과 마라쉬를 포위하는 등 엄청난 위협을 가해왔고, 그들의 성장과 시아 성향의 종말론의 확산에 대해 오스만 제국이 대대적으로 반격을 하는 상황에서 둘가드르는 어느 편에 서기도 부담스러운 입장이었다. 오스만 제국의 셀림 1세는 사파비를 공격하러 가는 길에 둘가드르가 군사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은 것을 빌미삼아 사파비에게서 찰드란 전투를 이기고 돌아오는 길에

별동대를 보내 돌가드르 군주 알라웃다올라를 패배시키고 죽인 후 그의 머리를 이집트로 보냈다(1515년). 그의 뒤를 이은 알리 베이는 셀림 1세의 이집트 원정에서 공을 세웠으나 모함을 받아 일족이 몰살되었다(1522년). 그 후 돌가드르 땅은 오스만 제국의 돌카드리예라는 한 주(Beylerbeylik)가 되었다. 이후에도 오스만 제국 말기에 이르기까지 돌가드르 집안은 이 지역에서 상당한 권위와 세력을 가졌고 종종 관직을 얻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돌카드르, 돌가드르 오올라르, 돌가드르 공국
- 다국어 표기 Dulkadiroğulları(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메흐메트 2세, 바이에지드 2세, 찰드란 전투
- 참고문헌(오프라인) J. H. Mordtmann and V. L. Menage, "Dhul-Kadr," Encyclopaedia of Islam (Brill) 2nd edition Vol. II 1991 pp.239~240.
Refet Yınanç, "Dulkadiroğulları," TDV İslam Ansiklopedisi Vol.9 1994 pp.553~557.

I A227 | 둘비라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음악 ● 유형 소분류2 악기
- 집필자 김홍중 ● 라틴 문자 Dumbyra

둥비라(dumbyra)는 바시키르 민족 고유의 전통 현악기이다. 노가이, 카자흐 민족의 돔브라(домбра)와 유사하지만 목의 형태와 3현 악기란 점에서 다르다. 둘비라는 키르키즈 민족의 코무즈(комуз), 우즈베크 민족의 두타르(дуғтар)와도 유사하다.

둥비라는 바시키르 구연자인 세센(сәсән)이 사용하는데, 둘비라의 반주에 맞춰 세센은 영웅 이야기나 노래, 그리고 바시키르 민중 서사시인 쿠바이르를 공연한다. 둘비라는 80센티미터의 길이에, 3개의 힘줄로 만든 현, 파넨 나무로 만든 몸통으로 이루어져 있다. 둘비라를 연주하면서 동시에 현을 친다. 이때 아래 현은 저음을 내고, 윗 현은 멜로디를 담당한다.

17세기~18세기에 세센이 민족 해방 투쟁에 참여하고 독려했다는 이유로 러시아 제국의 박

해와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사이에 둠비라는 사용되지 않았다. 바시키르의 서사시와 음악은 점점 잊혀갔고 둠비라 대신 러시아 악기인 돔라 알트(домра альт)와 만돌린이 사용되었다. 1980년대에 이르러서야 옛 세대의 기억과 문헌 자료에 기반해 바시키르 둠비라가 복원되었다. 둠비라는 독주나 합주로 쓰일 수 있으며, 오케스트라용으로 다양한 음역대의 둠비라가 만들어졌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둠브라, 둠브라
- 다국어 표기 Думбыра(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둠브라, 세센, 코무즈, 두타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muzinstru.ru/wp-content/uploads/2020/11/dumbyra-instrument.jpg>
- 참고문헌(온라인) <http://rus.bashenc.ru/index.php/component/content/article/2-statya/11615>
- 참고문헌(오프라인) Рахимов Р.Г. Башкирские народные музыкальные инструменты. Уфа, 2004.

I A228 | 둠간

- 시기 기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이슬람 ● 유형 소분류2 민족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Dungan

둥간은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무슬림을 가리키는 투르크 말인데, 이들 스스로는 후이족(回族)이라고 부른다. 또한, 중국 무슬림은 둠간이라는 말을 멸칭으로 여긴다. 둠간의 어원은 과거 몽골의 쿠빌라이 칸(Kublai Khan, 재위 : 1260년~1294년) 시대 불교를 믿던 타타르족과 몽골인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한 것에 기원하며 ‘옛 종교로부터 돌아온(dönen) 이’로 보고 있다. 이들은 하나피 학파 수니 무슬림이다.

둥간인들이 사용하는 둠간어는 문법 구조와 어휘가 중국어와 거의 유사하다. 1928년까지는 아랍 문자로 표기했고, 1953년까지는 라틴 문자로, 이후로는 키릴 문자로 표기하지만, 투르크어, 러시아어, 아랍어, 페르시아어에서의 차용어가 많다.

이들은 14세기 후반부터 그 존재가 알려졌으며, 특히 1862년~1877년 청나라의 탄압에 맞서 1862년 중국 산시성(Shaanxi, 陝西) 웨이난 시(Wèinán, 渭南)에서 이들이 일으킨 봉기로 인하여 그 이름이 더 알려지게 되었다. 이 봉기는 간쑤(Gānsù, 甘肅) 지역과 동투르크스탄 지역까지 퍼져나갔으며, 1862년에는 쿠차(Kùchē, 庫車) 지역에 동간-위구르 연합 정부를 세우게 된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동투르크스탄은 동간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곳에서 야쿱 벅(Muhammad Yaqub Bek, 1820년~1877년)의 지도하에 독립 국가를 세우게 되었다. 그러나 야쿱 벅의 통치 시기에 정치적인 이유와 인종적인 불화로 인하여 독립 국가는 지속되지 못했다. 1871년 러시아 군인들이 이 지역을 정복했으며 이들의 압제로 1877년~1884년 동간인들은 산시, 간쑤, 동투르크스탄 지역에서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피신하게 되었다. 현재의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의 여러 지역에 퍼진 동간인들은 주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2005년 기준 동간인은 약 11만 명에 달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둔간, 뉘겐, 후이, 후이후이
- **다국어 표기** Döngen(튀르키예어), Dunganlar(우즈베크어), Дуңгендер(카자흐어), 東干族(중국어), 东干族(중국어), Dunqanlar(아제르바이잔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Hong, Ding. 2005. "A Comparative Study on the Cultures of the Dungan and the Hui People," Asian Ethnicity 6, No. 2 (June): 135~140.
Lee, Hee Soo (Cemil). TDV İslâm Ansiklopedisi cilt 9, İstanbul: TDV, 1994, pp.517~551.

| A229 | 드라고만

- 시기 A.D. 1500년~A.D. 18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호칭 ● 유형 소분류2 관직
- 집필자 이은정 ● 라틴 문자 Dragoman

드라고만(Dragoman)이란 오스만 제국에서 주로 유럽 상인 혹은 외교관에게 고용된 '통역사'라는 뜻으로, 이 표현은 아랍어의 'tarjuman'에서 나온 튀르키예어 'tercüman'의 발음이

유럽인들 사이에서 와전된 것이다. 이들은 주로 오스만 제국 내의 비무슬림 집단으로부터 충원되었다. 당시 무슬림들은 유럽 언어를 배우는 일이 드물었고, 유럽 상인이나 외교관을 위해 일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드라고만은 세금 납부에 있어서 유럽 외교관과 상인들에 준하는 혜택을 1675년 영국과의 카피톨레이션에서부터 보장받기 시작했고, 그러한 특혜는 곧 다른 외국과의 카피톨레이션에서도 주어지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드라고만은 비무슬림 성인 남성이 납부해야 하는 인두세와 그 소속 비무슬림 집단들에게 중앙 및 지방에서 부과한 비정규세를 면제받았다. 이들에게 주어진 특혜가 상당한 것이었으므로 오스만 정부는 조약문에서 드라고만이 상업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으나, 상업을 못 하게 하는 조건으로 일하려는 드라고만은 거의 없었고, 유럽 상인들과 외교관들은 자신들의 드라고만에게 상업 활동을 허락해 줄 수밖에 없었다. 드라고만들은 유럽과 오스만 제국의 사회적, 경제적 흐름에 대한 지식을 이용하여 많은 재산을 모았다. 또한 초기에는 한 도시에서 국가별로 영사 1인이 드라고만 2명과 조수 4명까지 도합 6명을 고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인원이 한정되어 있었으나 점점 더 제도가 방만하게 운영되어 등록된 인원이 18세기에는 수백이었던 것이 19세기 중엽에는 수천에 이르렀다.

내국인 비무슬림 신민들에게 사실상 치외법권(extraterritorial privileges)을 수여하는 셈이 되었기 때문에 이는 제국의 종말에 이르기까지 첨예한 외교 문제로 남았다. 다른 한편 오스만 정부에서도 유럽과의 교섭에 있어서 17세기 후반부터 유럽과의 외교 관계가 중요해져서 공식적으로 통역관을 쓰게 되었고, 이들을 높이 등용하여 드라고만이라고 불렀는데, 이들은 주로 이스탄불의 페네르(Fener) 구역에 사는 부유한 그리스인 엘리트, 파나리오트로부터 충원되었고, 오스만 제국의 외교 관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테르쥐만
- 다국어 표기 Dragoman(영어), Draqoman(아제르바이잔어), Драгоман(카자흐어), Dragoman(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카피톨레이션, 파나리오트
- 참고문헌(오프라인) Bruce Masters, “Dragoman” in Encyclopedia of the Ottoman Empire.

I A230 | 디가론 모스크

● 시기 B.C.~A.D. 1500년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건축 ● 유형 소분류2 모스크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Diggaron mosque

디가론 모스크는 부하라와 사마르칸트 사이에 있는 하자라(Khazara)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이 모스크는 옛 쿡쉬바간(Kukshibagan) 시 페허의 성벽 밖 남서쪽에 있다.

모스크의 이름인 데가론 또는 디가론은 14세기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수피(이슬람 신비주의자)이자 도공(陶工)의 이름에서 따왔다. 그러나 실제 건축 시기와 인물의 생몰 시기와는 다르다. 이 건물의 건축 연도는 학자에 따라 8세기~9세기 또는 11세기로 보고 있다.

1910년 동쪽 벽이 대대적인 수리 및 복구 공사를 하면서, 이곳에 있던 벽, 문, 창문, 모서리 탑, 작은 아치, 볼트 서쪽 벽에 자리한 미흐랍은 원형과 달라졌다. 입구는 동쪽 벽에 있었으며, 서쪽 벽에는 미흐랍이 있었으나, 이 또한 후대에 다시 건설했던 것이다. 동쪽 벽의 벽돌 역시 1910년 수리 당시 교체된 것이며, 동쪽 벽을 제외하고 주재료는 아도비 점토이다.

건축물은 바깥에서 보았을 때는 정사각형에 가까운 형태로 크기는 16.20mx16.35m이다. 북쪽 벽은 완벽한 평행을 이루지 못하여 살짝 찌그러진 형태이다. 내부는 13.75mx14.20m이다. 높이는 바닥에서 돔 끝까지 12.50m이다. 벽의 높이는 전면부인 동쪽 벽은 6m, 그 외는 7.5m이다. 벽의 두께는 상단부는 1.25m, 하단부는 60cm로 점차 줄어드는 형태이다. 출구는 건축물의 크기에 비해 작은 편이다. 정문 양옆에 가로대가 있는 문 형태의 창문이 더 있고 문 각각의 상단부에 창문이 하나씩 더 있다. 남쪽 면의 옆문과 북서 모서리의 문처럼 보이는 창문은 최근에 새로 만든 것이다.

본 모스크에는 벽돌로 만든 네 개의 기둥이 있다. 이 기둥은 첨두아치로 연결되어 있다. 첨두아치 위에 지름 5.4m의 중앙 돔이 있다. 중앙 돔은 여러 돔 중 가장 크고 높다. 이 첨두아치는 돔 뿐만 아니라 작은 첨두아치와 벽, 볼트, 건물 모서리에 위치한 돔들까지 모두 지지하고 있다. 첨두아치는 벽돌로 돌출 장식이 되어 있다. 이런 예는 당시로서는 무척 드물어 현재까지는 본 모스크 외에는 알려진 바가 없다. 중앙 돔을 지지하는 드럼은 팔각형이고, 다시 이 팔각형의 드럼은 첨두아치가 있는 트롬프로 연결되어 있다.



디가론 모스크

중앙 돔 이외의 작은 돔은 9개이며 약 3m의 지름으로 무카르나스가 있는 볼트와 연결되어 있다. 또한 작은 돔은 교차리브볼트로 처리되어 있다.

중앙아시아 중세 이슬람 건축에 있어 이런 형태의 건축물은 처음이자 유일한 예이다. 네 개의 기둥과 중앙 돔 형태는 이 지역의 조로아스터교 신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는 주장도 있다. :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닥가론 모스크, 데가론 모스크, 마스지디 디가론, 마스지디 데가론
- 다국어 표기 Masjid-i Diggaron(우즈베크어), Deggaron masjidi(우즈베크어), Deggaron camii(튀르키예어)
- 멀티미디어 링크 디가론 모스크 전면부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2/28/Deggaroni_Mosque_1.JPG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Deggaroni_Mosque.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Cezar, Mustafa. Anadolu Öncesi Türklerde Şehir ve mimarlık, Ankara: İş Banka, 1977.
Çeşmeli, İbrahim. Antik çağdan 13. yüzyıla kadar Orta Asya ve Karahanlı dönemi mimarisi, İstanbul: Arkeoloji ve Sanat yayınları, 2007.

I A231 | 디리 바바 영묘

●시기 A.D. 1000년~A.D. 1500년 ●지역 서아시아 ●나라 아제르바이잔 ●유형 예술 ●유형 소분류1 건축 ●유형 소분류2 영묘
●집필자 최선아 ●라틴 문자 Dirı Baba Mausoleum

디리 바바 영묘는 셰이흐 바바(Şeyx Baba)를 위해 아제르바이잔 고부스탄(Qobustan)에 1402년에 건설된 영묘이다. 영묘 석문에는 쉬르반샤 이브라힘 1세(I İbrahim, 재위: 1382년~1418년)의 명으로 건설되었다고 쓰여 있다.

디리(diri)는 ‘살아 있다’는 의미이다. 종교적으로 위대한 인물은 알라의 길에서는 죽었으되 죽지 않았으나 사람들이 모를 뿐이라는 믿음에 기인하여 종종 위대한 종교인의 영묘에는 ‘디리’가 붙기도 한다. 사실 바바(baba) 역시 일부 수피즘 종파에서 스승 역할을 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로 사용되곤 한다. 영묘의 주인인 셰이크 바바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는 거의 없다. 17세기 오스만 제국의 여행가 에블리이아 첼레비(Evliya Çelebi, 1611년~?)는 아제르바이잔을 방문하여 ‘디리 바바’ 또는 ‘매래제 쉐이흐(Mərazə Şeyx)’로 알려진 사람에 대해 언급한다. 매래제(Mərazə)는 고부스탄의 옛 이름이다. 매래제 셰이흐(Mərazə Şeyx)는 쉬르반샤 왕조 이브라힘 1세의 무아딘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인물과 영묘의 주인이 동일인물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영묘는 절벽을 깎아 만든 2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층은 회랑과 부속실이 있고, 2층에는 홀이 있다. 1층과 2층 사이에는 절벽을 깎아 만든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다. 암석 안쪽에 건설되었으며, 파사드는 남쪽에 있다. 1층 파사드에는 두 개의 첨두 아치(pointed arch)형 벽감이 있다. 이 중 하나에는 입구가 있으며 다른 하나는 기하학적으로 조각된 직사각형 창이 있다. 파사드 상단부에는 3줄로 된 무카르나스(Muqarnas)로 된 처마가 2층으로 연결된다. 2층 파사드는 1층보다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 있으며, 둥근 아치형 창문 내에 기하학 문양의 석조 격자가 있다. 2층 파사드의 처마는 단순하다.

1층 입구를 통해 들어간 홀은 볼트로 덮여 있다. 오른쪽에 위치한 돔이 덮인 공간에는 계단이 있으며 이를 통해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다. 2층 홀은 돔으로 덮여 있으며 돔을 지탱하는 스퀴치(스퀴치)는 루미와 팔메트 문양을 새겨 장식하였다. 스퀴치와 돔을 연결하는 부분은 무카르나스로 처리되어 있다. 또한, 스퀴치를 장식한 두 개의 메달에는 건축가의 이름이 있었다. 그러나 메달



디리바바 영묘

중 하나가 훼손되어 오로지 ‘장인 하지의 아들(Bin Ustad Haji)’만 읽을 수 있어 건축가의 아버지 이름만 확인할 수 있다. 남쪽, 동쪽, 서쪽에는 아치형의 창문이 있다. 서쪽으로 나 있는 계단을 통해 돔까지 도달할 수 있으며, 여기서 뒤편에 있는 바위와 동굴 모양의 쉼터까지 갈 수 있다.

절벽에 깎아 만든 독특한 형태의 이 영묘는 아제르바이잔 미술사에서 흔한 예시는 아니기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디리바바 튀르베시, 디리바바 무덤
- 다국어 표기 Diribaba türbəsi(아제르바이잔어), Diri Baba Türbesi(튀르키예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rl.kr/wl4z6s>
- 참고문헌(오프라인) Çoruhlu, Yaşar. “Azerbaycan’ın Merezə Köyü’ndə Diri Baba Türbesi”, Belleten Sayı: Ağustos 2001, Cilt 65 – Sayı 243, pp.583~590.
İbrahimov, Telman. DİRİ BABA TÜRBƏSİ, 2020.

I A232 | 디바나

● 시기 기타 ● 지역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북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키르기스스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신앙 ● 유형 소분류2 상징
● 집필자 김홍중 ● 라틴 문자 Divana

디바나는 투르크멘, 타타르, 타지크, 우즈베크, 아제르바이잔, 바시키르, 키르기스, 카자흐, 카라칼파크 신화에 나오는 성스러운 것으로 여겨지는 바보를 의미한다. 데보나(девона), 디반(диван), 디우아나(диуана), 두바나(дубана), 두아나(дуана)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디바나란 용어는 타지크-페르시아어의 데보나, 즉 ‘땀(초자연적인 존재)에게 사로잡힌’에서 유래한다.

전통적으로 디바나는 존중을 받고, 수피즘의 샤이흐에 비견되기도 한다. 중세 중국의 자료에 따르면 초기에는 샤먼을 디바나로 불렀다고 추측할 수 있다. 이슬람 전파 이전의 신화에서 디바나는 주인공을 돕는 기적을 행하는 조력자로서 수호신의 역할을 하고 있다. 예언자이자 마술사인 디바나는 아이의 탄생을 돕기도 하며(알퍼므쉬), 결혼을 주선하고 고난과 역경에서 벗어나게 한다. 보통 디바나는 이름을 가지지 않지만, 유명한 성인의 이름으로 부르기도 한다. 신화에서 디바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성직자의 역할을 하는 중요한 위치로 묘사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디와나

● 다국어 표기 Дивана(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알퍼므쉬

● 참고문헌(온라인) Мифы народов мира/под ред. Токарева С. А. — М., Совет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1992 г. — т.1, 671.

Бичурин Н. Я. Собрание сведений о народах, обитавших в Средней Азии в древние времена, т. 1, М.- Л., 1950.

I A233 | 디브리이 대 모스크

● 시기 A.D. 1000년~A.D. 15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건축 ● 유형 소분류2 모스크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Divriği Great Mosque

디브리이 대 모스크는 1228년~1229년 시바스(Sivas) 인근의 디브리이(Divriği)에 건설된 모스크이다. 시바스 지역에 위치했던 멘귀첼리 공국(Mengüçlü Beyliği)의 지배자였던 아흐메드 샤(Ahmed Şah, 재위: 1227년~1251년)의 명으로 아흐라틀르 무이스 오울루 휘람 샤(Ahlatlı Muğis oğlu Hürrem Şah)가 설계했다. 모스크 내의 병원(디브리이 다뤘쉬파스: Divriği Darüşşifası)의 경우 아흐메드 샤의 아내인 투란 멜렉(Turan Melek)의 명으로 같은 해에 건설되었다. 병원과 붙어 있는 모스크 건물 남쪽 면에는 비문이 존재한다.

디브리이 모스크는 직사각형 형태로 북쪽 정문을 포함하여 4개의 이완이 존재한다. 건물의 중앙에는 빛을 받을 수 있는 두 개의 피라미드 형태의 지붕이 존재한다. 내부 중앙에는 미흐랍 방향으로 나아가는 5개의 중랑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랑은 아치로 받쳐져 있으며 25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미흐랍 앞에 자리한 두 조각으로 나뉜 돔의 경우 외부는 피라미드 형태로 덮여져 있다. 내부의 일부는 타원형 돔과 일부는 색상이 있는 석조 자재로 이루어져 있다.

팔메트 문양으로 장식된 미흐랍은 단순한 내부 벽면과 조화를 이룬다. 모스크 건설 12년 후 타필릴리 아흐메드(Tafilli Ahmed)라는 장인에 의해 만들어진 민바르는 가느다란 루미(Rumi) 문양과 구부러진 가지 문양 및 기하학 문양으로 이루어져 있다.

모스크와 이어진 병원 건물은 단순한 형태를 지향하고 있으며 원형이 대부분 남아 있다. 모스크 쪽을 바라보는 북동쪽에는 아흐메드 샤와 투란 멜렉을 위한 영묘가 존재한다. 영묘 내 관의 경우 일부는 도금되어있고 일부는 터키석색의 타일로 덮여 있으며 '알라'라는 글씨와 루미와 유사한 문양으로 장식되어 있다.

디브리이 대 모스크의 가장 큰 특징은 단순한 구조와 달리 화려하게 장식된 대문이다. 사산조 양식, 가즈나 조 양식, 스텝 지역의 애니멀 스타일, 대 셀주크 조의 석고 장식, 근동의 목공 장식 등을 석조 자재에 구현해냈다.

북쪽 벽면에 위치한 정문에는 이 모스크가 아흐메드 샤의 이름으로 지어졌다고 나타내는 비



디브리이 대 모스크, 병원으로 통하는 대문

문이 존재하며 바로크 양식을 떠올리게 하는 문양으로 적혀 있다. 두 번째 비문에는 셀주크의 술탄이었던 알라엠티딘 케이쿠바드(I. Alâeddin Keykubad, 재위: 1190년~1237년)의 이름이 등장한다. 서쪽 문은 식물 문양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아랍어로 된 비문이 존재한다. 문의 오른쪽에는 쌍두 독수리 형상이 조각되어 있다.

동쪽 문은 셀주크 시대 양식으로 무카르나스(muqarnas)가 있는 연통 형태로 주변이 기하학 문양과 식물 문양으로 이루어진 넓은 테두리로 둘러싸여 있다. 이곳에 존재하는 비문에 아흐라틀르 낙카슈 아흐메드(Ahlatlı Nakkaş Ahmed)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남쪽 문은 병원과 연결되어 있다.

디브리이 대 모스크는 13세기 아나톨리아반도의 문화가 다양한 문화권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과 당시의 예술적 함양을 보여주는 중요한 작품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디브리기 모스크, 디브리이 자미

● 다국어 표기 Divriği Ulu Camii(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모스크

● 멀티미디어 링크 <http://www.kulturvarliklari.gov.tr/Resim/33393,unescodivrigijpg.png?0>

<https://images.app.goo.gl/B2nSmEmpDESUbpXM9>

<http://semerkandvakfi.org/wp-content/uploads/2019/01/sivas-divrigi-ulu-camii-banner-1160x480.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Aslanapa, Oktay. Türk sanatı, Ankara : Kültür Bakanlığı, 1990.

Kuban, Doğan. Türk ve İslâm Sanatı Üzerine Denemeler, İstanbul : Arkeoloji ve Sanat Yayınları, 1982.

Kuban, Doğan. Divriği Mucizesi, İstanbul : YKY, 2003.

I A234 | 디슈 헤디

● 시기 기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의례 ● 유형 소분류2 풍습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Diş hedîği

디슈 헤디는 아이의 첫 치아가 난 것을 축하하는 전통으로, 음식을 씹고 잘라내는 기능을 하는 치아가 튼튼하게 자라 아이가 잘 먹고 잘 자라기를 바라며 여러 의식을 통해 축하한다. 디쉬(diş)는 치아, 헤디크(hedik)는 삶은 밀과 이집트 콩을 뜻한다. 디슈 헤디 이외에도 디쉬 부다의(diş buğday), 디쉬 불구루(diş bulguru)를 비롯하여 다양한 이명이 있다.

지역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축하하지만, 대체적인 전통은 유사하다. 우선 손님을 초대하고 아이를 손님들 앞에 앉힌다. 이 손님과 손님을 맞는 집주인은 주로 여성들이다. 미리 준비한 헤디크, 즉 밀알과 이집트 콩을 삶아 말린 것을 쟁반에 담아낸다. 치아가 난 아이를 쟁반이나 보자기 위에 앉히고 머리에 헤디크를 뿌린다. 바닥에 떨어진 헤디크는 아이가 자랐을 때 복이 되길 바라며 새가 먹을 수 있게 집 밖에 놓아둔다. 지방에 따라서는 아이의 옷에 떨어진 헤디크 일곱 개를 실로 꿰어 불운이 닿지 않게 아이의 목이나 머리에 걸어준다.

그 후 아이의 앞에 여러 물품을 늘어놓고 아이가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 물품은 칼, 연필, 책, 빵, 거울, 가위 등 직업과 아이의 운명과 관계된 것들로, 잡은 물건에 따라 아이의 직업이나 미래가 결정된다고 믿는다. 예를 들어 가위를 잡으면 재단사가 되고 거울을 잡으면 행복

하고 부유하게 된다는 식이다. 이는 고대 투르크인들의 종교였던 샤머니즘의 영향으로 보인다.

이후 초대된 손님들을 대접하고 선물을 받는다. 손님은 주로 아이가 입을 옷이나 장난감 따위를 선물한다. 아이의 치아를 처음으로 본 사람은 아이를 위해 더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기도 한다.

남은 헤디크는 쟁반에 담아 손님과 이웃에게 나누어주고 이것을 받은 이웃은 이 쟁반을 씻지 않고 아기를 위한 선물이나 돈을 담아 돌려주거나 쟁반 자체를 돌려주지 않고 선물만을 보내기도 한다. 쟁반을 씻으면 아이의 치아가 썩는다는 믿음에서 기원한 것이다.

이 풍습은 중앙아시아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이며 아나톨리아와 카프카스 지역의 투르크인들에게서 많이 행해진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디르기트, 디쉬 아식, 디쉬 헤디기, 디쉬 불구루

● 다국어 표기 Diş hediği(튀르키예어), Dirgit(튀르키예어), Diş Aşığı(튀르키예어), Diş Bulguru(튀르키예어), Diş Buğdayı(튀르키예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youtu.be/TcYOAoHXFSc>

● 참고문헌(오프라인) Karakaş, Rezan. “Diyarbakır’da Bebeğin İlkeleri: Hedik, Köstek kesme, Törenleri ve Çocuklara yönelik Halk Hekimliği Uygulamaları”, Karadeniz, Kış, Yıl: 4, 2012, Sayı: 16: pp.74~87.

Örnek, Sedat Veyis. Türk Halkbilimi, Ankara: Kültür Bakanlığı, 2000.

Geçmişten Geleceğe Yaşayan Kültür Mirasımız Türkiye Somut Olmayan Kültürel Miras Ulusal Envanteri, Ankara : T.C Kültür ve turizm bakanlığı, 2014.

I A235 | 디야르바크르 성벽

- 시기 기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건축 ● 유형 소분류2 성벽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Diyarbakır Fortress

디야르바크르 성벽의 실제 명확한 건설 시기에 대해서는 많은 학설이 있으나 대체로 4세기 정도로 보고 있다. 성벽의 길이는 5,200m이고, 내성벽의 길이는 588m였다. 내성벽, 외성벽 포함하여 645m 가량이 다양한 이유로 훼손되거나 사라졌다. 외성벽에는 82개, 내성벽에는 19개



디아르바르크 성벽 울루 베덴

의 탑이 있다. 그중 3개는 1930년대에 파손되어 사라졌고 4개의 탑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파손되어 사라졌다. 4개의 탑은 상단부가 훼손된 채로 입구 부분만 남아 있다.

방어를 목적으로 건설된 탑은 현무암을 주로 사용했으며 3층 또는 5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1층은 주로 창고, 2층과 3층~4층은 군인들이 머물렀다. 1층은 공간이 좁은 편이고 위로 갈수록 넓었다. 입구 탑에는 테라스가 있었다고 한다. 또한, 탑에는 성벽 쪽으로 계단이 나 있거나 탑 내에 계단이 존재하여 성벽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건설되었다. 탑들은 원형, 사각형, 다각형 형식이다.

성벽과 탑은 8m~22m로 평균 20m 정도이다. 상단부의 다수 훼손된 흔적으로 보아 과거에는 더 높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성벽의 두께는 1.4m~5m로 다양하다. 동쪽 부분이 약 1.40m~2.60m로 가장 얇고 북쪽 벽이 4.5m~5m 가량으로 두텁다.

외성벽과 내성벽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성벽의 대문은 북쪽의 다투카프(Dağ Kapi), 서쪽의 우르파 카프(Urfa Kapi), 남쪽의 마르딘 카프(Mardin Kapi), 동쪽의 예니 카프(Yeni

Kapı)로 이루어져 있다. 20세기까지 이 성벽 문은 일정 시간만 열고 밤에는 닫아 성 내 출입을 관리했던 것으로 보인다. 성벽 북동쪽의 내성벽에는 4개의 문이 더 있다. 사라이 카프(Saray Kapı)와 쿠패리 카프(Küpelı Kapı)는 성 안쪽으로, 오른 카프(Oğrun Kapı), 페티흐 카프(Fetih Kapı)는 성 바깥으로 연결되어 있다.

성벽의 건설은 로마 시대였으나, 1088년, 대 셀주크 조가 이 지역을 정복한 이래로 수많은 수리를 거치는 동안 성벽의 양식은 투르크화가 되었다. 예를 들어 말리크 샤(Malik-Shah I, 재위: 1072년~1092년)의 이름이 담긴 비문에는 꽃문양으로 장식된 쿠픽 서체의 현판이 있으며, 투투스 쉬 1세(Tutush I, 다마스쿠스 통치: 1078년~1095년)가 성벽 수리를 명한 내용의 기록 등은 투르크의 아나톨리아 정착 초기의 흔적이다. 특히 말리크 샤의 이름이 있는 비문 중앙에는 양반다리를 한 남자와 무릎을 꿇은 황소, 그 주변에는 네발 달린 짐승과 두 개의 맹금류 양각 조각이 있다.

알투키즈(Artuqids) 시대인 1208년에는 울루 베덴(Ulu Beden) 탑과 예디 카르데쉬(Yedi Kardeş) 탑을 건설했다. 울루 베덴 탑 상단부를 둘러싼 비문 위, 쌍두 독수리와 사람 머리가 있는 사자가 조각되어 있으며, 하단부에도 사람 얼굴을 한 사자 조각이 있다. 이러한 투르크 양식이 여러 시대에 걸쳐 적용되었다.

디아르바르크 성벽은 2015년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으며, 2022년 현재 복구 공사를 진행 중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디야리바키리 성벽, 디야르바르크 요새, 디야리바키리 요새

● 다국어 표기 Diyarbakır Surları(튀르키예어)

● 멀티미디어 링크 내부에서 본 디야르바르크 성벽

https://whc.unesco.org/uploads/thumbs/site_1488_0003-500-335-20150610152851.jpg

예디 카르데쉬 탑

https://whc.unesco.org/uploads/thumbs/site_1488_0006-500-332-20150610152853.jpg

● 참고문헌(온라인) <https://whc.unesco.org/en/list/1488/gallery/>

● 참고문헌(오프라인) Nabikoğlu, Adnan., Neslihan Dalkılıç, “Diyarbakır Surlarının Günümüzdeki Durumuna Yeni bir Bakış”, Restorasyon Konservasyon Çalışmaları Dergisi, Sayı: 15, 2013, pp.23~35.

Aslanapa, Oktay. Türk sanatı, İstanbul: Remzi Kitabevi, 2015.

I A236 | 디완의 휘마운

- 시기 A.D. 1000년 ~ A.D. 18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기관
- 유형 소분류2 행정기관
- 집필자 이은정 ● 라틴 문자 Imperial Council

메흐메트 2세는 콘스탄티노플을 정복하고 찬다를르 할릴 파샤를 제거한 후 제국의 위상에 걸맞는 중앙 정부 조직을 만들었으니, 그 핵심이 된 것이 최고 각료 회의 내지 국무 회의라고 할 만한 디완의 휘마운이다. 이는 직역하면 ‘제왕의 디완(관청, 관부)’이라는 뜻이다. 오스만 술탄들은 초창기부터 주요 영주들과 관료들로 이루어진 자문 회의의 보좌를 받았으며 디완의 휘마운은 이러한 전통에서 나온 것이다. 디완은 오스만 제국 초기에는 이슬람권의 칼리프와 술탄들이 카디 법정에서 해결되지 못한 일들에 대해 신민에게 정의를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흔히 열렸던 마잘림(mazalim) 법정의 전통 하에서 주로 억울하게 당한 피해에 대해 정의의 심판을 내리는 기능을 주로 담당했다. 이러한 최고 법정의 기능 외에 최고위 행정 기구이자 전시에는 최고 사령부이기도 해서, 오스만 제국의 중요한 국무 대부분을 주관했다. 디완이 열리는 장소는 술탄 궁정의 문 가까운 곳이었으며 그런 연유로 오스만 제국의 정부를 대문이나 문지방이라는 어휘를 가지고 만든 어휘로 표현하는 일이 많았다.(Dergâh-ı Âli, Bab-ı Âli, Sûdde yi Saadetim 등) 디완은 톱카프 궁에서는 두 번째 뜰 안에 하렘 입구에 맞닿아 있는 회의실(디완의 휘마운이 열리는 회의실을 특별히 쿵베알트라고 불렀다.)에서 열렸고 에디르네 궁에도 같은 기능을 하는 회의실이 있었지만 항상 궁에서만 열리지는 않았고, 술탄이 군을 직접 지휘해 원정을 떠났을 경우 어디든 술탄의 소재지에서 디완을 열 수 있었다. 그러나 술탄이 디완의 휘마운에 항상 참석한 것은 아니었고 술탄 대신 주로 대재상이 회의를 주재했다. 술탄이 회의에 직접 참여하지 않기 시작한 것은 메흐메트 2세 당시부터인데 그의 아들 바이에지드는 회의에 참석했고, 그 이후 술탄들은 대개 참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톱카프 궁의 디완 회의실에는 벽에 쇠창살이 있는 창문이 나 있어서 그 뒤에서 술탄이 대화를 엿들을 수 있게 되어 있었으므로 술탄에게 거짓 보고를 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 창문을 만들게 한 술탄이 메흐메트 2세였는지 쉴레이만 1세였는지는 불분명하다. 디완의 휘마운의 구성원들은 오스만 제국의 지배층 아스케리의 3대 주요 부문, 즉 군인, 종교인, 문서 행정 관료들을 모두 아우르는 것이었다. 군인을 대표하는 자들로 대

재상과 기타 재상들, 루멜리(발칸)의 베일레르베이(주 장관), 카푸단 으 데리야(해군 제독, 16세기 중엽부터 참여) 그리고 종교계를 대표하는 재판관 카디아스케르 2명, 재무를 담당하는 데프테르다르, 법과 문서 행정 전반을 책임지는 니샨즈가 들어 있었다. 또한 정식 구성원은 아니지만 16세기 후반부터 예니체리 사령관이 같이 참여했다. 고관 중에서 디완의 구성원이 아닌 사람으로 셰이힐이슬람이 있었는데, 그가 참여하지 않은 것은 그의 위치를 일상적인 정치 사건들의 흐름 바깥에 두고자 의도된 것으로 보인다. 대재상은 다른 모든 디완 구성원들보다 우위에 있었고 모든 면에서 술탄을 대리하여 권위 있는 결정을 내렸다. 권위가 큰 만큼 위험한 지위였으니, 오스만 제국의 대재상 가운데 패전이나 국정 운영 실패의 책임을 지고 처형된 사람은 대단히 많다. 대재상 외에 디완에 참여하는 재상(kubbe vezir)의 수는 시간이 갈수록 늘어났는데 이들은 대재상 대신에 원정을 지휘하거나 대재상이 원정을 지휘할 때 이스탄불에 남아 유수(kaymakam) 역할을 하는 등 서로를 대신하여 일반 행정과 군사 부문을 모두 맡는 제너럴리스트였고, 업무 부문을 전문화해서 나누지는 않았다. 여러 재상을 두게 된 데에는 상호 감시의 측면도 있었다. 대재상은 고전 시대(1450년경~16세기 중엽)에 투르크 무슬림 출신이 아니라 데브시르메를 통해 발탁되거나 노예로 잡히는 등 다른 경로로 궁정에 들어온 발칸 기독교인 출신자로 임명되는 경향이 있었다. 17세기 후반 이후 권력 구조의 변화 속에서, 톱카프 궁의 디완 으 휘마윤은 중요성이 줄어들었고, 그에 따라 소집되는 횟수도 줄어들었다. 디완 으 휘마윤의 소집은 16세기에 주 4회~5회, 17세기에 주 2회, 18세기에는 매우 드물게 있었다. 그 대신 궁 밖에 별개로 만들어진 대재상의 관부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를 가리켜 밥 으 아사피 혹은 바브 으 알리라고 했는데, 특히 후자는 18세기~19세기에 오스만 제국 정부를 지칭하는 이름으로 영어로는 the Sublime Porte라고 널리 알려졌다. 술탄의 권위가 흔들린 오스만 제국 후반기의 중앙 행정의 성격은 크게 변하게 되었다. 17세기 후반부터 고위 파샤 가문들의 위세가 대단하여 대재상의 위치에 데브시르메 경로를 통하지 않고 유력한 고위 관료의 가문에서 성장한 인력이 들어가게 되는 등 관료계에 큰 지각 변동이 있게 되었다. 또한 종전에 모든 세금 장부와 토지 조사 문서, 봉토 수여와 와크프 관련 문서들을 다 소장한 디완 으 휘마윤의 문서고를 관리하며 세속법과 문서 행정에서 독보적인 권위를 갖고 있던 니샨즈의 중요성이 하락했는데, 니샨즈 대신 관료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 관직은 레이실컷타브(서기장)였다. 그는 디완의 휘하에 있던 서기들을 거느리는 역할을 했고, 17세기부터 유럽 대사들의 기록에 일종의 외교부장

관 같은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디바느 휘마윤, 디반 으 휴마윤
- 다국어 표기 Dîvân-ı Hümâyûn(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메흐메트 2세, 바브 으 알리, 레이쉴컷타브, 찬다를르 가문, 데프테르다르, 니산즈, 디완
- 참고문헌(오프라인) Gabor Agoston, “Administration, Central” in Gábor Ágoston and Bruce Masters, eds., The Encyclopedia of the Ottoman Empire, Facts on File 2008 pp.10~13.
Ahmet Mumcu, “Divan-ı Hümayun,” TDV İslam Ansiklopedisi, Vol. 9 1994 pp.430~432.

I A237 | 디유 페리에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신앙 ● 유형 소분류2 정령
- 집필자 김홍중 ● 라틴 문자 Diyu periye

디유 페리에에는 카잔 타타르 민족의 신화에 나오는 하급 신이다. 다이바와 페리의 두 요소를 합친 존재이다. 카잔 타타르 신화에 따르면 디유 페리에들은 지하 세계나 심해에서 사는데, 그곳에는 자신의 도시와 왕국이 있다고 한다. 디유 페리에들이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떠돌아 다니지만, 때로는 어떤 형상을 하고 모습을 사람들 앞에 드러낼 때도 있는데 사람의 모습을 할 때도 있다. 처녀의 형상으로 변해 시집을 가서 사람들과 살기도 한다. 때로는 소녀들을 납치해 소녀에게 장가를 들기도 한다. 디유 페리에에는 사람들을 자기 땅으로 유혹해 집으로 데려가 대접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때 ‘비스밀라’(이슬람 주문 - ‘알라신의 이름으로’란 뜻)를 외치면 환영은 사라지고 음식은 말뚱으로 바뀐다. 디유 페리에에는 이슬람 지역의 ‘지니’ 신화와 유사하다.

다만 바시키르 민족의 디유 페리에에는 애니미즘적 의미를 지니고 있어 유사한 발음이지만 다른 형상을 지니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디유 페리에, 드유 페리에

● 다국어 표기 Дию пэрие(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다이바, 페리

● 참고문헌(오프라인) Токарев, С.А., Мифы народов мира. Большая Россий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I, 1991, 386.

Кайюм-Насыров, Поверья и обряды казанских татар, образовавшиеся мимо влияния на жизнь их суннитского магометанства, «Записки имп. Русского Географического Общества по Отделению этнографии», 1880, т.6.

I A238 | 디아르바크르 대 모스크

● 시기 A.D. 1000년 ~ A.D. 15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건축
● 유형 소분류2 모스크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Diyarbakır Great Mosque

디아르바크르 대 모스크는 아나톨리아에 이주한 튀르크인들이 최초로 세운 모스크로 알려져 있다. 이 건물은 원래 교회였으나 무슬림의 디아르바크르 정복 후 모스크로 개조했다. 술탄 말리크 샤(Sultan Malik Shah I, 재위: 1072년~1092년)의 이름과 1091년~1092년도가 새겨진 비문으로 보아 대 셀주크 조의 작품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1115년~1116년 지진과 화재로 크게 훼손되었고 이 자리에 완전히 새롭게 건설하게 된다. 현재 모스크의 일부는 원형을 보존하고 있으며 중정 서쪽과 동쪽에도 연도가 적혀 있는 비문이 존재한다. 최초 건설 연도 이후 가장 이른 연도가 기록된 비문은 중정의 서편의 아랫부분에 존재하며 1117년~1118년이다. 이 비문들은 건설 이후 수리와 증축을 할 때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후에 디아르바크르에서 대 셀주크 조로부터 독립한 이날오울라르(Inalids 또는 İnaloğullar) 공국의 지도자인 마흐무드 빈 엘라드(Mahmud bin Elaldı, 재위: 1142년~1183년)의 이름이 적힌 1155년~1156년도 비문에는 엘 벤나 이베틸라 귀르가니(El benna Hibbetullah Gürgani)라는 건축가의 이름이 등장하기도 하나 원래의 건축가 이름은 알 수 없다.

주재료가 다듬돌인 본 모스크는 이층으로 된 아치형 갤러리가 있는 중정이 있으며, 이 중정은 미흐랍과 평행을 이루고 있다.

모스크의 기도 공간은 세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중랑은 미흐랍과 축을 이루고 있다. 또



디아르바크르 대 모스크 중정

한, 중랑과 수직으로 일종의 트랜셱트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트랜셱트와 중랑은 경사진 목재 지붕으로 덮여 있다. 다른 두 부분은 정사각형 형태의 받침대 위에 있는 첨두아치로 나누어져 있다. 이 첨두아치 상단부에는 더 작은 두 번째 아치가 자리하고 있다.

석재로 된 미흐랍은 무카르나스로 장식되어 있으며 벽감은 오각형이다. 미흐랍 모서리의 작은 기둥에는 이오니아 양식의 식물 문양이 존재한다. 미흐랍에는 코란의 구절이 적혀 있다. 석재로 만들어진 설교단은 당대의 작품은 아니다.

중정의 서편에 존재하는 기둥은 코린트 양식이므로 로마 시대의 극장에 존재하던 석재를 가져와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포도 덩굴이 감싸인 코린트식 기둥 사이에 비문이 적힌 띠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 부분은 이날오울라르 공국 시대에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중정의 동편의 경우 이 서편을 다시 재현하려고 애쓴 흔적이 보인다. 일부는 로마 극장에서 가져온 재료를 사용하고, 일부는 이것을 흉내 낸 기둥을 이용하여 꾸몄으며, 특히 사자와 소가

양각으로 조각되었다. 이 동편의 위층은 서가로 이용되었다.

북쪽은 메수디예 마드라사(Mesudiye Medresesi)의 정면과 연결되어 있으며 나머지 면들은 오스만 시대에 수리를 거쳐 샤피이파를 위한 기도 공간으로 사용되었다.

중정 가운데의 팔각형 샤프르반(기도 전 세정을 위한 수리 시설)은 1850년에 만들어졌다.

색상이 있는 두 종류의 석재를 이용하여 장식한 정사각형에 가까운 직사각형 형태의 미너렛은 키블라 방향의 벽과 붙어 있다. 발코니 윗부분에서부터는 원통형이며 원뿔 형태로 끝이 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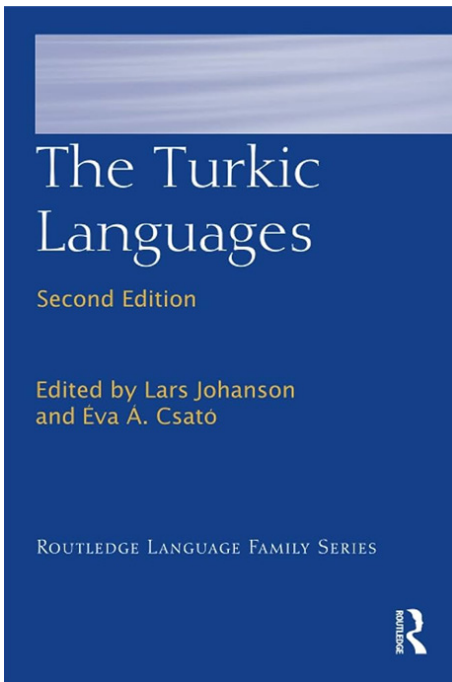
디아르바크르 대 모스크의 2층 갤러리가 있는 중정, 돔이 없는 트랜셉트 형태의 공간, 정사각형의 미너렛은 사실 아나톨리아 모스크 양식 발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아나톨리아를 정복한 투르크인들이 처음 지은 대 모스크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디야르바크르 울루 자미, 디야르바키르 모스크, 디야르바키르 울루 자미
- **다국어 표기** Diyarbakır Ulu camii(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셀주크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kulturportali.gov.tr/repoKulturPortali/large/07032013/d628e8c4-f0ab-4f5e-9d13-2f675bd7c73f.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Aslanapa, Oktay. Türk sanatı, İstanbul: Remzi Kitabevi, 2015.
Çakmak, Ahmet. “Ulucami, Diyarbakır”, TDV İslâm Ansiklopedisi , Cilt 42, İstanbul: TDV, 2012. pp.96~97.

| A239 | 라르스 요한슨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북유럽 ● 나라 스웨덴 ● 유형 언어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학자
- 집필자 장주영 ● 라틴 문자 Lars Johanson

라르스 요한슨은 1936년 스웨덴 코핑(Köping)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초등 및 중등 교육을 마쳤다. 1956년~1959년 스웨덴 옉살라 대학교에서 게르만어, 스칸디나비아어, 슬라브어, 투



『The Turkic Languages』 표지

르크어, 산스크리트어 및 비교 언어학을 공부했다. 라르스 요한슨은 1959년 독일어 및 스칸디나비아 언어들의 자격 시험을 통과한 이후 1959년부터 1960년까지 오스트리아 빈 대학교에서 동양어를, 1960년부터 1966년까지 옅살라 대학에서 튀르키예어를 공부했다. 라르스 요한슨은 1961년 옅살라 대학에서 게르만어, 스칸디나비아어 및 슬라브어를 주제로, 1963년 투르크학으로 두 개의 석사 학위를 받는다. 1966년에 라르스 요한슨은 월터 보크만(Walter Björkman)의 지도 학생으로서 튀르키예어 구문에 관한 연구(Studien zur reichtürkischen Verbalsyntax)를 주제로 박사 학위를 받는다. 라르스 요한슨은 1965년부터 1972년까지 옅살라 대학 및 스톡홀름 대학에서 튀르키예어 및 언어학 강사로 근무했다. 1971년에 그는 옅살라 대학에서 현대 튀르키예어 언어학 연구의 기본서로 꼽히는 『튀르키예어의 상(Aspekt im Türkischen)』을 완성한다. 같은 해 라르스 요한슨은 옅살라 대학의 튀르키예어과 부교수가 된다. 1972년에는 스웨덴 우메아(Umeå) 대학의 일반 언어학 부교수로 근무했으며, 1973년부터 1980년까지 스웨덴 인문학 연구 위원회에서 투르크학 분야 연구원으로 임명되었다. 동시에 라르스 요한슨은 1973년부터 독일의 마인츠에 위치한 구텐베르크 대학에서 투르크학 교수직을 맡았으며, 교직 생활의 상당 부분을 이곳에서 보냈다. 라르스 요한슨은 1979년부터 1980년에 프랑크푸르트 대학교에서도 근무했으며, 1982년에는 다시 마인츠로 돌아와 교수직을 맡다가 2001년 은퇴했다.

라르스 요한슨은 『투르크 세계(The Turkic World)』, 즉 투르크어를 사용하는 모든 지역에 대한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토대로 투르크어 방언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했다. 또한 라르스 요한슨은 이 연구를 통해서 투르크어 방언을 투르크 세계에 대한 경계와 분리 지점을 지역으로 설정하여 투르크어 분류 체계를 정립했다.

2016년 튀르키예어로 번역된, 『튀르키예어의 상(Aspekt im Türkischen, 1971)』은 튀르키

예어 동사 활용의 기능을 정의하는 가장 저명한 작품으로서 현대 튀르키예 언어학 연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 그는 현대 튀르키예어 언어학 연구의 기초 초석을 다지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는 은퇴 이후 현재까지도 투르크어의 연구 및 발전에 다양한 기여를 하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라르스 요한손
- 다국어 표기 Lars Johanson(스웨덴어)
- 연관 검색어 투르크어 분류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rl.kr/o39kgc>
- 참고문헌(오프라인) Nurettin Demir, 2017 “Lars Johanson”, Bizimkülliye, 18, 2017., pp.29~32.

| A240 | 라마잔

- 시기 기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이슬람 ● 유형 소분류2 신행
- 집필자 박현도 ● 라틴 문자 Ramazan

이슬람력 9번째 라마단(튀르키예어 표기: Ramazan, 라마잔)월 내내 여명이 들 때부터 일몰 때까지 아무것도 먹고 마시지 않는 단식 기간이다. 윤일과 윤달을 전혀 쓰지 않기에 라마단월은 해마다 전년보다 11일씩 빨리 온다. 라마단월은 해가 떠 있을 때에는 근신하며 엄숙하게 지내지만, 해가 진 이후에는 먹고 마시기 때문에 인내와 즐거움이 공존하는 기간이다. 음식뿐 아니라 부부 간 성행위도, 흡연도 하지 않는다. 올바르지 못한 행동, 말, 생각 역시 금기다. 말 그대로 근신하는 삶이다. 이 기간 동안 세상의 주님이신 알라를 기억하고 알라가 만든 세상을 깊이 생각한다. 삶을 되돌아보고 나보다 불우한 이웃을 보살피며 한 달을 보낸다. 병자나 노약자, 임산부, 생리 중인 여성, 어린아이, 여행자는 단식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 한 달 단식을 다 지키지 못하면, 라마단월이 끝난 후 빠진 날만큼 단식하면 된다. 단식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지 누가 강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전승에 따르면 어느 무슬림이 단식 기간에 아내와 사랑을 나누었다



성월 라마잔 시작 카드

고 고백하면서 예언자 무함마드에게 어떻게 해야 하나고 물었다. 그러자 무함마드는 속죄의 표시로 소유하고 있는 노예를 해방하라고 권했으나 노예가 없다고 하자 두 달 동안 단식을 할 수 있느냐고 다시 물었다. 못 하겠다고 하자 이번에는 60명을 먹일 능력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그런 재산이 없다고 답했다. 이에 무함마드는 두 바구니 가득 대추를 주며 자신보다 더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했으나, 자신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없다고 대답했다. 이에 무함마드는 “당신 가족들에게 나눠주라”라고 이르며 돌려보냈다. 이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 단식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유혹을 이기지 못한 나약함을 자선으로 씻고 마음을 굳건히 갖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이슬람 초기 시대 무슬림은 유대인을 따라 유대력 새 해 첫 달인 음력 7월 티슈리(Tishri)월 10일 속죄의 날(욘킵푸르, Yom Kippur)에 단식을 했다. 지난 한 해 동안 신에게 지은 죄를 생각하며 하루 동안 완전히 단식하는 날이다. 이러한 유대교 전통을 따르다가 라마단월 한 달 단식으로 변경했다. 역사적으로 특기할 만한 사실은 유대인이 속죄의 날을 모세가 시나이 산에서 두 번째로 계명을 받은 날로 기억하는 것처럼, 무슬림은 이슬람 경전 코란이 라마단월에 처음 계시되었다고 믿는다. 속죄의 날이나 라마잔이나 모두 유일신이 인간에게 올바르게 따르며 살아야 할 말씀을 내려 준 때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라마단

● 다국어 표기 Ramazan(튀르키예어), Ramadhan(아랍어), Ramazon(우즈베크어), Ramazan(아제르바이잔어), Рамазан(카자흐어)

● 연관 검색어 라마잔 바이람, 쿠틡 바이람, 세케르 바이람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Iftar_Serving_for_fasting_people_in_the_holy_shrine_of_Imam_Reza_05_\(%\).jpg](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Iftar_Serving_for_fasting_people_in_the_holy_shrine_of_Imam_Reza_05_(%).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Mittwoch, E. “‘Īd al-Fiṭr.” In Encyclopaedia of Islam, 2nd. ed., 1008. Vol. 3, Leiden: Brill, 1971. Neuwirth, Angelika. “Ramaḍān.” In Encyclopaedia of the Qur’ān, pp.338~347. Vol. 4. Leiden, Boston and Köln: Brill, 2004.

Plessner, M. “Ramaḍān.” In Encyclopaedia of Islam, 2nd. ed., pp.417~418. Vol. 8. Leiden: Brill, 1995.

Wagtendonk, Kees. “Fasting.” In Encyclopaedia of the Qur’ān, pp.180~185. Vol. 2. Leiden, Boston and Köln: Brill, 2002.

I A241 | 라마잔 공국

● 시기 A.D. 1000년~A.D. 18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국가 ● 유형 소분류2 왕조
● 집필자 이주연 ● 라틴 문자 Principality of Ramazan

라마잔 공국은 1378년~1608년 사이에 남부 아나톨리아, 지중해의 북동부를 구성하는 실리시아(Cilicia)에 자리했던 튀르크계 독립 왕국이다. 전설에 따르면 오스만 튀르크 조의 시조인 오스만 1세의 부친, 에르투룰 가지(Ertuğrul Gazi)의 시기에 중앙아시아에서 아나톨리아로 이주하여 공국의 수도가 되는 아다나(Adana)에 정착한 오구즈 세력의 일파라고 한다. 다만 이 공국의 시조인 라마단 벡에 관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고, 이 공국과 관계 있는 인물이 역사상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14세기 후반인데, 그 기록은 시조인 라마단 벡의 아들 살림 앓 딘 이브라힘 1세(Şarım al-Dīn İbrāhīm I)에 관한 것이다. 그는 아나톨리아의 동남부에 위치한 지정학적 특성에 따라 둘 카디르 세력과 카라만 조를 도와 맘루크 술탄국의 침입을 방어했다. 그 이후 아나톨리아의 비교적 큰 세력이었던 카라만 조와 맘루크 술탄국 사이의 완충 지대가 되었고, 이후에는 아나톨리아를 병탄한 오스만 조와 맘루크조 사이의 완충 지대가 되기도 했다. 살림 앓 딘

의 동생이자 계승자인 미르 아흐마드 이븐 라마단(Mir Ahmad b. Ramadan)에 관해서는 프랑스 여행가 Bertrandon de la Broquiere가 남긴 기록이 있다. 그는 1416년에 사망했고 그의 아들 이브라힘 2세가 계승했는데, 그는 3년 후에 형제인 이즈 앓 딘 함자 벡(Hamza b. Aḥmad, ‘Izz al-Dīn)에 의해 찬탈당하고 만다. 그 이후 라마단 공국에 관한 기록은 비교적 희박했다가, 1480년에 디야르바크르의 전투에서 패배한 군주 다우드가가 사망한 후, 그를 계승한 할릴(Khalīl b. Dāwūd b. Ibrāhīm II, Ghars al-Dīn) 시대부터 비교적 많은 기록을 찾을 수 있다. 그는 34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재위하는데다 상당한 명문을 남겼기 때문이다. 그가 1510년에 사망한 지 얼마 안 되어 오스만의 술탄 셀림 1세는 맘루크 술탄국과의 전투에서 귀환하는 도중, 라마단 공국의 복속을 얻었고, 이후의 여러 벡들은 1608년~1609년까지 약 100년간 아다나에 자리한 오스만의 세습 총독이 되었다. 그러다가 1608년~1609년에 피르 만수르를 마지막으로 완전히 오스만에 예속되어, 이스탄불에서 파견하는 지방관이 다스리는 오스만 제국의 지방 행정 구역(Eyalet)이 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라마잔 오올라르
- 다국어 표기 Ramazanoğulları(튀르키예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C. E. Bosworth, *The new Islamic dynasties: A chronological and genealogical manual*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Ltd, 1996, pp.390~391.
F. Bainger, “RAMADAN OGHULLARI,” *Encyclopaedia of Islam* 8 (Leiden: Brill, 1995, pp.525~526.

I A242 | 라마잔 바이람

● 시기 기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이슬람 ● 유형 소분류2 명절
● 집필자 박현도 ● 라틴 문자 Ramazan Bayramı

쿠르반 바이람과 함께 이슬람교의 2대 종교 명절 중 하나로, 라마단(라마잔)월 단식 종료를 기념하는 명절이다. 아랍어로 힐랄(Hilal)이라고 부르는 초승달을 눈으로 보아야만 이슬람력에

서는 새로운 달이 시작한다. 달의 주기는 29.5일이다. 이론적으로 한 달은 29일 내지 30일이다. 천문학적으로 계산하면 문제가 없는데, 라마단월은 초승달이 육안으로 보여야만 시작하고 끝난다. 라마단월 직전 8월이 샤ʼ반(Shaʼban)월인데, 샤ʼ반월 29일이나 30일에 초승달을 관찰하면 라마단월이 시작하고, 라마단월 말미에 초승달이 보이면 단식을 마치고 새로운 10월 샤ʼ와알(Shawwal)월이 시작한다. 초승달을 보지 못하면 단식은 끝나지 않지만, 예언자 전승에 따라 단식 기간은 총 30일을 넘지 않는다. 단식월이 끝나면 무슬림은 가족 친지 및 이웃들과 나눔의 축제를 갖는다. 아랍어로 이드 알피뜨르(Id al-Fitr)라고 한다. 쿠르반 바이람이 대명절(大名節)로 불리는 데 반해 소명절(小名節)로 불리기도 한다. 세케르 바이람이라고도 한다. 한자로는 파재절(破齋節)이라고 한다. 이슬람력으로 10월 1일에 쇠는 명절인데, 무슬림이 다수인 국가에서는 2일~3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서구의 크리스마스처럼 가족 친지가 서로 선물을 주고받기도 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라마단 바이람, 퀴훅 바이람, 세케르 바이람
- 다국어 표기 Ramazan Bayramı(튀르키예어), Ramazon hayiti(우즈베크어), Ramazan bayramı(아제르바이잔어), Ораза айт(카자흐어)
- 연관 검색어 쿠르반 바이람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en.wikipedia.org/wiki/Eid_al-Fitr#/media/File:Sultan_Ahmed_Mosque_mahya3.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Mittwoch, E. “ʿĪd al-Fiṭr.” In *Encyclopaedia of Islam*, 2nd. ed., 1008. Vol. 3, Leiden: Brill, 1971.
Neuwirth, Angelika. “Ramaḍān.” In *Encyclopaedia of the Qurʾān*, pp.338~347. Vol. 4. Leiden, Boston and Köln: Brill, 2004.
Plessner, M. “Ramaḍān.” In *Encyclopaedia of Islam*, 2nd. ed., 417~418. Vol. 8. Leiden: Brill, 1995.
Wagtendonk, Kees. “Fasting.” In *Encyclopaedia of the Qurʾān*, 180~185. Vol. 2. Leiden, Boston and Köln: Brill, 2002.

I A243 | 라바티 말리크

- 시기 A.D. 1000년 ~ A.D. 1500년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건축
- 유형 소분류2 대상 숙소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Rabati Malik

11세기~12세기 투르크인은 중앙아시아와 호라산을 잇는 무역로에 많은 카라반사라이(대상 숙소)를 건설했다. 그러나 대부분 비문이 사라져 양식과 재료 등을 가지고 시대를 추정할 수밖에 없으나 라바티 말리크는 현재까지 유일하게 확실히 건설 시기를 알 수 있는 카라한 칸국의 대상 숙소이다. 19세기 발견 당시 정문과 남쪽 벽 일부만이 남아 있는 상태였다. 1968년 지진으로 입구 일부를 제외하고 완전히 파괴되었으나 그 전에 수집된 고고학 자료 등을 통해 어느 정도 복원이 된 상태이다.

라바티 말리크는 1068년~1080년 사마르칸트 통치자였던 샴즈 알 무크 나스르(Karakhanid Shams-al-Mulk Nasr)의 명령으로 1078년에 지어졌다. 위치는 사마르칸트와 부하라를 잇는 길 사이에 있다. 주재료는 아도브 벽돌이다. ‘라바티’는 특히 대상 숙소의 역할을 하지만 유사시 요새로 이용할 수 있는 대상 숙소에 붙이는 명칭이기도 하다.

라바티 말리크는 86mx86m의 정사각형 형태의 넓이이며, 주변에 성벽이 있다. 라바티 말리크의 본체 벽은 아도브 벽돌로 쌓은 후, 구운 벽돌로 겹을 덮어 쌓아 올렸다. 벽에는 반 원통 모양의 기둥이 나란히 세워져 있으며 이 기둥은 아치로 이어져 있다. 이 벽면의 반 원통 기둥은 호라즘 지역의 전통 건축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각 벽의 모서리에는 둥근 탑이 있다.

입구는 파사드보다 더 전면에 배치되어 있으며 높이는 벽보다 3m 높은 약 15m 정도이다. 입구에는 오지 아치가 있으며 반원의 돔으로 덮여 있다. 내부에는 중앙 너른 마당 주변에 궁륭이 있는 방이 2층으로 배치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라바티 말리크는 벽돌의 배치로 장식성을 발휘하는데, 특히 탑에 있는 벽돌로 만든 무카르나스가 인상적이다. 중앙아시아에서 벽돌의 다양한 배치로 건축을 장식하는 것은 오래된 기법이지만, 벽돌로 만든 무카르나스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 이 건축물이 최초이며 이후에야 벽돌로 만든 무카르나스가 발견되었다. 이외에도 벽돌로 만든 십자가 문양으로 둘러싼 정면 문 주변부 장식과 정문 아치 부분을 쿠픽 서체가 새겨진 비석을 배치한 방식은 이후 세기의 건축에 영



라바티 말리크(Navoiy, 우즈베키스탄)

향을 미치게 된다.

라바티 말리크는 명확한 건설 시기를 알 수 있는 카라한 칸국의 작품이라는 점 이외에도 당대 카라한 칸국의 건축 문화와 주변 문화권의 건축 역시 추정할 수 있는 귀중한 작품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라바티 말릭, 라보티 말리크, 라보티 말릭, 리바티 말리크, 리바티 말릭
- 다국어 표기 Raboti Malik(우즈베크어), Ribat-i Malik(튀르키예어), Рабат-и Малик(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카라한 칸국, 사마르칸트, 부하라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cdn.britannica.com/s:700x450/85/43285-004-BAC2399B.jpg>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3/3e/Rabat_Malik_12-50.JPG/330px-Rabat_Malik_12-50.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Çeşmeli, İbrahim. Antik çağdan 13. yüzyıla kadar Orta Asya ve Karahanlı dönemi mimarisi, İstanbul : Arkeoloji ve Sanat yayınları, 2007.
Cezar, Mustafa. Anadolu öncesi : Türklerde şehir ve mimarlık, İstanbul : Türkiye İş Bankası, 1977.
Нина Борисовна Немцева, Рабат-и Малик, XI – начало XVII вв. (археологические исследования), Ташкент, 2009.

I A244 | 라상하드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몽골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암각화 ● 유형 소분류2
- 집필자 김재윤 ● 라틴 문자 Rashankhad

라상하드(Rashankhad)는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동북쪽으로 약 500km 떨어진 헨티 아이막 빈데르 솜에 위치한 유적이다. 남동쪽으로 길게 뻗은 능선의 말단부에 유적이 위치한다. 바위산 봉우리 유적으로 칭기즈 칸의 전설이 남아 있는 장소로 성소(聖所)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1943년 페를레에 의해서 연구가 시작되었는데, 탐가(Tamaga)가 바위의 전면, 후면, 측면을 돌아가면서 무질서하게 새겨져 있었다. 탐가는 모두 14종류로 여러 씨족이 새긴 것이며, 여러 시기에 걸쳐서 형성된 것이다.

이 주변에는 구석기 시대 암각화를 비롯해서,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거란 시대 토기편이 발견되었고, 구석기 시대부터 10세기까지 바위에 그림이나 탐가를 새긴 흔적이 남아 있다.

뿐만 아니라 돌궐, 거란, 아랍, 몽골, 티베트, 중국 등 30여 종류의 문자도 확인된다. 1979년에 몽골-소비에트 역사문화공동조사단이 돌궐 문자를 발견했다. 몽골 문자는 2행~20행으로 묵서(墨書) 24개가 확인었는데, 페를레는 14세기~17세기 양식으로 보았으나, 15세기의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발견된 한자 중에 ‘大明皇帝○來’라는 묵서가 있는데, 이것은 중국 사서에 영락제가 타타르를 정복하려 가는 길에 이 지역을 들렀다는 기록을 증명해 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탐가나 문자 외에도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 암각화 그림 가운데는 맘모스로 추정되는 그림도 발견되었다. 이곳에는 새겨서 그림을 그린 암각화보다 채색 그림과 암채화의 비중이 더 높아서 알타이 산맥 등 주변 지역과 차이가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라상하드 암각화

● 다국어 표기 Rashankhad(영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DANDINSUREN TSEVEENDORJ SC.D(ed)., 2013, ENCYCLOPAEDIA XIONGNU, ULAANBAA TAR; C.B.

임세권 1998, 『몽골의 암각화』, 열화당.

I A245 | 라쉬카리 바자르

- 시기 A.D. 1000년 ~ A.D. 1500년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아프가니스탄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건축
- 유형 소분류2 궁전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Lashkari Bazar

궁전인 라쉬카리 바자르의 또 다른 이름은 레쉬케르가흐(Leshkergah)로, 역사학자 바이하키(Al-Bayhaqi, 994년~1066년)의 주장에 따르면 이 궁전은 술탄 마수드 1세(I.Masud, 재위: 1030년~1041년)가 직접 설계하고 압둘 겔리크라는 건축가의 도움으로 4년에 걸쳐 완성했다고 한다. 궁과 대 모스크는 고르 왕조의 알라 알 딘 후사인(Ala al-Din Husayn, 재위: 1149년~1161년)에 의해 무너졌으나 다시 고르 왕조에 의해 복구되었다.

헬만드강 강가에 높이 솟은 세 개의 건축물 중 가장 중요한 대궁은 남쪽에 위치해 있으며 강을 바라보고 있다. 이 대궁의 남쪽 성벽에 대 모스크가 기대고 있다.

궁의 바로 앞에 행진 광장이 있으며 넓은 대로가 외문까지 뻗어 있다. 여기에 2층으로 이루어진 테라코타와 스투코 장식의 벽감으로 장식한 전면부가 있다. 다색의 스투코 장식도 있으며 이중 하나는 아프가니스탄 국립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다.

대부분은 벽돌을 기본으로 위에 아도브를 발랐고, 중요한 부분은 온전히 벽돌로만 만들었다. 남북으로는 164m, 동서로는 92m이고 외원을 합쳐 길이는 500m이다. 전면부 중앙의 문으로부터 십자형 공간에도 네 개의 이완이 있는 정원이 있다. 하렘 부분은 정원을 앞두고 가려진 상태로 모서리 부분에 있고, 하렘 내에도 네 개의 이완이 있는 정원이 존재한다. 더 넓고 높은 (10.50m) 북쪽 이완에는 옥좌가 있는 방이 있다. 카라한 칸국의 대상 숙소에서 보이는 이런 네 개의 이완이 있는 정원 형식은 이렇게 가즈나 왕국에서도 나타난다.

라쉬카리 바자르의 옥좌가 있는 방의 장식이 특징적이다. 벽면은 구운 벽돌로 주변부가 쿠팍 서체로 장식되어 있으며 기하학 문양 안의 공간에는 음각, 양각으로 팔메트와 루미가 새겨져 있다. 벽면의 하단부는 다색의 템페라로 벽화가 그려져 있다. 원래는 70명의 군인이 그려져 있었으나 현재 남은 것은 44명뿐이다. 인물상은 장화와 장화까지 내려오는 바지, 다양한 문양과 색으로 칠해진 카프탄을 입고 있는데, 이는 전형적인 투르크 인물상의 의상이다. 군인들 사이에 보이는 새는 사냥매로 추정되며 어깨에 매달린 무기는 대만 남아 있다. 이 얼마 남지 않은

흔적 중에 젊은 사람의 얼굴이 보이는데, 둥근 얼굴에 아몬드형의 눈 역시 투르크 인물상의 얼굴이다. 이외에도 카프탄을 입은 허리에 벨트가 달려 있고, 벨트 아래로 길게 늘어진 스트랩과 가방이 걸려 있으며 팔에는 리본이 있다. 위구르 프레스코화에서 볼 수 있던 이런 종류의 의상은 사마라의 투르크 유적에서도 나타난다. 프레스코화가 존재했던 남쪽 면의 서쪽 부분에서 스투코 장식과 미흐랍이 있는 기도 공간이 존재했지만, 1964년 아프가니스탄 국립 박물관으로 옮겨졌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라쉬칼이 바자르, 가즈나 궁전, 레쉬케르가흐
- 다국어 표기 Lashkar-i Bazaar(페르시아어)
- 연관 검색어 가즈니 왕조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archnet.org/sites/3922/media_contents/41960
<https://url.kr/xu4l6n>
- 참고문헌(온라인) <https://archnet.org/sites/3922>
- 참고문헌(오프라인) Aslanapa, Oktay. Türk sanatı, Istanbul: Remzi Kitabevi, 2015.

I A246 | 라요스 리게티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기타 ● 나라 헝가리 ● 유형 언어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학자
- 집필자 장주영 ● 라틴 문자 Lajos LIGETI

라요스 리게티는 헝가리 북부 도시 발라사야르마트에서 태어났다. 그는 부다페스트 외트뵈스 로란트 대학에서 고전 문헌학을 전공했으며 졸탄 곴보츠(Zoltán Gombocz)와 줄러 네메스(Gyula Németh)와 같은 투르크학자들 밑에서 투르크학을 배웠다. 그는 「키르기스인 성씨의 기원에 대한 연구(Die Herkunft des Volksnamens Kirgis(Budapest, 1925))」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1925년 장학금을 받고 파리 소르본 대학(Sorbon University)에서 앙리 마스페로(Henri Maspero), 자크 바코(Jacques Bacot), 폴 펠리오(Paul Pelliot), 보리스 블라디미르스토

프(Boris Vladimirstov), 구스타프 람스테드(Gustav J. Ramstedt) 등 동양학자들과 함께 중국어, 티베트어, 중앙아시아 튀르키예-몽골어 및 문화를 공부했다.

1928년 파리에서 헝가리로 귀국한 리게티는 같은 해 헝가리 학술 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중국과 몽골을 방문할 기회를 얻어, 만리장성과 고비 사막 사이에 거주하는 잘 알려지지 않은 몽골 부족들과 함께 생활하며 3년 동안 자료를 수집했다. 이후 그는 자신이 수집한 자료들을 가지고 헝가리로 귀국했지만 제2차 세계 대전의 발발과 동시에 자료의 일부가 유실되었다. 그는 가지고 있던 몽골어, 만주어, 티베트어 및 중국어 자료 사본들을 헝가리 과학 아카데미 도서관에 기증했으며, 108장으로 구성된 몽골 불교 경전을 학자들에게 처음으로 공개하여 소개했다. 1934년부터 그는 헝가리 과학 아카데미의 회원이었으며 동시에 생을 마감할 때까지 회장직을 역임했다. 1936년부터 1937년까지 그는 아프가니스탄에 방문하여 몽골어 이외에도 우즈베크어에 대한 연구를 했으며, 장모음 측면에서 고대 투르크어와 현대 투르크어와의 관계를 밝혔다. 37세에는 부다페스트 대학 예술학부의 교수가 되어 중앙아시아, 극동 및 투르크학과를 담당하며 학생들을 가르쳤다. 그는 주로 중앙아시아의 언어 및 문화에 대한 강의를 했으며, 헝가리 1세대 중국학자를 양성했다. 또한 헝가리 과학 아카데미의 지원을 받아 중앙아시아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연구 그룹을 조직했으며, Acta Orientalia Academiae Scientiarum Hungaricae(1950)를 설립했다. 그는 유럽 언어로 출판된 <Bibliotheca Orientalis Hungarica>, 헝가리로 된 <Csoma de Kőrös Pocket University> 시리즈 및 몽골어 비문 컬렉션의 편집자였다. 그는 『몽골비사』를 헝가리어(A Mongolok titkos története(Budapest 1971))로 번역했다. 그가 생을 마감하기 전 출판한 「정복전 아르파드 시대의 헝가리와 튀르키예의 관계(A magyar nyelv török kapcsolatai a honfoglalás előtt és az Arpádkorban, 1986)」은 헝가리 선사 시대와 중앙아시아의 역사 관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저작으로 평가받는다. 그는 한평생 300여 권에 달하는 책과 논문을 발표했다. 1987년 5월 24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생을 마감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러요시 리게티
- 다국어 표기 Lajos LIGETI(헝가리어)
- 연관 검색어 졸탄 고포츠, 줄러 네메스, 구스타프 람스테드, 펠리오, 고비 사막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en.wikipedia.org/wiki/Lajos_Ligeti

● 참고문헌(온라인) <https://islamansiklopedisi.org.tr/ligeti-lajos>

● 참고문헌(오프라인) Mustafa, Ö. N. E. R. 2022. Prof. Dr. Günay Karağaç (1949–2021)–Hayat Hikâyesi ve Eserleri.

I A247 | 라우프 파르피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Guzal Mihrayeva ● 라틴 문자 Rauf Parfi

라우프 파르피(Rauf Parfi, 본명 Tursunali Parfiyev)는 1960년대 우즈베크 문학을 대표하는 시인이다. 라우프 파르피는 1943년 타슈켄트 인근 쇼랄리서이 마을에서 태어났다. 시인이었던 아버지와 그의 문인 친구들의 영향을 받아 어린 시절부터 다양한 문학 작품을 접하며 자랐다. 라우프 파르피는 1960년부터 1965년까지 타슈켄트 국립 대학교에서 공부한 후 공화국 영화 위원회, 가푸르 굴럼 문학 예술 출판사에서 근무했다. 라우프 파르피의 첫 시 작품들은 1950년대 후반에 발표되었지만 1960년대 중반이 되어서야 그는 시인으로서 명성을 떨칠 수 있었다. 라우프 파르피의 시에는 독특한 환상, 이미지가 존재하며 시인의 삶과 창조적 운명의 매개 역할을 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함자(Hamza)와 가푸르 굴럼(Gogur Gulom), 하미트 얼림전(Hamid Olimjon), 우이군(Uygun)의 작품에 익숙했던 독자들과 비평가들에게 그의 작품은 이해하기 어려운 작품이었고, 더불어 언론과 문학계까지 그의 문학적 세계관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오갔다. 기존의 문학 작품 형태를 고수하고자 했던 문학가 및 문학 비평가는 ‘라우프식(raufona)’ 사조를 거부했지만, 당시 많은 젊은 시인들은 라우프식 창작 방식을 택했다.

라우프 파르피는 『대상의 길(Karvon yo'li, 1968)』, 『메아리(Aks sado, 1974)』, 『눈(Ko'zlar, 1976)』, 『귀환(Qaytish, 1981)』, 『인내의 나무(Sabr daraxti, 1986)』, 『침묵(Sukunat, 1991)』, 『나의 조국 투르크িস탄(Ona Turkiston, 1992)』, 『투르크িস탄의 정신(Turkiston ruhi, 1993)』, 『작품 모음집(Saylanma, 1993)』 등의 시집을 출판하며 시인으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동시에 그는 산문 작가와 번역가로도 활동했다.

라우프 파르피는 자신의 『인내의 나무(Sabr daraxti, 1986)』로 1992년 우즈베키스탄 작

가연합 하미트 올림전(Hamid Olimjon) 상, 1992년에 국제 마흐무드 카쉬가리(Mahmud Koshg'ariy) 상을 수상했다.

라우프 파르피는 2005년 3월 28일 타슈켄트에서 세상을 떠났다.

- 다국어 표기 Рауф Парфи(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가푸르 굴림, 타슈켄트, 하미트 올림전, 우이군
- 참고문헌(오프라인) Karimov Obidjon, *Yangi o'zbek adabiyoti tarixi*, Namangan: Namangan, 2016.
Karimov N. va boshqalar, *XX asr o'zbek adabiyoti tarixi*, Toshkent, O'qituvchi, 1999.
Mirvaliyev Sobir, *O'zbek adiblari*, Toshkent: Fan, 1993.

I A248 | 라이움벡 바트르

- 시기 A.D. 1500년 ~ A.D. 1800년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카자흐스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장군
- 집필자 황영삼 ● 라틴 문자 Rayimbek batr

라이움벡 바트르(1705년~1785년)는 18세기에 활약했던 카자흐 장군이다. 카자흐어 인명에 '바트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는 장군, 무사, 영웅의 뜻을 가지고 있다. 라이움벡 장군은 18세기에 중가르족(칼묵족)이 카자흐인의 땅을 침입해서 유린할 때 무력 저항해서 다수의 카자흐인을 구했던 인물이다. 18세기 당시 중가르족은 카자흐인의 동쪽 땅에서 카자흐 지역으로 침입하여 전쟁을 일으켰던 최후의 몽골인 집단이다. 역사적으로 카자흐인들을 가장 많이 괴롭혔던 민족이 바로 중가르족이다. 대개 카자흐 역사에서 카자흐인들의 영웅은 이때 활약했던 장군들이 많이 있다. 그중에 한 사람이 라이움벡 바트르이다. 제티수(세미레치예) 지역을 점령하고 있던 중가르족들을 격퇴하기 위해 카자흐인들의 세 부족인 대쥬즈, 중쥬즈, 소쥬즈 연합군들은 1729년 추 강과 일리 강 합류 지점에 집결했다. 이른바 안라카이스크(Anrakaisk) 전투에서 라이움벡 장군의 부대는 보겐바이 장군 및 카반바이 장군의 부대와 협력했다. 이들은 모두 아블라이-칸의 지휘를 받은 카자흐인들의 부대였으며 당시 자신들을 공격했던 중가르족에 대

해 적극적으로 대항했다. 라이움벡 장군이 지휘한 전투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1734년 제정 러시아와 카자흐 칸국 간의 협력 체결을 위해 라이움벡 장군은 카자흐 대표단의 일원으로 페테르부르그를 방문하기도 했다. 라이움벡 바트르는 카자흐인들의 역사 문헌과 건물, 도로명에 주로 언급되고 있으며 특히 알마티의 외곽 순환 도로 중 북쪽 지역의 대로명으로 사용되고 있다. 카자흐인들의 역사적 영웅 라이움벡 바트르에 관한 이야기는 현재 카자흐스탄 무형 문화유산으로 선정되어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라이움벡 장군
- 다국어 표기 Райымбек батыр(카자흐어), Райымбек батыр(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카자흐 민족 영웅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Zjtc07HYuCl>
- 참고문헌(온라인) <https://www.nur.kz/family/school/1660442-rajymbek-batyr-biografija-velikogo-polkovodca/>
<https://e-history.kz/ru/prominent-figures/show/12611>
- 참고문헌(오프라인) Казахстан. Национальн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т. 4, Алматы, 2006.

I A249 | 라일라라르

- 시기 기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아제르바이잔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구비 전승 ● 유형 소분류2 자장가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Bədirxan Əhmədli) ● 라틴 문자 Laylalar

자장가 ‘라일라라르(Laylalar)’는 구비 문학의 시 장르 중 하나로서,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재우기 위해 요람 위에서 부르는 노래이다. 자장가들은 아제르바이잔의 민속 시 장르의 기본 형태인 바야트(bayati)로 aaba, 4행, 행마다 7음절로 구성되는 형태이다. 때로는 자장가에 시에서 반복되는 어휘나 문장도 추가된다. 자장가에서는 ‘라일라이(laylay)’, ‘우리 아기’와 같은 어휘들이 자주 쓰인다. 자장가에는 주로 아기가 빠르고 행복하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자장가들은 여성에 의해 불리는 가장 오래된 예술적 장르 중 하나이다. 자장가들을 어머니

니들이 자식을 재우고, 깨우고, 쓰다듬고, 웃기고, 산책시키고, 아기들이 말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 부르는 노래이다. 여성들이 자장가 노래로 아이를 재우려고 할 때, 그들이 사는 사회의 특성을 반영하려고 노력한다. 자장가에는 음식, 옷, 생활 습관에 대한 조언 외에도 사람들 서로에 대한 생각도 담겨 있다. 자장가는 엄마와 할머니들이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자장가에는 어머니와 할머니의 서로에 대한 태도는 물론, 가족, 친척에 대한 평가도 반영된다. 라일라라르는 구체성과 현실성, 기억에 잘 남는 면, 넓은 영역을 포괄하는 주제 측면에서 다른 민속 장르보다 여성에게 잘 맞는다. 자장가들은 주로 4행으로 구성되며, 이후 반복되는 2행도 있다. 자장가의 각운은 a-a-b-a이다.

‘라일라(layla), 나의 요람, 라일라(layla), 나의 집, 라일라(layla). 달콤한 꿈나라로 들어가렴.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 라일라(layla), 귀여운 내 아가, 라일라(layla), 아, 라일라(layla)! 나의 꽃 라일라(layla), 아, 라일라(layla)!’

어머니들은 때로 자장가를 산문으로 부르기도 한다. ‘내 아이의 아버지가 와서, 내 아이랑 놀아 준다네.’ 등의 문장으로 이야기하듯이 부르기도 하는 것이다. 일부 민족들의 요람 노래에서 ‘자장자장(laylay)’이라는 어휘는 음가의 변화를 겪기도 했다. 압하즈인은 ‘레이-레이(ley-ley)’, 체르케스인은 ‘라이르-레이르(lair-leir)’, 다게스탄 민족(레즈기인, 타트족 쿠미크인)들은 ‘라이-라이이(lay-lay)’와 ‘일라라이(ilalay)’라고 부르는 것이 그 사례이다. 자장가에서는 아기들을 잠들게 하기 위해 반복되는 말을 부른다. 학자들은 러시아의 자장가에 나오는 ‘윌리-윌리(люли-люли)’의 반복되는 어휘와 ‘lay-lay(ley-ley, leir-le-ir, ilalay)’들 간에 연관성이 있다고 본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라일랄라르, 라이라라르
- 다국어 표기 Lullaby(영어), Layla(아제르바이잔어), затишье(러시아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P.Əfəndiyev. Azərbaycan Şifahi Xalq Ədəbiyyatı. Bakı, 1989

I A250 | 라티프 아시르 아주도을루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조각 ● 유형 소분류2 인물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Ratip Aşir Acudoğlu

라티프 아시르 아주도을루는 1898년 이스탄불에서 태어났다. 초등 교육을 마흐무디예 뤼쉬티예시(Mahmudiye Rüştıyesi: 탄지마트 시기에 설립된 교육 기관)에서 마치고 중등 교육을 앙카라 술탄니시(Ankara Sultanisi)에서 받았다. 그러나 졸업 직전 제1차 세계 대전에 참전하게 되었다. 전후 1918년 미술 학교(사나이이 네피세 멕테비, Sanayi-i Nefise Mektebi) 조각과에 입학했다. 이곳에서 튀르키예 최초의 조각 교사였던 이흐산 외즈소이(İhsan Özsoy, 1867년~1944년)의 학생이 되었다. 라티프 아시르의 부친은 마드라사에서 교육받은 사람이었지만, 아들이 조각가가 되길 바란다는 것을 알아도 반대하지 않았다. 그런 아버지의 지원으로 1920년 경 독일 뮌헨 미술 대학(Akademie der Bildenden Künste München)으로 유학을 떠나 블리커(Blecker)를 사사했다.

라티프 아시르는 아리스티드 마올(Aristide Maillol, 1861년~1944년) 밑에서 수학하기를 바라며 파리로 갔지만, 마올이 수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파리에서 개인 작업실을 열고 파리의 갤러리들을 방문하다가 1925년 이스탄불로 돌아왔다.

1925년 미술 학교에서 열린 ‘유럽 대회(Avrupa müsabakası)’에서 조각 『다친 군인(Yaralı Asker)』이라는 작품으로 합격한 라티프 아시르는 정부 장학생으로 다시 파리로 갔다. 줄리안느 아카데미(Académie Julian)에서 앙리 부샤르(Henri Bouchard, 1875년~1960년)와 폴 랜도프스키(Paul Landowski, 1875년~1961년)를 사사하고 앙투안 부르델(Antoine Bourdelle, 1861년~1929년) 작업실로 들어가 그와 동료가 되었다.

1928년 이스탄불로 돌아온 라티프 아시르는 ‘독립 화가 및 조각가 협회(Müstakil Ressamlar ve Heykeltraşlar Birliği)’의 설립에 참여했다. 회원 대다수가 화가였던 이 협회에서 라티프 아시르는 알리 하디 바라(Ali Hadi Bara, 1906년~1971년)와 함께 유일한 조각가 멤버였다.

1929년 에디르네에서 미술 교사로 일하기 시작했다. 이스탄불에서도 다양한 학교에서 미술 교사로 일하며 많은 조각가를 키워냈고, 작품 활동 역시 병행했다. 1957년 사망했다.

라티프 아시르는 낭만적이고 섬세한 성격이라고 알려졌지만, 작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전통적이고 고전적인 형식을 최대한 표현하던 조각가로서 튀르키예 근현대 구상 미술의 기초를 다졌다.

■ 대표 작품 목록

- 메네멘 쿠빌라이 기념비(Menemen Kubilay Anıtı), 1932년
- 에르진잔 이뇌뉘 기념비(Erzincan İnönü Anıtı), 1939년
- 앙카라 대학교 농과대 아타튀르크 기념비(Ankara Üniversitesi Ziraat Fakültesi Atatürk Anıtı), 1945년~1950년
- 볼루 아타튀르크 기념비(Bolu Atatürk Anıtı)(Nejat Sirel과 공동 작업), 1960년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라티프 아쉬르 아주오올루, 아티프 아시르 아수도굴루

● **다국어 표기** Ratip Aşir Acudoğlu(튀르키예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menemen.bel.tr/images/galeriler/kubilay-aniti20199109588143.jpg>
<https://sanatokur.com/ratip-asir-acudogu-kimdir/>
<https://okuryazarim.com/ratip-asir-acudogu-kimdir/>

● **참고문헌(오프라인)** Yılmaz, Ercan. “Cumhuriyetin İlk Heykeltıraşlarından Ratip Aşir Acudoğu: Yaşamı Ve Anıtları”, Sanat ve Tasarım Dergisi 8, 2018, pp.250~265.
 Bara, Hadi. “Heykeltıraş Ratip Acudoğu”, Arkitekt, 1957, p.223.

I A251 | 라파르

- 시기 기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음악
- 유형 소분류2 노래
- 집필자 오은경, Guzal Mihrayeva
- 라틴 문자 Lapar

라파르(Lapar)는 민속 음악 장르 중 하나로 반주가 없으며, 반복되는 구간이 없는 짧은 음역대의 노래이다. 라파르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첫째는 결혼식이나 민속 축제, 하샤르

와 같은 모임에서 젊은 남성들과 여성들이 서로 주고받는 대화의 형식이다. 이 유형의 라파르는 여성이 남성에게 라파르를 부르면, 남성 중 한 명이 여성에게 대답해야 한다. 적절한 답이 나오면, 여성은 남성에게 손수건이나 벨트 따위의 선물을 건넨다. 이 과정을 특별한 라파르 연주자 여성이 진행한다. 일반적으로 이 첫째 유형의 라파르는 결혼식 전날 밤, 신부들을 위한 행사인 ‘여자들의 파티(Qizlar bazmi, 또는 여자들의 모임 Qizlar yig’ini)’에서 불린다. 이 행사 자체를 ‘라파르의 밤(lapar kechasi)’이라고 부르는 지역도 있다. 이 라파르는 서사적인 톤이며, 레시터티브가 있다. 주제는 주로 남녀의 사랑과 꿈을 다루고, 가벼운 풍자나 유머가 추가되기도 한다. 형식은 사행시 형태이기도 하다. 이 유형의 라파르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나 카자흐스탄의 남쪽에 거주하는 우즈베크인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

두 번째 유형의 라파르는 호라즘의 민속 음악 연주자들인 할파(xalifa)와 부하라의 음악가들 사이에서 라비단(labidan), 라비 우치단(labi uchidan)이라 불리는 가벼운 느낌의 노래이다. 보통 두 사람이 번갈아 가며 춤을 추고 노래(라파르)를 부른다. 멜로디는 가볍고 매력적이다. 솔리스트가 악기 반주와 함께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를 수도 있다.

『검은 머리(Qora soch)』, 『엄마(Oyijon)』, 『킬필라마(Qilpillama)』, 『팔찌(Bilak uzuk)』, 『나호루 나쉬타(Nahoru nashta)』와 같은 라파르가 특히 인기 있다.

라파르의 전통은 여전히 타슈켄트 주의 보스턴리크(Bo’stonliq), 파르켄트(Parkent), 피스켄트(Pskent), 양기욤(Yangiyo’l) 그리고 남카자흐스탄의 투르키스탄(Turkiston)과 침켄트(Chimkent) 지역에서 계속되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랍파르, 랍아르

● 다국어 표기 Lapar(우즈베크어), Ланар(러시아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Aminov va boshqalar. 2000–2005. O’zbekiston milliy ensiklopediyasi. Toshkent: O’zME Davlat ilmiy nashriyoti.

Olim To’laboev va bosh. 2017. XX asr o’zbek folklorshunosligi, Antologiya. Toshkent: O’zbekiston milliy ensiklopediyasi Davlat ilmiy nashriyoti.

D. S. O’raeva. 2018. O’zbek xalq og’zaki badiiy ijodi. Buxoro.

I A252 | 람즈 버버전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작성자 오은경, Guzal Mihrayeva ● 라틴 문자 Ramz Bobojon

시인이자 극작가이며 번역가인 람즈 버버전(Ramz Bobojon)은 1921년 타슈켄트에서 태어났다. 기술교육학교를 졸업한 후 1944년에 니자미 사범대학교 문학부에 입학한다.

1939년부터 1948년까지 그는 신문 <레닌의 불꽃(Lenin uchquni)>의 편집장으로 재직했고, 우즈베키스탄 국립출판사와 우즈베크 라디오 위원회 편집장을 역임했다.

1949년~1959년 우즈베키스탄 작가연합에서 문학자문관을 맡았으며, 1960년~1963년과 1968년~1980년에는 사무관으로 근무했다. 1981년~1996년에는 ‘애국(Vatan)협회’ 지도자로 활동했다.

1936년부터 창작 활동을 시작하여 『시(She'rlar, 1939)』, 『선물(Hadya, 1940)』, 『황금 무지개(Oltin kamalak, 1949)』, 『계곡을 건너(Vodiy bo'ylab, 1949)』, 『선집(Tanlangan asarlar, 1958)』, 『사랑의 비밀(Sevgi sirlari, 1963)』, 『마음은 잠들지 않는다(Serdse ne spit nikogda, 1963)』, 『시인은 두 번 산다(Dvajdi jivvyot poet, 1966)』, 『네 저는 아시아인입니다(Da - ya aziat, 1973)』, 『그대에게(Senga sevgilim, 1969)』, 『첫 비행(Birinchi parvoz, 1989)』, 『사랑에 경례(Muhabbatga ta'zim, 1980)』 등을 출간했다. 그의 서사시 「친애하는 친구들(Qadr don do'stlar)」은 전쟁 후 소련 동지들과의 우정을 위한 헌정시이다.

람즈 버버전은 시뿐만 아니라 희곡도 집필했는데, 그의 작품은 극작법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1961년 「삼촌과 조카들(Tog'a va jiyalar)」을 비롯하여 다양한 작품을 집필했다. 그의 작품 「집시(Lo'lilar)」는 모스크바에서 공연됐으며, 1972년 도태된 이들을 폭로하고 날카롭게 비판한 「모든 살아 있는 존재 혹은 살아 있는 시체들(Insu jins yoki tirik murdalar)」 역시 팬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1981년작 「유수프와 줄라이호(Yusuf va Zulayho)」 역시 관객과 독자 모두에게 높이 평가받았다.

이외에도 푸시킨이나 미하일 레르몬토프, 니콜라이 네크라소프, 알렉산드르 트바르도브스키, 헨리크 입센과 같은 작가들의 작품을 우즈베크어로 번역했다.

창작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1959년 ‘명예(Hurmat belgisi)훈장’을 받았으며, 1972년에 우

즈베키스탄 소비에트의 명예 예술가 칭호를, 1981년에는 국민시인 칭호를 받았다. 또한 시 「생명수(Obi hayot)」로 국가상을 수상했으며, 2003년에는 국가 명예 훈장을 받았다. 람즈 버버전은 2008년에 세상을 떠났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람즈 보보존

● 다국어 표기 Ramz Bobojon(우즈베크어), Рамз Насырович Бабаджан(러시아어)

● 참고문헌(온라인) <https://ziyouz.uz/ilm-va-fan/adabiyot/tohir-qahhor-tabiaday-guzal-bir-hayot/>

● 참고문헌(오프라인) Aminov va boshqalar, *O'zbekiston milliy ensiklopediyasi*. Toshkent: O'zME Davlat ilmiy nashriyoti, 2000.

Mirvaliyev S., Shokirova Rixsiya, *O'zbek adiblari*. Toshkent: Fan, 2007.

I A253 | 랍구지이

- 시기 A.D. 1000년 ~ A.D. 1500년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Guzal Mihrayeva ● 라틴 문자 Rabg'uziy

너스리딘 부르허넛딘 오글루 랍구지이(Nosiriddin Burhoniddin oglu Rabg'uziy)는 13세기 말, 14세기 초의 우즈베키스탄 작가이자 시인이다. 랍구지이(Rabg'uziy)는 작가의 필명이며, 그의 실제 이름은 너스리딘 부르허넛딘 오글루(Nosiriddin Burhoniddin oglu)이다. 그는 호라즘(Khorezm)의 라버티 어구즈(Raboti Oguz)에서 태어났다. 저자의 필명인 랍구지이도 라버티 어구즈라는 말에서 연유한다. 너스리딘 부르허넛딘 오글루의 삶과 그의 작품에 대하여 알려진 정보는 많지 않지만, 그가 당대 유명 역사학자, 시인 및 번역가로서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여러 출처들이 존재한다.

랍구지이의 작품 『크사시 랍구지이(Qissasi Rabg'uziy)』는 이슬람교로 개종한 몽골 베크 너스룻딘 토크부가(Nosiruddin To'qbug'a)에 의해 1309년부터 1310년까지 집필된 작품이다. 작품의 내용은 예언자에 대한 찬양, 무카디메(muqaddima)와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크사시

랍구지이』를 통해 랍구지이는 인본주의, 애국심, 도덕적 정결함, 영적 완전성을 강조한다. 본 작품은 13세기 말부터 14세기 초까지 투르크 문학의 특성을 반영한다. 본 작품은 오늘날까지 많은 독자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다.

랍구지이의 작품 『크사시 랍구지이(Qissai Rabg'uziy)』의 가장 오래된 필사본(15세기의 사본)은 런던의 대영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16세기 필사본은 상트페테르부르크, 19세기에 제작된 필사본은 우즈베키스탄 과학 아카데미의 동양학 연구소에 보관되어 있다.(소장 번호 №1025, 7397, 1874)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라브구지이, 라브구지, 너스리딘 부르허닛딘 오글루 랍구지이
- 다국어 표기 Rabg'uziy(우즈베크어-라틴 문자), Рабгузи(러시아어), Рабғузи(카자흐어)
- 연관 검색어 호라즘
- 참고문헌(온라인) <http://khorezmiy.uz/oz/pages/view/516>
- 참고문헌(오프라인) Mallayev N. 1963-76. O'zbek adabiyoti tarixi. Birinchi kitob. Toshkent: O'qituvchi. Aminov va boshqalar. 2000-2005. O'zbekiston milliy ensiklopediya. Toshkent: O'zME Davlat ilmiy nashriyoti. Rahim Vohidov, Husniddin Eshonqulov. 2006. O'zbek mumtoz adabiyoti tarixi, Toshkent: O'zbekiston Yozuvchilar uyushmasi Adabiyot jamg'armasi nashriyoti.

I A254 | 랍반 바르 사우마

- 시기 A.D. 1000년~A.D. 1500년 ● 지역 동아시아 ● 나라 중국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기독교 ● 유형 소분류2 인물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Rabban Bar Sauma

랍반 바르 사우마는 1220년 대도(大都)에서 탄생했다. 바르 사우마는 투르크계 부족인 온구트족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다른 온구트족처럼 그 역시 네스토리우스 교파 기독교를 믿었으며 25세에 수도사가 되기로 맹세했다. 생애와 교육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진 바는 없으나, 중국어, 투르크어, 고대 시리아어를 읽을 수 있었다고 한다.

1275년 랍반 바르 사우마는 후에 동방 교회 총대주교가 되는 제자 야흐발라하 3세(Yahballaha

III, 재위: 1281년~1317년)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떠났다. 원나라에서 출발하여 티베트, 호탄, 카쉬가르, 타라즈, 시르다리아, 호라산, 마라게, 모술, 아니, 시리아 남부 등을 통과했다. 그러나 당시 예루살렘은 정치적 이유로 인한 위협으로 진입할 수 없어, 일 칸국으로 행로를 변경했다. 그는 일 칸국에서 총대주교였던 덴하 1세(Denha I. 재위: 1265년~1281년)를 만나게 되었으며, 일 칸국의 궁정과 인근 지역을 방문하고 바그다드에 머물렀다. 덴하 1세가 사망 후 제자가 총대주교로 선출되었다.

아르군 칸(Arghun Khan, 재위: 1284년~1291년)은 이집트 및 시리아에 대항하여 유럽과 동맹을 맺기 위해 1287년 바르 사우마를 대사로 유럽으로 보내게 되었다. 바르 사우마는 이사 타르사흐 켈레메치(Isa Tarsah Kelemechi)를 비롯한 다른 일행들과 함께 콘스탄티노플, 이탈리아, 시칠리, 에트나산, 로마를 방문했다. 그러나 당시 교황이었던 호노리오 4세(Pope Honorius IV, 1285년~1287년)는 사망했기에 추기경과 협상을 하게 되었다. 그 후, 제노바와 토스카나를 방문했으며 파리에서 필립 4세(Philippe IV, 재위: 1285년~1314년)를 만났다. 1288년 귀향길에 프랑스 귀족 고버트 드 엘레빌르(Gobert de Helleville)와 동행하기도 했다. 당시 영국령이었던 남부 프랑스의 가스코뉴(Gascogne)에서는 영국 왕 에드워드 1세(Edward I, 재위: 1272년~1307년)와도 만났다. 이후, 로마로 가 새로운 교황 니콜라스 4세(Pope Nicholas IV, 재위: 1281년~1278년)의 환영을 받았다. 니콜라스 4세는 야흐발라하 3세에게 줄 귀중한 선물을 맡겼다. 1288년 바르 사우마는 바그다드로 돌아와 유럽의 왕들로부터 받은 서신과 선물을 무사히 전달했고, 여정은 마라게에서 보냈다. 1294년 바그다드에서 사망했다.

바르 사우마는 여행에 대한 기록을 남겼고, 이 기록은 당시 십자군 전쟁 말기의 유럽에 대한 정보를 담은 거의 유일한 비유럽 출처 사료가 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바르 차우마, 라뻬 바르 사우마, 바르 사우마
- 다국어 표기 Rabban Çauma(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야흐발라하 3세
- 참고문헌(오프라인) Borbone, Pier Giorgio, “A 13th-Century Journey from China to Europe: the “Story of Mar Yahballaha and Rabban Sauma”. *Egitto e Vicino Oriente*. 31, 2008, pp.221~242.
Rossabi, Morris. *From Yuan to Modern China and Mongolia: The Writings of Morris Rossabi*, Leiden : BRILL, 2014.

I A255 | 래술 르자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아제르바이잔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Vaqif Sultanli) ● 라틴 문자 Rəsul Rza

래술 르자(Rəsul Rza)는 1910년 5월 19일 아제르바이잔의 도시 교유차이에서 태어났다.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교에 몇 차례 입학했지만 모두 중도에 그만뒀다. 그의 회고록에는 그가 공부했던 학교와 기관들로 트랜스 캅카스 공산 대학, 아제르바이잔 의대, 아제르바이잔 국립 과학 아카데미, 모스크바 민족 대학교, 소비에트 영화 아카데미 등이 기록되어 있다. 그는 개인적인 독서를 통해 학문과 지식에 통달했다. 1937년에는 시인인 니가르 래피베일리(Nigar Rəfibəyli)와 결혼했다. 1937년~1938년에 바쿠 영화 스튜디오의 시나리오 부서장을 역임했다. 이어 1938년에 아제르바이잔 주립 필하모닉 극장, 1938년~1939년에 아제르바이잔 소비에트 작가 연맹 위원장, 1942년~1944년에 바쿠 영화 스튜디오 소장, 1944년~1946년에 촬영학 과장, 1946년~1949년에 아제르바이잔 소비에트 공화국의 영화 촬영부장, 아제르바이잔 소비에트 백과사전 편집장, 세계평화보호위원회 위원, 아프리카·아시아 소비에트 연맹 상임 위원, 소비에트 작가 연맹의 상임 위원, <뉴스> 프레스 에이전시의 아제르바이잔 부서장으로 활동했다. 또 아제르바이잔 공화국 최고 의회(Ali Soveti) 국회 의원, 아제르바이잔 공산당 감사 위원으로 선출돼 레닌과 소비에트의주상 위원회의 위원이 됐다. 그는 1981년 4월 1일 바쿠에서 사망했으며 명예의 골목(Alley of Honor)에 묻혔다. 현재 아제르바이잔 작가 연맹 위원장이며, 대작가인 아나르(Anar)의 부친이기도 하다.

그는 1920년대에 문학 활동을 시작했으며, 아제르바이잔 문학에서 자유시의 창시자로 불린다. 그의 자유시는 아제르바이잔 사회가 시민권을 쟁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첫 시 작품



래술 르자 묘비

인 「오늘(Bugün)」은 트빌리시에서 아제르바이잔 투르크어로 출판된 <불꽃(Qıgılcım)> 신문에 실렸다. 그의 작품들은 소비에트 정치 이념의 강한 영향을 받았으나, 사회성이 짙은 작품들도 저술했다. 「오늘도 인간의 하루이다(Bir gün də insan ömrüdür)」, 「노란 소(Sarı dana)」, 「색깔들(Rənglər)」은 창의성뿐만 아니라 사회 풍자 면에서 20세기 아제르바이잔 시 중 중요한 작품으로 여겨진다. 그는 제2차 세계 대전 동안에는 군에 대한 극작품을 썼는데, 「의리(Vəfa)」와 「만남(Görüş)」 등이 있다. 그러나 그의 창작 세계에서 극작품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다. 한편 그의 작품 중에서 시(poem) 장르는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의 「장미꽃이 없었다면(Qızılgül olmasaydı)」이라는 시는 소비에트 억압 희생자들의 추모에 헌정됐다. 이외에 「메이든 타워(Qız qalası)」, 「바베크(Babək)」, 「마지막 밤(Son gecə)」, 「퓌줄리(Füzuli)」 등의 작품도 인기가 많다. 「레닌(Lenin)」이란 작품은 소비에트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아 쓴 작품이다. 외국 문학 번역 작업도 했다. 아이스킬로스의 『결박된 프로메테우스(Zəncirlənmiş Prometey)』, 니자미 갠재비의 『코스로브와 쉬린(Xosrov və Şirin)』, 미하일 레르몬토프의 『데몬(Demon)』, 타라스 셰우첸코의 『차가운 여자(Muzdur qadın)』, 니콜라이 네크라소프의 『러시아는 누구에게 살기 좋은가?(Rus elində kimi günü xoş keçir)』 등을 아제르바이잔어로 번역했다. 그는 자신의 문학 비평과 저널리즘(publicist) 작품을 모아 『내 의견』이라는 제목의 책으로 펴냈다. 그는 문학 작품의 업적을 인정받아 아제르바이잔 민족 시인 명예 칭호를 받았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라슬르자

● 다국어 표기 Rasul Rza(튀르키예어), Pəşyn Pəşə(러시아어), Rəsul Rza(아제르바이잔어)

● 연관 검색어 아제르바이잔, 바쿠

● 멀티미디어 링크 <http://rasulrza.musiqi-dunya.az/>

● 참고문헌(오프라인) Teymur Əhmədov. Azərbaycan yazıçıları XX–XXI yüzilliklərdə: Ensiklopedik məlumat kitabı, Bakı: “Nurlar” nəşriyyatı, 2011.

Xəlil Rza Ulutürk. Rəsul Rza həsrəti, Bakı: Elm nəşriyyatı, 2000.

Rahid Xəlilov. Rəsul Rza poeziyası, Bakı: Yazıçı nəşriyyatı, 1987.

Natəvan Məmmədova. Rəsul Rza və sərbəst şeirin dili məsələsi, Bakı: Elm nəşriyyatı, 2004.

I A256 I 래와옛

- 시기 기타 ● 지역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구비문학 ● 유형 소분류2 장르
- 작성자 오온경 (자문위원 : Bədirxan Əhmədli) ● 라틴 문자 Rəvayət

‘래와옛(Rəvayət)’은 아제르바이잔어로 ‘이야기’ 혹은 ‘이야기 하기’ 등의 의미를 지닌다. 튀르키예어로는 ‘리와옛(Rivayət)’이라고 하며, 우즈베크어로는 ‘리바옛(Rivayət)’이라고 한다. 투르크 민족의 구비문학 중 가장 오래된 장르 중 하나로 한국문학에서는 ‘전설’에 가깝다. 역사적 사건이나 영웅 이야기를 토대로 만들어진다.

이야기의 원형이 형성되어 완성되기까지는 여러 단계를 거칠 수 있지만, 래와옛은 세 가지 상황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 첫째는 사람들의 상상력을 통해 만들어지는 경우이다. 둘째는 사건의 목격자들에 의해 이야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 셋째는 실제 사건, 다시 말해 그 이야기와 관련된 사람이 이야기를 직접 만들어내서 전해지는 래와옛이 있다.

래와옛 장르의 가장 큰 특징은 서술된 사건의 원형이 실제성(實際性)이 있고, 사실(fact)과 어느 정도 연결돼 있다는 점이다. 래와옛은 대부분 간단한 사건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사람에 따라 내용도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주로 산문이 주가 되지만, 때로는 산문과 운문을 섞어 이야기 하기도 한다. 래와옛에는 주로 ‘어느 날’, ‘옛날 이야기에 따르면’, ‘이렇게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등의 표현들이 많이 나타난다. 내용과 주제 면에서도 신화,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 종교, 유물이나 유적지, 교훈 등을 주제로 하는 래와옛 등 다양하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레와예트, 리바옛, 리와옛, 리바예트, 리와예트
- 다국어 표기 Legend(영어), Rivayət(튀르키예어), легенда(러시아어), Rəvayət(아제르바이잔어), Rivayət(우즈베크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Azərbaycan ədəbiyyatı tarixi*, 1 cilt, Elmlər Akademiyası, Bakı, 2018, s. 358-373.

I A257 | 러시아-오스만 전쟁(1768년-1774년)

● 시기 A.D. 1500년 ~ A.D. 1800년 ● 지역 서아시아, 남아시아, 동유럽 ● 나라 튀르키예, 그리스, 몰다비아, 러시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사건 ● 유형 소분류2 전쟁 ● 집필자 이은정 ● 라틴 문자 Russo-Ottoman War of 1768-1774

18세기 말 이전에도 오스만-러시아 전쟁이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러시아 및 유럽의 군사적 우위가 드러난 전쟁은 1768년~1774년에 발발한 것이다. 오스만 정부는 러시아가 폴란드에 세력을 확장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었는데 마침 도주하는 폴란드 군인들을 잡으러 러시아가 오스만 제국 영토를 침범하여 전쟁을 일으킬 구실이 생기자, 코자 라급 파샤 등의 평화 노선의 원로 관료들이 물러난 상황에서 강경 주전파들이 득세하여 이미 30년간의 평화기간 동안 군사적 경험의 공백과 군사 기술의 낙후화가 있었음을 고려하지 않고 평화기간 동안 넉넉해진 재정을 믿고 전쟁을 일으킨 것이다.

하지만 전세는 일찍부터 러시아의 우세로 기울어 1770년의 이즈미르 근처의 체슈메 해전과 몰다비아의 카르탈(카굴)에서의 육상전투에서 모두 크게 패배하면서 오스만 제국은 방어에 급급한 전쟁을 치를 수 밖에 없었다. 알렉시 오를로프가 지휘하는 러시아의 발트 함대는 영국의 목인 하에 지중해로 들어와 모레아(그리스 최남단의 반도) 지역에서 친러시아 반란을 정교회 신도들 사이에서 일으키도록 선동하여 일부 호응을 얻어 반란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1771년 오스만 측에 의해 진압되었다. 러시아 함대는 1770년 7월 6일 지휘의 혼란으로 오스만 함대 전체가 후퇴해 들어간 체슈메 항구에서 불타는 낡은 배를 부딪히게 하는 공격을 가해 23척의 오스만 함선이 파괴되는 동시에 9,000여 명의 병사들이 사망했다.

또한 1769년에 루마니아 전선에서도 러시아군의 진격이 시작되어 가을에 이미 야시에 이어 부쿠레슈티까지 점령된 상태였는데 오스만 측의 반격은 1770년 여름이 되어서야 시작되었고, 8월 1일의 카르탈(카굴) 전투에서 병력 규모에서의 우세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굴욕적인 패배를 맛보았다. 러시아군은 유럽의 7년 전쟁에서 새로 선보인 가벼운 야포의 기동적 전개와 착검 돌격 등의 전술을 이용하여 오스만 군대를 가볍게 격파했고 대다수가 훈련이 부족한 비정규군이었던 오스만 군이 무질서한 후퇴를 시작했을 때 다뉴브 강을 건널 교량이 없어서 러시아군이 압박을 가해 수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 전투의 패배는 오스만 정부로 하여금 서구식 군

사 개혁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야전 지휘관들은 물론 오스만 제국의 대재상 무흐신자데 메흐메트 파샤와 러시아의 루미안 체프가 휴전을 원했기 때문에 평화 협상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1772년 러시아가 오스만 조정에 반란을 일으킨 지방세력들을 돕고 있었음이 밝혀지자 협상은 중단되고 지지부진했다. 특히 러시아는 전쟁 배상금 외에도, 크림리아를 전쟁 발발 이후 사실상 점령한 상태에서 크림리아의 독립 및 크림리아에 있는 예니칼레와 케르치 요새의 양도, 루마니아 지역에 대한 대사면을 요구했고 협상안이 마련된 뒤에도 러시아의 중앙정부가 몰다비아의 완전한 자치권, 흑해에서의 러시아 국적선의 자유 항해 및 상업적 특혜, 이스탄불에 러시아 대사관 설립 등 더 많은 요구를 해왔으나 오스만 측은 약자의 입장에서 거절할 수 없었다. 세밀한 부분에서의 협상까지 거의 다 타결된 상태에서 오스만 제국 내부에서의 울레마를 비롯한 사회 여론의 반발은 다시금 오스만 측이 전쟁을 지속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1774년 초에 즉위한 압뉘하미드 1세도 패전 조약에 서명하고 싶지 않아 했고, 러시아 측도 1773년 전쟁터에서 역병이 돌아 약 15만 병력이 사망했고, 재정위기가 촉발한 푸가초프 반란이 같은 해 일어나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와 같은 교착상태를 깬 것은 루미안체프의 마지막 공격으로 1774년 불가리아 바르나 지역의 코즐루자에서 오스만군이 크게 패한 사건이었다. 열세에 처한 오스만 측은 러시아가 내세운 조건을 거의 수용하여 평화조약을 맺지 않을 수 없었다. 1774년 7월 21일 조인된 귀척 카이나르자 조약은 오스만 제국을 정치 불안정, 재정적 궁핍, 지방세력의 발호 등 다중 위기에 몰아넣었으며, 이 시점은 오스만 제국사의 시대 구분의 분수령이 되었다.

오스만 제국의 상대적 약체화가 드러난 결정적 계기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18세기 말 러시아-오스만 전쟁

● **다국어 표기** 1768-1774 Osmanlı-Rus Savaşı (튀르키예어), Русско-турецкая война(1768—1774)(러시아어), Rusiya-Osmanlı müharibəsi(1768-1774)(아제르바이잔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Kahraman Şakul, “Russo-Ottoman War of 1768-1774,” Gábor Ágoston and Bruce Masters, eds., *The Encyclopedia of the Ottoman Empire, Facts on File* 2008 pp.492~493.

Virginia Aksan, *Ottoman Wars, 1700-1870: An Empire Besieged* (Longman/Pearson, 2007 pp.129~179.

I A258 | 러시아-부하라 조약(1868년)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사건 ● 유형 소분류2 조약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Peace agreement between bukhara and the russian federation(1868)

러시아 황제 알렉산드르 2세(Александр II, 재위: 1818년 4월 17일~1881년 3월 13일)가 공포한 1867년 7월 11일 법령에 따라 투르키스탄 총독과 투르키스탄 군사 지구가 수립되었다. 총재 겸 지구 사령관으로 카우프만(Константи́н Петро́вич фон-Ка́уфман; 1818년 3월 2일~1882년 5월 16일)이 임명되었고, 그에게 전쟁 선포권, 조약 체결권, 군사, 행정, 경제 문제 등을 독립적으로 해결할 권리가 주어졌다. 사령관으로 임명된 카우프만은 사마르칸트로 진격했으며 1868년 5월 2일 사마르칸트를 정복하게 된다. 당시 부하르 아미르였던 무잠파르(Muzaffar al-Din bin Nasr-Allah, 재위: 1860년~1886년)는 점령군을 격퇴하기 위해 사마르칸트로 출병하지만, 패배하게 된다. 이에 사마르칸트에서는 침략자에 대한 봉기가 일어나고 500명의 러시아군 중 275명이 사망한다. 이로 인해 6월 8일, 카우프만은 사마르칸트로 돌아와 도시를 포격하고 시민을 공격한다. 많은 시민이 학살됐고, 더불어 사원, 유적지, 유물이 파괴되고 일부 유물은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유출된다. 1868년 6월 23일 카우프만과 아미르 무잠파르 간에 휴전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 협정으로 부하라 아미르 국은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호잔드, 우라테파, 지작, 사마르칸트, 카타코르간 등이 러시아 제국에 병합되었으며 부하라는 러시아 상인에게 무역을 개방하게 되었다. 또한, 125,000솜(500,000 루블)의 전쟁배상금을 지불하게 되었다. 이 조약에 직접적인 '보호'가 언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독립권을 박탈당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으나 실제적인 결과는 독립권 대부분 상실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러시아 부하라 점령
- 다국어 표기 Rossiya-Buxoro shartnomalari(1868)(우즈베크어), Русско-бухарский договор(1868)(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사마르칸트, 부하라 토후국
- 참고문헌(오프라인) Q. USMONOV; M.SODIQOV; S.BURXONOVA, O'ZBEKISTON TARIXI, Tashkent, 2006.
Becker, Seymour. Russia's protectorates in Central Asia: Bukhara and Khiva, 1865~1924, Cambridge, Mass. : Harvard

I A259 | 러시아-오스만 전쟁(1877년~1878년)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사건 ● 유형 소분류2 전쟁
● 집필자 이은정 ● 라틴 문자 Russo-Ottoman War of 1877-1878

18세기 말부터의 일련의 러시아-오스만 전쟁 중 마지막 건으로 1870년대 중반의 발칸 반란들의 후폭풍으로부터 야기된 전쟁이다.

전략적, 상업적 이유로 지중해 지역으로의 출구를 얻고자 보스포러스와 다다넬즈 해협을 손에 넣고 싶어한 러시아는 18세기 말부터 흑해 지역의 패권을 놓고 오스만 제국과 여러 번(1787년~1792년, 1806년~1812년, 1828년~1829년, 1854년~1856년, 1877년~1878년) 충돌했다. 그중 마지막 전쟁이었던 1877년~1878년 사이의 전쟁은 엄청난 패전으로 귀결되어 오스만 제국의 영토를 크게 축소시켰고, 오스만 정부의 정책 방향을 친 유럽 지향의 개혁 기초에서 무슬림 민족주의로 급격히 바꾸어 놓았다. 러시아는 크림 전쟁 후의 파리 조약에서 흑해 지역에서 군사적, 외교적 영향력을 크게 제한당했던 것을 회복하고자 했고, 범슬라브주의 이데올로기로 발칸의 정교도 인구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 또한 이스탄불에는 범슬라브주의적 정책의 주도자였던 니콜라이 이그나티예프가 러시아 대사로 주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세기 유럽의 민족주의 사조가 유입되어 있는 데다가 1870년대 중엽 자연재해로 아나톨리아가 피폐해지자 발칸 지역이 더 많은 세금 부담을 지게 된 발칸반도에서는 많은 반란이 일어나게 되어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불가리아에서 무장 반란이 일어났다. 특히 1876년 4월, 불가리아의 반란은 민족주의 운동의 지도자들이 주도한 것이었는데, 그다지 큰 호응을 받지 못했던 반면 반란 과정 중에 불가리아인 반도들이 약 1,000여 명에 달하는 무슬림을 학살했고, 이에 대해 오스만 정부가 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동원한 무슬림(특히 체르케스인) 민병대가 약 1만에서 1만2천에 이르는 민간인을 학살한 것이 유럽에 대단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켜 유럽에서는 오스만 제국을 백안시하고 야만시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1876년 5월, 술탄 압뒬아지즈

가 폐위되었고, 그를 계승한 무라드 5세가 석 달 만에 신경쇠약으로 압탈하미드 2세에 의해 교체되는 동안 오스만 정부는 불가리아 사태의 유혈 진압이 영국과 러시아에서 불리일지니 충격 을 무마할 여력이 없었다. 발칸에서 짙어져 가는 위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 특히 오스만 기독교인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유럽 열강의 대표들은 1876년 12월, 이스탄불에 모여서 대책을 회담을 벌였다. 이에 대응하여 오스만 정부는 종교에 상관없이 모든 신민들에게 전 적인 평등을 보장하는 내용의 헌법을 제정하여 회의에 모인 유럽 열강에게 대안으로 제시했다. 오스만 측의 관점에서는 이 1876년의 헌법이 발칸 정교도 신민들의 처우에 대해 열강이 요구한 사항들을 만족시키는 것이었고, 열강이 불가리아 등 지역에 대해 요구된 개혁은 내정 간섭으로 간주하여 거부했다. 1877년 초, 러시아 제국은 발칸 위기에 대한 평화적 외교적 해결 시도가 모두 좌절되었다고 판단하여 오스만 제국과의 전쟁 준비에 돌입했다. 오스트리아의 중립, 루마니아의 영토 통과 보장이 협상으로 확보되었고, 프랑스와 프로이센도 전쟁 기간 중 중립을 지켰다. 영국의 디즈레일리 수상은 여전히 친 오스만 성향이었으나 의회의 다수는 오스만 제국에 대해 반감을 가져서 영국도 오스만 제국을 지지하지 않았다. 이러한 우호적 조건하에 러시아군은 베사라비아의 키쉬네프 기지로부터 작전을 개시하여 프루트 강을 건너며 오스만 제국에 전쟁을 선포했다. 1877년 4월, 러시아군은 동 아나톨리아와 발칸 양면으로 진격했다. 아나톨리아에서는 아르다한, 바야지드, 카르스, 에르주룸 등을 점령했고, 발칸 방면에서는 신속히 발칸 산지의 중앙부를 통과시켜 소피아를 점령하고 마리차 강 계곡을 따라 에디르네를 공격하려고 했던 계획에 불가리아 북부의 플레벤(소피아에서 북쪽으로 170km 거리)에서 예상치 못한 강한 저항을 만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플레벤은 1877년 11월, 약 5개월간의 저항 끝에 결국 함락되었고, 그 후 1878년 1월 소피아, 플로브디프, 에디르네가 차례로 함락되었으며, 러시아 병사들이 지치고 질병이 만연했지만 이스탄불마저도 넘볼 수 있는 입지를 차지했다. 한때 후방에서는 수도를 부르사로 이전한다는 소문마저 나돌았다. 그러나 러시아는 영국이 무력시위를 하자 러시아는 오스만측과 협상에 들어갔다. 이스탄불 근교의 예실콰이(산스테파노)의 러시아군 진영에서 이그나티예프의 주도로 이루어진 휴전협상 끝에 체결된 산 스테파노 조약(1878년 3월)은 오스만 제국에 매우 불리한 것이었으니 흑해와 에게해 연안, 남세르비아와 마케도니아 영토를 대부분 아우르는 러시아 보호하의 거대한 불가리아 자치령을 만들고, 보스니아에는 자치를 루마니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에 독립을 인정해주면서 오스만 제국의 영토손실을 최대화하

는 내용이였다. 이에 위협을 느낀 영국과 오스트리아 등의 열강은 즉각 항의하며 산스테파노 조약이 파리 조약(1856년)을 크게 어기는 것이니 유럽 열강 사이에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이는 독일의 수상 오토 폰 비스마르크의 지지를 얻어 재협상이 1878년 여름 베를린에서 이루어져 베를린 조약이 산스테파노 조약을 대체하게 되었다. 새 조약에서의 큰 변화는 불가리아를 둘로 쪼개서 북부를 불가리아 자치 공국으로, 남부를 제한적 자치령인 동 루멜리아로 만들었다는 것과 보스니아에 자치권을 주는 대신 합스부르크의 보호하에 두었다는 점이며, 루마니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의 독립은 그대로 인정되었다. 조약에 따라 영국은 키프로스 섬을 조차했고, 러시아는 남 베사라비아와 바투미, 아르다한, 카르스 등의 영토를 얻었을 뿐 아니라 전쟁배상금으로 약 8억 프랑을 받도록 되었다. 결과적으로 전쟁과 조약들 끝에 오스만 제국은 450만 인구(전 인구의 약 20%)를 잃고, 빼앗긴 영토로부터 넘어오는 무슬림 난민들이 50만-60만명 정도 되었기 때문에 인구 구성의 변화가 매우 컸으니, 1880년대 초 무슬림 신민들은 전체 오스만 인구의 약 75%를 점했다. 특히 불가리아에서 많은 무슬림들이 피살되거나 축출되어, 살아남아 오스만영토로 이주한 사람들은 여러 지역에 ‘하미디예’라는 이름이 붙은 난민 정착촌을 이루고 살게 되었다. 이 전쟁의 패전은 또한 술탄 압뉘하미드가 의회를 해산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19세기 러시아-오스만 전쟁, 독산위츠 하르비

● **다국어 표기** Doksaniç Harbi(튀르키예어), Русско-турецкая война(1877—1878)(러시아어), Rusiya-Osmanlı müharibəsi(1877-1878)(아제르바이잔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Andrew Robarts, “Russo-Ottoman Wars,” Gábor Ágoston and Bruce Masters, eds., *The Encyclopedia of the Ottoman Empire*, Facts on File 2008 pp.494~499.

Mahir Aydın, “Doksanüç Harbi,” TDV İslam Ansiklopedisi, Vol. 9 1994 pp.498~499.

I A260 | 레기스탄

- 시기 A.D. 1500년 ~ A.D. 1800년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건축
- 유형 소분류2 광장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Registan

레기스탄 광장은 사마르칸트에 있는 광장으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공공광장이다. 이 광장은 15세기에 건설된 울루그 베그(ulugh beg) 마드라사, 17세기에 건설된 킬라 카리(Tillya Kari) 마드라사 모스크, 역시 17세기에 건설된 셰르더르 마드라사 및 18세기에 건설된 초르 수(Chor su) 시장으로 둘러싸여 있다. 기후와 지진 및 전쟁 등으로 대부분이 훼손되었으나 1920년대부터 꾸준히 복구를 시작하여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14세기 말부터 15세기 중반 사마르칸트는 티무르 제국의 수도로 경제, 정치, 문화의 중심지로 발달했다. 이 시기부터 레기스탄 광장은 도시의 공식적인 중심지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티무르의 사망 이후 그의 손자인 울루그 베그(Ulugh Beg, 재위: 1447년~1449년)가 사마르칸트를 통치했는데, 울루그 베그는 사마르칸트를 과학과 문화의 도시로 발전시키고자 울루그 베그 마드라사를 건설하게 된다. 건설 당시에는 대상 숙소와 모스크를 포함하고 있었으나 이는 17세기에 킬라 카리 마드라사와 쉬르 도르 마드라사로 옮겨졌고, 마드라사만 남게 되었다. 입구 위에 위치한 석문에는 울루그 베그에 의해 1417년에 건설되어 있다고 적혀 있으나, 마드라사 내 기도 공간에 있는 석문에는 1418년, 정문 위의 석문에는 1420년에 완성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레기스틴

● 다국어 표기 Registon maydoni(우즈베크어), Registan(튀르키예어), Registan meydanı(아제르바이잔어), Регистан(카자흐어), Регистан(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울루그 베그 마드라사, 셰르 더르 마드라사, 킬라카리 마드라사

● 참고문헌(온라인) <https://archnet.org/sites/2148>

● 참고문헌(오프라인) Aslanapa, Oktay. Türk Cumhuriyetleri Mimarlık Abideleri, Ankara:Türk Kültür ve Sanatları Ortak Yönetimi Yayınları, 1996.

Bektaş, Engin. "ULUĞ BEY MEDRESESI", TDV İslâm Ansiklopedisi cilt 42, İstanbul:TDV, 2012, pp.129~130.

Г.А. Пугаченкова, Л.И. Ремпель, История искусств Узбекистана, Moscow:Искусство, 1965.



레기스탄 광장

I A261 | 레브니

- 시기 A.D. 1500년 ~ A.D. 18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세밀화
- 유형 소분류2 인물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Levni

레브니의 본명은 압뉘제릴 쉐레비(Abdülcelil Çelebi, 1680년~1732년)이고 예명인 레브니(Levni)는 색(levn/레븐)이라는 단어에서 온 것으로 보인다. 젊은 시절 이스탄불 낙카시하네(nakkaşhâne: 화원, 아틀리에)에서 뭄제히프(müzehhip: 서체를 장식하는 장인)으로 교육받았다. 이후 세밀화 분야에서 재능을 나타냈고, 무스타파 2세(II. Mustafa, 재위: 1695년~1703년) 시대에 낙카시바시(nakkaşbaşı: 화원장)으로 승진하여 아흐메드 3세(III. Ahmed, 재위: 1703년~1730년)시대에도 여전히 그 임무를 수행했다.

툴립 시대를 살았던 레브니는 튀르키예 세밀화에서 새로운 양식을 탄생시켰다. 그 이전 시대의 고전 오스만 세밀화가들처럼 전설, 역사 기록, 환상적인 그림을 그리는 대신에 당시 사람들

의 유희, 연주가, 무용가, 꽃 등을 사실주의를 지향한 화풍으로 세밀화를 그렸다.

또한, 레브니는 이전 시대의 세밀화가와 완전히 이질적이지 않으면서도 당대의 유럽 양식이나 인도 스타일을 떠올리게 하는 방식을 일부 적용하여 새로운 사실주의 기법의 길을 열었다. 특히 레브니는 1699년~1737년에 이스탄불에서 활동했던 프랑스 화가 장 밥티스트 반 모어(Jean-Baptiste Vanmour, 1671년~1737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레브니는 인물의 동작을 더욱 생생하게 그렸으며 부드러운 색상을 균형 있게 사용했다. 이와 함께 군중 묘사에서는 원근법을 느낄 수 있는 깊이감을 첨가했다. 초상화의 경우 표정 처리와 자연스러운 움직임 등으로 그만의 특징을 정착시켰다. 이런 특징은 그의 무희와 하렘 여성을 그렸던 50여 장의 세밀화[톱카프 궁전 박물관(TSM H.2164)]에서 잘 나타난다. 이 외에도 그는 무사비르 휘세이인(Musavvir Hüseyin)의 초상화 시리즈의 사본을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레브니가 그렸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으나 인물 묘사의 특징으로 볼 때 레브니가 작업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작품은 훗날 클라우드 드 보스크(Claude du Bosc, 1682년~1745년?)에 의해 판화로 제작되어 디미트리 칸테미르(Dimitri Kantemir, 1673년~1723년)이 출간한 『오스만 제국 흥망의 역사(The History of Growth and Decay of the Ottoman Empire)』에 삽입되었다. 이 초상화의 원본은 소실되어 이 책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

레브니의 작품 중 가장 유명한 것은 술탄 아흐메드 3세의 아들들의 할레 축제를 그린 1720년 베흐비의 수르나메(Surnâme-i Vehbi, 톱카프 궁전 박물관 도서관:TSMK III. Ahmed, nr. 3595)이다. 당시 축제를 묘사한 137장의 세밀화에서 이전 시대의 그림과 달리 새로운 공간감을 비롯하여 각 인물의 특성이 잘 드러나는 군중 묘사를 통해 레브니의 실력을 제대로 보여주었다.

이 외에도 대의 다양한 인물을 그린 작품들이 있으며 20구 가량의 자작 시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

레브니는 오스만 세밀화 역사에서 원근법과 사실주의적 묘사를 통해 새로운 스타일을 추가하여 미술사적으로 중요한 세밀화가이다. 또한, 그가 묘사했던 인물과 배경을 통해 당대의 생활상을 생생히 알 수 있어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레오니

● 다국어 표기 Levni(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수르나메

● 멀티미디어 링크 레브니 작품_무희

<http://www.tarihidim.com/wp-content/uploads/2018/03/levni-14.jpg>

레브니 작품_수르나메 이 베흐비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a/aa/Koceks_-_Surname-i_Vehbi.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Renda, Günsel. Batılılaşma Döneminde Türk Resim Sanatı (1700-1850), Ankara: Hacettepe Üniversitesi Yayınları, 1977.

Mahir, Banu. Osmanlı minyatür sanatı, İstanbul : Kabcacı Yayınevi, 2005.

Yalçın, Şehnaz. "Levni", TDV İslâm Ansiklopedisi, Cilt 27, Ankara: TDV, 2003, pp.154~155.

I A262 | 레샤트 누리 쿤테킨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Metin Turan) ● 라틴 문자 Reşat Nuri Güntekin

레샤트 누리 쿤테킨(Reşat Nuri Güntekin)은 튀르키예에서 공화국 시기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이다. 1889년 11월 26일 이스탄불에서 출생한 레샤트 누리(Reşat Nuri)는 군의관 누리(Nuri) 베이와 카르스 주지사, 야베르 파샤의 딸 뤼트피예(Lütfiye) 슬하에 태어났다.

레샤트 누리는 아버지의 지방근무로 인해 이스탄불에서 초등학교를 입학했지만, 차낙칼레에서 졸업했다. 이후 이스미르에 있는 프랑스 프레렐러 학교(Frèreleler Fransız Okulu)를 다니다 이스탄불로 돌아왔고 성요셉고등학교(Saint Joseph Lisesi)를 졸업했다. 그리고 1912년 다뿔뿔뿔(현 이스탄불대학교) 문과대를 졸업했다. 대학 졸업 후, 부르사고등학교(Bursa İdâdisi)에서 1913년부터 1915년까지 프랑스어 교사로 근무를 시작한 레샤트 누리는 1915년부터 1917까지는 이스탄불 베식타쉬 연합진보당(Beşiktaş İttihat ve Terakki)에서 일했고, 1917년부터 1924년까지는 이스탄불 파티흐 고등학교(Fatih Vakfı Kebir), 에렌코이 여자 고등학교(Erenköy Kız Lisesi) 등 여러 학교를 옮겨다니며 프랑스어, 튀르키예어, 철학 과목을 가르쳤다.

레샤트 누리는 1927년 에렌코이 고등학교에서 제자인 하디예(Hadiye)와 결혼했고, 1941년

에 외동딸 엘라(Ela)가 태어났다.

그의 문학에 대한 관심은 어린 시절 이종사촌 루센 에쉬레프 위나이든(Ruşen Eşref Ünaydın)과 집사 샤키르 아아(Şakir Ağa)에게 동화를 즐겨 들으면서 시작되었고, 차낙칼레에 거주할 때 부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소설을 읽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다. 그는 파트마 알리에(Fatma Aliye) 부인의 「우드 연주자(Ûdî)」라는 소설을 잊을 수 없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후 할리드 지야(Halit Ziya)의 작품을 접하면서 문학에 대한 열정이 커졌다. 또 레샤트 누리의 집에는 튀르키예는 물론 프랑스 문학 및 철학 서적이 책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는 이즈미르에서 프랑스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프렐러 학교(Frerler Mektebi)에 다니면서 배운 프랑스어로 서양의 고전 작품을 접할 수 있었다. 레샤트 누리의 아버지는 공무원이었는데 잦은 지방 발령으로 인해 레샤트는 어린 시절부터 여러 도시에서 거주했다. 또 대학 졸업 후 교직에 몸담고 감사관으로 일한 덕분에 아나톨리아 구석구석을 방문하고 사람을 만날 기회가 많았다. 이때 직접 듣고 목격한 일들은 그가 소설 쓰는 데 풍부한 소재가 되었다. 또한 어린 시절에 천막 극장에 대한 기억과 교사 초임 시절 부르사 극장에서 본 연극이 인상에 남았고 문학의 한 장르로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레샤트 누리는 젊은 시절에 쓴 작품과 익명으로 출판한 몇 편의 시와 수필을 1911년 <청년의 펜(Genç Kalemler)>이라는 잡지에 글을 내면서 문단에 등단했다. 레샤트 누리는 1913년 4월 12일부터 77호까지 발행된 풍자 잡지 <나비(Kelebek)>를 이브뉘레피크 아흐메트 누리(İbnürrefik Ahmet Nuri), 예사리자데 마흐무트 예사드(Yesarizade Mahmut Esad), 아흐메트 페힘(Ahmet Fehim) 등과 함께 발간했다. 레샤트 누리는 이 잡지에서 ‘매미’, ‘반딧불’, ‘개똥벌레’, ‘까치’, ‘악어’ 외 하이렛딘 뤼쉬뒤(Hayreddin Rüşdü), 제밀 니메트(Cemil Nimet), 세르메드 페리드(Sermed Ferid) 등 여러 필명을 돌려 사용하면서 해학이 담긴 단편소설을 썼다.

1917년에 잡지 <투르크 사상(La pensée turque)>과 1918년 신문 <시간(Zaman)>에 문학과 연극의 관계에 관한 논평을 했다. 그의 첫 번째 이야기 「옛 친구(Eski Ahbap)」는 잡지 <가시(Diken)>에 실린 후 1917년 책으로도 출판되었다. 그의 첫 소설 「폐허의 꽃(Harabelerin Çiçeği)」은 1919년 신문 <시간(Zaman)>에 연재되었다. 이 시기에도 연극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보인 레샤트 누리는 1918년 프랑스 극작가 트리스탄 베르나르(Tristane Bernard)의 작품을 「진정한 영웅주의(Hakiki Kahramanlık)」라는 제목으로 각색한 연극 시나리오를 하이렛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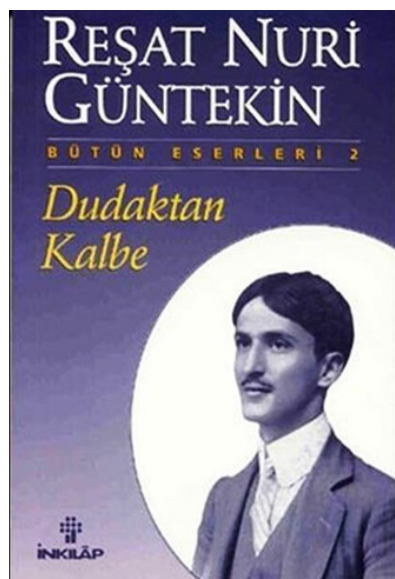
뤼쉬뤼(Hayreddin Rüşdü)라는 필명으로 발표했다.

레샤트 누리는 소설 『굴뚝새(Çalikuşu)』로 명성을 얻었다. 1922년 신문 <시간(Vakit)>에 연재했다가 같은 해 책으로 출판한 이 책은 1922년부터 지금까지 판을 거듭하며 꾸준히 튀르키예 독자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고, 영화와 연극으로도 만들어졌다.

레샤트 누리 권테킨이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은 1차 세계 대전이 발발한 시기와 겹친다. 당시 튀르키예 문학은 서양 소설 기법에 영향을 받으며 튀르키예 소설의 역량이 발휘되는 시기다. 권테킨이 튀르키예 소설에 가져온 중요한 변화는, 형식은 서구의 소설 형식을 취하면서도 당시 튀르키예의 지역색과 민족적 정서를 잘 살린 새로운 작품을 썼다는 점이다. 그 당시까지 ‘이스탄불’이라는 도시 공간을 벗어난 적이 없던 튀르키예 문학은 비로소 레샤트 누리 권테킨을 통해 아나톨리아 시골 마을까지 공간으로 담아낼 수 있게 되었다.

레샤트 누리는 1927년 교육부 감사직에 임명되어 1939년 차낙칼레에서 국회의원으로 선출될 때까지 감사직을 유지했다. 이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아나톨리아를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었다. 아나톨리아 사람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길, 산, 터에 대해 가까이에서 접한 기회가 되었다. 이러한 관찰을 『아나톨리아 노트(Anatolian Notes)』에 모았다. 그는 기행문뿐만 아니라 소설과 단편소설에서도 자신의 관찰과 경험을 녹여냈다. 1939년부터 1946년까지 두 번 의원 임기를 마친 후 그는 다시 교육부 감사관으로 돌아와 1947년에 수석 감사관이 되었다. 또한 1947년에는 케말 투란(Kemal Turan), 라급 셰브키 예심(Ragıp Şevki Yeşim)과 함께 공화인민당(Cumhuriyet Halk Partisi)의 정당 기관지 <민족(Ulus)>의 이스탄불 지부 신문 <고향(Memleket)>을 발간했다. 레샤트 누리는 1950년에는 유네스코 튀르키예 국가위원회 사무총장을 맡았고 감사관으로 파리에 잠시 머물기도 했다. 1954년 은퇴 후에는 이스탄불 시립극장 문학위원회 위원(İstanbul Şehir Tiyatroları Edebî Heyet üyeliği)으로 선출되었다.

그는 1956년 12월 7일 런던에서 폐암 치료를 받다가 세상을 떠났다. 그의 무덤은 카브리 카



『Dudaktan Kalbe: Bütün Romanları』 표지

라자아흐메트(Kabri Karacaahmet Mezarlığı) 묘지에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레샤트 누리 귄테킨
- 다국어 표기 REŞAT NURİ GÜNTEKİN(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이스탄불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rl.kr/rkca7e>
- 참고문헌(오프라인) Altuğ, Taylan. Bir Ruh Kimliği Reşat Nuri Güntekin, İnkılap Kitabevi, İstanbul 2005.
Burdurlu, İbrahim Zeki. Reşat Nuri Güntekin, Toker Yayınları, İstanbul 1977.
Kurdakul, Şükran. Meşrutiyet Dönemi Türk Edebiyatı, Broy Yayınları, İstanbul 1986.
Naci, Fethi. Reşat Nuri'nin Romancılığı, Oğlak Yayınları, İstanbul 2003.
Poyraz, Türkan-Alpek Muazzez, "Reşat Nuri Güntekin ve Eserleri", Türk Kütüphaneciler Derneği Bülteni, Cilt:VI, S.3, 1957.
Taydaş, Nihat. Reşat Nuri Güntekin'in Oyun Yazarlığı, Kültür Bakanlığı Yayınları, Ankara 2000.

I A263 I 레아야

- 시기 B.C. ~ A.D. 1800년 ● 지역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이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제도 ● 유형 소분류2 신분
- 집필자 이은정 ● 라틴 문자 Reaya

레아야는 원래 아랍어에서 목초지에 풀어놓은 가축, 특히 양떼를 가리키는 말이며 비유적으로는 일반 백성을 의미한다. 고대 근동 이래로 돌보아야 할 백성을 양으로, 통치자를 목자로 보는 관념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비유하는 예가 잘 알려져 있고, 또한 무함마드 이븐 알리 알 하킴 알 티르미디 같은 9세기 말 10세기 초의 수피 신비주의자는 예언자. 무함마드를 인류의 목자라고 일컬었다. 이렇듯 통치자로서 목자는 양떼에게 맑은 물을 주고, 길을 안내하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새로 태어난 새끼 양을 돌보는 등의 일을 한다는 관념이 이슬람 안에서도 수용되어 있었다. 이처럼 피지배민을 돌보는 것이 중요한 덕목으로 되어 있었지만 현실 속에서 레아야는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 즉 농민, 수공업자, 상인 등 세금을 내

는 인구를 의미했다.

또한 이상적으로는 레아야를 잘 돌보는 것이 통치자의 덕목이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재정 압박 속에서 레아야에 대한 착취가 흔히 일어났다. 이들은 군수물자 조달, 사신 접대, 부역, 말의 조달 등을 요구받았으며, 이러한 부담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특히 12세기 이후 셀주크와 몽골 시대에 더 심해졌다. 레아야는 납세자 중에서도 특히 현대 이란에서의 의미처럼 농민을 주로 의미하게 되었다. 오스만 제국의 경우, 레아야는 군인, 서기, 종교인으로 이루어진 오스만 제국의 신하들(askeri)로 면세 특권을 받은 자들과 대조되는 ‘납세와 생산의 담당자들’이었다. 이들은 정치적 활동을 할 권리 및 기회가 없었으며 18세기부터는 이 단어는 기독교인 납세자들에게만 적용되어 실제로 19세기 인구조사 기록을 보면 기독교인을 공식적으로 레아야라고 불렀음을 알 수 있다.

19세기 이전 오스만 제국 시대의 레아야와 아스케리의 경계는 항상 명확하지는 않았으나, 아스케리는 레아야의 신분 상승을 가급적 막으려고 했으며 국가의 입장에서 레아야가 쉽게 아스케리가 되지 않도록 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공을 세워 레아야가 아스케리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의 가족들이 자동으로 아스케리 신분을 얻는 것은 아니었으며 낮은 관직에서 물러나면 아스케리 신분을 취소당하는 일도 있었다. 그러나 데브시르메를 통한 아스케리로의 상승이 가능했고, 16세기 이후에는 파샤 가문에 발탁된 레아야가 중앙 관직에 진출해 아스케리가 되는 것도 가능해졌다. 또한 예니체리가 16세기 말 이후 점차 도시 사회의 민간 영역으로 침투하면서 민간인 수공업자 등이 예니체리 신분을 사서 낮은 지위의 아스케리가 되는 경우도 흔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라아야

● 다국어 표기 Ra'aya(아랍어), reaya(튀르키예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C. E. Bosworth and Suraiya Faroqhi, «Ra'iyya,» Encyclopaedia of Islam (Brill) 2nd edition Vol. VIII, pp.403~406.

Mehmet Öz, “Reaya,” TDV İslam Ansiklopedisi, Vol. 34 2007 pp.490~493.

I A264 | 레오니드 크질라소브 하카스 국립 지역학 박물관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기관 ● 유형 소분류2 박물관
- 집필자 장주영 (자문위원 : Nükhet Okutan Davletov) ● 라틴 문자 Kizlasov Khakas National Local History Museum

1929년 2월 21일 설립되어 1931년부터 국립 지역사 박물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크즐라소브 하카스 국립 지역사 박물관은 1992년부터 하카스 공화국에 설립되었으며, 2006년 9월 29일자로 하카스 공화국 제256 법령에 따라 하카스 국립 지역학 박물관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2007년 10월 26일에는 저명한 하카스 역사가이자 고고학자인 레오니드 크질라소프(Leonid Kizlasov) 박사의 이름을 따서 레오니드 크즐라소프 하카스 국립 지역학 박물관(Leonid Kizlasov Khakas National Museum of Geosciences(Хакацкий национальный краеведческий музей им. Л.Р. Кызласова))으로 그 이름이 변경되었다.

이 박물관은 하카스와 러시아 지식인들의 지질학, 생물학, 민족지, 고고학적 자료 기증과 증여로 지식의 보고로 손꼽혔으나 1942년 화재로 인하여 박물관 소장 유물 절반 이상이 손실되었다. 이후 194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여러 차례 박물관의 주소지가 바뀌기도 했다. 이 박물관에서 카랄킨(P. İ. Karalkin), 레바쇼바(V. P. Levashova), 토크레브(S. A. Tokarev), 셉타예브(L. S. Sheptayev), 케넬(A. A. Kenel), 야보르스키(O. V. Yavorskiy), 립스키(A. N. Lipskiy)와 같은 저명한 고고학자 및 연구원들이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이들 고고학자 및 민족지학자들의 연구 결과로 얻은 유물들의 자료를 바탕으로 형성된 박물관은 구석기 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남부 시베리아 땅에서 일어난 다양한 문명의 발달을 보여주고 있다. 학계에서 오쿠네프 시대로 알려진 기원전 4000년~3000년으로 거슬러올라가는 대규모 오벨리스크들과 함께 타쉬특 시대의 암벽화 및 데스 마스크 외에도 청동, 뼈 및 돌로 만든 다양한 고고학적 발견물도 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1973년 하카스공화국의 수도인 아바칸의 푸쉬킨가(Pushkin street)의 96번 건물의 1층에 위치한 박물관은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유물과 유적이 모여 어느덧 십만여 개의 소장품들을 전시하게 되었다. 2014년 러시아 박물관 협회의 회원 자격을 얻은 레오니드 크질라소브 하카스 국립 지역학 박물관은 2016년에 푸쉬킨(Pushkin)가의 28 A 건물에 위치한 약 30,000제곱미터의 면적을 가진 건물로 이주했다.



하카스 국립 지역학 박물관
Source: <https://rusmuseumvrm.ru/>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레오닛 키질라쇼브 하카스 국립 지역박물관, 크즐라쇼브 하카스 국립 지역학 박물관
- 다국어 표기 Khakasskiy natsionalny kraevedcheskiy muzey im. L. R. Kizlasova / Хакасский национальный краеведческий музей им. Л.Р. Кызласова(러시아어), L. R. Kizlasov Khakas National Local History Museum(영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Feoktistova, T. N. 2007. “Hakasskiy Respublikanskiy Kraevedcheskiy Muzey”. Entsiklopediya Respubliki Hakasiya T 2 içinde (ss. 244). Abakan: Pravitelstvo Respubliki Hakasiya.

I A265 | 레이실컷타브

- 시기 A.D. 1500년~A.D. 18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호칭 ● 유형 소분류2 직위
- 집필자 이은정 ● 라틴 문자 reisülküttab

레이실컷타브(reisülküttab)는 오스만 관료제에서 문서행정을 담당한 디완 칼레미(디완 서기 부서)의 장이다. 오스만 국가에서 레이실컷타브는 일련의 서기들을 관리하기 위해 등장한 관직이며, 15세기~16세기 문서에는 페르시아어 구문으로 레이스 이 컷탑이라고 불리었으며, 그 이후에 아랍어 구문으로 레이실컷타브이라고 하거나 혹은 레이스 에펜디 등으로 불리었다. 직

책은 리야세트 혹은 리야세트 이 컷탑이라고 했다. 디완 으 휘마운(궁정 각료회의)의 재정 관련 문서 이외에 문서들을 작성하는 서기들을 디완 으 휘마운 카탑이라고 했으며 이들은 레이של컷타브의 통솔하에서 그 위의 니샨즈에 소속되어 있었다. 일 칸국과 이집트의 압바스 칼리프 휘하에도 같은 레이של컷타브이라는 관직이 있었고, 아나톨리아의 룸 셀주크 왕조에서도 맬리컬컷탑이라는 비슷한 관직이 있었다. 이 직책이 존재하기 시작한 시기에 대해서는 정복자 메흐메트 2세의 카눈나메에 의거하여 그 당시(1451년~1481년)부터 있었다는 설이 있는 한편, 그 카눈나메의 제작연도를 의심하여 확신하지 못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적어도 1515년 술탄 셀림 1세 당시에는 존재했음이 다른 사료에서 확인된다. 16세기 초 고전시대에 레이של 컷탑이란 니샨즈의 명령에 따라 일하는 디완 으 휘마운 관련 문서들을 담당하는 일련의 서기들의 장을 의미한다. 그의 주요 업무는 디완 으 휘마운에서 청원서(arzuhal)를 소리 내어 낭독하는 것, 텔히스(telhis, 대재상으로부터 술탄에의 보고서) 주머니를 대재상 옆에 놓아두는 것, 디완에서 발행되는 문서의 복사본을 검토하는 것, 티마르 관련 문서 및 임명장의 작성, 임명장들을 장부에 기록하는 것 등등이었다. 이런 임무는 16세기 내내 크게 변하지 않았고, 단지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었는데 16세기 끝에 가서 원래 니샨즈의 역할이었던 칙령에 투으라 그려넣기, 타흐리르 데프테리(토지 및 호구 대장) 검토와 수정, 필요한 주제에 대한 카눈(세속법) 편찬 등이 더해졌다. 업무의 양과 종류가 많아짐에 따라 레이של컷타브 휘하의 서기들의 업무도 분화되기 시작하여 여러 개의 부서로 나뉘었다. 또한 17세기 중엽부터 대재상의 관부가 '바브 으 알리(높은 문)'라는 이름으로 궁궐 밖으로 옮겨 나간 후 레이של컷타브의 업무는 관료업무의 중앙집권화 정책에 따라 대재상의 늘어난 업무량에 발맞추어 더 증가했다. 레이של컷타브는 이제 대재상의 명령서, 보고서 등의 작성에 더욱 큰 역할을 하게 되었고, 외국 사신의 예비 접견, 군사 원정과 보급 관련 업무들에게까지 확대되어 결국 바브 으 알리에서 대재상 휘하의 3대 주요 관료 중 하나로 입지를 굳히게 되었다. 상대적으로 궁 안의 디완 으 휘마운의 중요성이 감소함에 따라 니샨즈의 중요성이 축소되어 갔으나, 니샨즈의 레이של컷타브에 대한 형식적 우위는 유지되었다.

한편 원래 레이של컷타브보다 위에 있었던 데프테르 에미니(문서장부의 관리자)는 17세기 말 이후에는 레이של컷타브에 비해 낮은 위치가 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레이של컷타브가 중요한 직책이 된 데에는 대재상이 궁정과외의 문서 소통과 연락을 레이של컷타브를 통해서 했고 그런 가운데 레이של컷타브가 국가의 모든 기밀을 다루었을 뿐 아니라 대재상 관부에서 문서를 다루는 부

문의 유일한 권위였다는 사실이 크게 작용했다.

특히 카를로비츠 조약(1699년) 당시 레이쉴컷타브이었던 라미 메흐메트 파샤가 큰 활약을 하면서 레이쉴컷타브의 외교 역할의 중요성이 확립되었다. 18세기에 외국으로부터 오는 상주 대사들이 늘어나고 이들의 외교 활동에 대응하는 가장 적절한 창구가 되었던 레이쉴컷타브와 그 휘하의 관료들은 오스만 제국의 외교 라인을 이루었다. 18세기 이전 레이쉴컷타브의 승진은 베이레르베이나 니샨즈 같은 위치로의 이동이었다면, 18세기부터 레이쉴컷타브는 거의 재상(vezir)에 해당하는 권력을 가진 위치였으므로 재상이나 대재상으로서의 승진을 바라볼 수 있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레이쉴컷탑

● 다국어 표기 Reisülküttab(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디완 으 휘마윤, 니샨즈, 바브 으 알리

● 참고문헌(오프라인) Receb Ahışalı, Reisülküttab TDV İslam Ansiklopedisi, Vol. 34 2007 pp.546~549.

Ali Akyıldız, "Reisülküttab," Gábor Ágoston and Bruce Masters, eds., The Encyclopedia of the Ottoman Empire, Facts on File 2008 pp.486~487.

I A266 I 레일리와 매즈눈

● 시기 A.D. 1500년 ~ A.D. 18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아제르바이잔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작품 ● 유형 소분류2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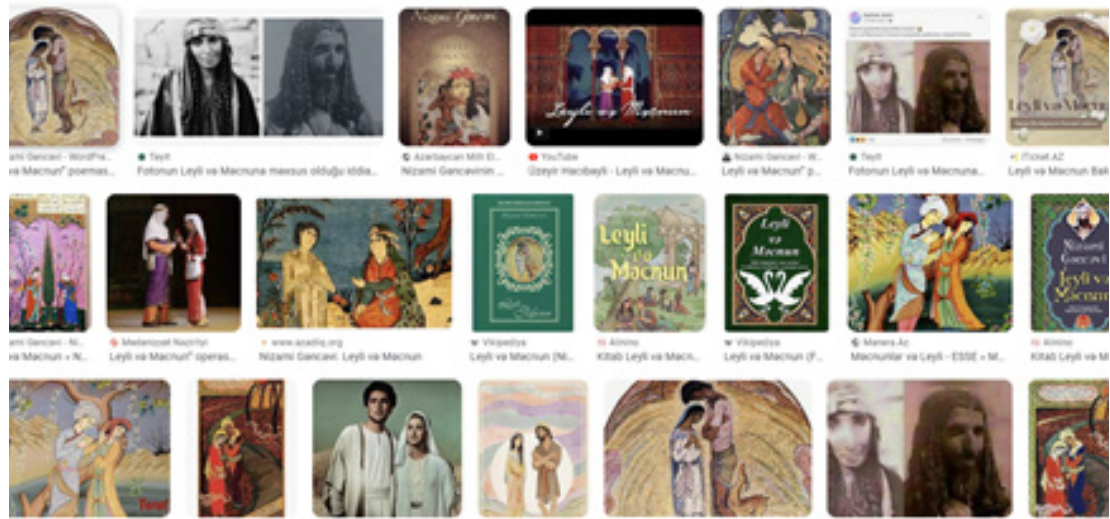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Vaqif Sultanlı, Bədirxan Əhmədli) ● 라틴 문자 Leyli və Məcnun

「레일리와 매즈눈(Leyli və Məcnun)」은 16세기에 살았던 아제르바이잔의 시인 매햄매트 푸줄리(Məhəmməd Füzuli, Məhəmməd Füzuli)가 사랑에 대해 쓴 연작시(poema)이다. 매햄매트 푸줄리 작품의 정수로 꼽히는 이 연작시는 아제르바이잔은 물론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작품이다.

이 작품의 주제는 아랍 설화에서 비롯됐다. 「레일리와 매즈눈(Leyli və Məcnun' dastanı)」은 서남아시아 민족들에게 널리 퍼진 서사시이자 전설이다. 이 전설은 아랍에서 페르시아로 전해진다. 이후 아제르바이잔의 시인 니자미 갠재비(Nizami Gəncəvi)가 최초로 '레일리와 매즈눈'을 주제로 작품을 썼다. 니자미 갠재비의 시 「레일리와 매즈눈」은 페르시아어 문학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후 같은 주제로 많은 튀르키예, 페르시아, 인도, 우즈베크, 타지크 시인들이 작품을 썼다. 그러나 투르크어로 된 매햄매트 뤼줄리의 작품은 독창성과 예술적 완성도 측면에서 이 주제로 쓰여진 다른 연작시들과 크게 구분된다. 1536년에 저술된 이 작품은 레일리와 매즈눈 간의 사랑을 다룬 서정적이며, 서사적인 연작시(lyric-epic poema)이다. 이 작품은 바그다드(Bağdad)의 통치자인 위베이스 파사(Üveys Paşa)에게 바쳐졌다.

「레일리와 매즈눈」은 7세기에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에 살았던 '게이스 이븐 뮐람베흐(Qeys ibn Müləvvəh)'라는 청년과 '레일리'라는 소녀의 사랑과 이별에 대한 이야기이다. '베니-아미르(Bəni-Amir)' 부족이었던 청년 시인 게이스 이븐 뮐람베흐는 같은 부족 처녀 레일리 엘 애미리야에(Leyli əl Əmiriyyə)에게 반한다. 게이스는 레일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는 시와 노래들을 지어 헌사한다. 게이스가 레일리의 아버지에게 딸과의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하자 레일리의 아버지는 부족의 규칙에 어긋난다며 거절한다. 이후 레일리는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고 만다. 레일리가 결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게이스는 부족을 떠나 사막에서 살기 시작한다. 게이스의 친척들은 그에게 집으로 돌아오라고 설득하지만, 게이스는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러자 친척들은 음식을 사막으로 날라다주었다. 게이스는 사막에서 혼자 때로는 레일리에 관한 시를 낭송하기도 하고, 때로는 모래 위에 글을 쓰기도 하며 시간을 보낸다. 한편 남편과 함께 이라크로 이주한 레일리는 그곳에서 사망한다. 그런데 몇 년 후인 688년에 매즈눈도 죽은 채로 발견된다. 매즈눈은 비석에 마지막 세 단락의 시를 남겼다. 사랑으로 정신을 잃은 그를 사람들은 '매즈눈 레일리' 혹은 '매즈눈(Məcnun)'이라고 부르기 시작한다.

이 작품은 총 2096연(Beyt)으로 구성됐다. 아루즈(운율 형식 중 하나)로 쓰여졌다. 이 작품에서 시인은 가젤(qəzəl) 형식도 많이 사용한다. 많은 시인이 이 작품과 비슷한 모방시를 썼지만 뤼줄리의 작품 수준까지 올라가지는 못했다. 매햄매트 뤼줄리의 「레일리와 매즈눈」을 토대로 한 영화도 제작됐다. 위제이르 하즈배일리(Üzeyir Hacıbəyli)는 1907년에 이슬람 세계의 첫 오페라인 「레일리와 매즈눈(Leyli və Məcnun)」를 뤼줄리의 연작시를 토대로 작곡했다.



구글 검색으로 확인되는 수많은 「레일리와 매즈눈」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레일리와 마즈눈, 레일라와 메즈눈
- 다국어 표기 Leyla ile Mecnun(튀르키예어), Ләйлә вә Мәҗнүн(타타르어), Ләйлә менән Мәҗнүн(바쉬키르어), Лейли и Меджнун(러시아어), Ләйлә мен Мажнун(카자흐어), Лейла жана Мажнун(키르기스어), Layla we Majnun(투르크멘어), Layla va Majnun(우즈베크어), Leyli və Məcnun(아제르바이잔어), Epic of Leyli and Mecnun(영어)
- 연관 검색어 레일리와 매즈눈 서사시, 다스탄, 매함매드 퀴줄리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az.wikipedia.org/wiki/Leyli_v%C9%99_M%C9%99cnun_\(opera\)](https://az.wikipedia.org/wiki/Leyli_v%C9%99_M%C9%99cnun_(opera))
- 참고문헌(오프라인) Mirzağa Quluzadə. Füzulinin lirikası, Az.SSR EA nəşriyyatı, 1965.
Fuad Qasımzadə. Qəm karvanı, Yaxud Zülmətdə Nur, Bakı: Azərnəşr, 1968.
Sabir Əliyev. Füzuli, Bakı: Azərnəşr, 1996.
Əlyar Səfərlı. XƏlil Yusifli. Qədim Və Orta Əsrlər Azərbaycan Ədəbiyyatı, Bakı: “Ozan” nəşriyyatı, 1998.
Nəzakət Məmmədli. Füzulinin “Leyli Və Məcnun” Əsərində Təsəvvüf Və Onun Bədii İfadə Sistemi, Bakı: Elm və təhsil, 2011.
Mir Cəlal. Füzuli Sənətkarlığı, Bakı: “Çağroğlu” nəşriyyatı, 2018.

I A267 | 레파일

● 시기 A.D. 1500년~A.D. 18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미술 ● 유형 소분류2 인물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Refail

오스만 시대 화가였던 레파일(Refail)의 출생연도는 불명확하나 사망 연도는 1780년도로 보고 있다. ‘레파일’이라는 이름은 때때로 라파엘 마나스(Rafael Manas) 또는 마나시(Manasî: 마나스의, 마나스에 속한)로 기록되기도 한다. 마나스는 당시 궁중에서 활약하던 아르메니아 출신 화가 가문의 이름이다.

레파일은 이탈리아에서 그림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교회에서 종교화를 그린 것으로도 전해진다. 그는 화가인 동시에 건축가이며 음악가로 알려져 있다. 무스타파 3세(III. Mustafa 재위: 1757년~1774년)와 압뮐하미드 1세(I. Abdülhamid, 재위: 1774년~1789년) 시대에 영향력 있는 궁중 화가였던 레파일의 작품으로 특히 유명한 것은 『술탄의 초상화』이다. 마흐무드 1세(I. Mahmud, 재위: 1730년~1754년), 오스만 3세(III. Osman, 재위: 1754년~1757년), 무스타파 3세, 압뮐하미드 1세 등의 초상화를 그렸다. 무스타파 3세와 압뮐하미드 1세의 초상화는 대형 유화 작품이다.

또한, 레브니(Levni)의 기존 실실레나메(Silsilename)에 새롭게 추가된 4명의 술탄의 초상화도 레파일의 작품이다. 술탄 이외에도 당시 황자(Şehzade)였던 셀림 3세(III. Selim, 재위: 1789년~1807년)도 역시 화폭에 담았다. 이 모든 작품에서 인물은 정면을 보고 있으며 캔버스 전체를 차지한다. 술탄의 초상화 이외에도 판지 위에 유화로 남자와 여자를 그리기도 했다. 특히 손으로 치마를 잡아 속옷이 살짝 보이는 여성의 그림(톱카프 궁전 박물관, Topkapı Sarayı Müzesi, H.2143, y.4a)은 당대의 의복 시리즈를 떠올리게 하지만, 서구 화법의 영향이 바로 보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레파일은 카프다울르 콘스탄티과 함께 오스만 회화의 서구화에 영향을 끼친 화가로 평가받는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레파엘

● 다국어 표기 Refail(튀르키예어), Rafael(튀르키예어), Rafayel(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카프다을르

● 멀티미디어 링크 레파일이 그린 셀림 3세 초상화

<https://www.digitallssm.org/digital/api/singleitem/image/ResimKlksyn/599/default.jpg?highlightTerms=Manas,%20Rafayel,%201715-1780>

● 참고문헌(오프라인) Bağcı Serpil. Filiz Çağman, Günsel Renda, Zeren Tanındı, Osmanlı Resim Sanatı, Ankara : Kültür ve Turizm Bakanlığı, 2012..

I A268 I 레판토 해전

● 시기 A.D. 1500년~A.D. 1800년 ● 지역 기타 ● 나라 유럽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사건 ● 유형 소분류2 전쟁
● 집필자 우덕찬 ● 라틴 문자 Battle of Lepanto

1571년 10월 7일 오전 레판토(Lepanto) 인근 해역에서 오스만 제국과 기독교 신성동맹 사이에 벌어진 ‘레판토 해전’은 분명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양측에서 총 400척이 넘는 갤리선과 10만 명이 넘는 인원을 동원하여 4시간 동안 벌인 전투는 기독교 신성동맹의 승리로 결판이 났다. 1453년 비잔틴 제국의 멸망 이래 육지와 바다에서 오스만 제국에 패전을 거듭했던 기독교 세계로서는 모처럼 맛본 대승이었다. 존망의 위기를 느껴온 기독교 세계는 오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심리적 차원에서도 역사적인 사건이자 하나의 전기였다. 특히 해전에 직접 참가하여 한쪽 팔을 잃었던 돈키호테((Don Quixote)의 저자 미구엘 드 세르반테스(Miguel de Cervantes)는 ‘이제까지의 역사에서 그리고 후세가 결코 목격할 수 없는 가장 고귀하고 기념비적인 사건’이라고 기술했다. 프랑스의 구조주의 역사학자 페르낭 브로델(Fernand Braudel)은 레판토 해전의 승리로 기독교 세계는 오스만 제국에 대한 열등감에서 벗어났으며, 오스만의 노잡이로 동원되었던 기독교 노예들을 해방시켜 갤리선 노잡이로 증원했고, 레판토 해전 이후 기독교 세계의 해적들이 지중해 동부지역에 깊숙이 침투해 들어갔던 것을 달라진 상황으로 지적하고 있다.

레판토 해전이 발생하게 된 결정적 원인은 술탄 셀림2세(Selim II 재위: 1566년~1574년)에 의한 키프로스 공격이었다. 레판토 해전에서 오스만 제국이 결정적 패배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레판토 해전(Saint Pauls Church, ANTWERP, BELGIUM)

고, 신성동맹 측은 어떤 실질적인 전략적 이득을 얻지 못했다고 평가된다. 당시 오스만 제국의 패배가 향후 지중해 패권을 위한 전쟁에서 어떤 실질적 영향을 미쳤는지를 정확히 평가하기는 어렵다. 통상적으로 1538년 프레베자 해전에서의 승리를 기점으로 1571년 레판토 해전이 발생할 때까지 오스만 제국이 지중해 패권을 장악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당시의 사료들을 엄밀히 분석해 보면 오스만은 아드리아해나 서지중해 지역은 결코 장악하지 못했고 특히 몰타 공성전의 패배로 기독교권이 가지고 있던 영지를 탈취하려던 오스만 제국의 야심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이와 동시에 레판토에서의 신성동맹 측의 승리는 당대 사가들에 의해 또 다른 십자군의 승리로 미화되었고 당시 수백만의 기독교권은 신의 은총으로 열광했지만, 일각에서는 실질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와는 달리, 신성동맹이 거둔 승리는 미완의 것으로 기만적인 것이라고 평가를 내린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1572년 기독교 신성동맹도 바로 해체되었고, 기독교권의 대 오스만 공격은 연이어 실패로 끝나고 말았기 때문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레판토 전투

● 다국어 표기 Battle of Lepanto(영어)

● 연관 검색어 셀림2세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britannica.com/event/Battle-of-Lepanto>

레판토 해전에 관한 다큐멘터리

https://www.youtube.com/watch?v=sgLodepks_M

● 참고문헌(오프라인) Abulafia, David. 2013. *The Great Sea: A Human History of the Mediterranea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Bradford, E. 2013. *Akdeniz-Bir Denizin Hikâyesi*. İstanbul: Köprü.

Gürkan, E. S. "The centre and the frontier: Ottoman cooperation with the North African corsairs in the sixteenth century", *Turkish Historical Review* 1.

İnalçık, H. 1994. *The Ottoman Empire, the Classical Age, 1300-1600*. London: Phoenix.

우덕찬 2020, 「16세기 오스만 제국과 지중해」, 『지중해지역연구』, 22(4).

I A269 | 레흐체이 오스마니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언어 ● 유형 소분류1 서적 ● 유형 소분류2 사전
● 집필자 장주영 ● 라틴 문자 Lehce-i Osmânî

『레흐체이 오스마니(Lehce-i Osmânî)』는 아흐메드 웨피크 파샤(Ahmed Vefik Paşa)에 의해 집필된, 오스만 시대를 대표하는 사전 중 하나이다. 레흐체이 오스마니는, 1876년 초판 발행 당시 두 권의 책으로 집필되었다. 초판은 1297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랍어와 페르시아어 이외에 튀르키예어, 튀르키예어화 된 어휘들이 포함되어 있다. 초판과 달리 1890년 두 번째 판에서는 두 권의 책을 한권으로 묶었다. 초판에서는 오스만 튀르키예어에서 사용되는 아랍어와 페르시아어만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후 개정판(2판)에서는 아랍어와 페르시아어에서 튀르키예어로 유입된 단어들이 추가되어 확장되었다. 단어는 아랍 문자 순서에 따라 나열되지만, 장을 구분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사전의 형식과는 달라 다소 복잡하게 여겨진다. 저자는 'Rumûzât Cedveli' 라는 제목을 달고, 사전의 초반에 저서에 사용한 약어를 리스트 형식으로 제공한다.



로잔조약 기념탑(Edirne, 튀르키예)

두 번째 판에서는 초판과는 달리 오스만 투르크어에서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되거나, 원래와는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아랍어 및 페르시아 어휘들을 제공한다. 그는 오스만 투르크어로 사용되는 아랍어와 페르시아어 어휘들을 새롭게 정리했다.

또한 당시 문자 표기에 관련된 열띤 논쟁의 영향으로 인해 아흐메드 웨피크 파샤는 아랍어 문자 kef와 Waaw(vav)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음가에 대하여 특수 기호를 추가하여 분류했다. 이처럼 초판과 2판은 어휘 및 사전법 기술 측면에서도 서로 다른 특징을 보인다.

레체이 오스마니에는 항목별로 총 6,329개의 단어가 수록되었으며, 이 단어들의 문법적 기능에 따른 분류는 다음과 같다: 명사 5,382개, 형용사 357개, 명사를 형용사로서 사용하는 단어 11개, 부사 11개, 전치사 50개, 대명사 27개, 대명사 5개, 동사 401개. 이들 동사들 401개 중 220개는 타동사, 181개는 자동사이다.

사전은 튀르키예 역사, 민족학, 방언 및 지리에 관련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사전

의 의미를 넘어서, 투르크학을 아우르는 한 권의 백과사전과도 같다. 이 책이 발행되고 난 이후, 어휘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다양한 사전들이 출판되었음에도 레흐체이 오스마니는 현재까지 그 가치를 높이 인정받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레흐제이 오스마니, 레흐체 오스마니, 레흐제 오스마니
- 다국어 표기 لهجه عثمانی (아랍어), Lehce-i Osmânî (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오스만 투르크어, 아흐메드 베피크 파샤(Ahmed Vefik Paşa)
- 참고문헌(오프라인) Toparlı, R. *Lehce-i Osmânî*. Ankara: Türk Dil Kurumu Yayınları. 2000.
Akün, Ö.F. *Lehce-i Osmânî. TDV İslâm Ansiklopedisi*. (Cilt 27, ss. 127~128). İstanbul: Türkiye Diyanet Vakfı. 2003.
Topbaş, E. *1875~1905 Yılları Arasındaki Sözlükler Üzerine Bir İnceleme*, (Yayınlanmamış Yüksek Lisans Tezi). Gazi Üniversitesi. Ankara, 1987.

I A270 | 로잔 조약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사건 ● 유형 소분류2 조약
- 집필자 우덕찬 ● 라틴 문자 Treaty of Lausanne

로잔 조약(Treaty of Lausanne)은 1923년 10월 29일, 튀르키예 공화국이 수립되기 이전 1923년 7월 24일 스위스 로잔에서 제1차 세계 대전 연합국과 튀르키예 공화국 사이에 체결된 조약을 지칭한다. 스위스 로잔에서 튀르키예와 연합국이 세브르 조약에 대한 제약을 없애기 위해서 다시 체결한 조약이다. 튀르키예는 이로써 1894년 당시 소유했던 영토인 이즈미르, 콘스탄티노플, 동트라키아 등을 회복했다.

1908년에 시작된 연합진보당 시대는 1918년에 패전의 혼란 속에서 막을 내렸고, 제국은 연합국이 마련한 협상 탁자에 앉아야 했다. 독일과 베르사유 조약, 오스트리아와 상제르맹 조약을 체결한 연합국은 오스만 제국과 1920년 8월 세브르 조약을 체결했다. 오스만 제국은 세브르 조

약으로 유럽의 이스탄불과 그 주변의 협소한 지역 및 아시아의 아나톨리아만을 소유한 작은 나라로 전락했다. 메소포타미아와 팔레스타인은 영국의 위임 통치를 받게 되었고, 시리아와 레바논은 프랑스의 위임 통치국이 되었다. 에게해의 섬들도 그리스령이 되었다. 동쪽의 아르메니아는 독립했고, 쿠르디스탄은 자치권을 획득했다.

앞선 데 덮친 격으로 오스만 제국은 서부 소아시아의 요충지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이즈미르와 그 주변 지역은 5년간 그리스의 통치를 받되 그 후에는 주민 투표를 해서 그리스 혹은 오스만 제국 어느 나라에 편입할 것인지를 결정하기로 되었기 때문이다. 세브르 조약을 통해 동쪽 트라키아 및 이즈미르 지역을 획득한 그리스는 한층 더 영토를 확장을 시도해 아나톨리아 지역을 침공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그리스-튀르키예 전쟁이 발생하게 되는데 무스타파 케말 아타투르크가 이끄는 튀르키예군은 그리스군을 격퇴하고, 이즈미르를 무력으로 탈환했다.

그 결과 아르메니아의 평정, 소련과의 평화조약, 프랑스와의 휴전 조약과 케말에 의해 튀르키예가 안정화되는 것을 확인한 연합국은 세브르 조약을 대체할 새로운 강화 조약을 맺기로 결정한다. 이를 위해 스위스의 로잔 지역에서 7개월간 회의를 거친다. 이후 튀르키예와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그리스,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 사이에 조약이 조인된다. 이 조약은 튀르키예 공화국이 주권 국가로써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로잔느 조약
- 다국어 표기 Lozan antlaşması(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세브르 조약, 이즈미르, 이스탄불, 무스타파 케말 아타투르크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i.lib.byu.edu/index.php/Treaty_of_Lausanne
https://en.wikipedia.org/wiki/Treaty_of_Lausanne
- 참고문헌(오프라인) Martin Lawrence 1924. *Treaties of Peace, 1919-1923*. I.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Treaty of Peace with Turkey signed at Lausanne, Lausanne, Switzerland, 24 July 1923, retrieved 28 November 2012.
이희수 1993, 『터키사』, 대한교과서주식회사.

I A271 | 룽노르

- 시기 기타 ● 지역 동아시아 ● 나라 중국 ● 유형 지리 ● 유형 소분류1 지명 ● 유형 소분류2 호수
- 집필자 장주영 ● 라틴 문자 Lop nor

룽노르는 위구르어로 ‘여러 갈래의 물이 하나로 합쳐지는 곳’이며, ‘Nor’는 몽골어로 ‘호수’의 의미를 가진다. 룽노르는 여러 갈래의 물이 모여 하나로 합쳐진 호수를 의미한다. 실제로 중국 신장 위구르자치구 타클라마칸 사막의 동쪽에 위치한 호수 룽노르는 쿤룬산맥과 텐산산맥에서 발원하여 타림분지를 포함하여 여러 하천들이 모여 형성되었다. 19세기 중반, 제국주의와 함께 강대국의 모든 관심이 중국령 내륙 아시아에 집중되었고, 그 결과 많은 지리학자들이 이 지역을 탐험하게 되었다.

러시아의 육군 대령이자 지리학자인 프로제발스키(Projevalsky)는 러시아 황실의 원조를 받아 1870년부터 1885년 4차례에 걸친 탐험을 수행했으며, 그는 제2차 탐험에서 서양인 최초로 룽노르를 발견한다. 프로제발스키는 룽노르가 청나라의 지도에 표기되어있는 것보다 남서쪽에 치우쳐 있으며, 현지 주민들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 물을 지속적으로 도랑으로 끌어들이는 결과 생겨난 담수호라 주장했다.

하지만 그가 발견한 호수는 독일의 지리학자 페르디난트 폰 리히트호펜(Ferdinand von Richthofen)에 의해서 룽노르가 아니라고 반박되었으며, 페르디난트 폰 리히트호펜은 룽노르라 여겨지던 호수 근처에서 4개의 작은 호수를 더 발견했고 이 지역에서 누란의 유적지를 발견한다.

이후 그의 제자인 스벤 헤딘(Sven Hedin)이 이 지역을 탐사하며 룽노르는 1600년을 주기로 남북으로 이동하는 떠도는 호수(Wandering Lake)라는 설을 제기한다. 이는 실크로드 연구사에서 50년간 이어진 ‘룽노르 논쟁’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고 많은 학자들이 룽노르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현장 탐사를 나섰다. 하지만 1928년 3100km에 이르는 이 호수는 지속되는 온난화와 사막화로 인하여 바닥을 드러냈고, 현재 그 형태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룽노르 지역은 과거 실크로드의 중심지에 위치하며 동서 문화 교류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불행히도 룽노르는 당나라 시대부터 청나라 시대 때까지 생태 환경의 악화, 강의 흐름의 변경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실크로드의 중심지로써의 역할을 잃게 되었다.

오랜 세월 외부세계와의 단절로 인하여 롭노르 지역에 거주했던 위구르인들은 11세기의 언어(고대 투르크어)의 형태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었고, 현재 롭노르의 언어는 위구르어의 3대 방언 중 하나로서 분류된다.

신비의 땅인 롭노르는 역사, 인류학, 문화, 고고학, 언어학 및 관습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연구 대상이다.

하지만 1964년 중국 정부의 핵실험을 시작으로 1964년~1996년 이 일대는 45차례 핵실험 장소로 사용되었으며, 이 일대를 군사적, 고고학적 이유로 통제하며 일반인에게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롭노르호, 로프노르, 로프누르, 로프노르 호수, 롭노르 호수

● 다국어 표기 罗布泊(중국어), Лоп Нуыр(몽골어), لوبنور(위구르어)

● 연관 검색어 텐산산맥, 실크로드

● 멀티미디어 링크 <http://www.atlasnews.co.kr/news/userArticlePhoto.html>

<http://www.atlasnews.co.kr/news/userArticlePhoto.html>

<http://www.atlasnews.co.kr/news/userArticlePhoto.html>

● 참고문헌(온라인) <https://www.akademiye.org/ug/?p=158701> ,

<http://www.atla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44>

● 참고문헌(오프라인) 이강원. 「롭노르 論爭과 신장 生産建設兵團 - 中國 西北地域 沙漠化의 社會的 過程-」, 『대한지리학회지』, 38(5), pp. 701~724.

I A272 | 롭노르어

- 시기 기타 ● 지역 동아시아 ● 나라 중국 ● 유형 언어 ● 유형 소분류1 분류 ● 유형 소분류2 언어명
- 집필자 장주영 ● 라틴 문자 Lobnor dialect

롭노르(Lobnor/Lopnor)는 중국 신장(혹은 신강) 위구르 자치구에 위구르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타클라마 사막 동쪽 타림분지에 위치한 한 호수의 이름이다. 8세기 말 이 지역을 탐험하기

위해 방문했던 마르코폴로의 기록에서 롱노르인들과 관련된 언급을 발견할 수 있지만, 롱노르 어원과 관련된 정보는 따로 제시되지 않는다. 지역 주민들 말에 따르면 롱노르라는 단어의 뜻은 몽골 사람들에게 의해서 지어졌다고 전해진다. 중국 기록에 따르면 롱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물이 만나는 곳’이라 할 수 있다.

미르술탄 오스마노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1957년 기준 롱노르의 인구는 남성 7,793명, 여성 6,358명으로 총 14,151명이다. 롱노르어 사용자는 롱노르가 위치한 특이한 지리적 환경과 역사적 조건으로 인해, 위구르 인구의 단 0.4%에 불과하지만, 고대 투르크어의 특징들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 투르크어 연구와 더불어 투르크학 연구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롱노르 방언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고 연구는 러시아 투르크 학자 세르게이 말로브, 타타르인 에드하얌 라히모비취 테니쉐브, 위구르인 미르술탄 오스마노브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롱노르어는 위구르어, 키르기스어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또한 몽골에 거주하는 위구르인, 중국의 간쑤 지역에 사는 황색 위구르인들의 위구르 방언과 공통점을 가진다.

위구르어 방언은 일반적으로 신장 위구르 자치구 지역의 남부 지역의 카쉬, 호탄 지역 등에서 사용되는 남부 방언, 일리, 쿠차, 투르판(고창), 우루무치 지역에서 사용되는 북부 방언(혹은 중앙 방언), 롱노르어(롱노르 방언) 등 세 그룹으로 분류된다.

롱노르어는 형태론과 통사론, 의미론적인 측면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위구르어와 키르기스어와 비슷한 특성들을 가진다. 롱노르어와 관련된 문헌들을 통해 롱노르 방언에는 총 8,000개의 어휘가 대부분은 어원학적으로 고대 투르크어에 직접 연결이 된다. 불교를 믿던 롱노르인들은 14세기 이슬람을 받아들이게 되며 개종을 하게 됨으로 인하여 아랍어, 페르시아어가 롱노르어에 유입되기 시작하며 그밖에 몽골어 단어 그리고 적은 수이지만 중국어와 러시아어 단어도 발견된다. 하지만 일반적인 롱노르어에 사용되는 어휘들은 대부분 위구르어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다. 또한 위구르어와 키르기스어에서는 찾을 수 없지만, 롱노르어에만 유일하게 사용되는 단어들도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로브노르어, 로프누르어, 로프노르어, 롱누르어

● 다국어 표기 Lobnor Ağzi(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롱노르, 미르술탄 오스마노브, 세르게이 말로브

- 참고문헌(오프라인) Thomsen, K., 1989, “Sarı Uygurların Dili ve Salarca”, TDAY-B 1985, TDKYay., Ankara, s. 192~193.
- Osmanov, M., 1999, Lop Nur Dialect of the Modern Uigur Language, Beijing.
- Aliyeva, M. 2013. Lobnor Ağzı, Ankara: TDKYayınları.

I A273 I 루멜리 히사르

- 시기 A.D. 1000년~A.D. 15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건축 ● 유형 소분류2 성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Rumelihisar

루멜리 히사르(Rumeli hisar) 또는 루멜리 성은 이스탄불 보스포러스 해협에 건설된 두 개의 성 중 하나이다. 또 다른 성은 아나톨루 히사르(Anadolu Hisar) 즉, 아나톨리아의 성으로 바예지드 1세(I. Bayezid, 재위: 1389년~1403년)의 명으로 건설되었다. 아나톨루 히사르는 훗날 술탄 메흐메트 2세(II.Mehmet, 재위: 1444년~1446년(1차), 1451년~1481년(2차))의 명으로 증축 및 수리를 하게 된다.

당시 비잔틴 제국의 영토였던 이스탄불(콘스탄티노플) 정복에 있어 해상전의 중요성을 인정한 메흐메트 2세의 명으로 아나톨리아 성 건너편 해협, 즉 유럽 대륙 편에 위치한 루멜리 히사르를 건설한다. 성 자체에는 비문이 없으나, 이 성은 비잔틴 역사가의 기록에 따르면 1452년 5월, 그 외 기록에 따르면 그 후 4개월~5개월 안에 완성되었다. 당시에 비잔틴 군대의 보급로 등을 차단한다는 의미를 지닌 보아즈케센(Boğazkesen: 길목을 막는, 길목을 자르는)이라고 불리었다. 이 외에도 칼라이 제디드(Kal'a-i Cedîd, 새로운 성), 쿨레이 제디데(Kulle-i Cedîde, 새로운 탑), 예니제 히사르(Yenicehisar, 새로운 성), 예니히사르(Yenihisar, 새 성)와 같이 '새롭다'라는 의미를 지닌 이름으로도 불렸다.

주재료는 석재이나 석재 사이사이 소량의 벽돌이 일부 사용되었다. 성벽은 약 250m(남-북) x 125m(동-서)가량의 공간을 둘러싸고 있다. 이 동-서를 연결 짓는 성벽 면에 세 개의 탑이 있으며 각각 할릴 파샤(Halil Paşa), 사루자 파샤(Saruca Paşa), 자아노스 파샤(Zağnos Paşa)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이 세 개의 탑은 7m 두께의 성벽을 연결하고 있다. 각 탑은 파티히 술탄



보스포러스 해협에서 바라본 루멜리 히사르

메흐메트가 세 명의 파샤에게 맡겼고, 그중 해변 가까이에 있는 탑의 경우 찬다를르 할릴 파샤 (Çandarlı Halil Paşa, 재직: 1439년~1453년)에게 맡겼다고 비잔틴 측 기록이 있다. 다만 다른 탑의 경우 어떤 파샤에게 맡겼는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채 붙여진 이름이다.

할릴 파샤 탑은 지름 23.30m, 높이 35.34m이다. 그 오른쪽의 사루자 파샤 탑의 지름은 23.80m, 높이는 21m이다. 왼쪽의 자아노스 파샤 탑은 지름 26.70m, 높이 21m이다. 이 세 탑 사이에는 13개의 작은 망루가 있는데, 그중에서 6개는 다각형, 6개는 원통형, 남은 하나는 사각형이다.

탑과 망루 사이 벽의 높이는 5m~10m 사이에서 변한다. 성벽의 두께는 적의 공격이 쉬운 곳에서는 5m, 산기슭에 위치한 부분은 3m 가량이다. 성벽 위에는 순찰할 수 있는 길이 나 있다. 성벽의 위치와 상황에 따라 평평하거나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성벽 동서남북면과 동쪽 외벽에 각각 하나의 목재 문이 있다. 남쪽 면의 문만 한 짝 문이고 나머지 문은 모두 두 짝문이다.

이스탄불 정복 이후 전략적인 중요성이 감소한 성은 감옥으로 사용되었다. 1509년 지진으로 일부 훼손되었고, 17세기 중엽에는 화재를 겪었다. 1789년~1801년에 수리되었고, 그 후 대대적인 수리는 1953년에야 이루어졌다. 이 수리 당시 성내에 존재하던 목재 가옥은 모두 철거되었고, 모스크가 있던 자리에 야외공연장을 건설하여 비판받기도 했다. 성은 현재 성채 박물관(Hisarlar Müzesi)으로 사용되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루멜리 성, 루멜리 성채
- 다국어 표기 Rumeli Hisari(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술탄 메흐메트 2세, 이스탄불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rl.kr/d7v4zg>
- 참고문헌(오프라인) Sünbüllük, Esat Sezai. Anadolu ve Rumeli Hisarları Tarihi, Istanbul:Onan Matbaası, 1953. Aslanapa, Oktay. Türk sanatı, Istanbul: Remzi Kitabevi, 2015. Avunduk, Abdullah Mehmet. "RUMELİHİSARİ", TDV İslâm Ansiklopedi Cilt 35, Istanbul, 2008, pp.237~240.

I A274 | 루스탐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작품 ● 유형 소분류2 희곡
- 집필자 오은경, Guzal Mihrayeva ● 라틴 문자 Rustam

희곡 『루스탐(Rustam)』은 우마르전 이스머일러프(Umarjon Ismoilov)의 두 번째 작품으로 1934년에 발표되었다. 4막으로 이루어진 「루스탐(Rustam)」은 상연 당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 작품은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기 직전, 투르키스탄에서 일어난 민족해방 운동의 전개 과정을 그렸다.

1916년 제정 러시아는 투르키스탄 청년들을 강제로 노동자로 끌고 간다. 이 사건은 투르키스탄 민족해방 운동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러시아로 끌려간 투르키스탄 청년들은 시베리아에서 소나무를 베며, 고된 삶을 이어간다. 추위, 배고픔, 병, 사고, 학대, 총에 맞거나 야생 동물의 먹

이가 되는 등의 이유로 사망한 노동자 수는 150명에 달하게 된다. 굶기야 이에 분노한 노동자들은 파업에 돌입하고, 반란을 일으킨다. 이후 고국으로 돌아온 투르키스탄 청년들은 지역 유지에게 억압을 받는다. 작품에는 투르키스탄 내 차르 관료들과 지역 유지의 사기, 악행, 자신들의 부를 늘리기 위해 그 어떤 일도 서슴지 않는 모습 등이 폭로된다. 고국에서 일어나는 이와 같은 불의를 참지 못한 투르키스탄 청년들이 불의에 반대하여 운동을 시작하는데 이런 장면이 작품에서 생생하게 묘사된다. 이 작품은 민족 해방, 성매매를 강요 당하는 여성, 착취당하는 서민의 고단한 삶 등 당대 여러 문제들을 다룬다.

작품의 주인공은 루스탐(Rustam)이라는 남성이며, 루스탐 이외에 30여명이 등장한다. 루스탐과 같이 러시아로 끌려간 투르군(Turgun), 폴라트(Po'lat), 러시아에서 루스탐과 같이 근무하는 투르키스탄 노동조합원 페트르프(Petrov), 매춘업소에서 일하는 20살 콤마트(Qimmat), 우스타(Usta)와 그의 딸 쿼르(Qumri) 등이다. 루스탐의 여동생 콤마트는 어릴 때 가난 때문에 매춘업소에 팔려간다. 어린 나이에 집을 떠난 루스탐은 여동생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으나, 콤마트가 매춘업소에 오게 된 경위를 듣고 자신의 동생임을 깨닫게 된다. 자신의 친오빠와 시간을 보낸 것을 알게 된 콤마트는 견디지 못하고 정신분열 증세를 보인다.

그리고 루스탐이 매춘업소에 방문한 날 밤, 커드르 오그르(Qodir og'ri)라는 인물이 루스탐의 일행 중 한 명을 살해한다. 때마침 평등, 월급 인상, 노동환경개선 등을 요구하며 여러모로 골치거리인 루스탐을 처리할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한 관료인 마요브스키(Mayovskiy)와 지역 유지들은 살인 사건을 루스탐이 한 것처럼 계락을 꾸민다. 그리고 루스탐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재판 한다. 그러나 페트르프를 비롯하여 우즈베크인들이 러시아인 군인들과 나타나 루스탐을 구출한다. 마요브스키는 도주하고, 나머지 악인들은 체포된다.

페트로프(Petrov)가 무대에서 올라가 “여러분, 이제 모든 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일도, 권력도, 행복도, 땅도, 공장도, 우리 것입니다. 해방, 자유 다 우리의 것입니다!” 라고 외치고, 희곡은 여러 사람들이 함께 “10월 혁명 만세! 자유여 만세!”를 복창하며 마무리된다.

「루스탐(Rustam)」은 운문 희곡이며 작품 일부는 주인공들의 독백으로 이루어진다. 관객들은 작품 속 주인공 대사 일부를 암송했으며, 특히 주인공 루스탐의 돈에 관한 독백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루스탐의 돈에 관한 독백 대사는 다음과 같다:

“Pul bo’lsa, pul berib bazm olasan,
 Pul bo’lsa, pul berib iymon olasan,
 Pul bo’lsa, pul berib vijdon olasan,
 Pul bo’lsa, pul berib qur’on olasan.
 Bazm - pul, vijdon - pul, xotinlar ham pul,
 Shariat, qosh-u ko’z, shirin so’z ham pul.
 Jonlar pul, tanlar pul, ko’kraklar ham pul,
 Hattoki muhabbat, yuraklar ham pul…
 Pul bo’lsa, pul uchun tizni cho’ksalar,
 Pul bo’lsa, pul uchun yerni o’psalar,
 Pul bo’lsa, pul uchun odamni so’yib
 Qonidan ko’chaga suvlar sepsalar.
 Ayting-chi, kim kuchli - xudomi yo pul?…

돈 있으면 돈으로 잔치도 베풀 수 있고
 돈 있으면 돈 주고 신앙도 살 수 있지
 돈 있으면 돈 주고 양심도 살 수 있고
 돈 있으면 돈 주고 코란도 살 수 있지
 잔치도 돈, 양심도 돈, 여자도 돈
 율법도 돈, 미모도 돈, 칭찬도 돈
 영혼도 돈, 몸뚱아리도 돈, 목숨도 돈
 사랑도, 마음도 모두모두 돈이라네
 돈이라면 사람들은 돈 앞에 무릎을 꿇겠지
 돈이라면 사람들은 땅에 입이라도 맞출 거야
 돈이라면 사람들은 사람도 죽인다지
 사람 피를 길바닥에 물 뿌리듯 뿌리겠지
 어이 당신 말 좀 해 보시오.

누가 더 셀 것 같소? 하나님이요? 돈이요?

- **다국어 표기** Rustam(우즈베크어), Рустам(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우마르전 이스머일러프
- **참고문헌(오프라인)** U. Ismoilov. 1959. P'esalar. Toshkent: O'zSSR Davlat badiiy adabiyot nashriyoti.
U. Ismoilov. 1975. Tanlangan asarlar she'rlar, proza, dramalar. Toshkent: Adabiyot va san'at.

I A275 | 룰루비

● 시기 B.C.~A.D. 10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아제르바이잔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국가 ● 유형 소분류2 왕조
● 집필자 최선아 (자문위원 : Əli Şamil) ● 라틴 문자 Lullubi dövləti

기원전 3000년~2500년에 아제르바이잔 남부의 우르미야 호수(Urmiya gölü) 남쪽에 룰루비 부족 연합(Lullubi tayfa ittifaqı)이 형성되었다. 기원전 23세기에 이 동맹은 룰루비 국가(Lulubi dövləti)로 전환되었다.

우라르투는 이웃인 룰루비를 룰루(lulu), 즉 '적국'이라고 불렀다. 수메르인들은 루-루-비(Lu-lu-bi) 형태로 기록했다. 수메르 문헌에서 '주인', '통치자'를 의미하는 'Be'가 'lullu'와 결합해 'lullubi'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카드의 나람시(Naramsi)의 암석 부조(碑文)에 룰루비에 대한 언급이 있다.

현재까지 전해 내려오는 룰루비들의 최초의 암석 부조는 기원전 23세기 것으로, 죄합 시(Zöhab şəhəri) 인근 사르풀(Sarıpul)에서 발견되었으며, 왕 아누바니(Anubani) 관한 정보가 남아 있다. 이 암석 부조에서 아누바니가 지배했던 영토가 상당히 넓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나람시의 암석 부조과 아누바니 암석 부조에 남은 그림에는 룰루비인들은 짧은 머리와 수염을 기른 모습이 그려져 있다. 룰루비인의 의복은 셔츠, 벨트, 한쪽 어깨에 걸쳐진 가죽으로 구성된다. 모자를 쓴 룰루비인의 벨트 아래 쪽에 칼이 있고, 다른 묘사에서는 도끼가 있기도 하다. 목에 구슬이 매달려 있고 머리에는 모자가 있다. 또한, 아누바니의 발에는 가벼운 슬리퍼가 선

명하게 보이며, 머리 위에 보이는 초승달이 있다.

다른 자료에서 룰루비인들의 왕 중 3명의 왕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은 사투니(Satuni, 재위: B.C. 2230년~B.C. 2200년), 임마스군(İmmaşqun, 재위: B.C. 2220년~B.C. 2170년) 및 아누바니(Anubani, 재위 : B.C. 2170년~B.C. 2150년)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루루비

● 다국어 표기 Lullubi dövləti(아제르바이잔어), Lullubiler(튀르키예어), Lullubi(영어), Луллубеи(러시아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en.wikipedia.org/wiki/Lullubi>

● 참고문헌(오프라인) Ağasioğlu Firidun. Qədim Türk Eli (Saqa-Qamər Boyları). Bakı, “Çıraq”, 2006, 128 S.

Ağasioğlu Firudin. Azərbaycan Türklərinin İslamaqədərki Tarixi. (Doqquz Bitik); 3-Cü Bitik: Azərbaycanda Qurulan Qədim Dövlətlər. Bakı, 2014, «Ağrıdağ» Nəşriyatı, 310 S.

Azərbaycan Tarixi. Yeddi Cildə. Birinci Cild (Ən Qədimdən – B.E. 3-Cü Əsr). Bakı. “Elm”. 2007. 520 Səh.

Bünyadov Ziya, Yusifov Yusif. Azərbaycan Tarixi, Bakı, 2006.

Qaşqay Solmaz. Qədim Azərbaycan Tarixi Mizi Yazılı Qaynaqlarda, Bakı 2006.

Qeybullayev Qiyasəddin. Azərbaycan Türklərini Təşəkkül Tarixindən, Bakı, 1994.

Mahmud İsmayıl. Azərbaycan Xalqının Yaranması. – Bakı, 1995.

Ömərov Vahid. Azərbaycan Dövlətçiliyi Tarixində Qədim Dövlətlər: Aratta Dövləti, “Səs” Qəzeti, 2012-Ci il, 10 iyul.

I A276 | 룸 셀주크

● 시기 A.D. 1000년~A.D. 15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국가 ● 유형 소분류2 왕조
● 집필자 이주연 ● 라틴 문자 Rum Seljuks

룸 셀주크(Rum Seljuks)는 오구즈 튀르크계 국가로 11세기에 중앙아시아 및 중동으로 이주하여 페르시아-튀르크 문화권을 장악했던 셀주크 튀르크 조의 분파로 아나톨리아에 자리했다. 셀주크 튀르크 조의 술탄 알프 아르슬란이 만지케르트에서 비잔틴 제국의 황제에게 승리를 거둔 후, 셀주크 튀르크 조의 창시자 토그릴의 친척이었던 쿠탈미시와 그의 네 아들이 아나톨리아에서 활약했고, 그중에 하나인 술레이만의 자손들이 이코니움(Iconium, 현재의 코니아)을 근거

로 하여 롬 셀주크 투르크를 세웠다. 어떤 역사가들은 셀주크 투르크의 술탄 말릭 샤가 1084년에 롬 지역을 술레이만에게 사여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토그릴에 대한 반란을 후원한 적이 있었던 쿠탈미시와 그의 후손들이 셀주크 투르크의 중앙 세력의 힘이 미치지 않는 변경이었던 아나톨리아 변경으로 가서 그곳에 지방정권을 세운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욱 적절할 것이다. 실제로 말릭 샤는 쿠탈미시의 또 다른 아들인 만수르를 살해했고, 술레이만 역시 1086년에 알레포의 통치권을 두고 벌어진 전투에서 살해되었다.

술레이만은 사망하기 전까지 당시 아나톨리아를 횡행하고 있던 여러 투르크멘 집단을 모아 내기 위해 아나톨리아반도의 서쪽 끝인 니케아(Nicaea, 현 이즈니크)까지 군대를 이끌고 나아갔다. 말릭 샤가 사망한 후, 술레이만의 아들 킬리치 아르슬란 1세는 셀주크 투르크의 중앙부에서 탈출하여 부친의 근거지였던 아나톨리아로 피신했고, 북서 아나톨리아의 여러 투르크멘 세력을 장악했다. 이 시기는 첫 번째 십자군이 유럽에서 조직되어 성지인 예루살렘을 향해 진격했던 11세기 말이었는데 그는 초반에 십자군의 선두를 이루었던 민중십자군을 격퇴했으나, 그 오탁지졸의 형태를 보고 큰 위협을 느끼지 못하여 1097년에는 가족들을 니케아에 머물도록 한 상태로 투르크멘 공국인 다니슈멘드와 전쟁을 위해 동쪽으로 떠났다. 이 틈을 타 십자군이 재차 니케아를 포위하여 함락시켰으며, 뒤늦게 킬리치가 되돌아왔으나 십자군에 패배했다. 다만 십자군은 내부의 의견 갈등으로 인해 별다른 조건 없이 킬리치의 가족들을 풀어주었으며, 아나톨리아의 서쪽 끝에는 십자군의 공국이 들어서게 되었다. 그러나 킬리치는 십자군의 성채를 제외한 서-중앙 아나톨리아를 차지했고, 코니아를 수도로 삼았다. 킬리치 이후의 군주들은 다니슈멘드 조를 압도했으며, 1176년에는 킬리치 아르슬란 2세가 비잔틴의 공격을 물리쳐 비잔틴의 아나톨리아 수복의 꿈을 좌절시켰다. 다만 1190년 킬리치 아르슬란 2세의 말년에 국가가 분열되면서 3차 십자군과 비잔틴의 프레데릭 바르바로사가 코니아를 장악하기도 했다.

4차 십자군이 본래의 취지를 잃고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했던 1204년에 롬 셀주크는 다시 세력을 회복했고, 더 나아가 남부 아나톨리아의 항구와 지중해로 세력을 확장했다. 이 지역을 획득함으로써 북쪽으로 흑해 무역과 더불어, 지중해를 통한 이집트, 이탈리아 상업 국가들과의 무역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무역의 성장을 바탕으로 13세기 초에 롬 셀주크의 경제적인 부흥이 이루어졌다. 롬 셀주크의 수도인 코니아는 시인이자 수피인 잘랄 앓 딘 루미(1207년~1273년)와 그의 종단 메블레비의 중심지인데, 잘랄 앓 딘 루미가 활약한 시기가 바로 롬 셀주크의 시기이

기도 하다. 아프가니스탄 발흐에서 몽골의 공격을 피해 이주한 그와 그의 가족에게 끈질기게 구애하여 그들을 코니아로 초빙한 인물이 룸 셀주크의 군주 알라 앓 딘 카이쿠바드였다. 그가 통치하던 시기는 룸 셀주크의 문화가 가장 번영했던 시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가 사망한 직후인 1240년에 발생한 다르비시 바바 이스하크의 반란과, 뒤이은 일 칸국의 공세로 인해 룸 셀주크는 시바스까지 후퇴하게 되었고 1277년 이후에는 일 칸국의 가신국이 되어 조공을 바치게 되었다. 화폐상의 증거로 볼 때 룸 셀주크 군주의 이름은 1303년까지 등장하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없었다. 일 칸국이 멸망했을 무렵 아나톨리아에는 수많은 투르크-투르크멘 공국(Beylik)들이 등장하고, 룸 셀주크의 세력은 사라지게 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아나톨리아 셀주크, 소아시아 셀주크
- 다국어 표기 Anadolu Selçukluları(튀르키예어), دولة سلجوق الروم(아랍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C. E. Bosworth, The new Islamic dynasties: A chronological and genealogical manual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Ltd, 1996, pp.352~355.
R. E. Darley-Doran, "SALDJUKIDS," Encyclopaedia of Islam 8 (Leiden: Brill, 1995, pp.936~978.

I A277 | 뤼스뎀 파샤 모스크

● 시기 A.D. 1500년 ~ A.D. 18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건축 ● 유형 소분류2 모스크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Rüstem Paşa Mosque

뤼스뎀 파샤 모스크는 쉴레이만 1세(I. Süleyman, 재위: 1520년~1566년) 시대에 건축가 미마르 시난이 당대의 재상이었던 다마트 뤼스뎀 파샤(Damat Rüstem Paşa, 1500년~1561년)의 명으로 건설한 모스크이다. 비문이 없어 정확한 건축 연도는 알 수 없으나 현재 남아 있는 와크프 기록에 따라 1561년 건설을 시작하여 1562년경에 완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660년에 화재를 겪고 1766년 지진으로 인하여 심한 훼손을 입기도 했으나 대부분 당대에 곧바로 수리 및 복구공사를 했다. 1960년~1961년의 수리 시 팔각 버팀대 위의 19세기 바로크풍의 창문



뤼스뎀 파샤 모스크 미흐랍과 민바르

이 추가되기도 했으며 1964년~1969년 대대적인 수리를 거쳐 지금도 모스크로 사용 중이며 일반에게 공개되어 있다.

건물은 대리석, 장식은 타일로 주로 사용한 뤼스뎀 파샤 모스크는 직사각형 플랜으로 건설된 2층 건물로, 1층은 볼트로 덮여 있는 창고이고 동쪽과 서쪽에 나 있는 두 개의 계단을 통해 올라갈 수 있는 2층이 모스크이다. 1층의 전면부는 북서쪽에 위치해 있으며 9개의 아치가 있는 동시에 창고와 연결된 아케이드로 이루어져 있다. 이 아홉 개의 아치는 외부로는 9개의 상점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 아케이드 옆에는 2층으로 연결하는 계단이 있는 탑이 있다.

2층으로 올라와 보이는 2층은 외부가 바로 보이는 포치가 있으며, 본 모스크는 내원이 없는 형태의 모스크이다. 포치는 5개의 돔이 있는 주랑 현관과 연결되어 있다. 모스크의 주 출입구는 이 5개의 돔 아래 있는 주랑 현관을 통해 들어갈 수 있다.

기도 공간은 지름 15m, 높이 22.7m의 돔으로 덮여 있으며 이 돔은 드럼 위에 있다. 기도 공간은 26.8m x 19.6m의 직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팔각형의 기둥 8개가 드럼을 지지하고 있

으며, 기둥 중 4개는 벽 안에, 나머지 4개는 벽 바깥으로 드러난 형태로 존재한다. 이 기둥은 다시 반원형의 아치를 통해 연결되어 있다. 메인돔의 스퀴치치는 원통형 드럼과 팔각형 기둥 사이에 있으며 무카르나스 형태의 팬더티프를 통해 돔의 하중을 받는다. 미흐랍은 무카르나스가 있는 세미 돔으로 덮여 있다. 미너렛은 기도실 서쪽 모서리에 있다.

외부에서는 양 주랑의 작은 볼트가 낮은 곳에 있고 돔은 높은 드럼 위로 솟아있어 돔이 유독 돋보인다. 8개의 드럼과 볼트로 돔을 받치고 있다. 드럼 몰딩의 상단부 위, 둥근 아치가 있는 창문은 고전적인 투르크 건축에 있어서는 외래적인 요소라 할 수 있으며 앞서 언급한 1960년대에 추가된 바로크 양식이다.

뤼스탐 파샤 모스크는 무엇보다 타일 장식으로 유명하다. 외부는 대리석으로 단순하고 장식성이 거의 없어 보이지만, 주랑 현관에서부터 내부까지 빼곡히 장식한 이즈니크 타일은 이 단순성을 반전시킨다. 천장과 거의 모든 벽면, 미흐랍, 마흐필, 기둥, 아치 주변까지 모두 타일로 덮여 있으며 문양 역시 다양하고 풍부하다. 이 모스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튜립 문양도 41개에 달하는 다양한 형식으로 표현되었다.

이외에도 돔을 지지하는 아치는 붉은색과 흰색 석재를 교차로 배치하여 화려함을 배가시켰고 술루스 서체 장식의 메달이 현관 아치 사이사이에 장식되어 있다.

본 모스크는 미마르 시난의 8개의 지지대가 있는 돔이라는 건축적 실험이 실현된 모스크이자 오스만 건축사에서 가장 화려하고 풍부한 타일 장식이 사용된 모스크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루스탐 파샤 모스크, 루스탐 파샤 자미, 뤼스탐 파샤 자미
- 다국어 표기 Rüstem Paşa Camii(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미마르 시난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khanacademy.org/humanities/art-islam/islamic-art-late-period/v/rustem-pasha>
- 참고문헌(온라인) <http://archnet.org/sites/2017>
- 참고문헌(오프라인) Aslanapa, Oktay. Mimar Sinan, Ankara: Türk Tarih Kurumu Basımevi, 1992.
Godfrey. Goodwin, A History of Ottoman Architecture. London: Thames and Hudson, 1997.
Necipoğlu, Gülru. The Age of Sinan: Architectural Culture in the Ottoman Empire, London: Reaktion Books, 2005.

I A278 | 르파트 엘가즈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Metin Turan) ● 라틴 문자 Rifat Ilgaz

르파트 엘가즈(Rifat Ilgaz)라는 필명을 사용했던 작가 메흐메트 르파트(Mehmet Rifat)는 1911년 5월 7일 카스타모누 지데에서 태어났다. 또래보다 초등학교에 일찍 들어간 그는 초등학교 6년 과정 중 5년을 지데에서, 마지막 1년을 테르메에서 다녔다. 중학교는 누나가 있는 카스타모누에 입학했다. 어린 시절은 제1차 세계 대전과



르파트 엘가즈

Source: <https://www.aa.com.tr/>

독립 전쟁이 일어나 가난에 시달리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1928년 17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를 잃었고 어려운 형편에 학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카스타모누 사범기숙학교로 진학해야 했다. 메흐메트 르파트는 1930년 사범학교를 졸업한 뒤 볼루에서 교직 생활을 시작했다. 1936년 앙카라 가지 교육대학원에 입학해 1938년에 졸업했고, 아다파자르 지역에 튀르키예어 교사로 발령을 받았다. 이때 그는 결핵에 걸려 이스탄불 야카즈 요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결핵은 평생 그를 괴롭히게 된다. 이 무렵 제2차 세계 대전이 발발해 경제적 어려움은 배가 되었고, 병세도 더욱 악화됐다. 메흐메트 르파트는 치료를 위해 이스탄불로 전근 가길 원했는데, 처음에는 카라귤뤼크 중학교, 후에는 니산타쉬 중학교로 발령받았다. 카라귤뤼크 중학교에서 근무할 때 동료로 만난 리카트와 재혼했다.

1943년 첫 시집 『우정(Yarenlik)』이 출판되었고, 1944년에 시집 『교실(Sınıf)』이 나왔다. 그는 1944년 8월 10일 이 시집 때문에 체포되었다. 시집에서 아무 위법적 요소를 찾을 수 없었음에도 그는 6개월 동안 감옥에 수감됐다. 출소 후에는 직장도, 건강을 잃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그는 이에 굴하지 않고, 열정을 갖고 이스탄불대학교 철학과에 등록했다. 르파트 엘가즈는 이

모든 과정을 소설 『노란색 두건(Sarı Yazma)』에 녹여냈다. 1948년에 출판된 시집 『살아갈수록 (Yaşadıkça)』은 사바하딘 알리의 『유리 저택(Sırça Köşk)』과 함께 금서로 지정됐다. 이 시련은 결혼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고, 이미 자녀를 둘이나 두었지만 결국 리카트와 1949년에 이혼하고 말았다. 당국에서 시집을 압수한 이후로 르파트 을가즈는 산문작가로 변신했다.

교직 생활을 그만둔 르파트 을가즈는 신문 편집이나 야간 당직 일로 생계를 이어가며 글을 썼다. 1942년 당시 40대였던 압뿔 카디르(A. Kadir), 외메르 파루크 토프라크(Ömer Faruk Toprak)과 함께 문예지 <행군(Yürüyüş)>를 창간했다.

냉전 시대인 1940년대 튀르키예는 단일정당 체제였고, 민주적 권리를 제한하던 시대였다. 르파트 을가즈와 튀르키예 문학에서 큰 역할을 했던 사바하딘 알리, 아지즈 네신은 이런 비민주적인 상황에 글로 저항하며 민주화 투쟁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 전체주의 체제는 신문을 압수하거나, 작가들을 체포하고 구금하는 행위를 일삼았다. 이 시기 사바하딘 알리는 결국 살해를 당하고 말았다. 르파트 을가즈는 사바하딘 알리와 아지즈 네신과 함께 <마르코 파샤(Marko Paşa)>, <말롬 파샤(Malum Paşa)>, <메르훔 파샤(Merhum Paşa)>와 같은 풍자신문을 연이어 발행했다. 그리고 사바하딘 알리와는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Ali Baba Kirk Haramiler)』을 펴냈다. 이 외에도 <휴르 마르코 파샤(Hür Marko Paşa)>와 <아DEM 바바(Adem Baba)>라는 풍자신문을 혼자 발간하기도 했다.

1971년에는 메틴 일킨(Metin İlkin)이 창간한 문예지 <미래(Gelecek)>에 참여했는데, 에르쥬멘트 베흐자트 라브(Ercüment Behzat Lav), 압뿔 카디르(A. Kadir), 파히르 원게르(Fahir Önger), 하산 휘세인(Hasan Hüseyin), 베드레틴 쇠메르트(Bedrettin Cömert), 아슴 베지르지(Asım Bezirci), 테킨 쇠메즈(Tekin Sönmez) 등 여러 지식인들이 함께 했다. 6권만 발행된 이 잡지는 계엄령으로 폐간되고 말았다. 끊임없이 일을 구하고 출판을 노력한 르파트 을가즈는 1959년에는 동료들과 <철도역(Gar) 출판사>, 1971년에 <계급(Sınıf) 출판사>를 설립해 작품 출판을 이어 나갔다.

1975년에는 이스탄불에서 고향 지데로 이주했다. 지데에 머물면서 1981년까지는 <지데 포스타스(Cide Postası)>와 <바르튼(Bartın)> 같은 지역신문에 칼럼을 썼다. 1980년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고, 르파트 을가즈는 다시 체포됐다.

신문 <국민(Ulus)>의 예술면 부록에 그의 시 귀절 중 ‘균열이 생긴 상자, 끊어오르는 용기 그

리고 비상하는 새'라는 문구가 실렸다. 여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는 초반에 상징주의에 매료됐으며, 보들레르(Baudelaire), 베를렌(Verlaine), 파룩 나프즈(Faruk Nafiz), 아흐메트 쿠트시(Ahmet Kutsi), 네집 파즐(Necip Fazıl), 아흐메트 무히프(Ahmet Muhip), 할리트 파흐리(Halit Fahri) 같은 시인에게 영향을 받았다. 모든 예술가가 그렇듯이 처음에는 자신이 꿈꾸는 롤모델을 찾아내 그들의 예술을 참고했고, 이후 자신만의 색깔을 만들어 갔다. 다시 말하면, 을가즈는 초반에는 상징주의자들의 시에 사로잡혀 예술적인 문체를 선호했다. 그리고 교직에 있을 때까지는 이런 형태로 시를 지었다. 그러나 르파트 을가즈가 1939년 이스탄불로 이주해 오면서 그의 예술관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다. 제2차 세계 대전이 초래한 비극과 노동자들의 현실을 깨달으면서 이제 문학도 삶의 현장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믿게 된 것이다. 을가즈는 사회주의자 관점으로 빈곤층 편이 되어 그들을 위한 글을 썼다.

대부분의 소설과 단편소설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숨겼던 르파트 을가즈는 「문제아 교실(Hababam Sınıfı, 1957)」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을 드러냈다. 희곡 「압바스 길을 가는(Abbas Yola giden)」 외에도 「문제아반(班)은 방학(Hababam Sınıfı Tatilde, 1971)」, 「문제아반(班)의 진급 실패(Hababam Sınıfı Sınıfta Kaldı, 1971)」, 「제압당한 문제아반(班)(Hababam Sınıfı Baskında, 1972)」, 「문제아반(班)이 각성하다(Hababam Sınıfı Uyanıyor)」 등의 작품은 소설 「문제아 교실」을 각색해서 만들어진 극본이다. 「문제아 교실」, 「우리 병동(파자마 입은 사람들)」, 「메쉬루티예트의 북카페」 같은 단편소설에는 해학이 담겨있다. 을가즈는 “해학으로 독자들을 마취시켜 진정시키는 것이 아니다. 독자들이 각성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비평가 뢰레크(Dölek)는 “이러한 해학은 불미스러운 사건,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 다양한 관점을 가진 이들에게 긍정적이고 이롭고 올바른 행동과 건전한 행동이 무엇인지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르파트 을가즈는 해학으로 웃으며 걱정거리를 내려놓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흔한 걱정거리 중 하나라도 경고하기 위해 예술적으로 표현했다. 그는 절대 무례하지 않았고, 웃음을 던지거나 웃기기 위해 피를 부리지 않았다. 을가즈의 작품은 유머러스하지만, 더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들고 질문을 하게 했다.

르파트 을가즈는 투사였다. 한평생 예술의 길에서 글로 투쟁하며 살았다. 작품을 보면 그는 모든 인류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유토피아를 꿈꾸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희곡, 시, 단편소설, 회고, 칼럼, 소설에서 많은 작품을 남긴 을가즈의 대표작은 『레이더 탐지

기의 열쇠(1957)』, 『돈키호테 이스탄불에(1957)』, 『우리 병동(1959)』, 『혈레벌떡(1962)』, 『이 거 끊어야 해(1962)』, 『옛날 면도기들 어디에 있나(1962)』, 『장인 세브케트의 고양이(1965)』, 『메쉬루티예트의 북카페(1974)』, 『불 꺼진 밤(1974)』, 『흙에서 시멘트로(1976)』, 『노란색 두건(1976)』, 『언덕 위(1982)』, 『Cart Curt(1984)』, 『우리 어디서 멈추었지(1984)』, 『문제적 교실 안에서(1987)』 등이다.

1993년 7월 2일 시바스에서 좌파와 알레비 지식인들 37명이 불에 타 죽는 참사가 발생했다. 좌파 성향 작가 아지즈 네신을 겨냥했다고는 하지만 보수 이슬람주의자들의 계획된 학살인지, 지방정부의 의도가 개입된 것인지 아직 그 진상이 규명되지 않았다. 이 사건으로 그와 매우 가까운 친구였던 아슴 베키르지(Asım Bezirci)도 목숨을 잃었다. 당시 연로했던 르파트 엘가즈는 이 사건에 대한 아픔을 견디지 못하고 1993년 7월 7일 생을 마감했다. 무덤은 이스탄불 진 지르릭쿠유 묘지에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르파트 엘가즈
- 다국어 표기 RIFAT ILGAZ(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사바하틴 알리, 아지즈 네신, 이스탄불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rl.kr/piuc1v>
- 참고문헌(오프라인) Aşkı, Oya. Rifat Ilgaz'ın Sarı Yazma ve Karartma Geceleri Adlı Romanlarında 1940'ların Eğitim_Öğretim ve Aydın Yaşayışını Yansıtan Anlam Birimleri, 19 Mayıs Üniversitesi Sosyal Bilimler Enstitüsü Yayınlanmamış Yüksek Lisans Tezi. Samsun 2005.
- Bezirci, Asım. Rifat Ilgaz, ÇınarYayınları, İstanbul 1992.
- Dölek, Sulhi. “Çalış Usta, Yarınlar Senin!”, Varlık, S.979, İstanbul 1991.
- Hazer, Gülsemin. Rifat Ilgaz'ın Romanları Üzerine Bir İnceleme, Milli Eğitim Bakanlığı Yayınları, Ankara 2010.
- Kabacalı, Alpay. Edebiyatımızın Koca Çınarı Rifat Ilgaz, Tüm FuarcılıkYapım A.Ş. Yayınları, İstanbul 1993.
- Saydur, Mehmet. Dünden Bugüne Rifat Ilgaz, ÇınarYayınları, İstanbul 1998.

I A279 | 리드완 베이

● 시기 A.D. 1500년~A.D. 18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이집트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통치자
● 작성자 송경근 ● 라틴 문자 Ridwan Bey

1517년 오스만 제국이 맘루크국을 정복한 후에 이집트는 오스만 제국의 술탄이 임명한 주지사 총독이 지배했다. 이집트는 제국의 한 개 주로서 14개 지방으로 나뉘어 맘루크 베이 또는 쉐이크 알-발라드들이 통치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총독은 점점 유명무실 해졌으며, 이집트는 맘루크들이 다시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되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맘루크의 제1인자가 실질적 이집트 지배자가 되었으며, 카이로의 맘루크 베이가 그 역할을 했다. 총독은 맘루크들이 반대하면 그 날로 짐을 싸 이집트를 떠나야 할 정도였다. 총독은 사실상 맘루크 베이들이 마음대로 조종하는 정치 포로였다. 총독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이집트를 자신 마음대로 주물렀던 맘루크 베이들 중에 거의 절대지배자와 같은 인물은 리드완 베이였다. 그는 1631년부터 1656년까지 이집트를 지배했으며, 그의 흔적을 카이로 곳곳에 남겨놓았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리드완 베이 시장이다. 리드완 베이는 1631년부터 1656년까지라는 전례 없이 긴 시간 동안, 하지 순례 책임자(Amir al-Hajji) 자리를 맡았다. 이 자리는 연례 메카 순례를 책임지는 직책으로, 종교적으로는 물론이고 정치적인 영향력이 커서 이집트의 지배권을 지키는 데 있어 중요한 자리였다. 1647년 이 자리를 놓고 맘루크 파벌간에 큰 충돌이 벌어졌다. 여기서 리드완 베이는 이집트 남부 지방 통치자인 알리 베이의 지지와 지략에 의지하여 반대파인 칸수 베이와 마마이 베이를 제거하고, 그들을 지지하는 오스만 총독이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게 만들었다. 총독 예니체리들은 총독 명령을 거부했고, 때문에 총독의 권위는 크게 추락했다. 리드완 베이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파벌인 파가르파를 강력한 세력이 되게 만들었으며, 자신이 이슬람의 예언자 무함마드의 부족인 쿠라이쉬족 출신이라고 거짓말까지 했다. 리드완 베이는 평생 자신의 권력을 유지했다.

리드완 베이가 사망한 후에 오스만 제국 총독이 일시적으로 권력을 어느 정도 회복하고, 오스만 제국 주둔군도 그 권위를 내세울 수 있었다. 주요 도시에 주둔하던 오스만 주둔군 예니체리들은 상공인과 교류하면서 현지화 되었다. 농촌에 있던 맘루크들은 농민들을 수탈하면서도 군

인계급을 그대로 유지했다. 각종 행정업무에 종사하던 맘루크들은 1798년 나폴레옹이 이집트를 침입할 때까지 실질적 이집트의 지배자의 위치를 지켰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리드완 베이 알-파카리

● 다국어 표기 رضوان باي الفقارى(아랍어), Ridvan paşa(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맘루크

● 참고문헌(오프라인) 송경근 2000, 「이집트 맘루크 조에 대한 연구」, 『한국이슬람학회논총』 10, pp.27~28.

최준석 2009, 『함두릴라, 알카히라』 메디치, pp.246~248.

Nezar al-Said, Cairo, Histories of a City, Belknap Havard : 2011, p.158.

Vatikiotis, P.J., The History of Egypt, Weidenfeld and Nicolson: London: 1985, p. 22.

I A280 | 리바

● 시기 기타 ● 지역 기타 ● 나라 기타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이슬람 ● 유형 소분류2 법
● 집필자 박현도 ● 라틴 문자 Riba

리바는 아랍어 ‘리바’에서 차용한 단어다. 아랍어에서 ‘리바’는 ‘증가’라는 의미인데 이슬람교의 용어로 ‘고리대금, 이자’를 뜻한다. 튀르크 문화권 언어는 예외 없이 모두 이러한 아랍어의 리바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이슬람교에서는 이자가 붙는 대출행위를 금하지만, 다소의 위험이 따르는 투자로 얻은 소득은 이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식투자를 허용한다. 코란은 2장 275절에서 리바를 금지한다. 코란은 이자를 금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때 이자가 생기는지는 언급하지 않는다. 무슬림은 이자의 범위를 하디스에 근거를 두고 확정한다. 하디스에는 금, 은, 밀, 보리, 대추야자, 건포도를 동량으로 동일한 시간에 교환하지 않으면 양과 시간차에 따라 이자가 발생한다는 구절이 있다. 이에 따라 각 학파는 이자에 관련한 법적인 해석을 했다. 샤피이 법학파와 한발리 법학파는 모든 음식물, 말리키 법학파는 저장이 가능한 음식물, 하나피 법학파는 무게나 양으로 재서 팔 수 있는 모든 물건을 각각 이자 발생의 대상으로 여겼다. 튀르크 문화권은 하나피 법학파가 주류를 이룬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리바, 리바흐
- 다국어 표기 ribah(아랍어), Ribo(우즈베크어), Riba(아제르바이잔어), Рибa(카자흐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dNhAa23V9rg><https://www.youtube.com/watch?v=XnmfjekJgmU>
- 참고문헌(오프라인) Coulson, M. A. A History of Islamic Law. Edinburgh: The University Press, 1978.
Hallaq, Wael B. An Introduction to Islamic Law.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I A281 | 리바트

- 시기 기타 ● 지역 기타 ● 나라 서아시아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이슬람 ● 유형 소분류2 건축물
- 작성자 최선아 ● 라틴 문자 Ribat

리바트(رِبَات)는 군사적 방어와 경계를 목적으로 세운 건물로 코란에서는 ‘성전(聖戰)을 목적으로 묶어 기른 말’이라는 문장에서 사용되거나 ‘성전을 위해 준비하라’라는 형식 등에서 사용된다. 이외에도 하디스에서도 말이나 경계 업무를 이야기할 때 등장한다.

초기에는 말을 묶어 기르고 군병들이 머물 수 있는 단순한 천막 형태였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건물로 규모를 갖추게 된다. 비잔틴 제국과 맞섰던 시리아와 북아프리카 연안에 건설되기 시작했다. 성벽 밖에 군사용 건물을 세워 활용했다. 이후 우마이야 조에서 시리아와 이라크 북쪽에서 리바트의 성격이 있는 건물을 세웠으며, 북아프리카 정복 후에는 지중해 연안에 건설하게 되었다.

압바스 조에서도 역시 북아프리카 연안에 많은 수의 리바트를 건설했다. 팔레스타인 연안에도 리바트가 건설되었는데, 이곳의 리바트는 무슬림 포로들을 구출하기 위해 건설되었다. 안달루시아 동쪽과 남동쪽 연안에 건설된 리바트는 안달루시아 우마이야 조가 노르만인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 건설되었다.

중앙아시아의 메르브, 부하라, 사마르칸트에도 리바트가 건설되었는데, 부하라의 일부 리바트 주변에는 초기 이슬람 군대의 군인 무덤이 발굴되기도 했다. 압바스 시대에는 국경을 따라

리바트를 건설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호라산과 트란스옥시아나 지역에 리바트의 흔적이 남아 있다. 사만 조나 가즈나 조 시대에도 역시 리바트는 계속 건설되었다. 가즈나 조를 시작으로 이슬람 투르크 국가들에도 리바트가 건설된다.

리바트의 대부분은 국가 고위직 인물에 의해 지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며, 주로 높은 곳에 건설되고, 두껍고 단단한 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리바트는 무기 및 보급품 창고, 마구간, 병사들을 위한 방, 모스크, 목욕탕 등을 포함했다. 일부 리바트의 경우에는 단순히 국경선 형태로 건설되기도 했다. 이 리바트 중 일부는 도시로 변모하기도 했으나 기본적인 기능은 잃지 않았다. 리바트에서는 군사 훈련, 예배 및 학문 활동, 종교 활동이 이루어졌으며, 전시에는 대피소로 사용되었다.

이란 지역과 트란스옥시아나 지역의 리바트들은 9세기부터 군사적 성격은 차츰 잃고 종교적 성격을 얻으며 수피 교단의 활동 장소가 되었다. 일종의 텍케(Tekke:수피 종단의 예배소)가 되어 기도와 수행의 장소가 되었다 그럼에도 군사적 기능은 어느 정도 유지하여 수피 수도승(dervish)들은 이교도와 전쟁 시 군인으로서 활동하게 된다. 11세기 이후부터 리바트는 수피 교단의 예배 장소이자 숙소인 텍케 또는 칸카(khanqah)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한편, 리바트 중 무역로 상에 건설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이슬람화가 완료된 후, 즉, 성전의 위험성이 축소된 이후에는 대상 숙소로 변화하게 된다. 대표적인 예로 리바티 마히(Ribat-i Mahi)가 있다. 아나톨리아 셀주크 조나 일 칸국 등에서는 '리바트'를 이름으로 사용하는 많은 대상 숙소가 건설되기도 했다.

헤자즈, 이라크, 이집트, 시리아, 팔레스타인 등지에서도 리바트의 성격은 변화하여 수피 교단의 숙소나 순례자나 가난한 여행자들이 사용하는 숙박 시설이 되었다. 메카, 카이로, 바그다드, 다마스쿠스 같은 대도시에는 여성을 위한 리바트나 여성 수피 수도승을 위한 리바트가 존재하기도 했다.

안달루시아 지역의 경우에는 기독교인들과 전투가 지속된 연유로 군사적 성격이 더 오래 유지되었다. 그러나 11세기 이후에는 이 지역에도 수피즘이 유행하며 일부 리바트가 수피 종단의 모임 장소로 변모하게 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리밧, 라버트

● 다국어 표기 Ribat(튀르키예어), Rabot(우즈베크어), Рибат(카자흐어), Ribat(투르크멘어), Ribat(아제르바이잔어)

● 연관 검색어 텍케, 데르비쉬

● 참고문헌(오프라인) Yiğit, İsmail. “Ribât”, TDV İslâm Ansiklopedisi cilt 35, İstanbul: TDV, 2008, pp.76~79.

Khalilieh, Hassan S. “The Ribât System and its Role in Coastal Navigation”, Journal of the Economic and Social History of the Orient XLII/2 1999, pp.212~225.

I A282 | 리바티 마히

● 시기 AD. 1000년~AD. 15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이란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건축 ● 유형 소분류2 대상 숙소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Ribat-i Mahi

리바티 마히는 가즈나 조의 술탄 마흐무드(Sultan Mahmud, 재위: 998년~1030년)가 1019년~1020년에 건축한 것으로 추정된다. 투스 세라스(Tus Serahs)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다. ‘리바트(Ribat)’는 군사적 요새 역할을 겸하는 대상 숙소를 의미하는데, 리바티 마히는 ‘리바트 체헤(Ribat Chehe)’라고도 불린다.

이 지역에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피르다우시(Ferdowsi, 935년~1020년)가 『샤흐나메』를 술탄 마흐무드에게 바쳤으나 보상을 받지 못한 채 도시를 떠나게 된다. 술탄은 피르다우시가 아프다는 것을 알고 선물과 돈을 보냈으나, 그는 돈을 받기 전에 사망한다. 술탄 마흐무드는 이 돈을 아부바크르 무함마드 빈 이쉬학크 케라미(Abu Bekr Muhammed bin Ishak-ı Kerrami)에게 보내 리바티 공사를 하도록 명한다.

주재료가 벽돌인 리바티 마히는 마쉬하드(Mashad)에서 100km 정도 동쪽에 자리 잡고 있으며 4개의 이완과 중정이 있는 형식이다. 크기는 70.68 x 71.92m이다. 벽돌을 이용한 장식과 네 개의 이완과 중정 형태를 보아 카라한 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완의 아치의 안쪽과 옆벽은 기하학 문양과 기하학 문양이 만들어 낸 공간을 팔메트 문양과 루미 문양이 양각으로 장식되어 있다. 이완을 둘러싼 벽돌과 꽃문양이 있는 비문 부분은 가즈나 조의 형식이다. 이런 형식은 후대의 대 셀주크 조의 건축에 영향을 주게 된다. 건물 내부에는 테라코타로 장식되

어 있다.

건물의 전면부는 앞으로 조금 돌출되어 있으며 정면 양옆의 벽은 벽돌로 섬세하게 장식되어 있다. 건물의 각 모서리에는 탑이 있고 각 벽에는 중정의 네 방향으로 뻗은 이완들이 있으며, 전면부 겹벽 중앙에는 큰 이완이 있다. 입구 이완을 제외하고는 각 이완 뒤로는 작은 돔이 있는 방이 있었다. 작은 이완의 뒤에는 반 원통형의 천장으로 덮인 긴 직사각형의 공간이 존재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리바트 마히
- 다국어 표기 Ribat-i Mahi(페르시아어), Ribat-ı Mahi(튀르키예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ikolsoftware.com/public/resized/high/image_data/original/570572df50d16d10a291454551d3e9b155b7ce4c/5800d011af20c.jpg
- 참고문헌(온라인) <https://archnet.org/sites/3861>
- 참고문헌(오프라인) Cezar, Mustafa. Anadolu Öncesi Türklerde Şehir ve mimarlık, Ankara: İş Banka, 1977.

I A283 | 리바티 샤라프

● 시기 A.D. 1000년~A.D. 15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이란 ● 유형 예술 ● 유형소분류1 건축 ● 유형소분류2 대상속소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Ribat-i Sharaf

리바티 샤라프는 셀주크 조의 중요한 건축물 중 하나로 호라산 길을 지나가는 사락스 근처에 위치해 있다. 트란스옥시아나 지역의 무역로 위에는 카라한 칸국, 가즈나 조와 셀주크 조 사람들이 대상 속소를 건설했고, 호라산에서 이란 북부로 뻗은 길의 경우 셀주크 제국이 대상 속소를 건설했다. 그중 하나가 이 리바티 샤라프이다. 1114년~1115년도에 말리크 샤(Malik-Shah I, 재위: 1072년~1092년)의 아들인 알프 아슬란(Alp Arslan, 재위: 1063년~1072년)의 명으로 지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술탄 산자르(Sultan Sanjar, 재위: 1097년~1118년) 시대 말기 오우즈족의 반란으로 메르브의 수많은 건축물이 파괴되었는데, 이 리바트 쉐리프도 이때 파괴되었다. 술탄 산자르의 아내 투르칸 하툰(Turkan Khatun, ?~1156년)의 명으로 1154년~1155년도

에 복구공사가 이루어졌다.

주재료는 벽돌인 리바티 샤라프는 두 개의 중정이 있는 건물로, 평면도는 직사각형을 이루고 있으며, 방과 이완 및 그 외 공간은 완전한 평행을 이루고 있다. 이는 11세기~12세기 중앙아시아의 투르크 건축물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리바트’는 일반적인 대상 숙소에 군사 방어 기능까지 추가된 곳을 주로 이르는 말이다. 즉, 본 대상 숙소에도 방어를 위하여 출입문은 하나이며 건물의 벽은 모두 두껍고 각 네 모서리에 망루 역할을 할 수 있는 탑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입구에서 들어서 보이는 첫 번째 중정 주변은 삼면 그리고 두 번째 중정은 사면이 아케이드로 둘러싸여 있다. 또한 두 번째 중정의 뒤편에는 네 개의 이완이 있다. 이완의 윗부분은 쿠픽 서체의 장식 띠로 둘러싸여 있고 역시 쿠픽 서체의 현판이 존재한다. 이완의 내부는 스투코 장식과 석고 양각으로 꽃이 있는 슬루스 서체의 현판이 있다. 리바트 샤리프의 지붕은 돔과 볼트로 이루어져 있다. 돔은 트롬프로 지지하고 있고 다양한 종류의 볼트가 존재한다. 내부 장식은 벽돌뿐만 아니라 석고, 석고를 흉내 낸 벽돌, 벽돌과 석고의 혼합, 테라코타 등 풍부한 장식재료가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벽돌 장식은 카라한 칸국의 부하라와 우즈베크의 11세기 초 장식과 유사하다. 석고 장식의 경우는 테르메즈 궁전의 장식 즉 11세기~12세기 투르크족이 자주 이용했던 원, 구부러진 가지, 양식화된 식물 문양이 이곳에서도 관찰된다. 서체 장식은 기본적으로 쿠픽 서체를 이용했으며 이 서체 장식 빈 부분에도 글자와 연결된 듯한 식물 문양 등 다양한 장식을 했다. 석고 장식은 투르크칸 하툼 시절에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로바트 샤리프, 리바트 샤리프 카라반사라이, 리바트 셰리프

● 다국어 표기 Robot Shraf(페르시아어), Ribat-ı Şerif(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셀주크, 호라산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a/a5/Sharaf-1.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Aslanapa, Oktay. Türk sanatı, İstanbul: Remzi Kitabevi, 2015.

Hillenbrand, Robert. Islamic Architecture: Form, Function and Meaning,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00.

Cezar, Mustafa. Anadolu Öncesi Türklerde Şehir ve mimarlık, Ankara: İş Banka, 1977.

I A284 | 리파이 종단

- 시기 A.D. 1000년 ~ A.D. 15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이라크, 이집트, 튀르키예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이슬람 ● 유형 소분류2 종파
- 집필자 이주연 ● 라틴 문자 Rifai Order

리파이 종단은 수피즘이 종단화 되던 무렵인 12세기~15세기 사이에 크게 성행했던 수피 종단 중 하나이다. 이 종단의 창시자인 아흐마드 리파이(Ahmad al-Rifāʿī)는 1106년경에 바스라와 와시트 사이에 위치한 습한 저지대 출신이다. 그는 신학(Fiqh)이나 수피즘(Taṣawwuf)을 많이 배운 지식인은 아니었다. 또, 글로 자신의 사상을 남기기보다는 마술을 행하고 기적을 행사하는 수피였는데, 그가 생존했던 12세기 당시,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았다. 13세기의 이슬람 사피이 법학파 학자인 이븐 할리칸은 주요 무슬림 학자와 인물들에 관해 다룬 백과사전식 저서 『중요한 이의 죽음과 시대의 아들들의 역사(Wafayāt al-Aʿyān wa Anbāʾ abnāʾ al-Zamān, 1256)』에서 그를 추종하던 데르비시들이 사자를 타거나, 생 뱀을 먹거나, 뜨거운 코일 위를 걷는 등 기행을 행하는 것을 기록했는데, 이를 통해 리파이 종단의 성격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독특한 점은 14세기의 무슬림 여행가 이븐 바투타의 기록에도 보이는데, 이븐바투타는 아흐마드 리파이가 사망한 후 움무 우바이다(Umm ʿUbayda) 지역에 세워져 있는 리파이의 영묘를 방문했을 때, 많은 군중이 불 위를 걷거나 불을 삼키는 등의 기행을 행하고 있다고 기록했다.

리파이 종단은 12세기~13세기에 이집트를 통해 스페인으로 확산되었다. 이 당시 이집트는 아유조(Ayyubid) 치하에 있었다. 아유조가 다스렸던 또 다른 지역인 시리아에는 리파이 종단을 신봉하던 아부 무함마드 알리 알 하리리가 13세기에 활약했는데, 결국 그는 하리리야(Haririyya)라는 새로운 분파를 만들었다. 한편 시리아에서는 사디아(Saʿdiyya)라는 또 다른 분파가 있다. 이는 셰이크가 말을 타고 추종자들을 짓밟는 독특하고 과장된 의식을 하는 분파로 알려져 있다. 이 종파는 13세기에 이집트에서 성행하여 셰이크가 아유 조의 후손과 혼인을 하기도 했는데, 아유 조는 곧 멸망했다.

한편 리파이 종단은 13세기~14세기에 튀르키예에서도 유행했다. 20세기까지도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데, 이븐 바투타는 아나톨리아의 몇몇 도시에서 리파이 종단과 관련된 성지를 방문했고, 메블레위 종단의 아플라키(Aflākī)는 과거 이븐 할리칸 등이 보았던 리파이 종단의 ‘불위

건기’, ‘뱀 삼키기’ 등등 과장된 의식에 대해 기록을 남겼다. 이는 리파이 종단영묘 중에 하나가 코니야(Konya)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 종단은 코니야를 통해 발칸반도로 확산되었고, 흑해를 돌아 킵차크 칸국에 이르렀다. 한편 북아프리카 마그리브에 전해진 리파이 종단은 16세기 이사 위야(Isāwiyya)와 같은 종단에 영향을 끼치기도 했다.

이후 리파이 종단은 카디리야 종단의 유명세에 가려졌으나, 18세기에 다시 카이로를 비롯한 이집트에서 흡인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근세 무슬림 국가인 오스만 상위 계층에게는 뱀을 삼키고, 불 위를 걸어다니는 등의 기행이 다소 시대착오적으로 비쳤고, 당시 이집트의 최고 무프티는 파트와로 그들의 의식을 금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민간에서는 여전히 신봉자가 있었고, 이것이 서구 방문자들의 눈에 부정적으로 비추어지기도 했다.

『이슬람의 수피 종단들(The Sufi Orders in Islam)』을 저술한 Trimmingham은 리파이 종단의 수많은 분파에 대해 정리했다. 저자는 리파이 종단을 수피 계열 중의 하나로 소개했다. 또, 많은 성지(Zāwiyya)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창시자 아흐마드 리파이의 가르침은 가문을 통해 계보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리파예 종단, 리파이예 종단

● 다국어 표기 Rifaiyye(튀르키예어), رفعية(아랍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J. Spencer Trimmingham, *The Sufi Orders in Islam* (Oxford: Clarendon Press, 1971).

C. E. Bosworth, “RIFA’IYYA,” *Encyclopaedia of Islam* 8 (Leiden: Brill, 1995, pp.525~526).

‘투르크 인문백과사전 DB 구축’ 연구용역 개요

사업명

토대연구지원사업

연구과제명

투르크 인문백과사전 DB 구축

과제번호

NRF-과제번호 2018SIA5B4060291

연구기간

2018.7.1. ~ 2023.6.30.

연구수행기관

동덕여자대학교 유라시아투르크연구소

지원기관

한국연구재단

연구책임자 & 대표집필자

오은경 동덕여자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유라시아투르크연구소 소장

집필자

강덕수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어과 명예교수

강인욱 경희대학교 사학과 교수

김근식 중앙대학교 유럽문화학부 명예교수

김재윤 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김홍중 고려대학교 러시아CIS연구소 연구교수

박현도 서강대학교 유로메나연구소 대우교수

송경근 전 명지대학교 아랍지역학과 교수
 양민지 부산외국어대학교 지중해지역원 HK교수
 우덕찬 부산외국어대학교 터키·중앙아시아학과 교수
 이수정 서강대학교 유로메나연구소 학술연구교수
 이양희 한국외국어대학교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 특임강의교수
 이영희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학과 특임강의교수
 이은정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교수
 이주연 경희대학교 한국고대사고고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
 장주영 동덕여자대학교 유라시아투르크연구소 연구원
 조성금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교수
 최선아 동덕여자대학교 유라시아투르크연구소 연구원
 추영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HK+ 국가전략사업단 HK연구교수
 황영삼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
 Guzal Mihrayeva(구잘 미흐라예바) 한국학 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국문학과 박사수료

집필 자문위원

Bədirxan Əhmədli(배드리한 애흐메들리) Baku Slavic University(Azerbaijan) 교수
 Əli Şamil(엘리 샤밀) National Academy of Science(Azerbaijan) 교수
 Nükhet Okutan Davletov(누크헤트 오쿠탄 다블레토브) Cappadocia University(Turkey) 교수
 Metin Turan(메틴 투란) KIBATEK(Cyprus-Balkans-Eurasia Turkish Literature Institute) 회장
 Vaqif Sultanlı(와기프 술탄르) Baku National University (Azerbaijan) 교수

멀티미디어 자문위원

Jabbor Eshonqulov(잡보르 에손쿨로프)
 Literature Museum named after Alisher Navoiy(Uzbekistan) 관장

표기법 자문위원

손영훈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과 교수
 연규석 한국외국어대학교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 명예교수
 윤시내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 연구소 초빙 연구원

Aziza Bekmatova(아지자 벡마토바)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인 전임교수

Қайрат Жадыра(카이라트 자디라) L.N. Gumilyov Eurasian National University(Kazakhstan) 교수

감수

김상철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

박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 객원교수

손영훈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학과 교수

연상흠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학과 강사

자료 번역

최정안 Erciyes University(Turkey) 박사수료

Leyla Masimli(레이라 마심리) 인하대학교 교육학 박사

DB 전문가 자문 및 실무 작업

전정훈 동덕여자대학교 정보과학대학 교수

김현정 서울대학교 언어학 박사

이성지 동덕여자대학교 재학생

행정 담당 조교

유경혜 동덕여자대학교 재학생

홍한해 동덕여자대학교 재학생

이연정 동덕여자대학교 재학생

『투르크학 인문 대사전』 집필진 및 자문위원 소개

<대표 집필자 & 편집위원장>



오은경

한국의국어대학교 터키어과를 졸업하고 튀르키예 하제테페 대학교에서 비교문학과 튀르키예 문학으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어 한국학중앙연구원 초빙연구원으로 연구하면서 박사 후 과정(Post-doc)을 마쳤고, 우즈베키스탄에서 구비문학 연구로 인문학 국가박사학위(Doctor of Science)를 취득했다. 튀르키예 국립 앙카라대학교와 우즈베키스탄 니자미 사범대학교에서 한국학을 강의했다. 현재는 동덕여자대학교 교양대학 교수이며, 유라시아 투르크 연구소 소장이다. 주요 저서는 『이슬람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 『베일 속의 여성 그리고 이슬람』, 『튀르키예 한국전쟁문학론(튀르키예어)』, 『20세기 튀르키예와 한국 소설 속의 여성(영어, 튀르키예어, 아제르바이잔어)』, 『한국과 우즈베크 영웅서사시·신화, 주몽과 알퍼므쉬 비교(러시아어, 우즈베크어)』 등이다.

<집필진>



강덕수

한국의국어대학교 노어과를 졸업하고, 위스콘신 대학교(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한국의국어대학교 서양어 대학 노어과 명예교수이자 러시아 북동연방대학교 교수이며, 한국사학 친선협회 회장직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는 『예벤어의 형태와 구조 (한국의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2018.1)』, 『The Sakha (Yakut) language: An Analytic Grammar (with G. Torotoev). H Press. 2023』 등이다.



강인욱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에서 학부와 석사를 졸업하고 러시아과학원 시베리아분소 고고민족학 연구소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경희대학교 사학과 교수 및 한국고대사고고학연구소 소장이자이다. 유라시아와 고조선의 고고학이 그의 전공이다. 『우리의 기원: 단일하든 다채롭든』, 『옥저와 읍루』, 『북방고고학개론』, 『강인욱의 고고학 여행』, 『테라 인코그니타』, 『유라시아 역사 기행』 등의 저서와 100여 편의 논문이 있다.



김근식

한국의국어대학교 노어과를 졸업했으며, 동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중앙대학교 유럽문화학부 교수와 한국노어노문학회 회장을 역임했고, 현재는 중앙대학교 명예교수이다. 주요 논문으로 『아이트마토프 작품의 주제발현 연구(박사학위 논문)』, 『전환기 러시아 문학출판 연구』, 『90년대 러시아 문학의 개성화 연구』, 『러시아 문학 이데올로기의 향방 연구』, 『러시아 정교회와 반체제 및 민족주의』 등이 있으며, 저서로 『이동 동사를 활용한 러시아어 작문』(1999), 역서로 『하얀 배』(1983, 아이트마토프), 『공산주의의 종언』(1992, 야코블레프, 공역), 『아버지 金』(1994, 아나톨리 김) 등이 있으며, 러시아어로 번역한 『천둥소리』(1999, 김주영)가 있다.



김재윤

부산대학교 고고학과 졸업 후 러시아과학아카데미에서 역사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는 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 부교수이다. 주요저서는 『접경의 아이덴티티: 동해와 신석기문화』, 『교과서 밖의 역사: 유라시아 초원 스키타이 문화의 미래와 여신상』, 『환동해 문화권 북부지역의 선사문화: 연해주선사고고학개론』 등이 있다. 역서는 『러시아연해주와 극동의 선사시대』(2018년 세종도서 학술부문 수상), 『러시아 연해주의 성(城)유적과 고대 교통로』가 있다.



김흥중

중앙대학교 노어과를 졸업하고, 게르첸 러시아 국립사범대학 러시아 문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고려대학교 러시아 CIS 연구소 학술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논문은 「러시아 모더니즘 문학과 몽타주」, 「러시아 각색영화의 특수성과 문화적 의미」, 「자마찐의 '예술 산문 기술 강의: 연상의 시학과 세계 인식」, 「러시아-소비에트 튀르크 문학 연구의 성과와 의미」, 「일본 태양의 근원과 소비에트 오리엔탈리즘」 등이 있다. 2004년부터 러시아 문학, 지역학, 예술 이론 관련 연구 및 강의하고 있다.



박현도

서강대(종교학, 학사), 캐나다 맥길대(이슬람학 석사, 박사수료), 이란 테헤란대(이슬람학, 박사)에서 공부했다. 현재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대우교수로 재직 중이다. 외교부 정책자문위원, 법무부 국가개항정보 자문위원, 문화체육관광부 공직자종교차별예방교육 전문 강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술로 Studies in Islamic Historiography(공저, Brill, 2019), 『이슬람의 모든 것: 이슬람에 관한 122개의 질문과 대답』(공역, 바오, 2020) 등이 있다.



송경근

한국의국어대학교 아랍어과를 졸업했고, 이집트 알 아즈하르 대학교 역사와 문명과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국이슬람학회 회장, 조선대학교 외국어대학 아랍어과 학과장, 동 대학 부학장을 역임했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는 『중동지역 연구』(조선대학교 출판부, 2000), 『케임브리지 이슬람사』(공동번역, 시공사, 2002), 『고등학교 아랍 문화』(교과서 교육인적자원부, 2003), 「이집트 무슬림 형제단의 성장, 투쟁, 사회적 역할 및 제도권 진입에 관한 연구」, 「오만의 이슬람과 그 전망」, 「몽골의 동부 이슬람 세계의 침입」, 「한국의 이슬람사」, 「중국의 이슬람」, 「기독교와 이슬람의 역사적 관계」 외 다수가 있다.



양민지

한국외국어대학교 터키어과 졸업 후 동 대학교에서 터키문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터키 국립 에르지예스대학교 터키어문학과에서 투르크민속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부산외국어대학교 지중해지역원 HK교수로 재직 중이며, 지중해 지역원 산하 인문학 센터장을 맡고 있다. 지중해 지역 문명교류 및 투르크 민속에 대해 연구 중이다. 『터키를 가다(공저, 2018)』, 『투르크 지역 연구(공저, 2018)』, 『지중해문명교류사전(공저, 2020)』, 『7인의 전문가가 본 시칠리아의 문명 교류(공저, 2021)』, 『동지중해 결혼 문화와 전통(공저, 2022)』, 『아시아 카펫문화 연구(공저, 2022)』 등의 저서와 논문이 있다.



우덕찬

한국외국어대학교를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정치학 석사, 튀르키예 하제테페 대학교에서 역사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부산외국어대학교 튀르키예어(터키어)전공 교수 및 학과장으로 재직 중이다. 『중앙아시아사 개설』, 『지역연구와 세계 단위론』, 『지역연구의 방법』, 『터키어 표준교재 A2』, 『터키어 표준 교재 B2』, 『튀르키예어 속어사전(TÜRKÇE DEYİMLER SÖZLÜĞÜ)』 등 10여 편의 저역서와 60편의 논문이 있다.



이수정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학사와 석사를 취득하고, 같은 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에서 중동·아프리카학 박사를 취득했다. 육군3사관학교에 강의전담 교수로 근무했고, 현재 서강대학교 유로메나 연구소 학술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의 무슬림 역사와 이주 무슬림을 주로 연구한다. 대표 저서로는 『타인을 기록하는 마음』이 있고, 대표 논문으로는 「악셀 호네트 '인정투쟁' 관점으로 본 한국 내 이주 무슬림의 생존 전쟁」, 「난민의 식탁(Refugee Cuisine): 안보를 넘어 공존의 범주로」가 있다.



이양희

한국외국어대학교 터키어과 졸업 후 동 대학에서 터키언어학 석사과정을 마쳤다. 튀르키예 앙카라 대학교에서 언어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 한국외국어대학교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에서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했으며,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 특임강의교수로 터키어를 가르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인지의미론, 대조언어학, 외국어로서 튀르키예어 교육이며, 『Kavramsal Metafor Ve Metonimi Üzerine Uygulamalar (2023)』의 집필진으로 참여하였다. 저서로는 『처음 배우는 튀르키예(터키)어 (한국외대, 2023)』가 있다.



이영희

동의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학과에서 석사과정을 마쳤다. 이후 튀르키예 앙카라대학교 역사학과에서 오스만 제국 데브쉬르메 제도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학과에서 특임강의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주된 연구는 오스만 제국 데브쉬르메 제도, 베지리아잠(Vezir-i a'zam) 관련이며, 현재 일 칸 붕괴 이후 중동지역의 국제정치적 변화 과정 및 오스만 제국-사파비 제국 관계사를 연구하고 있다.



이은정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오스만 제국사를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교수이며 아시아언어문명학부 학부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Guild Dynamics in Seventeenth-Century Istanbul: Fluidity and Leverage (Leiden: Brill, 2004)』,『오스만 제국 시대의 무슬림-기독교인 관계(민음사, 2018)』, 역서로는『마셜 호지슨의 세계사론: 유럽, 이슬람, 세계사 다시보기(사계절, 2006)』,『메흐메드 알리: 오스만 제국의 지방 총독에서 이집트의 통치자로(일조각, 2016)』가 있다.



이주연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물리교육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의 동양사학과에서 석박사과정을 졸업했다. 전공은 중앙아시아사이며, 그중에서도 페르시아어로 된 사료를 주로 연구하고 있다. 박사과정 중에 이란 테헤란 대학교 부설 어학기관인 데흐호더에서 어학 과정과 문학 과정을 수료했으며, 박사논문으로 14세기 후반에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를 점령했던 아미르 티무르의 역사서, 『승전기』를 역주했다. 현재 경희대학교 한국고대사·고고학연구소에서 연구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장주영

동덕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튀르키예 국립 하제테페대학교에서 튀르키예어-한국어 비교언어학으로 석사, 동 대학 투르크학 연구소에서 언어학(고대 투르크어)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동덕여자대학교 유라시아투르크연구소에서 전임 연구원으로 근무했으며, 현재 우송대학교에 출강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고대 투르크어, 튀르키예어, 언어학이다. 저서로는『나 혼자 간다! 여행 터키어(문예림, 2016)』,『평등한 언어 세상을 위한 시작 터키어 첫걸음(언어평등, 2020)』,『단단한 언어 성장 튀르키예어(터키어) 초중급(언어평등, 2023)』이 있다.



조성금

중아시아 불교회화 및 불교 도상의 기원에 관해 연구하고 있다. 성신여대 대학원 미술사학과에서 석사를 마친 후(2003), 동국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에서 '천산 위구르 왕국의 불교회화 연구'로 박사(2013)를 마쳤다. 현재까지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동국대학교 대학원 불교미술학과 등에서 불교회화 및 동서 미술 교섭사를 강의하고 있다. 저서로는 『실크로드의 대제국 천산 위구르왕국의 불교회화(진인진, 2019)』가 있다.



최선아

한국외국어대학교 터키어과를 졸업하고, 튀르키예 국립 앙카라대학교에서 미술사로 석사와 박사를 받았다. 동덕여대 유라시아투르크연구소 연구원으로 일했다. 현재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에 출강하고 있다. 주로 건축사 분야를 연구하고 있으며, 문명 교류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 저서로는 『투르크-알타이: 터키 중아시아 몽골의 사회와 문화(공저)』, 『투르크-중아시아: 투르크민족의 문화 이야기(공저)』 등이 있다.



추영민

카자흐스탄의 L.N 구밀료프 유라시아 국립대학교에서 지역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아시아과 특임강의교수로 있다. 주요 저서로는 『The Model of Interethnic Communication of Kazakhstan-Assembly of People of Kazakhstan(APK)』, 『South Korea and Kazakhstan: Particularities of Cultural and Humanitarian Cooperation』, 『소련 붕괴 이후 KVN 변천 및 확대 과정을 통해 본 21세기 중아시아 방송 대중문화 현상의 특징과 변화: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 등이 있다.



황영삼

한국외대 영어과를 졸업하고, 대학원 국제관계학과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획득했다. 러시아학술원 산하 러시아역사연구원(모스크바) 객원연구원(1996), 알파라비 카자흐 국립대학교 한국학과(알마티) 초빙교수(2005년~2006년),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책임연구원(1999년~2005년)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이다. 주요 저서로 『지신허에서 모스크바까지 -고려인 동포 쉽게 이해하기 (ebook, 유페이퍼, 2023)』, 『1인치의 장벽을 넘어서- 독립 카자흐스탄의 고려인 사회 (공저, 2020)』 등이 있다. 현재 러시아 및 중아시아 역사와 고려인 문제를 연구하고 있다.



Mihrayeva Guzal
Nuralievna

구잘 미흐라예바 누르알리에브나.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니자미 사범대학교 한국어학과 졸업했다.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2015).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 과정을 수료했으며(2019), 현재는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고 있다. 동덕여자대학교 유라시아투르크연구소에서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자문위원>



Bədirxan Əhmədli

배드리한 애흐메들리. 바쿠 슬라브 대학교 아제르바이잔 문학 교수이며, 아제르바이잔 국립아카데미 니자미 갠재비 문학연구소 아제르바이잔-아시아 센터장이다. 『사비트 레흐만의 풍자성 연구(Sabit Rehmanın satirası)』, 『아제르바이잔 풍자문학 발전의 과제들(Azərbaycan satirasının inkişaf problemləri)』, 『20세기 아제르바이잔 문학사(XX əsr Azərbaycan ədəbiyyatı tarixi)』, 『아제르바이잔 디아스포라 문학의 구조와 문제점 그리고 성격(Azərbaycan mühacirət ədəbiyyatı. Təşəkkülü, problemləri, şəxsiyyətləri)』의 문학이론과 아제르바이잔 문학에 관한 다수의 저술과 논문이 있다.



Əli Şamil

엘리 샤밀. 1973년 아제르바이잔 국립대학교 저널리즘 학부를 졸업했다. 1998년부터 아제르바이잔 국립 과학 아카데미 민족연구소 연구원으로 근무했고, 2007년부터 대외관계부서장을 맡고 있다. 『북사이프러스(Quzey Kıbrıs, 2001)』, 『위구르, 가가우즈, 북사이프러스 투르크인들의 민족과 문학(Uyğur, qaqauz, Quzey Qafqaz türklərinin folkloru və ədəbiyyatı, 2011)』, 『카쉬가이 민족과 민족(Qaşqaylar və onların folkloru, 2020)』외에도 전 세계 20여개 국에서 20편의 저서, 100편이 넘는 학술 논문 그리고 200여 편의 칼럼을 집필했다.



Nükhət Okutan
Davletov

누크헤트 오쿠탄 다블레토프. 하제테페 대학교 투르크학 연구소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카파도키아 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샤머니즘, 고대 투르크 비문, 이슬람 이전 투르크 문화, 투르크 및 그리스 신화에 대한 학부 및 대학원 수업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권 사르으 한: 하카스 여성 서사시 번역(Kün Sarıǵ Han: Bir Hakas Kadınının Destanı adlı destan çevirisi, 공저, 2021)』, 『하카스 투르크 족의 샤머니즘과 죽음(Hakas Türklerinde Şamanizm ve Ölüm, 2021)』 등이 있다.



Metin Turan

메틴 투란. 2005년부터 2006년까지 키예프 국립대학교에서 투르크 문학을 강의했으며, 2007년부터 2013년까지 튀르키예 이을드즈(Yıldız) 공과 대학교 예술과학부에서 민속문학을 가르쳤다. 현재는 KIBATEK(사이프러스·발칸·유라시아·튀르키예 문학협회) 회장직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아시옥 웨이셀의 삶과 예술(Aşık Veysel-Yaşamı ve Sanatı, 1992)』, 『민속 문화(Halk Kültürü, 2005)』, 『코르오울루의 삶과 시(Koroğlu Hayatı-Şiirleri, 2017)』, 『카르스 민속문화와 문학(Kars Halk Kültürü ve Edebiyatı, 2019)』 등이 있다.



Vaqif Sultanlı

와기프 술탄르. 아제르바이잔 바쿠 국립대학교를 졸업하고, 동 대학 문학과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99년부터 바쿠 국립대학교에서 아제르바이잔 문학사 교수로 재직 중이다. 대표 저서로는 『메메트 에민 레슬자데의 문학세계(Mehmet Emin Resulzade'nin edebi dünyası, 1993)』, 『어려운 길을 걷는 자(Ağır yolun yolçusu, 1996)』, 『자유의 지평선(Azadlığın ufukları, 1997)』, 『아제르바이잔 디아스포라 문학(Azərbaycan mühaceret edebiyatı, 1998)』, 『문학이론 단면(Edebi nazari illüstrasiyalar, 2000)』, 『아제르바이잔 문학비평(Azərbaycan edebi tenkidi, 2012)』 등이 있다.

투르크학 인문 대사전 I

Encyclopedia of Turkic Humanities I

1쇄 인쇄 2023년 12월 11일

1쇄 발행 2023년 12월 11일

저자

오은경, 강덕수, 강인욱, 김근식, 김재윤, 김홍중, 박현도, 송경근, 양민지, 우덕찬, 이수정, 이양희, 이영희, 이은정, 이주연, 장주영, 조성금, 최선아, 추영민, 황영삼, Guzal Mihrayeva

자문위원

Bədirxan Əhmədli, Əli Şamil, Nükhet Okutan Davletov, Metin Turan, Vaqif Sultanlı

편집위원

오은경(위원장), 류수, 장주영, 최선아

편집·교정·교열

류수(총괄), 심명석, 하윤정, 박세화, 유현우, 이주희, 전기준

표지 & 북 디자인

이재성

발행처

동덕여자대학교 유라시아투르크연구소

디자인·인쇄

위애드컴

출판등록

제 2017-000010호

전자책 ISBN

발권 979-11-985841-2-0 (05030)

세트 979-11-961536-3-2 (05030)

© 유라시아투르크연구소, 2023

- 이 책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사용하려면 반드시 유라시아투르크연구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특히 사진의 재사용은 엄격히 제한합니다.
- 이 책은 한국연구재단 토대연구지원사업인 투르크 인문백과사전 DB 구축 (2018.7.1~ 2023.6.30, NRF-과제번호 2018SIA5B4060291)의 결과물이며, 그 연구비로 제작되었습니다.
- 잘못된 내용 수정이나 보완 요청 등 이 책에 관한 모든 문의는 이메일 eurturc@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매품



9 791198 584120 05030
ISBN 979-11-985841-2-0 (PDF)
ISBN 979-11-961536-3-2 (세트)

© 유라시아투르크연구소, 2023